연구보고 17-R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RESEARCH REPORT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

책임연구원 **윤철경**
공동연구원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박예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윤효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2013년부터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201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들이 학업중단 후 어떠한 이행경로를 거쳐 성인기로 들어서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학교를 벗어나 성인기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보태고자 시도되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은 구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패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탐색하였고 그들에게 맞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2013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혜를 받고 있는 지가 연구의 관심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사, 센터별 신규 패널의 구축 등을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 학교밖지원센터 관계자,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와 조사를 직접 담당해주신 학교밖 지원센터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 년 동안 어려운 조사를 맡아 주신 한국리서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변화, 이행경로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꿈드림센터에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실태 및 참여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와 청소년패널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 조사를 통해 거주지 규모별,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 꿈드림센터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꿈드림센터에 연계한 청소년 패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소년사례관리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꿈드림센터 이용동기와 실태, 만족도 등이 이행경로, 거주지, 신·구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 지, 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국제심포지엄과 국외 출장을 실시해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유지율은 80% 수준으로 별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별 특성을 보면 대도시 청소년은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의 학업특성을 보이는 데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은 학업중단상태로 머무는 경향이 있었고 도시 청소년에 비해 동기가 낮고 진로도 미결정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청소년은 자신의 역량에 비해 비현실적이며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놀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등 진로지도가 필요했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이에 비해 동기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 청소년들은 원하는 것을 많이 피력하지만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셋째, 이행경로별 볼 때 무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학업형으로의 전환이 있었고 직업형 청소년 중에 무업형으로 전환한 청소년이 있었다. 넷째, 꿈드림 센터 참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형 청소년일수록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센터 서비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꿈드림센터의 이용실태를 보면 검정고시 등 학업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공률이 낮았다. 외부기관 연계에서도 취업관련 기관 연계는 적은 편이었다.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7~18세 학령기 40만 명, 19~24세 37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무업 학교밖청소년의 규모는 15~19세가 5만1천명이었다. 여섯째,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는 무업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이 빈약하다. 향후 무업청소년이 사회체계에 빨리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영역에서 모두 2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섯 개의 영역은 첫째, 무업청소년지원대책, 둘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셋째,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넷째, 지역정책강화, 다섯째,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화와 영역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정책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5차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와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행경로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 4차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난 1년 간 이행경로의 변화와 결정요인을 파악함.
- 또한 꿈드림센터에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과를 분석하여 꿈드림센터의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무업청소년에 대한 국가별 현황과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하였음.
- 전문가 자문
  - 무업청소년의 규모 산출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및 맞춤형 대책연구의 연구진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양적 연구
  - 기존 구축 패널의 5차년도 조사를 진행하였음.
  -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질적 연구

– 꿈드림센터 참여자 중 이용 유지자, 이용 중단자,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동기 및 실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음.

– 패널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음.

○ 국외출장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지원정책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2곳을 방문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학교 밖 청소년 중 특히 무업청소년(NEET)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EU, 영국, 이스라엘,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외 지원정책 사례를 정리함.

3. 주요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이동과 거주지 규모별 특성

– 거주지별 규모 및 이동: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58%는 대도시에, 31.1%는 중소도시, 11.6%는 읍면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며 지난 5년 간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0% 미만이었음.

– 거주지 규모별 학업적 특성: 학업중단 후 5년차인 학교 밖 청소년 중 45.6%는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이었으며 나머지는 학업중단 상태가 아니었음. 이 중 42%는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을 한 상태였음.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60% 이며 읍면지역 65.2%, 대도시 58.9%, 중소도시 59.2%로 읍면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 규모별 직업훈련 및 근로경험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아르바이트, 취업 등의 근로경험으로 응답자의 58.5%였으며, 직업훈련 경험은 6.3%에 불과함. 직업훈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사관학교 순으로 나타남. 직업훈련 참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도시는 흥미・적성 부합여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취업가능성임.

- 거주지 규모별 무업적 특성; 무업의 이유로 대도시는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28.0%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하고 싶은게 없어서'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 규모별 진로관련 특성: 주 진로탐색은 부모님(또는 주위사람들)과의 대화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상담은 16.0%에 불과함.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 미결정자는 25.5%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결정자는 읍면지역이 32.4%로 가장 많았음.
- 거주지 규모별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 심리정서는 2.66, 자아존중감 2.97, 자아탄력성 2.77, 생활만족도 2.59 등이며 부정적 심리정서 2.09, 사회적 낙인감 1.94, 충동성 1.78, 스마트폰 중독 1.68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 차이는 우울감에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이었음.
- 거주지 규모별 일상생활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일 평균 7.45시간, 휴일 평균 8.65시간 수면을 취했으며 주 5회 이상 결식률은 아침이 45.3%로 가장 높았음. 주거지는 부모님 집이 71.1%, 자취 17.3% 등으로 나타남.
- 제도적으로 도움 받은 경험: 학업중단 후 지역사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대도시 53.3%, 중소도시 60.0%, 읍면지역 56.8%였으며 멘토를 만난 주요 기관은 청소년시설 17.1%, 학원 16.7%, 상담기관 16.0% 순으로 나타남. 꿈드림센터 연계 청소년들이 받은 서비스는 진로상담 62.7%, 심리상담 37.3%, 생활정보 제공 35.3%, 취업지원 21.6% 등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은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는 이유로 대도시는 시간 또는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가 많은 반면 읍면지역은 센터가 너무 멀어서가 높게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 가장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지원(23.6%)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15.1%), 진로상담(12.9%), 심리상담(12.6%), 취업지원(11.0%)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경제적 지원을, 읍면지역은 심리 상담과 취업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도별 차이 분석

- 연도별 차이: 전년도 대비 올해 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복학, 검정고시

공부, 대입공부 등 학업관련 경험이 줄고, 아르바이트/취업, 군 복무 경험이 증가한 점임.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 중단 횟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개인·환경적 특성에서는 SNS 가해경험과 부모의 학대가 감소함. 친구관계에서 학업 중단 친구 수와 친구의 비행성향이 감소함.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돈내기 도박 등 비행경험이 감소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험률이 감소하였음.

- 성별·연도별 차이: 여자 청소년들의 대학 재학률, 4대보험 가입률,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업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탐색 등의 활동이 더 많아짐.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충동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음.
- 이행경로의 변화: 전년도 이행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학업형 76.7%, 직업형 74.2%, 무업형 49.1%로 무업형이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직업형 34.8%, 학업형 17.0%의 전환이 일어남. 반면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의 전환 18.0%, 학업형에서 직업형으로의 전환 17.2% 일어남. 전체적으로 학업형 46%, 직업형 36.7%, 무업형 17.2%로 나타남. 직업형과 무업형 간의 상호 전환이 활발하게 나타남.
- 이행경로별·연도별 차이: 5차년도에 직업형 청소년의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가 증가한 반면 무업형 청소년은 이 비율이 현격히 감소함. 모든 유형에서 군 복무 경험이 증가했으며 직업형 청소년의 충동성이 증가함. 게임중독과 부모방임, 친구의 비행성향은 무업형의 평균이 감소함에 따라 5차년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필요한 도움에 있어서는 무업형의 정보제공,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늘었으며 학업형은 심리상담, 취업지원이 늘은 반면 직업형은 진로상담 욕구가 줄었음. 또한 무업형의 대학진학경험,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 일 경험이 감소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문항도 있었음.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심층분석 결과: 꿈드림센터 참여효과 분석

○ 꿈드림센터 이용집단 특성

- 남자일수록, 저연령일수록, 부모님 안계신 가정보다 양부모·한부모가정일수록, 경제수준이 '하'라고 인식할수록, 대도시·읍면지역일수록 센터 이용이 많았음.

○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변수

- 센터 이용 확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유익환경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일수록 낮게 나타남.

○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효과

– 꿈드림센터 이용은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은 학업형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고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춤. 무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무업형으로 남을 확률을 높이고 직업형으로 될 확률은 낮춤.

○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탈 및 계속 이용 관련 변수

– 이탈 청소년은 계속 이용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3)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실태

○ 사례관리자 응답을 통해 본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 중,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진학정보,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취업준비 교육, 진로계획 상담 등 8개 서비스는 사례관리자가 제공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 요청했지만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직업기술 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이며 요청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것은 의료정보 제공, 직업탐색 및 체험 서비스였음.

– 거주지 규모별로 볼 때,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였음.

○ 서비스 제공방법과 연계기관 실태

– 총 54개 서비스 중 50% 이상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는 36개였으며 50% 이상 외부 제공하는 서비스는 9개였음. 10회 이상 연계된 외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병원 및 약국,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사업장 등 10개 미만으로 나타남.

○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

–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진로 계획 상담, 신체 단련 자기개발 기회 제공, 취업상담, 진학 정보 제공, 대학입시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등임.

4)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 신·구 패널간 비교: 신규 패널은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꿈드림 센터를 알게 되고 검정고시, 취업,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센터에 온 반면 기존 패널은 선생님 외 가족, 홍보, 다른 기관 및 본 연구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되고 취업, 경제적 지원,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음. 센터에서 권유받은 서비스의 경우 기존패널은 자기 계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검정고시 등 다양한 권유를 받은 반면 신규패널은 건강검진이나 인턴활동을 권유받음. 사례관리자와의 만남은 신규패널이 많았음.
- 이행 경로 간 비교: 기존 패널에서 학업형 청소년은 센터가 학업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희망하였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었고 서비스 제공받은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직업형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원했으며 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무업형 청소년은 센터를 잘 모르고 기대없이 센터를 방문하였지만 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자와 이용 완료자, 이용 중단자 간 비교: 세 집단 간 센터 이용 목적과 서비스 평가에 차이가 있음. 특정 시점 종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은 서비스 종료 후 센터 이용 종료함. 센터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과 상담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참여한 경우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센터 이용 중단의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 상담자 교체 등이었음.

○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 꿈드림센터 현황 : 월 평균 이용 청소년은 대도시 A센터는 200명, B센터는 20명 이하로 응답함. 중소도시 센터는 70명, 읍면지역 센터는 30~40명으로 응답함. 검정고시 무렵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청소년은 월 평균 10~50명임.
-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성: 교육청 리스트를 통한 경우 적극성, 적응력이 낮으며 보호관찰소나 경찰 연계의 경우 비행성향과 부적응의 특성이 있음. 소개 또는 자발적 방문은 동기와 목표의식이 있음.
- 꿈드림센터 주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검정고시,

상담, 취업지원, 자기계발이었음.

- 꿈드림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영향요인: 서비스에 영향을 주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상담자의 역량, 고용안정성, 직무만족도였음. 독립적인 공간과 센터장의 사업 추진 방향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거론됨.
- 업무상 애로사항 및 개선노력: '출석 관리 및 중도탈락자 발생', '업무 부담',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 등이 애로사항으로 거론됨
- 개선요구사항: 센터 발전을 위해 센터 간 인건비 격차, 인력 대비 과중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5)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국내외 정책현황 비교 및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과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013년부터 최근 3개년 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임. 7~18세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됨. 19~24세 청소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은 최소 37만 명(8.8%)으로 추정됨.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016년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은 총 5만 1천명(15~19세: 2만 3천명, 20~24세: 2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무업청소년의 규모는 2014년 이후 최근 3년 간 비교적 급격히 상승함(15~19세 2.8%에서 3.9%, 20~24세 12.2%에서 13.4%). 또한 고졸미만 무업청소년의 경우 비구직 무업청소년이 많은 특징이 있음(15~19세의 91%, 20~24세의 89%).
- 무업청소년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15~19세에서 24위(7.7%), 20~24세에서 30위(22.2%), 25~29세에서 28위(24.5%)임. OECD 평균(각각 27.1%, 20.5%, 18.2%) 보다 무업 청소년 비율이 높은 편임.

○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던, 학교를 떠나던 만 18세까지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보장이 필요함.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청소년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소재 기업, 대학, 학교 등 지역사회 파트너십, 고용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여부가 무업 청소년의 사회 재편입에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의 무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기반정책과 이미 학교를 나온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기반정책을 함께 구축해야 함.
- 원거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업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함

4. 정책제언

○ 무업 청소년 지원대책 강화

과제 1. 청소년 사회보장제 실시

과제 2. 무업청소년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과제 3. 무업청소년의 분류를 통한 지원체게 구축

과제 4. 무업청소년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진로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강화

과제 5. 고졸이하 청소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제 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과제 7. 일・학습병행제 TYPE Ⅱ 개발

과제 8.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로 운영

○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과제 9.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과제 10.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과제 11.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과제 12. 가정방문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과제 13.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 지역정책 강화

과제 14. 청소년 데이터 허브 시범 운영

과제 15. 지자체가 중심이 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과제 16.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투자 필요

과제 17. 지역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 강화

○ 전달체계: 꿈드림센터 강화

과제 18. 꿈드림센터의 통합 또는 분리·독립 추진

과제 19. 꿈드림센터의 업무 설계

과제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 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과제 21.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시범 운영

과제 22. 꿈드림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 12

Ⅱ.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 17

1. 조사 개요 ····· 19
2. 거주지 규모별 기초분석 ····· 42
3. 꿈드림센터 참여 관련변수와 참여효과 ····· 148

Ⅲ.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 ····· 159

1. 조사 개요 ····· 161
2. 분석 결과 ····· 167
3. 시사점 ····· 221

Ⅳ.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분석 ····· 225

1. 조사 개요 ····· 227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32
3. 담당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 280
4. 청소년과 사례담당자 인식 비교 ····· 342
5. 요약 및 시사점 ····· 351

Ⅴ. 학교 밖 청소년 규모파악과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361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363
2.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 372
3. 무업청소년(NEET) 규모 ····· 384
4.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400
5. 국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41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437
1. 요약 및 시사점 ····· 439
2. 정책제언 ····· 463

참고문헌 ····· 477

부 록 ····· 485

표 목차

〈표 Ⅰ-1〉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목표 표본수 ····· 9
〈표 Ⅰ-2〉 본 패널 및 신규패널 꿈드림센터 사례조사지 회수 현황 ····· 10
〈표 Ⅰ-3〉 사례조사지 회수 꿈드림센터 특성 ····· 11
〈표 Ⅱ-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조사성공 표본수(4차년도~5차년도) ···· 19
〈표 Ⅱ-2〉 5차 조사 이탈사유 ····· 20
〈표 Ⅱ-3〉 연차별 조사 참여자 현황 ····· 21
〈표 Ⅱ-4〉 1~5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 21
〈표 Ⅱ-5〉 1차년도와 5차년도 거주지 이동현황 ····· 34
〈표 Ⅱ-6〉 거주지별 유지율 ····· 34
〈표 Ⅱ-7〉 거주지 이동여부별 인구학적 특성 ····· 35
〈표 Ⅱ-8〉 이행경로별 변화 ····· 39
〈표 Ⅱ-9〉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1
〈표 Ⅱ-10〉 중단/복교상태 ····· 42
〈표 Ⅱ-11〉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여부 ····· 43
〈표 Ⅱ-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방법 ····· 44
〈표 Ⅱ-13〉 복교 경험 ····· 45
〈표 Ⅱ-14〉 재중단 경험 ····· 46
〈표 Ⅱ-15〉 중단 후 경험실태 ····· 48
〈표 Ⅱ-16〉 대안학교 유형 ····· 49
〈표 Ⅱ-17〉 검정고시 공부 방법 ····· 50
〈표 Ⅱ-18〉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 51
〈표 Ⅱ-19〉 검정고시 합격 여부 ····· 52
〈표 Ⅱ-20〉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 53

〈표 Ⅱ-21〉 진학한 대학의 학제 ····· 54
〈표 Ⅱ-22〉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 55
〈표 Ⅱ-23〉 전공계열 ····· 56
〈표 Ⅱ-24〉 학년 ····· 57
〈표 Ⅱ-25〉 재학상태 ····· 58
〈표 Ⅱ-26〉 휴학 사유 ····· 59
〈표 Ⅱ-27〉 중퇴 사유 ····· 60
〈표 Ⅱ-28〉 직업훈련 프로그램 ····· 61
〈표 Ⅱ-29〉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 62
〈표 Ⅱ-30〉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 63
〈표 Ⅱ-31〉 자격증 취득 여부 ····· 64
〈표 Ⅱ-32〉 자격증 종류 ····· 65
〈표 Ⅱ-33〉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 66
〈표 Ⅱ-34〉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 67
〈표 Ⅱ-35〉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 68
〈표 Ⅱ-3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 69
〈표 Ⅱ-3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 70
〈표 Ⅱ-38〉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 71
〈표 Ⅱ-39〉 일(아르바이트) 경험 ····· 72
〈표 Ⅱ-40〉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 ····· 73
〈표 Ⅱ-41〉 근무기간 ····· 74
〈표 Ⅱ-42〉 구직 기간 ····· 75
〈표 Ⅱ-43〉 주된 취업경로 ····· 76

〈표 Ⅱ-44〉 종사상 지위 ····· 77
〈표 Ⅱ-45〉 사업장 직원 수 ····· 78
〈표 Ⅱ-46〉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 79
〈표 Ⅱ-47〉 4대 보험 가입유무 ····· 80
〈표 Ⅱ-48〉 향후 전망 ····· 81
〈표 Ⅱ-4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82
〈표 Ⅱ-50〉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 83
〈표 Ⅱ-51〉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기간 ····· 84
〈표 Ⅱ-52〉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수당 ····· 85
〈표 Ⅱ-53〉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86
〈표 Ⅱ-54〉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 87
〈표 Ⅱ-55〉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여부 ····· 88
〈표 Ⅱ-56〉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 ····· 89
〈표 Ⅱ-57〉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 90
〈표 Ⅱ-5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 91
〈표 Ⅱ-59〉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 92
〈표 Ⅱ-60〉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 93
〈표 Ⅱ-61〉 진로정보탐색 ····· 94
〈표 Ⅱ-62〉 진로 장애 ····· 95
〈표 Ⅱ-63〉 향후 진로 계획 ····· 96
〈표 Ⅱ-64〉 진로 계획 달성 예측 ····· 97
〈표 Ⅱ-65〉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 98
〈표 Ⅱ-66〉 군 복무 계획 ····· 99

〈표 Ⅱ-67〉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 · 정서 ····· 100
〈표 Ⅱ-68〉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 101
〈표 Ⅱ-69〉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 102
〈표 Ⅱ-70〉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 104
〈표 Ⅱ-7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 108
〈표 Ⅱ-72〉 우울, 충동성 ····· 109
〈표 Ⅱ-73〉 게임 중독 ····· 110
〈표 Ⅱ-74〉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 ····· 111
〈표 Ⅱ-75〉 스마트폰 중독 ····· 112
〈표 Ⅱ-77〉 부모의 지원 ····· 113
〈표 Ⅱ-78〉 부모의 방임 · 학대 ····· 114
〈표 Ⅱ-79〉 친한 친구 수 ····· 115
〈표 Ⅱ-8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 116
〈표 Ⅱ-81〉 지역사회 ····· 117
〈표 Ⅱ-82〉 하루 생활시간-수면 ····· 118
〈표 Ⅱ-83〉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 ····· 119
〈표 Ⅱ-84〉 하루 생활시간 ····· 121
〈표 Ⅱ-85〉 취침 시각 ····· 123
〈표 Ⅱ-86〉 식생활 ····· 124
〈표 Ⅱ-87〉 현재 주거상태 ····· 125
〈표 Ⅱ-88〉 학력에 대한 생각 ····· 126
〈표 Ⅱ-89〉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127
〈표 Ⅱ-90〉 사회적 낙인감 ····· 128

〈표 Ⅱ-91〉 문제행동 피해경험 ····· 129
〈표 Ⅱ-92〉 비행경험 ····· 130
〈표 Ⅱ-93〉 장래 희망 ····· 131
〈표 Ⅱ-94〉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 132
〈표 Ⅱ-95〉 사례관리자와의 접촉빈도[M(SD)] ····· 133
〈표 Ⅱ-96〉 서비스 만족도 ····· 134
〈표 Ⅱ-97〉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 ····· 135
〈표 Ⅱ-98〉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 136
〈표 Ⅱ-99〉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 ····· 137
〈표 Ⅱ-100〉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38
〈표 Ⅱ-101〉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편리한 시간 ····· 139
〈표 Ⅱ-102〉 중단 후 경험실태 ····· 140
〈표 Ⅱ-103〉 개인적 · 환경적 특성 ····· 141
〈표 Ⅱ-104〉 일상생활 ····· 142
〈표 Ⅱ-105〉 성별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 143
〈표 Ⅱ-106〉 이행경로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 146
〈표 Ⅱ-107〉 변수의 구성 및 내용 ····· 148
〈표 Ⅱ-108〉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개인배경 특성 분포 ····· 152
〈표 Ⅱ-109〉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심리변수 차이 ····· 152
〈표 Ⅱ-110〉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 변수 ····· 154
〈표 Ⅱ-11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16.6~'17.5) 관련 변인 (한계효과) ····· 156

〈표 Ⅲ-1〉 사례관리 조사 표본 ····· 162
〈표 Ⅲ-2〉 사례관리자의 인구학적 특성 ····· 163
〈표 Ⅲ-3〉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내용 ····· 163
〈표 Ⅲ-4〉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조사 참여 응답자 분포 ····· 166
〈표 Ⅲ-5〉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 전체 및 성별 분포 ····· 168
〈표 Ⅲ-6〉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 패널 유형 및 거주지 규모별 분포 ····· 172
〈표 Ⅲ-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 전체 및 성별 분포 ····· 176
〈표 Ⅲ-8〉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 패널유형 및 거주지 규모별 분포 ····· 181
〈표 Ⅲ-9〉 서비스 제공 방법 ····· 185
〈표 Ⅲ-10〉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 189
〈표 Ⅲ-1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계획 ····· 190
〈표 Ⅲ-12〉 서비스 제공 계획: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 193
〈표 Ⅲ-13〉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 빈도 ····· 195
〈표 Ⅲ-14〉 서비스 제공 이유 ····· 198
〈표 Ⅲ-15〉 서비스 제공 기간 ····· 201
〈표 Ⅲ-16〉 서비스 계획대로 제공 여부 ····· 204
〈표 Ⅲ-17〉 서비스 도움 정도 ····· 208
〈표 Ⅲ-18〉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 211
〈표 Ⅲ-19〉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 215
〈표 Ⅲ-2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8
〈표 Ⅲ-21〉 서비스 탈락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219

〈표 Ⅲ-22〉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교 ····· 222
〈표 Ⅳ-1〉 연구참여자의 분포 ····· 228
〈표 Ⅳ-2〉 연구 참여자(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 228
〈표 Ⅳ-3〉 연구 참여자(사례관리자)의 인구학적 특성 ····· 229
〈표 Ⅴ-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5년도) ····· 363
〈표 Ⅴ-2〉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2~2015학년도) ····· 366
〈표 Ⅴ-3〉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2~2015학년도) ····· 367
〈표 Ⅴ-4〉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 369
〈표 Ⅴ-5〉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 370
〈표 Ⅴ-6〉 2016학년도 거주지 규모별 학업중단율 ····· 371
〈표 Ⅴ-7〉 1997~2008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 372
〈표 Ⅴ-8〉 2015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 373
〈표 Ⅴ-9〉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5.12.31. 기준) ····· 374
〈표 Ⅴ-10〉 2015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 ····· 375
〈표 Ⅴ-11〉 2015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 376
〈표 Ⅴ-12〉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 377
〈표 Ⅴ-13〉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78
〈표 Ⅴ-14〉 1991~1996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초 · 중 · 고 과정 학생 수 ····· 380
〈표 Ⅴ-15〉 2006~2014 연도별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 ····· 381

〈표 Ⅴ-16〉 2010~2015년 방계학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수 ····· 382
〈표 Ⅴ-17〉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382
〈표 Ⅴ-18〉 무업청소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 384
〈표 Ⅴ-19〉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청소년의 규모 ····· 386
〈표 Ⅴ-20〉 모집병 · 현역병을 포함한 무업청소년 규모 ····· 387
〈표 Ⅴ-21〉 연도별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규모 변화 ····· 388
〈표 Ⅴ-22〉 OECD 15~19세 무업청소년 비율 순위(2013년 기준) ····· 397
〈표 Ⅴ-23〉 OECD 20~24세 무업청소년 규모 순위(2013년 기준) ····· 398
〈표 Ⅴ-24〉 OECD 25~29세 무업청소년 규모 순위(2013년 기준) ····· 399
〈표 Ⅴ-25〉 2017년 내일이룸학교 개설현황 ····· 402
〈표 Ⅴ-26〉 연도별 내일이룸학교 참여자 수 ····· 403
〈표 Ⅴ-27〉 2015~2016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실시현황 ····· 404
〈표 Ⅴ-28〉 2015~2016년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실시현황 ····· 405
〈표 Ⅴ-29〉 2016.12.29.기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현황 ····· 406
〈표 Ⅴ-30〉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대상 및 활동내용 ····· 409
〈표 Ⅴ-31〉 2016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현황 ····· 409
〈표 Ⅴ-3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현황('16.7~'17.3) ····· 410
〈표 Ⅴ-34〉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 ····· 413
〈표 Ⅴ-35〉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정책 ····· 415
〈표 Ⅴ-36〉 국가별 청소년보장 현황 ····· 420
〈표 Ⅴ-37〉 국가별 청소년 수당 및 급여 ····· 424
〈표 Ⅵ-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463

그림 목차

【그림 Ⅰ-1】 2개년간 연구내용(2016~2017년) ····· 7
【그림 Ⅰ-2】 연구조사 추진체계 ····· 12
【그림 Ⅱ-1】 조사도구 수정 · 보완절차 ····· 22
【그림 Ⅱ-2】 학교 밖 청소년 경험사건 분포(2016.6~2017.5) ····· 36
【그림 Ⅱ-3】 군집 개수 결정을 위한 주요 지표값 변화 추이 ····· 37
【그림 Ⅱ-4】 3개 군집별 경험사건 분포 ····· 38
【그림 Ⅱ-5】 3개 군집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 ····· 38
【그림 Ⅱ-6】 거주지 규모별 분포 ····· 41
【그림 Ⅱ-7】 중단/복교상태 ····· 42
【그림 Ⅱ-8】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여부 ····· 43
【그림 Ⅱ-9】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방법 ····· 44
【그림 Ⅱ-10】 복교 경험 ····· 45
【그림 Ⅱ-11】 재중단 경험 ····· 46
【그림 Ⅱ-12】 중단 후 경험실태 ····· 47
【그림 Ⅱ-13】 대안학교 유형 ····· 49
【그림 Ⅱ-14】 검정고시 공부 방법 ····· 50
【그림 Ⅱ-15】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 51
【그림 Ⅱ-16】 검정고시 합격 여부 ····· 52
【그림 Ⅱ-17】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 53
【그림 Ⅱ-18】 진학한 대학의 학제 ····· 54
【그림 Ⅱ-19】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 55
【그림 Ⅱ-20】 전공계열 ····· 56
【그림 Ⅱ-21】 학년 ····· 57
【그림 Ⅱ-22】 재학상태 ····· 58

【그림 Ⅱ-23】 휴학 사유 ····· 59
【그림 Ⅱ-24】 중퇴 사유 ····· 60
【그림 Ⅱ-25】 직업훈련 프로그램 ····· 61
【그림 Ⅱ-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 62
【그림 Ⅱ-27】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 63
【그림 Ⅱ-28】 자격증 취득 여부 ····· 64
【그림 Ⅱ-29】 자격증 종류 ····· 65
【그림 Ⅱ-30】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 66
【그림 Ⅱ-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 67
【그림 Ⅱ-32】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 68
【그림 Ⅱ-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 69
【그림 Ⅱ-34】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 70
【그림 Ⅱ-3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 71
【그림 Ⅱ-36】 일(아르바이트) 경험 ····· 72
【그림 Ⅱ-37】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 ····· 73
【그림 Ⅱ-38】 근무기간 ····· 74
【그림 Ⅱ-39】 구직 기간 ····· 75
【그림 Ⅱ-40】 주된 취업경로 ····· 76
【그림 Ⅱ-41】 종사상 지위 ····· 77
【그림 Ⅱ-42】 사업장 직원 수 ····· 78
【그림 Ⅱ-43】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 79
【그림 Ⅱ-44】 4대 보험 가입유무 ····· 80
【그림 Ⅱ-45】 향후 전망 ····· 81
【그림 Ⅱ-46】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82

【그림 Ⅱ-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 83
【그림 Ⅱ-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기간 ····· 84
【그림 Ⅱ-49】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수당 ····· 85
【그림 Ⅱ-50】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86
【그림 Ⅱ-51】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 87
【그림 Ⅱ-52】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여부 ····· 88
【그림 Ⅱ-53】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 ····· 89
【그림 Ⅱ-54】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 90
【그림 Ⅱ-55】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 91
【그림 Ⅱ-56】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 92
【그림 Ⅱ-57】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 93
【그림 Ⅱ-58】 진로정보탐색 ····· 94
【그림 Ⅱ-59】 진로 장애 ····· 95
【그림 Ⅱ-60】 향후 진로 계획 ····· 96
【그림 Ⅱ-61】 진로 계획 달성 예측 ····· 97
【그림 Ⅱ-62】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 98
【그림 Ⅱ-63】 군 복무 계획 ····· 99
【그림 Ⅱ-64】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 · 정서 ····· 100
【그림 Ⅱ-65】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 101
【그림 Ⅱ-6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 102
【그림 Ⅱ-67】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 103
【그림 Ⅱ-68】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거주지규모별 비교결과) ····· 104
【그림 Ⅱ-69】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필요한 도움의 충족률 ····· 105
【그림 Ⅱ-70】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의 종합 ····· 107

【그림 Ⅱ-7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 108
【그림 Ⅱ-72】 우울, 충동성 ····· 109
【그림 Ⅱ-73】 게임 중독 ····· 110
【그림 Ⅱ-74】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 ····· 111
【그림 Ⅱ-75】 스마트폰 중독 ····· 112
【그림 Ⅱ-76】 부모의 지원 ····· 113
【그림 Ⅱ-77】 부모의 방임 · 학대 ····· 114
【그림 Ⅱ-78】 친한 친구 수 ····· 115
【그림 Ⅱ-79】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 116
【그림 Ⅱ-80】 지역사회 ····· 117
【그림 Ⅱ-81】 하루 생활시간-수면 ····· 118
【그림 Ⅱ-82】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 ····· 119
【그림 Ⅱ-83】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 ····· 120
【그림 Ⅱ-84】 취침 시각 ····· 122
【그림 Ⅱ-85】 식생활 ····· 124
【그림 Ⅱ-86】 현재 주거상태 ····· 125
【그림 Ⅱ-87】 학력에 대한 생각 ····· 126
【그림 Ⅱ-88】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127
【그림 Ⅱ-89】 사회적 낙인감 ····· 128
【그림 Ⅱ-90】 문제행동 피해경험 ····· 129
【그림 Ⅱ-91】 비행경험 ····· 130
【그림 Ⅱ-92】 장래 희망 ····· 131
【그림 Ⅱ-93】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 132
【그림 Ⅱ-94】 사례관리자와의 접촉빈도 ····· 133
【그림 Ⅱ-95】 서비스 만족도 ····· 134

【그림 Ⅱ-96】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 ····· 135
【그림 Ⅱ-97】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 136
【그림 Ⅱ-98】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 ····· 137
【그림 Ⅱ-99】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38
【그림 Ⅱ-100】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편리한 시간 ····· 139
【그림 Ⅲ-1】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 170
【그림 Ⅲ-2】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성별 ····· 172
【그림 Ⅲ-3】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신 · 구패널별 ····· 174
【그림 Ⅲ-4】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거주지 규모별 ····· 175
【그림 Ⅲ-5】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 179
【그림 Ⅲ-6】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성별 ····· 180
【그림 Ⅲ-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신 · 구패널별 ····· 183
【그림 Ⅲ-8】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거주지 규모별 ····· 183
【그림 Ⅲ-9】 서비스 제공 방법 ····· 187
【그림 Ⅲ-10】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 189
【그림 Ⅲ-1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계획 ····· 192
【그림 Ⅲ-12】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 기간 및 빈도 ····· 197
【그림 Ⅲ-13】 서비스 제공 이유 ····· 200
【그림 Ⅲ-14】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 ····· 203
【그림 Ⅲ-15】 서비스 계획대로 제공 여부 ····· 207
【그림 Ⅲ-16】 서비스 도움 정도 ····· 210
【그림 Ⅲ-17】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 213
【그림 Ⅲ-18】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 217
【그림 Ⅲ-19】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비교 ····· 222

【그림 Ⅴ-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변화(2005~2015) ····· 365
【그림 Ⅴ-2】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변화(2012~2015) ····· 366
【그림 Ⅴ-3】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변화(2012~2015) ····· 368
【그림 Ⅴ-4】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비율 ····· 369
【그림 Ⅴ-5】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 370
【그림 Ⅴ-6】 2016학년도 거주지 규모별 학업중단율 ····· 371
【그림 Ⅴ-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 379
【그림 Ⅴ-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 · 성별 비율 ····· 379
【그림 Ⅴ-9】 만 7~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383
【그림 Ⅴ-10】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 수 ····· 388
【그림 Ⅴ-11】 연도별 · 연령구간별 전체 무업청소년 비율 ····· 390
【그림 Ⅴ-12】 연도별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 ····· 391
【그림 Ⅴ-13】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의 연령계층별 변화 ····· 392
【그림 Ⅴ-14】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구직 · 비구직 구성비 비율 ····· 393
【그림 Ⅴ-15】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성별 비율 ····· 394
【그림 Ⅴ-16】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주된 활동상태 ····· 395
【그림 Ⅴ-17】 내일이룸학교 추진체계 ····· 402
【그림 Ⅴ-18】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추진체계 ····· 405
【그림 Ⅴ-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체계 ····· 408
【그림 Ⅴ-20】 16+ DATA HUB 데이터 공유 파트너 ····· 432
【그림 Ⅴ-21】 16+ DATA HUB 데이터 활용 ····· 432
【그림 Ⅴ-22】 일본 무업청소년 전달체계 ····· 434
【그림 Ⅴ-23】 스웨덴 무업청소년 전달체계 ····· 435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초중고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규모는 약 32만 명(해당연령의 6.3%)으로 이 중 고등학생 연령이 70%, 중학생 연령이 21%, 초등학생 연령이 9% 수준이다. 출국했다가 정규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숫자를 합하면 40만 명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된다. 학령기를 벗어나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37만 명(검정고시로 학력취득자 포함됨) 정도로 추정되었다(윤철경 외, 2017, 본 보고서 p.378, p. 382 참조).

2013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로 구축된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은 이제 80% 이상이 20대이다. 2016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본 연구의 패널들은 학업형 50%, 직업형 32%, 무업형 18%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했다 하여도 29%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고 미취득자는 21%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행경로, 성별 등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서로 다르다. 4차년도에는 이행경로의 변화가 32%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데 직업에서 학업, 학업에서 직업, 부정에서 긍정, 긍정에서 부정으로의 전환이 각각 7~9%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중단 후 생활이나 진로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6: 293).

2017년 현재 전국에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이 설치되었다. 꿈드림센터는 아직 초창기이고 센터 인력과 여건도 열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다.

2016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게 동의를 받아 원하는 패널은 거주지역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기존 패널 427명 중 77명이 연계되어 18%가 꿈드림으로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연계되었다. 그리고 기존 패널 77명과 이미 꿈드림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신규 패널 197명 등 총 274명에 대해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주로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일자리 정보 및 알선, 문화예술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이 취약한 서비스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윤철경 외, 2016: 4 – 5).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 따라서 그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육과 고용과 보호,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의 요구, 현재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지원,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을 포함하여 각종 학원, 각종 근로현장, 청소년보호기관과 시설, 대안교육기관, 종교기관, 심지어는 교정기관 등과 간혹 관련을 맺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지역에서 접근 불가능하고 수혜를 볼 수 없다면 정책은 있되 수혜자는 별로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해당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생태학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행경로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이동은 어떠하며 거주지 규모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센터) 개입 효과는 어떠한가?

1.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비교
2.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서비스(센터) 유지 및 이탈과 관련된 요인 분석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실태는 어떠하면 거주지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016년에서 2017년 2개년 간 종단연구로 실시되었다. 2개년 간 전체연구의 목적, 2017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의 목적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행경로별 주요 특성 및 그 변화를 파악한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심층적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연계결과와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2017년도 연구의 목적

첫째, 학교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5차 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 거주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센터) 개입 효과 및 이탈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연계결과와 이용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외국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센터,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2. 연구내용

1) 2개년 종단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개년 종단연구로서 먼저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양적연구로서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2015)에 대하여 2016년에 이어 2017년 데이터를 축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행경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가 학업중단 후 4차 조사(2016년)와 5차조사(2017)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4, 5차년도에는 이행경로의 변화가 크지 않아, 이에 따른 개인적·환경적 특성, 일상생활 등이 크지 않았기에 이행경로에 따른 4차 조사와 5차 조사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고자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4차 조사가 실시된 기존 패널 427명 중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패널은 77명이다. 꿈드림센터에 참여한 패널(77명)과 참여하지 않은 패널 간에 어떤 집단적 차이가 있는지, 센터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센터 참여 효과는 어떠한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센터 서비스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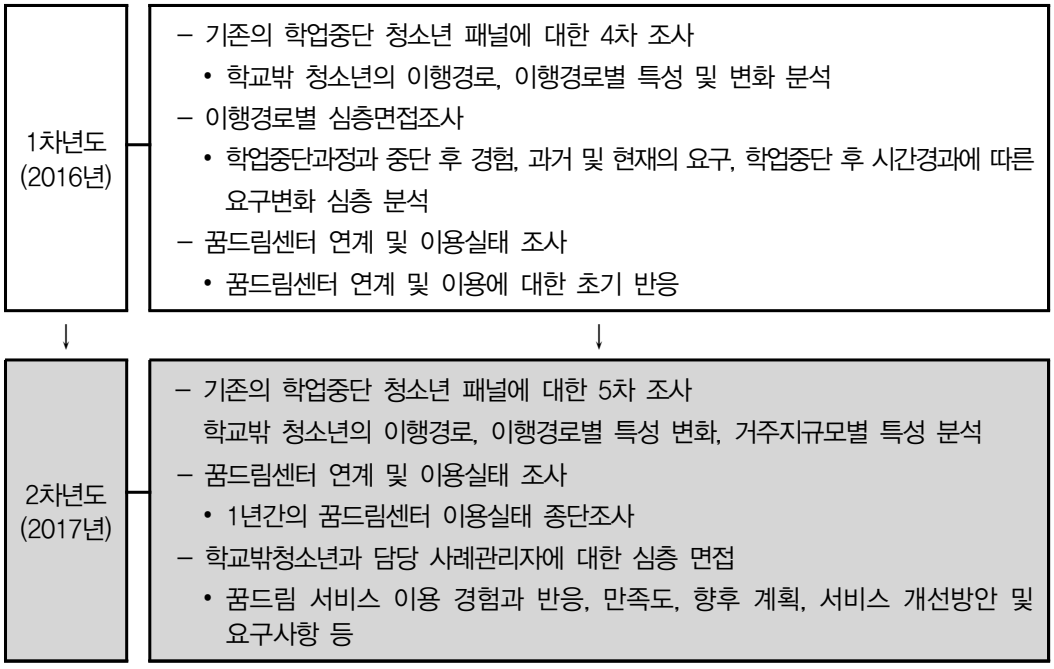
셋째,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패널(기존 패널 77명, 신규 패널 197명)의 꿈드림센터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꿈드림센터 사례관리자가 기록하고 있는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난 1년 간 서비스 이용실태(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별 평균 이용기간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실태(서비스별, 지역규모별)를 신·구 패널별, 성별, 지역규모별로 비교하였다.

넷째, 신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 계속 이용자와 서비스 이탈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패널 중에는 서비스 계속 이용자 사례가 너무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신규 패널 1차조사 데이터(개인적·환경적 특성변수)를 활용하여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탈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양적 조사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서비스 개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패널 20명, 사례관리자 10명을 대상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지난 1년간 서비스 완료자(또는 현재까지 이용자)와 서비스 중도탈락자 15명, 해당 청소년

패널 사례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꿈드림 서비스 이용 경험과 반응, 만족도, 향후 계획, 서비스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등이었다.

본 연구의 2개년 간 주요 연구내용은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2개년간 연구내용(2016~2017년)

2) 2017년도 주요 연구내용

(1) 2017 학교밖 청소년 패널 조사

2016년에 수정·보완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 패널조사(5차)를 실시하였다.

2017년 학교밖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이행경로에 따른 개인적, 환경적, 생활실태 및 행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행경로별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2) 꿈드림센터 연계 및 이용 실태 분석

2016년에 개발한 '꿈드림 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지의 수합 등 데이터 수집 절차를 진행하였다. 센터 서비스 중도탈락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① 조사시점에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 ② 처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시기, ③ 서비스 중도탈락 시 중도탈락 시기, ④ 서비스의 종결여부 등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하여 사례조사지를 수합하였다. 또한 지역규모별 꿈드림센터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센터별 ID와 기관소재지를 추가하였다.

(3) 꿈드림 센터 서비스 이용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심층 분석

꿈드림 서비스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거주지 규모별, 서비스 계속이용자/완료자/이탈자를 심층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청소년의 사례관리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반응, 서비스 제공시 문제점과 개선사항, 성과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4) 2017년도(5차년도) 조사준비 및 조사관리

① 리서치 업체 선정 및 계약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및 조사 패널 유지관리를 위해 리서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조사대상 사전 접촉

조사회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사전 접촉하여 조사 접촉점을 늘리고 조사일정을 예고했다.

③ 5차년도 본 조사 실시 및 조사관리

5차년도 자료수집은 리서치회사의 훈련된 전문면접원을 투입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회사에서는 리스트에 기록된 연락처로 연락하고 조사협조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협조가 확인된 패널을 대상으로 1:1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할 면접원을 할당하였다. 대면조사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가능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응답자와 직접

만나 1대1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면접원 교육 참관, 조사결과 검수, 면접원 간담회 참여 등 조사과정을 관리하였다.

④ 5차년도 조사데이터 펀칭 관리

5차년도에 조사된 데이터의 코딩 및 펀칭(더블 펀칭) 과정을 관리하고, 펀칭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⑤ 5차년도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데이터 클리닝의 목적은 펀칭된 데이터의 비표집 오차를 줄여 연구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변수명 표기방법의 결정, 펀칭상의 오류 검토, 불성실한 응답 검토, 설문의 의도와 다른 응답 검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skip 패턴 문항 등), 변수별 value 값의 리코딩 조정,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⑥ 조사패널 유지관리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며 구체적인 조사패널 확보방법은 2013년도 연구 제 4장을 참고하면 된다. 본 연구의 패널조사 대상자는 2013~2015년 3년간 패널조사에 참여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776명이다. 이 중 2016년도에 427명이 조사되었으며 2017년도에 318명이 조사되었다. 원 표본 대비 41.0%, 2016년 대비 74.5% 성공률을 보였다.

표 I-1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목표 표본수

구 분[1)]	2016 조사대상 표본		2017
일반 패널	일반 패널 776명 중 427명 조사	→ (74.5%)	776명 중 318명

1) 개인명부 조사는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 상담복지센터의 개별 명부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이며,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교육청을 거친 학교별 개인명부 확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관접촉 조사는 직업 및 학업기관 대상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임.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의 협업 관리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양적 조사와 심층면접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꿈드림센터 연계 및 이용실태조사는 꿈드림센터의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의 요구 사정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거주 지역 꿈드림센터로 연계한 학교밖청소년 패널에 사례관리지를 수합하고 추가문항을 조사하였다. 전년도에 배포하고 1차 수합한 사례관리지를 2017년도에 최종 수합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그동안 담당 사례관리자가 교체되었던 점이다. 교체된 센터의 경우 후임자가 내부 시스템에 있는 상담사례를 기초로 응답한 것을 회수하였다.

꿈드림센터 사례조사지는 전국 110개 센터에서 본 패널 77명 중 75명(97.4%), 신규패널 197명 중 193명(98.0%)의 것이 회수되었다.

표 I-2 본 패널 및 신규패널 꿈드림센터 사례조사지 회수 현황

구분	전체		사례조사지 회수 완료		사례조사지 회수 불가	
센터	110	100.0%	108	98.2%	2	1.8%
본패널	77	100.0%	75	97.4%	2	2.6%
신규패널	197	100.0%	193	98.0%	4	2.0%
합계	274	100.0%	268	97.8%	6	2.2%

사례조사지 회수가 완료된 꿈드림센터의 특성은 <표 I-3>과 같다.

지역 규모별로는 '특광역시' 40개소(37.0%), '중소도시' 56개소(51.9%), '읍면지역' 12개소(11.1%)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경상권' 각 36개소(33.3%), '전라/제주권' 16개소(14.8%), '충청/강원권' 20개소(18.5%)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학생 수는 '2명' 65개소(60.2%), '3명' 24개소(22.2%) 순으로 많았고, 조사기간 동안 담당자 변경 횟수는 '변경 없음' 73개소(67.6%), '1회 변경' 31개소(28.7%), '2회 변경' 4개소(3.7%)로 나타났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수는 '2명' 28개소(25.9%), '3명' 44개소(40.7%), '4명' 8개소(7.4%), '5명 이상' 27개소(2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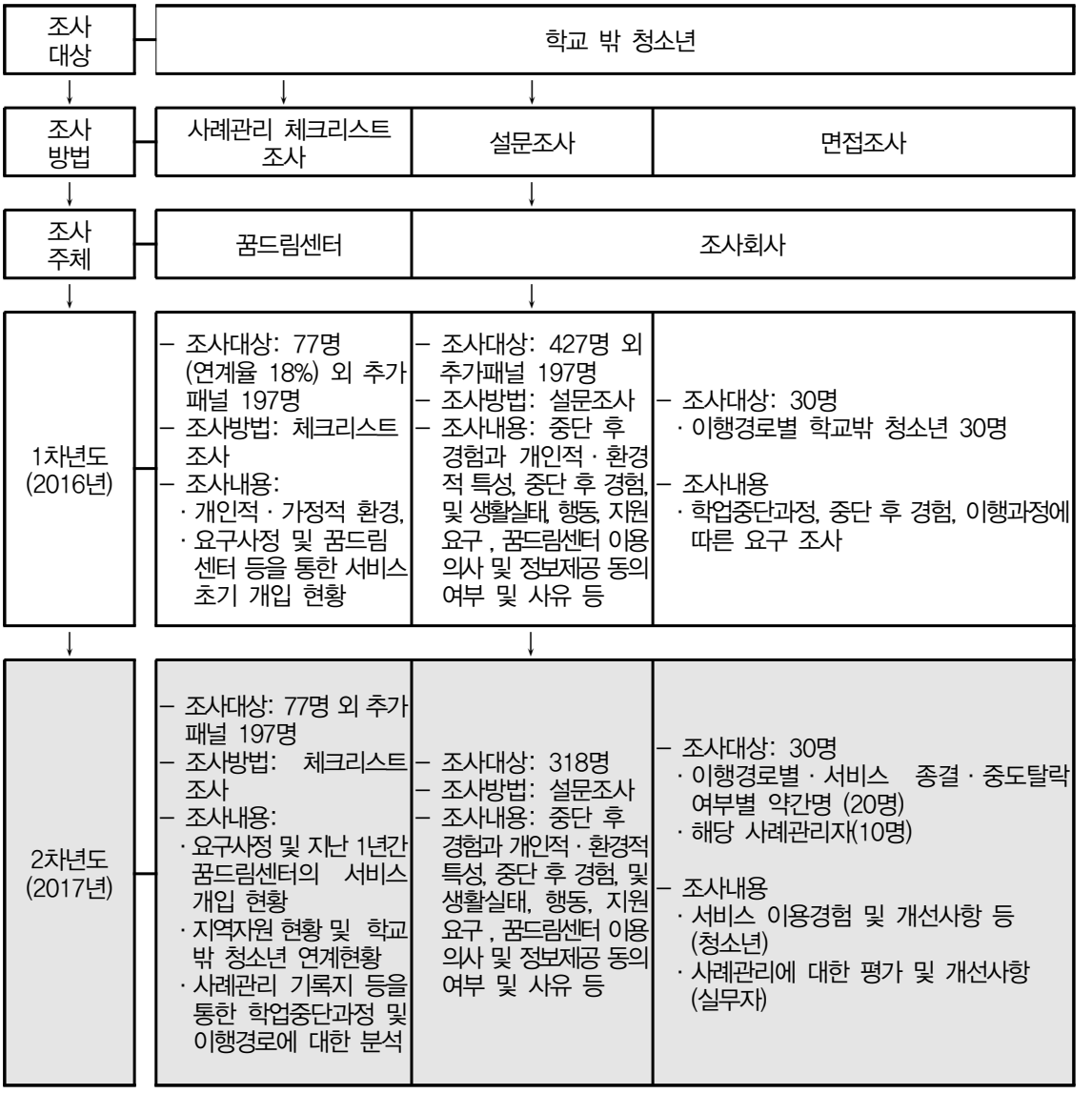
표 Ⅰ-3 사례조사지 회수 꿈드림센터 특성

구분	센터 수 (개소)	센터 비율 (%)
전체	108	100.0
지역 규모별		
특광역시	40	37.0
중소도시	56	51.9
읍면지역	12	11.1
권역별		
수도권	36	33.3
경상권	36	33.3
전라/제주권	16	14.8
충청/강원권	20	18.5
사례관리 학생 수		
1명	8	7.4
2명	65	60.2
3명	24	22.2
4명	7	6.5
5명 이상	4	3.7
담당자 변경 횟수		
변경 없음	73	67.6
1회 변경	31	28.7
2회 변경	4	3.7
센터 담당 인력 수		
2명	28	25.9
3명	44	40.7
4명	8	7.4
5명 이상	27	25.0
무응답	1	0.9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조사추진체계

본 연구의 조사추진체계는 【그림 Ⅰ-2】와 같다.



【그림 Ⅰ-2】 연구조사 추진체계

(1) 기존 패널

① 설문조사

1차 조사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776명의 본패널을 구축하였다. 본패널에 적합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조사동의를 한 학업중단자 리스트 외 취업사관학교, 직업전문학교,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등의 기관접촉과 온라인/오프라인 스노우볼링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2차~5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패널 776명의 본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자의 지인(가족, 친척, 친구, 보호자 등)에게 한국리서치에서 개별 접촉하여 조사약속을 잡고,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1:1 대면면접의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② 꿈드림센터 사례조사

4차 대면면접 조사에서 향후 꿈드림센터 방문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본 패널을 대상으로 본 패널의 거주지와 인접한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패널 정보를 인계하였다.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패널 정보를 바탕으로 패널에게 접촉하여 상담 일시를 확정하고, 해당 일시에 꿈드림센터를 방문한 패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 지난 1년간에 진행된 사례관리 기록지를 수합하였다.

③ 심층인터뷰 조사

본 패널 중 인터뷰 조사가 가능한 패널을 확인하여 IDI(In-depth Interview) 심층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인터뷰 가능 패널을 사전접촉하여 조사 일시를 확정하고, 담당 연구원이 조사 대상자를 1:1로 조사하였다.

(2) 신규패널

① 패널구축

2016년도에 구축한 전국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197명을 조사하였다. 신규 패널은 센터 담당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연령, 학업중단 시기)에 따라 각 센터별 2명의 학생을 직접 선정하여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하였다.

② 꿈드림 센터 사례조사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신규 패널로 선정된 센터 소속 청소년 각각에 대한 사례 관리 내용을 사례조사지에 작성하였다. 신규패널의 경우 조사 시작 이전부터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되, 작성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관리 내용을 작성한 것을 수합하였다.

2) 질적 연구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 청소년 20명, 사례관리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센터 참여동기 및 참여실태,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신·구 패널별, 이행경로별, 서비스 계속 이용 및 완료, 이탈자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해당 패널 사례관리자와의 청소년과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3)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행정·조사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둘째, 셋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센터(서비스) 개입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는 지, 학교밖 청소년의 센터(서비스) 개입 또는 연계를 촉진시키는 변수는 무엇인 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4)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7년 9월 25일 유럽연합(EU), 영국, 이스라엘,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유럽과 일본 등의 무업 청소년 변화 동향, 이를 위한 정책적 필요와 정책 현황 및 20여년 전 부터 발전시켜 온 정책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외국의 정책사례에 반영하였다.

5) 국외출장

학업중단예방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두 자치단체를 방문하였다. 영국 잉글랜드 PRU, 숙려제 프로그램, 스코틀랜드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에딘버러 청소년보장, Job 센터 등을 방문하여 영국의 학업중단예방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제 Ⅱ 장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거주지 규모별 기초분석
3. 꿈드림센터 참여 관련변수와 참여효과

제 II 장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표본 수

본 패널 표본 수는 2013년 1차 조사 때 구축한 일반청소년 패널 776명이다(윤철경 외, 2014: 20). 2017년 패널조사는 2016년 4차 조사에 참여한 4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 구축된 일반패널에 대한 5차 조사이다. 조사성공률은 원 표본 대비 41.0%, 2016년 조사성공 표본 대비 74.5%이다.

표 II-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조사성공 표본수(4차년도~5차년도) (단위: 명, %)

구 분		4차년도 (2016)	5차년도 (2017)
조사 대상 표본 수		776명	776명
조사 성공 표본 수		427명	318명
		–	–
성공률	(원표본 대비)	55.0%	41.0%
	(2016년 대비)	–	74.5%

5차 조사 '이탈 패널'은 전체 458명 중 299명(65.3%)의 패널은 5차 조사 이전에 조사 거절 및 불가로 확정되었다. 5차 조사 이탈 유형으로는 '전화 안받음'이 51명(11.1%)로 가장 높고, 군입대 50명(10.9%), 전화결번 및 응답거절 15명(3.3%), '강력 거절' 12명(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개인) 전체 311명 중에는 '전화 안받음'이 39명(12.5%)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 이 장의 1절과 2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절은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역량강화TF팀 팀장)가 집필하였음.

‘군 입대’가 36명(11.6%), ‘응답거절’이 10명(3.2%), ‘전화결번’이 8명(2.6%)의 순으로, 일반(기관) 전체 147명은 ‘군입대’가 14명(9.5%)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화 안받음’이 12명(8.2%), ‘전화결번’이 7명(4.8%), ‘강력 거절’ 6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 5차 조사 이탈사유 (단위: 명, %)

패널 유형		전체	5차 조사 이전	5차 조사 이탈사유							
			이탈 패널	강력 거절	응답 거절	전화 결번	전화 안받음	거주지 (소재) 불명	군입대	장기 입원	유학/ 연수 등
본패널 전체	사례수	458	299	12	15	15	51	8	50	1	7
	비율	100	65.3	2.6	3.3	3.3	11.1	1.7	10.9	0.2	1.5
일반 (개인)	사례수	311	203	6	10	8	39	5	36	0	4
	비율	100	65.3	1.9	3.2	2.6	12.5	1.6	11.6	0.0	1.3
일반 (기관)	사례수	147	96	6	5	7	12	3	14	1	3
	비율	100	65.3	4.1	3.4	4.8	8.2	2.0	9.5	0.7	2.0

제5차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상 두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2017년 조사에서는 남자 청소년 패널의 연령이 군 입대 연령이 됨에 따라 남자 청소년 패널 중 50명(10.9%)이 조사 불가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자 청소년 패널에 비해 남자 청소년 패널의 유지 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2016년 4차 조사 이후 본 패널 중 77명이 지역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학적 관점에서 정책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 밖 청소년의 패널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연차별 조사 참여자 수를 횡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1차 776명(100.0%), 2차 599명(77.2%), 3차 549명(70.7%), 4차 427명(55.0%), 5차 318명(41.0%)이 참여하였다. 유형별로는, 일반(개인)은 구축 차수인 1차 조사에 552명(100.0%), 2차에 449명(81.3%), 3차에 402명(72.8%), 4차에 318명(57.6%), 5차에 241명(43.7%)이 참여하였으며. 일반(기관)의 경우에는 구축 차수인 1차 조사에 224명(100.0%), 2차에 150명(67.0%), 3차에 147명(65.6%), 4차에 109명(48.7%), 5차에 77명(34.4%)이 참여하였다.

종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1-2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599명(77.2%), 1-3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494명(63.7%)이며, 1-4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381명(49.1%), 1-5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278명(35.8%), 1차와 5차 사이를 불연속 참여한 패널은 38명(4.9%)로 나타났다.

표 II-3 연차별 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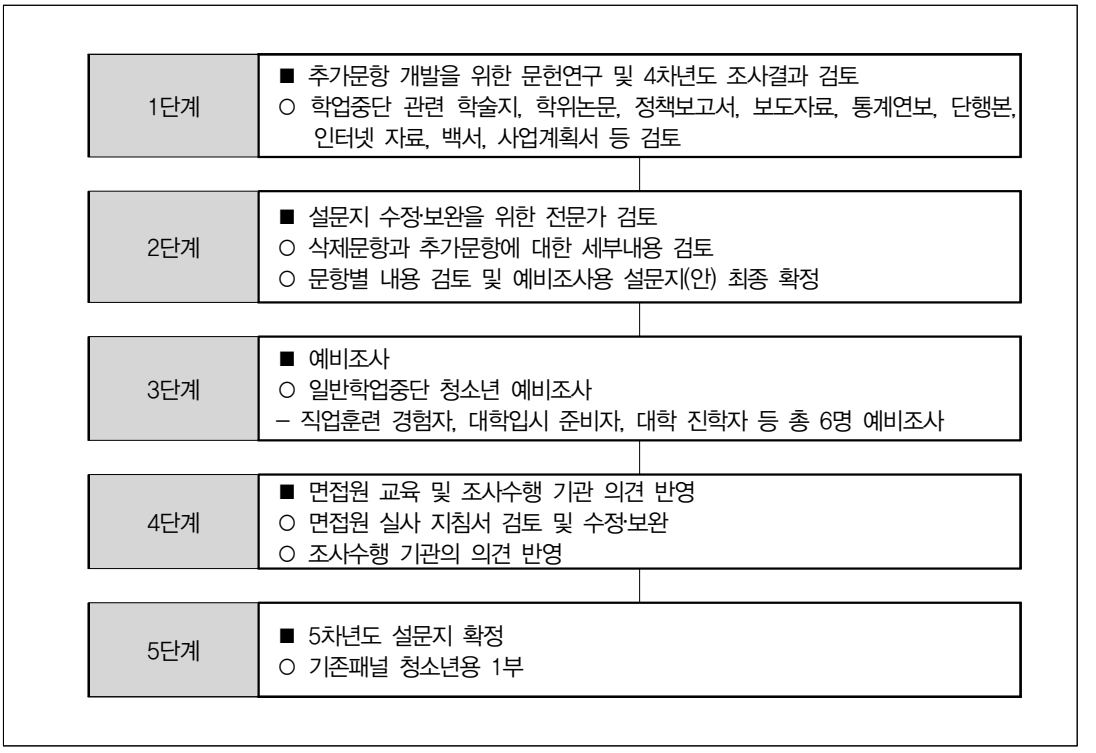
유형	구분	일반 (개인)		일반 (기관)		총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횡 단	1차 참여자	552	100.0	224	100.0	776	100.0
	2차 참여자	449	81.3	150	67.0	599	77.2
	3차 참여자	402	72.8	147	65.6	549	70.7
	4차 참여자	318	57.6	109	48.7	427	55.0
	5차 참여자	241	43.7	77	34.4	318	41.0
종 단	1-2차 연속 참여자	449	81.3	150	67.0	599	77.2
	1-3차 연속 참여자	370	67.0	124	55.4	494	63.7
	1-4차 연속 참여자	286	51.8	95	42.4	381	49.1
	1-5차 연속 참여자	215	38.9	63	28.1	278	35.8
	1-5차 불연속 참여자	24	4.4	14	6.3	38	4.9

2) 조사도구 개발 및 구성

(1) 5차년도 조사도구 수정・보완 절차

5차년도 설문지의 수정・보완은 4차년도 설문지의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설문이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재중단 경험, 복학 경험 등의 문항을 삭제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꿈드림센터 경험, 졸업자격 취득방법, 현재 거주지와 부모님 동거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진이 최근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관련문항과 조사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문항에 대한 선정 및 수정, 신규문항 작성을 실시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학업중단 관련 현장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거쳤다.

최종설문지(안)에 대해 예비조사결과와 조사수행기관 의견록, 면접원 교육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패널용 최종설문지(안) 1종을 확정하였다. 조사도구 수정・보완 절차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Ⅱ-1】 조사도구 수정·보완절차

설문지 조사영역은 ① 학업중단 및 복학 현황 ② 생활경험과 인식 ③ 개인의 심리 · 정서 상황 ④ 부모 · 친구관계 · 동네주변 환경 ⑤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⑥ 문제행동 피해 가해 경험 ⑦ 배경요인 등 총 7개 영역으로 대영역을 구성하였다. 5차년도 설문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고 필요성이 있는 변인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삭제한 문항은 문 2의 복학관련 실태의 하위문항, 추가 1~추가 2-2의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여부에 관련된 문항이다. 추가된 문항은 총 2개 문항이다. 대학 진학자 중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취득한 비율을 알기 위해 문 1-2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인지여부와 참여의사여부를 알기 위해 문 7-6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2016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 1(현재 재학상태), 문 4-3(대학 진학 사유), 문 4-4-3(대학 학제), 문 4-4-5(전공계열), 문 4-6-1(아르바이트 중단 이유), 문 7-1(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문

7-5(직업훈련 미참여 이유)의 보기를 수정하였고, 문 27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셋째, 꿈드림센터에서의 경험을 알기 위해 꿈드림센터 연계 패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추가 1), 꿈드림센터 담당자와의 접촉횟수(추가 2), 서비스 만족도(추가 3), 서비스 불만족 이유(추가 3-1), 꿈드림센터 담당자와의 관계만족도(추가 4), 관계 불만족 이유(추가 4-1),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지 여부(추가 5), 담당자 변경 여부(추가 5-1), 담당자 접촉 시기(추가 5-1-1), 현재 꿈드림센터 미이용 이유(추가 5-2), 서비스 받기 편리한 시간(추가 5-2-1)이다.

넷째. 응답 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설문지 본문에 포함시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표 II-4 1-5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신분 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1	1	1	1	1	1	연구진 작성	5차 보기수정
		졸업자격 취득여부	●	–		1-1	1-1	1-1	1-1	1-1	1-1	2013년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구분 준용 · 수정	2~4차 계속
		학사 일정	●	–		1-2	1-2	1-2	1-2	–			3차
		졸업자격 취득방법	●	–							1-2	연구진 작성	5차 신규
	복교 관련 실태	복교 경험	●	8	7	2	2	2	2	2	2	연구진 작성	1~4차 계속
		복교 학교 형태	●	–		2-1	2-1	2-1	2-1	2-1	–	연구진 작성	4차
		복교 시기	●	–		2-2	2-2	2-2	2-2	2-2	–	윤철경 외(2013) 문5-1 수정	4차
		학교 복귀 이유	●	8-3	7-3	2-3	2-3	2-3	2-3	–		윤철경 외(2013) 문5-3 수정	3차
		복교 학교 유형	●	8-4	7-4	2-4	2-4	2-4	2-4	–		연구진 작성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	8-5	7-5	2-5	2-5	2-5	2-5	–		연구진 작성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2-6	2-6	2-6	2-6	–		연구진 작성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	–		2-7	2-7	2-7	2-7	–		연구진 작성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						윤철경 외(2013) 문5-1	1차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	8-2	7-2	–						윤철경 외(2013) 문5-2	
	학업 중단 실태	재중단 경험	●	–		3	3	3	3	3	3	연구진 작성	2~5차 계속
		재중단 학교유형	●	–		3-1	3-1	3-1	3-1	–		연구진 작성	3차
		학업중단 년월	●	3	2	3-2	3-2	3-2	3-2	–		윤철경 외(2010) 문6	
		학업중단 이유	●	4	3	3-3	3-3	3-3	3-3	–		윤철경 외(2010) 문8 수정	
		학업중단 시 학년	●	2,2-1	1,1-1	–						윤철경 외(2010) 문4-1 수정	1차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						윤철경 외(2013) 문4 수정	
		학교성적수준	●	6	5	–						윤철경 외(2013) 문10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						윤철경 외(2013) 문5	
	학업 중단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3-4	3-4	3-4	3-4	–		윤철경 외(2010) 문9 수정	3차
		학업중단 시 지공받은 정보	●	10	9	3-5	3-5	3-5	3-5	–		민인철 외(2011)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시 지원 실태											문10/학업중단숙려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	11	10	3-6	3-6	3-6	3-6	–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	14	13	3-7	3-7	3-7	3-7	–		윤철경 외(2013) 문8 수정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	14-1	13-1	3-8	3-8	3-8	3-8	–		윤철경 외(2013) 문8-1 수정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1	–						연구진 작성	1차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2	–						연구진 작성	
	최초 학업 중단 회고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	–		4	4	–				연구진 작성	2차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	–		5	5	–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	–		6	6	–				김영희 외(2013) 수정 · 보완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	–		7	7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	–		7-1	7-1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	–		7-2	7-2	–					
개인적 특성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	28-1)~5)	24-1)~5)	19-1)~5)	19-1)~5)	15-1)~5)	15-1)~5)	18-1)~5)	18-1)~5)	최인재 외(2012) 문8	1~5차 계속
		자아탄력성	●	28-6)~10)	24-6)~10)	19-6)~10)	19-6)~10)	15-6)~10)	15-6)~10)	18-6)~10)	18-6)~10)	김지경 외(2010) KCYPS 중1패널 1차년도 문19 ②,③,⑥,⑧,⑫ 선정	
		생활만족도	●	–		19-11)~13)	19-11)~13)	15-11)~13)	15-11)~13)	18-11)~13)	18-11)~13)	이종원 외(2013) KCYPS 고1패널 문13	2~5차 계속
		우울	●	29-1)~10)	25-1)~10)	20-1)~10)	20-1)~10)	16-1)~10)	16-1)~10)	19-1)~10)	19-1)~10)	이경상 외(2011) KCYPS 중1패널 2차년도 문18 ㉗~㉛ 선정	1~5차 계속
		충동성	●	29-11)~15)	25-11)~15)	20-11)~15)	20-11)~15)	16-11)~15)	16-11)~15)	19-11)~15)	19-11)~15)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길(2006)	
		사회적 낙인감[3]	●	–		31	31	27	27	31	31	배주미 외(2010) 문항 선정	2~5차 계속
	문제 행동 가 · 피해 경험	피해경험	●	41	36	33	33	29	29	32	32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1~5차 계속
		문제행동 가해경험	●	42	37	34	34	30	30	33	33	최인재 외(2012) 문6 수정	
		경찰서 방문 여부	△	–				–	31	–		연구진 작성	3차
		경찰서 방문 횟수	△	–				–	31-1	–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경찰서 방문 당시 처분 유형	△	–				–	31-2	–			
		게임중독	●	30	26	21-1	21-1	17-1	17-1	20-1	20-1	최인재 외(2012) 문3 ⑤~⑬	1~5차 계속
		SNS 관련[4] 피해 · 가해	●	–		21-2	21-2	17-2	17-2	20-2	20-2	이창호 외(2012) 수정 · 보완	2~5차 계속
		스마트폰 중독[5]	●	–		21-3	21-3	17-3	17-3	20-3	20-3	이창호 외(2013) 수정 · 보완	
환경적 특성	학교 및 학교 생활	교사관계	●	16-1)~3)	15-1)~3)	–						최인재 외(2012) 문13 ④~⑥	1차
		친구관계	●	16-4)~7)	15-4)~7)	–						최인재 외(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10)	15-8)~10	–						김성식 외(2008) 문36 ①~③ 수정 · 보완	
		훈육적 학교풍토	□	17-1)~2)		–						김성식 외(2008) 문10 ③, ④ 수정 · 보완	
		참여적 학교풍토	□	17-3)~4)		–						연구진 작성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7)	16-1)~7)	–						김성식 외(2008) 문9 ①,②,③,⑥,⑨ 수정·보완	
	부모 관계	부모애착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1)~8)	27-1)~8)	22-1)~8)	22-1)~8)	18-1)~8)	18-1)~8)	21-1)~8)	21-1)~8)	최인재 외(2012) 문10 ②~⑥, ⑪, ⑫, ⑭ 수정	1~5차 계속
		부모의 방임	●	32-1)~5)	28-1)~5)	23-1)~5)	23-1)~5)	19-1)~5)	19-1)~5)	22-1)~5)	22-1)~5)	허묘연(2000) 방임 선정 · 수정	
		부모의 학대 (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9)	28-6)~9)	23-6)~9)	23-6)~9)	19-6)~9)	19-6)~9)	22-6)~9)	22-6)~9)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 수정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	33	29	24	24	20	20	23	23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학업중단 후 사귄 친구 수	●	33-1	29-1	24-1	24-1	20-1	20-1	23-1	23-1	윤철경 외(2013) 문19	
		학업중단한 친구 수	●	33-2	29-2	24-2	24-2	20-2	20-2	23-2	23-2	연구진 작성	
		또래 애착	●	34-1)~3)	30-1)~3)	25-1)~3)	25-1)~3)	21-1)~3)	21-1)~3)	24-1)~3)	24-1)~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 선정	
		친구의 비행성향	●	34-4)~6)	30-4)~6)	25-4)~6)	25-4)~6)	21-4)~6)	21-4)~6)	24-4)~6)	24-4)~6)	전영실·신동준(2012) 문15-4, 15-5, 15-6	
	지역	지역사회 사회통합(유대와 통제	●	35-1)~4)	31-1)~4)	26-1)~4)	26-1)~4)	22-1)~4)	22-1)~4)	25-1)~4)	25-1)~4)	김지선·홍영오(2011)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사회	지역사회 무질서(물리적, 사회적)	●	35-5)~8)	31-5)~8)	26-5)~8	26-5)~8	22-5)~8)	22-5)~8)	25-5)~8)	25-5)~8)		
		지역사회 유익 환경	●	35-9)~10)	31-9)~10	26-9)~10)	26-9)~10)	22-9)~10)	22-9)~10)	25-9)~10)	25-9)~10)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중단 이후 경험	중단 후 경험실태	●	19-1)~9)	17-1)~9)	8-1)~11)	8-1)~11)	4-1)~11)	4-1)~11)	4-1)~13)	4-1)~13)	윤철경 외(2013) 문17 수정	4차 보기수정
		중단 후 경험실태(비행)	●	20-1)~4)	18-1)~4)	9-1)~5)	9-1)~5)	5-1)~5)	5-1)~5)	5-1)~5)	5-1)~5)	윤철경 외(2013) 문18 수정	1~5차 계속
		대안학교 소재지	●	–				4-1	4-1	4-1	4-1	연구진 작성	3~5차 계속
		대안학교 유형	●	–				4-1-1	4-1-1	4-1-1	4-1-1		
		검정고시 공부 방법	●	–		8-1	8-1	4-2	4-2	4-2	4-2		2~5차 계속
		검정고시 응시 경험	●	–				4-2-1	4-2-1	4-2-1	4-2-1		3~5차 계속
		검정고시 합격 여부	●	–				4-2-2	4-2-2	4-2-2	4-2-2		
		대학진학이유	●	–						4-3	4-3		5차 보기수정
		대학소재지 및 학교명	●	–						4-4-1	4-4-1		4~5차 계속
		대학 학과명	●	–						4-4-2	4-4-2		
		대학 학제	●	–						4-4-3	4-4-3	2016년 대학교육통계 대학 구분 준용 · 수정	5차 보기수정
		대학 설립유형	●	–						4-4-4	4-4-4	황여정 외(2015) 선문5 수정·보완	4~5차 계속
		대학 전공계열	●	–						4-4-5	4-4-5	2016년 대학교육통계 대학 구분 준용 · 수정	5차 보기수정
		대학 학년	●	–						4-4-6	4-4-6	황여정 외(2015) 선문5 수정·보완	4~5차 계속
		대학 재학상태	●	–						4-4-7	4-4-7		
		대학 휴학 이유	●	–						4-4-8	4-4-8	안선영 외(2011) Q26 수정·보완	
		대학 중퇴 이유	●	–						4-4-9	4-4-9	안선영 외(2011) Q23 수정·보완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유형	●	–				4-3	4-3	4-5	4-5	연구진 작성	3~5차 계속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내용	●	–				4-3-1	4-3-1	4-5-1	4-5-1		
		직업훈련기간	●	–						4-5-2	4-5-2		4~5차 계속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취득여부	●	–						4-5-3	4-5-3		
		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	●	–				4-3-2	4-3-2	4-5-4	4-5-4		3~5차 계속
		직업훈련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	–				4-3-3	4-3-3	4-5-5	4-5-5		
		직업훈련프로그램 도움정도	●	–						4-5-6	4-5-6	남기성 외(2013) E13 수정·보완	4~5차 계속
		프로그램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	●	–						4-5-7	4-5-7	연구진 작성	
		아르바이트 중단 횟수	●	–				4-4	4-4	4-6	4-6		3~5차 계속
		아르바이트 중단 이유	●	–				4-4-1	4-4-1	4-6-1	4-6-1		5차 보기수정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	●	–				4-5	4-5	4-7	4-7		4~5차 계속
		가출 시 거주 장소	●	–				5-1	5-1	–			3차
	보호 관찰 경험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	●	–		9-1	9-1	5-2	5-2	–			
		보호관찰관의 변경횟수	●	–		9-2	9-2	5-3	5-3	–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	–	38	9-3	9-3	5-4	5-4	–			
		지원프로그램의 이용경험과 만족도	●	–		9-4	9-4	5-5	5-5	–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		9-5	9-5	–					2차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	21	19	10	10	6	6	6	6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③, ④번	1~5차 계속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	–		10-1	10-1	–		6-1-5	6-1-5	연구진 작성	2,4,5차
		아르바이트 업종	●	21-1	19-1	10-2	10-2	6-1	6-1	6-1-1	6-1-1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③, ④번	1~5차 계속
		아르바이트 시간	●	21-2	19-2	10-3	10-3	6-2	6-2	6-1-7	6-1-7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						6-1-2	6-1-2	김지경 외(2013) 취업자용 설문지 문21-1~21-11 수정 · 보완	4~5차 계속
		아르바이트 구직기간	●	–						6-1-3	6-1-3		
		아르바이트 취업경로	●	–						6-1-4	6-1-4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직원 수	●	–						6-1-6	6-1-6		
		아르바이트 소득	●	–						6-1-8	6-1-8		
		4대보험 가입유무	●	–						6-1-9	6-1-9		
		아르바이트 향후 전망	●	–						6-1-10	6-1-10		
	사회 관계	중단이후 성인 멘토 (만난 어른 유무, 만난 시설)	●	22	20	11	11	7	7	16	16	윤철경 외(2013) 문20-1 수정	4차 본문수정
	직업 훈련 프로 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의사	●	–						7	7	연구진 작성	4~5차 계속
		프로그램참여시 고려하는 사항	●	–						7-1	7-1		5차 보기수정
		적당한 훈련기간	●	–						7-2	7-2		4~5차 계속
		적정한 수당	●	–						7-3	7-3		
		원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	●	–						7-4	7-4		
		직업훈련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	–						7-5	7-5	오은진 외(2008) 문 18-2-1 수정 · 보완	5차 보기수정
		정부 직업훈련프로그램 인지여부	●	–							7-6-1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5차 신규
		정부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의사	●	–							7-6-2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참여 경험, 이유, 유형	●	–		12,12-1,2	12,12-1,2	8,8-1,2	8,8-1,2	8,8-1,2	8,8-1,2	연구진 작성	2~5차 계속
		활동 내용	●	–		–		8-3	8-3	8-3	8-3		3~5차 계속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진로 계획	진로정보의 탐색	●	23	21	13	13	9	9	9	9	1차: 윤철경 외(2013) 문23 수정 2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진로성숙도 검사지 2문항 추가	1~5차 계속
		진로 장애[6]	●	–		14	14	10	10	10	10	배주미 외(2010) 진로장애척도 수정 · 보완	2~5차 계속
		향후 진로 계획	●	24	22	15	15	11	11	11	11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1-1 수정	4차 보기수정
		진로 계획 달성 예측	●	25	–	16	16	12	12	12	12	윤철경 외(2013) 문24	1~5차 계속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	26	–	17	17	13	13	13	13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	–		32	32	28	28	–	–	신혜령 외(2008), 배주미 외(2010) 자립지원요구조사 척도 수정보완	3차
	학업중단에대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	27-1)~6)	23-1)~6)	18	18	14	14	15	15	윤철경 외(2013) 문27 ①,③,⑥,⑧,⑨ 선정/27-5) 연구진 작성	1~5차 계속
	군복무	군복무 예정일	●	–						14	14	연구진 작성	4~5차 계속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	도움이 필요한 영역	●	–						17-1	17-1	윤철경 외(2015) 문 3-5, 3-6, 5-4 수정, 꿈드림센터 운영매뉴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구체적인 도움	●	–						17-2	17-2		
		도움 받은 경험 여부	●	–						17-3	17-3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생활 시간	수면, 학습 및 일, 여가 시간	●	36	32	27	27	23	23	26	26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최인재 외(2012) 문33 참조	1~5차 계속
		취침시간	●	–		27-1	27-1	23-1	23-1	26-1	26-1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2~5차 계속
	식생활	식사 습관, 인스턴트 식품노출	●	37	33	28	28	24	24	27	27	최인재 외(2012) 문5,6,7,11 수정	5차 문항수정
	주거 형태	현재 주거형태	●	–						28	28	김지경 외(2013) 취업자용 설문지 문25, 26 수정 · 보완	4~5차 계속
	가치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29	29	25	25	29	29	이경상 외(2007) KCYPS 중2	1~5차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⑪ 선정 수정	계속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30	30	26	26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보완	
생애사 건경험	최초무단 결석 경험	무단 결석 여부	●	15	14	–						연구진 작성	1차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	●	40-1)~20)	35-1)~20)	36	36	–				이경상 외(2005) 중2패널 3차년도 evt. 수정 -20번으로'이사 등으로 전학'신규 추가	1~2차
배경 문항	배경 문항	가족구성, 이사횟수, 가정경제수준	●	43,47,48	39,43,44	35,37,38	35,37,38	31~33	32~34	34~36	34~36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1~5차 계속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	44~46	40~42	–							1차
		건강상태	●	–		39	39	34	35	37	37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보완	2~5차
		장래희망	●	–		40	40	35	36	38	38	연구진 작성	계속
정성조사 및 꿈드림센터 참여 여부	정성조사 및 꿈드림센터 참여 여부	정성조사 참여여부	●	–						추가 0	추가 0	연구진 작성	4~5차 계속
		꿈드림센터 인지여부	●	–						추가 1	–		4차
		꿈드림센터 이용여부	●	–						추가 1-1	–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여부	●	–						추가 2	–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	–						추가 2-1	–		
		꿈드림센터 미참여 이유	●	–						추가 2-2	–	하정화 외(2012) Q6, 백혜정 외(2009) 문 4-3 수정 · 보완	
꿈드림센터 참여자	꿈드림센터 참여자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	–							추가 1	연구진 작성	5차 신규
		사례관리자와 연락한 횟수	●	–							추가 2		
		서비스 만족도	●	–							추가 3		
		서비스 불만족 이유	●	–							추가 3-1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	●	–							추가 4		
		관계 불만족 이유	●	–							추가 4-1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2)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번호	5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여부	●	–							추가 5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	●	–							추가 5-1		
		사례관리자 변경 횟수	●	–							추가5-1-1		
		현재 꿈드림센터 미이용 사유	●	–							추가 5-2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시간	●	–							추가5-2-1		
보호 관찰 별지	추가 범죄와 추가 처분	추가여죄 혹은 추가범죄	△	–		–	별지1	–				신규	2차
		추가처분	△	–		–	별지2						
		부가처분	△	–		–	별지3	–				전영실 외(2013) B형 문항 별지 문4 수정	
	보호 관찰에 대한 태도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	–		–	별지4	–				신규	

2) ● :A, B 공통(4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함), □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3) 사회적 낙인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번안한 10개 문항 그대로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4) SNS 피해 · 가해 경험은 이창호 등(2012)이 사용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가해 경험 유무 1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10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함.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 8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함. 이창호, 김경화(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로서 원래 9개 4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3) 자료수집과정

자료수집과정은 조사준비, 실사, 자료검증 및 처리 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준비는 4월2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루어졌다. 5차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설문지 개발, 예비조사, 패널 정보 업데이트 등 패널 관리, 팸플릿 및 홈페이지 등 조사 홍보물 작성, 면접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본 패널에 대한 설문조사는 5월 22일에서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이후 8월 7일까지 설문지 리뷰 및 검증, 자료 입력 및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4) 응답자의 거주지 이동, 이행경로 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이동 분석(1차년도와 5차년도 거주지 비교)

학업중단 패널조사 응답자들의 거주지 이동 분석을 위해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2013년)와 5차년도(2017년) 간의 거주지 규모별 이동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5년 간 거주지가 변동되었는지, 변동되었다면 지역규모도 달라졌는지를 파악하였다. 변동의 기준은 거주하는 도시가 달라진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같은 도시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변동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에 비해 거주지가 변동된 청소년은 총 59명(18.6%)이었고, 유지한 청소년은 259명(81.4%)으로 5년동안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에서 가장 유지율이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1차년도 거주자 대비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표 Ⅱ-5>) 대도시의 유지율은 86.4%, 중소도시는 77.2%, 읍면지역은 69.0%로 나타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1차년도와 5차년도 거주지 이동현황 (단위: 명, %)

유형	세부유형		사례수	비율
	1차년도	5차년도		
이동	대도시	대도시 (도시 다름)	8	2.5
		중소도시	13	4.1
		읍면지역	4	1.3
	중소도시	대도시	9	2.8
		중소도시 (도시 다름)	8	2.5
		읍면지역	4	1.3
	읍면지역	대도시	6	1.9
		중소도시	7	2.2
		읍면지역 (도시 다름)	–	–
	변동 소계		59	18.6
유지	대도시	대도시 (도시 같음)	159	50.0
	중소도시	중소도시 (도시 같음)	71	22.3
	읍면지역	읍면지역 (도시 같음)	29	9.1
	유지 소계		259	81.4
전 체			318	100.0

표 Ⅱ-6 거주지별 유지율 (단위: 명, %)

	거주지 유지자 (A)	1차년도 거주자 (B)	유지율 (A/B * 100)
대도시	159	184	86.4
중소도시	71	92	77.2
읍면지역	29	42	69.0

거주지를 이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학적 배경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구성별 거주지 이동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36.8%). 가정경제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수준을 '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의 이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22.6%). 부모가 계시지 않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거주지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는 이동률이 가장 낮았는데, 가족구성별로 가정경제수준을 파악한 결과 이동률이 가장 낮은 한부모 가정에서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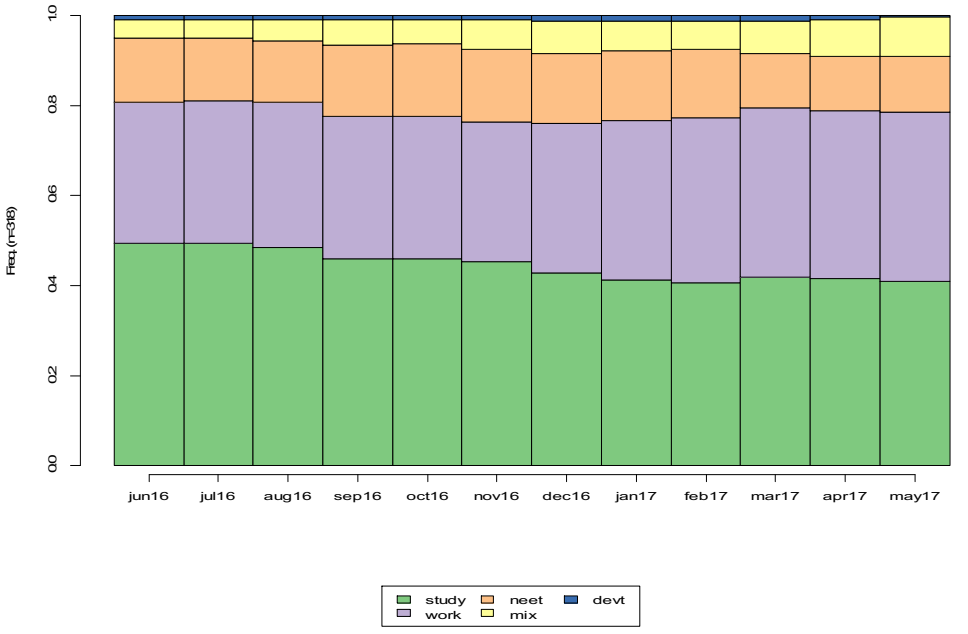
표 II-7 거주지 이동여부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전체		유지		이동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18	100.0	259	81.4	59	18.6	–
성	남자	167	52.5	138	82.6	29	17.4	.33 (df=1)
	여자	151	47.5	121	80.1	30	19.9	
연령	20세 이하	46	14.4	34	73.9	12	26.1	3.20 (df=3)
	21세	85	26.7	68	80.0	17	20.0	
	22세	112	35.2	96	85.7	16	14.3	
	23세 이상	75	23.6	61	81.3	14	18.7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62	50.9	137	84.6	25	15.4	20.01*** (df=2)
	한부모 가정	88	27.7	79	89.8	9	10.2	
	부모 모두 안계심	68	21.4	43	63.2	25	36.8	
가정 경제 수준	상	62	19.5	48	77.4	14	22.6	5.13+ (df=2)
	중	134	42.1	104	77.6	30	22.4	
	하	122	38.4	107	87.7	15	12.3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77	24.2	61	79.2	16	20.8	.33 (df=1)
	고등학교때	241	75.8	198	82.2	43	17.8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45	14.2	37	82.2	8	17.8	.33 (df=3)
	학교 사유	174	54.7	142	81.6	32	18.4	
	대안교육을 원해서	68	21.4	54	79.4	14	20.6	
	문제행동으로	31	9.7	26	83.9	5	16.1	
경로유형	학업형	145	45.6	117	80.7	28	19.3	1.27 (df=2)
	직업형	115	36.2	97	84.3	18	15.7	
	무업형	58	18.2	45	77.6	13	22.4	

+$p<.1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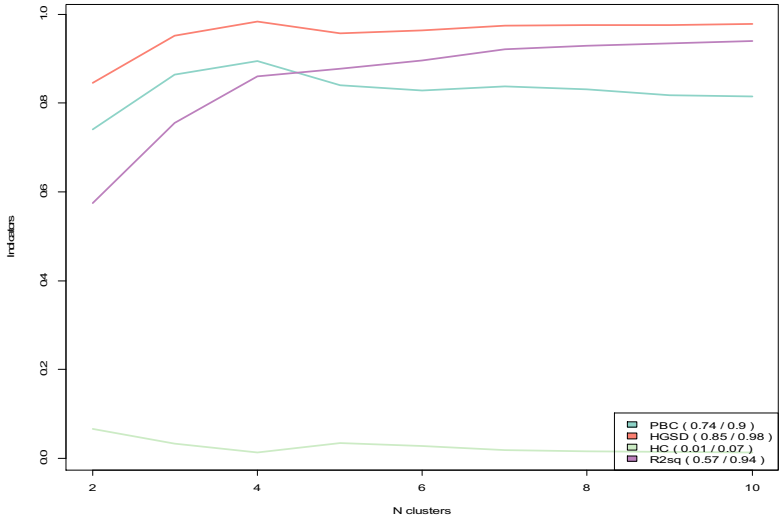
(2) 이행경로 변화 분석(4차년도와 5차년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5차년도 조사)에 조사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경험사건을 바탕으로 각 청소년들의 이행경로를 파악하였다. 먼저 최근 1년간의 경험사건의 개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학업과 직업형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업형이나 혼재형(무정형)의 경우는 그 경험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림 Ⅱ-2】 학교 밖 청소년 경험사건 분포(2016.6~2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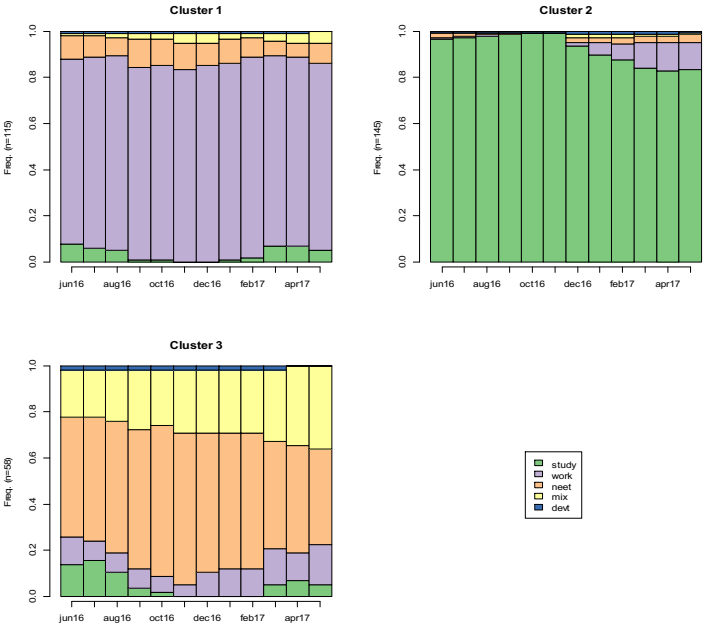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겪은 경험사건을 바탕으로 경험 배열의 특성이 유사한 청소년들을 집단화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사건 배열의 유사성에 기반해 군집분석을 할 경우 적정수의 군집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PBC(Point Biserial Correlation), HGSD(Hubert's Somers' D), HC(Hubert's C), R2sq(Pseudo R2) 등의 지표에 대해 군집개수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차년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행경로는 크게 3개 혹은 4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HC는 가장 작은 값을, 그리고 나머지 3개 지표는 최대값을 가질 때 적정 군집수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군집수가 4개일 경우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R2sq를 제외한고는 군집수가 3개일 때와 4개일 때의 값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조사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3개의 군집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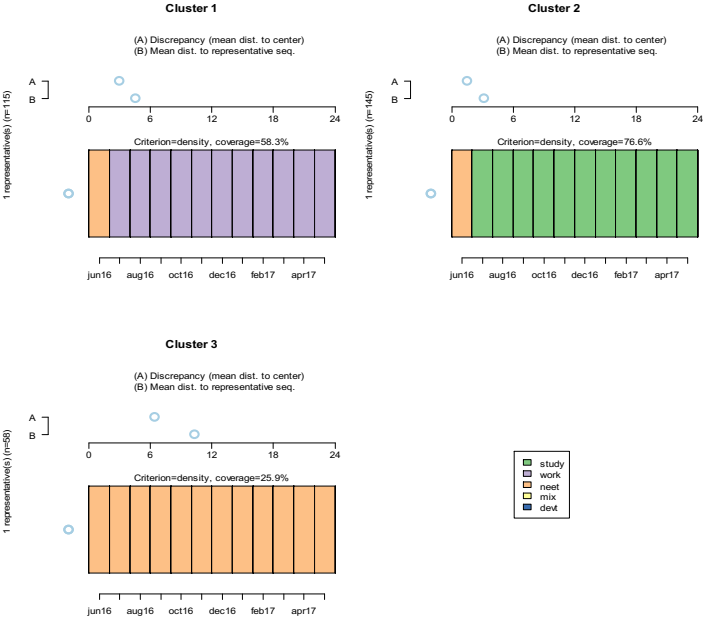
【그림 Ⅱ-3】 군집 개수 결정을 위한 주요 지표값 변화 추이

3개 군집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경험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직업형 경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학업형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집단의 경우에는 무업형 경험이 많은 편이나 혼재형 경험도 많은 분포를 띠고 있다.

3개 군집의 대표 경험사건배열에서도 첫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직업형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지니고 있으며, 두 번째 집단에서는 학업형 경험사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무업형 경험사건이 최근 1년 간 지속된 배열을 지니고 있다.



【그림 Ⅱ-4】 3개 군집별 경험사건 분포



【그림 Ⅱ-5】 3개 군집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

2016년(2015.6~2016.5) 시기의 이행경로[2]와 2017년(2016.6~2017.5) 시기의 이행경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동일한 이행경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당시 직업형이었던 청소년의 74.2%는 2017년에도 직업형 이행경로를 유지하였고, 학업형의 경우 76.7%가 동일한 학업형 이행경로를 유지하였다. 반면 무업형의 경우에는 2017년에 49.1%만이 무업형 이행경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직업형으로 변화된 청소년은 2016년 당시 무업형 청소년 중 34.0%, 학업형으로 변화된 청소년은 17.0%였다. 2016~2017년 간의 이행경로별 변화 분포의 특징적인 점은 직업형이나 무업형 청소년이 학업형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6년 당시 직업형이었던 청소년 중 2017년 학업형으로 변화된 청소년은 7.9%(7명)에 그쳤고, 무업형이었던 청소년이 학업형으로 변화된 경우는 17.0%(9명)이었다.

표 Ⅱ-8 이행경로별 변화 분포 **[단위: 명(%)]**

		2017년			계
		직업형	학업형	무업형	
2016년	직업형	66 (74.2)	7 (7.9)	16 (18.0)	89 (100.0)
	학업형	28 (17.2)	125 (76.7)	10 (6.1)	163 (100.0)
	무업형	18 (34.0)	9 (17.0)	26 (49.1)	53 (100.0)
계		112 (36.7)	141 (46.2)	52 (17.0)	305 (100.0)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차년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Ⅱ-9>와 【그림 Ⅱ-6】과 같다. 거주지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318명 중 대도시가 182명(57.2%), 중소도시가 99명(31.1%), 읍면지역이 37명(11.6%)으로 대도시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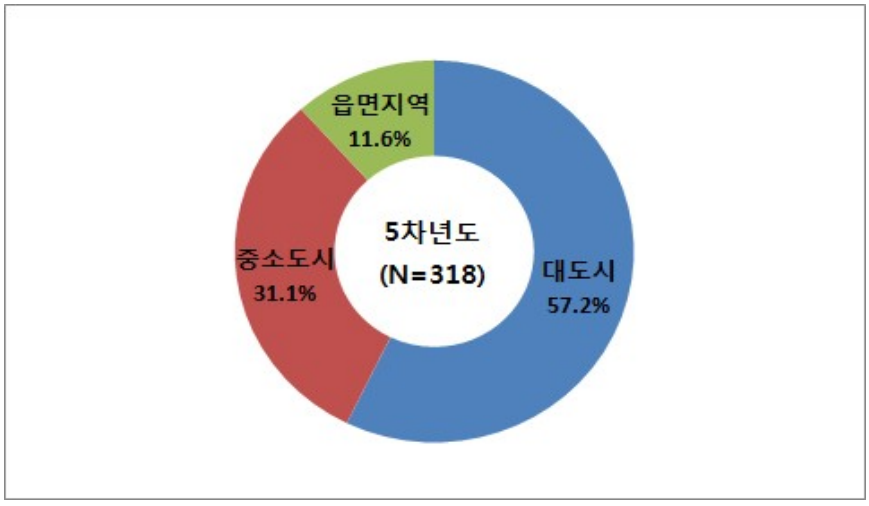
성별 구성은 남성이 167명(52.5%), 여성이 151명(47.5%)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5%p정도 많았다. 연령을 보면 주로 21세~22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1세 85명(26.7%), 22세 112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이상도 75명(23.6%)이었다. 20세 이하의 연령은 46세(14.4%)로 비교적 소수였다. 가족구성을 보면 양부모가정이 162명(50.9%)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은 88명(27.7%), 부모가 모두 안 계신 청소년은 58명(21.4%)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을 '중'이라고 응답한

[2] 2016년 시기의 이행경로는 윤철경 외(2016)의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을 참고 바람

청소년은 134명으로 전체의 42.1%였다. '하'는 122명(38.4%), '상'은 62명(19.5%) 순이었다. 학업중단 시점을 보면 초중학교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77명, 24.2%)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214명, 75.8%)가 약 3배 많았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교 사유'가 174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대안교육을 원해서' 68명(21.4%), '개인 사정으로' 45명(14.2%), '문제행동으로' 31명(9.7%) 순으로 많았다. 5차년도의 이행경로별로 보면 학업형이 145명(45.6%), 직업형이 115명(36.2%), 무업형이 58명(18.2%)으로 학업형이 과반을 차지했다.

거주지 규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과 학업중단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는 22세가 약 37~38%인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3세 이상이 37.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중단 시점에서는 대도시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초중학교 때 학업중단한 비율이 낮았고(대도시 19.2%, 중소도시 32.3%, 읍면지역 27.0%), 고등학교 때 중단한 비율이 높아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조기 학업중단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 규모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읍면지역은 남성비율이 67.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51.5%)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양부모가정의 비율도 읍면지역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중소도시(32.3%)가 가장 높았고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가정은 대도시(23.1%)가 가장 많았다. 가정경제수준에서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읍면지역(29.7%)이었고 '중'은 대도시(44.0%)가, '하'는 중소도시(42.4%)였다. 학업중단 사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읍면지역에서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그만둔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문제 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높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유형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학업형이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에는 직업형이 가장 많았다. 무업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읍면지역(21.6%)이었다. 또한 학업중단 사유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문제행동으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높았다(대도시 9.3%, 중소도시 6.1%, 읍면지역 21.6%).



【그림 Ⅱ-6】 거주지 규모별 분포

표 Ⅱ-9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
성	남자	167	52.5	94	51.6	48	48.5	25	67.6	4.06 (df=2)
	여자	151	47.5	88	48.4	51	51.5	12	32.4	
연령	20세 이하	46	14.4	22	12.1	17	17.2	7	18.9	11.36+ (df=6)
	21세	85	26.7	50	27.5	24	24.2	11	29.7	
	22세	112	35.2	70	38.5	37	37.4	5	13.5	
	23세 이상	75	23.6	40	22.0	21	21.2	14	37.8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62	50.9	89	48.9	49	49.5	24	64.9	5.78 (df=4)
	한부모 가정	88	27.7	51	28.0	32	32.3	5	13.5	
	부모 모두 안계심	68	21.4	42	23.1	18	18.2	8	21.6	
가정 경제 수준	상	62	19.5	33	18.1	18	18.2	11	29.7	3.26 (df=4)
	중	134	42.1	80	44.0	42	42.4	12	32.4	
	하	122	38.4	69	37.9	39	39.4	14	37.8	
학업 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77	24.2	35	19.2	32	32.3	10	27.0	6.17* (df=2)
	고등학교때	241	75.8	147	80.8	67	67.7	27	73.0	
학업 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45	14.2	28	15.4	14	14.1	3	8.1	8.76 (df=6)
	학교 사유	174	54.7	97	53.3	59	59.6	18	48.6	
	대안교육을 원해서	68	21.4	40	22.0	20	20.2	8	21.6	
	문제행동으로	31	9.7	17	9.3	6	6.1	8	21.6	
경로 유형	학업형	145	45.6	91	50.0	43	43.4	11	29.7	5.49 (df=4)
	직업형	115	36.2	60	33.0	37	37.4	18	48.6	
	무업형	58	18.2	31	17.0	19	19.2	8	21.6	

+$p<.10$, *$p<.05$.

2. 거주지 규모별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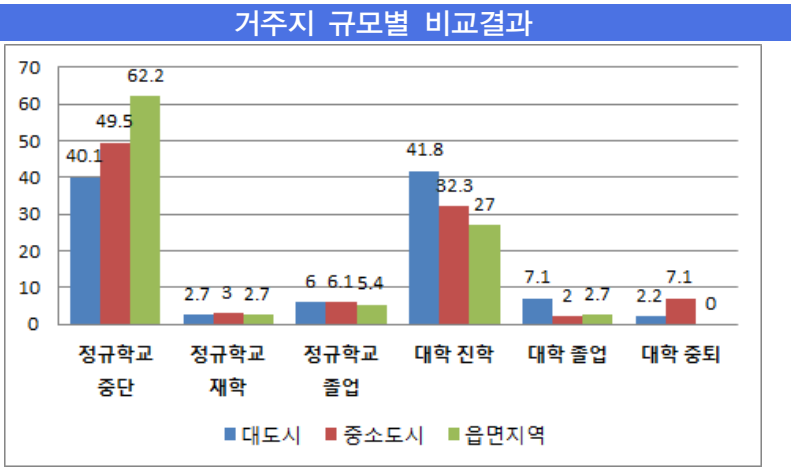
1) 거주지 규모별 조사결과

(1) 학업중단 및 복학현황

문 1. 중단/복교상태

중단/복교상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6%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37.1%가 '대학에 진학한 상태'라고 응답함

○ 대도시 거주자들은 대학 진학이 41.8%로 가장 높았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각 49.5%, 62.2%로 정규학교를 그만둔 상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대도시가 7.1%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대학 중퇴자의 비율이 7.1%였다.



【그림 Ⅱ-7】 중단/복교상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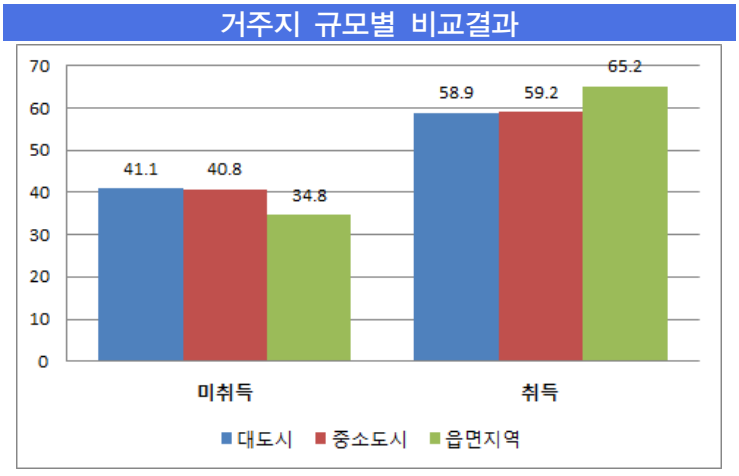
표 Ⅱ-10 중단/복교상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145	45.6	73	40.1	49	49.5	23	62.2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9	2.8	5	2.7	3	3.0	1	2.7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19	6.0	11	6.0	6	6.1	2	5.4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	118	37.1	76	41.8	32	32.3	10	27.0
⑤ 대학을 졸업한 상태(5차년도 추가)	16	5.0	13	7.1	2	2.0	1	2.7
⑥ 대학 중퇴(5차년도 추가)	11	3.5	4	2.2	7	7.1	0	0.0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1-1.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3)]

정규 중 · 고등학교 중단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자는 60.0% 였으며 미 취득자는 40.0% 였음.

○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 중 졸업자격 취득비율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 취득비율은 65.2%, 중소도시 59.2%, 대도시는 58.9%였다.



【그림 Ⅱ-8】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여부(단위: %)

표 Ⅱ-11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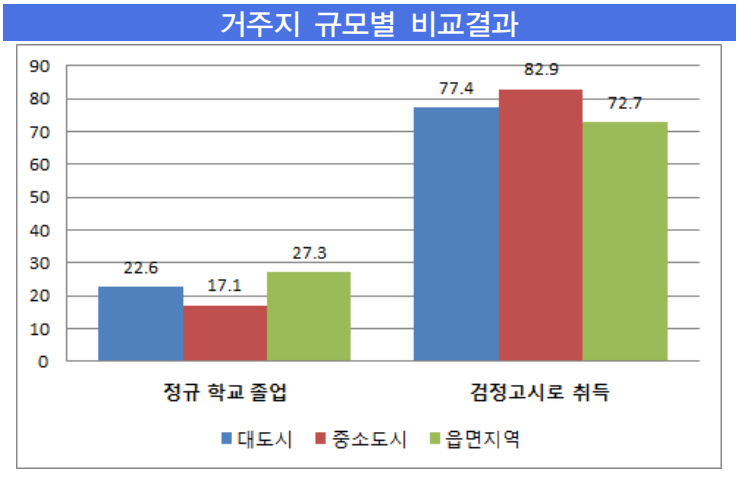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58	40.0	30	41.1	20	40.8	8	34.8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함	87	60.0	43	58.9	29	59.2	15	65.2
계	145	100.0	73	100.0	49	100.0	23	100.0

3) 문 1-1은 문 1의 ①번 '정규 중 · 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응답한 경우(N=145)만 응답한 결과임.

문 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방법(5차년도 추가)[4)]

대학 진학 · 졸업 · 중퇴자 중 78.6%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함

○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중소도시가 82.9%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77.4%, 읍면지역이 72.7% 순으로 높았다.



【그림 Ⅱ-9】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방법(단위: %)

표 Ⅱ-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방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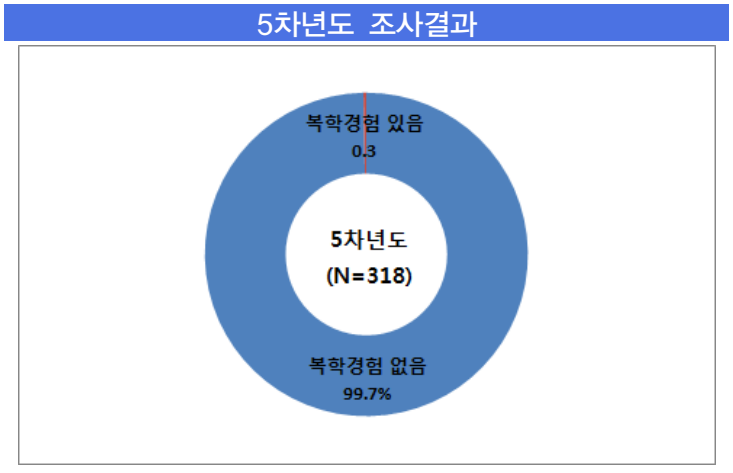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정규 학교 졸업	31	21.4	21	22.6	7	17.1	3	27.3
② 검정고시로 취득	114	78.6	72	77.4	34	82.9	8	72.7
계	145	100.0	93	100.0	41	100.0	11	100.0

4) 문 1-2는 문 1의 ④~⑥번 '대학에 진학한 상태', '대학을 졸업한 상태', '대학 중퇴'에 응답한 경우(N=145)만 응답한 결과임.

문 2. 복교 경험

전체 응답자 중 단 1명(0.3%)이 '복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318명의 응답자 중 1명(0.3%)만이 복교 경험이 있었으며, 1명의 거주지는 중소도시였다.



【그림 Ⅱ-10】 복교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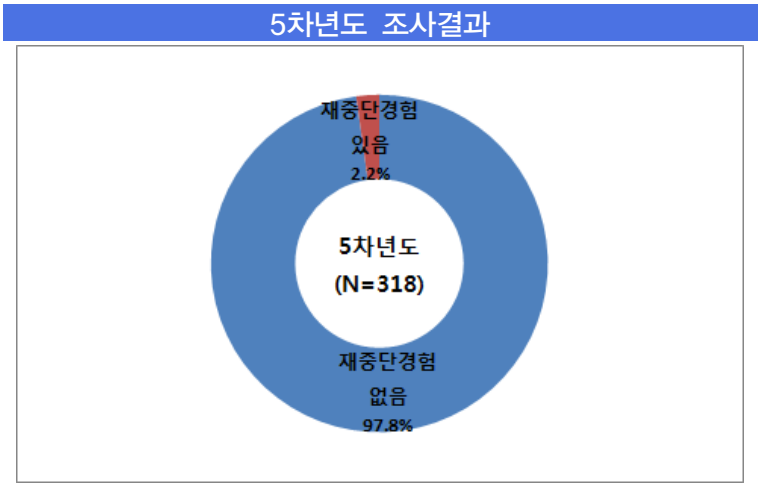
표 Ⅱ-13 복교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복학 경험 없음	317	99.7	182	100.0	98	99.0	37	100.0
② 복학 경험 있음	1	0.3	0	0.0	1	1.0	0	0.0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3. 재중단 경험

재중단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7명(2.2%)이 재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대도시 거주자는 4명, 중소도시는 3명이었고 읍면지역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림 Ⅱ-11】 재중단 경험(단위: %)

표 Ⅱ-14 재중단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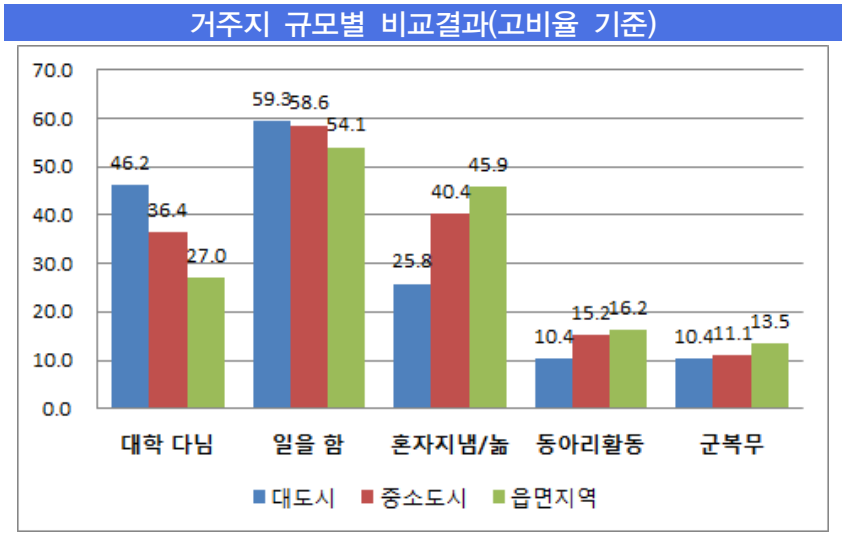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재중단 경험 없음	311	97.8	178	97.8	96	97.0	37	100.0
② 재중단 경험 있음	7	2.2	4	2.2	3	3.0	0	0.0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2)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중단 후 경험실태[5)]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58.5%)'이 가장 많았고, '대학에 다님(40.9%)',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놂(32.7%)'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의 주된 경험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일 경험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험으로, 대도시는 대학 다님(46.2%)인 반면 중소도시(40.4%)와 읍면지역(45.9%)은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았던 경험이었다. 대학에 다닌 비율은 중소도시 36.4%, 읍면지역 27.0%로 나타났고, 대도시는 혼자 지내거나 놀았던 비율이 25.8%였다. 취미나 동아리 활동은 읍면지역이 16.2%, 중소도시 15.2%, 대도시 10.4%였다. 군복무의 경우 남자만 응답했음에도 경험률이 13개 항목 중 5번째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군복무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2】 중단 후 경험실태(N=318, 단위: %)

[5)] 문 4-1은 대안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Ⅱ-15 중단 후 경험실태[6)7)] (단위: 명, %)

구분	전체 (N=318)		대도시 (N=182)		중소도시 (N=99)		읍면지역 (N=37)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복학하여 중 · 고등학교에 다님	31	9.7	17	9.3	11	11.1	3	8.1	–
2) 대안학교에 다님	5	1.6	1	0.5	2	2.0	2	5.4	–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23	7.2	12	6.6	7	7.1	4	10.8	.84 (df=2)
4) 대학입시 공부를 함	17	5.3	7	3.8	6	6.1	4	10.8	3.33 (df=2)
5) 대학에 다님	130	40.9	84	46.2	36	36.4	10	27.0	5.87^{+} (df=2)
6) 직업기술을 배움	20	6.3	8	4.4	10	10.1	2	5.4	3.60 (df=2)
7)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	27	8.5	15	8.2	8	8.1	4	10.8	.34 (df=2)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186	58.5	108	59.3	58	58.6	20	54.1	1.23 (df=2)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	104	32.7	47	25.8	40	40.4	17	45.9	7.64* (df=2)
10)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	40	12.6	19	10.4	15	15.2	6	16.2	1.80 (df=2)
1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13	4.1	9	4.9	3	3.0	1	2.7	–
12)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9	2.8	3	1.6	4	4.0	2	5.4	–
13) 군 복무	35	11.0	19	10.4	11	11.1	5	13.5	.38 (df=2)

$^{+}p<.1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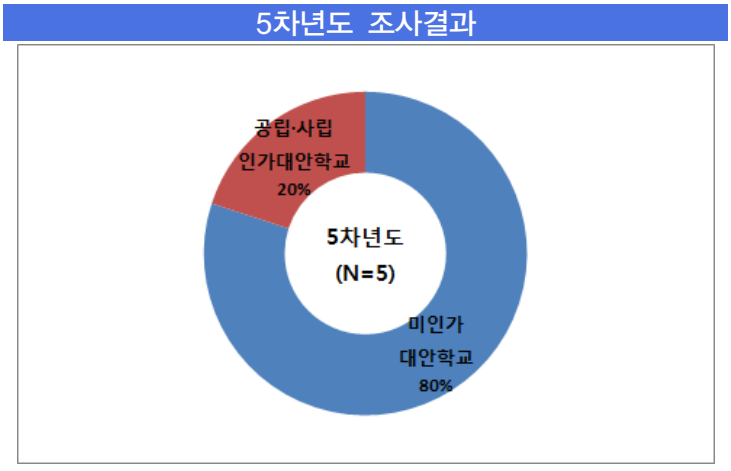
6)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7) 복수응답문항이었으며, 차이분석은 각 문항별로 경험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문 4-1-1. 대안학교 유형[8)]

지난 1년간 다닌 대안학교 유형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80.0%)', '공립 · 사립 인가 대안학교(20.0%)'가 있었음

○ 지난 1년간 다닌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읍면지역과 대도시는 모두 미인가 대안학교였고, 중소도시는 1명이 공립 · 사립 인가 대안학교, 1명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나타났다.



【그림 Ⅱ-13】 대안학교 유형(단위: %)

표 Ⅱ-16 대안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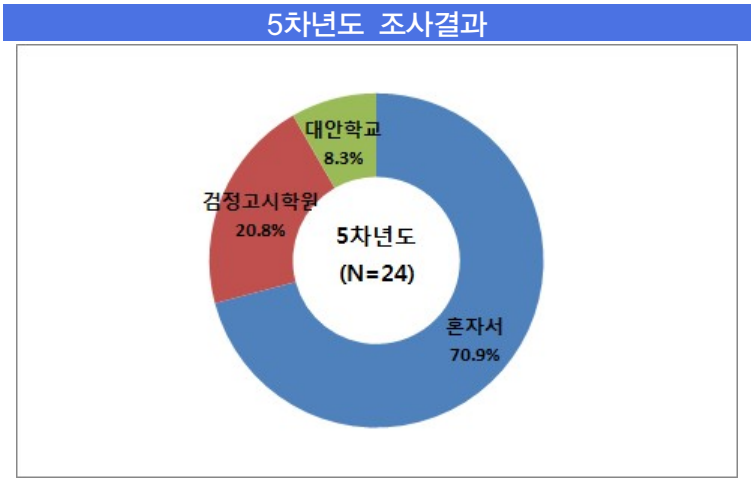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	1	20.0	0	0.0	1	50.0	0	0.0
② 미인가 대안학교	4	80.0	1	100.0	1	50.0	2	100.0
③ 위탁교육기관	0	0.0	0	0.0	0	0.0	0	0.0
④ 잘 모르겠음	0	0.0	0	0.0	0	0.0	0	0.0
계	5	100.0	1	100.0	2	100.0	2	100.0

8) 문 4-1-1은 문 4의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N=5)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 검정고시 공부 방법[9)]

지난 1년간 검정고시 공부 방법으로는 '혼자서(70.8%)'가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학원(20.8%)', '대안학교(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검정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 대체로 '혼자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14】 검정고시 공부 방법(단위: %)

표 Ⅱ-17 검정고시 공부 방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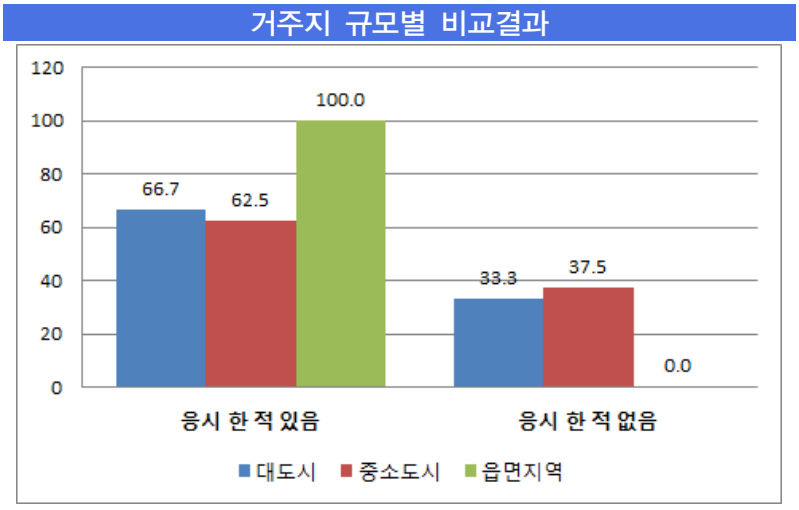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혼자서(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포함)	17	70.8	9	75.0	6	75.0	2	50.0
② 검정고시 학원	5	20.8	3	25.0	1	12.5	1	25.0
③ 동네 기관에서 지원	0	0.0	0	0.0	0	0.0	0	0.0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	0	0.0	0	0.0	0	0.0	0	0.0
⑤ 대안학교	2	8.3	0	0.0	1	12.5	1	25.0
⑥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24	100.0	12	100.0	8	100.0	4	100.0

9) 문 4-2~문 4-2-2는 문 4의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N=24)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준비자 중 검정고시 응시율은 70.8%임

○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준비자 중 검정고시 응시율은 모든 유형에서 60% 이상이었다. 읍면지역은 모든 준비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66.7%, 중소도시는 62.5%로 나타났다.



【그림 Ⅱ-15】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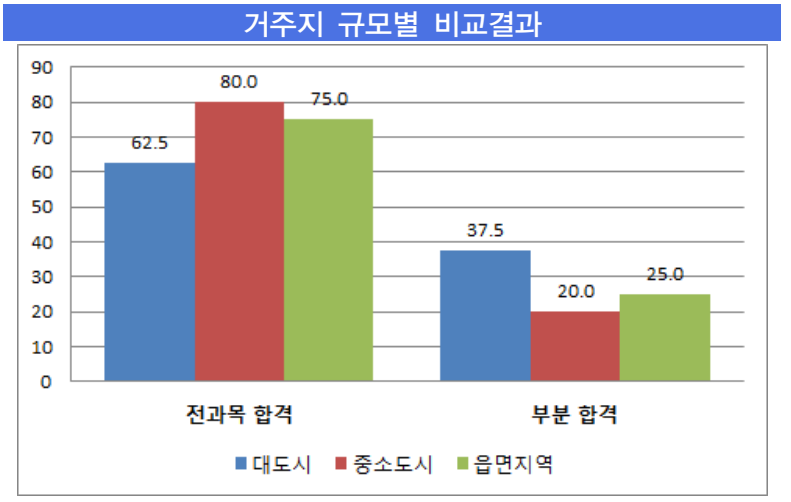
표 Ⅱ-18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응시 한 적 있음	17	70.8	8	66.7	5	62.5	4	100.0
② 응시 한 적 없음	7	29.2	4	33.3	3	37.5	0	0.0
계	24	100.0	12	100.0	8	100.0	4	100.0

문 4-2-2. 검정고시 합격 여부[10)]

검정고시 합격률은 '전과목 합격'(70.6%), '부분 합격'(29.4%)로 나타남

○ 검정고시 응시자 중 불합격자는 없었다. 모든 지역에서 전과목 합격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분 합격 비율은 대도시가 37.5%로 가장 높았다. 전과목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도시(80.0%)였다.



【그림 Ⅱ-16】 검정고시 합격 여부(단위: %)

표 Ⅱ-19 검정고시 합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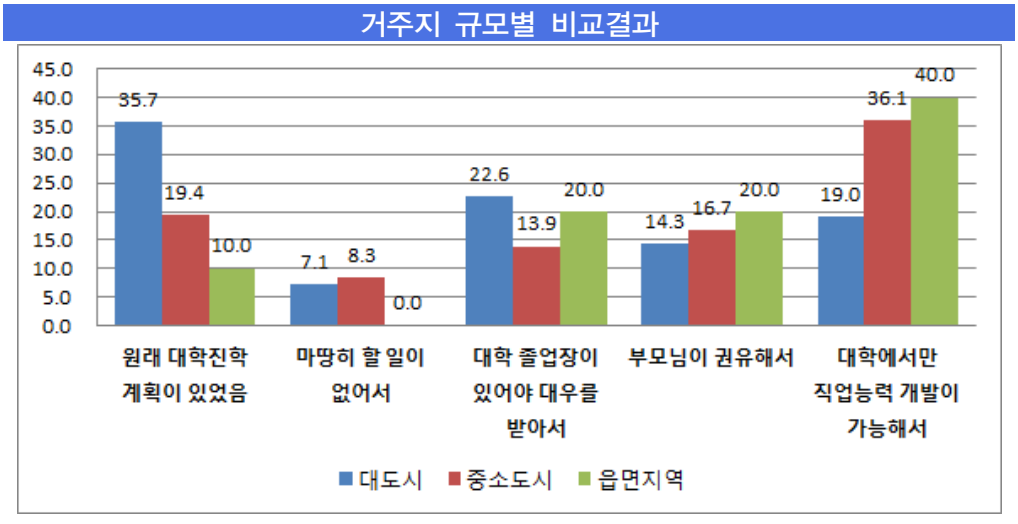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전과목 합격	12	70.6	5	62.5	4	80.0	3	75.0
② 부분 합격	5	29.4	3	37.5	1	20.0	1	25.0
③ 불합격	0	0.0	0	0.0	0	0.0	0	0.0
계	17	100.0	8	100.0	5	100.0	4	100.0

10) 문 4-2-2는 문 4-2-1(검정고시 응시여부)의 ①번 '응시한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N=17)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11)]

지난 1년간 대학에 다닌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대학에 가야만 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어서(25.4%)'가 가장 많았고, '원래 대학진학 계획이 있었음'(29.2%)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지난 1년간 대학을 다닌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도시 청소년들은 35.7%가 원래 대학진학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지역(40.0%)과 중소도시(36.1%)는 대학에서만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림 Ⅱ-17】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단위: %)

표 Ⅱ-20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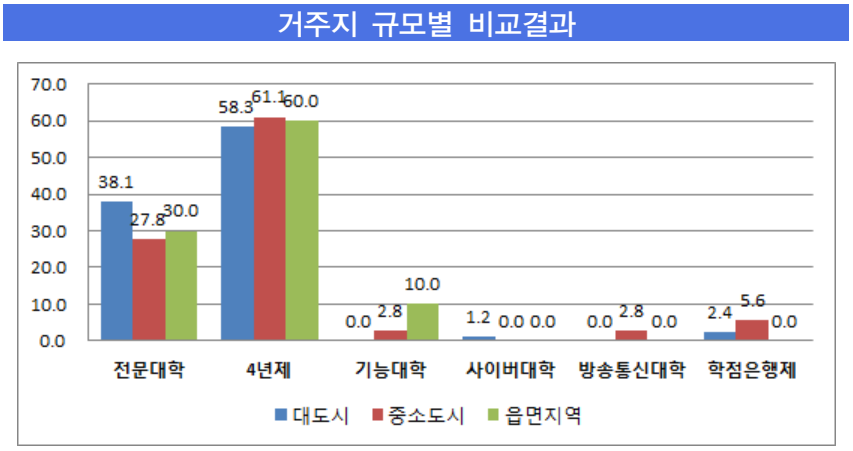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원래 대학진학 계획이 있었음	38	29.2	30	35.7	7	19.4	1	10.0
②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9	6.9	6	7.1	3	8.3	0	0.0
③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서	26	20.0	19	22.6	5	13.9	2	20.0
④ 부모님이 권유해서	20	15.4	12	14.3	6	16.7	2	20.0
⑤ 대학에서만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해서	33	25.4	16	19.0	13	36.1	4	40.0
⑥ 기타	4	3.1	1	1.2	2	5.6	1	1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

11) 문 4-3~문 4-4-9는 문 4의 '5) 대학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N=130)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3. 진학한 대학의 학제[12)]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59.2%) '전문대학(2,3년제)' (34.6%)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13.6%) 순으로 많았음

○ 현재 다니는 대학의 학제에 대해, 중소도시 61.1%, 읍면지역 60.0%, 대도시 58.3%로 모든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학(2,3년제) 순이었다(대도시 38.1%, 읍면지역 30.0%, 중소도시 27.8%). 읍면지역에는 학점은행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8】 진학한 대학의 학제(단위: %)

표 Ⅱ-21 진학한 대학의 학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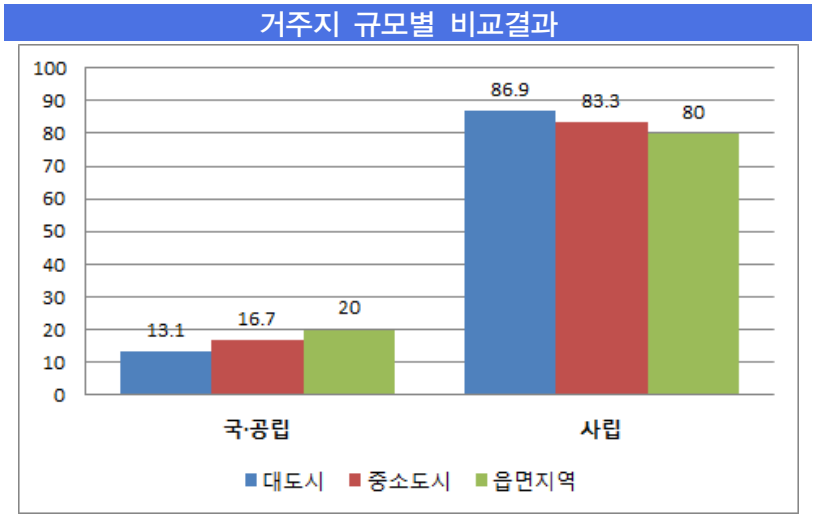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전문대학(2, 3년제)	45	34.6	32	38.1	10	27.8	3	30.0
② 4년제 대학교	77	59.2	49	58.3	22	61.1	6	60.0
③ 기능대학(폴리텍대)	2	1.5	0	0.0	1	2.8	1	10.0
④ 사이버대학	1	0.8	1	1.2	0	0.0	0	0.0
⑤ 방송통신대학	1	0.8	0	0.0	1	2.8	0	0.0
⑥ 산업대학	0	0.0	0	0.0	0	0.0	0	0.0
⑦ 전공대학	0	0.0	0	0.0	0	0.0	0	0.0
⑧ 학점은행제	4	3.1	2	2.4	2	5.6	0	0.0
⑨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0

12) 문 4-4-1과 4-4-2는 대학 소재지, 학교명, 학과명을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문 4-4-4.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진학한 대학의 설립 유형은 '사립' (85.4%)이 대부분임

○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체로 사립대학에 다닌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 비율은 대도시 86.9%, 중소도시 83.3%, 읍면지역 80.0% 순으로 높았다.



【그림 Ⅱ-19】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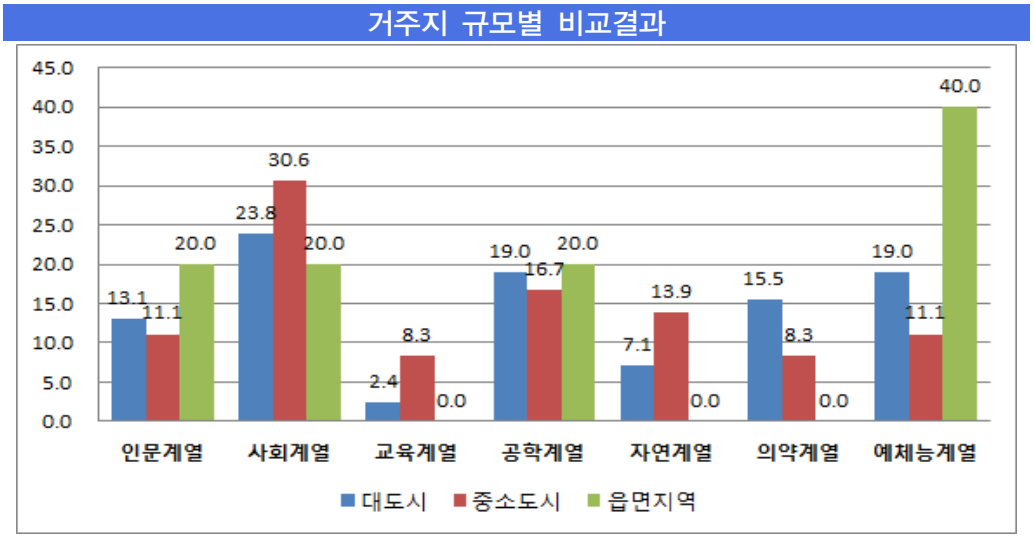
표 Ⅱ-22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국 · 공립	19	14.6	11	13.1	6	16.7	2	20.0
② 사립	111	85.4	73	86.9	30	83.3	8	8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0

문 4-4-5. 전공계열

전공계열은 '사회계열'(26.6%)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22.1%), '공학계열'(18.2%) 순으로 많았음

○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가장 많은 계열은 사회계열(대도시 23.8%, 중소도시 30.6%)인 반면 읍면지역은 40.0%로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았다.



【그림 Ⅱ-20】 전공계열(단위: %)

표 Ⅱ-23 전공계열[13]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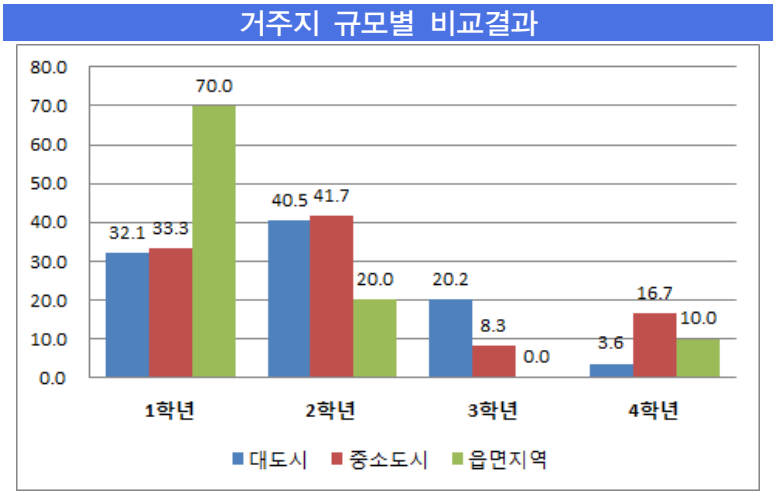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인문계열	17	13.1	11	13.1	4	11.1	2	20.0
사회계열	33	25.4	20	23.8	11	30.6	2	20.0
교육계열	5	3.8	2	2.4	3	8.3	0	0.0
공학계열	24	18.5	16	19.0	6	16.7	2	20.0
자연계열	11	8.5	6	7.1	5	13.9	0	0.0
의약계열	16	12.3	13	15.5	3	8.3	0	0.0
예체능계열	24	18.5	16	19.0	4	11.1	4	4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0

13) 전공계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인문계열 ①~②, 사회계열 ③~⑤, 교육계열 ⑥~⑩, 공학계열 ⑪~㉑, 자연계열 ㉒~㉕, 의약계열 ㉖~㉙, 예체능계열 ㉚~㉟, 기타 ㊱

문 4-4-6. 학년

2학년(39.2%), 1학년(35.4%), 3학년(15.4%), 4학년(7.7%) 순으로 많았음

○ 많은 청소년들이 조사 시점 기준 1~2학년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40% 이상이 2학년인 반면 읍면지역은 70%가 1학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졸업자로 인해 무응답한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림 Ⅱ-21】 학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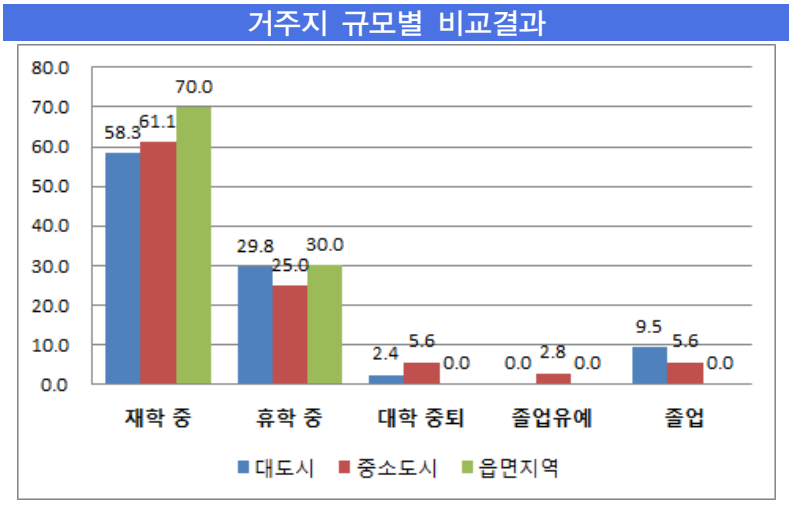
표 Ⅱ-24 학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1학년	46	35.4	27	32.1	12	33.3	7	70.0
② 2학년	51	39.2	34	40.5	15	41.7	2	20.0
③ 3학년	20	15.4	17	20.2	3	8.3	0	0.0
④ 4학년	10	7.7	3	3.6	6	16.7	1	10.0
무응답	3	2.3	3	3.6	0	0.0	0	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0

문 4-4-7. 재학상태

응답자의 60.0%가 재학 중이었으며, 28.5%는 휴학, 7.7%는 졸업, 3.1%는 대학 중퇴, 0.8%는 졸업유예 중임

○ 재학비율은 대도시에서 58.3%로 가장 낮았고 휴학중인 비율은 읍면지역이 30.0%로 가장 높았다. 졸업비율은 대도시가 9.5%로 가장 높았고, 중퇴 비율은 중소도시에서 5.6%로 높았다.



【그림 Ⅱ-22】 재학상태(단위: %)

표 Ⅱ-25 재학상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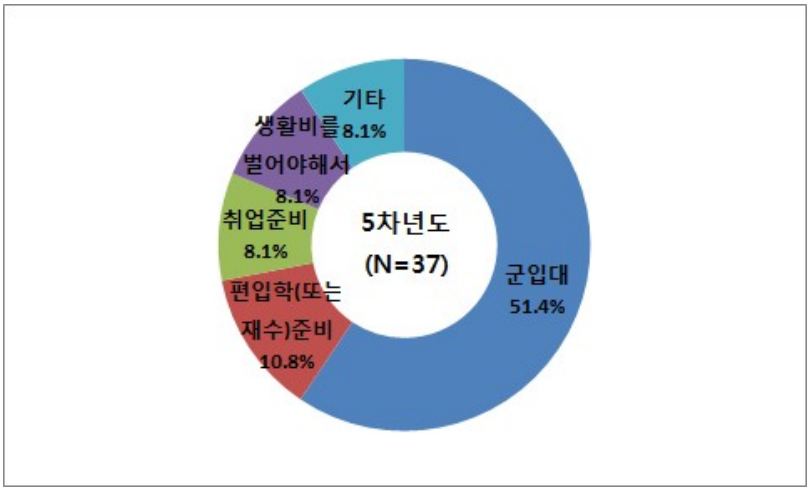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재학 중	78	60.0	49	58.3	22	61.1	7	70.0
② 휴학 중	37	28.5	25	29.8	9	25.0	3	30.0
③ 대학 중퇴	4	3.1	2	2.4	2	5.6	0	0.0
④ 졸업유예 중	1	0.8	0	0.0	1	2.8	0	0.0
⑤ 졸업	10	7.7	8	9.5	2	5.6	0	0.0
계	130	100.0	84	100.0	36	100.0	10	100.0

문 4-4-8. 휴학 사유[14)]

과반수의 응답자가 '군입대'(51.2%)로 인해 휴학했으며,
'기타'(16.3%),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 수행'(7.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대체로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많았다(대도시 44.0%,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66.7%).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편입학(재수)준비(10.8%), 취업준비, 생활비 문제, 기타(8.1%) 등이 있었다.

5차년도 조사결과(고비율 기준)



【그림 Ⅱ-23】 휴학 사유(단위: %)

표 Ⅱ-26 휴학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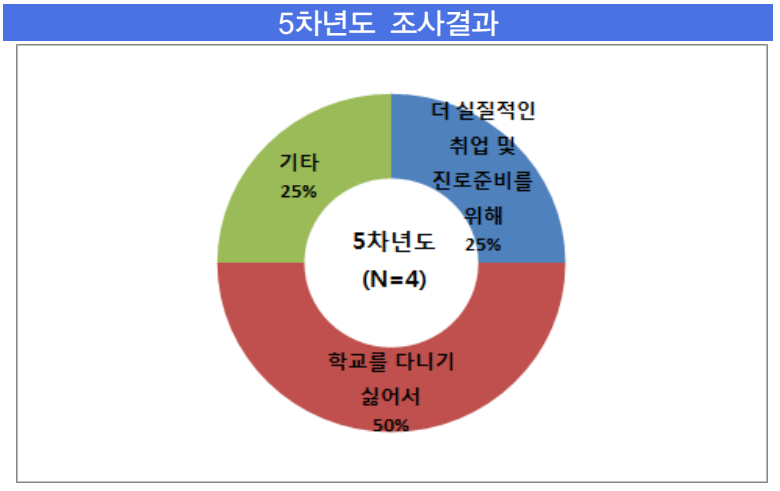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등록금이 없어서	1	2.7	0	0.0	1	11.1	0	0.0
② 어학연수/해외 여행	1	2.7	1	4.0	0	0.0	0	0.0
③ 편입학(또는 재수) 준비	4	10.8	4	16.0	0	0.0	0	0.0
④ 취업준비(자격증, 고시준비)	3	8.1	3	12.0	0	0.0	0	0.0
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3	8.1	3	12.0	0	0.0	0	0.0
⑥ 군입대	19	51.4	11	44.0	6	66.7	2	66.7
⑦ 대학원이나 유학 준비	1	2.7	1	4.0	0	0.0	0	0.0
⑧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 수행을 위해서	1	2.7	1	4.0	0	0.0	0	0.0
⑨ 건강상의 이유로	1	2.7	0	0.0	0	0.0	1	33.3
⑩ 기타	3	8.1	1	4.0	2	22.2	0	0.0
계	37	100.0	25	100.0	9	100.0	3	100.0

14) 문 4-4-8은 문 4-4-7의 ②번 '휴학 중'에 응답한 경우(N=37)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9. 중퇴 사유[15)]

대학중퇴자 중 50.0%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25.0%는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와 '기타'에 응답하였음

○ 대도시에서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중소도시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대학을 그만둔 청소년들이 있었다. 읍면지역에서는 중퇴자가 없었다.



【그림 Ⅱ-24】 중퇴 사유(단위: %)

표 Ⅱ-27 중퇴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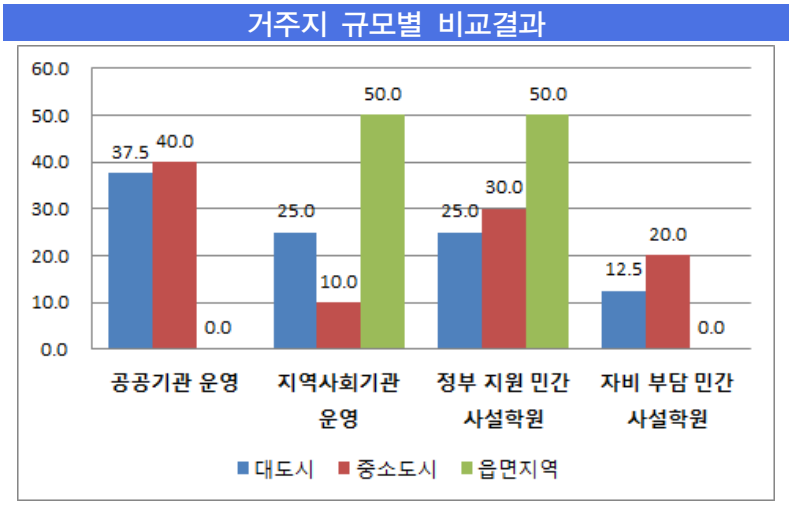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0	0.0	0	0.0	0	0.0	0	0.0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0	0.0	0	0.0	0	0.0	0	0.0
③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해서	0	0.0	0	0.0	0	0.0	0	0.0
④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1	25.0	0	0.0	1	50.0	0	0.0
⑤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	0	0.0	0	0.0	0	0.0	0	0.0
⑥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2	50.0	1	50.0	1	50.0	0	0.0
⑦ 기타	1	25.0	1	50.0	0	0.0	0	0.0
계	4	100.0	2	100.0	2	100.0	0	0.0

15) 문 4-4-9는 문 4-4-7의 ③번 '대학 중퇴'에 응답한 경우(N=4)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5. 직업훈련 프로그램[16)]

지난 1년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35.0%)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공공기관 프로그램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읍면지역은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림 Ⅱ-25】 직업훈련 프로그램(단위: %)

표 Ⅱ-28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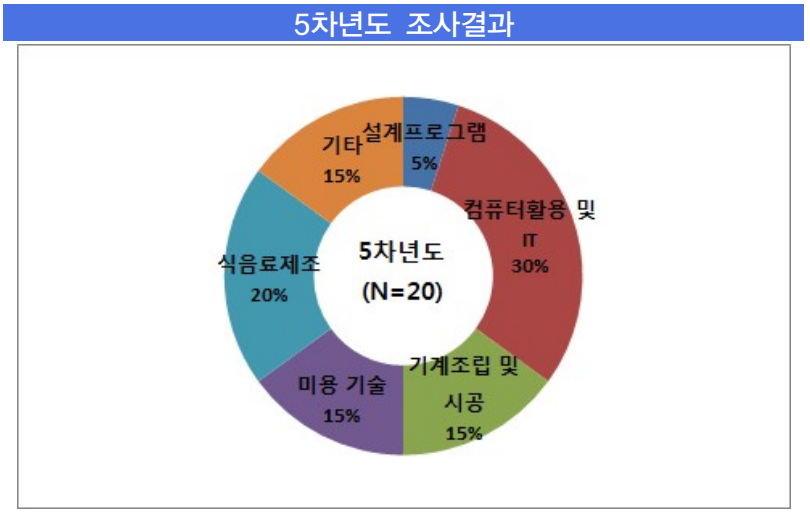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공공기관 운영	7	35.0	3	37.5	4	40.0	0	0.0
② 지역사회기관 운영	4	20.0	2	25.0	1	10.0	1	50.0
③ 정부 지원 민간 사설학원	6	30.0	2	25.0	3	30.0	1	50.0
④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	3	15.0	1	12.5	2	20.0	0	0.0
⑤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20	100.0	8	100.0	10	100.0	2	100.0

16) 문 4-5~문 4-5-7은 문 4의"6) 직업기술을 배움"에 응답한 경우(N=20)만 응답한 결과임.

문 4-5-1.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컴퓨터활용 및 IT(30.0%)'가 가장 많았고, '식음료제조(20.0%)' 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것은 컴퓨터활용 및 IT(3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음료제조(20.0%)였다. 그 외로는 기계조립 및 시공(15.0%), 미용 기술(15.0%), 기타(15.0%), 설계・제작 프로그램(5.0%)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외국어, 목공예 등이 있었다.



【그림 Ⅱ-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단위: %)

표 Ⅱ-29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1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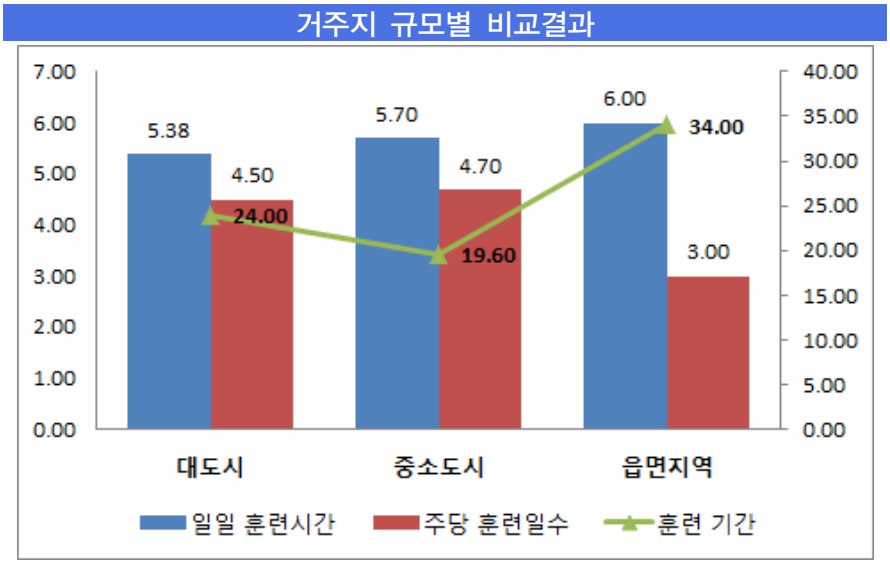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설계・제작프로그램	1	5.0	0	0.0	1	10.0	0	0
컴퓨터활용 및 IT	6	30.0	1	12.5	4	40.0	1	50.0
기계조립 및 시공	3	15.0	2	25.0	1	10.0	0	0
미용 기술	3	15.0	2	25.0	1	10.0	0	0
식음료제조	4	20.0	1	12.5	3	30.0	0	0
기타	3	15.0	2	25.0	0	0.0	1	50.0
계	20	100.0	8	100.0	10	100.0	2	100.0

17) 중복 응답시 가장 먼저 기재한 항목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문 4-5-2.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에서 일일 훈련시간은 '5.60시간', 주당 훈련일수는 '4.45일', 전체 훈련기간은 '22.8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은 읍면지역(6시간), 중소도시(5.7시간), 대도시(5.38시간) 순으로 길었고, 주당 훈련일수는 중소도시(4.7일), 대도시(4.5일), 중소도시(3일) 순으로 길었다. 훈련 기간은 읍면지역이 34주로 가장 길었고 대도시 24주, 중소도시 19.6주 순이었다.



【그림 Ⅱ-27】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N=20, 단위: 시간, 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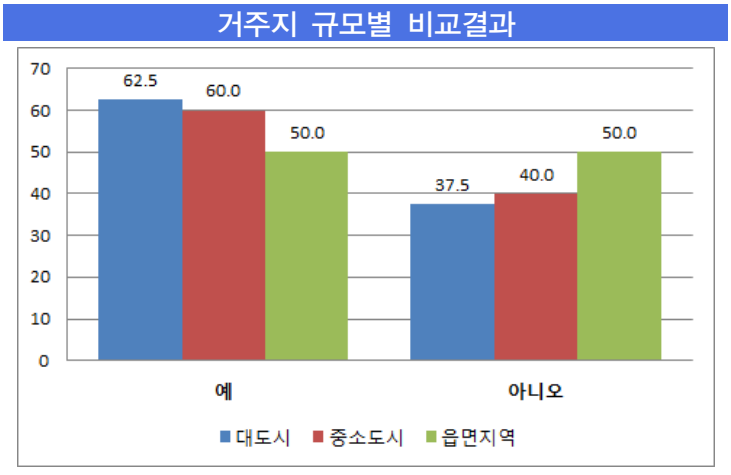
표 Ⅱ-30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N=20, 단위: 시간, 일, 주)

문항	*M(SD)*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비)
1) 일일 훈련시간	5.60(2.26)	5.38(2.33)	5.70(2.11)	6.00(4.24)	.07
2) 주당 훈련일수	4.45(1.36)	4.50(1.41)	4.70(0.95)	3.00(2.83)	1.37
3) 훈련 기간	22.80(12.65)	24.00(13.57)	19.60(9.07)	34.00(25.46)	1.16

문 4-5-3. 자격증 취득 여부

응답자의 60.0%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함

○ 직업훈련을 통해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약 60% 정도가 '있다'에 응답했다.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가 62.5%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Ⅱ-28】 자격증 취득 여부(단위: %)

표 Ⅱ-31 자격증 취득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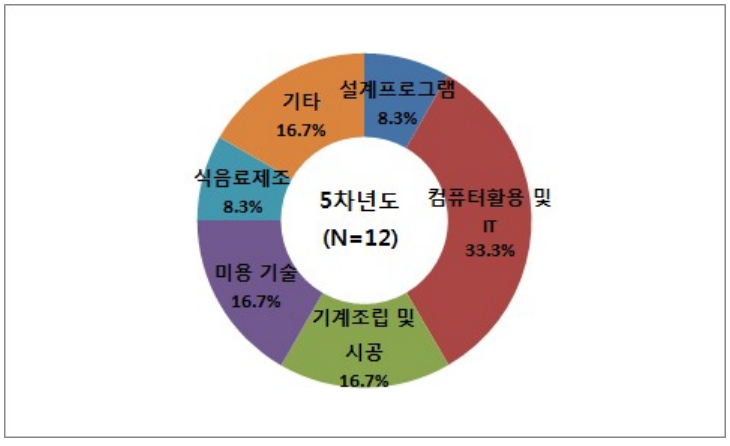
문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2	60.0	5	62.5	6	60.0	1	50.0
② 아니오	8	40.0	3	37.5	4	40.0	1	50.0
계	20	100.0	8	100.0	10	100.0	2	100.0

문 4-5-3. 자격증 종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 및 IT(33.3%)'가 가장 많았고, '기계조립 및 시공(16.7%)', '미용 기술(16.7%)'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취득할 자격증을 분류했을 때 컴퓨터활용 및 IT가 약 30% 정도였으며, 중소도시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50.0%).

5차년도 조사결과



【그림 Ⅱ-29】 자격증 종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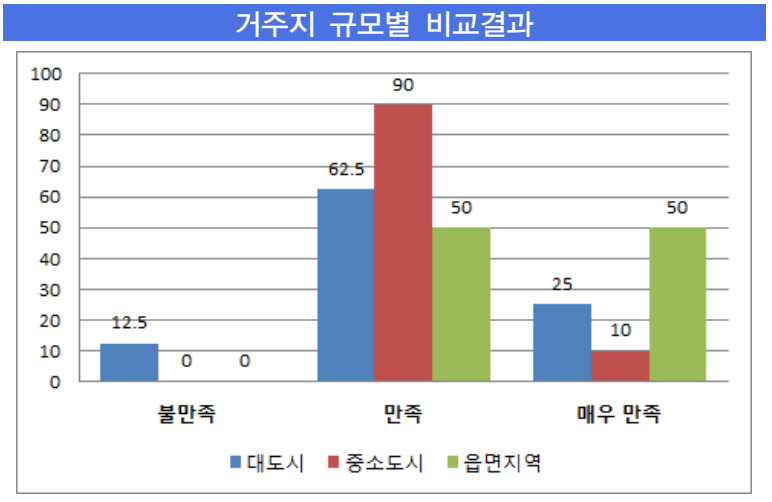
표 Ⅱ-32 자격증 종류 (단위: 명, %)

문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설계 · 제작프로그램	1	8.3	1	20.0	0	0.0	0	0.0
컴퓨터활용 및 IT	4	33.3	1	20.0	3	50.0	0	0.0
기계조립 및 시공	2	16.7	1	20.0	1	16.7	0	0.0
미용 기술	2	16.7	1	20.0	1	16.7	0	0.0
식음료제조	1	8.3	0	0.0	1	16.7	0	0.0
기타	2	16.7	1	20.0	0	0.0	1	100.0
계	12	100.0	5	100.0	6	100.0	1	100.0

문 4-5-4~문 4-5-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18)]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지역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는 불만족 사례가 1명 있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다.



【그림 Ⅱ-30】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단위: %)

표 Ⅱ-33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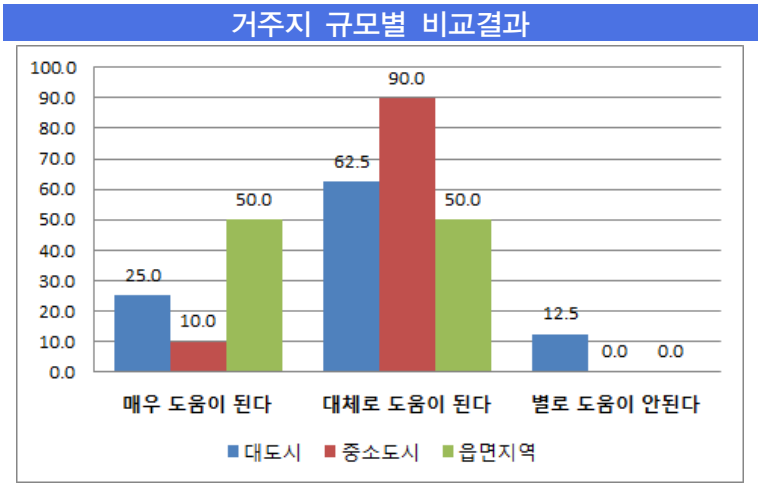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M(SD)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3.15 (0.49)
② 불만족	1	5.0	1	12.5	0	0.0	0	0.0	
③ 만족	15	75.0	5	62.5	9	90.0	1	50.0	
④ 매우 만족	4	20.0	2	25.0	1	10.0	1	50.0	
계	20	100.0	8	100.0	10	100.0	2	100.0	

18) 문 4-5-5는 문 4-5-4(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의 ①번'매우 불만족'또는 ②번'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임.

문 4-5-6~문 4-5-7.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및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19)]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5.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대도시에서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현재 배우는 프로그램을 취미로써 배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림 Ⅱ-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단위: %)

표 Ⅱ-34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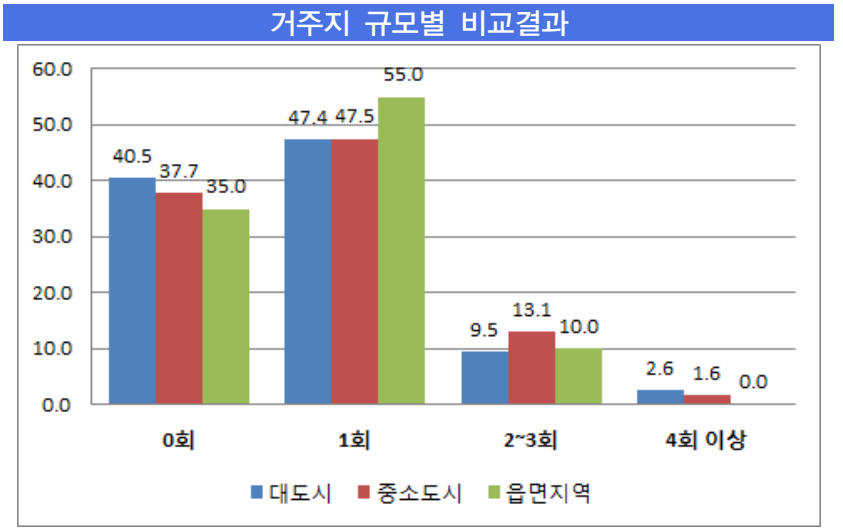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도움이 된다	4	20.0	2	25.0	1	10.0	1	50.0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15	75.0	5	62.5	9	90.0	1	50.0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1	5.0	1	12.5	0	0.0	0	0.0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0	0.0	0	0.0	0	0.0	0	0.0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19) 문 4-5-7는 문 4-5-6(직업훈련프로그램 도움정도)의 ③번'별로 도움이 안된다'또는 ④번'전혀 도움이 안된다'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임.

문 4-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20]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1회(48.2%)'가 가장 많았고, '0회(39.1%)', '2~3회(10.7%)', '4회 이상(2.0%)'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주지 규모에 상관없이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서 2~3회 중단경험이 많았다. 한번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비율은 대도시(40.5%), 중소도시(37.7%), 읍면지역(35.0%) 순으로 높았다.



【그림 Ⅱ-32】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단위: %)

표 Ⅱ-35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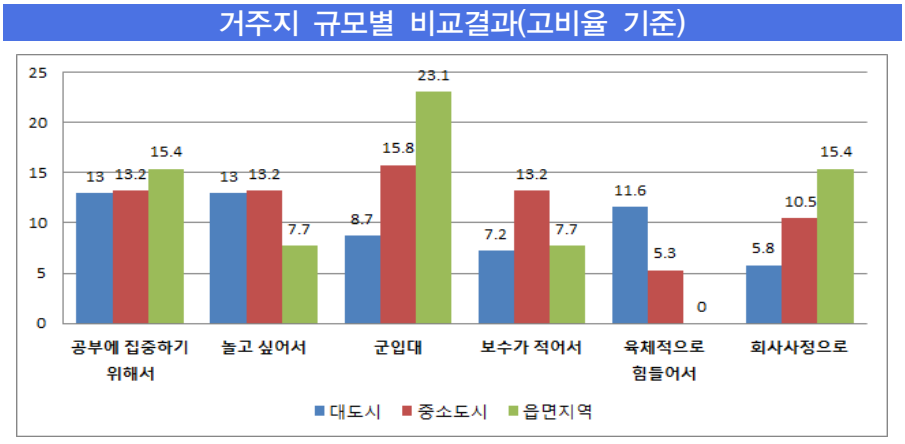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M(SD)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0회	77	39.1	47	40.5	23	37.7	7	35.0	0.84 (1.08)
1회	95	48.2	55	47.4	29	47.5	11	55.0	
2~3회	21	10.7	11	9.5	8	13.1	2	10.0	
4회 이상	4	2.0	3	2.6	1	1.6	0	0.0	
계	197	100.0	116	100.0	61	100.0	20	100.0	

[20] 문 4-6~문 4-6-1은 문 4의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N=197)만 응답한 결과임.

문 4-6-1.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21)]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13.3%)'가 가장 많았으며, '놀고 싶어서'와 '군입대'(12.5%)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읍면지역과 중소도시는 군입대(23.1%, 15.8%)가 가장 많았던 반면 대도시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은 놀고 싶어서(13.0%)가 가장 높았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보수가 적어서는 중소도시에서, 회사사정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단위: %)

표 Ⅱ-3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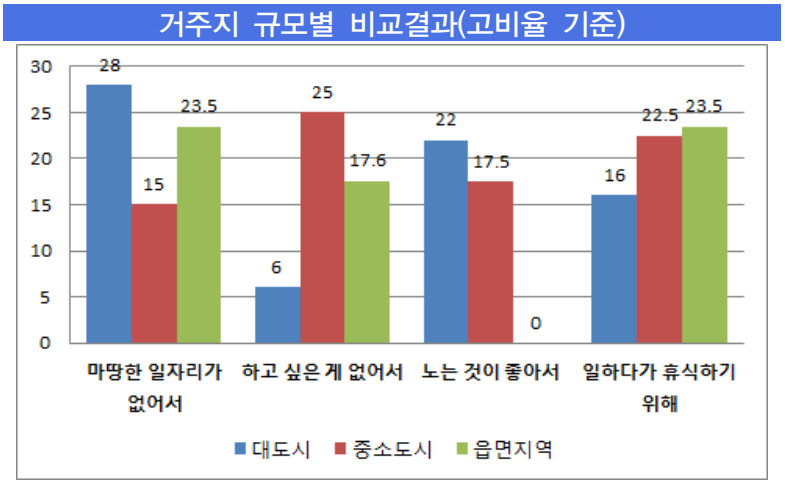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8	6.7	6	8.7	2	5.3	0	0.0
② 보수가 적어서	11	9.2	5	7.2	5	13.2	1	7.7
③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0	8.3	8	11.6	2	5.3	0	0.0
④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6	5.0	4	5.8	2	5.3	0	0.0
⑤ 개인 또는 집안 사정으로	5	4.2	1	1.4	4	10.5	0	0.0
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또는 개학해서)	16	13.3	9	13.0	5	13.2	2	15.4
⑦ 계약기간이 끝나서	5	4.2	4	5.8	1	2.6	0	0.0
⑧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8	6.7	4	5.8	2	5.3	2	15.4
⑨ 놀고 싶어서(휴식하고 싶어서)	15	12.5	9	13.0	5	13.2	1	7.7
⑩ 폐업, 해고 등 회사사정으로(5차년도추가)	10	8.3	4	5.8	4	10.5	2	15.4
⑪ 군입대(5차년도 추가)	15	12.5	6	8.7	6	15.8	3	23.1
⑫ 이직하려고(5차년도 추가)	7	5.8	5	7.2	0	0.0	2	15.4
⑬ 기타	4	3.3	4	5.8	0	0.0	0	0.0
계	120	100.0	69	100.0	38	100.0	13	100.0

21) 문 4-6-1은 문 4-6에서 '1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N=120)만 응답한 결과임.

문 4-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22)]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2.4%)'가 가장 많았음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던 이유로 대도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8.0%)'가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는 '하고 싶은게 없어서(25.0%)', 읍면지역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다가 휴식하기 위해(2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읍면지역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이나 집안 사정 상'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Ⅱ-34】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단위: %)

표 Ⅱ-3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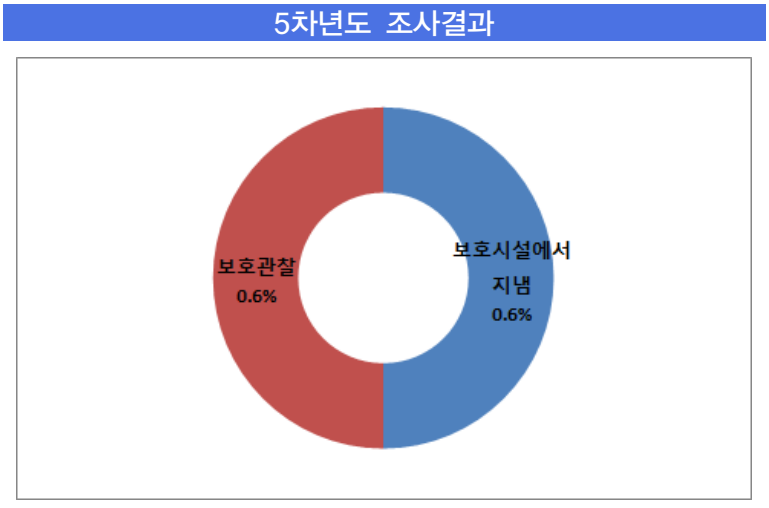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24	22.4	14	28.0	6	15.0	4	23.5
② 하고 싶은 것을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4	3.7	2	4.0	2	5.0	0	0.0
③ 하고 싶은 게 없어서	16	15.0	3	6.0	10	25.0	3	17.6
④ 노는 것이 좋아서	18	16.8	11	22.0	7	17.5	0	0.0
⑤ 개인이나 집안 사정 상	10	9.3	3	6.0	2	5.0	5	29.4
⑥ 군입대, 복학, 대학입학 등을 기다리느라	10	9.3	7	14.0	2	5.0	1	5.9
⑦ 일하다가 휴식하기 위해	21	19.6	8	16.0	9	22.5	4	23.5
⑧ 기타	4	3.7	2	4.0	2	5.0	0	0.0
계	107	100.0	50	100.0	40	100.0	17	100.0

22) 문 4-7는 문 4의"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에 응답한 경우(N=107)만 응답한 결과임.

문 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23)]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은
'보호시설에서 지냄'과 '보호관찰을 받음'이 각 0.6%로 조사됨

○ 비행경험에 대해 중소도시의 응답자 2명만이 보호시설에서 지낸 경험과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을 보고했다.



【그림 Ⅱ-3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N=318, 단위: %)

표 Ⅱ-38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N=3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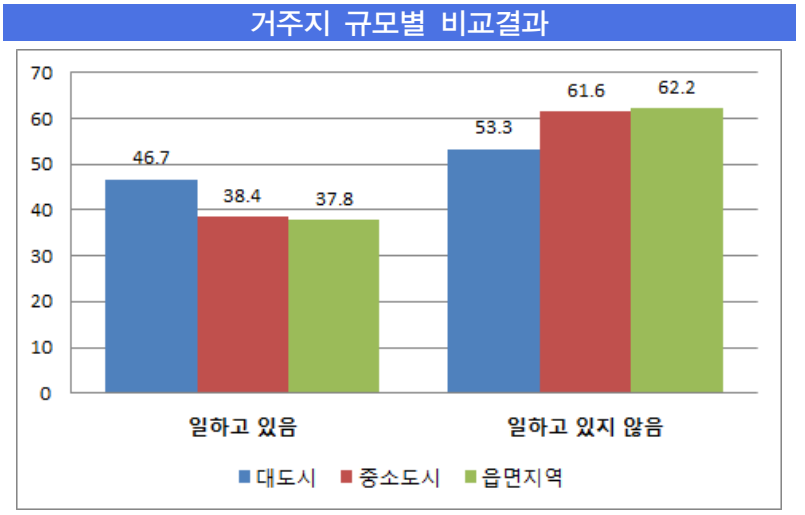
문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0	0.0	0	0.0	0	0.0	0	0.0
2) 보호시설에서 지냄	2	0.6	0	0.0	2	2.0	0	0.0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2	0.6	0	0.0	2	2.0	0	0.0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0	0.0	0	0.0	0	0.0	0	0.0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0	0.0	0	0.0	0	0.0	0	0.0

23)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6. 일(아르바이트) 경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3.1%가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대도시가 다른 유형에 비해 46.7%로 높은 편이었다. 중소도시는 38.4%, 읍면지역은 37.8%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Ⅱ-36】 일(아르바이트)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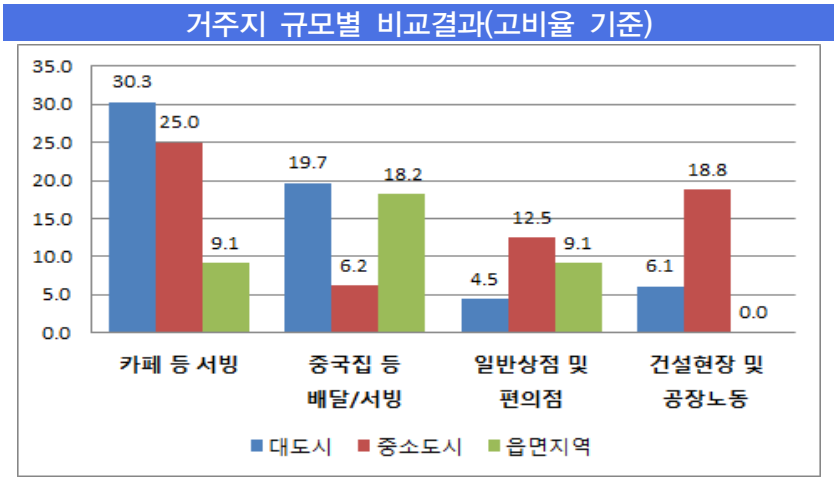
표 Ⅱ-39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37	43.1	85	46.7	38	38.4	14	37.8	2.28 (df=2)
② 아니오	181	56.9	97	53.3	61	61.6	23	62.2	
계	318	100.0	182	100.0	99	100	37	100.0	

문 6-1-1. 일(아르바이트) 업종[24]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기타(25.5%)'를 제외하고
'카페 등 서빙(21.2%)', '중국집 등 배달/서빙(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는 카페 등의 서빙과 중국집 등 배달/서빙이, 중소도시는 서빙과 건설현장 및 공장노동이 많았고, 읍면지역은 중국집 등 배달/서빙이 많은 편이었다.



【그림 Ⅱ-37】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단위: %)

표 Ⅱ-40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25]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카운터/서빙(까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29	21.2	20	30.3	8	25.0	1	9.1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17	12.4	13	19.7	2	6.2	2	18.2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8	5.8	3	4.5	4	12.5	1	9.1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10	7.3	4	6.1	6	18.8	0	0.0
주유소 주유원	1	0.7	0	0.0	1	3.1	0	0.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	0.7	1	1.5	0	0.0	0	0.0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	0.7	1	1.5	0	0.0	0	0.0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3	2.2	2	3.0	0	0.0	1	9.1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4	2.9	2	3.0	0	0.0	2	18.2
기타	35	25.5	20	30.3	11	34.4	4	36.4
계	137	100.0	66	100.0	32	100	11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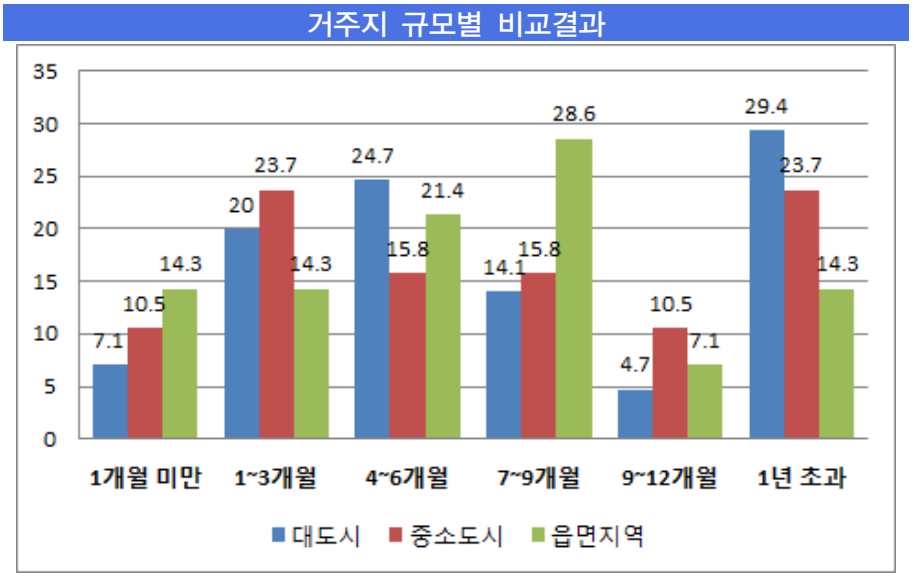
24) 문 6-1-1~문 6-1-10은 문 6(일(아르바이트) 여부)의 ①번'예'에 응답한 경우(N=137)만 응답한 결과임.

25)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별에 포함된 보기는 다음과 같음. 카운터/서빙(까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②, ⑤, ⑥, ⑦번.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⑧, ⑨번.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③, ④번. 건설현장 및 공장노동 ⑭, ⑮번. 주유소 주유원 ⑫번.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⑪번.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⑯번.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⑩번.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㉓번. 기타 ①, ⑬, ⑰~㉒, ㉔~㉛번.

문 6-1-2. 근무기간[26)]

근무기간은 1~3개월(34.9%)이 가장 많았고 4~6개월(19.6%) 순이었음

○ 거주지 규모별 근무기간을 보면, 대도시는 1년 초과(29.4%)가 가장 많은 반면 중소도시는 1~3개월, 1년 초과가 23.7%, 읍면지역은 7~9개월이 28.6%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38】 근무기간(단위: %)

표 Ⅱ-41 근무기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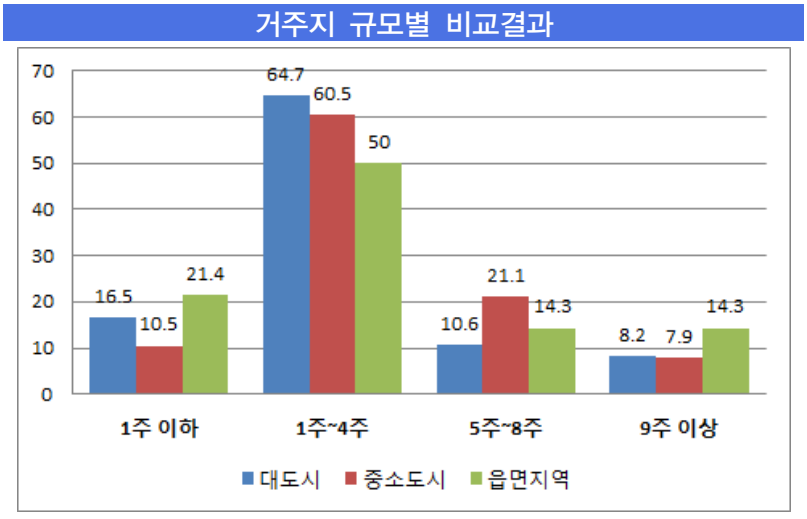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1개월 미만	12	8.8	8.74 (10.40)	6	7.1	9.41 (11.28)	4	10.5	7.55 (8.65)	2	14.3	7.93 (9.43)
1~3개월	28	20.4		17	20.0		9	23.7		2	14.3	
4~6개월	30	21.9		21	24.7		6	15.8		3	21.4	
7~9개월	22	16.1		12	14.1		6	15.8		4	28.6	
9~12개월	9	6.6		4	4.7		4	10.5		1	7.1	
1년 초과	36	26.3		25	29.4		9	23.7		2	14.3	
계	137	100.0		85	100.0		34	100.0		14	100.0	

26) 문 6-1-2는 일을 시작한 시점을 물어본 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함

문 6-1-3. 구직 기간

구직 기간은 '1주~4주(62.0%)'가 가장 많았음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주~4주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1주 이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는 5주~8주가 가장 많았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는 구직 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Ⅱ-39】 구직 기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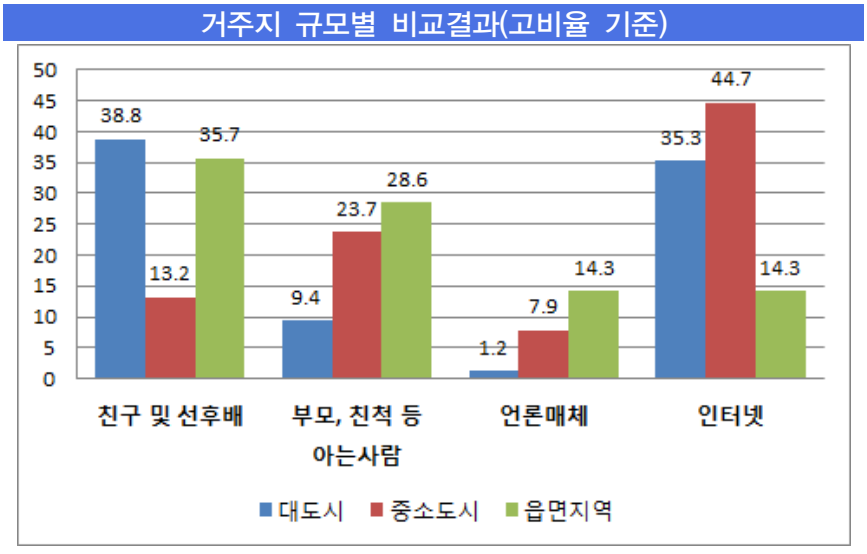
표 Ⅱ-42 구직 기간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1주 이하	21	15.3	3.01 (6.39)	14	16.5	2.75 (5.74)	4	10.5	3.37 (7.72)	3	21.4	3.57 (6.54)
1주~4주	85	62.0		55	64.7		23	60.5		7	50.0	
5주~8주	19	13.9		9	10.6		8	21.1		2	14.3	
9주 이상	12	8.8		7	8.2		3	7.9		2	14.3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문 6-1-4. 주된 취업경로

주된 취업경로는 '인터넷을 통해서(35.8%)',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서(31.4%)',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15.3%)' 등의 순이었음

○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주된 취업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친구 및 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언론매체를 통한 취업경험이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취업은 낮았다. 중소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취업은 없는 편이었다.



【그림 Ⅱ-40】 주된 취업경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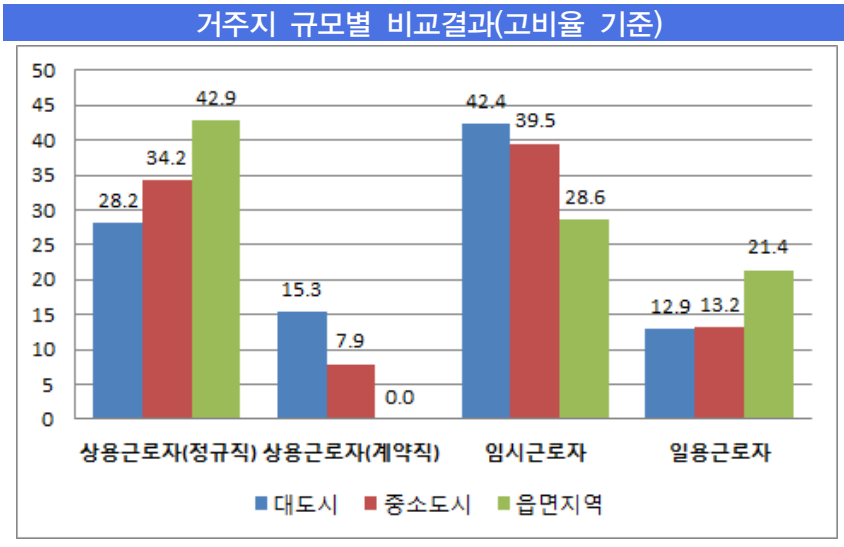
표 Ⅱ-43 주된 취업경로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4	2.9	3	3.5	1	2.6	0	0.0
② 학교 선생님 및 교수님을 통해서	7	5.1	6	7.1	1	2.6	0	0.0
③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서	43	31.4	33	38.8	5	13.2	5	35.7
④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21	15.3	8	9.4	9	23.7	4	28.6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6	4.4	1	1.2	3	7.9	2	14.3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2	1.5	1	1.2	1	2.6	0	0.0
⑦ 인터넷을 통해서	49	35.8	30	35.3	17	44.7	2	14.3
⑧ 기타	5	3.6	3	3.5	1	2.6	1	7.1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문 6-1-5.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40.1%)'가 가장 많았으며
상용근로자(정규직) (31.4%), 일용근로자 (13.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현재 직업의 지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읍면지역은 정규직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용근로자는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계약직 상용근로자는 대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41】 종사상 지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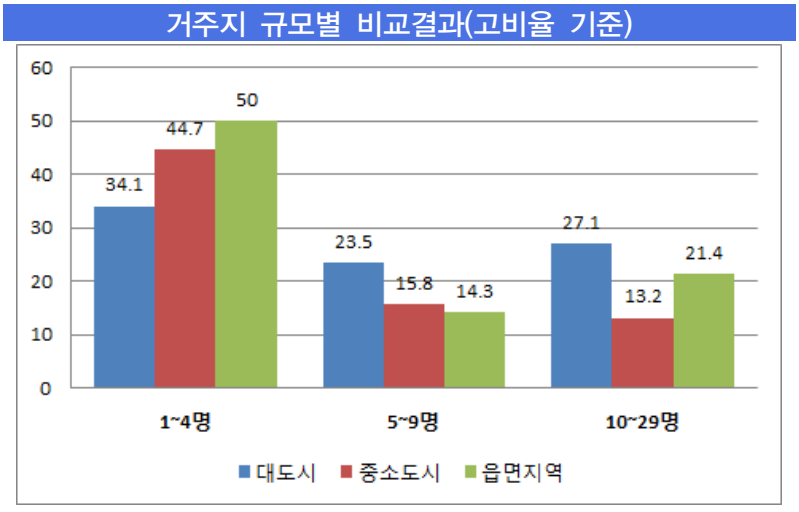
표 Ⅱ-44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상용근로자(정규직)	43	31.4	24	28.2	13	34.2	6	42.9
② 상용근로자(계약직)	16	11.7	13	15.3	3	7.9	0	0.0
③ 임시근로자	55	40.1	36	42.4	15	39.5	4	28.6
④ 일용근로자	19	13.9	11	12.9	5	13.2	3	21.4
⑤ 자영업자	3	2.2	1	1.2	1	2.6	1	7.1
⑥ 무급가족종사자	1	0.7	0	0.0	1	2.6	0	0.0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문 6-1-6. 사업장의 직원 수

사업장의 직원 수는 '1~4명(38.7%)'이 가장 많았고 '10~29명(22.6%)'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모든 거주지에서 1~4명의 비율이 가장 많아, 대체로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Ⅱ-42】 사업장 직원 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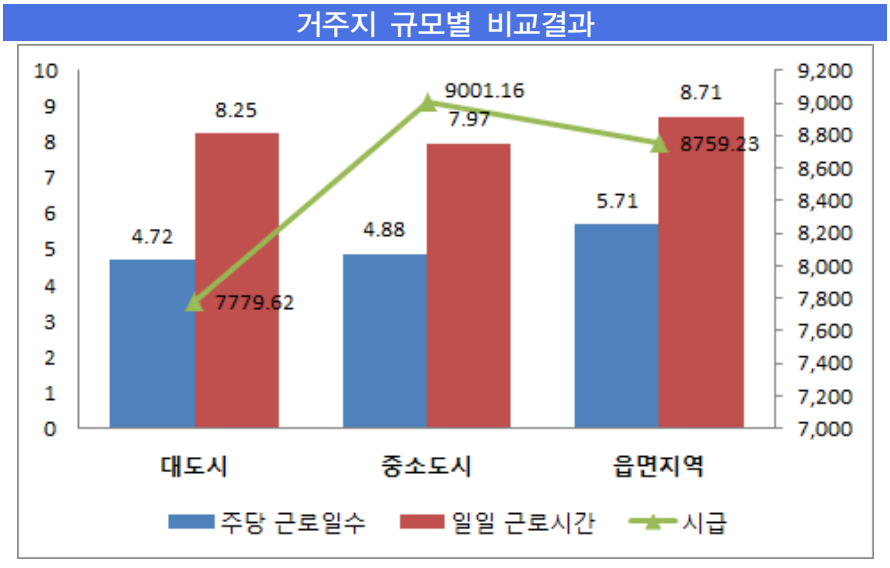
표 Ⅱ-45 사업장 직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1~4명	53	38.7	29	34.1	17	44.7	7	50.0
② 5~9명	28	20.4	20	23.5	6	15.8	2	14.3
③ 10~29명	31	22.6	23	27.1	5	13.2	3	21.4
④ 30~49명	5	3.6	3	3.5	2	5.3	0	0.0
⑤ 50명~99명	6	4.4	2	2.4	3	7.9	1	7.1
⑥ 100명~299명	6	4.4	3	3.5	2	5.3	1	7.1
⑦ 300명~499명	5	3.6	4	4.7	1	2.6	0	0.0
⑧ 500명~999명	2	1.5	1	1.2	1	2.6	0	0.0
⑨ 1,000명 이상	1	0.7	0	0.0	1	2.6	0	0.0
⑩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문 6-1-7~6-1-8.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87일', 일일 근로시간은 평균 '8.2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시급은 평균 '9760.45원'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과 시급을 질문한 결과 주당 근로일수와 시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주당 근로일수는 읍면지역이 5.71일로 대도시 4.72일에 비해 길었다. 일일 근로시간은 읍면지역 8.71시간, 대도시 8.25시간, 중소도시 7.97시간이었다. 시급은 중소도시가 약 9천원 대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 8700원, 대도시 7700원 순이었다.



【그림 Ⅱ-43】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N=137, 단위: 일, 시간, 원)

표 Ⅱ-46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N=137, 단위: 일, 시간, 원)

구분	*M(SD)*				*F*(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1-7. 주당 근로일수	4.87 (1.33)	4.72 (1.39)	4.88 (1.31)	5.71 (0.61)	3.44* (a<c)
6-1-7. 일일 근로시간	8.22 (2.09)	8.25 (2.20)	7.97 (1.87)	8.71 (2.02)	.66
6-1-8. 시급	9760.45 (18485.67)	7779.62 (2415.34)	9001.16 (5842.70)	8759.23 (3555.13	1.5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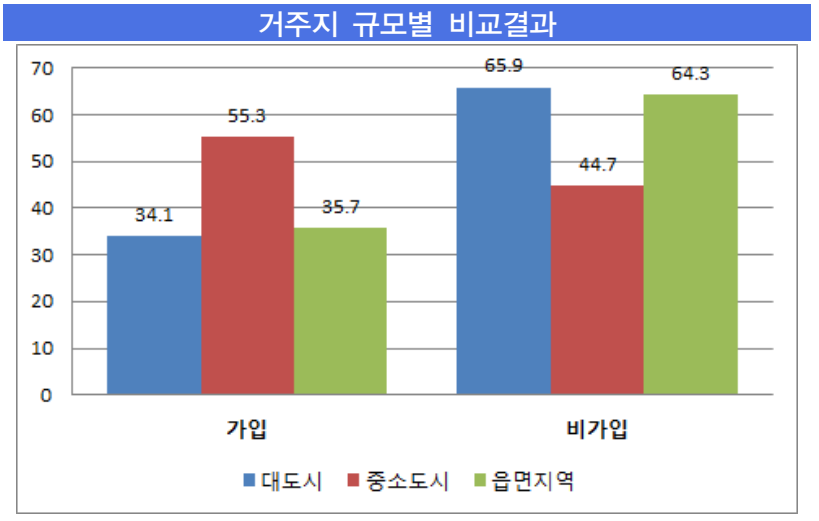
*주: 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지역

문 6-1-8의 읍면지역 응답에서 이상치(220,000원)가 발견되어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문 6-1-9. 4대 보험 가입유무[27)]

응답자의 40.1%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소도시는 과반수가(55.3%) 가입되어 있던 반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가입률은 약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44】 4대 보험 가입유무(단위: %)

표 Ⅱ-47 4대 보험 가입유무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가입	55	40.1	29	34.1	21	55.3	5	35.7	5.01^{+} (df=2)
② 비가입	82	59.9	56	65.9	17	44.7	9	64.3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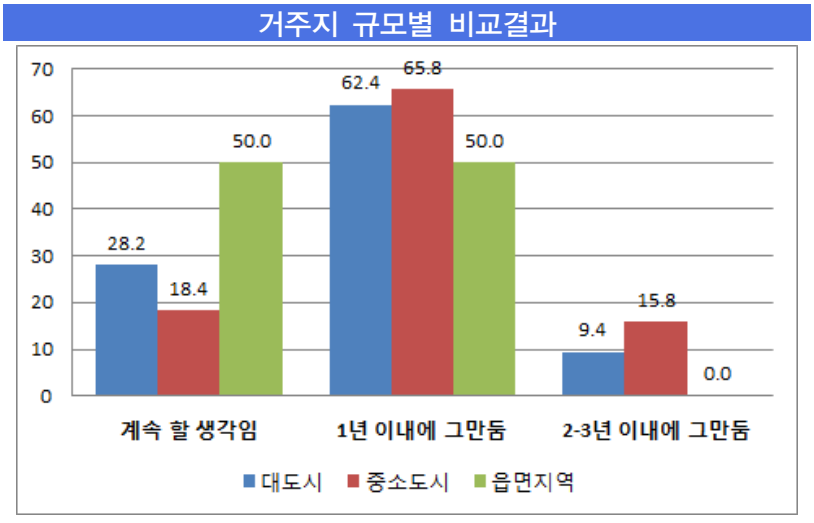
$^{+}p<.10$.

27) 문 6-1-9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서 한 가지라도 가입했다면 '① 가입'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가입은 제외함

문 6-1-10. 향후 전망

전체 응답자의 62.0%가 '1년 이내에 그만둠',
27.7%가 '계속 할 생각임'에, 10.2%가 '2-3년 이내에 그만둠'에 응답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1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응답이 많았다. 계속 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읍면지역 50.0%, 대도시 28.2%, 중소도시는 18.4% 순으로 많았다. 2-3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15.8%, 대도시 9.4%였고 읍면지역은 응답자가 없었다.



【그림 Ⅱ-45】 향후 전망(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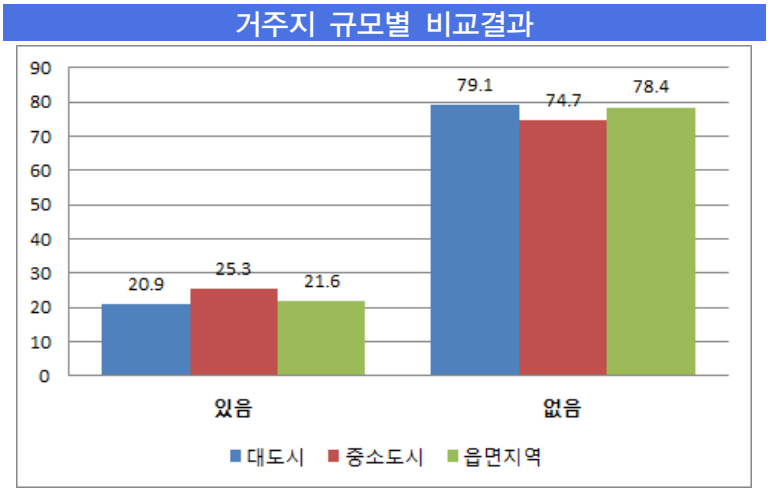
표 Ⅱ-48 향후 전망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계속 할 생각임	38	27.7	24	28.2	7	18.4	7	50.0
② 1년 이내에 그만 둘 것임	85	62.0	53	62.4	25	65.8	7	50.0
③ 2-3년 이내에 그만 둘 것임	14	10.2	8	9.4	6	15.8	0	0.0
계	137	100.0	85	100.0	38	100.0	14	100.0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전체 응답자의 22.3%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곳은 중소도시(25.3%)였고, 읍면지역 21.6%, 대도시 20.9% 순이었다.



【그림 Ⅱ-46】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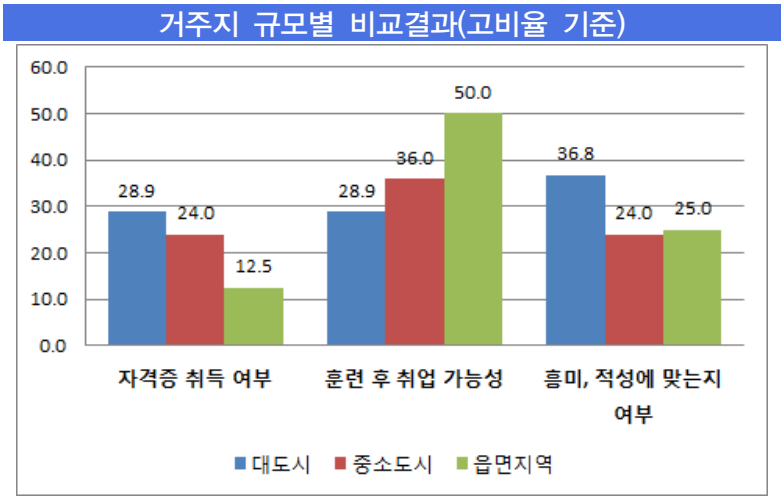
표 Ⅱ-4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있음	71	22.3	38	20.9	25	25.3	8	21.6	.72 (df=2)
② 없음	247	77.7	144	79.1	74	74.7	29	78.4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7-1.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28)]

직업훈련을 받을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훈련 후 취업가능성(33.8%)', '흥미 · 적성에 맞는지 여부(31.0%)', '자격증 취득 여부(25.4%)' 등이 꼽힘

○ 대도시는 흥미, 적성에 맞는지 여부가 36.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훈련 후 취업가능성이 각 36.0%, 50.0%로 가장 높았다. 자격증 취득여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단위: %)

표 II-50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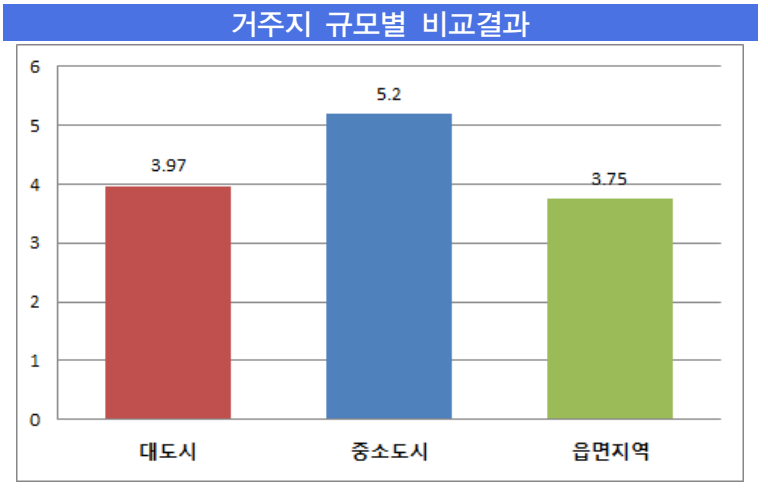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자격증 취득 여부	18	25.4	11	28.9	6	24.0	1	12.5
② 훈련 후 취업 가능성	24	33.8	11	28.9	9	36.0	4	50.0
③ 흥미, 적성에 맞는지 여부	22	31.0	14	36.8	6	24.0	2	25.0
④ 총 훈련기간	3	4.2	1	2.6	2	8.0	0	0.0
⑤ 훈련 시 받는 수당	2	2.8	1	2.6	1	4.0	0	0.0
⑥ 주간 참여 일수 및 1일 훈련 시간	2	2.8	0	0.0	1	4.0	1	12.5
계	71	100.0	38	100.0	25	100.0	8	100.0

28) 문 7-1~7-4는 문 7(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①번'있음'에 응답한 경우(N=71)만 응답한 결과임.

문 7-2.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기간

적정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간 평균은 4.38개월로 나타남

○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적당한 훈련기간을 질문한 결과, 중소도시는 5.20개월, 대도시는 3.97개월, 읍면지역은 3.75개월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훈련기간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기간(N=71,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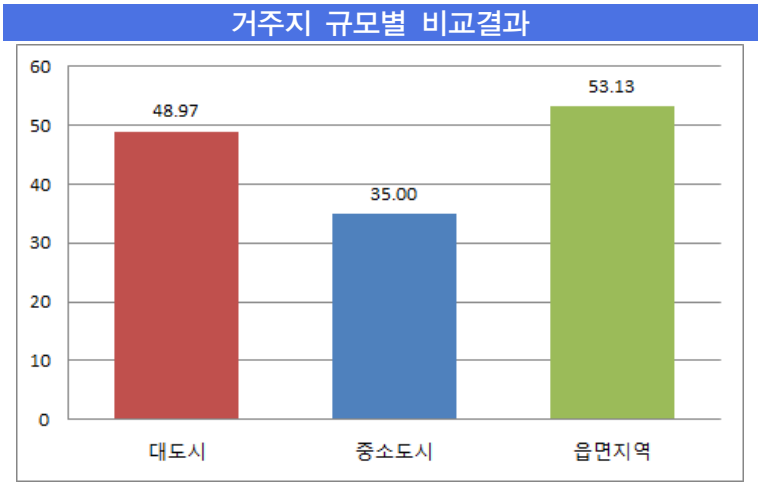
표 Ⅱ-51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기간(N=71) (단위: 개월)

구분	M(SD)				F(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적정한 훈련기간	4.38 (2.42)	3.97 (2.42)	5.20 (2.43)	3.75 (1.91)	2.32

문 7-3.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수당

적당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당 평균은 44.52만원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을 받을 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되어야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도시 응답자들은 한 달 기준으로 48.97만원, 중소도시는 35.00만원, 읍면지역은 53.13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Ⅱ-49】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수당(N=71,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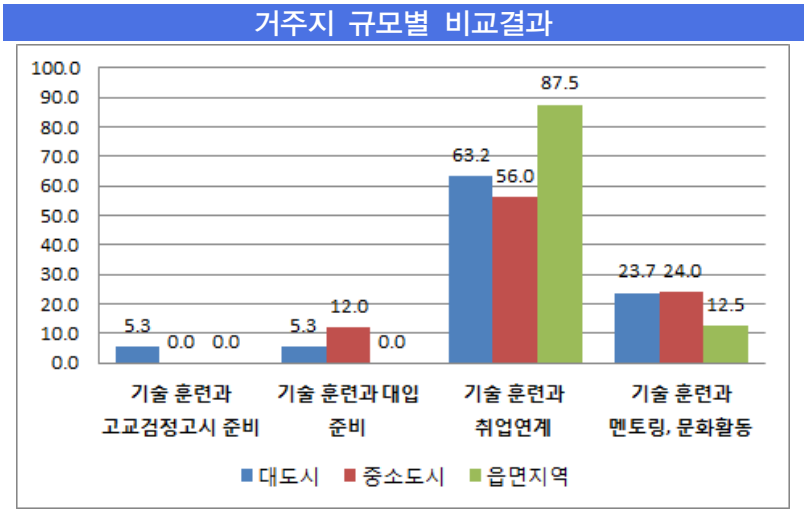
표 Ⅱ-52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정 수당(N=71) (단위: 만 원)

구분	*M(SD)*				*F*(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적정 수당	44.52 (30.82)	48.97 (34.32)	35.00 (22.22)	53.13 (32.62)	1.95

문 7-4.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특정직업의 기술훈련과 확실한 취업연계(63.4%)'였으며, '멘토링, 문화활동 등을 병행한 특정직업 기술훈련(22.5%)'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대체로 기술 훈련과 취업연계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기술 훈련과 멘토링 및 문화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대입준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선호율은 중소도시에서 12.0%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Ⅱ-50】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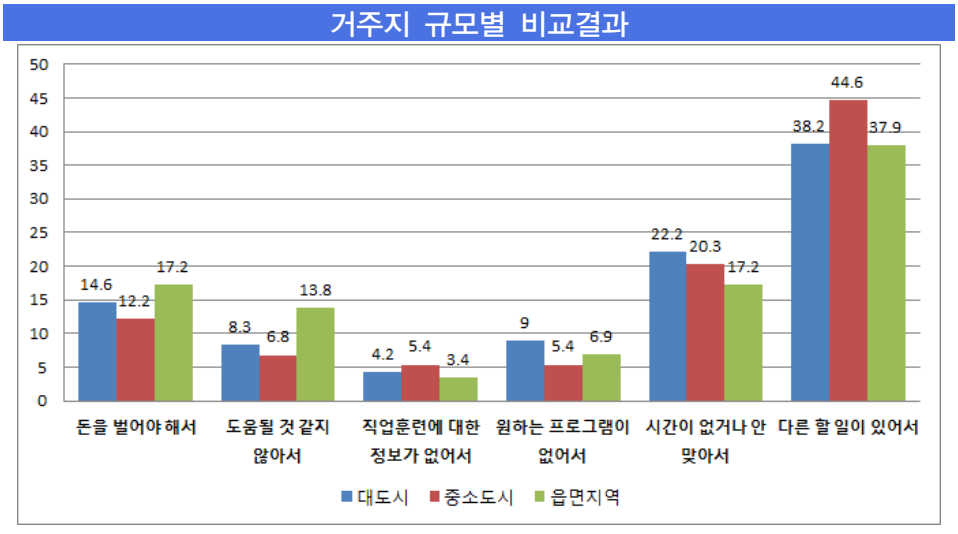
표 Ⅱ-53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기술 훈련과 고교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2	2.8	2	5.3	0	0.0	0	0.0
② 기술 훈련과 대입 준비	5	7.0	2	5.3	3	12.0	0	0.0
③ 기술 훈련과 확실한 취업연계	45	63.4	24	63.2	14	56.0	7	87.5
④ 기술 훈련과 멘토링, 문화활동	16	22.5	9	23.7	6	24.0	1	12.5
⑤ 기타	3	4.2	1	2.6	2	8.0	0	0.0
계	71	100.0	38	100.0	25	100.0	8	100.0

문 7-5.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29)]

직업훈련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할 일이 있어서(40.1%)'가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21.1%)'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로 대부분 '다른 할 일이 있어서'와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라고 응답했다. 다른 할 일이 있다는 비율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시간이 없다는 비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읍면지역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Ⅱ-51】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단위: %)

표 Ⅱ-54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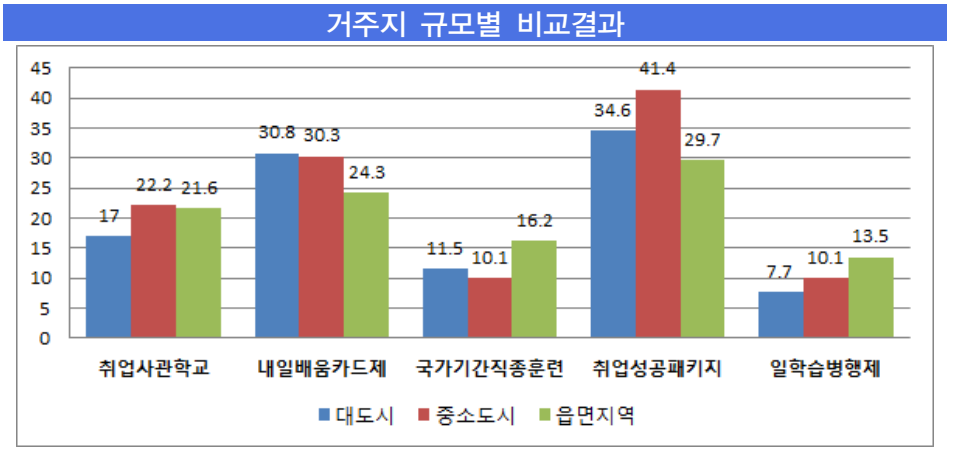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돈을 벌어야 해서	35	14.2	21	14.6	9	12.2	5	17.2
②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21	8.5	12	8.3	5	6.8	4	13.8
③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1	4.5	6	4.2	4	5.4	1	3.4
④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19	7.7	13	9.0	4	5.4	2	6.9
⑤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	52	21.1	32	22.2	15	20.3	5	17.2
⑥ 군입대 · 취업 · 대학진학 등 다른 할 일이 있어서(5차년도 추가)	99	40.1	55	38.2	33	44.6	11	37.9
⑥ 기타	10	4.0	5	3.5	4	5.4	1	3.4
계	247	100.0	144	100.0	74	100.0	29	100.0

29) 문 7-5는 문 7(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②번'없음'에 응답한 경우(N=247)만 응답한 결과임.

문 7-6-1.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여부(5차년도 추가)

취업성공패키지(36.2%)와 내일배움카드제(29.9%)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음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인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관학교는 3번째로 인지율이 높았다.



【그림 Ⅱ-52】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여부(단위: %)

표 Ⅱ-55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여부[3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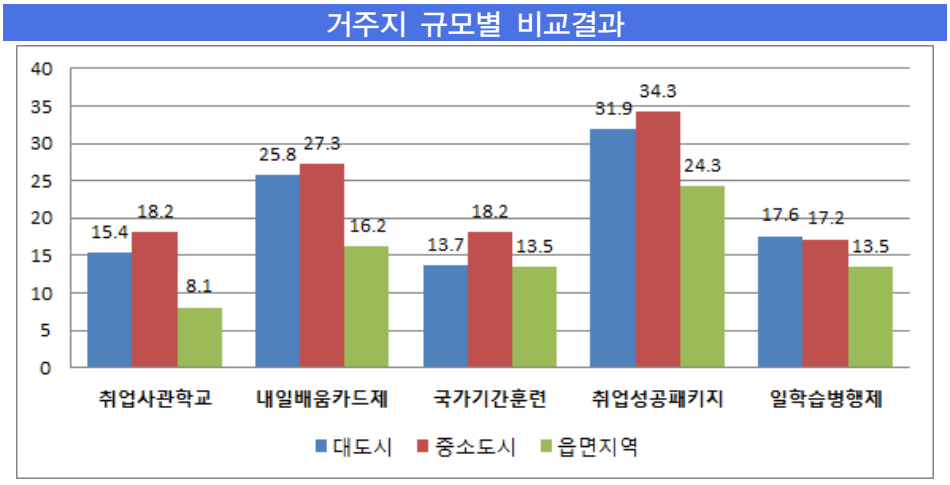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취업사관학교	61	19.2	31	17.0	22	22.2	8	21.6
내일배움카드제	95	29.9	56	30.8	30	30.3	9	24.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7	11.6	21	11.5	10	10.1	6	16.2
취업성공패키지	115	36.2	63	34.6	41	41.4	11	29.7
일학습병행제	29	9.1	14	7.7	10	10.1	5	13.5

30)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문 7-6-2.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5차년도 추가)

취업성공패키지(31.8%)와 내일배움카드제(25.2%)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았음

○ 직업훈련 인지여부에 뒤이어 참여의향을 물어본 결과 인지여부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지여부에 비해 참여의향이 높은 프로그램은 일학습병행제(17.0%)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4.1%)였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인지여부에 비해 참여의향은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참여의향이 낮은 편이었다.



【그림 Ⅱ-53】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단위: %)

표 Ⅱ-56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3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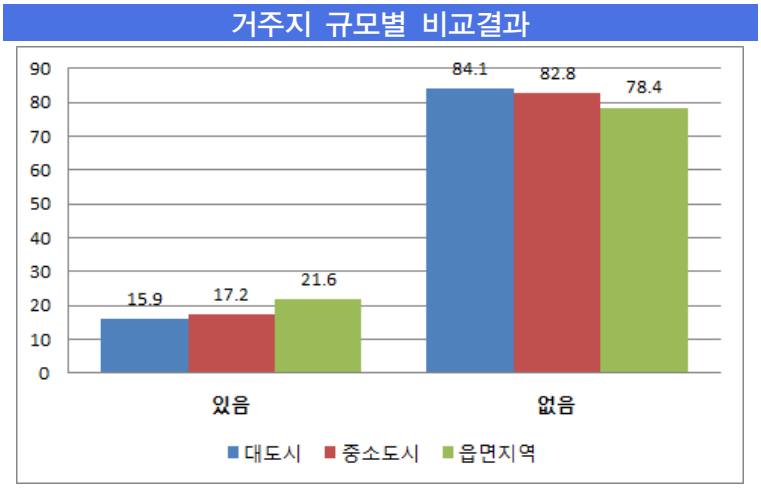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취업사관학교	49	15.4	28	15.4	18	18.2	3	8.1
내일배움카드제	80	25.2	47	25.8	27	27.3	6	16.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8	15.1	25	13.7	18	18.2	5	13.5
취업성공패키지	101	31.8	58	31.9	34	34.3	9	24.3
일학습병행제	54	17.0	32	17.6	17	17.2	5	13.5

31)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문 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전체 응답자의 17.0%가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읍면지역의 경험률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17.2%)와 대도시(15.9%) 순이었다.



【그림 Ⅱ-54】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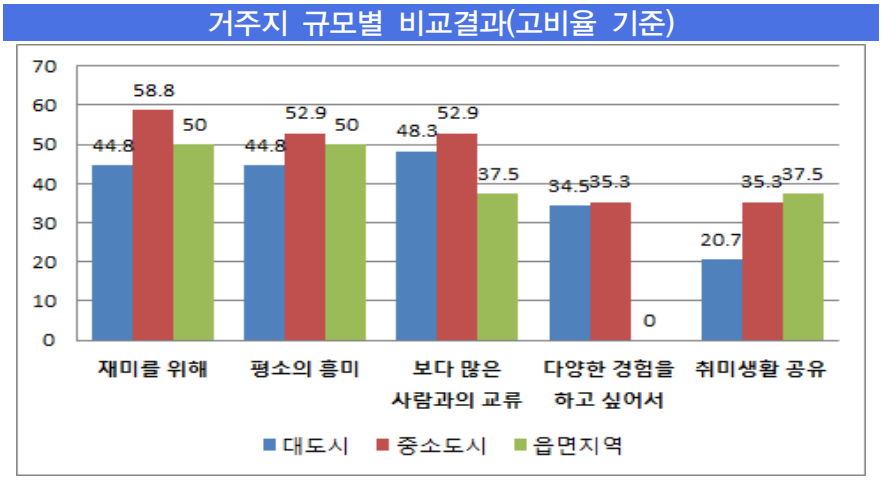
표 Ⅱ-57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있음	54	17.0	29	15.9	17	17.2	8	21.6	.71 (df=2)
② 없음	264	83.0	153	84.1	82	82.8	29	78.4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8-1.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32]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로는 '재미를 위해(50.0%)', '평소의 흥미(48.1%)',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48.1%)' 등이 있었음

○ 대도시는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48.3%)', 중소도시는 '재미를 위해(58.8%)', 읍면지역은 '재미를 위해(50.0%)'와 '평소의 흥미(50.0%)'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Ⅱ-55】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N=54, 단위: %)

표 Ⅱ-5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33]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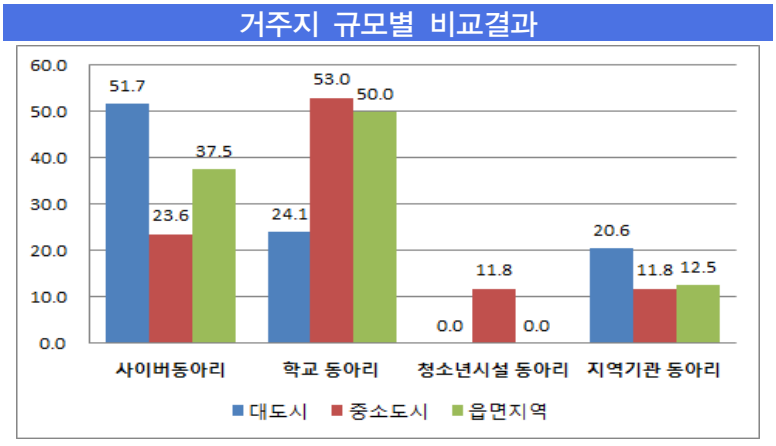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미 · 흥미	① 재미를 위해	27	50.0	13	44.8	10	58.8	4	50.0
	③ 평소의 흥미	26	48.1	13	44.8	9	52.9	4	50.0
	⑦ 취미생활 공유	15	27.8	6	20.7	6	35.3	3	37.5
친교 · 교류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 공감대 형성	0	0.0	0	0.0	0	0.0	0	0.0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26	48.1	14	48.3	9	52.9	3	37.5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6	11.1	4	13.8	2	11.8	0	0.0
정보 및 자아계발	② 자아계발	10	18.5	4	13.8	3	17.6	3	37.5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0	0.0	0	0.0	0	0.0	0	0.0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16	29.6	10	34.5	6	35.3	0	0.0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0	0.0	0	0.0	0	0.0	0	0.0
	⑪ 복학에 도움	0	0.0	0	0.0	0	0.0	0	0.0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2	3.7	2	6.9	0	0.0	0	0.0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0	18.5	5	17.2	3	17.6	2	25.0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4	7.4	2	6.9	1	5.9	1	12.5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3	5.6	0	0.0	0	0.0	3	37.5
	⑯ 학과 공부에 도움	3	5.6	1	3.4	2	11.8	0	0.0
기타	⑰ 특별한 이유 없음	0	0.0	0	0.0	0	0.0	0	0.0
	⑱ 기타	2	3.7	2	6.9	0	0.0	0	0.0

32) 문 8-1~문 8-3은 문8(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여부)의 ①번'예'에 응답한 경우(N=54)에만 응답한 결과임.
33) 1~3순위 복수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8-2.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사이버 동아리(46.0%)'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도시는 사이버 동아리가 많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학교 동아리가 과반이었다.



【그림 Ⅱ-56】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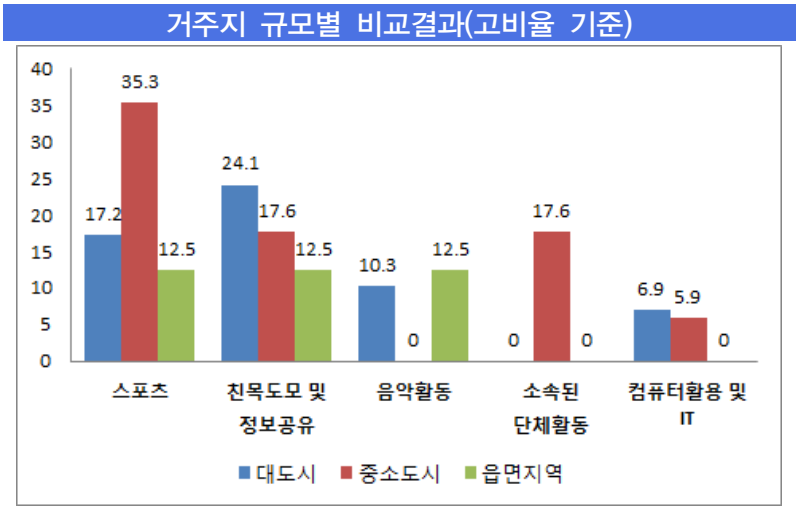
표 Ⅱ-59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이버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 카페	13	24.1	9	31.0	2	11.8	2	25.0
	⑯ 인터넷 홈페이지	2	3.7	2	6.9	0	0.0	0	0.0
	⑰ SNS 서비스 카페	7	13.0	4	13.8	2	11.8	1	12.5
소계		22	40.8	15	51.7	4	23.6	3	37.5
학교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⑬ 중 · 고등학교 동아리	3	5.6	1	3.4	1	5.9	1	12.5
	⑭ 대학교 동아리	17	31.5	6	20.7	8	47.1	3	37.5
소계		20	37.1	7	24.1	9	53	4	50
청소년시설 동아리	① 청소년시설 동아리	2	3.7	0	0.0	2	11.8	0	0.0
	③ 보호시설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④ 상담기관 동아리	1	3.4	0	0.0	0	0.0	0	0.0
소계		3	7.1	0	0.0	2	11.8	0	0.0
기타 지역기관 동아리	② 복지시설 동아리	2	3.7	2	6.9	0	0.0	0	0.0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⑥ 직업훈련기관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⑦ 종교기관 동아리	1	1.9	1	3.4	0	0.0	0	0.0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⑩ 대입학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⑪ 병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⑱ 기타(운동, 음악 동아리)	6	11.1	3	10.3	2	11.8	1	12.5
소계		9	16.7	6	20.6	2	11.8	1	12.5
기타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0	0.0	0	0.0	0	0.0	0	0.0
전체		54	100.0	29	100.0	17	100.0	8	100.0

문 8-3.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기타(29.6%)'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22.2%)',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소도시는 스포츠(35.3%)가 가장 많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기타를 제외하면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Ⅱ-57】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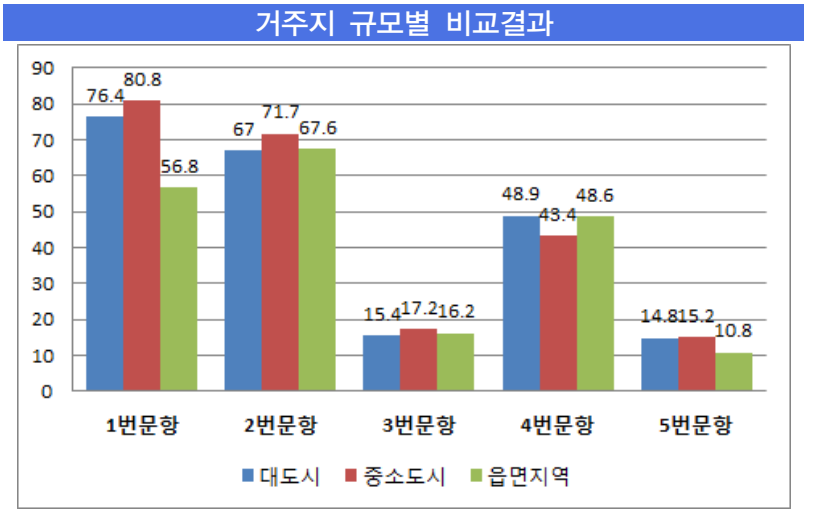
표 Ⅱ-60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음악활동(악기, 합창, 작곡 등)	4	7.4	3	10.3	0	0.0	1	12.5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SNS 활동)	11	20.4	7	24.1	3	17.6	1	12.5
스포츠	12	22.2	5	17.2	6	35.3	1	12.5
봉사활동	2	3.7	1	3.4	0	0.0	1	12.5
소속된 단체 활동(학과 실습 등)	3	5.6	0	0.0	3	17.6	0	0.0
컴퓨터활용 및 IT	3	5.6	2	6.9	1	5.9	0	0.0
오토바이 및 자동차	1	1.9	0	0.0	0	0.0	1	12.5
종교	1	1.9	0	0.0	0	0.0	1	12.5
춤, 연극	1	1.9	1	3.4	0	0.0	0	0.0
기타(문학, 요리, 애완동물 등)	16	29.6	10	34.5	4	23.5	2	25.0
계	54	100.0	29	100.0	17	100.0	8	100.0

문 9. 진로정보탐색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문항별 긍정적 응답 비율은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7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을 검색했다(68.6%)' 가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진로 정보를 탐색해 본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읍면지역(56.8%)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진로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적었다. 다른 경험들은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였다.



【그림 Ⅱ-58】 진로정보탐색(N=318, 단위: %)

표 Ⅱ-61 진로정보탐색[34)] [N=318, 단위: 명(%)]

문항	전체 사례수(비율)	대도시 사례수(비율)	중소도시 사례수(비율)	읍면지역 사례수(비율)	χ^2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240(75.5)	139(76.4)	80(80.8)	21(56.8)	8.60*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218(68.6)	122(67.0)	71(71.7)	25(67.6)	.67
3)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51(16.0)	28(15.4)	17(17.2)	6(16.2)	.1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 종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150(47.2)	89(48.9)	43(43.4)	18(48.6)	.81
5) 직업체험을 한 적이 있다	46(14.5)	27(14.8)	15(15.2)	4(10.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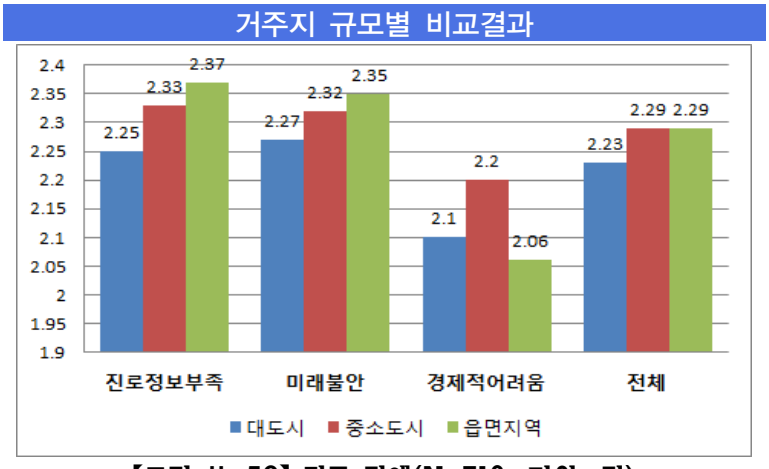
*$p<.05$

3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그렇다'와 ④번'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결과임. 통계치는 ①과 ②를 합하여 '그렇지 않다', ③과 ④를 합하여 '그렇다'로 분류하여 분석함

문 10. 진로 장애

진로 장애에 대한 평균에서 '진로정보 부족(*M*=2.29)', '미래불안(*M*=2.30)', '경제적 어려움(*M*=2.13)'으로 나타남

○ 진로정보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 평균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중소도시가 2.20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다. 전체 합산 결과는 대도시가 가장 진로장애 평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59】 진로 장애(N=318, 단위: 점)

표 Ⅱ-62 진로 장애[35]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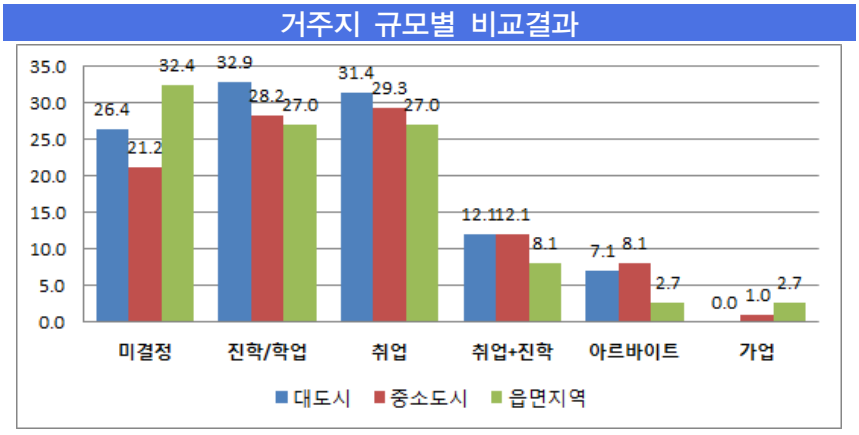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전체	특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진로정보부족	1)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2.11	2.08	2.14	2.16	1.21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36]	2.40	2.39	2.40	2.43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27	2.20	2.33	2.43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2.36	2.30	2.39	2.62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2.10	2.07	2.17	2.05	
소계		2.29	2.25	2.33	2.37	
미래불안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36	2.32	2.41	2.43	.16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18	2.15	2.23	2.19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2.17	2.16	2.14	2.30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2.46	2.46	2.48	2.38	
소계		2.30	2.27	2.32	2.35	
경제적 어려움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2.31	2.27	2.32	2.43	.47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2.18	2.16	2.24	2.11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2.22	2.21	2.25	2.19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1.98	1.93	2.10	1.89	
소계		2.13	2.10	2.20	2.06	
전체		**2.25**	**2.23**	**2.29**	**2.29**	.68

3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1. 향후 진로 계획

향후 진로 계획으로는 '진학/학업(30.9%)'이 가장 높았고 '미결정(25.5%)'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대도시 응답자는 진학/학업이 32.9%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29.3%로 취업이, 읍면지역은 미결정이 32.4%로 가장 높았다, 미결정 비율은 대도시 26.4%, 중소도시 21.2% 순으로 높았다.



【그림 Ⅱ-60】 향후 진로 계획(단위: %)

표 Ⅱ-63 향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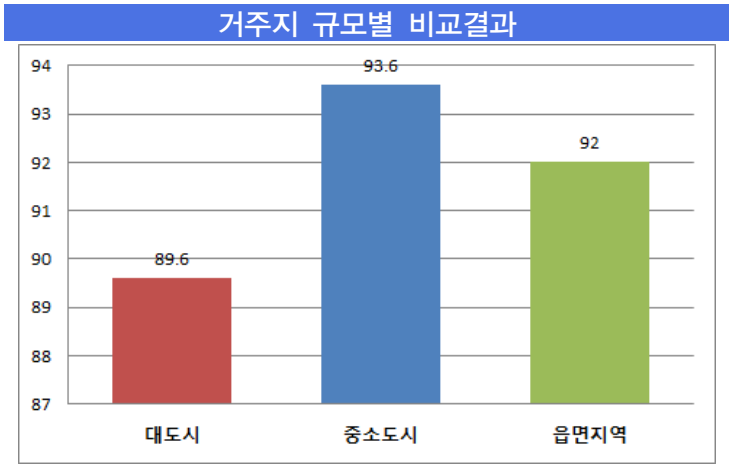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결정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81	25.5	48	26.4	21	21.2	12	32.4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	7	2.2	6	3.3	0	0.0	1	2.7
	③ 대안학교 진학	0	0.0	0	0.0	0	0.0	0	0.0
	④ 해외 유학	18	5.7	13	7.1	3	3.0	2	5.4
	⑤ 검정고시 준비	5	1.6	2	1.1	2	2.0	1	2.7
	⑥ 대학 진학	53	16.7	28	15.4	19	19.2	6	16.2
	⑦ 편입 및 재입학(재수) 준비	15	4.7	11	6.0	4	4.0	0	0.0
진학/학업 소계		98	30.9	60	32.9	28	28.2	10	27
취업	⑧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67	21.1	35	19.2	23	23.2	9	24.3
	⑨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	11	3.5	4	2.2	6	6.1	1	2.7
취업 소계		78	24.6	39	21.4	29	29.3	10	27
취업+진학	⑩ 취업과 진학 병행	37	11.6	22	12.1	12	12.1	3	8.1
아르바이트	⑪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22	6.9	13	7.1	8	8.1	1	2.7
가업	⑫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	2	0.6	0	0.0	1	1.0	1	2.7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3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문 12. 진로 계획 달성 예측[37]

응답자의 91.1%가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문 11에서 응답한 진로 계획이 어느정도 달성될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소도시 응답자의 93.6%, 읍면지역 응답자의 92.0%, 대도시 응답자의 89.6%가 달성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림 Ⅱ-61】 진로 계획 달성 예측(N=237, 단위: %)

표 Ⅱ-64 진로 계획 달성 예측[38] (N=237,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진로 계획 달성 예측	216	91.1	120	89.6	73	93.6	23	92.0	1.02 (d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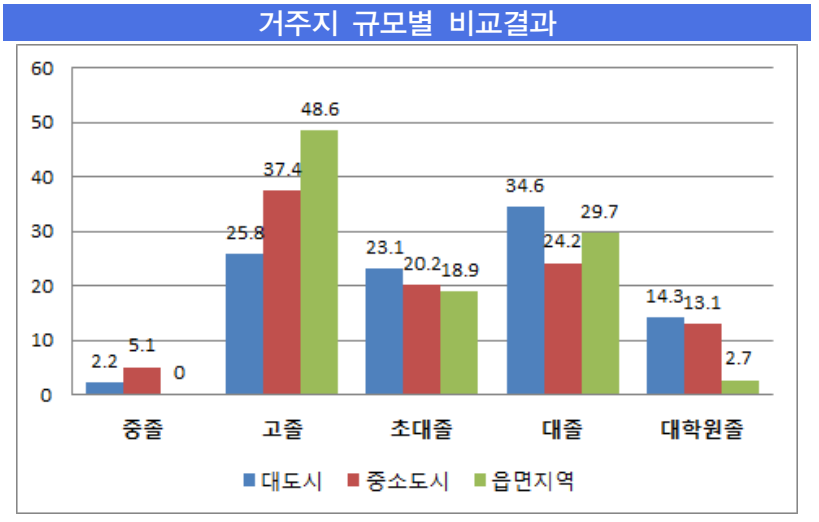
37) 문 12는 문 11(향후 진로 계획)의 ②번~⑫번(② 정규학교로 복학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검정고시 준비 ⑥ 대학 진학 ⑦ 편입 및 재입학 준비 ⑧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 ⑨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⑩ 취업과 진학 병행 ⑪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⑫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임)에 응답한 경우(N=237)만 응답한 결과임.

3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과 ④번을 합산한 결과임. 통계치는 ①과 ②를 합하여'그렇다', ③과 ④를 합하여'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여 분석함

문 13.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1%'가 '고졸'이라고 응답함

○ 향후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 대도시 응답자들은 대졸이 34.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응답자들은 고졸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고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50%에 달했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응답률이 약 10%가량 되는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단 1명만이 응답했다.



【그림 II-62】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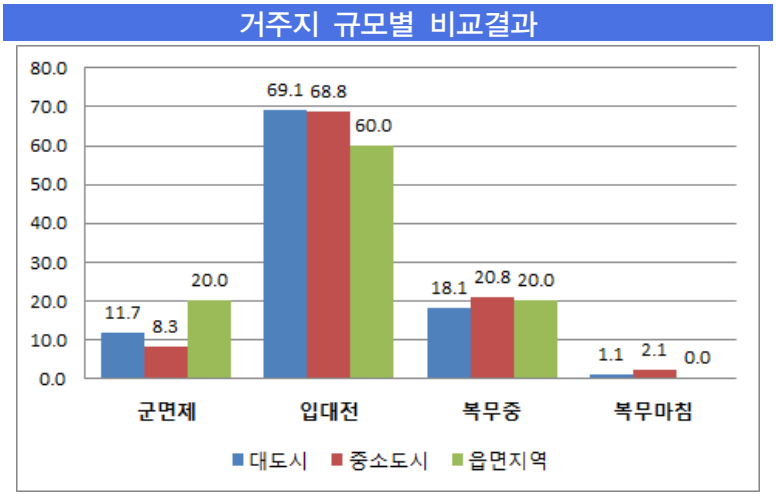
표 II-65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졸	9	2.8	4	2.2	5	5.1	0	0.0
② 고졸	102	32.1	47	25.8	37	37.4	18	48.6
③ 초대졸(2~3년제)	69	21.7	42	23.1	20	20.2	7	18.9
④ 대졸(4년제)	98	30.8	63	34.6	24	24.2	11	29.7
⑤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40	12.6	26	14.3	13	13.1	1	2.7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14. 군 복무 계획

**남성 응답자의 84.9%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에 응답하였으며,
10.9%는 '군 면제', 4.2%는 '복무 중'임**

○ 남성 응답자의 약 60%가 현재 입대 전이었으며 복무중인 비율은 20%가량 되었다. 거주지규모별로 보면 입대 전이라는 응답자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았고, 복무중의 비율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군면제의 경우 읍면지역의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 중 2명은 이미 복무를 마친 상태였다.



【그림 Ⅱ-63】 군 복무 계획(단위: %)

표 Ⅱ-66 군 복무 계획[3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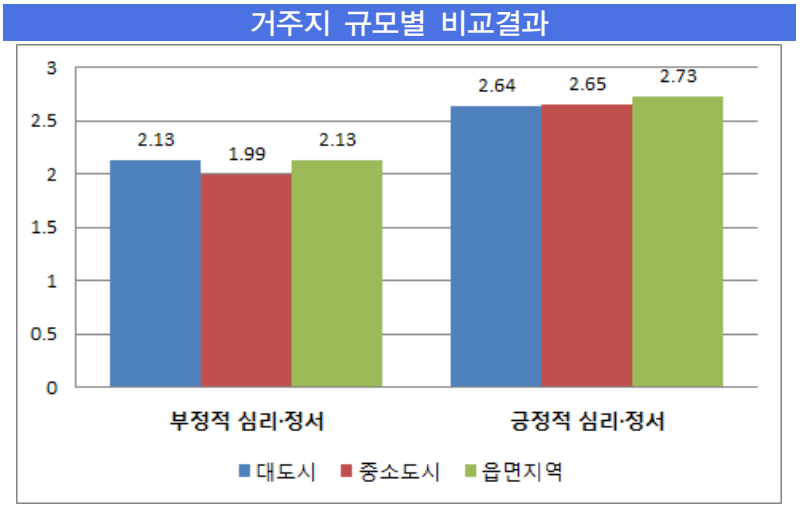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군 면제 대상임	20	12.0	11	11.7	4	8.3	5	20.0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	113	67.7	65	69.1	33	68.8	15	60.0
현재 군에서 복무중임	32	19.2	17	18.1	10	20.8	5	20.0
군복무를 마침	2	1.2	1	1.1	1	2.1	0	0.0
계	167	100.0	94	100.0	48	100.0	25	100.0

[39] 문 14의 경우 여성은 '① 여성임(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수와 비율은 ①의 응답자(N=151)를 제외하고 산출함

문 15.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 · 정서[40]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 · 정서에 관한 평균에서 '부정적 심리 · 정서(*M*=2.09)', '긍정적 심리 · 정서(*M*=2.66)'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 · 정서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부정적 심리 · 정서 평균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2.13, 중소도시가 1.99로 나타났고, 긍정적 심리 · 정서 평균은 읍면지역이 2.73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65, 대도시 2.64 순이었다.



【그림 Ⅱ-64】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N=308, 단위: 점)

표 Ⅱ-67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41] (N=390,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3)	부정적 심리 · 정서	2.09 (0.69)	2.13 (0.72)	1.99 (0.69)	2.13 (0.49)	1.14
4)~6)	긍정적 심리 · 정서	2.66 (0.50)	2.64 (0.54)	2.65 (0.45)	2.73 (0.42)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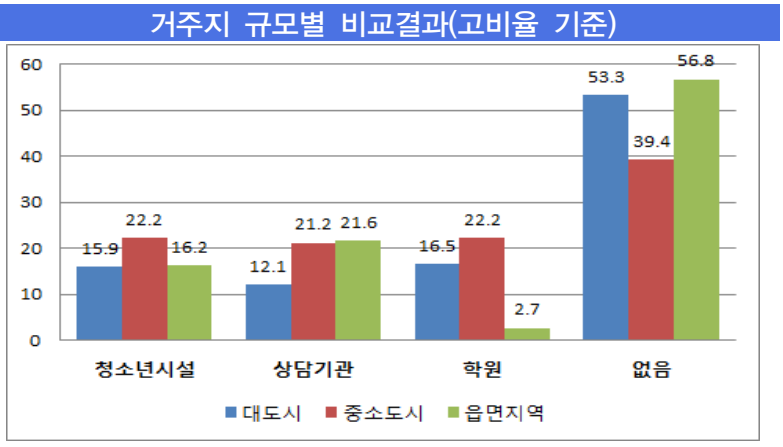
40) 문 15는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대학진학 및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 제외)만 응답한 결과(N=308)임.

4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6.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복수 응답)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없음(49.4%)'이 가장 많았고, '학원(16.7%)'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없음'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 반면 중소도시는 약 40%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담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에서 낮았고, 학원의 응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현저히 낮았다.



【그림 Ⅱ-65】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N=318, 단위: %)

표 Ⅱ-68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42][43] (N=318,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청소년시설	57	17.9	29	15.9	22	22.2	6	16.2	1.81
② 복지시설	14	4.4	6	3.3	6	6.1	2	5.4	–
③ 보호시설	6	1.9	2	1.1	3	3.0	1	2.7	–
④ 상담기관	51	16.0	22	12.1	21	21.2	8	21.6	4.93^{+}
⑤ 보호관찰소	12	3.8	6	3.3	4	4.0	2	5.4	–
⑥ 직업훈련기관	28	8.8	14	7.7	9	9.1	5	13.5	1.31
⑦ 종교기관	15	4.7	11	6.0	4	4.0	0	0.0	–
⑧ 학원	53	16.7	30	16.5	22	22.2	1	2.7	7.40*
⑨ 병원 등 치료시설	11	3.5	9	4.9	2	2.0	0	0.0	–
⑩ 대안교육기관	17	5.3	12	6.6	4	4.0	1	2.7	1.40
⑪ 직장	3	0.9	1	0.5	2	2.0	0	0.0	–
⑫ 기타	4	1.3	2	1.1	2	2.0	0	0.0	–
⑬ 없음	157	49.4	97	53.3	39	39.4	21	56.8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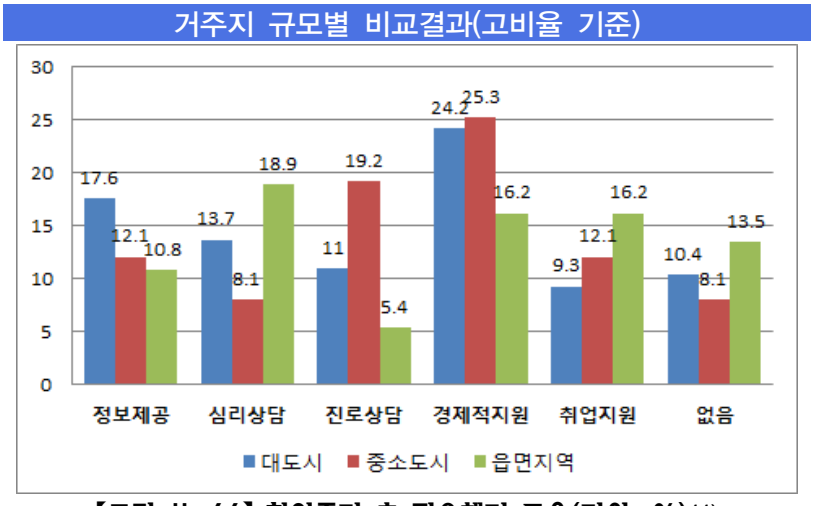
$^{+}p<.10$, $^{*}p<.05$

42)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43) 사례수와 비율은 '있음'에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17-1.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에 대해 '경제적 지원(23.6%)', '정보제공(15.1%)', '진로상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와 중소도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경제적 지원'인 반면 읍면지역 응답자들은 '심리상담(18.9%)'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보제공은 대도시가, 진로상담은 중소도시가, 취업지원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없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II-6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단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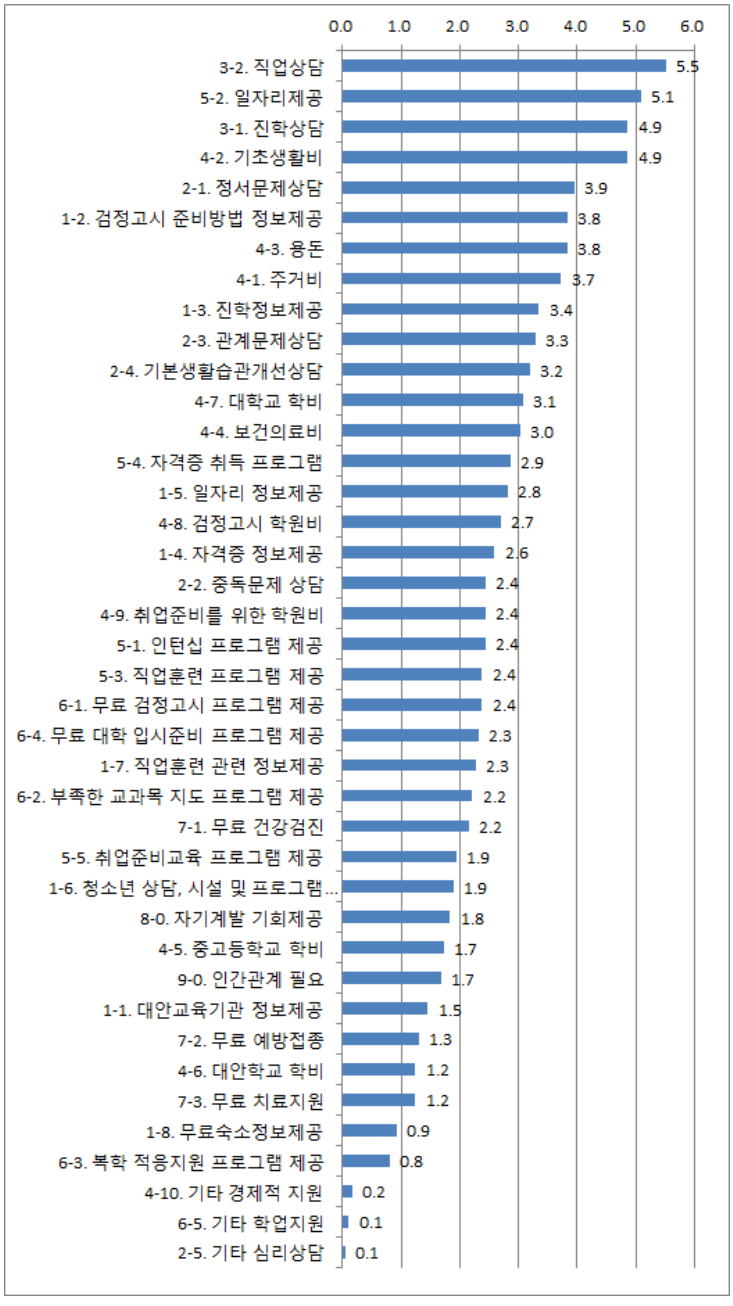
표 II-69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45]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8	15.1	32	17.6	12	12.1	4	10.8	13.81 (df=12)
② 심리상담		40	12.6	25	13.7	8	8.1	7	18.9	
③ 진로상담		41	12.9	20	11.0	19	19.2	2	5.4	
④ 경제적 지원		75	23.6	44	24.2	25	25.3	6	16.2	
⑤ 취업지원		35	11.0	17	9.3	12	12.1	6	16.2	
기타	⑥ 학업지원	15	4.7	7	3.8	6	6.1	2	5.4	
	⑦ 건강지원	12	3.8	3	1.6	6	6.1	3	8.1	
	⑧ 자기계발 기회	11	3.5	9	4.9	1	1.0	1	2.7	
	⑨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9	2.8	6	3.3	2	2.0	1	2.7	
	⑩ 기타	0	0.0	0	0.0	0	0.0	0	0.0	
	기타 소계	47	14.8	25	13.6	15	15.2	7	18.9	
⑪ 없음		32	10.1	19	10.4	8	8.1	5	13.5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44) 분석을 위하여 ⑥ 학업지원, ⑦ 건강지원, ⑧ 자기계발 기회, ⑨ 인간관계, ⑩ 기타를 합하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함
45) 문 17-1은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을 1~3순위로 총 3개 선택하는 문항이었으며, 본 표는 1순위 응답만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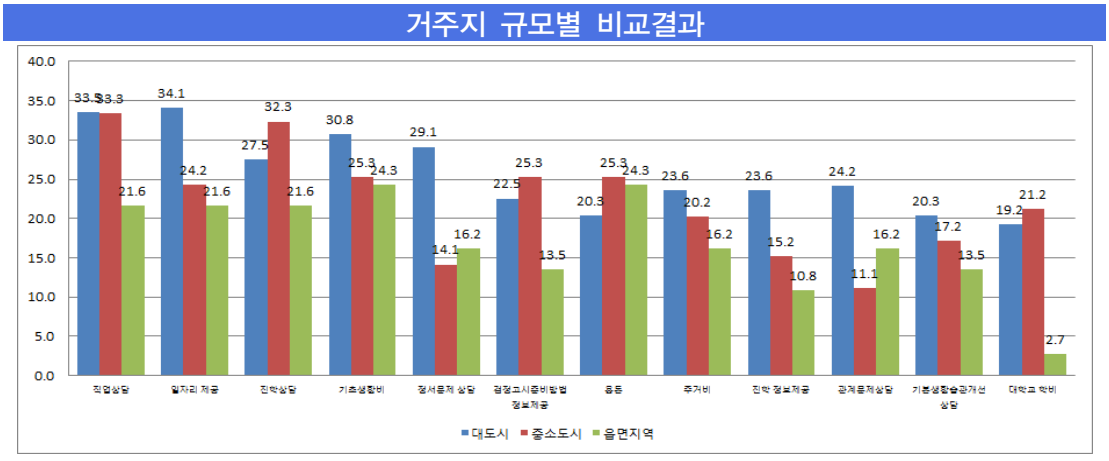
문 17-2.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직업상담'(5.5%), '일자리 제공'(5.1%)', '진학상담', '기초생활비''(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67】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N=1,850, 단위: %)[46)47)]

○ 도움이 필요한 상위 12개 서비스 중 대도시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 응답자보다 일자리 제공, 기초생활비, 정서문제 상담, 주거비, 진학 정보제공, 관계문제 상담, 기본생활습관개선 상담을 더 많이 원했다. 중소도시에서는 진학상담, 검정고시 준비방법 정보제공, 용돈, 대학교 학비의 응답률이 높았다.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원하는 도움의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그림 Ⅱ-68】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거주지규모별 비교결과) (단위: %)

표 Ⅱ-70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48] (단위: 명, %)

구분	전체 (N=318)		대도시 (N=182)		중소도시 (N=99)		읍면지역 (N=37)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3-2. 직업상담	102	32.1	61	33.5	33	33.3	8	21.6	4.28
5-2. 일자리 제공	94	29.6	62	34.1	24	24.2	8	21.6	5.80^{+}
3-1. 진학상담	90	28.3	50	27.5	32	32.3	8	21.6	.44
4-2. 기초생활비	90	28.3	56	30.8	25	25.3	9	24.3	11.93**
2-1. 정서문제 상담	73	23.0	53	29.1	14	14.1	6	16.2	17.60***
1-2. 검정고시준비방법 정보제공	71	22.3	41	22.5	25	25.3	5	13.5	1.27
4-3. 용돈	71	22.3	37	20.3	25	25.3	9	24.3	.11
4-1. 주거비	69	21.7	43	23.6	20	20.2	6	16.2	6.81*
1-3. 진학 정보제공	62	19.5	43	23.6	15	15.2	4	10.8	7.89*
2-3. 관계문제상담	61	19.2	44	24.2	11	11.1	6	16.2	8.93*
2-4. 기본생활습관개선 상담	59	18.6	37	20.3	17	17.2	5	13.5	4.96^{+}
4-7. 대학교 학비	57	17.9	35	19.2	21	21.2	1	2.7	10.58**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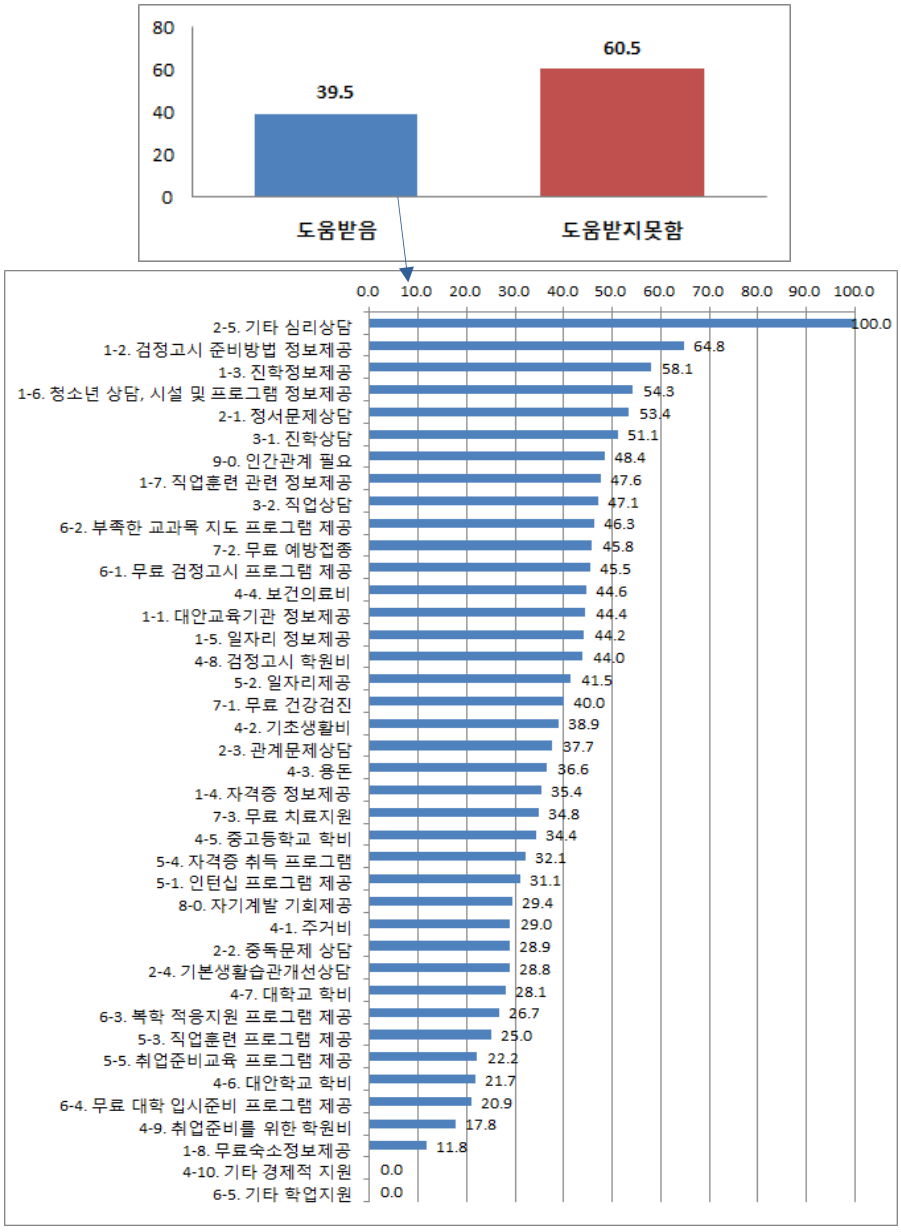
46) 번호 앞자리는 문 17-1의 영역, 뒷자리는 문 17-2의 항목번호를 나타냄(1-1~8: 정보제공, 2-1~4: 심리상담, 3-1~2: 진로상담, 4-1~10: 경제적 지원, 5-1~5: 취업지원, 6-1~5: 학업지원, 7-1~4: 건강지원, 80: 자기계발, 90: 인간관계)

47) 사례수는 문 17-2(중복응답)에서 응답한 인원 수의 전체 합임.

48) 사례수는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인원 수임.

문 17-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도움 받은 여부

도움을 받은 비율은 전체 39.5%였으며, '기타 심리상담'(100.0%),
'검정고시 준비방법 정보제공(64.8%)', '진학 정보제공'(58.1%) 등의 순으로 충족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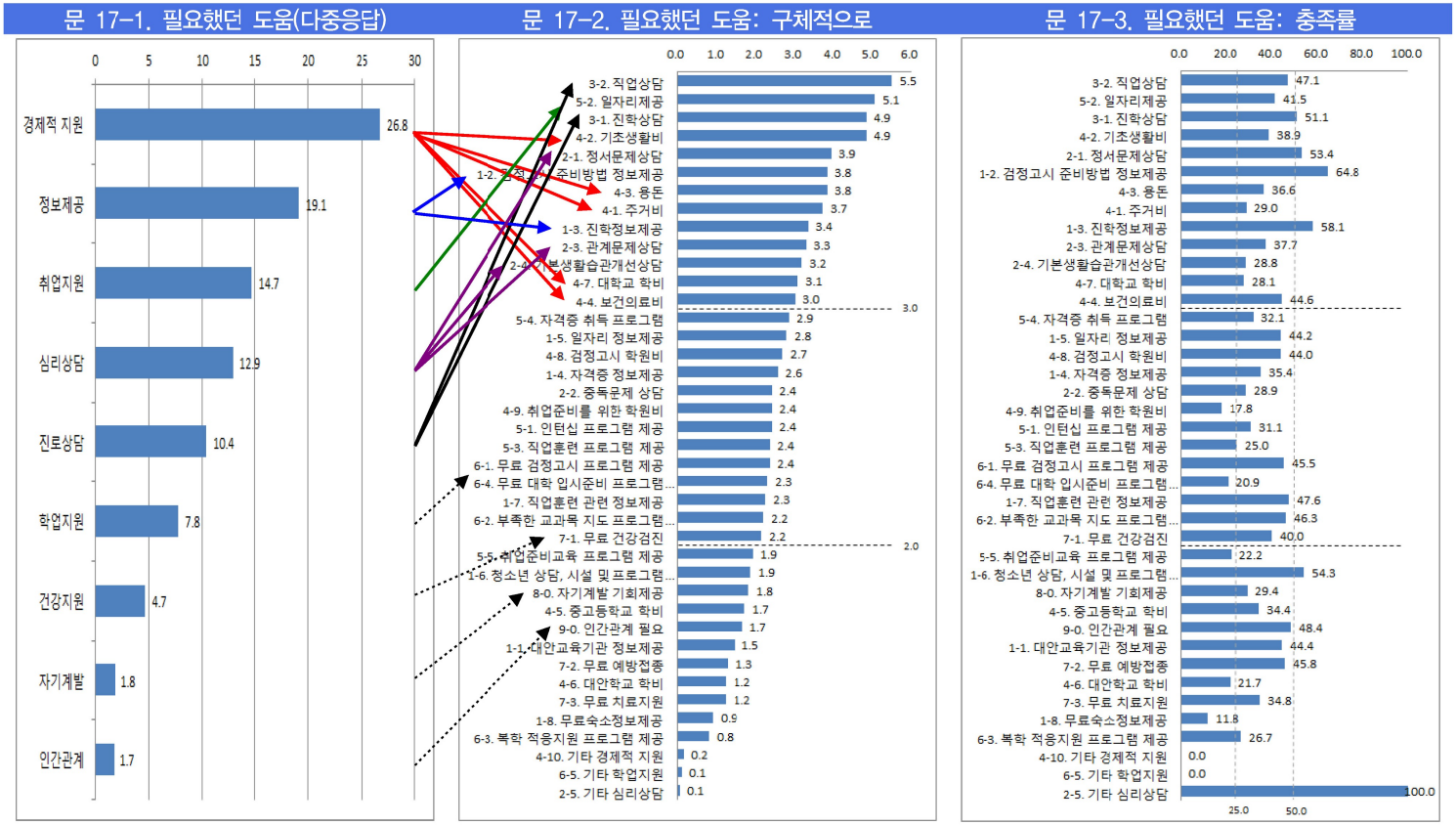
【그림 Ⅱ-69】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필요한 도움의 충족률(단위: %)[49][50]

[49] 번호 앞자리는 문 17-1의 영역, 뒷자리는 문 17-2의 항목번호를 나타냄
[50] 각 항목별 비율 = 문 17-3의 각 항목에서 '① 예'에 응답한 응답자 수 / 문 17-2의 각 항목별 응답자 수 X 100

문 17-1~17-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의 종합

'경제적 지원'의 요구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비'가 가장 높았음
충족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타를 제외했을 때'검정고시 준비방법 정보제공'이었음

○ 【그림 Ⅱ-70】은 문 17-1부터 17-3까지 세 문항을 종합한 것이다. 영역별로 볼 때 학업중단 후 5년차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 정보제공, 취업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순으로 도움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기초생활비, 용돈, 주거비, 대학교 학비, 보건의료비 순이었다.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방법 및 진학 정보를 필요로 했다. 취업지원영역에서는 단연 일자리 제공이었다. 심리상담영역에서는 정서문제 상담이 많이 필요했고 관계문제와 기본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상담도 필요했다. 진로상담영역에서는 직업상담, 진학상담 모두 필요 순위가 높았다. 학업지원, 건강지원, 자기계발, 인간관계 영역에 대한 도움은 필요로 하는 순위가 낮았다. 비교적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은 학업지원영역에서는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 건강지원 영역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었다. 각 영역별로 도움의 필요가 높았던 것과 충족률을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에서는 대학 학비와 주거비의 지원률이 낮았고 검정고시 준비방법, 진학정보 등 정보제공은 충족률이 50%를 넘었으며 일자리 제공의 충족률은 40% 수준이었다. 심리상담영역에서 정서문제에 대한 상담은 50%를 넘고 있지만 기본생활습관 개선 상담은 30%, 관계문제 상담은 40%에 못 미친 반면 진학이나 직업상담은 50%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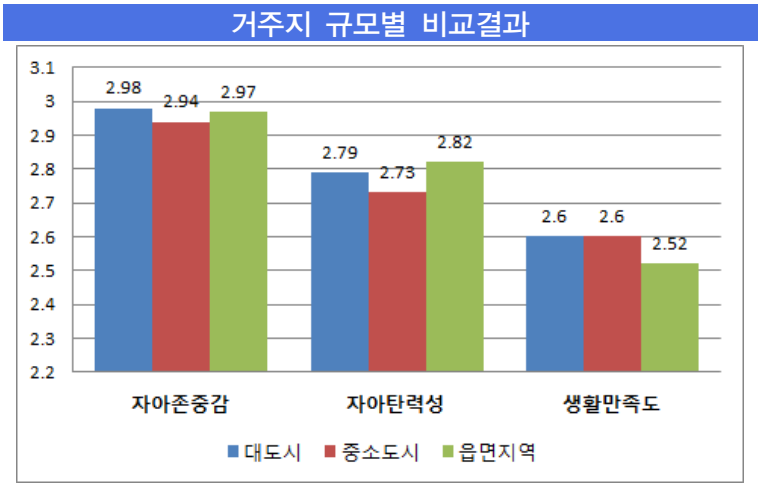
【그림 II-70】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의 종합

(3)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51]

평균은 '자아존중감(*M*=2.97)', '자아탄력성(*M*=2.77)', '생활만족도(*M*=2.59)'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평균은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고, 자아탄력성은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다. 생활만족도는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Ⅱ-7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N=318, 단위: 점)

표 Ⅱ-7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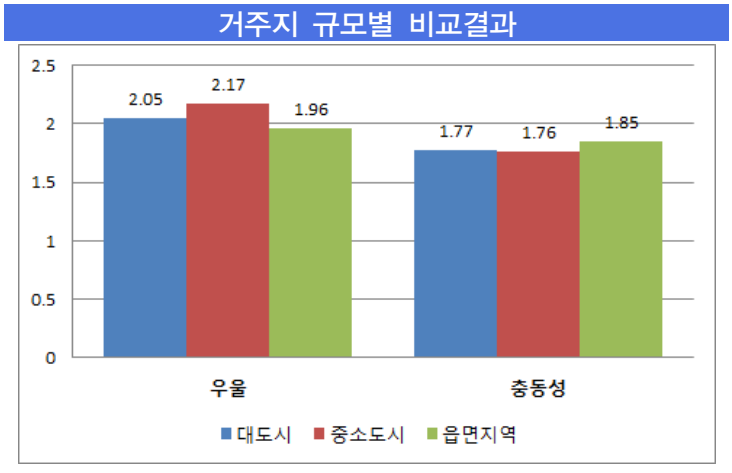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5)	자아존중감	2.97 (0.50)	2.98 (0.51)	2.94 (0.51)	2.97 (0.44)	.24
6)~10)	자아탄력성	2.77 (0.54)	2.79 (0.50)	2.73 (0.58)	2.82 (0.59)	.53
11)~13)	생활만족도	2.59 (0.61)	2.60 (0.61)	2.60 (0.61)	2.52 (0.59)	.26

5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9. 우울, 충동성[52]

우울, 충동성에 대한 평균에서 '우울(*M*=2.07)', '충동(*M*=1.78)'으로 나타남

○ 우울, 충동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울 평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2.05, 읍면지역 1.96 순으로 높았다. 충동성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Ⅱ-72】 우울, 충동성(N=318, 단위: 점)

표 Ⅱ-72 우울, 충동성 (N=318,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10)	우울	2.07 (0.57)	2.05 (0.55)	2.17 (0.61)	1.96 (0.53)	4.34^{+} (n.s.)
11)~15)	충동성	1.78 (0.54)	1.77 (0.54)	1.76 (0.51)	1.85 (0.6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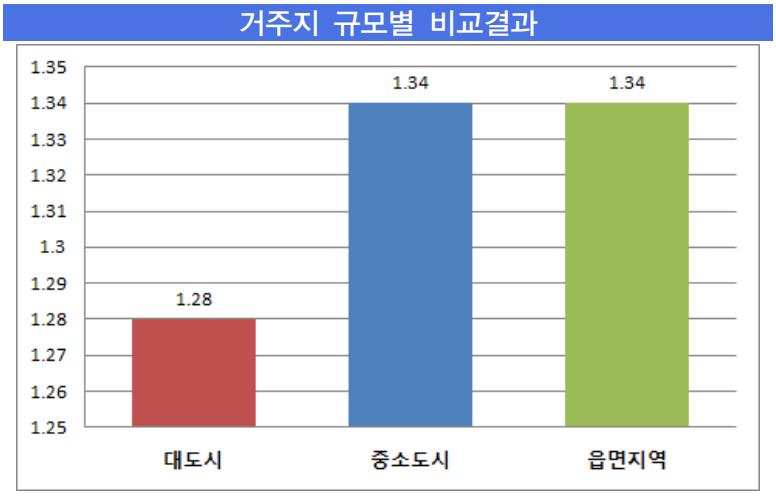
$^{+}p<.10$. n.s.=not significant.

52)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1. 게임 중독[53]

게임중독의 평균은 1.30로 나타남

○ 모든 지역의 게임중독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의 게임중독 수준이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34로 동일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Ⅱ-73】 게임 중독(N=318, 단위: 점)

표 Ⅱ-73 게임 중독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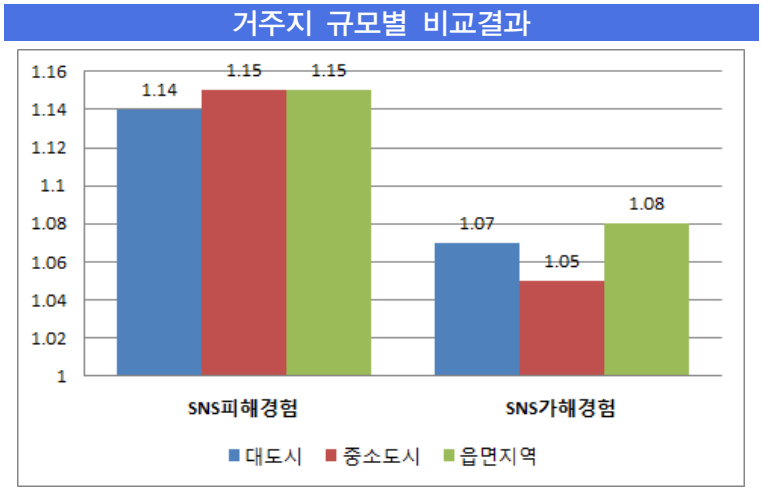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게임 중독	1.30 (0.52)	1.28 (0.49)	1.34 (0.56)	1.34 (0.56)	.60

5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2.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54)]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에 대한 평균에서 '피해 경험(*M*=1.15)', '가해 경험(*M*=1.06)'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피해와 가해경험 모두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SNS 피해경험 평균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약 1.15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는 1.14였다. SNS 가해경험은 읍면지역에서 1.08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1.07, 중소도시 1.05 순으로 높았다. 모든 지역에서 가해경험보다는 피해경험이 많았다.



【그림 Ⅱ-74】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N=318, 단위: 점)

표 Ⅱ-74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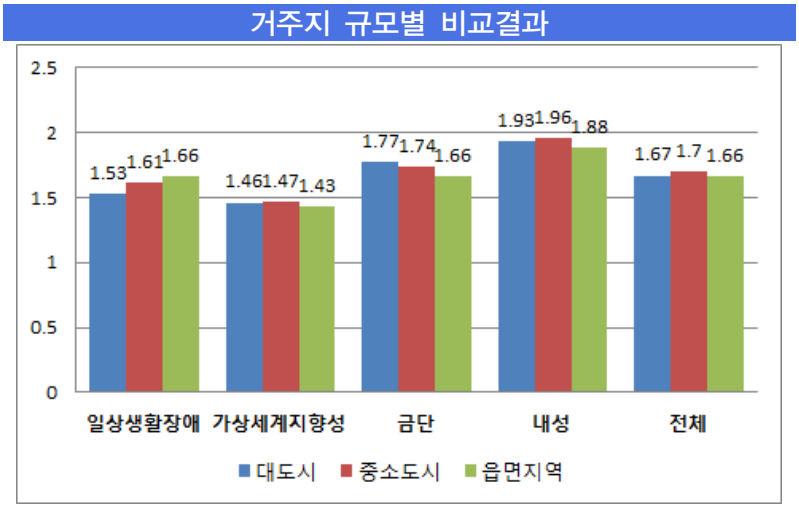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5)	SNS 관련 피해 경험	1.15 (0.29)	1.14 (0.29)	1.15 (0.32)	1.15 (0.26)	.01
6)~10)	SNS 관련 가해 경험	1.06 (0.18)	1.07 (0.19)	1.05	1.08	.36

5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3. 스마트폰 중독[55]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1.68로 나타남

○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본 결과 거주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중독수준은 중소도시가 1.70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상생활 장애는 읍면지역에서, 가상세계지향성과 내성은 중소도시에서, 금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Ⅱ-75】 스마트폰 중독(N=318, 단위: 점)

표 Ⅱ-75 스마트폰 중독 (N=318, 단위: 점)

문항		평균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상생활 장애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52	1.47	1.58	1.62	.94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62	1.59	1.64	1.70	
소계		1.57	1.53	1.61	1.66	
가상세계 지향성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59	1.58	1.64	1.51	.18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33	1.34	1.31	1.35	
소계		1.46	1.46	1.47	1.43	
금단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91	1.93	1.90	1.84	.14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59	1.62	1.59	1.49	
소계		1.75	1.77	1.74	1.66	
내성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1.64	1.64	1.62	1.73	1.03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56]	2.22	2.21	2.31	2.03	
소계		1.93	1.93	1.96	1.88	
전체		1.68	1.67	1.70	1.6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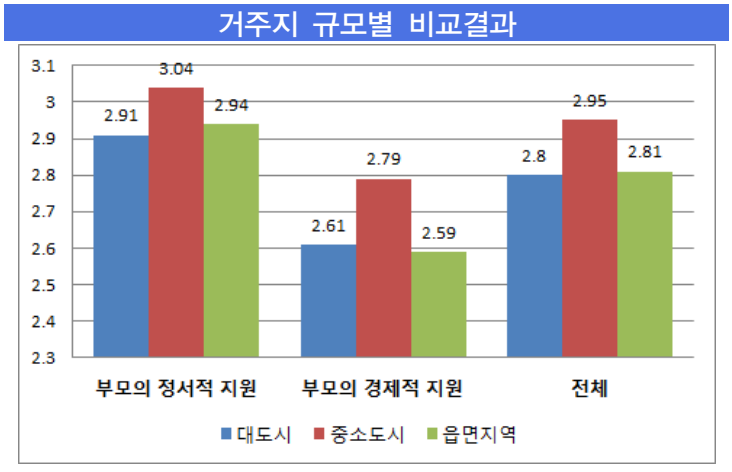
5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5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4)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1. 부모의 지원[57]

부모의 지원에 대한 평균에서
'정서적 지원(*M*=2.96), '경제적 지원(*M*=2.67)'으로 나타남

○ 부모의 정서적 지원 평균은 중소도시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 2.94, 대도시 2.91 순으로 높았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지원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Ⅱ-76】 부모의 지원(N=318, 단위: 점)

표 Ⅱ-77 부모의 지원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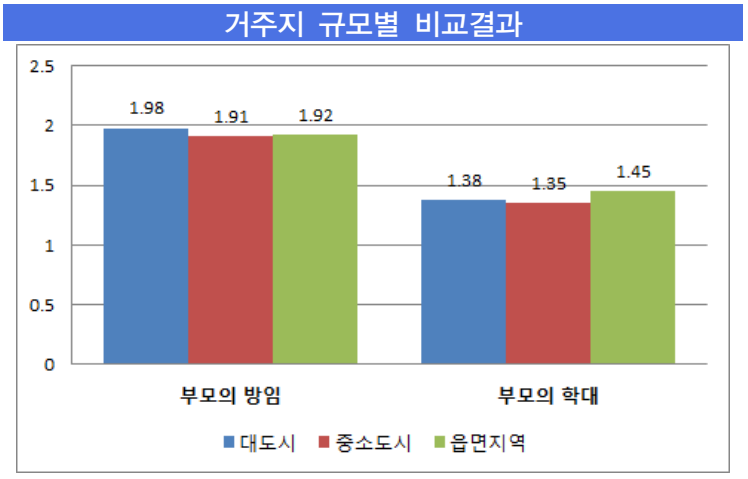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5)	부모의 정서적 지원	2.96 (0.59)	2.91 (0.59)	3.04 (0.61)	2.94 (0.57)	1.52
6)~8)	부모의 경제적 지원	2.67 (0.82)	2.61 (0.82)	2.79 (0.83)	2.59 (0.76)	1.63
전체		2.85 (0.59)	2.80 (0.59)	2.95 (0.60)	2.81 (0.54)	2.08

57)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2. 부모의 방임 · 학대[58)]

부모의 방임 · 학대에 대한 평균에서 '방임(*M*=1.95)', '학대(*M*=1.38)'로 나타남

○ 부모 방임의 평균은 대도시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 1.92, 중소도시 1.91 순이었다. 학대 수준은 읍면지역에서 1.45, 대도시 1.38, 중소도시 1.35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Ⅱ-77】 부모의 방임·학대(N=318, 단위: 점)

표 Ⅱ-78 부모의 방임·학대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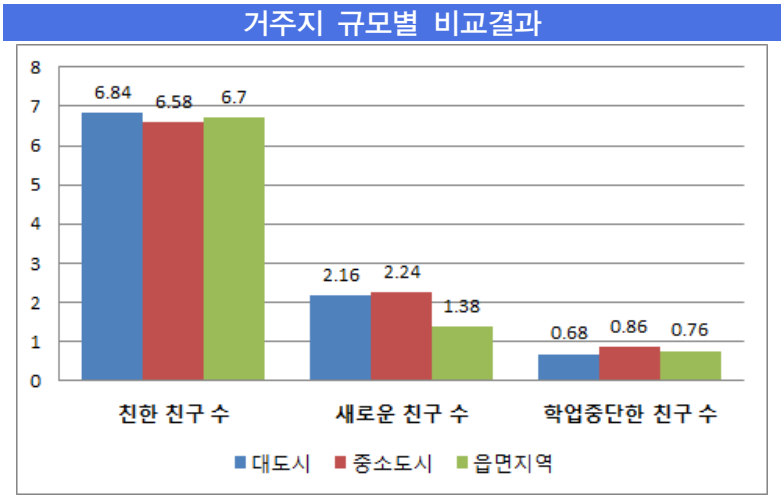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5)	부모의 방임	1.95 (0.44)	1.98 (0.47)	1.91 (0.40)	1.92 (0.44)	.77
6)~9)	부모의 학대	1.38 (0.54)	1.38 (0.55)	1.35 (0.50)	1.45 (0.61)	.52

5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3~23-2.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사귄 친구 수, 학업중단한 친구 수

친한 친구 수는 평균 '6.74명', 학업중단 후 사귄 친구 수는 평균 '2.10명', 학업중단 한 친구 수는 평균 '0.79명' 으로 나타남

○ 친한 친구 수는 대도시가 6.84명, 읍면지역 6.70명, 중소도시가 6.58명으로 대체로 6~7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친구 수는 중소도시가 2.24명, 대도시는 2.16명이나 읍면지역은 1.38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낮다. 학업중단한 친구 수는 중소도시가 0.86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은 0.76, 대도시는 0.68 순이었다.



【그림 Ⅱ-78】 친한 친구 수(N=31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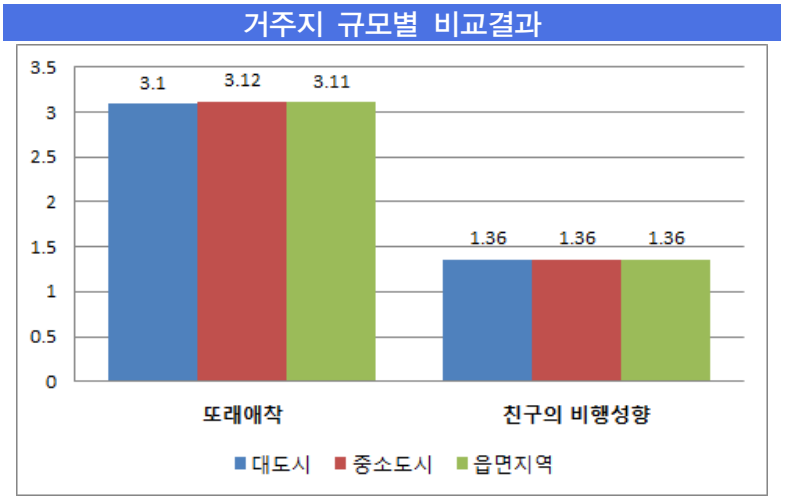
표 Ⅱ-79 친한 친구 수 (N=318, 단위: 명)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3. 친한 친구 수	6.74 (5.83)	6.84 (5.59)	6.58 (6.56)	6.70 (5.07)	.06
23-1. 학업중단 후 사귄 친구 수	2.10 (3.26)	2.16 (2.96)	2.24 (4.03)	1.38 (2.23)	1.03
23-2. 학업중단 한 친구 수	0.79 (1.60)	0.68 (1.38)	0.86 (2.11)	0.76 (1.60)	.25

문 24.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59]

또래애착, 또래의 비행성향에 대한 평균에서 '또래애착(*M*=3.11)', '친구의 비행성향(*M*=1.36)'으로 나타남

○ 또래애착과 또래의 비행성향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래애착은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M=3.12), 친구의 비행성향은 모든 지역에서 1.36으로 동일했다.



【그림 Ⅱ-79】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N=318, 단위: 점)

표 Ⅱ-8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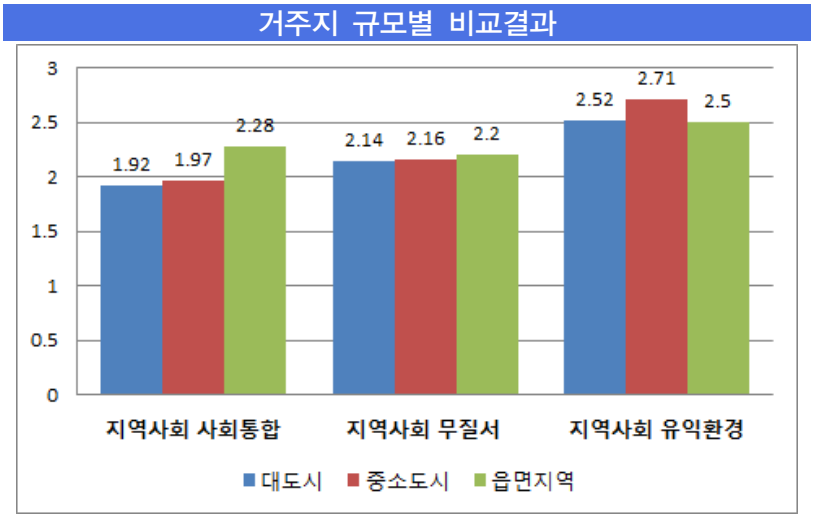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3)	또래애착	3.11 (0.56)	3.10 (0.56)	3.12 (0.58)	3.11 (0.56)	.06
4)~6)	친구의 비행성향	1.36 (0.51)	1.36 (0.51)	1.36 (0.53)	1.36 (0.51)	.00

5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5. 지역사회[60]

지역사회에 대한 평균에서 '유익환경(*M*=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질서(*M*=2.15)', '사회통합(*M*=1.97)'의 순이었음

○ 지역사회 사회통합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평균은 2.28인 반면 중소도시는 1.97, 대도시는 1.92로 낮았다. 지역사회 유익환경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가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무질서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읍면지역 2.20, 중소도시 2.16, 대도시 2.14 순이었다.



【그림 Ⅱ-80】 지역사회(N=318, 단위: 점)

표 Ⅱ-81 지역사회 (N=318,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비)
1)~4)	지역사회 사회통합	1.97 (0.65)	1.92 (0.61)	1.97 (0.65)	2.28 (0.77)	5.02** (a<c)
5)~8)	지역사회 무질서	2.15 (0.65)	2.14 (0.66)	2.16 (0.64)	2.20 (0.67)	.09
9)~10)	지역사회 유익환경	2.57 (0.72)	2.52 (0.74)	2.71 (0.70)	2.50 (0.61)	2.51+ (n.s.)

+*p*<.10, **_p_<.01
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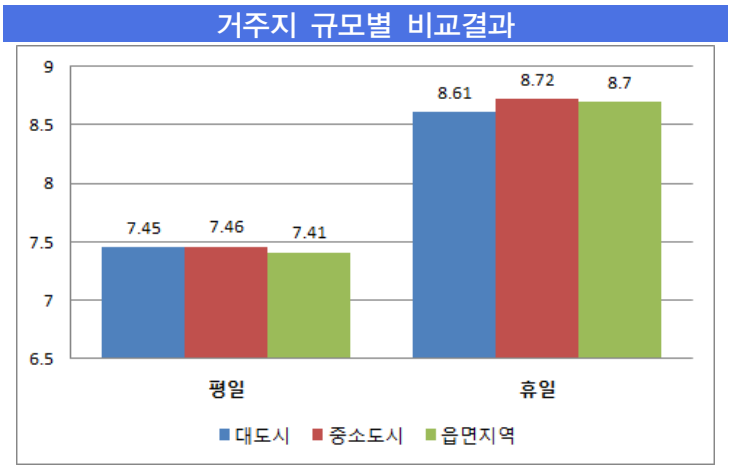
6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5)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26. 하루 생활시간-수면

하루 생활시간 중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평일(*M*=7.45시간), 휴일(*M*=8.65시간)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 중 수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중소도시 7.46시간, 대도시 7.45시간, 읍면지역 7.41시간 순으로 길었고 휴일은 중소도시 8.72시간, 읍면지역 8.70시간, 대도시 8.61시간으로 나타났다. 거주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Ⅱ-81】 하루 생활시간-수면(N=318,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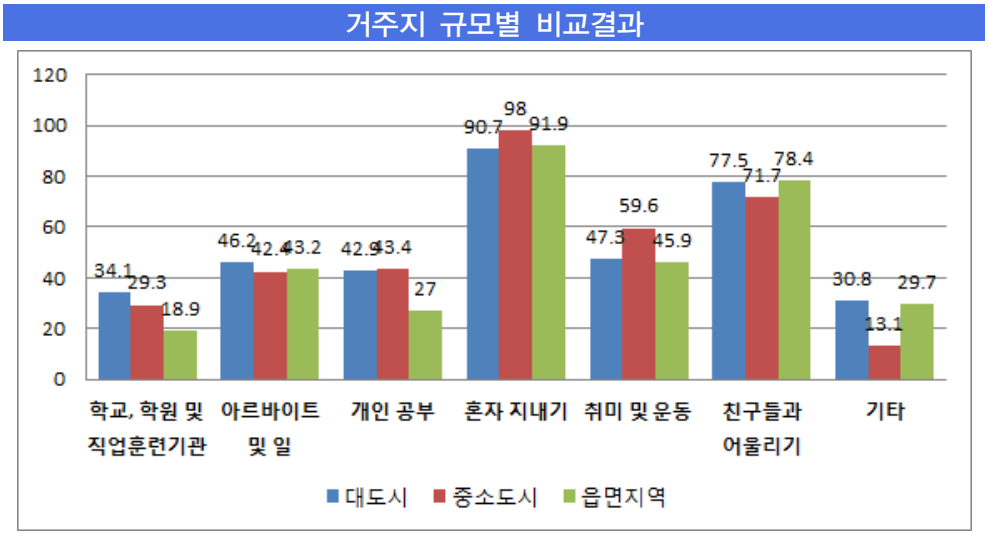
표 Ⅱ-82 하루 생활시간-수면 (N=318, 단위: 시간)

구분	*M(SD)*				*F* (대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일 평균 수면시간	7.45 (1.76)	7.45 (1.75)	7.46 (1.91)	7.41 (1.40)	.11
휴일 평균 수면시간	8.65 (1.97)	8.61 (1.91)	8.72 (2.13)	8.70 (1.90)	.02

문 26. 하루 생활시간-경험률

하루 생활시간에 대한 경험률은 '혼자 지내기(93.1%)'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75.8%)', '취미 및 운동(50.9%)', '아르바이트 및 일(44.7%)' 등의 순임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혼자 지내기와 기타 여가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중소도시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혼자 지내기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응답자들이 가장 응답률이 낮았다. 학교 및 대안학교 경험률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취미 및 운동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다.



【그림 Ⅱ-82】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N=318, 단위: %)

표 Ⅱ-83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61] (N=318,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98	30.8	62	34.1	29	29.3	7	18.9	3.47
아르바이트 및 일	142	44.7	84	46.2	42	42.4	16	43.2	.40
개인 공부	131	41.2	78	42.9	43	43.4	10	27.0	3.48
혼자 지내기	296	93.1	165	90.7	97	98.0	34	91.9	5.43^{+}
취미 및 운동	162	50.9	86	47.3	59	59.6	17	45.9	4.33
친구들과 어울리기	241	75.8	141	77.5	71	71.7	29	78.4	1.31
기타	80	25.2	56	30.8	13	13.1	11	29.7	11.06**

$^{+}p<.10$, $^{**}p<.01$

61) 사례수와 비율은 각 항목별로 '① 해당 있음'에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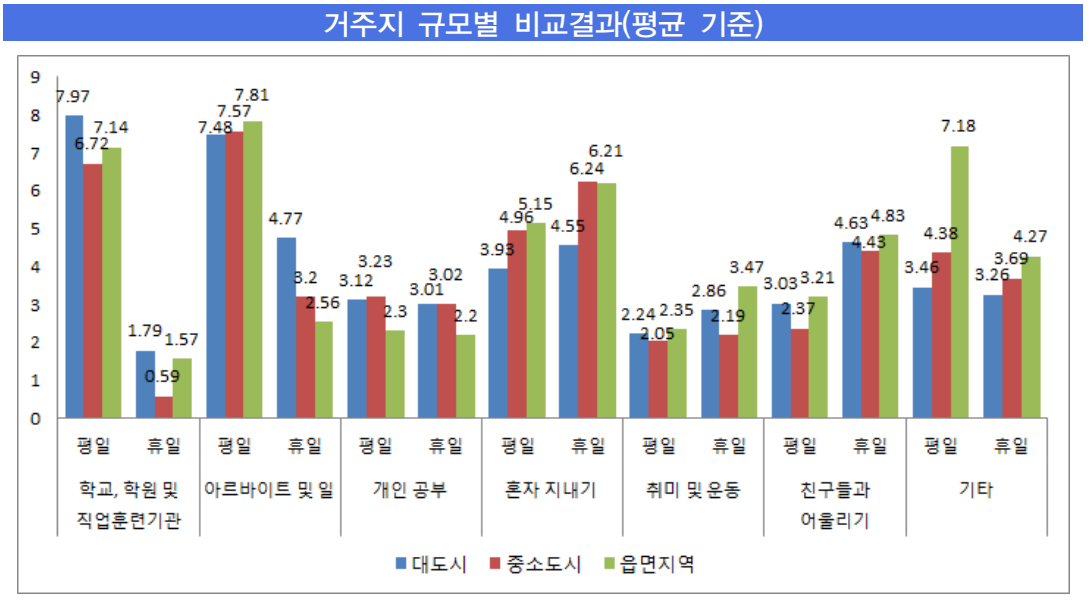
문 26. 하루 생활시간–평균

하루 생활시간 평균에서 평일은 '학교 및 대안학교(*M*=7.68시간)'이 가장 높았고, 주말은 '혼자 지내기(*M*=4.82시간)' 가 가장 높았음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 혼자지내는 시간과 그 외의 여가시간, 휴일의 혼자 지내는 시간과 아르바이트 및 일을 하는 시간에서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평일의 혼자 지내는 시간의 경우 읍면지역이 5.15, 중소도시가 4.96시간, 대도시 3.93시간으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길었다. 휴일의 혼자지내는 시간도 유사했는데, 중소도시 6.24, 읍면지역 6.21시간에 비해 대도시는 4.55시간으로 평일과 휴일 모두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는 혼자 있는 시낙이 짧았다.

평일의 그 외의 여가시간은 읍면지역이 7.18시간으로 중소도시 4.38시간, 대도시 3.46시간보다 약 2배 정도 길었다. 읍면지역 응답자들이 기타 여가시간에 하는 일로는 '군복무', '육아 및 가사 일을 도움' 등이 있었다.

휴일의 아르바이트 및 일하는 시간은 대도시가 4.77시간으로 중소도시 3.2시간, 읍면지역 2.56시간보다 길었다.



【그림 Ⅱ-83】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N=318, 단위: 시간)

표 II-84 하루 생활시간 (N=318, 단위: 시간)

항목	거주지	평일			휴일		
		M	*SD*	*F*	*M*	*SD*	*F*
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 머무는 시간	전체	7.54	2.74	2.17	1.42	3.34	1.30
	대도시	7.97	2.86		1.79	3.84	
	중소도시	6.72	2.52		0.59	1.84	
	읍면지역	7.14	1.77		1.57	3.04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	전체	7.54	3.04	.08	4.06	4.46	2.80^{+} (n.s.)
	대도시	7.48	3.29		4.77	4.70	
	중소도시	7.57	2.61		3.20	4.02	
	읍면지역	7.81	2.90		2.56	3.63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전체	3.09	2.21	.73	2.95	2.81	.39
	대도시	3.12	2.07		3.01	2.81	
	중소도시	3.23	2.56		3.02	3.04	
	읍면지역	2.30	1.56		2.20	1.61	
혼자 지내는 시간	전체	4.41	3.30	4.02* (a<b)	5.29	3.42	9.08*** (a<b,c)
	대도시	3.93	2.71		4.55	2.90	
	중소도시	4.96	3.64		6.24	3.66	
	읍면지역	5.15	4.45		6.21	4.18	
취미 및 운동하는 시간	전체	2.19	2.15	.20	2.68	2.53	2.19
	대도시	2.24	2.56		2.86	2.97	
	중소도시	2.05	1.60		2.19	1.73	
	읍면지역	2.35	1.61		3.47	2.29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전체	2.85	2.54	1.94	4.60	2.91	.22
	대도시	3.03	2.68		4.63	3.00	
	중소도시	2.37	2.36		4.43	2.66	
	읍면지역	3.21	2.07		4.83	3.17	
그 외 여가시간	전체	4.13	3.16	7.47** (a<c)	3.47	2.75	.67
	대도시	3.46	2.49		3.26	2.68	
	중소도시	4.38	2.95		3.69	2.81	
	읍면지역	7.18	4.62		4.27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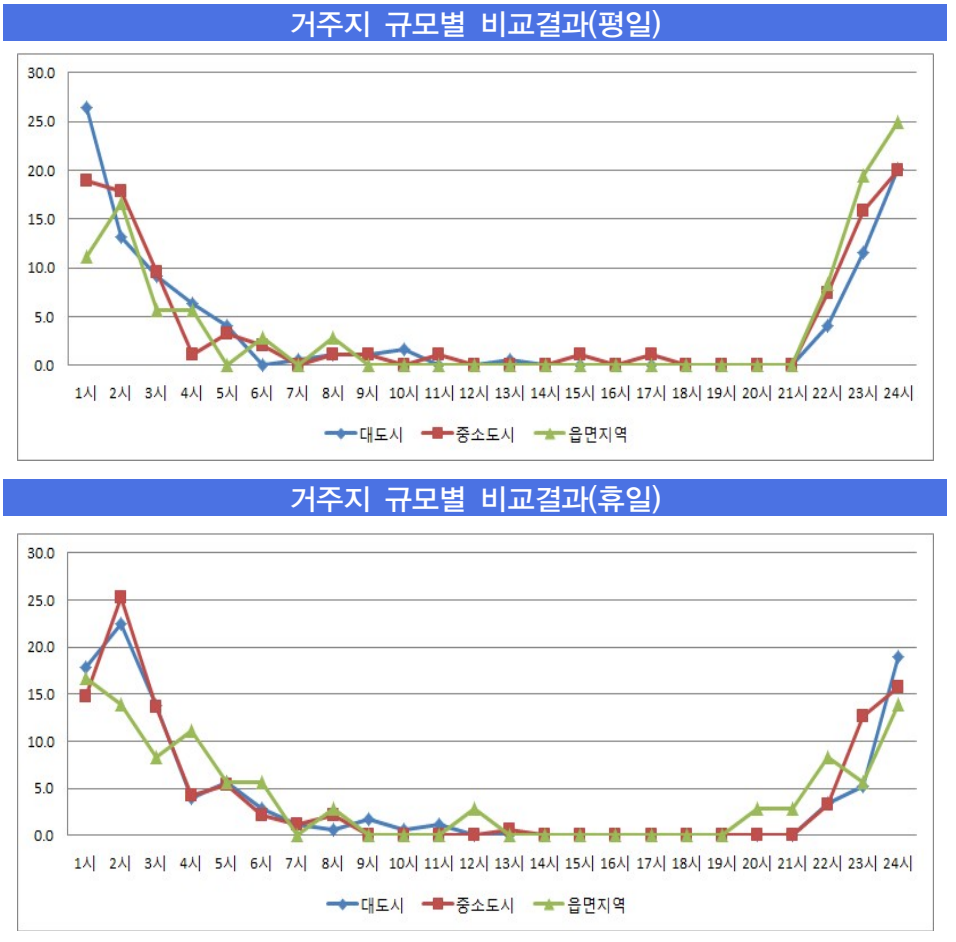
$^{+}p<.10$,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주: 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지역

문 26-1. 취침 시각

취침 시각에 대한 질문에
평일 '1~1시 59분(22.3%)'과 휴일 '2시~2시 59분(22.3%)'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일 취침 시각은 대도시는 1시~1시 59분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각 20.0%, 25.0%로 24시~24시 59분이 가장 많았다. 휴일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새벽 2시대가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은 새벽 1시대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Ⅱ-84】 취침 시각(N=3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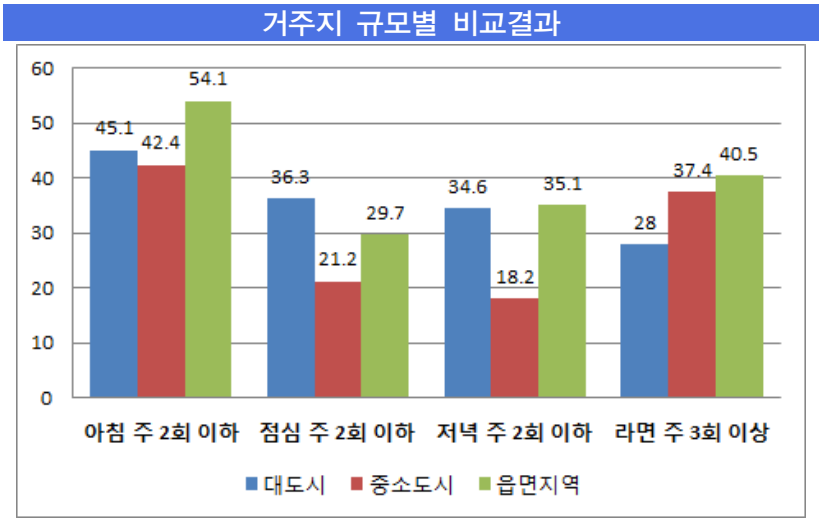
표 Ⅱ-85 취침 시각 [단위: 명(%)]

구분	평 일				휴 일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시~1시 59분	68(22.3)	46(26.4)	18(18.9)	4(11.1)	51(16.7)	31(17.8)	14(14.7)	6(16.7)
2시~2시 59분	46(15.1)	23(13.2)	17(17.9)	6(16.7)	68(22.3)	39(22.4)	24(25.3)	5(13.9)
3시~3시 59분	27(8.9)	16(9.2)	9(9.5)	2(5.6)	40(13.1)	24(13.8)	13(13.7)	3(8.3)
4시~4시 59분	14(4.6)	11(6.3)	1(1.1)	2(5.6)	15(4.9)	7(4.0)	4(4.2)	4(11.1)
5시~5시 59분	10(3.3)	7(4.0)	3(3.2)	0(0.0)	17(5.6)	10(5.7)	5(5.3)	2(5.6)
6시~6시 59분	3(1.0)	0(0.0)	2(2.1)	1(2.8)	9(3.0)	5(2.9)	2(2.1)	2(5.6)
7시~7시 59분	1(0.3)	1(0.6)	0(0.0)	0(0.0)	3(1.0)	2(1.1)	1(1.1)	0(0.0)
8시~8시 59분	4(1.3)	2(1.1)	1(1.1)	1(2.8)	4(1.3)	1(0.6)	2(2.1)	1(2.8)
9시~9시 59분	3(1.0)	2(1.1)	1(1.1)	0(0.0)	3(1.0)	3(1.7)	0(0.0)	0(0.0)
10시~10시 59분	3(1.0)	3(1.7)	0(0.0)	0(0.0)	1(0.3)	1(0.6)	0(0.0)	0(0.0)
11시~11시 59분	1(0.3)	0(0.0)	1(1.1)	0(0.0)	2(0.7)	2(1.1)	0(0.0)	0(0.0)
12시~12시 59분	0(0.0)	0(0.0)	0(0.0)	0(0.0)	1(0.3)	0(0.0)	0(0.0)	1(2.8)
13시~13시 59분	1(0.3)	1(0.6)	0(0.0)	0(0.0)	1(0.3)	1(0.6)	0(0.0)	0(0.0)
14시~14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시~15시 59분	1(0.3)	0(0.0)	1(1.1)	0(0.0)	0(0.0)	0(0.0)	0(0.0)	0(0.0)
16시~16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시~17시 59분	1(0.3)	0(0.0)	1(1.1)	0(0.0)	0(0.0)	0(0.0)	0(0.0)	0(0.0)
18시~18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시~19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시~20시 59분	0(0.0)	0(0.0)	0(0.0)	0(0.0)	1(0.3)	0(0.0)	0(0.0)	1(2.8)
21시~21시 59분	0(0.0)	0(0.0)	0(0.0)	0(0.0)	1(0.3)	0(0.0)	0(0.0)	1(2.8)
22시~22시 59분	17(5.6)	7(4.0)	7(7.4)	3(8.3)	12(3.9)	6(3.4)	3(3.2)	3(8.3)
23시~23시 59분	42(13.8)	20(11.5)	15(15.8)	7(19.4)	23(7.5)	9(5.2)	12(12.6)	2(5.6)
24시~24시 59분	63(20.7)	35(20.1)	19(20.0)	9(25.0)	53(17.4)	33(19.0)	15(15.8)	5(13.9)
계	318(100.0)	182(100.0)	99(100.0)	37(100.0)	318(100.0)	182(100.0)	99(100.0)	37(100.0)

문 27. 식생활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아침 주 2회 이하(45.3%)'가 가장 많았고, '라면 주 3회 이상(32.4%)'의 응답률도 높았음

○ 점심과 저녁 식습관에서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점심을 주 2회 이하로 먹었다는 응답은 대도시에서 36.3%, 읍면지역에서 29.7%, 중소도시에서 21.2%이었다. 저녁을 주 2회 이하로 먹었다는 응답도 유사했는데 읍면지역은 35.1%, 대도시 34.6%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18.2%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식습관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5】 식생활(N=318, 단위: %)

표 Ⅱ-86 식생활[62] (N=318, 단위: 명, %)

문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아침 주 2회 이하	144	45.3	82	45.1	42	42.4	20	54.1	1.48
2) 점심 주 2회 이하	98	30.8	66	36.3	21	21.2	11	29.7	6.84*
3) 저녁 주 2회 이하	94	29.6	63	34.6	18	18.2	13	35.1	8.94*
4) 라면(컵라면) 주 3회 이상	103	32.4	51	28.0	37	37.4	15	40.5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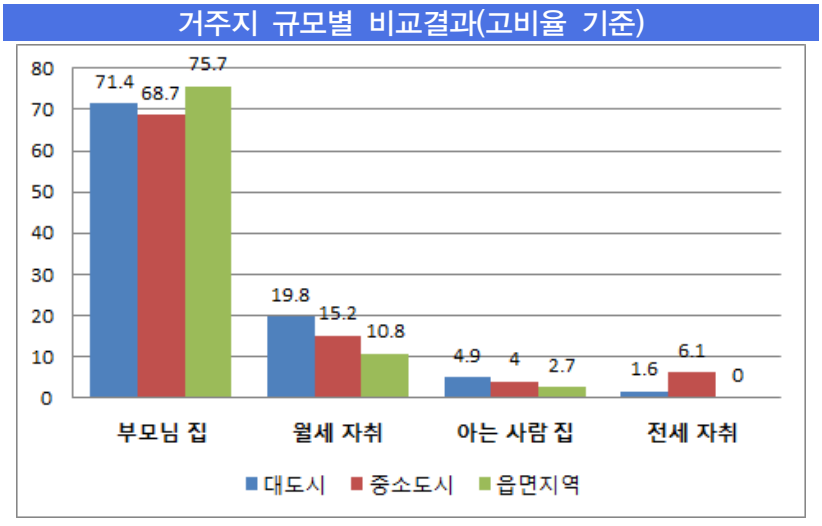
*$p<.05$

62)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결과임.

문 28. 현재 주거상태

현재 주거상태는 '부모님 집에서 동거(71.1%)'가 가장 많았으며 '월세 자취(17.3%)' 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대체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비율은 읍면지역(75.7%)에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68.7%)에서 가장 낮았다. 월세 자취 비율은 대도시(19.8%)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15.2%), 읍면지역(10.8%) 순이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전세 자취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림 Ⅱ-86】 현재 주거상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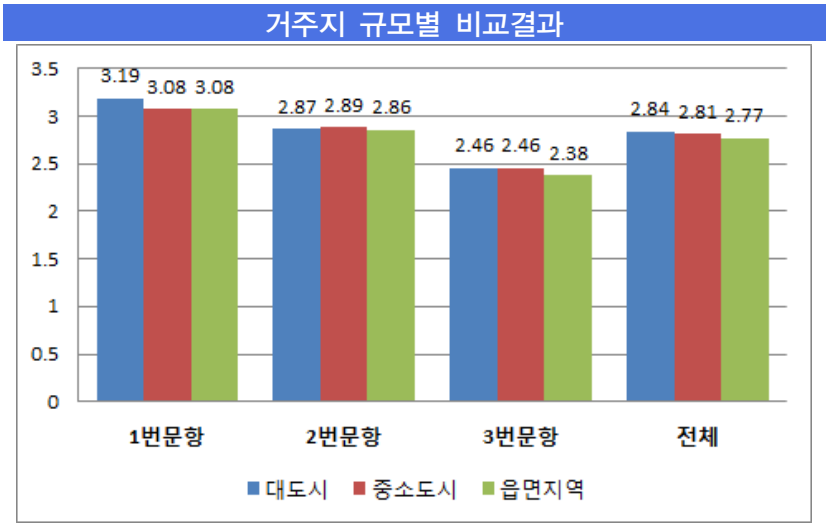
표 Ⅱ-87 현재 주거상태 (단위: 명, %)

문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부모님 집에서 동거	226	71.1	130	71.4	68	68.7	28	75.7
② 월세 자취	55	17.3	36	19.8	15	15.2	4	10.8
③ 전세 자취	9	2.8	3	1.6	6	6.1	0	0.0
④ 고시원	0	0.0	0	0.0	0	0.0	0	0.0
⑤ 학교 기숙사	6	1.9	1	0.5	4	4.0	1	2.7
⑥ 회사 기숙사	2	0.6	2	1.1	0	0.0	0	0.0
⑦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14	4.4	9	4.9	4	4.0	1	2.7
⑧ 기타	6	1.9	1	0.5	2	2.0	3	8.1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문 29. 가치관–학력에 대한 생각[63]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을 보면 '1번 문항(*M*=3.14)', '2번 문항(*M*=2.88)', '3번 문항(*M*=2.45)'의 순으로 높았음

○ 학력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거주지 규모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받는다는 의식은 중소도시에서 약간 높았다.



【그림 Ⅱ-87】 학력에 대한 생각(N=318, 단위: 점)

표 Ⅱ-88 학력에 대한 생각 (N=31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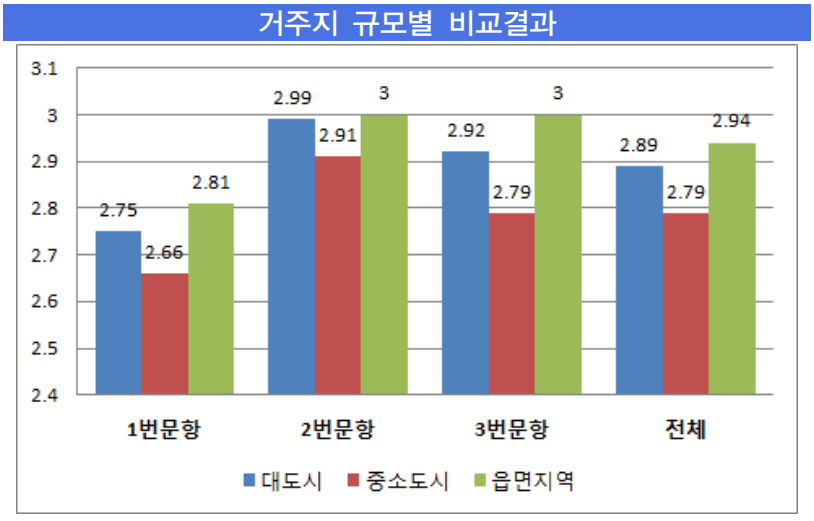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3.14 (0.63)	3.19 (0.58)	3.08 (0.65)	3.08 (0.83)	1.20
2)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2.88 (0.69)	2.87 (0.66)	2.89 (0.73)	2.86 (0.79)	.02
3) 우리 사회에서 중 ·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45 (0.84)	2.46 (0.83)	2.46 (0.85)	2.38 (0.86)	.17
전체	2.82 (1.66)	2.84 (1.50)	2.81 (1.77)	2.77 (2.08)	.27

6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30. 가치관–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은 '1번 문항(*M*=2.80)', '2번 문항(*M*=3.08)', '3번 문항(*M*=3.04)'으로 나타났음

○ 대학 미진학자에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읍면지역(2.9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2.89점), 중소도시(2.79점) 순으로 높았다. 각 문항별로 보았을 때도 읍면지역에 가장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88】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N=173, 단위: 점)

표 Ⅱ-89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N=173,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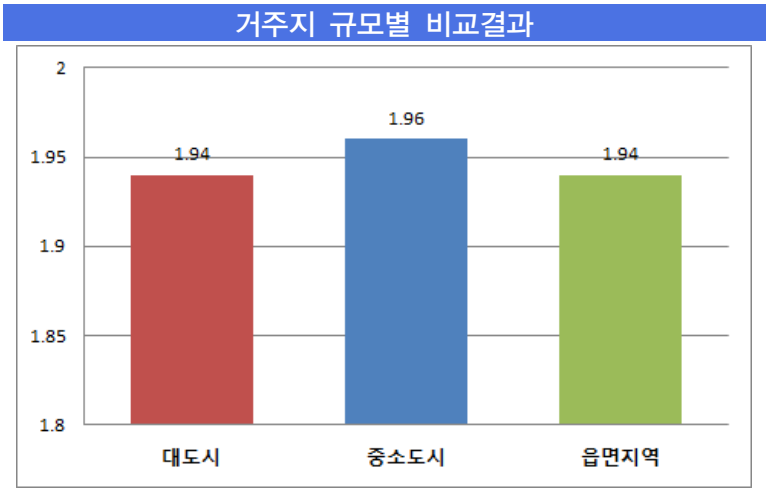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73 (0.79)	2.75 (0.86)	2.66 (0.74)	2.81 (0.69)	.42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97 (0.71)	2.99 (0.76)	2.91 (0.68)	3.00 (0.63)	.23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2.89 (0.74)	2.92 (0.79)	2.79 (0.70)	3.00 (0.69)	.86
전체	**2.86 (1.94)**	**2.89 (2.16)**	**2.79 (1.73)**	**2.94 (1.58)**	**.62**

64) 문 26의 결과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N=173)만 응답한 결과이며,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31. 사회적 낙인감[65]

사회적 낙인감의 평균은 1.94로 나타남

○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소도시의 낙인감이 1.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1.94로 나타나, 대체로 사회적 낙인감은 거주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9】 사회적 낙인감(N=318, 단위: 점)

표 Ⅱ-90 사회적 낙인감 (N=318, 단위: 점)

구분	M(SD)				F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회적 낙인감	1.94 (0.41)	1.94 (0.42)	1.96 (0.37)	1.94 (0.4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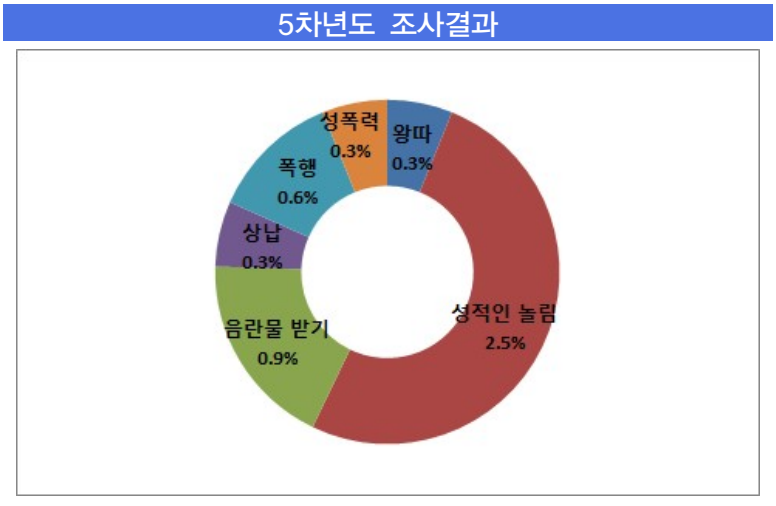
6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6) 행동 경험

문 32. 문제행동 피해경험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성적인 놀림 당하기(2.5%)'가 가장 많았음

○ 문제행동 피해경험은 대체로 거의 없는 편이었다. 성적인 놀림 정도가 가장 많았고, 음란물 받기의 경험률이 0.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Ⅱ-90】 문제행동 피해경험(N=318, 단위: %)

표 Ⅱ-91 문제행동 피해경험[66] (N=3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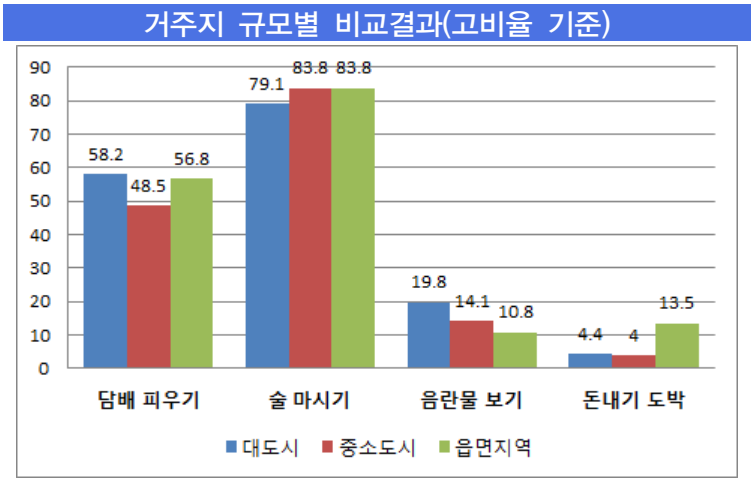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1	0.3	0	0.0	1	1.0	0	0.0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8	2.5	6	3.3	2	2.0	0	0.0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3	0.9	2	1.1	1	1.0	0	0.0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1	0.3	0	0.0	1	1.0	0	0.0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2	0.6	0	0.0	1	1.0	1	2.7
6) 성폭력 당하기	1	0.3	0	0.0	1	1.0	0	0.0

66)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피해경험이 ②번'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문 33. 비행경험

비행경험에 대해 '술 마시기(81.1%)'이 가장 많았고,
'담배 피우기(55.0%)', '음란물 보기(17.0%)', '도박(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응답자들은 돈내기 도박의 경험(13.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자는 대도시 58.2%, 읍면지역 56.8%, 중소도시 48.5% 순이었고, 음주 경험자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83.8%, 대도시 79.1%였다. 음란물 보기의 경우 대도시가 19.8%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13.1%, 읍면지역 10.8% 순이었다.



【그림 Ⅱ-91】 비행경험(N=318, 단위: %)

표 Ⅱ-92 비행경험[67][68] (N=318, 단위: 명, %)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담배 피우기	175	55.0	106	58.2	48	48.5	21	56.8	2.52
2) 술 마시기	258	81.1	144	79.1	83	83.8	31	83.8	1.13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0.3	1	0.5	0	0.0	0	0.0	–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3	0.9	3	1.6	0	0.0	0	0.0	–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삥 뜯기)	1	0.3	1	0.5	0	0.0	0	0.0	–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54	17.0	36	19.8	14	14.1	4	10.8	2.58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17	5.3	8	4.4	4	4.0	5	13.5	5.54+
8) 자살 시도	4	1.3	1	0.5	2	2.0	1	2.7	–
9)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6	1.9	4	2.2	2	2.0	0	0.0	–
10) 약물(본드) 흡입	0	0.0	0	0.0	0	0.0	0	0.0	–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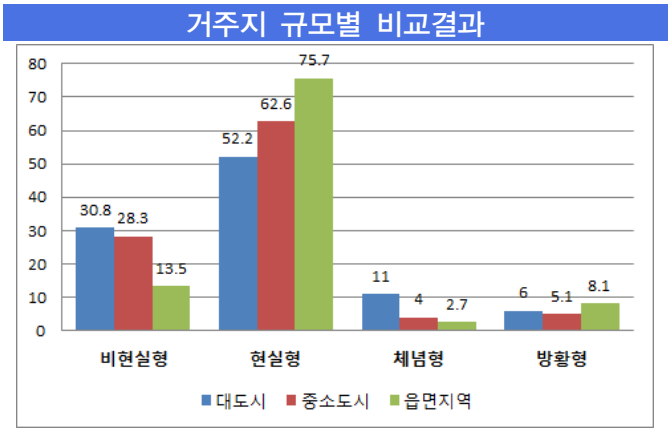
67)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가해경험이 ②번'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68)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7) 배경요인[69]

문 38. 장래 희망[70]

장래 희망에 대해 '현실형(58.2%)'이 가장 많았으며,
'비현실형(28.0%)', '체념형(7.9%)', '방황형(6.0%)'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현실형'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이 가장 높은 곳은 읍면지역(75.7%)이었고 대도시(52.2%)가 가장 낮았다. '비현실형'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30.8%, 중소도시가 28.3%인 반면 읍면지역은 13.5%로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거주자들은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래희망이 없는 체념형은 읍면지역 2.7%, 중소도시 4%인 반면 대도시는 11%에 달했고, 방황형은 읍면지역이 8.1%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Ⅱ-92】 장래 희망(단위: %)

표 Ⅱ-93 장래 희망 (단위: 명, %)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비현실형	89	28.0	56	30.8	28	28.3	5	13.5	
현실형	185	58.2	95	52.2	62	62.6	28	75.7	
체념형	25	7.9	20	11.0	4	4.0	1	2.7	12.46^{+}
방황형	19	6.0	11	6.0	5	5.1	3	8.1	
계	318	100.0	182	100.0	99	100.0	37	100.0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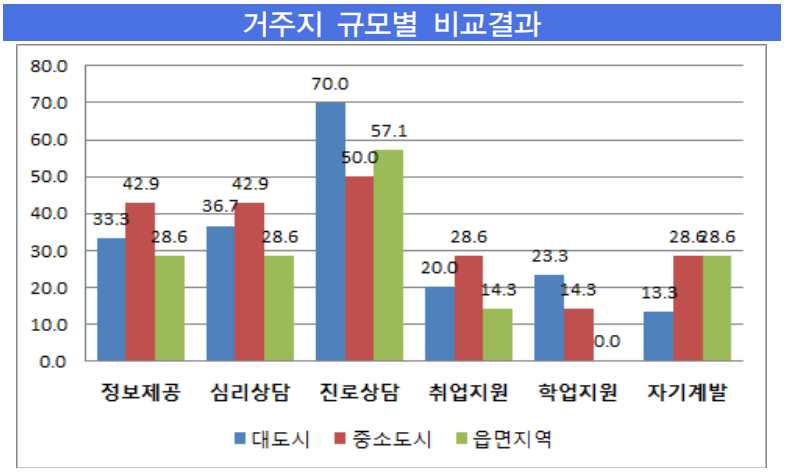
69) 문 34~문 37(문 34. 가족구성, 문 35. 이사경험, 문 36. 경제적 수준, 문 37.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로 다루었음으로 제외되었음.

70) 비현실형: 해당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높은 학력성취를 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를 추구하는 유형
현실형: 높은 학력 없이도 성취가 가능한 분야를 추구하는 유형
체념형: 장래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유형
방황형: 장래희망이 '미정'이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유형

추가 1.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71][72][73][74]

꿈드림센터 경험자들은 '진로상담(62.7%)'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심리상담(37.3%)'을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음

○ 지난해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응답자들에게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진로상담(62.7%)과 심리상담(37.3%), 정보제공(35.3%), 취업지원(21.6%), 자기계발 기회 제공(19.6%)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는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취업지원을 많이 받았고 대도시는 진로상담, 학업지원을 많이 이용했다.



【그림 Ⅱ-93】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N=51, 단위: %)

표 Ⅱ-94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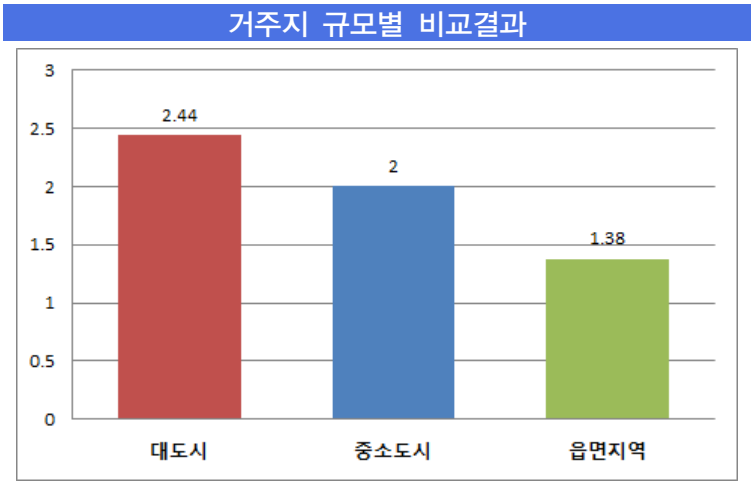
문 항	전체 (N=51)		대도시 (N=30)		중소도시 (N=14)		읍면지역 (N=7)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18	35.3	10	33.3	6	42.9	2	28.6
② 심리상담	19	37.3	11	36.7	6	42.9	2	28.6
③ 진로상담	32	62.7	21	70.0	7	50.0	4	57.1
④ 경제적 지원	4	7.8	3	10.0	0	0.0	1	14.3
⑤ 취업지원	11	21.6	6	20.0	4	28.6	1	14.3
⑥ 학업지원	9	17.6	7	23.3	2	14.3	0	0.0
⑦ 주거지원	0	0.0	0	0.0	0	0.0	0	0.0
⑧ 건강지원	6	11.8	3	10.0	3	21.4	0	0.0
⑨ 자기계발 기회 제공	10	19.6	4	13.3	4	28.6	2	28.6

71) 추가 0 문항은 정성조사 참여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분석이 불필요하여 제외되었음.
72) 추가 1~추가 5-2-1은 4차년도 조사 시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응답자(N=59)만 응답하는 문항임.
73) 중복응답문항으로,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결과임.
74) 추가 1~추가 5-2-1의 무응답자는 센터에 연계되어 초기상담만 받은 청소년들임. 추가 1은 무응답자(N=8)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추가 2. 사례관리자와의 접촉빈도[75]

센터 이용자들은 한 달에 평균 2.19번 사례관리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됨

○ 대도시의 센터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례관리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평균은 2.44회, 중소도시는 2.00회, 읍면지역은 1.38회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94】 사례관리자와의 접촉빈도(N=52, 단위: 회)

표 Ⅱ-95 사례관리자와의 접촉빈도[M(SD)]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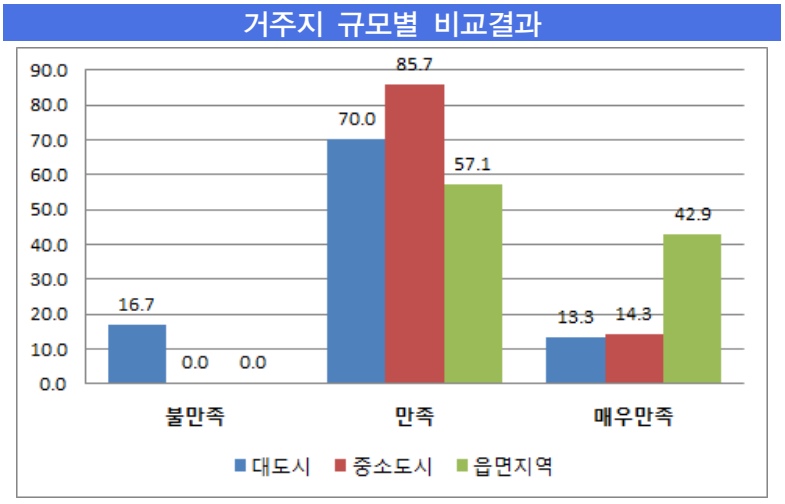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접촉 빈도 평균	2.19 (4.26)	2.44 (5.16)	2.00 (2.62)	1.38 (1.51)	.22

75) 무응답자(N=7)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추가 2~추가 2-1. 서비스 만족도[76)]

전체 응답자의 90.2%가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대해 만족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응답은 대도시 응답자에게서만 나왔는데, 불만족 사유로는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부담스러움 등이 있었다.



【그림 Ⅱ-95】 서비스 만족도(N=51, 단위: %)

표 Ⅱ-96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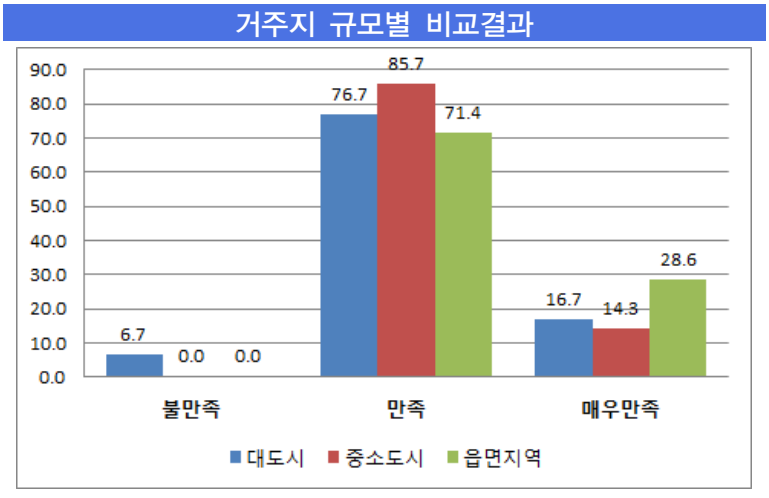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② 불만족	5	9.8	5	16.7	0	0.0	0	0.0
③ 만족	37	72.5	21	70.0	12	85.7	4	57.1
④ 매우 만족	9	17.6	4	13.3	2	14.3	3	42.9
계	51	100.0	30	100.0	14	100.0	7	100.0

76) 무응답자(N=8)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추가 2-1은 불만족 사유를 기입하는 문항으로 분석하지 않음.

추가 3~추가 3-1.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77]

전체 응답자의 96.1%가 사례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함

○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서비스 만족도보다 높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모든 응답자가 '만족'에 응답하였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상담같지 않았음'과 '부담스러움'이 있었다.



【그림 Ⅱ-96】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N=51, 단위: %)

표 Ⅱ-97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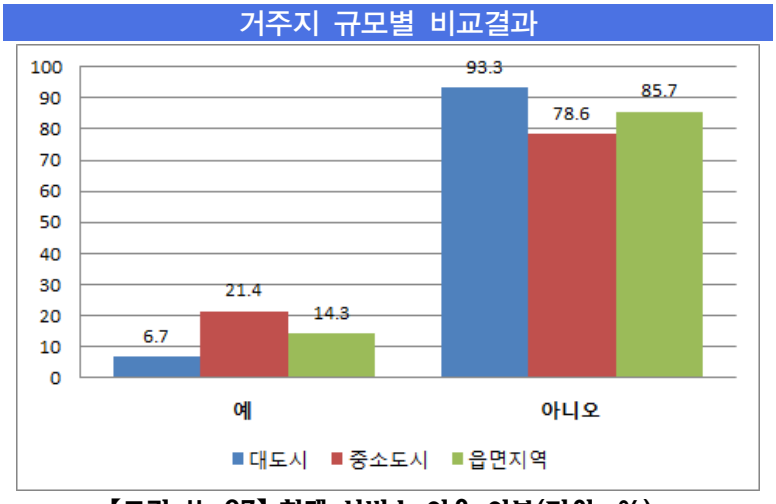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② 불만족	2	3.9	2	6.7	0	0.0	0	0.0
③ 만족	40	78.4	23	76.7	12	85.7	5	71.4
④ 매우 만족	9	17.6	5	16.7	2	14.3	2	28.6
계	51	100.0	30	100.0	14	100.0	7	100.0

77) 무응답자(N=8)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추가 3-1은 불만족 사유를 기입하는 문항으로 분석하지 않음

추가 5.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78)]

조사시점 기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1.8%임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소도시(21.4%)였으며, 읍면지역(14.3%), 대도시(6.7%) 순이었다.



【그림 Ⅱ-97】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단위: %)

표 Ⅱ-98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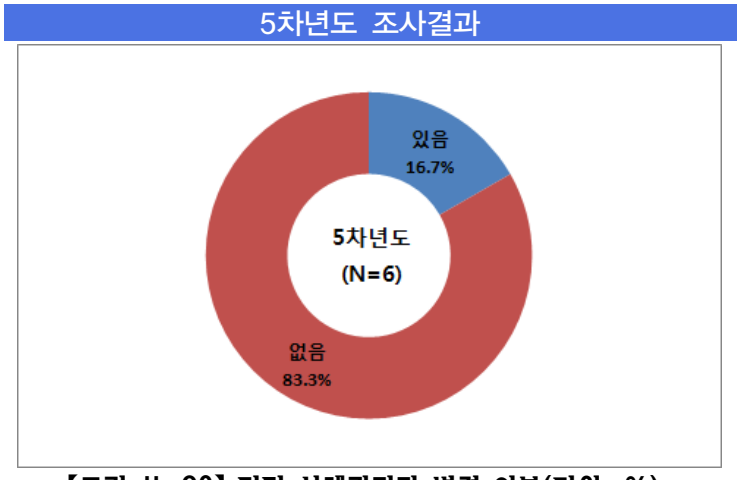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6	11.8	2	6.7	3	21.4	1	14.3
② 아니오	45	88.2	28	93.3	11	78.6	6	85.7
계	51	100.0	30	100.0	14	100.0	7	100.0

78) 무응답자(N=8)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추가 5-1~추가 5-1-1.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와 변경 시기[79][80]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에 대해 6명 중 1명이 '있음(16.7%)'에 응답함

○ 센터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중 1명(중소도시 거주자)만이 사례관리자가 변경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자에게 새로 변경된 사례관리자와 언제부터 만나왔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라고 응답했다.



【그림 Ⅱ-98】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단위: %)

표 Ⅱ-99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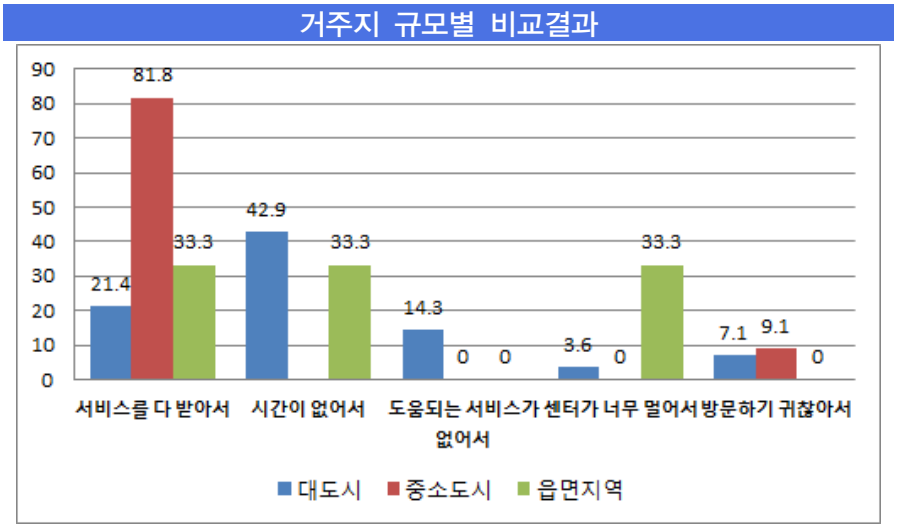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	16.7	0	0.0	1	33.3	0	0.0
② 아니오	5	83.3	2	100.0	2	66.7	1	100.0
계	6	100.0	2	100.0	3	100.0	1	100.0

79) 추가 문 5-1은 문 5에서 '① 예'에 응답한 응답자(N=6)만 응답하는 문항임
80) 추가 문 5-1-1은 담당 사례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가 1명이어 분석하지 않음

추가 5-2.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81)]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37.8%)', '시간이 없어서(31.1%)'등으로 나타남

○ 대도시에서는 '시간이 없어서(42.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81.8%)'가 가장 높았다. 읍면지 역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센터가 너무 멀어서가 각 33.3%였다.



【그림 Ⅱ-99】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N=45, 단위: %)

표 Ⅱ-100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시간이 없어서	14	31.1	12	42.9	0	0.0	2	33.3
②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어서	4	8.9	4	14.3	0	0.0	0	0.0
③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3	6.7	2	7.1	1	9.1	0	0.0
④ 센터가 너무 멀어서	3	6.7	1	3.6	0	0.0	2	33.3
⑤ 내 생활을 간섭해서	0	0.0	0	0.0	0	0.0	0	0.0
⑥ 도움 받는 다른 곳(센터)이 있어서	0	0.0	0	0.0	0	0.0	0	0.0
⑦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	17	37.8	6	21.4	9	81.8	2	33.3
⑧ 기타	4	8.9	3	10.7	1	9.1	0	0.0
계	45	100.0	28	100.0	12	100.0	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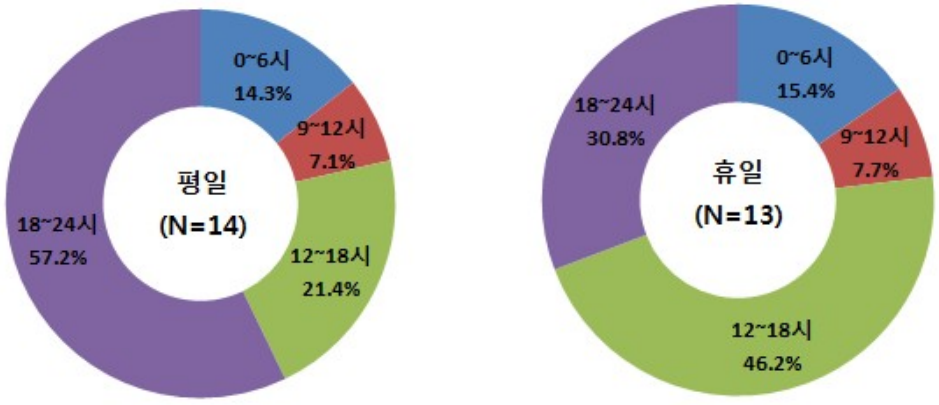
81) 추가 5-2 문항은 추가 5에서 '②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N=45)에만 응답하는 문항임

추가 5-2-1.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편리한 시간[82)]

평일 '18~24시(57.1%)', 휴일 '12~18시(46.2%)'가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조사됨

○ 평일에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으로는 '18~24시(57.1%)'가 가장 높았고, '12~18시(21.4%)', '0~6시(14.3%)', '9~12시(7.1%)' 순이었다. 반면 휴일은 '12시~18시(46.2%)'가 가장 높았고, '18~24시(30.8%)', '0~6시(15.4%)', '9~12시(7.7%)' 순으로 높았다.

5차년도 조사결과



【그림 Ⅱ-100】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편리한 시간(단위: %)

표 Ⅱ-101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편리한 시간 (단위: 명, %)

문 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평일 (N=14)	0~6시	2	14.3	2	16.7	0	0.0	0	0.0
	6~9시	0	0.0	0	0.0	0	0.0	0	0.0
	9~12시	1	7.1	0	0.0	0	0.0	1	50.0
	12~18시	3	21.4	3	25.0	0	0.0	0	0.0
	18~24시	8	57.1	7	58.3	0	0.0	1	50.0
휴일[83)] (N=13)	0~6시	2	15.4	2	16.7	0	0.0	0	0.0
	6~9시	0	0.0	0	0.0	0	0.0	0	0.0
	9~12시	1	7.7	1	8.3	0	0.0	0	0.0
	12~18시	6	46.2	5	41.7	0	0.0	1	50.0
	18~24시	4	30.8	4	33.3	0	0.0	0	0.0

82) 추가 5-2-1 문항은 추가 5-2에서 '① 시간이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N=14)에만 응답하는 문항임
83) 무응답(N=1)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4차년도와 5차년도 차이분석

본 절에서는 성과 이행경로를 중심으로 1절에서 분석한 문항 중 4차년도(2016년) 조사와 5차년도(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4차년도와 5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 3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전체문항에 대한 연도별 차이분석

전체문항에 대한 연도별 차이분석 결과는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중단 후 경험실태와 진로관련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에서 4차년도와 5차년도 간의 차이가 난 문항들은 총 5개였는데 주로 대학교 이전의 학업관련 경험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복학경험, 검정고시경험, 대학입시공부의 경험률이 많게는 4~9%p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일 경험과 군복무경험은 증가하였다. 하루 8시간 이상 일 경험률은 작년대비 약 7%p, 군복무 경험은 6%p 상승하였다.

보호관찰 경험률과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경험은 줄어들었다. 4차년도에는 9명(3.0%)이 보호관찰을 받은 반면 5차년도에는 2명(0.7%)만이 경험이 있었다. 동아리 및 인터넷 경험은 4차년도 25.2%였으나 5차년도에는 17.4%로 감소하였다. 학원 혹은 치료시설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은 증가하였는데 학원에서는 전년대비 6%p, 치료시설에서는 2%p 상승하였다.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는 4차년도 평균 1.09회에서 0.85회로 감소하였다.

표 II-102 중단 후 경험실태 **(N=305, 단위: 명, %, 회)**

문항		4차년도		5차년도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4.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47	15.4	30	9.8	4.30*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36	11.8	23	7.5	3.17+
	4) 대학입시 공부를 함	43	14.1	17	5.6	12.50**
	8)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169	55.4	190	62.3	2.99+
	13) 군 복무	10	3.3	30	9.8	10.70**

문항		4차년도		5차년도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5 학업중단 후 비행경험의 3) 보호관찰을 받음		9	3.0	2	0.7	4.54*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사		88	28.9	69	22.6	3.10+
문 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77	25.2	53	17.4	5.63*
문 16. 성인멘토를 만난 기관	8) 학원	36	11.8	52	17.0	3.40+
	9) 병원 등 치료시설	4	1.3	11	3.6	3.35+
문항		*M*	*SD*	*M*	*SD*	*t*
문 4-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1.09	1.15	.85	1.08	2.00*

+p<.10, *p<.05, **p<.01.

주 1) 문 4, 문 5, 문 7, 문 8, 문 16의 수치는 '있음' 혹은 '예'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임

SNS 가해경험은 4차년도 1.09회에서 5차년도 1.06회로 약간 감소하였다. 부모의 학대 인지정도도 감소하였는데, 4차년도 1.94점에서 5차년도 1.83점이었다. 학업을 중단한 친구 수와 친구의 비행성향도 감소하였다. 학업을 중단한 친구 수는 4차년도에는 약 1.06명이었으나 5차년도에는 0.76명으로 감소했고, 친구의 비행성향은 작년보다 0.08점 줄어들었다. 지역사회 사회통합도 4차년도 2.07점에서 5차년도에는 1.97점으로 하락하였다.

표 II-103 개인적·환경적 특성 (N=305, 단위: 회, 점, 명)

문항		연도				*t*
		4차년도		5차년도		
		M	*SD*	*M*	*SD*	
문 20-2. SNS 관련 가해경험		1.09	0.22	1.06	0.18	1.52+
문 22. 부모의 학대		1.94	0.84	1.83	0.73	1.68+
문 23-2. 학업중단한 친구 수		1.06	1.86	0.76	1.61	2.12*
문 24. 친구의 비행성향		1.44	0.57	1.36	0.51	1.97*
문 25. 지역사회 사회통합		2.07	0.65	1.97	0.72	2.43*
구분		4차년도		5차년도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33. 비행경험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8	2.6	2	0.7	3.66+
	7) 돈내기 도박 해보기	30	9.8	14	4.6	6.27*

+p<.10, *p<.05.

주 1) 문 22, 문 24, 문 25는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는 학업관련 경험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나 학원 등에 시간을 보내는 경험률이 10%p 가량 감소했으며, 개인적 공부 경험률도 8%p 정도 하락했다. 반면 평일의 여가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식생활은 4차년도에 비해 5차년도에 더 비규칙했다. 점심을 주 2회 이하로 먹는다는 응답이 8%p 상승했으며 저녁을 주 2회 이하로 먹는다는 응답은 약 6%p 상승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돈내기 도박을 하는 경험은 감소하였다. 구타 경험은 4차년도에는 8명(2.6%)이었느나 5차년도에는 2명(0.7%)로, 돈내기 도박은 30명(9.8%)에서 14명(4.6%)로 감소하였다.

표 Ⅱ-104 일상생활 **(N=305, 단위: 명, %, 시간, 점)**

구분		4차년도		5차년도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26. 수면, 학습 및 일, 여가시간: 해당여부[84]	2) 학교, 학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127	41.6	95	31.1	7.25**
	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150	49.2	125	41.0	4.14*
문 27. 식생활	2) 점심 주 2회 이하	74	24.3	95	31.1	3.61+
	3) 저녁 주 2회 이하	70	23.0	91	29.8	3.72+
구분		4차년도		5차년도		t
		M	*SD*	*M*	*SD*	
문 26. 수면, 학습 및 일, 여가시간: 시간	8) 평일 여가 시간	2.87	3.02	3.97	3.07	−2.11*

+p<.10, *p<.05, **p<.01

주 1) 문 26(해당여부), 문 27, 문 33의 수치는 '있음' 혹은 '예'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임

(2) 성별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문항별 차이분석 결과를 통해 문항을 3가지(4차년도 비유의 → 5차년도 유의, 4차년도 유의 → 5차년도 비유의, 방향이 달라짐)로 분류하였다.

먼저 4차년도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5차년도에는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을 보면 여성의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5차년도에 성차가 발생하였다. 진로탐색활동(문 9)에서 보이는 특징은 여성의 활동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의

84) 사례수와 비율은 ①번 '해당 있음'에 응답한 결과임.

참여율은 4차년도에 비해 약 5~10%p 정도 감소되었으나 여성들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관심 분야의 종사자를 만나는 활동이 높아졌다. 또한 여성의 학업중단 후 멘토를 종교기관에서 만난 비율이 4차년도에 비해 약 3%p 높아져 성차가 발생하였다.

심리적 상태를 보면 남성의 충동성은 높아졌고 여성의 충동성은 낮아졌다. 또래애착 정도는 남성이 낮아짐에 따라 성차가 나타났다. 학업중단한 친구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여성에게서 더 컸다. 평일에는 친구들과 논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에게서 약간 줄어들었고, 남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휴일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 지내는 시간도 남성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음주 경험은 4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4차년도에는 유의했으나 5차년도에는 차이가 없었던 문항들은 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남성의 불안과 우울수준이 작년에 비해 높아지면서 나타났다. 문 10. 진로장애의 미래불안 수준은 남성이 작년에 비해 .10%p 증가하여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문 19의 우울도 여성은 다소 감소한 반면 남성은 약간 높아짐에 따라 성차가 없어졌다. 문 30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도 4차년도에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긍정적이었으나 5차년도에는 남성의 기대수준이 낮아졌다. 대안교육기관에서 멘토를 만났다는 비율은 남성에게서 약간 증가하였다. 일상생활 시간과 관련된 문항을 보면 여성들은 평일 수면시간이 늘어났고, 남성들은 기타 여가시간의 경험률이 높아졌다. 인스턴트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여성들에게서 높아졌다.

표 Ⅱ-105 성별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단위: 명(%), *M*(*SD*)]

유형	문항	4차년도(2016)			5차년도(2017)		
		남	여	χ^2 / *t*	남	여	χ^2 / *t*
4차년도 비유의 → 5차년도 유의	문 6-1-9. 4대보험 가입유무	19(28.4)	21(37.5)	1.16	20(29.0)	35(56.5)	10.11**
	문 9의 1)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122(77.7)	125(84.5)	2.26	109(69.4)	124(83.8)	8.71**
	문 9의 3)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28(17.8)	29(19.6)	.16	20(12.7)	31(20.9)	3.69+
	문 9의 4) 내가 관심있는 직업 종사자를 만났다	63(40.1)	68(45.9)	.18	66(42.0)	82(55.4)	5.45*
	문 9의 5) 직업체험을 한 적이 있다	30(19.1)	31(20.9)	.16	17(10.8)	29(19.6)	4.57*
	문 16의 7) 종교기관	5(3.2)	6(4.1)	.17	4(2.5)	11(7.4)	3.89*
	문 19. 충동성	1.79(0.50)	1.79(0.55)	-.02	1.84(0.55)	1.70(0.52)	2.14*
	문 23-2. 학업중단한 친구 수	1.17(1.64)	.95(2.07)	1.03	.97(1.95)	.53(1.10)	2.41*
	문 24. 또래애착	3.12(0.57)	3.16(0.61)	-.54	3.05(0.61)	3.17(0.52)	-.12+

유형	문항	4차년도(2016)			5차년도(2017)		
		남	여	χ^2 / t	남	여	χ^2 / t
	문 26의 7) 친구들과 노는 시간 (해당 여부)	119(75.8)	120(81.1)	1.26	110(70.1)	122(82.4)	6.40*
	문 26의 8) 평일 여가시간(시간)	3.10(2.69)	2.76(3.23)	.42	4.95(3.32)	3.03(2.51)	2.87**
	문 26의 2) 휴일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시간)	1.17(2.62)	.56(1.81)	1.55	2.36(3.80)	.78(2.86)	2.31*
	문 33의 2) 술 마시기	131(83.4)	118(79.7)	.40	130(82.8)	106(71.6)	5.44*
4차년도 유의 → 5차년도 비유의	문 10. 진로장애: 미래불안	2.18(0.70)	2.33(0.71)	−1.85+	2.28(0.71)	2.32(0.69)	−.52
	문 16의 10) 대안교육기관	4(2.5)	10(6.8)	3.08+	7(4.5)	10(6.8)	.77
	문 19. 우울	2.00(0.54)	2.17(0.52)	−2.83*	2.05(0.55)	2.11(0.57)	−.97
	문 26의 8) 기타 여가시간(해당여부)	20(12.7)	41(27.7)	10.66**	38(24.2)	39(26.4)	.19
	문 26의 1) 평일 수면시간 (시간)	7.60(1.83)	7.14(1.79)	2.23*	7.50(1.73)	7.39(1.82)	.55
	문 27의 4) 최근 일주일 간 인스턴트 섭취 주 3회 이상	56(35.7)	38(25.7)	3.57+	49(31.2)	50(33.8)	.23
	문 30의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3.15(.065)	2.93(.78)	2.08*	3.01(0.65)	2.91(0.80)	.89
	문 30의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3.09(0.59)	2.86(0.69)	2.47*	2.94(0.67)	2.82(0.82)	1.03

+p<.10, *p<.05, **p<.01.

주 1) 남성은 157명, 여성은 148명임

2) 문 6-1-9. 문 9, 문 16, 문 26(해당여부), 문 27, 문 33의 수치는 '있음' 혹은 '예'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임(문 9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3) 문 10, 문 19, 문 23-2, 문 24, 문 26(시간), 문 30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임.

4) 문 10, 문 19, 문 24, 문 30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3) 이행경로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이 절에서는 4차년도(2016년)와 5차년도(2017년)의 이행경로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성차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5차년도에는 유의한 문항, 4차년도에는 유의했으나 5차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문항, 결과가 달라진 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5차년도에 이행경로별 차이가 유의해진 문항을 보면 무업형은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 경험이 낮아지고, 군 복무 경험은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은 직업형과 무업형 모두 대폭 하락하였다. 일상생활 경험에서는 휴일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무업형은 학원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이 1명도 없었다. 학업형 역시 군복무 경험이 증가하였고, 동아리 참여경험은 다소 감소하였다. 학원과 종교기관에 멘토를 만난 경험은 증가하였다. 직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격증 및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직업훈련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비율은 증가하였다.

4차년도에는 차이가 유의했으나 5차년도에 그렇지 않은 문항을 보면 직업형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5차년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직업형이 약간 감소함에 따라 차이가 없어졌고, 우울감은 학업형 평균이 약간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무업형의 게임중독 수준과 부모방임 수준, 친구의 비행성향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중독 중 금단 평균은 무업형에서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없어졌다. 일상생활 경험률을 보면 5차년도에는 4차년도에 비해 학업형의 수면시간이 길어지고 무업형의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평일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시간은 학업형이 짧아지고 무업형이 길어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일 취미 및 운동시간은 학업형이 증가하고 무업형이 감소하였다. 무업형은 취미 및 운동시간 경험률도 줄어들었고 평일에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술을 마시는 경험률은 학업형이 증가, 무업형은 감소하면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한 도움에 있어서는 무업형의 정보제공, 진로상담, 기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늘고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 및 필요한 도움이 없다는 응답이 줄어 무업형이 좀 더 적극적이 되었고 학업형의 심리상담욕구와 취업지원욕구가 늘고 진로상담과 경제적 지원 욕구가 줄었으며 직업형 역시 진로상담 욕구가 줄었다.

결과가 달라진 문항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묻는 문항이었다. 5) 대학에 다니는 경험은 4차년도에는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순이었으나 5차년도에는 학업형(79.4%), 직업형(9.8%), 무업형(7.7%)로 무업형의 대학경험률이 낮아졌다. 문 4의 6) 직업기술을 배움도 유사한데, 4차년도에는 무업형의 경험률이 15.1%로 가장 높았고 직업형 9.0%, 학업형 4.3% 순이었으나 5차년도에는 직업형 13.4%, 학업형 2.8%, 무업형 1.9% 순이었다. 8)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률은 4차년도에는 직업형, 무업형, 학업형 순이었으나 5차년도에 학업형의 경험률이 약 7%p 상승하고 무업형은 9%p 감소하였다. 무업형의 대학진학경험,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 일 경험이 감소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6 이행경로에 따른 연도별 차이분석 [단위: 명(%), *M*(*SD*)]

유형	문항	4차년도(2016)				5차년도(2017)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F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F
4차 년도 비유의 → 5차 년도 유의	문 4의 7)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	16(9.8)	7(7.9)	4(7.5)	.41	11(7.8)	17(15.2)	1(1.9)	8.14*
	문 4의 13) 군 복무	3(1.8)	6(6.7)	1(1.9)	–	7(5.0)	9(8.0)	14(26.9)	21.3***
	문 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	48(29.4)	18(20.2)	11(20.8)	3.3	35(24.8)	12(10.7)	6(11.5)	10.1**
	문 16의 6) 직업훈련 기관	15(9.2)	12(13.5)	7(13.2)	1.34	7(5.0)	17(15.2)	3(5.8)	8.81*
	문 16의 7) 종교기관	7(4.3)	2(2.2)	2(3.8)	–	12(8.5)	1(0.9)	2(3.8)	7.9*
	문 16의 8) 학원	25(15.3)	7(7.9)	4(7.5)	4.2	37(26.2)	15(13.4)	0(0.0)	20.2*
	문 26의 5) 휴일 혼자 지내는 시간 (시간)	4.60(2.97)	5.16(3.42)	5.67(3.60)	2.25	4.84(3.14)	5.22(3.42)	6.66(3.93)	5.05**
	문 33의 7) 돈내기 도박 해보기	12(7.4)	12(13.5)	6(11.3)	2.59	12(7.4)	12(13.5)	6(11.3)	2.59
4차 년도 유의 → 5차 년도 비유의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사	39(23.9)	34(38.2)	15(28.3)	5.7+	28(19.9)	26(23.2)	15(28.8)	1.8
	문 18. 자아존중감	3.00(0.47)	3.02(0.54)	2.83(0.52)	2.90+ (b>c)	3.01(0.51)	2.95(0.49)	2.88(0.49)	1.53
	문 19. 우울	2.00(0.52)	2.13(0.54)	2.21(0.55)	3.78* (c>a)	2.04(0.53)	2.09(0.57)	2.14(0.62)	.71
	문 20-1. 게임중독	1.23(0.41)	1.35(0.53)	1.45(0.56)	4.63* (c>a)	1.31(0.54)	1.30(0.50)	1.33(0.57)	.07
	문 20-3. 스마트폰 중독: 금단	1.68(0.72)	1.86(0.82)	1.54(0.59)	3.46* (b>c)	1.78(0.75)	1.73(0.75)	1.72(0.75)	.80
	문 22. 부모의 방임	1.89(0.49)	2.02(0.51)	2.06(0.50)	3.39* (a<c)	1.90(0.43)	2.00(0.46)	1.97(0.46)	1.91
	문 24. 친구의 비행 성향	1.41(0.58)	1.42(0.53)	1.62(0.69)	2.85+ (a<c)	1.33(0.48)	1.37(0.53)	1.40(0.53)	.47
	문 26의 1) 평일 수면 시간 (시간)	6.79(1.59)	7.75(1.79)	8.53(1.88)	24.0*** (a<b<c)	7.29(1.86)	7.54(1.71)	7.65(1.68)	1.04
	문 26의 2) 평일 학교, 학원 등에 다니는 시간 (시간)	8.31(2.85)	6.83(2.04)	6.15(2.88)	4.53* (a>c)	7.80(2.77)	6.62(2.18)	7.00(3.58)	1.18
	문 26의 6) 평일 취미 및 운동시간 (시간)	1.72(1.73)	2.25(1.81)	3.18(3.26)	4.79* (a<c)	2.00(2.27)	2.28(2.22)	2.60(1.87)	.75
	문 33의 2) 술 마시기	114(69.9)	79(88.8)	43(81.1)	12.17**	109(77.3)	98(87.5)	42(80.8)	4.36
	문 17-1. 학업 중단 후 필요 했던 도움 정보제공	27(16.6)	7(7.9)	2(3.8)	34.25**	25(17.7)	12(10.7)	8(15.4)	10.20
	심리상담	15(9.2)	10(11.2)	13(24.5)		17(12.1)	13(11.6)	9(17.3)	
	진로상담	40(24.5)	17(19.1)	5(9.4)		19(13.5)	15(13.4)	6(11.5)	
	경제적지원	42(25.8)	24(27.0)	12(22.6)		30(21.3)	32(28.6)	12(23.1)	
	취업지원	8(4.9)	16(18.0)	9(17.0)		14(9.9)	17(15.2)	4(7.7)	
	학업지원	11(6.7)	5(5.6)	2(3.8)		9(6.4)	3(2.7)	2(3.8)	
	기타	9(5.5)	6(6.7)	4(7.5)		13(9.2)	9(8.0)	7(13.5)	
	없음	11(6.7)	4(4.5)	6(11.3)		14(9.9)	11(9.8)	4(7.7)	

유형	문항	4차년도(2016)				5차년도(2017)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F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F
결과가 달라짐	문 4의 5) 대학에 다님	96(58.9)	8(9.0)	8(15.1)	74.6***	112(79.4)	11(9.8)	4(7.7)	154.2***
	문 4의 6) 직업기술을 배움	7(4.3)	8(9.0)	8(15.1)	7.1*	4(2.8)	15(13.4)	1(1.9)	13.5**
	문 4의 8) 하루 8시간 이상 일함	61(37.4)	82(92.1)	26(49.1)	70.8***	62(44.0)	107(95.5)	21(40.4)	83.5***

+p<.10, *p<.05, **p<.01, ***p<.001.

주 1) 4차년도의 학업형은 163명, 직업형 89명, 무업형 53명이며, 5차년도의 학업형은 141명, 직업형 112명, 무업형 52명임

2) 문 4, 문 7, 문 8, 문 16, 문 26(해당여부), 문 33의 수치는 '있음' 혹은 '예'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임

3) 문 18, 문 19, 문 20-1, 문 20-3, 문 22, 문 24, 문 26(시간)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임.

4) 문 18, 문 19, 문 20-1, 문 20-3, 문 24는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5) 문 17-1의 수치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임.

3. 꿈드림센터 참여 관련변수와 참여효과

1) 변수의 정의 및 특성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과 그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배경변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요인, 제도적 요인, 가치관이다. 개인적 요인에는 심리정서, 문제행동 관련변수로 구성하였고,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관계, 지역사회 특성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다. 제도적 요인에는 진로관련 경험 및 인식 변수를, 마지막으로 가치관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와 학력에 대한 태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Ⅱ-107 변수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	측정방법
배경요인		성별	1=남자, 2=여자
		연령	2016년 기준 만 나이
		가족구성	1=양부모 가정, 2=한부모 가정, 3=부모 모두 안계심
		가정경제수준	'①=매우 못 산다~⑦=매우 잘 산다'를 상(1=⑤~⑦), 중(2=④), 하(3=①~③)으로 재코딩
		거주지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개인적 요인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자아탄력성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내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생활만족도	①나는 사는게 즐겁다, ②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③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우울감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⑦외롭다, ⑧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

구분		변수	측정방법
			모든 일이 힘들다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충동성	①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②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③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④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⑤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사회적 낙인감	①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②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③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④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⑤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⑥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역코딩), ⑦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⑧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문제 행동	게임중독	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SNS 피해경험	①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②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③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④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⑤SNS 상에서 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SNS 가해경험	①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②SNS를 통해 허락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③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④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⑤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스마트폰 중독	①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②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③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력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④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⑤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⑥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진다, ⑦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역코딩), ⑧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구분		변수	측정방법
환경적 요인	부모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방임	①보무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역코딩), ②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③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④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⑤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통합	①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②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③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④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무질서	①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②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③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④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유익환경	①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②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2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제도적 요인	진로정보탐색 활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④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 ⑤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진로 장애		①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②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역코딩), ③나는 여

구분	변수	측정방법
		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④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⑤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⑥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⑦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⑧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⑨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⑩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⑪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⑫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⑬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가치관	부정적 심리 · 정서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긍정적 심리 · 정서	①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②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역코딩), ③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력에 대한 태도	①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②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③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2)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특성차이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거주지 분포는 다음과 같다. 기존 패널 학교 밖 청소년 중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남자일수록, 저연령일수록, 부모가 계시지 않은 가정보다는 양부모, 한부모 가정 청소년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이 '하'라고 인식할수록,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일수록 많았다.

표 II-108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개인배경 특성 분포 [단위: 명(%)]

		미이용	이용	계
성별	남자	133 (51.2)	34 (60.7)	167 (52.9)
	여자	127 (48.9)	22 (39.3)	149 (47.2)
연령대	고등학교 학령 (17~19세)	13 (5.0)	5 (8.9)	18 (5.7)
	20세	19 (7.31)	9 (16.1)	28 (8.9)
	21세	72 (27.7)	12 (21.4)	84 (26.6)
	22세 이상	156 (60.0)	30 (53.6)	186 (58.9)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32 (50.8)	30 (53.6)	162 (51.3)
	한부모 가정	69 (26.5)	17 (30.4)	86 (27.2)
	부모 모두 안계심	59 (22.7)	9 (16.1)	68 (21.5)
가정경제수준	상	53 (20.4)	9 (16.1)	62 (19.6)
	중	113 (43.5)	21 (37.5)	134 (42.4)
	하	94 (36.2)	26 (46.4)	120 (38.0)
거주지 규모	대도시	146 (56.2)	34 (60.7)	180 (57.0)
	중소도시	84 (32.3)	15 (26.8)	99 (31.3)
	읍면지역	30 (11.5)	7 (12.5)	37 (11.7)
전체		260 (100.0)	56 (100.0)	316 (100.0)

다음으로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여러 심리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충동성은 더 높았고, 부모의 학대 수준은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표 II-109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심리변수 차이 (단위: 점)

		N	*M*	*SD*	*t*
자아존중감	미이용	260	3.01	0.496	2.923**
	이용	56	2.80	0.486	
자아탄력성	미이용	260	2.79	0.549	1.210
	이용	56	2.70	0.484	
생활만족도	미이용	260	2.63	0.603	2.681**
	이용	56	2.40	0.566	
우울	미이용	260	2.05	0.576	−1.513
	이용	56	2.18	0.530	

		N	M	SD	t
충동성	미이용	260	1.75	0.517	−1.996*
	이용	56	1.91	0.636	
사회적낙인감	미이용	260	1.96	0.442	−1.903
	이용	56	2.09	0.475	
게임중독	미이용	260	1.30	0.527	.187
	이용	56	1.29	0.476	
SNS피해	미이용	260	1.15	0.306	.393
	이용	56	1.13	0.236	
SNS가해	미이용	260	1.06	0.183	.090
	이용	56	1.06	0.157	
스마트폰중독	미이용	260	1.75	0.490	.509
	이용	56	1.71	0.576	
부모의 정서적 지원	미이용	260	2.98	0.606	1.909
	이용	56	2.82	0.526	
부모의 경제적 지원	미이용	260	2.71	0.808	1.965*
	이용	56	2.48	0.811	
부모방임	미이용	260	1.91	0.499	−1.094
	이용	56	1.99	0.494	
부모학대	미이용	260	1.34	0.527	−2.465*
	이용	56	1.54	0.595	
지역사회통합	미이용	260	1.97	0.667	−.177
	이용	56	1.99	0.588	
지역사회무질서	미이용	260	2.13	0.641	−1.150
	이용	56	2.24	0.696	
지역사회유익환경	미이용	260	2.54	0.709	−1.701
	이용	56	2.72	0.738	
진로정보탐색	미이용	260	2.32	0.533	−.172
	이용	56	2.33	0.569	
진로장애	미이용	260	2.23	0.570	−.616
	이용	56	2.28	0.548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	미이용	253	1.89	1.025	−.548
	이용	53	1.97	0.902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	미이용	253	2.60	1.132	−.707
	이용	53	2.72	0.932	
학력에 대한 태도	미이용	260	2.84	0.559	.831
	이용	56	2.77	0.539	

3)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 변수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참여 여부에 대한 관련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연령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반면,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이 잘 조성된 경우에는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 조사 시기의 이행경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0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 변수 (N=306)

구 분				한계효과
배경요인		성별 [ref=남성]	여자	−0.031 (0.048)
		연령대 [ref=17−19세]	20세	−0.117 (0.160)
			21세	**−0.334* (0.132)**
			22세 이상	**−0.354** (0.125)**
		가족구성 [ref=양부모]	한부모 가정	−0.015 (0.056)
			부모 모두 안계심	−0.050 (0.057)
		가정경제수준 [ref=상]	중	−0.011 (0.063)
			하	−0.013 (0.069)
		거주지 [ref=특광역]	중소도시	−0.081 (0.046)
			읍면지역	−0.067 (0.062)
개인적 특성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0.119 (0.068)
		자아탄력성		0.053 (0.057)
		생활만족		−0.049 (0.064)
		우울		0.030 (0.067)
		충동성		0.040 (0.045)
		사회적낙인감		0.074 (0.065)
	문제행동	게임중독		−0.058 (0.051)
		sns피해경험		0.014 (0.095)
		sns가해경험		−0.006 (0.159)
		스마트폰중독		−0.048 (0.047)

구 분			한계효과
환경적 요인	부모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0.039 (0.052)
		부모의 경제적 지원	−0.032 (0.033)
		부모방임	−0.045 (0.056)
		부모학대	0.055 (0.044)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통합	0.008 (0.037)
		지역사회무질서	−0.006 (0.037)
		지역사회유익환경	**0.078* (0.036)**
제도적 요인		진로정보탐색	0.012 (0.047)
		진로장애	0.009 (0.047)
가치관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	−0.055 (0.031)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	**0.060* (0.027)**
		학력에 대한 태도	−0.049 (0.042)
4차조사('15.6–'16.5) 이행경로 [ref=직업형]		학업형	**−0.214*** (0.058)**
		무업형	−0.101 (0.074)

*$p<.05$, **$p<.01$, ***$p<.001$

주) 4차년도 이행경로 유형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5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하였음

4)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의 효과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에서는 5차년도 조사에 따른 이행경로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은 직업형의 이행경로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업형 이행경로에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의 경우 직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닐 확률은 15.8%p 높은데 반해, 학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닐 확률은 17.6%p 낮았다. 무업형 이행경로 특성과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4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이행경로와의 관계를 보면, 4차년도 조사 당시 직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녔던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녔던 청소년들이 5차년도에도 여전히 학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직업형이나 무업형 이행경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년도 조사 당시 무업형 이행경로 특성을 지녔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5차년도에 무업형으로 머물러 있을 확률은 높은데 반해, 직업형 이행경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16.6~'17.5) 관련 변인(한계효과) (N=293)

구 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배경요인		성별 [ref=남성]	여자	0.013 (0.044)	**0.145*** (0.047)**	**−0.158*** (0.043)**
		연령대 [ref=17−19세]	20세	0.073 (0.111)	0.066 (0.140)	−0.139 (0.134)
			21세	−0.055 (0.098)	0.077 (0.130)	−0.022 (0.133)
			22세 이상	0.023 (0.095)	0.010 (0.125)	−0.033 (0.129)
		가족구성 [ref=양부모]	한부모 가정	0.042 (0.050)	**−0.143** (0.056)**	**0.102* (0.049)**
			부모 모두 안계심	−0.006 (0.053)	−0.109 (0.063)	**0.115* (0.055)**
		가정경제수준 [ref=상]	중	**−0.115* (0.055)**	−0.015 (0.061)	**0.130* (0.053)**
			하	−0.077 (0.064)	0.063 (0.069)	0.013 (0.053)
		거주지 [ref=대도시]	중소도시	−0.055 (0.045)	0.086 (0.053)	−0.032 (0.043)
			읍면지역	0.011 (0.065)	0.009 (0.067)	−0.020 (0.059)
개인적 특성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0.022 (0.071)	0.088 (0.076)	−0.110 (0.063)
		자아탄력성		−0.004 (0.054)	−0.029 (0.060)	0.034 (0.054)
		생활만족		0.097 (0.060)	**−0.197** (0.066)**	0.100 (0.057)
		우울		0.050 (0.060)	**−0.197** (0.070)**	**0.146* (0.060)**
		충동성		−0.084 (0.052)	**0.177*** (0.055)**	**−0.093* (0.045)**
		사회적낙인감		−0.080 (0.064)	−0.001 (0.068)	0.082 (0.058)
	문제 행동	게임중독		**0.111* (0.046)**	−0.001 (0.054)	**−0.111** (0.043)**
		sns피해		−0.115 (0.084)	0.060 (0.093)	0.056 (0.076)
		sns가해		0.226 (0.150)	**−0.396* (0.181)**	0.169 (0.132)
		스마트폰중독		0.028 (0.050)	−0.041 (0.055)	0.013 (0.046)
환경적 요인	부모 관계	부모정서지원		**−0.164*** (0.051)**	**0.237*** (0.058)**	−0.073 (0.041)
		부모경제지원		**0.093**(0.032)**	**−0.119***(0.036)**	0.026 (0.029)
		부모방임		−0.097 (0.051)	**0.193*** (0.059)**	**−0.096* (0.046)**
		부모학대		0.045 (0.043)	−0.001 (0.048)	−0.043 (0.042)
	지역 사회 특성	지역사회통합		−0.038 (0.036)	−0.001 (0.040)	0.039 (0.033)
		지역사회무질서		−0.007 (0.036)	0.054 (0.040)	−0.048 (0.032)
		지역사회유익환경		**−0.065* (0.030)**	0.039 (0.036)	0.025 (0.030)
제도적 요인		진로정보탐색		**0.181*** (0.056)**	−0.053 (0.056)	**−0.128** (0.043)**
		진로장애		0.042 (0.043)	−0.029 (0.049)	−0.013 (0.041)

구 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가치관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		−0.010 (0.028)	−0.001 (0.032)	0.011 (0.027)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		0.029 (0.025)	0.002 (0.029)	−0.030 (0.025)
	학력에 대한 태도		0.016 (0.045)	**−0.100* (0.048)**	**0.085* (0.038)**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			**−0.176* (0.076)**	**0.158* (0.076)**	0.018 (0.059)
4차조사 ('15.6~'16.5) 이행경로 [ref=직업형]		학업형	**0.571*** (0.054)**	**−0.461*** (0.062)**	**−0.110* (0.049)**
		무업형	0.028 (0.061)	**−0.342*** (0.080)**	**0.314*** (0.075)**

*$p<.05$, **$p<.01$, ***$p<.001$

주 1) 4차년도 이행경로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5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하였음.

2) 꿈드림센터 이용여부와 4차년도 이행경로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해 분석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에 대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였음.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제 Ⅲ 장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시사점

제 Ⅲ 장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지,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꿈드림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두 집단이다. 첫 번째 집단은 2016년 4차 조사 대상자 중 꿈드림센터 서비스 연계에 동의했던 청소년이다. 4차 조사에 참여했던 427명 중 77명(18.0%)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았다. 두 번째 집단은 2016년에 꿈드림센터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받던 청소년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98년 3월~04년 2월 출생) 청소년으로 2016년 조사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101개 센터에서 총 19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 사례 수는 첫 번째 집단에서 75명, 두 번째 집단에서 193명으로 모두 2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시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제공하여 사례관리자에 의한 임의추출 가능성을

* 이 장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최대한 제거하였다.

표 Ⅲ-1 사례관리 조사 표본

구 분	기존 패널	꿈드림센터 소속 패널
조사 대상	4차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427명	전국 101개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중 · 고등학령기 청소년 (1998년 3월 ~ 2004년 2월 출생자) 중 최근 1년 이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사례수	총 77명	총 197명
사례관리 담당기관	청소년 거주지 인근 센터 (센터 당 0~3명)	청소년 소속 센터 (센터당 1~2명)
조사 방법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로 사례관리자가 담당 (초기 상담 포함)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로 사례관리자가 담당

3) 조사 방법

2016년 4차 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패널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인테이크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여부 등을 협의한 후 서비스에 참여하였다.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패널은 사전에 이미 이러한 과정을 끝내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다.

본 조사는 청소년에 대해 사례관리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례관리자는 해당 청소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고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상황을 월 단위로 체크리스트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6월까지 조사업체 면접원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기입상황을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수거하여 데이터로 생산하였다.

사례관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센터 소재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총 129명 중 남성은 21명이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중소도시에 가장 많았다. 연령 평균은 대도시 32.2세, 중소도시 33.4세, 읍면지역 35.1세였으며 근무경력은 대도시 31.93개월, 중소도시 32.39개월, 읍면지역 32.46개월이었다. 소속된 센터의 직원 규모 평균에서는 센터 소재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는 3.75명, 대도시는 3.25명, 읍면지역은 2.25명으로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의 센터 직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사례관리자의 인구학적 특성(N=129) **[단위: 명(%), M(SD)]**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F
성별	남자	9 (42.9)	11 (52.4)	1 (4.8)	1.08
	여자	37 (34.3)	59 (54.6)	12 (11.1)	
연령 (만)		32.2 (7.63)	33.4 (8.25)	35.1 (8.66)	.72
근무경력 (개월)		31.93 (33.02)	32.39 (26.19)	32.46(29.88)	.00
소속 센터의 직원 규모 (N=108)[2]		3.25 (1.21)	3.75 (1.54)	2.25 (0.62)	6.45** (b>c)

**p<.01, 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지역

주 1) 총 268명의 사례 중 중복된 사례관리자를 제외한 총 사례관리자 수는 129명임

2) 동일한 센터에 속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센터 수는 108개가 됨

4) 조사 도구

꿈드림센터 사례관리 조사 체크리스트 개발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꿈드림센터 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한 후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여성가족부 관계자, 전문가, 꿈드림센터 실무자 등과 검토 회의, 조사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사례조사 내용 구성은 ① 센터 및 사례관리자 정보, ② 사정기록지, ③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④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⑤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⑥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 ⑦ 해당사례에 대한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 추가된 내용은 센터(서비스)의 개입효과를 보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개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서비스 시작 시기), 서비스 유지 및 탈락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현재 이용 여부와 이용하지 않는 다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이는 체크리스트 수거 시 면접원이 사례관리자에게 추가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사정 기록지	기본 정보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가족력	가족사항 가족형태 보장구분 거주사항
	의뢰 경로	본인, 기관 (※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 사례관리자용만 추가)
	목표 유형	개인별 목표유형(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미결정형)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구체적 목표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 목록	1순위, 2순위, 3순위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및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일자리 정보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대입 등 진학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법률자문 관련 정보
	심리상담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중독 문제 (흡연, 음주, 인터넷 등) 관계 문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생활태도 개선 (시간관리 등)
	진로상담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진로계획상담 진학상담 취업상담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청소년활동비 지원 긴급한 치료비 지원 월세 등 주거비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 · 미용비 등 용돈 대안학교 학비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취업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학업지원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기초학력 지원 복학 지원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학습지원(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문화 · 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문화 · 예술 (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신체단련 (수영, 태권도, 농구 등) 봉사활동 (일손 돕기, 위문활동 등) 환경보존 (숲 · 갯벌체험, 생태 · 환경탐사, 환경 · 시설보존 등) 과학정보 (컴퓨터 · IT, 모형 · 로봇, 우주 · 천체탐구 등)
	건강 및 주거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건강교육(성교육 등) 주거지원
	기타서비스	기타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 번호 서비스 이름 제공 방법(직접 지원/연계 지원) (연계서비스의 경우) 연계기관 번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해당 서비스의 제공기간 해당 서비스의 제공 계획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 해당 서비스가 계획된 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 해당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었거나, 되지 않은 이유 (직접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의 제공방법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번호 제공하지 못한 이유
해당 사례 관리에 대한 총평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 및 중도탈락 사유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 (청소년의 특징, 특이사항, 특별히 성과가 있었거나 없었던 서비스, 느낀 점, 문제점 등) 및 해당 청소년이 중도탈락한 경우, 그 사유

5) 표본 특성

조사에 응답한 268명의 특성은 <표 Ⅲ-4>와 같다. 성별을 보면 기존패널은 남성이 58.7%로 과반인 반면 신규는 여성이 56.5%였다. 연령대를 보면 기존패널은 대학교 학령이 88.0%인 반면 신규패널은 고등학교 학령이 89.6%로 대부분이었다. 가족구성에서는 기존과 신규 모두 양부모가정이 가장 많았다(기존 46.7%, 신규 57.0%). 가정경제수준은 하층이 기존(46.7%)과 신규(45.6%) 모두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사유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과 신규 모두 학교 사유가 약 50%로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시점은 기존패널 64.0%, 신규패널 79.8%가 고등학교 때였다. 개인별 목표유형은 기존패널이 52.0%가 사회진입형, 33.3%가 학업복귀형인데 반해 신규패널은 78.8%가 학업복귀형이었고 사회진입형은 14.0%에 불과했다. 미결정형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신규보다는 기존패널에서 미결정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조사 참여 응답자 분포

구 분		전체	기존패널		신규패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268	75	100.0	193	100.0
성	남자	128	44	58.7	84	43.5
	여자	140	31	41.3	109	56.5
연령	중학교 학령 (만13~15세)	16	–	0.0	16	8.3
	고등학교 학령 (만16~18세)	182	9	12.0	173	89.6
	대학교 학령 (만19세 이상)	70	66	88.0	4	2.1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145	35	46.7	110	57.0
	한부모 가정	73	26	34.7	57	29.5
	부모 모두 안계심	40	14	18.7	26	13.5
가정경제 수준	상	46	13	17.3	33	17.1
	중	99	27	36.0	72	37.3
	하	123	35	46.7	88	45.6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55	15	20.0	40	20.7
	학교 사유	140	38	50.7	102	52.8
	대안교육을 원해서	52	15	20.0	37	19.2
	문제행동으로	21	7	9.3	14	7.3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 때	66	27	36.0	39	20.2
	고등학교 때	202	48	64.0	154	79.8
개인별 목표유형	학업복귀형	177	25	33.3	152	78.8
	사회진입형	66	39	52.0	27	14.0
	미결정형	17	10	13.3	7	3.6
	기타 (복수응답, 무응답)	8	1	1.3	7	3.6

2.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꿈드림센터를 찾아온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54개의 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34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조합의 서비스 제공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54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들은 어떤 빈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설문지에서는 서비스 제공 방법(센터 직접 제공 혹은 외부기관 연계 제공), 서비스 제공 계획, 해당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이유, 서비스 제공 기간 등에 관한 문항과 더불어 서비스 종결 시 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제공되었는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꿈드림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지 못했으며, 제공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1)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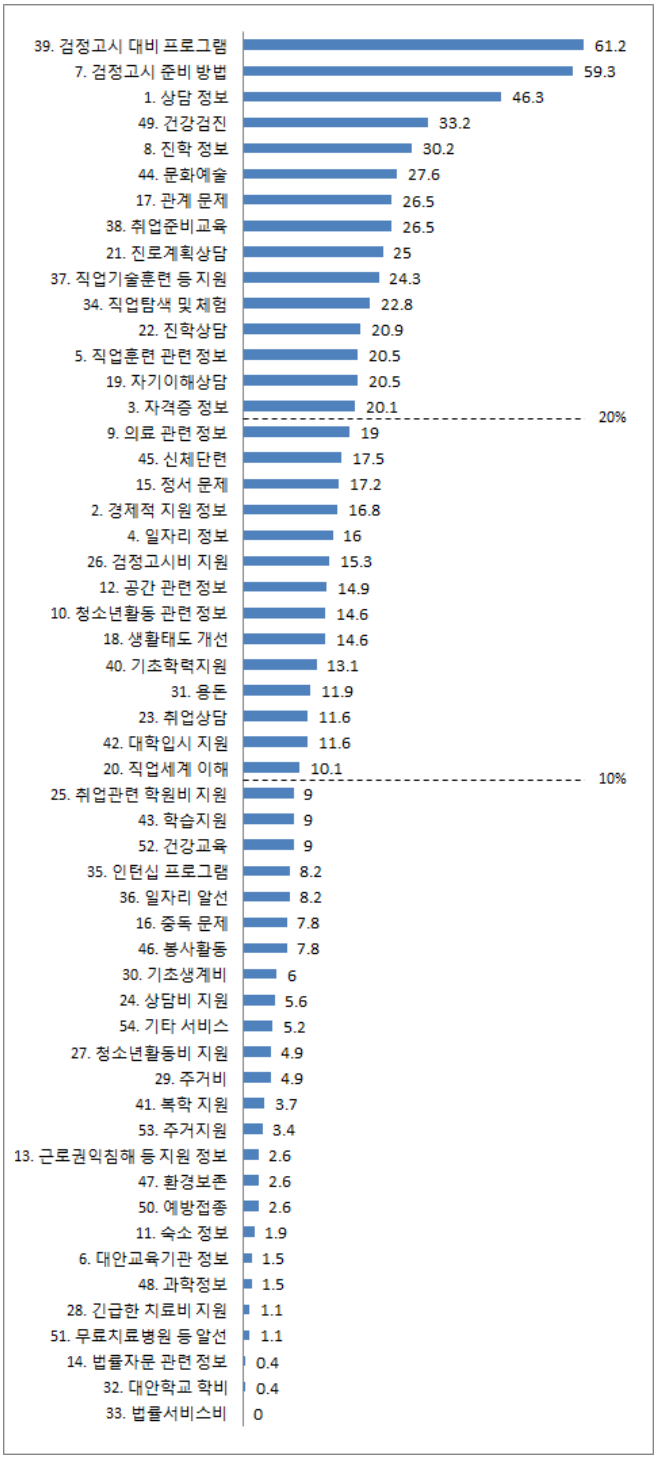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사례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최초 상담 또는 이후 상담 과정에서 요청하였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268명의 청소년들이 총 54개의 서비스를 가운데 요청한 서비스의 분포에 대한 전체 결과와 이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가 <표 Ⅲ-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1】은 요청한 서비스를 순위대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Ⅲ-5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 전체 및 성별 분포

서비스	전체 (N=268)			성별 (%)	
	사례수 (명)	비율 (%)	순위	남 (N=128)	여 (N=140)
1. 상담 정보	124	46.3	3	45.3	47.1
2. 경제적 지원 정보	45	16.8	19	16.4	17.1
3. 자격증 정보	54	20.1	15	18.0	22.1
4. 일자리 정보	43	16.0	20	16.4	15.7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55	20.5	13	21.1	20.0
6. 대안교육기관 정보	4	1.5	48	0.0	2.9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59	59.3	2	54.7	63.6
8. 진학 정보	81	30.2	5	25.8	34.3
9. 의료 관련 정보	51	19.0	16	18.0	20.0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39	14.6	23	15.6	13.6
11. 숙소 정보	5	1.9	47	1.6	2.1
12. 공간 관련 정보	40	14.9	22	14.1	15.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7	2.6	44	3.9	1.4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1	0.4	52	0.0	0.7
15. 정서 문제	46	17.2	18	18.8	15.7
16. 중독 문제	21	7.8	35	9.4	6.4
17. 관계 문제	71	26.5	7	16.4***	35.7***
18. 생활태도 개선	39	14.6	23	13.3	15.7
19. 자기이해상담	55	20.5	13	21.9	19.3
20. 직업세계 이해	27	10.1	29	10.9	9.3
21. 진로계획상담	67	25.0	9	23.4	26.4
22. 진학상담	56	20.9	12	15.6*	25.7*
23. 취업상담	31	11.6	27	11.7	11.4
24. 상담비 지원	15	5.6	38	5.5	5.7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24	9.0	30	7.0	10.7
26. 검정고시비 지원	41	15.3	21	14.8	15.7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13	4.9	40	4.7	5.0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3	1.1	50	0.8	1.4
29. 주거비	13	4.9	40	5.5	4.3
30. 기초생계비	16	6.0	37	7.0	5.0
31. 용돈	32	11.9	26	14.8	9.3
32. 대안학교 학비	1	0.4	52	0.0	0.7

서비스	전체 (N=268)			성별 (%)	
	사례수 (명)	비율 (%)	순위	남 (N=128)	여 (N=140)
33. 법률서비스비	0	0.0	54	0.0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61	22.8	11	24.2	21.4
35. 인턴십 프로그램	22	8.2	33	5.5	10.7
36. 일자리 알선	22	8.2	33	7.0	9.3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65	24.3	10	21.1	27.1
38. 취업준비교육	71	26.5	7	8.6	7.1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64	61.2	1	58.6	63.6
40. 기초학력지원	35	13.1	25	13.3	12.9
41. 복학 지원	10	3.7	42	3.1	4.3
42. 대학입시 지원	31	11.6	27	12.5	10.7
43. 학습지원	24	9.0	30	7.8	10.0
44. 문화예술	74	27.6	6	24.2	30.7
45. 신체단련	47	17.5	17	21.9	13.6
46. 봉사활동	21	7.8	35	7.0	8.6
47. 환경보존	7	2.6	44	2.3	2.9
48. 과학정보	4	1.5	48	2.3	0.7
49. 건강검진	89	33.2	4	37.5	29.3
50. 예방접종	7	2.6	44	2.3	2.9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3	1.1	50	0.0	2.1
52. 건강교육	24	9.0	30	7.0	10.7
53. 주거지원	9	3.4	43	4.7	2.1
54. 기타 서비스	14	5.2	39	4.7	5.7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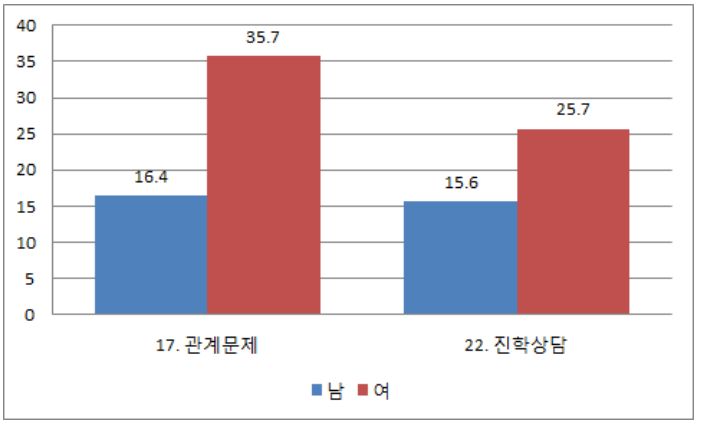
【그림 Ⅲ-1】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단위: %)

우선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원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으로 전체 응답자의 61.2%인 164명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159명으로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3/5 정도는 검정고시 준비 등과 관련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124명, 46.3%), 건강검진(89명, 33.2%), 대입 등 진학정보(81명, 30.2%),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74명, 27.6%),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71명, 26.5%),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 교육(71명, 26.5%), 진로계획 상담(67명, 25%),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65명, 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많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기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가 2개였고, 상담 관련 정보, 관계 상담, 문화예술 활동, 건강검진으로 나타났다. 즉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학업 지원이나 취업 지원 등과 같은 향후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의 내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각 서비스별 요청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Ⅲ-5>, 【그림 Ⅲ-2】 참조).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요청하는 서비스에서의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54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등 관계 문제와 관련한 상담과 진학상담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의 요구 정도가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52개 서비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에서 주요한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Ⅲ-2】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성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가 패널 유형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서비스 요구정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3】은 패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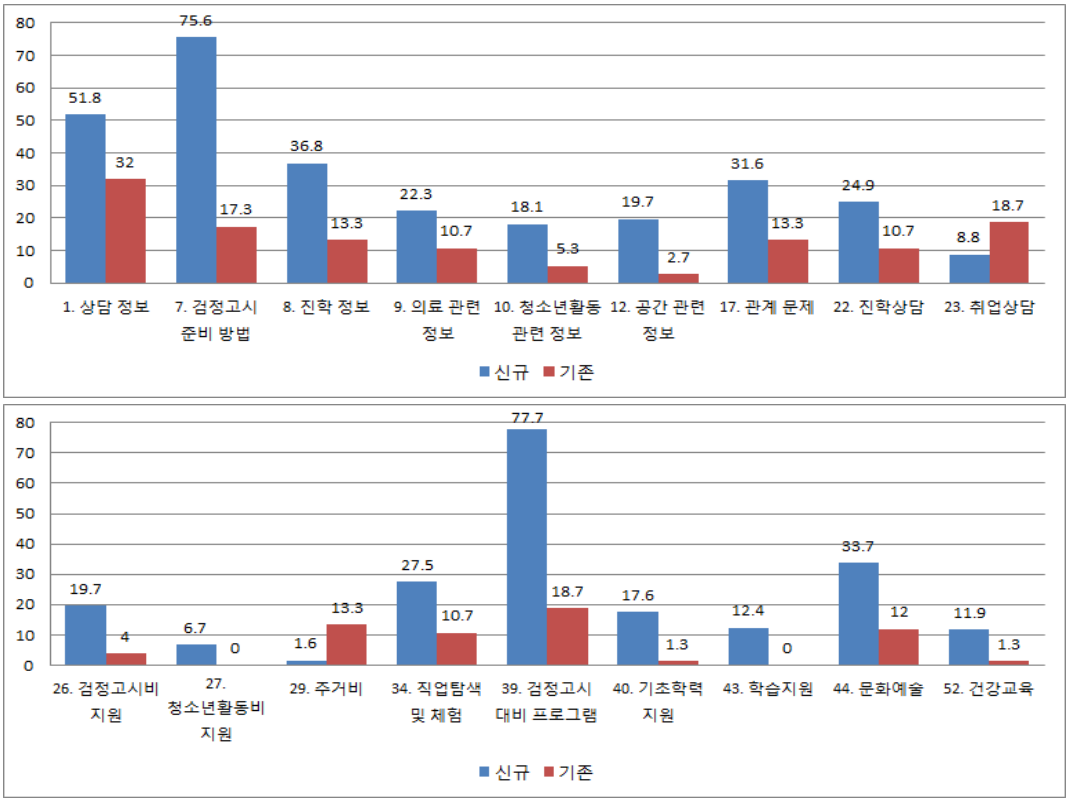
표 Ⅲ-6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 패널 유형 및 거주지 규모별 분포

서비스	패널 유형 (%)		거주지 규모 (%)		
	신규패널 (N=193)	기존패널 (N=75)	대도시 (N=107)	중소도시 (N=135)	읍면지역 (N=26)
1. 상담 정보	51.8**	32.0**	40.2	48.9	57.7
2. 경제적 지원 정보	18.1	13.3	14.0	19.3	15.4
3. 자격증 정보	18.7	24.0	22.4	17.0	26.9
4. 일자리 정보	15.0	18.7	15.9	16.3	15.4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20.7	20.0	15.9	23.0	26.9
6. 대안교육기관 정보	2.1	0.0	1.9	1.5	0.0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75.6***	17.3***	43.9***	68.9***	73.1***
8. 진학 정보	36.8***	13.3***	26.2	32.6	34.6
9. 의료 관련 정보	22.3*	10.7*	17.8	20.0	19.2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18.1**	5.3**	10.3	17.0	19.2
11. 숙소 정보	2.6	0.0	1.9	2.2	0.0

서비스	패널 유형 (%)		거주지 규모 (%)		
	신규패널 (N=193)	기존패널 (N=75)	대도시 (N=107)	중소도시 (N=135)	읍면지역 (N=26)
12. 공간 관련 정보	19.7***	2.7***	13.1	17.0	11.5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1.6	5.3	2.8	1.5	7.7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0.5	0.0	0.0	0.7	0.0
15. 정서 문제	19.2	12.0	15.0	16.3	30.8
16. 중독 문제	8.3	6.7	9.3	5.9	11.5
17. 관계 문제	31.6**	13.3**	25.2	26.7	30.8
18. 생활태도 개선	16.1	10.7	11.2	15.6	23.1
19. 자기이해상담	17.6	28.0	22.4	19.3	19.2
20. 직업세계 이해	8.8	13.3	9.3	9.6	15.4
21. 진로계획상담	26.4	21.3	25.2	23.0	34.6
22. 진학상담	24.9*	10.7*	23.4	19.3	19.2
23. 취업상담	8.8*	18.7*	10.3*	9.6*	26.9*
24. 상담비 지원	4.1	9.3	7.5***	0.7***	23.1***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9.3	8.0	6.5	10.4	11.5
26. 검정고시비 지원	19.7**	4.0**	8.4***	13.3***	53.8***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6.7*	0.0*	2.8	5.9	7.7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6	0.0	2.8	0.0	0.0
29. 주거비	1.6***	13.3***	6.5	4.4	0.0
30. 기초생계비	5.7	6.7	7.5	5.9	0.0
31. 용돈	10.9	14.7	9.3	12.6	19.2
32. 대안학교 학비	0.5	0.0	0.9	0.0	0.0
33. 법률서비스비	0.5	0.0	0.0	0.0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27.5**	10.7**	19.6*	20.7*	46.2*
35. 인턴십 프로그램	10.9*	1.3*	7.5	8.1	11.5
36. 일자리 알선	6.7	12.0	6.5	10.4	3.8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25.4	21.3	27.1	21.5	26.9
38. 취업준비교육	9.8	2.7	6.5	8.9	7.7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77.7***	18.7***	49.5**	66.7**	80.8**
40. 기초학력지원	17.6***	1.3***	15.9	8.9	23.1
41. 복학 지원	4.7	1.3	1.9	5.2	3.8
42. 대학입시 지원	13.5	6.7	12.1	11.1	11.5
43. 학습지원	12.4**	0.0**	11.2	6.7	11.5
44. 문화예술	33.7***	12.0***	27.1	28.1	26.9

서비스	패널 유형 (%)		거주지 규모 (%)		
	신규패널 (N=193)	기존패널 (N=75)	대도시 (N=107)	중소도시 (N=135)	읍면지역 (N=26)
45. 신체단련	17.1	18.7	21.5	13.3	23.1
46. 봉사활동	8.8	5.3	9.3	5.2	15.4
47. 환경보존	3.1	1.3	2.8**	0.7**	11.5**
48. 과학정보	1.0	2.7	1.9*	0.0*	7.7*
49. 건강검진	34.7	29.3	30.8	34.8	34.6
50. 예방접종	3.1	1.3	3.7	2.2	0.0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0.5	2.7	2.8	0.0	.0
52. 건강교육	11.9**	1.3**	6.5	9.6	15.4
53. 주거지원	2.6	5.3	4.7	3.0	0.0
54. 기타 서비스	6.2	2.7	6.5	3.0	11.5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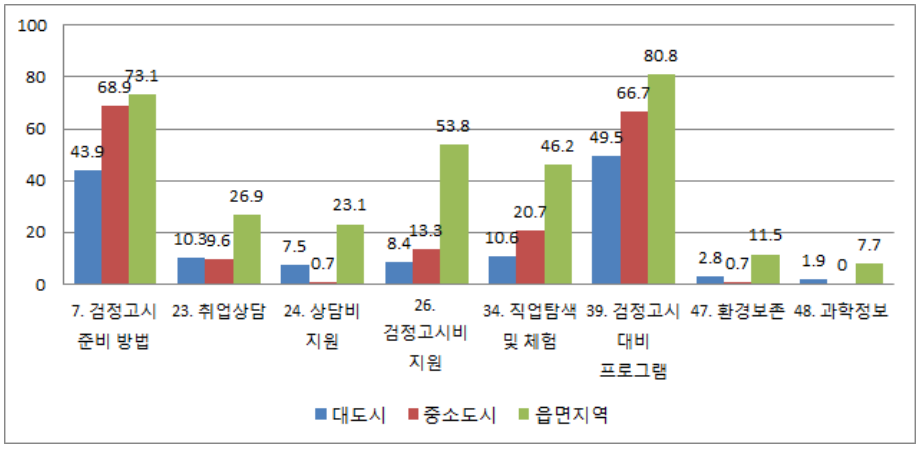


【그림 Ⅲ-3】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신·구패널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청소년의 요청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패널 유형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4개 서비스 가운데 모두 18개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의 요구 정도가 패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상담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방법, 진학정보, 의료 관련 정보,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공간 관련 정보, 관계 문제, 진학상담,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기초학력지원, 학습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건강교육에서는 신규 패널의 청소년들의 요구정도가 기존 패널 청소년들의 요구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 대부분에서 신규 패널의 요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취업 상담과 주거비 지원 서비스에서는 기존 패널의 요구 정도가 신규 패널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상담과 주거비 지원은 서비스의 성격 상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보다는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존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들의 연령이 신규 패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외, 2016: 190).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요청 정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거주지 규모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거주지 규모에 따라 요청한 서비스의 분포가 달리 나타난 것은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환경보존 활동, 과학정보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비스 요청 자체의 사례수가 작은 상담비 지원, 환경보존 활동과 과학정보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면, 검정고시와 관련한 서비스 3종, 직업탐색 관련 서비스 1종, 경비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1종에서 지역 규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해당 서비스 요청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요청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나 직업 체험 등과 같이 꿈드림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구한 정도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주하는 지역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굳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거나 직업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지금까지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나, <표 Ⅲ-7>은 실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와 그에 대한 성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5】은 제공된 사례수가 많은 순서대로 서비스를 나열한 그림이다.

표 Ⅲ-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 전체 및 성별 분포

서비스	전체(N=268)			성별(%)	
	사례수(명)	비율(%)	순위	남(N=128)	여(N=140)
1. 상담 정보	162	60.4	3	55.5	65.5
2. 경제적 지원 정보	43	16.0	22	14.8	17.1
3. 자격증 정보	39	14.6	23	11.1	17.1
4. 일자리 정보	17	6.3	35	3.9	8.6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69	25.7	11	25.8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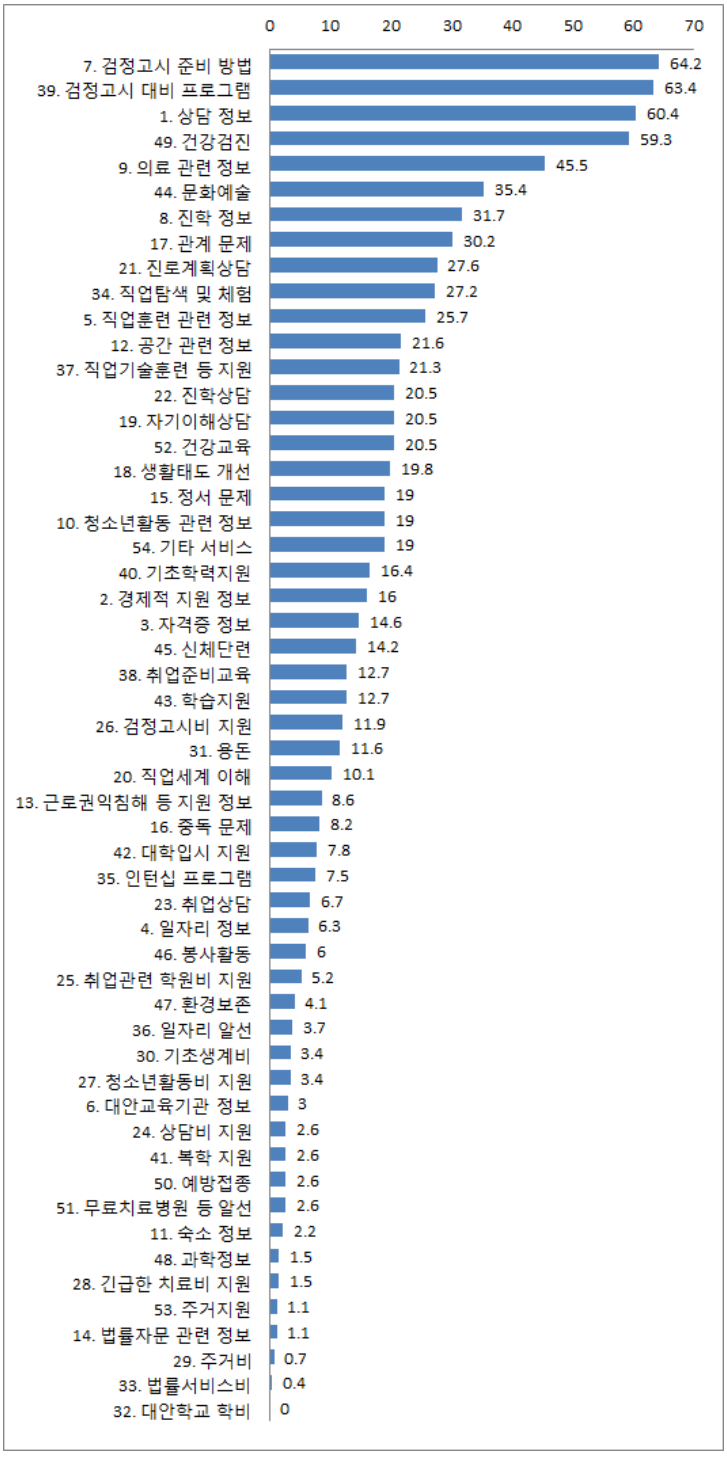
서비스	전체(N=268)			성별(%)	
	사례수(명)	비율(%)	순위	남(N=128)	여(N=140)
6. 대안교육기관 정보	8	3.0	42	2.3	3.6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72	64.2	1	60.9	67.1
8. 진학 정보	85	31.7	7	24.2*	38.6*
9. 의료 관련 정보	122	45.5	5	45.3	45.7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51	19.0	18	21.1	17.1
11. 숙소 정보	6	2.2	47	1.6	2.9
12. 공간 관련 정보	58	21.6	12	21.9	21.4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23	8.6	30	10.2	7.1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1.1	50	0.8	1.4
15. 정서 문제	51	19.0	18	18.8	19.3
16. 중독 문제	22	8.2	31	11.7*	5.0*
17. 관계 문제	81	30.2	8	19.5***	40.0***
18. 생활태도 개선	53	19.8	17	18.0	21.4
19. 자기이해상담	55	20.5	14	82.8	76.4
20. 직업세계 이해	27	10.1	29	7.8	12.1
21. 진로계획상담	74	27.6	9	27.3	27.9
22. 진학상담	55	20.5	14	14.8*	25.7*
23. 취업상담	18	6.7	34	5.5	7.9
24. 상담비 지원	7	2.6	43	2.3	2.9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4	5.2	37	3.9	6.4
26. 검정고시비 지원	32	11.9	27	10.9	12.9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9	3.4	40	3.1	3.6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1.5	48	2.3	0.7
29. 주거비	2	0.7	52	0.0	1.4
30. 기초생계비	9	3.4	40	3.1	3.6
31. 용돈	31	11.6	28	13.3	10.0
32. 대안학교 학비	0	0.0	54	0.0	0.0
33. 법률서비스비	1	0.4	53	0.8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73	27.2	10	27.3	27.1
35. 인턴십 프로그램	20	7.5	33	9.4	5.7
36. 일자리 알선	10	3.7	39	1.6	5.7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7	21.3	13	17.2	25.0
38. 취업준비교육	34	12.7	25	12.5	12.9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70	63.4	2	58.6	67.9

서비스	전체(N=268)			성별(%)	
	사례수(명)	비율(%)	순위	남(N=128)	여(N=140)
40. 기초학력지원	44	16.4	21	15.6	17.1
41. 복학 지원	7	2.6	43	2.3	2.9
42. 대학입시 지원	21	7.8	32	6.3	9.3
43. 학습지원	34	12.7	25	9.4	15.7
44. 문화예술	95	35.4	6	31.3	39.3
45. 신체단련	38	14.2	24	15.6	12.9
46. 봉사활동	16	6.0	36	3.9	7.9
47. 환경보존	11	4.1	38	3.1	5.0
48. 과학정보	4	1.5	48	3.1*	0.0*
49. 건강검진	159	59.3	4	59.4	59.3
50. 예방접종	7	2.6	43	2.3	2.9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2.6	43	2.3	2.9
52. 건강교육	55	20.5	14	12.5**	27.9**
53. 주거지원	3	1.1	50	0.8	1.4
54. 기타 서비스	51	19.0	18	17.2	20.7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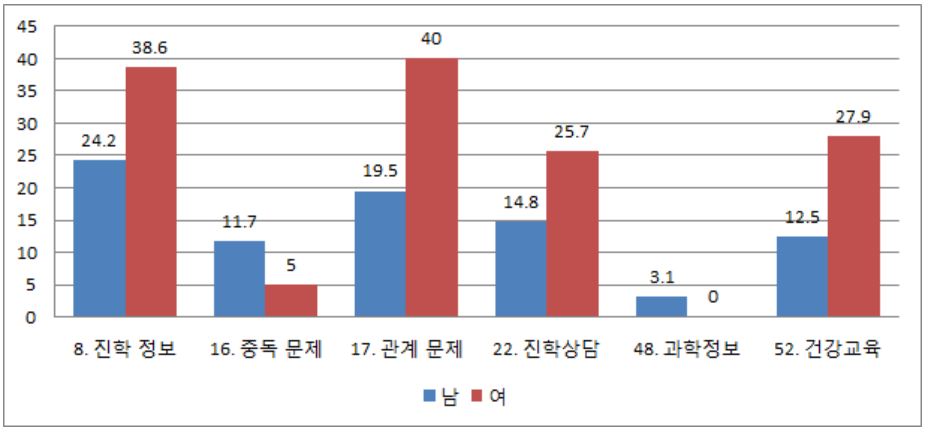
우선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64.2%에 달하는 172명에게 제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으로 전체 응답자의 63.4%에 달하는 170명에게 제공되었는데, 이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들의 숫자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즉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이 제공된 것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162명, 60.4%), 건강검진(159명, 59.3%),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 관련 정보 제공(122명, 45.5%), 문화·예술 분야 자기계발 기회 제공(95명, 35.4%), 진학정보 제공(85명, 31.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등 관계문제 상담(81명, 30.2%), 진로계획 상담(74명, 27.6%), 직업탐색 및 체험(73명,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관련 서비스 2종, 건강 관련 서비스 2종, 진로 관련 서비스 2종, 직업탐색 관련 서비스 1종, 상담 관련 서비스 2종, 기타 1종으로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많이 제공된 10개의 서비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개의 서비스가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에 관련한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단위: %)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성별에 따라 달리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5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제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중 성차가 유의미한 문항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Ⅲ-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진학정보 제공, 중독 문제 관련 상담, 관계문제 관련 상담, 진학상담, 과학정보 제공, 건강교육의 6개 서비스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례수가 매우 적은 과학정보 제공을 제외한 5개 서비스에서 중독 문제 관련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서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학정보 제공, 관계문제 상담, 진학상담, 건강 교육 서비스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제공되었으며, 흡연이나 음주 또는 인터넷 등과 관련한 중독 상담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성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패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8>과 【그림 Ⅲ-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54개 서비스 가운데 28개 서비스에서 패널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패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인 28개 서비스 가운데 취업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서는 신규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이 기존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검정고시 준비 등과 관련한 서비스에서는 두 집단 간의 서비스 제공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서는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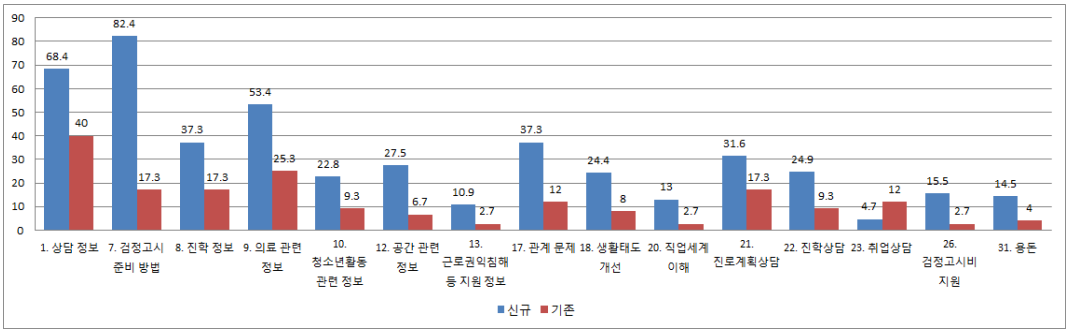
패널의 경우 82.4%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기존 패널의 경우에는 17.3%에 그쳤다. 또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규 패널의 경우 83.9%가 서비스를 받았으나, 기존 패널에서는 10.7%만이 서비스를 받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취업 상담의 경우에는 신규 패널에서 4.7%가 서비스를 받았으나, 기존 패널에서는 12%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패널에 속한 청소년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보다는 실제 취업을 통한 자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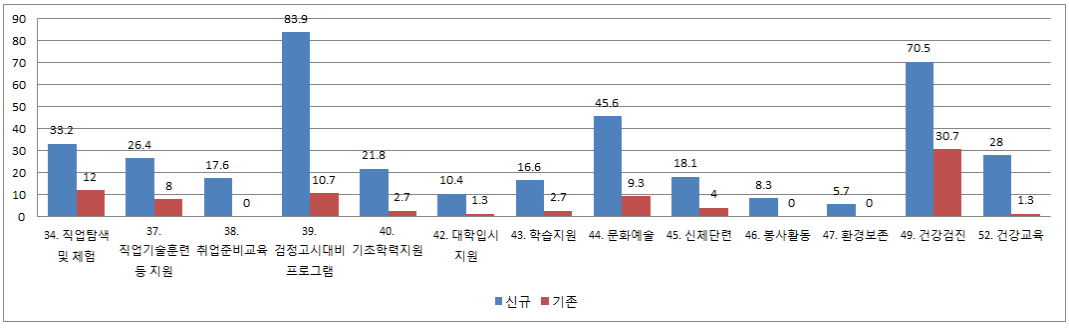
표 Ⅲ-8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 패널유형 및 거주지 규모별 분포

서비스	패널유형(%)		지역(%)		
	신규패널 (N=193)	기존패널 (N=75)	대도시 (N=107)	중소도시 (N=135)	읍면지역 (N=26)
1. 상담 정보	68.4***	40.0***	53.3	66.7	57.7
2. 경제적 지원 정보	18.1	10.7	12.1	17.8	23.1
3. 자격증 정보	16.6	9.3	12.1	17.0	11.5
4. 일자리 정보	6.2	6.7	4.7	8.1	3.8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28.0	20.0	17.8*	29.6*	38.5*
6. 대안교육기관 정보	4.1	0.0	2.8	3.7	0.0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82.4***	17.3***	47.7***	73.3***	84.6***
8. 진학 정보	37.3**	17.3**	24.3	37.0	34.6
9. 의료 관련 정보	53.4***	25.3***	35.5*	52.6*	50.0*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22.8*	9.3*	14.0	22.2	23.1
11. 숙소 정보	3.1	0.0	1.9	3.0	0.0
12. 공간 관련 정보	27.5***	6.7***	17.8	25.2	19.2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10.9*	2.7*	6.5*	7.4*	23.1*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1.6	0.0	0.0	2.2	0.0
15. 정서 문제	21.2	13.3	11.2**	20.7**	42.3**
16. 중독 문제	9.8	4.0	8.4	9.6	0.0
17. 관계 문제	37.3***	12.0***	30.8	31.1	23.1
18. 생활태도 개선	24.4**	8.0**	17.8*	17.8*	38.5*
19. 자기이해상담	21.2	18.7	16.8	22.2	26.9

서비스	패널유형(%)		지역(%)		
	신규패널 (N=193)	기존패널 (N=75)	대도시 (N=107)	중소도시 (N=135)	읍면지역 (N=26)
20. 직업세계 이해	13.0*	2.7*	9.3	8.1	23.1
21. 진로계획상담	31.6*	17.3*	26.2	29.6	23.1
22. 진학상담	24.9**	9.3**	26.2	17.8	11.5
23. 취업상담	4.7*	12.0*	6.5	6.7	7.7
24. 상담비 지원	3.1	1.3	3.7	1.5	3.8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6.7	1.3	3.7	6.7	3.8
26. 검정고시비 지원	15.5**	2.7**	6.5***	10.4***	42.3***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4.7	0.0	3.7	3.7	0.0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2.1	0.0	0.9	1.5	3.8
29. 주거비	1.0	0.0	0.9	0.7	0.0
30. 기초생계비	4.7	0.0	1.9	5.2	0.0
31. 용돈	14.5*	4.0*	10.3	14.1	3.8
32. 대안학교 학비	0.0	0.0	0.0	0.0	0.0
33. 법률서비스비	0.5	0.0	0.0	0.7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33.2***	12.0***	19.6***	27.4***	57.7***
35. 인턴십 프로그램	9.8	1.3	9.3	5.2	11.5
36. 일자리 알선	3.6	4.0	1.9	4.4	7.7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26.4**	8.0**	15.0*	23.0*	38.5*
38. 취업준비교육	17.6***	0.0***	11.2	12.6	19.2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83.9***	10.7***	55.1*	66.7*	80.8*
40. 기초학력지원	21.8***	2.7***	18.7	14.1	19.2
41. 복학 지원	3.6	0.0	1.9	3.7	0.0
42. 대학입시 지원	10.4*	1.3*	6.5	10.4	0.0
43. 학습지원	16.6**	2.7**	15.0	11.1	11.5
44. 문화예술	45.6***	9.3***	35.5	34.8	38.5
45. 신체단련	18.1**	4.0**	12.1	14.8	19.2
46. 봉사활동	8.3*	0.0*	6.5***	2.2***	23.1***
47. 환경보존	5.7*	0.0*	6.5	3.0	0.0
48. 과학정보	2.1	0.0	0.9	2.2	0.0
49. 건강검진	70.5***	30.7***	52.3	62.2	73.1
50. 예방접종	3.6	0.0	3.7	1.5	3.8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3.6	0.0	1.9*	1.5*	11.5*
52. 건강교육	28.0***	1.3***	18.7	18.5	38.5
53. 주거지원	1.6	0.0	2.8	0.0	0.0
54. 기타 서비스	21.2	13.3	21.5	15.6	26.9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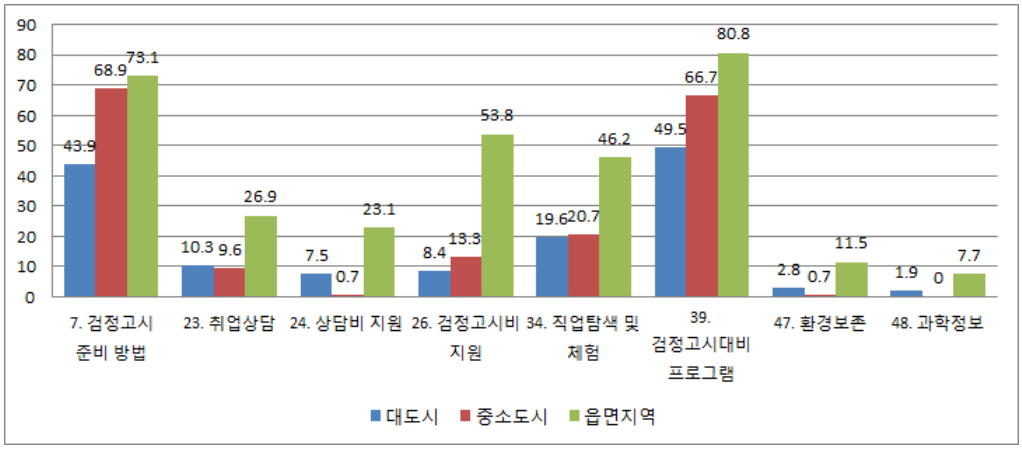




【그림 Ⅲ-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신·구패널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그림 Ⅲ-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8】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거주지 규모별(단위: %)

주: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제시함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54개 서비스 가운데 12개의 서비스에서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관련 정보, 검정고시 준비방법, 정서문제 관련 상담,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에서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관련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들과 읍면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정도의 차이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도가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읍면지역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공된 서비스의 특징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체크리스트에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 계획, 제공 이유, 제공 기간, 종결된 서비스의 경우 제공 계획 이행 여부, 도움 정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제공과 관련한 제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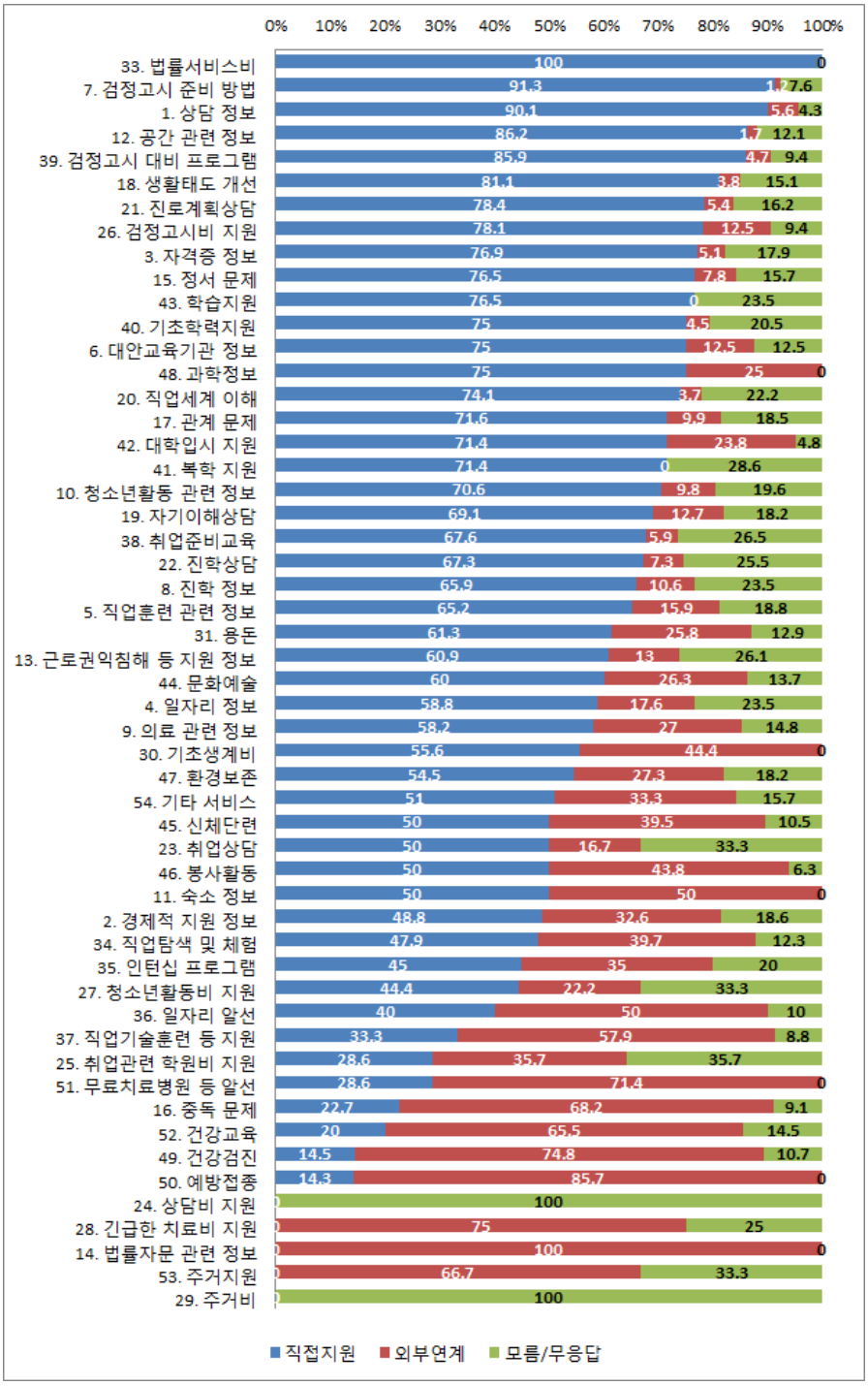
(1) 서비스 제공방법

먼저 체크리스트에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들이 꿈드림센터가 직접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표 Ⅲ-9> 참조). 【그림 Ⅲ-9】는 센터가 직접 제공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서비스를 배열한 결과이다.

표 Ⅲ-9 서비스 제공 방법

서비스	제공인원 (명)	제공방법 (%)		
		직접지원	외부연계	모름/무응답
1. 상담 정보	162	90.1	5.6	4.3
2. 경제적 지원 정보	43	48.8	32.6	18.6
3. 자격증 정보	39	76.9	5.1	17.9
4. 일자리 정보	17	58.8	17.6	23.5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69	65.2	15.9	18.8
6. 대안교육기관 정보	8	75.0	12.5	12.5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72	91.3	1.2	7.6
8. 진학 정보	85	65.9	10.6	23.5
9. 의료 관련 정보	122	58.2	27.0	14.8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51	70.6	9.8	19.6
11. 숙소 정보	6	50.0	50.0	–
12. 공간 관련 정보	58	86.2	1.7	12.1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23	60.9	13.0	26.1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	100.0	–
15. 정서 문제	51	76.5	7.8	15.7
16. 중독 문제	22	22.7	68.2	9.1
17. 관계 문제	81	71.6	9.9	18.5
18. 생활태도 개선	53	81.1	3.8	15.1
19. 자기이해상담	55	69.1	12.7	18.2
20. 직업세계 이해	27	74.1	3.7	22.2
21. 진로계획상담	74	78.4	5.4	16.2
22. 진학상담	55	67.3	7.3	25.5
23. 취업상담	18	50.0	16.7	33.3
24. 상담비 지원	7	–	–	100.0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4	28.6	35.7	35.7
26. 검정고시비 지원	32	78.1	12.5	9.4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9	44.4	22.2	33.3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	75.0	25.0
29. 주거비	2	–	–	100.0
30. 기초생계비	9	55.6	44.4	–
31. 용돈	31	61.3	25.8	12.9
32. 대안학교 학비	0	–	–	–

서비스	제공인원 (명)	제공방법 (%)		
		직접지원	외부연계	모름/무응답
33. 법률서비스비	1	100.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73	47.9	39.7	12.3
35. 인턴십 프로그램	20	45.0	35.0	20.0
36. 일자리 알선	10	40.0	50.0	10.0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7	33.3	57.9	8.8
38. 취업준비교육	34	67.6	5.9	26.5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70	85.9	4.7	9.4
40. 기초학력지원	44	75.0	4.5	20.5
41. 복학 지원	7	71.4	–	28.6
42. 대학입시 지원	21	71.4	23.8	4.8
43. 학습지원	34	76.5	–	23.5
44. 문화예술	95	60.0	26.3	13.7
45. 신체단련	38	50.0	39.5	10.5
46. 봉사활동	16	50.0	43.8	6.3
47. 환경보존	11	54.5	27.3	18.2
48. 과학정보	4	75.0	25.0	–
49. 건강검진	159	14.5	74.8	10.7
50. 예방접종	7	14.3	85.7	–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28.6	71.4	–
52. 건강교육	55	20.0	65.5	14.5
53. 주거지원	3	–	66.7	33.3
54. 기타 서비스	51	51.0	33.3	15.7



【그림 Ⅲ-9】 서비스 제공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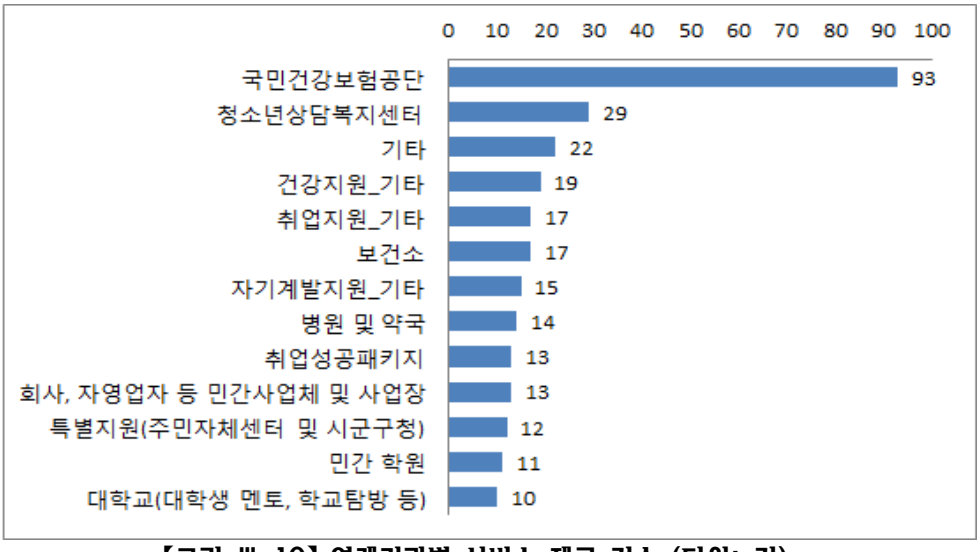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54개의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의 서비스는 꿈드림센터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방법, 공간 관련 정보 제공, 생활태도 개선 관련 상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은 80% 이상을 꿈드림센터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서비스이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인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꿈드림센터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상담, 학업지원 등과 관련한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꿈드림센터가 직접 제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강검진은 청소년들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로서 꿈드림센터가 직접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들은 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꿈드림센터의 서비스가 주로 상담 및 학업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서비스는 지역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여야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4%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체크리스트에 응답한 응답자가 청소년 자신이 아닌 사례관리자임을 감안할 때,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례관리자가 해당 청소년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례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외부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회 이상 언급된 기관을 추려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0>, 【그림 Ⅲ-10】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연계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요청하고 또 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건강검진이 있었으며, 이 서비스의 제공이 주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꿈드림센터의 대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밀접한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는 주요한 주체임과 동시에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꿈드림센터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보건소, 병원 및 약국, 취업성공패키지, 특별지원, 민간학원, 대학교 등이 연계기관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주로 건강 관련, 취업 관련, 학업 준비 등과 관련이 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연계기관 명	연계서비스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9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기타	22
건강지원_기타	19
취업지원_기타	17
보건소	17
자기계발지원_기타	15
병원 및 약국	14
취업성공패키지	13
회사, 자영업자 등 민간사업체 및 사업장	13
특별지원 (주민자체센터 및 시군구청)	12
민간 학원	11
대학교 (대학생 멘토, 학교탐방 등)	10



【그림 Ⅲ-10】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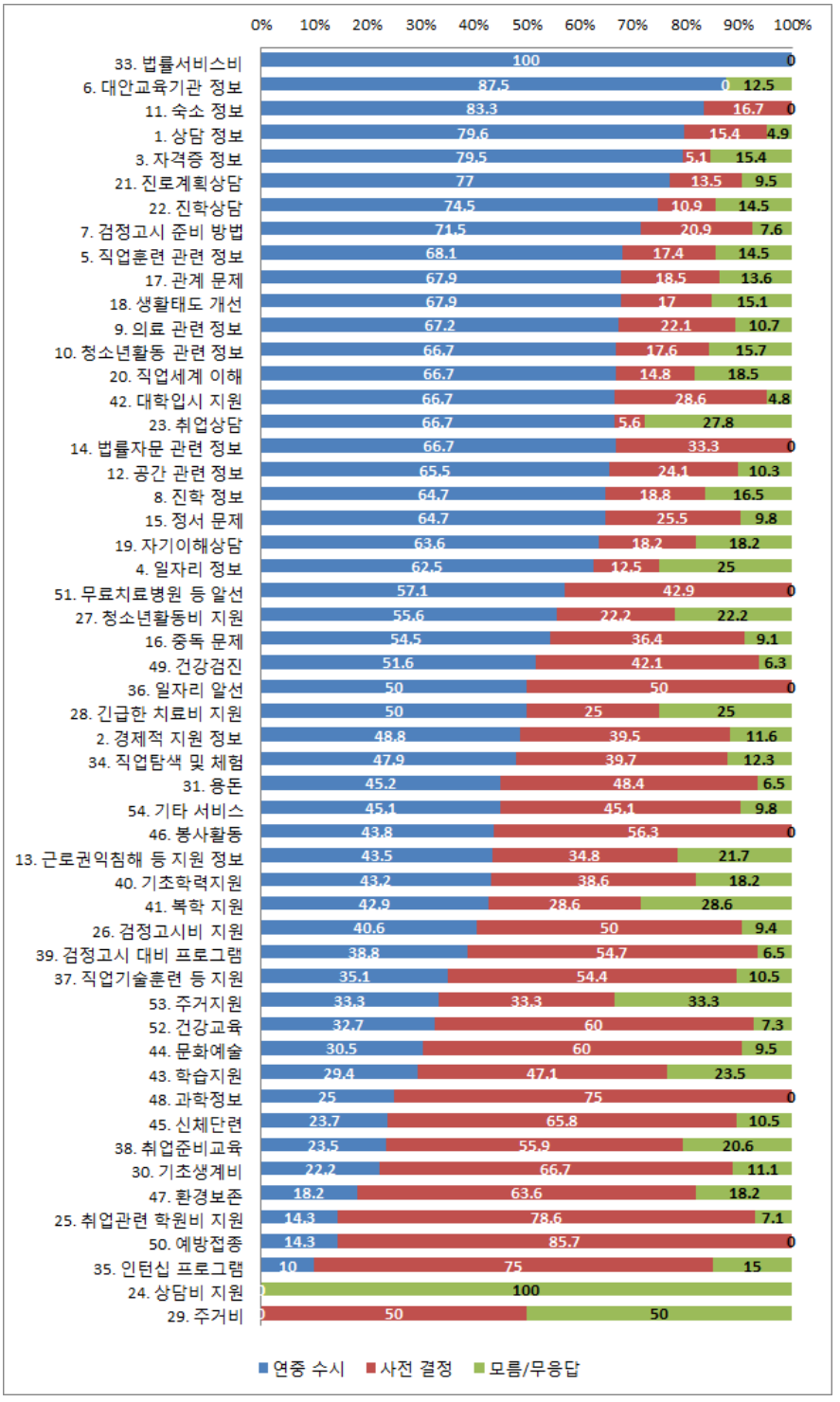
(2) 서비스 제공 계획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간이나 빈도 등을 정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거나 제공 기간과 빈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Ⅲ-11>, 【그림 Ⅲ-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계획

서비스	제공인원 (명)	서비스 제공 계획(%)		
		연중 수시	사전 결정	모름/무응답
1. 상담 정보	162	79.6	15.4	4.9
2. 경제적 지원 정보	43	48.8	39.5	11.6
3. 자격증 정보	39	79.5	5.1	15.4
4. 일자리 정보	17	62.5	12.5	25.0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69	68.1	17.4	14.5
6. 대안교육기관 정보	8	87.5	–	12.5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72	71.5	20.9	7.6
8. 진학 정보	85	64.7	18.8	16.5
9. 의료 관련 정보	122	67.2	22.1	10.7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51	66.7	17.6	15.7
11. 숙소 정보	6	83.3	16.7	–
12. 공간 관련 정보	58	65.5	24.1	10.3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23	43.5	34.8	21.7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66.7	33.3	–
15. 정서 문제	51	64.7	25.5	9.8
16. 중독 문제	22	54.5	36.4	9.1
17. 관계 문제	81	67.9	18.5	13.6
18. 생활태도 개선	53	67.9	17.0	15.1
19. 자기이해상담	55	63.6	18.2	18.2
20. 직업세계 이해	27	66.7	14.8	18.5
21. 진로계획상담	74	77.0	13.5	9.5
22. 진학상담	55	74.5	10.9	14.5
23. 취업상담	18	66.7	5.6	27.8
24. 상담비 지원	7	–	–	100.0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4	14.3	78.6	7.1

서비스	제공인원 (명)	서비스 제공 계획(%)		
		연중 수시	사전 결정	모름/무응답
26. 검정고시비 지원	32	40.6	50.0	9.4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9	55.6	22.2	22.2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50.0	25.0	25.0
29. 주거비	2	–	50.0	50.0
30. 기초생계비	9	22.2	66.7	11.1
31. 용돈	31	45.2	48.4	6.5
32. 대안학교 학비	0	–	–	–
33. 법률서비스비	1	100.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73	47.9	39.7	12.3
35. 인턴십 프로그램	20	10.0	75.0	15.0
36. 일자리 알선	10	50.0	50.0	–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7	35.1	54.4	10.5
38. 취업준비교육	34	23.5	55.9	20.6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70	38.8	54.7	6.5
40. 기초학력지원	44	43.2	38.6	18.2
41. 복학 지원	7	42.9	28.6	28.6
42. 대학입시 지원	21	66.7	28.6	4.8
43. 학습지원	34	29.4	47.1	23.5
44. 문화예술	95	30.5	60.0	9.5
45. 신체단련	38	23.7	65.8	10.5
46. 봉사활동	16	43.8	56.3	–
47. 환경보존	11	18.2	63.6	18.2
48. 과학정보	4	25.0	75.0	–
49. 건강검진	159	51.6	42.1	6.3
50. 예방접종	7	14.3	85.7	–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57.1	42.9	–
52. 건강교육	55	32.7	60.0	7.3
53. 주거지원	3	33.3	33.3	33.3
54. 기타 서비스	51	45.1	45.1	9.8



【그림 Ⅲ-1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계획 (단위: %)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과 관련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공 기간과 빈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학업지원, 자기계발 기회제공, 건강지원, 주거지원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제공 기간과 빈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에 언급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꿈드림센터가 주로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전 계획 없이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 기간과 빈도를 설정해 놓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간과 빈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Ⅲ-1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서비스별로 전체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응답을 제시한 사례 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나 사례수가 비교적 큰 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은 6.46개월, 문화·예술 분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4.59개월, 건강검진은 7.36개월, 검정고시 준비 방법은 6.06개월, 직업탐색 및 체험은 5.94개월,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은 3.33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6개월 전후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서비스 제공 계획: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단위: 개월)**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1. 상담 정보	24	5.83	4.45
2. 경제적 지원 정보	16	5.38	3.50
3. 자격증 정보	2	8.50	4.95
4. 일자리 정보	1	5.00	–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11	4.91	4.04
6. 대안교육기관 정보	0	–	–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34	6.06	3.80
8. 진학 정보	11	3.82	4.40
9. 의료 관련 정보	20	7.70	5.22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7	7.14	4.63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11. 숙소 정보	1	2.00	–
12. 공간 관련 정보	12	4.67	3.7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5	9.80	4.92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1	1.00	–
15. 정서 문제	12	5.75	3.65
16. 중독 문제	8	8.75	3.01
17. 관계 문제	16	4.25	3.49
18. 생활태도 개선	9	4.50	4.50
19. 자기이해상담	9	2.33	1.66
20. 직업세계 이해	4	3.75	5.50
21. 진로계획상담	9	4.17	4.62
22. 진학상담	4	2.00	2.00
23. 취업상담	1	3.00	–
24. 상담비 지원	0	–	–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0	2.60	2.17
26. 검정고시비 지원	14	5.71	4.95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1	12.00	–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	3.00	–
29. 주거비	1	7.00	–
30. 기초생계비	6	8.00	4.94
31. 용돈	13	7.62	3.43
32. 대안학교 학비	0	–	–
33. 법률서비스비	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31	5.94	4.67
35. 인턴십 프로그램	14	4.14	3.46
36. 일자리 알선	4	4.50	5.20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30	3.33	2.78
38. 취업준비교육	19	5.07	4.99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87	6.46	3.91
40. 기초학력지원	13	6.69	3.15
41. 복학 지원	1	1.00	–
42. 대학입시 지원	6	3.50	2.17
43. 학습지원	12	1.63	.77
44. 문화예술	49	4.59	3.43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45. 신체단련	19	6.11	4.63
46. 봉사활동	5	8.20	6.02
47. 환경보존	1	1.00	–
48. 과학정보	3	11.33	1.15
49. 건강검진	45	7.36	7.85
50. 예방접종	3	5.00	2.00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3	2.67	2.89
52. 건강교육	24	7.96	5.40
53. 주거지원	2	2.00	1.41
54. 기타 서비스	13	4.19	4.53

또한 서비스 제공 빈도와 관련한 계획을 살펴보면(<표 Ⅲ-13> 참조),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이 연간 166.64회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월 단위로 보면, 매월 14회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 밖에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124.54회, 직업기술 훈련 등 지원이 117.73회, 기초학력지원 104회, 일자리 알선이 98.4회, 직업훈련 관련 정보 제공이 98.09회, 인턴십 프로그램이 98회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고시 준비나 취업 준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공 빈도를 높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3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 빈도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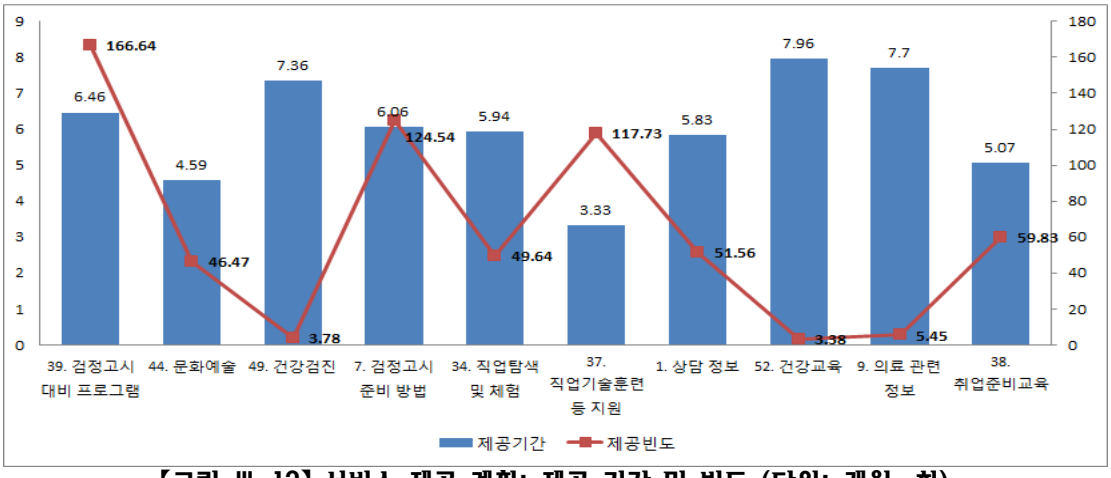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1. 상담 정보	27	51.56	47.16
2. 경제적 지원 정보	12	35.67	73.38
3. 자격증 정보	1	1.00	–
4. 일자리 정보	1	52.00	–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11	98.09	112.34
6. 대안교육기관 정보	0	–	–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35	124.54	89.10
8. 진학 정보	15	7.67	12.88
9. 의료 관련 정보	23	5.45	11.55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8	79.63	81.74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11. 숙소 정보	1	52.00	–
12. 공간 관련 정보	11	84.73	61.78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5	3.20	4.92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1	12.00	–
15. 정서 문제	12	60.00	60.25
16. 중독 문제	7	26.14	18.77
17. 관계 문제	16	52.25	44.02
18. 생활태도 개선	8	77.50	54.38
19. 자기이해상담	9	38.89	22.11
20. 직업세계 이해	4	39.75	24.50
21. 진로계획상담	9	42.22	13.73
22. 진학상담	5	22.80	20.57
23. 취업상담	1	52.00	–
24. 상담비 지원	0	–	–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7	68.00	100.24
26. 검정고시비 지원	14	54.29	91.49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2	6.50	7.78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	12.00	–
29. 주거비	1	52.00	–
30. 기초생계비	6	8.67	5.16
31. 용돈	15	29.13	41.29
32. 대안학교 학비	0	–	–
33. 법률서비스비	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25	49.64	58.19
35. 인턴십 프로그램	12	98.00	102.86
36. 일자리 알선	5	98.40	107.84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26	117.73	92.33
38. 취업준비교육	12	59.83	87.48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90	166.64	81.47
40. 기초학력지원	17	104.00	55.15
41. 복학 지원	1	1.00	–
42. 대학입시 지원	5	62.40	23.26
43. 학습지원	15	67.20	76.13
44. 문화예술	51	46.47	26.66

서비스	대상인원 (명)	평균	표준편차
45. 신체단련	22	60.73	75.77
46. 봉사활동	7	19.43	15.04
47. 환경보존	5	5.00	5.52
48. 과학정보	3	86.67	60.04
49. 건강검진	61	3.78	7.60
50. 예방접종	4	4.25	5.25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3	25.33	23.09
52. 건강교육	24	3.38	4.53
53. 주거지원	0	–	–
54. 기타 서비스	21	16.29	26.22

【그림 Ⅲ-12】는 제공 계획이 많은 서비스 상위 10개를 선정하여 제공기간과 빈도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평균 100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었다.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은 제공기간은 이에 비해 3개월로 짧지만 제공 빈도는 100회 이상으로 검정고시 서비스 다음으로 많았다.

문화예술 등 자기계발, 직업탐색 및 체험, 상담정보 제공, 취업준비 교육은 4~5개월 계획으로 평균 4, 50회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강검진, 건강교육, 의료관련 정보 제공 등 건강관련 서비스는 7개월 이상 제공 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데 비해 5회 미만 빈도로 계획되어 있어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 지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림 Ⅲ-12】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 기간 및 빈도 (단위: 개월, 회)

주: 사례수가 많은 순서대로 10개 서비스만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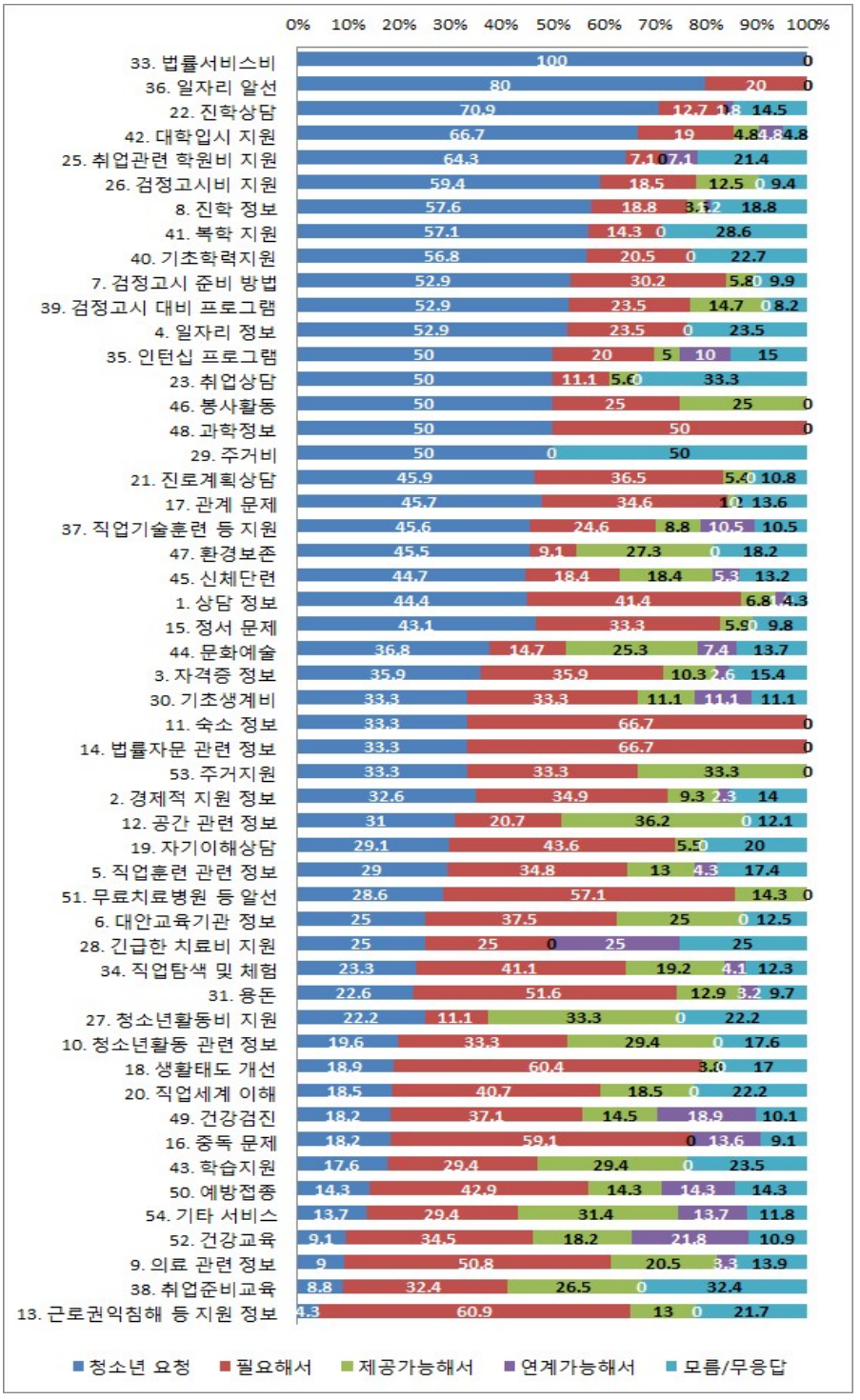
청소년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의 경우(<표 Ⅲ-14>, 【그림 Ⅲ-13】)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이 요청해서'와 '해당 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꿈드림센터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 서비스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 지원, 자기계발 기회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독 문제 관련 상담, 긴급한 치료비 지원, 건강점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꿈드림센터가 지역 내 타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4 서비스 제공 이유

서비스	제공인원 (명)	서비스 제공 이유 (%)				
		청소년 요청	필요해서	제공가능 해서	연계가능 해서	모름/ 무응답
1. 상담 정보	162	44.4	41.4	6.8	1.9	4.3
2. 경제적 지원 정보	43	32.6	34.9	9.3	2.3	14
3. 자격증 정보	39	35.9	35.9	10.3	2.6	15.4
4. 일자리 정보	17	52.9	23.5	–	–	23.5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69	29.0	34.8	13	4.3	17.4
6. 대안교육기관 정보	8	25.0	37.5	25	–	12.5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72	52.9	30.2	5.8	–	9.9
8. 진학 정보	85	57.6	18.8	3.5	1.2	18.8
9. 의료 관련 정보	122	9.0	50.8	20.5	3.3	13.9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51	19.6	33.3	29.4	–	17.6
11. 숙소 정보	6	33.3	66.7	–	–	–
12. 공간 관련 정보	58	31.0	20.7	36.2	–	12.1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23	4.3	60.9	13.0	–	21.7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33.3	66.7	–	–	–
15. 정서 문제	51	43.1	33.3	5.9	–	9.8
16. 중독 문제	22	18.2	59.1	–	13.6	9.1
17. 관계 문제	81	45.7	34.6	1.2	–	13.6

서비스	제공인원 (명)	서비스 제공 이유 (%)				
		청소년 요청	필요해서	제공가능 해서	연계가능 해서	모름/ 무응답
18. 생활태도 개선	53	18.9	60.4	3.8	–	17.0
19. 자기이해상담	55	29.1	43.6	5.5	–	20.0
20. 직업세계 이해	27	18.5	40.7	18.5	–	22.2
21. 진로계획상담	74	45.9	36.5	5.4	–	10.8
22. 진학상담	55	70.9	12.7	–	1.8	14.5
23. 취업상담	18	50.0	11.1	5.6	–	33.3
24. 상담비 지원	7	–	–	–	–	–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4	64.3	7.1	–	7.1	21.4
26. 검정고시비 지원	32	59.4	18.5	12.5	–	9.4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9	22.2	11.1	33.3	–	22.2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25.0	25.0	–	25.0	25.0
29. 주거비	2	50.0	–	–	–	50.0
30. 기초생계비	9	33.3	33.3	11.1	11.1	11.1
31. 용돈	31	22.6	51.6	12.9	3.2	9.7
32. 대안학교 학비	0	–	–	–	–	–
33. 법률서비스비	1	100.0	–	–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73	23.3	41.1	19.2	4.1	12.3
35. 인턴십 프로그램	20	50.0	20.0	5.0	10.0	15
36. 일자리 알선	10	80.0	20.0	–	–	–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7	45.6	24.6	8.8	10.5	10.5
38. 취업준비교육	34	8.8	32.4	26.5	–	32.4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70	52.9	23.5	14.7	–	8.2
40. 기초학력지원	44	56.8	20.5	–		22.7
41. 복학 지원	7	57.1	14.3	–	–	28.6
42. 대학입시 지원	21	66.7	19.0	4.8	4.8	4.8
43. 학습지원	34	17.6	29.4	29.4	–	23.5
44. 문화예술	95	36.8	14.7	25.3	7.4	13.7
45. 신체단련	38	44.7	18.4	18.4	5.3	13.2
46. 봉사활동	16	50.0	25.0	25.0	–	–
47. 환경보존	11	45.5	9.1	27.3	–	18.2
48. 과학정보	4	50.0	50.0	–	–	–
49. 건강검진	159	18.2	37.1	14.5	18.9	10.1
50. 예방접종	7	14.3	42.9	14.3	14.3	14.3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28.6	57.1	14.3	–	–
52. 건강교육	55	9.1	34.5	18.2	21.8	10.9
53. 주거지원	3	33.3	33.3	33.3	–	–
54. 기타 서비스	51	13.7	29.4	31.4	13.7	11.8



【그림 Ⅲ-13】 서비스 제공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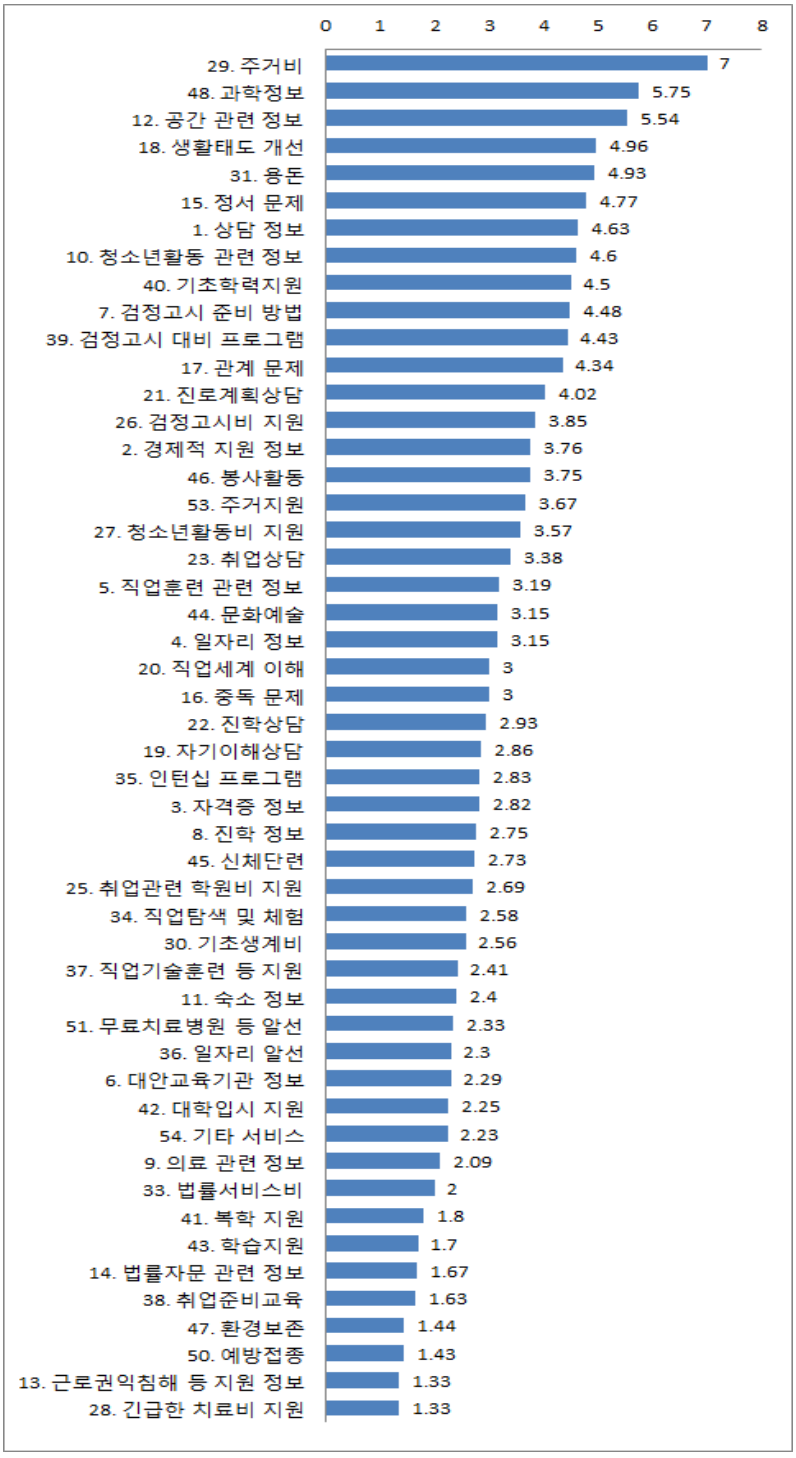
(3)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15>, 【그림 Ⅲ-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5 서비스 제공 기간 **(단위: 개월)**

서비스	제공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1. 상담 정보	157	4.63	3.65
2. 경제적 지원 정보	37	3.76	3.64
3. 자격증 정보	33	2.82	2.51
4. 일자리 정보	13	3.15	3.08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59	3.19	2.99
6. 대안교육기관 정보	7	2.29	1.38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60	4.48	3.44
8. 진학 정보	71	2.75	2.16
9. 의료 관련 정보	104	2.09	1.89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43	4.60	3.94
11. 숙소 정보	5	2.40	1.67
12. 공간 관련 정보	50	5.54	4.0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18	1.33	.69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1.67	.58
15. 정서 문제	47	4.77	3.64
16. 중독 문제	20	3.00	2.05
17. 관계 문제	70	4.34	3.60
18. 생활태도 개선	45	4.96	3.69
19. 자기이해상담	44	2.86	2.97
20. 직업세계 이해	22	3.00	2.47
21. 진로계획상담	66	4.02	3.36
22. 진학상담	46	2.93	1.91
23. 취업상담	13	3.38	3.25
24. 상담비 지원	0	–	–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3	2.69	2.10
26. 검정고시비 지원	27	3.85	3.70

서비스	제공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7	3.57	3.21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3	1.33	.58
29. 주거비	1	7.00	–
30. 기초생계비	9	2.56	2.01
31. 용돈	29	4.93	3.34
32. 대안학교 학비	0	–	–
33. 법률서비스비	1	2.00	–
34. 직업탐색 및 체험	64	2.58	2.47
35. 인턴십 프로그램	18	2.83	1.50
36. 일자리 알선	10	2.30	2.21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1	2.41	1.72
38. 취업준비교육	27	1.63	1.18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62	4.43	3.08
40. 기초학력지원	36	4.50	3.71
41. 복학 지원	5	1.80	1.30
42. 대학입시 지원	20	2.25	1.65
43. 학습지원	27	1.70	1.96
44. 문화예술	82	3.15	2.33
45. 신체단련	33	2.73	2.63
46. 봉사활동	16	3.75	3.87
47. 환경보존	9	1.44	1.01
48. 과학정보	4	5.75	4.35
49. 건강검진	142	1.27	.89
50. 예방접종	7	1.43	.79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6	2.33	2.34
52. 건강교육	49	1.24	.56
53. 주거지원	3	3.67	2.89
54. 기타 서비스	47	2.23	2.50



【그림 Ⅲ-14】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 (단위: 개월)

청소년들에게 주로 제공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은 평균 4.43개월 정도 제공되었으며,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4.48개월 정도 제공됨으로써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은 4.63개월, 건강검진은 1.27개월, 의료 관련 정보 제공은 2.09개월, 문화·예술 분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3.15개월 정도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하여야 하는 학업 지원 서비스와 정서 문제나 관계 문제 등과 관련한 심리상담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평균 제공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탐색 및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등과 같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제공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학업지원이나 심리상담 서비스들보다는 약 1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간단한 정보 제공이나 건강 검진과 같이 일회성 성격이 강한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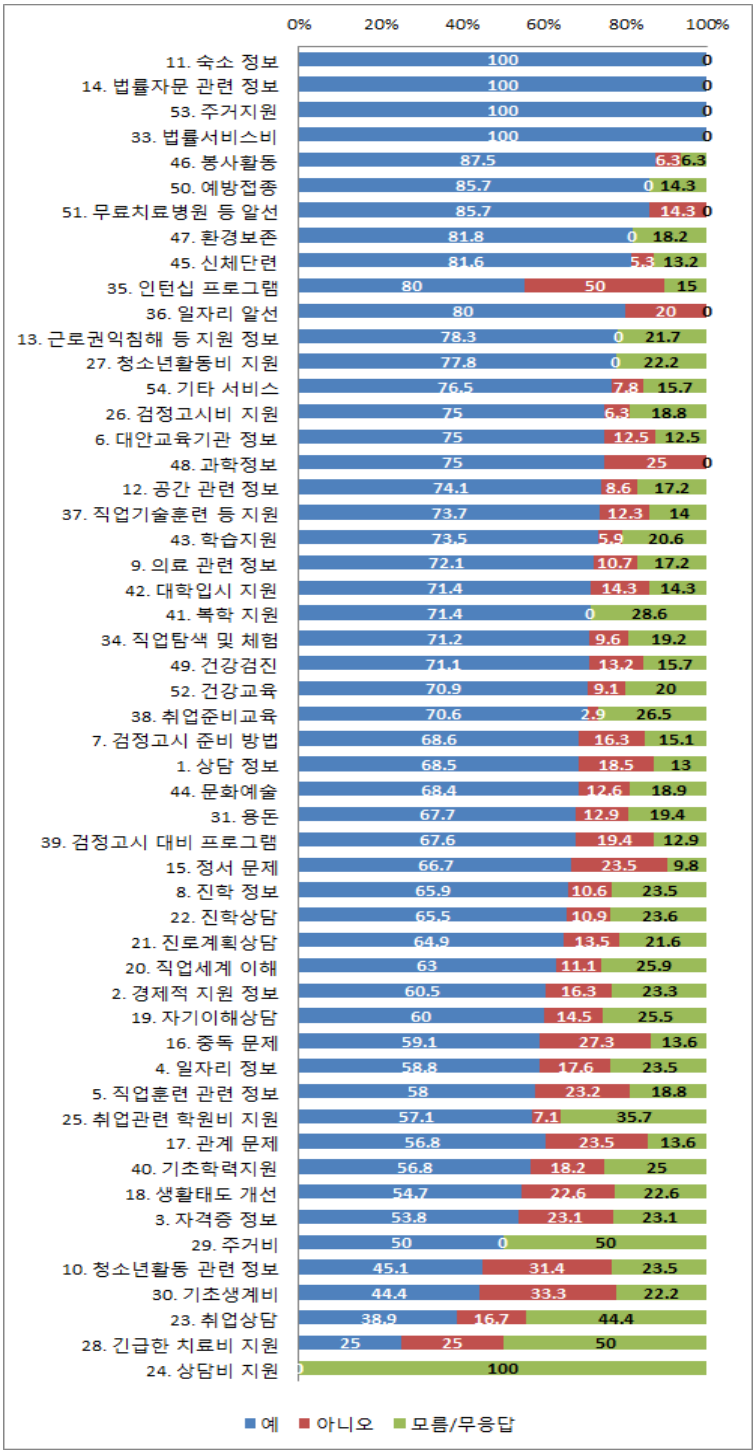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1년 동안의 사례관리를 모두 마침으로써 서비스를 종결한 경우에 해당 서비스가 최초에 계획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16>, 【그림 Ⅲ-15】 참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의 경우 당초 계획한대로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획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서비스들은 자격증 정보 제공, 직업훈련 기관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정서 문제 상담, 중독 문제 상담, 관계 문제 상담, 생활태도 개선 상담, 긴급한 치료비 지원, 기초생계비 지원, 일자리 알선, 과학정보 관련 자기계발 기회 제공 서비스들이었으며, 20~30% 정도가 계획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20% 중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계획대로 제공된 비율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Ⅲ-16 서비스 계획대로 제공 여부

서비스	제공인원 (명)	계획대로 제공 여부(%)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1. 상담 정보	162	68.5	18.5	13.0
2. 경제적 지원 정보	43	60.5	16.3	23.3

서비스	제공인원 (명)	계획대로 제공 여부(%)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3. 자격증 정보	39	53.8	23.1	23.1
4. 일자리 정보	17	58.8	17.6	23.5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69	58.0	23.2	18.8
6. 대안교육기관 정보	8	75.0	12.5	12.5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72	68.6	16.3	15.1
8. 진학 정보	85	65.9	10.6	23.5
9. 의료 관련 정보	122	72.1	10.7	17.2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51	45.1	31.4	23.5
11. 숙소 정보	6	100.0	–	–
12. 공간 관련 정보	58	74.1	8.6	17.2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23	78.3	–	21.7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100.0		–
15. 정서 문제	51	66.7	23.5	9.8
16. 중독 문제	22	59.1	27.3	13.6
17. 관계 문제	81	56.8	23.5	13.6
18. 생활태도 개선	53	54.7	22.6	22.6
19. 자기이해상담	55	60.0	14.5	25.5
20. 직업세계 이해	27	63.0	11.1	25.9
21. 진로계획상담	74	64.9	13.5	21.6
22. 진학상담	55	65.5	10.9	23.6
23. 취업상담	18	38.9	16.7	44.4
24. 상담비 지원	7	–	–	100.0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4	57.1	7.1	35.7
26. 검정고시비 지원	32	75.0	6.3	18.8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9	77.8	–	22.2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25.0	25.0	50.0
29. 주거비	2	50.0	–	50.0
30. 기초생계비	9	44.4	33.3	22.2
31. 용돈	31	67.7	12.9	19.4
32. 대안학교 학비	0	–	–	–
33. 법률서비스비	1	100.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73	71.2	9.6	19.2
35. 인턴십 프로그램	20	80.0	50	15.0
36. 일자리 알선	10	80.0	20.0	–

서비스	제공인원 (명)	계획대로 제공 여부(%)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57	73.7	12.3	14.0
38. 취업준비교육	34	70.6	2.9	26.5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70	67.6	19.4	12.9
40. 기초학력지원	44	56.8	18.2	25.0
41. 복학 지원	7	71.4	–	28.6
42. 대학입시 지원	21	71.4	14.3	14.3
43. 학습지원	34	73.5	5.9	20.6
44. 문화예술	95	68.4	12.6	18.9
45. 신체단련	38	81.6	5.3	13.2
46. 봉사활동	16	87.5	6.3	6.3
47. 환경보존	11	81.8	–	18.2
48. 과학정보	4	75.0	25.0	–
49. 건강검진	159	71.1	13.2	15.7
50. 예방접종	7	85.7	–	14.3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85.7	14.3	–
52. 건강교육	55	70.9	9.1	20.0
53. 주거지원	3	100.0	–	–
54. 기타 서비스	51	76.5	7.8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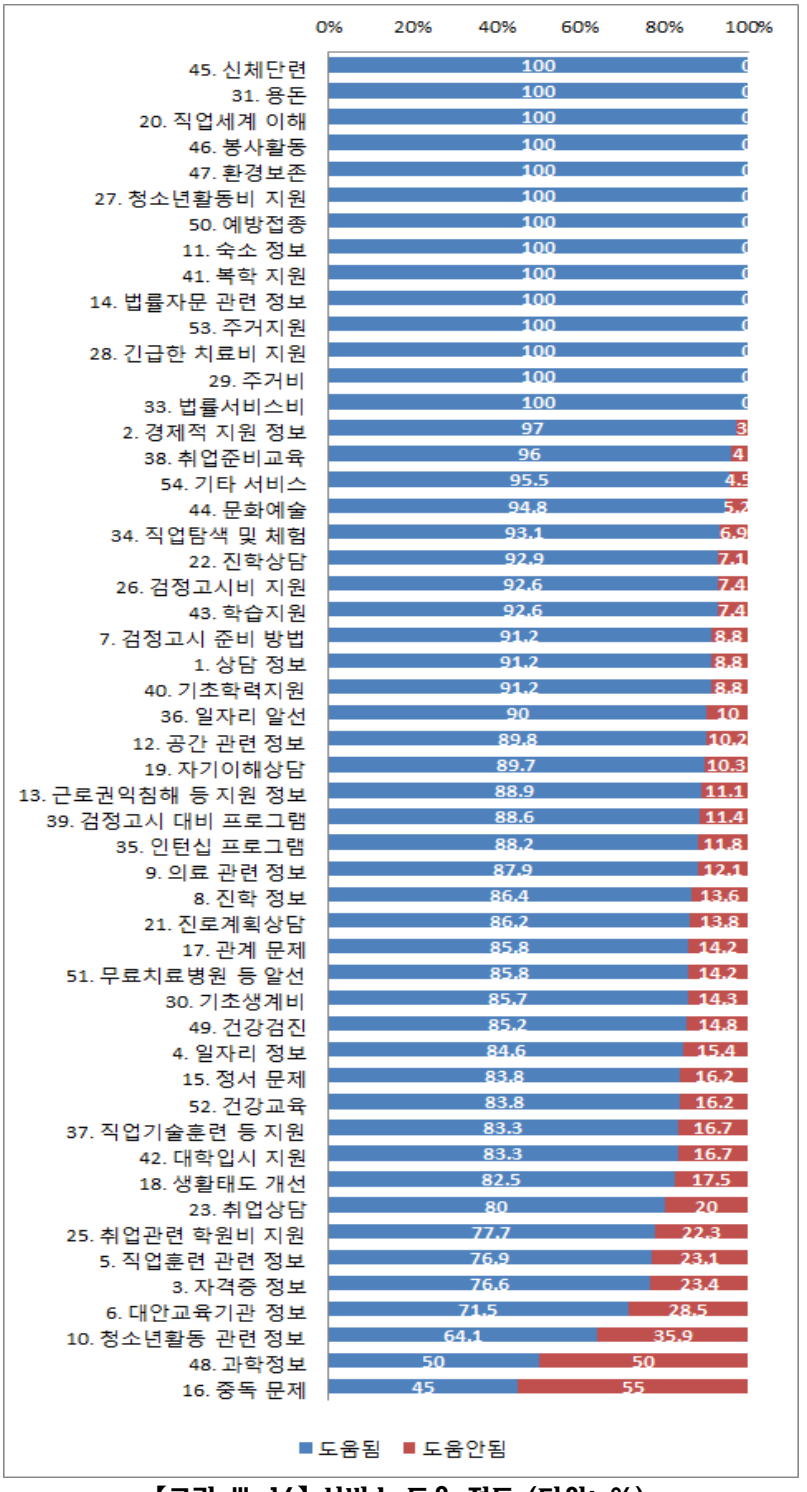
【그림 Ⅲ-15】 서비스 계획대로 제공 여부 (단위: %)

제공된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사례관리자들의 응답 정도를 살펴보면(<표 Ⅲ-17>, 【그림 Ⅲ-16】 참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었다'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으며,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중독 문제 상담, 과학정보 분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의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꿈드림센터가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사례관리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제공을 총괄한 사례관리자의 입장에서의 평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응답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Ⅲ-17 서비스 도움 정도

서비스	사례수 (명)	서비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상담 정보	137	2.2	6.6	56.2	35.0
2. 경제적 지원 정보	33	–	3.0	36.4	60.6
3. 자격증 정보	30	6.7	16.7	53.3	23.3
4. 일자리 정보	13	–	15.4	69.2	15.4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52	3.8	19.2	50.0	26.9
6. 대안교육기관 정보	7	–	28.6	28.6	42.9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48	1.4	7.4	48.0	43.2
8. 진학 정보	66	–	13.6	47.0	39.4
9. 의료 관련 정보	99	3.0	9.1	50.5	37.4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39	–	35.9	43.6	20.5
11. 숙소 정보	6	–	–	33.3	66.7
12. 공간 관련 정보	49	–	10.2	57.1	32.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18	–	11.1	66.7	22.2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3	–	–	–	100.0
15. 정서 문제	43	2.3	140	51.2	32.6
16. 중독 문제	20	5.0	50.0	30.0	15.0
17. 관계 문제	63	–	14.3	55.6	30.2
18. 생활태도 개선	40	–	17.5	52.5	30.0
19. 자기이해상담	39	2.6	7.7	53.8	35.9

서비스	사례수 (명)	서비스 도움 정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20. 직업세계 이해	19	–	–	63.2	36.8
21. 진로계획상담	58	1.7	12.1	65.5	20.7
22. 진학상담	42	–	7.1	61.9	31.0
23. 취업상담	10	–	20.0	60.0	20.0
24. 상담비 지원		–	–	–	–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9	11.1	11.1	33.3	44.4
26. 검정고시비 지원	27	–	7.4	33.3	59.3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7	–	–	42.9	57.1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2	–	–	50.0	50.0
29. 주거비	1	–	–	–	100.0
30. 기초생계비	7	–	14.3	28.6	57.1
31. 용돈	26	–	–	34.6	65.4
32. 대안학교 학비		–	–	–	–
33. 법률서비스비	1	–	–	100.0	–
34. 직업탐색 및 체험	58	–	6.9	51.7	41.4
35. 인턴십 프로그램	17	5.9	5.9	35.3	52.9
36. 일자리 알선	10	–	10.0	60.0	30.0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48	8.3	8.3	35.4	47.9
38. 취업준비교육	25	–	4.0	80.0	160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48	2.0	9.5	34.5	54.1
40. 기초학력지원	34	–	8.8	47.1	44.1
41. 복학 지원	5	–	–	60.0	40.0
42. 대학입시 지원	18	–	16.7	44.4	38.9
43. 학습지원	27	3.7	3.7	66.7	25.9
44. 문화예술	76	2.6	2.6	46.1	48.7
45. 신체단련	33	–	–	69.7	30.3
46. 봉사활동	15	–	–	66.7	33.3
47. 환경보존	9	–	–	77.8	22.2
48. 과학정보	4	–	25.0	25.0	25.0
49. 건강검진	135	4.4	10.4	46.7	38.5
50. 예방접종	7	–	–	71.4	28.6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7	14.3	–	42.9	42.9
52. 건강교육	43	2.3	14.0	51.2	32.6
53. 주거지원	3	–	–	66.7	33.3
54. 기타 서비스	44	4.5	–	52.3	43.2



【그림 Ⅲ-16】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

3)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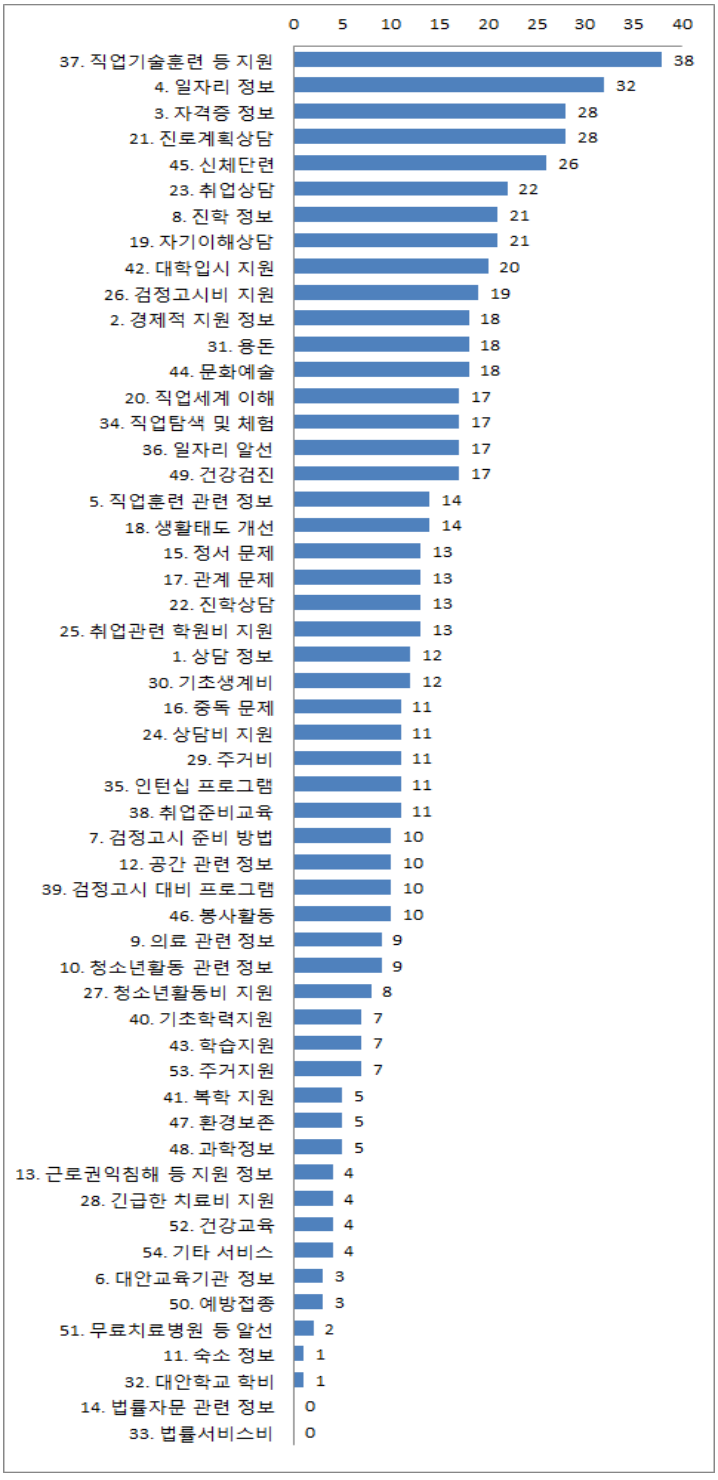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왜 제공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표 Ⅲ-18>와 【그림 Ⅲ-17】이다.

표 Ⅲ-18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서비스	사례수	순위
1. 상담 정보	12	24
2. 경제적 지원 정보	18	11
3. 자격증 정보	28	3
4. 일자리 정보	32	2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14	18
6. 대안교육기관 정보	3	48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0	31
8. 진학 정보	21	7
9. 의료 관련 정보	9	35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9	35
11. 숙소 정보	1	51
12. 공간 관련 정보	10	31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4	44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	–
15. 정서 문제	13	20
16. 중독 문제	11	26
17. 관계 문제	13	20
18. 생활태도 개선	14	18
19. 자기이해상담	21	7
20. 직업세계 이해	17	14
21. 진로계획상담	28	3
22. 진학상담	13	20
23. 취업상담	22	6
24. 상담비 지원	11	26

서비스	사례수	순위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3	20
26. 검정고시비 지원	19	10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8	37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4	44
29. 주거비	11	26
30. 기초생계비	12	24
31. 용돈	18	11
32. 대안학교 학비	1	51
33. 법률서비스비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17	14
35. 인턴십 프로그램	11	26
36. 일자리 알선	17	14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38	1
38. 취업준비교육	11	26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0	31
40. 기초학력지원	7	38
41. 복학 지원	5	41
42. 대학입시 지원	20	9
43. 학습지원	7	38
44. 문화예술	18	11
45. 신체단련	26	5
46. 봉사활동	10	31
47. 환경보존	5	41
48. 과학정보	5	41
49. 건강검진	17	14
50. 예방접종	3	48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2	50
52. 건강교육	4	44
53. 주거지원	7	38
54. 기타 서비스	4	44



【그림 Ⅲ-17】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단위: 건)

분석 결과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요청과 제공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진로 계획 상담, 신체 단련 자기계발 기회 제공, 취업상담, 대입 등 진학 정보 제공, 수능준비반 등과 같은 대학입시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의 순으로 요청과 제공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상위 3개가 모두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학령을 지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으로의 복귀보다는 취업과 관련한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꿈드림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거나 최소한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꿈드림센터가 학업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한 서비스는 적절하고 제공하고 있으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의 단계인 대학 입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꿈드림센터가 학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를 대신하여 대학입시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 내 대학 입시와 관련한 기관과의 협정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의 경우 왜 제공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Ⅲ-19>, 【그림 Ⅲ-18】 참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에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각종 정보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와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청소년과 시간이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주로 재원이 부족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기초학력지원,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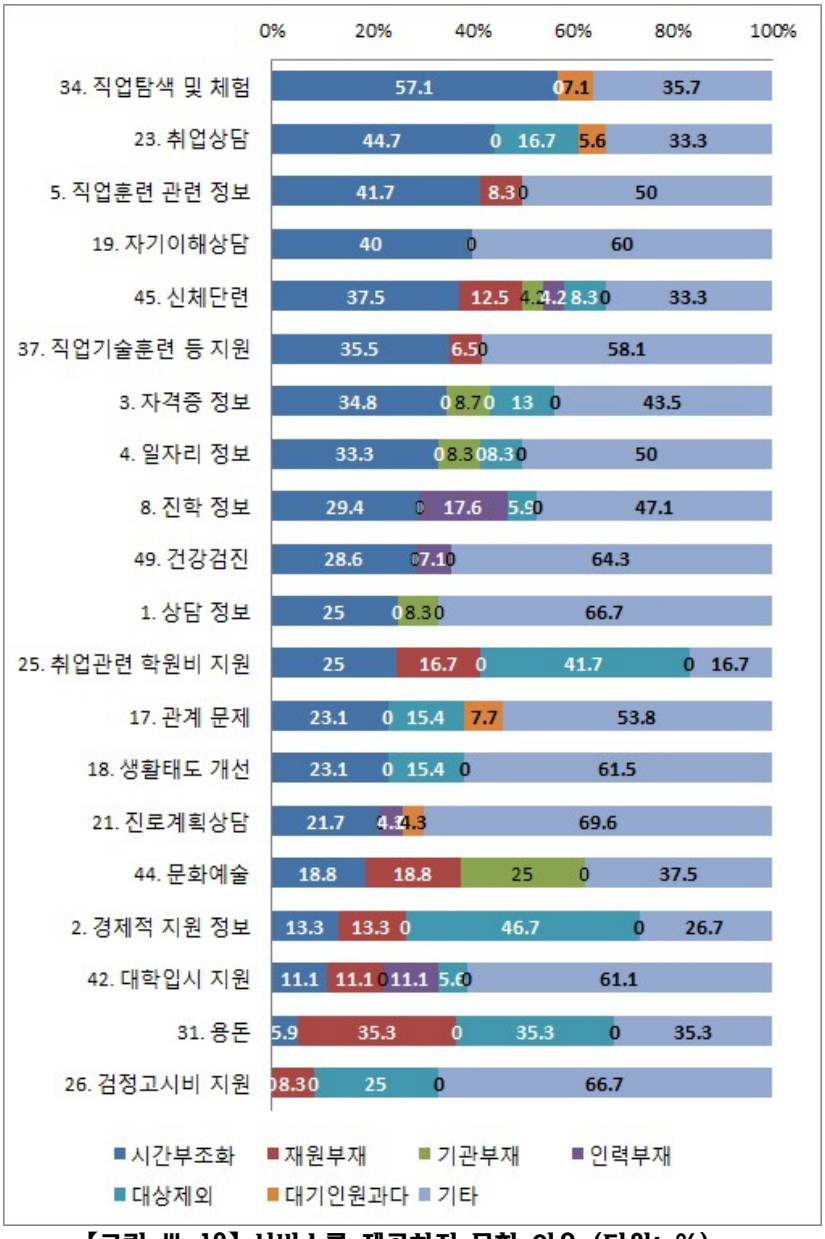
서비스 미제공 사유로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우와 관련하여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꿈드림센터의 존립 기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기관 운영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꿈드림센터

를 이용하는 청소년 개개인의 시간 계획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각기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Ⅲ-19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서비스	사례수 (명)	서비스 미제공 이유(%)						
		재원 부재	지역 기관 부재	인력 부재	사업 대상 제외	대기 인원 과다	시간 부조화	기타
1. 상담 정보	12	–	8.3	–	–	–	25.0	66.7
2. 경제적 지원 정보	15	13.3	–	–	46.7	–	13.3	26.7
3. 자격증 정보	23	–	8.7	–	13.0	–	34.8	43.5
4. 일자리 정보	24	–	8.3	–	8.3	–	33.3	50.0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12	8.3	–	–	–	–	41.7	50.0
6. 대안교육기관 정보	1	–	–	100.0	–	–	–	–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8	–	–	–	–	–	12.5	87.5
8. 진학 정보	17	–	–	17.6	5.9	–	29.4	47.1
9. 의료 관련 정보	6	–	–	–	–	–	16.7	83.3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6	33.3	33.3	–	–	–	–	33.3
11. 숙소 정보	1	–	–	–	–	–	100.0	–
12. 공간 관련 정보	9	11.1	–	–	–	–	22.2	66.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4	–	–	–	–	–	75.0	25.0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	–	–	–	–	–	–
15. 정서 문제	10	–	–	–	–	–	20.0	80.0
16. 중독 문제	9	–	–	11.1	–	–	33.3	55.6
17. 관계 문제	13	–	–	–	15.4	7.7	23.1	53.8
18. 생활태도 개선	13	–	–	–	15.4	–	23.1	61.5
19. 자기이해상담	15	–	–	–	–	–	40.0	60.0
20. 직업세계 이해	11	–	–	9.1	–	–	27.3	63.6
21. 진로계획상담	23	–	–	4.3	–	4.3	21.7	69.6
22. 진학상담	11	–	–	–	–	–	45.5	54.5
23. 취업상담	18	–	–	–	16.7	5.6	44.7	33.3

서비스	사례수 (명)	서비스 미제공 이유(%)						
		재원 부재	지역 기관 부재	인력 부재	사업 대상 제외	대기 인원 과다	시간 부조화	기타
24. 상담비 지원	10	–	–	–	–	–	–	100.0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12	16.7	–	–	41.7	–	25.0	16.7
26. 검정고시비 지원	12	8.3	–	–	25.0	–	–	66.7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7	71.4	–	–	28.6	–	–	–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3	–	–	–	–	33.3	33.3	33.3
29. 주거비	10	30.0	10.0	–	30.0	–	–	30.0
30. 기초생계비	11	18.2	–	–	27.3	9.1	–	36.4
31. 용돈	17	35.3	–	–	35.3	–	5.9	35.3
32. 대안학교 학비	1	100	–	–	–	–	–	–
33. 법률서비스비		–	–	–	–	–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14	–	–	–	–	7.1	57.1	35.7
35. 인턴십 프로그램	7	–	–	–	28.6	–	28.6	42.9
36. 일자리 알선	11	9.1	9.1	–	–	–	36.4	45.5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31	6.5	–	–	–	–	35.5	58.1
38. 취업준비교육	8	–	–		–	–	37.5	62.5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0	–	–	20.0	–	–	30.0	50.0
40. 기초학력지원	6	–	–	16.7	–	–	16.7	66.7
41. 복학 지원	4	–	–	–	–	–	–	100.0
42. 대학입시 지원	18	11.1	–	11.1	5.6	–	11.1	61.1
43. 학습지원	6	–	–	–	16.7	–	33.3	50.0
44. 문화예술	16	18.8	25.0	–	–	–	18.8	37.5
45. 신체단련	24	12.5	4.2	4.2	8.3	–	37.5	33.3
46. 봉사활동	10	–	–	10.0	10.0	–	20.0	60.0
47. 환경보존	4	–	–	25.0	–	–	50.0	25.0
48. 과학정보	4	–	–	–	–	–	25.0	75.0
49. 건강검진	14	–	–	7.1	–	–	28.6	64.3
50. 예방접종	3	33.3	–	–	–	–	–	66.7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2	–	–	–	–	–	50.0	50.0
52. 건강교육	3	–	–	–	–	–	66.7	33.3
53. 주거지원	7	–	–	42.9	–	–	28.6	28.6
54. 기타 서비스	2	–	–	–	–	–	43.2	100.0



【그림 Ⅲ-18】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단위: %)

주: 사례수가 많은 순서대로 20개 서비스만 선정하였음

4)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탈 관련 요인

서비스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 171명[85](총 193명 중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을 중단한 청소년 19명 및 무응답 3명 제외)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인 171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Ⅲ-20>과 같다.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이 56.7%로 약간 많았고, 대체로 고등학교 학령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부모 가정이 55.6%로 가장 많았고, 가정경제수준을 하층이라고 인지하는 청소년들이 46.8%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79.5%로 대부분이었고 학업중단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학교 사유(54.4%)였다.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은 '하'가 57.3%로 과반이었고 학업중단 기간은 대체로 1년 미만(80.1%)이었다.

표 Ⅲ-2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	비율
전체		171	100.0
성	남자	74	43.3
	여자	97	56.7
연령	중학교 학령(14~16세)	12	7.0
	고등학교 학령(17~19세)	155	90.6
	기타	4	2.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95	55.6
	한부모 가정	53	31.0
	부모 모두 안계심	23	13.5
가정경제수준	상	25	14.6
	중	66	38.6
	하	80	46.8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35	20.5
	고등학교때	136	79.5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35	20.5
	학교 사유	93	54.4
	대안교육을 원해서	30	17.5
	문제행동으로	13	7.6
학업중단 당시 성적	상	35	20.5
	중	38	22.2
	하	98	57.3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37	80.1
	1년 이상~2년 미만	22	12.9
	2년 이상	12	7.0

85) 계속 이용 청소년(N=83), 이용 중단 청소년(N=88)

배경요인(성별, 연령,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 관련 요인(학업중단 기간,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시점), 심리·정서(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부모 관계(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 방임, 부모 학대), 지역사회 특성(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 가치관(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심리정서, 학력에 대한 태도), 문제행동(게임중독), 센터 관련 요인(사례관리자 성별, 근무경력) 등을 독립변수로, 조사시점 기준 현재 센터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투입된 변수들 중 충동성만이 유일하게 센터 이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이탈 청소년은 계속 이용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이 2.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1> 참조).

표 Ⅲ-21 서비스 탈락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B	SE	Wals	유의확률	EXP(B)
배경요인	성별[1)]	−.201	.421	.228	.633	.818
	연령	−.447	.703	.404	.525	.640
	가족구성(양부모가정)	−.911	.586	2.419	.120	.402
	가족구성(한부모가정)	−.443	.598	.549	.459	.642
	가정경제수준(상)	.207	.567	.133	.716	1.230
	가정경제수준(중)	−.368	.417	.779	.377	.692
학업중단관련요인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1.389	.858	2.624	.105	.249
	학업중단 기간 (1년이상~2년미만)	−.733	.997	.540	.463	.481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1.247	.802	2.416	.120	.287
	학업중단 사유 (학교 사유)	−1.266	.754	2.821	.093	.282
	학업중단 사유 (대안교육 희망)	−1.202	.835	2.072	.150	.301
	학업중단 시점[2)]	−.041	.557	.005	.941	.960
심리적요인	자아존중감	−.499	.428	1.356	.244	.607
	자아탄력성	.115	.487	.055	.814	1.122
	우울감	−.400	.430	.863	.353	.670
	충동성	**.827**	**.413**	**4.005**	**.045**	**2.286**

변수		B	SE	Wals	유의확률	EXP(B)
부모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429	.364	1.390	.238	1.536
	부모의 경제적 지원	−.349	.300	1.358	.244	.705
	부모 방임	.409	.464	.778	.378	1.506
	부모 학대	−.171	.271	.396	.529	.843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	.283	.250	1.285	.257	1.327
	지역사회 무질서	−.037	.290	.017	.897	.963
	지역사회 유익환경	−.214	.240	.792	.374	.807
가치관	학력에 대한 태도	.214	.273	.616	.432	1.239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 · 정서	.018	.288	.004	.949	1.018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 · 정서	.333	.442	.568	.451	1.395
센터요인	사례관리자 성별[1)]	.798	.484	2.727	.099	2.222
	사례관리자 근무경력	−.007	.007	1.014	.314	.993
문제행동(게임중독)		−.197	.336	.342	.558	.822
상수항		−.481	.637	.569	.451	.618
−2log−likellihood		209.015				
Cox & Snell R^2		.144				
Nagelkerke R^2		.192				

1)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코딩

2) 학업중단 시점은 초중학교때=1, 고등학교때=2로 코딩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꿈드림센터 사례관리자들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응답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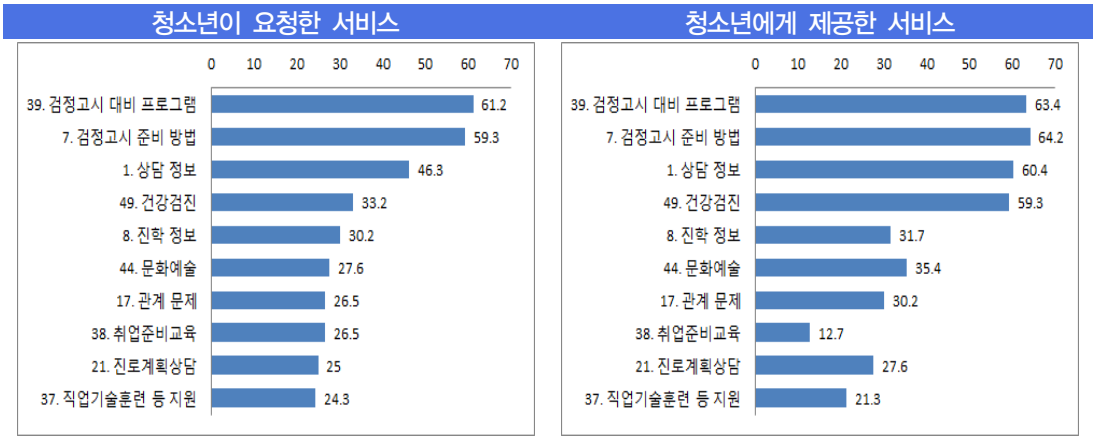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상위 10개 서비스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심리 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대입 등 진학정보,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 교육, 진로계획 상담,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과 관련한 지원, 취업 지원, 등 향후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 관련 정보 제공, 문화예술 분야 자기계발 기회 제공, 진학정보 제공,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등 관계문제 상담, 진로계획 상담, 직업탐색 및 체험 등을 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는 주로 진학이나 취업 등과 관계가 있는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들 가운데 상위 10개의 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Ⅲ-22>와 같으며, 요청한 서비스 상위 10개의 제공률을 나타낸 그림은 【그림 Ⅲ-19】이다.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상위 10개 중 8개는 실제 청소년에게 제공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지만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로는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과 취업준비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상위 10개 서비스 가운데 청소년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한 정보 제공, 직업탐색 및 체험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청소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꿈드림센터의 노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22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교(각 상위 10개)

영역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	순위	서비스	순위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3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3
	검정고시 준비 방법	2	검정고시 준비 방법	1
	대입 등 진학정보	5	대입 등 진학정보	7
	–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5
심리상담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7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8
진로상담	진로계획상담	9	진로계획상담	9
취업지원	–	–	직업탐색 및 체험	10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10	–	–
	취업준비교육	7	–	–
학업지원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2
자기계발 기회 제공	문화예술	6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6
건강 및 주거지원	건강검진	4	건강검진	4



【그림 Ⅲ-19】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비교 (단위: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요청하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있어 성별,

패널 유형별,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성별 집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규・기존 패널 간에는 요청하는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특히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 대부분의 경우 신규 패널에서 나타난 빈도가 기존 패널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취업상담 서비스에서는 기존 패널에서 더 많이 요청되고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패널 청소년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보다는 실제 취업을 통한 자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 요청한 서비스의 분포가 달리 나타난 것은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환경보존 활동, 과학정보 분야 등이었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해당 서비스 요청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요청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작은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 직업훈련 관련 정보, 검정고시 준비방법, 정서문제 관련 상담,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에서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설정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반면, 대도시 등과 같이 지역 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학습지원이나 상담지원과 같은 보다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구축하고, 그 밖의 서비스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꿈드림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방법, 공간 관련 정보 제공, 생활태도 개선 관련 상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은 80% 이상을 꿈드림센터가 직접 제공한 반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꿈드림센터가 지역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꿈드림센터의 기능 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무응답이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 사례관리가 충실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례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꿈드림센터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 계획을 정하기보다는 연중 수시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 기간과 빈도를 설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진로 계획 상담, 신체 단련 자기계발 기회 제공, 취업상담, 대입 등 진학 정보 제공, 수능준비반 등과 같은 대학입시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상위 3개가 모두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학령을 지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으로의 복귀보다는 취업과 관련한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꿈드림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거나 최소한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지원, 즉 대학입시와 관련한 지원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꿈드림센터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즉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개개인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Ⅳ 장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분석

1. 조사 개요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결과
3. 담당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4. 청소년과 사례담당자 인식 비교
5. 요약 및 시사점

제 Ⅳ 장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분석*

1. 조사 개요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조사」 연구에 5년간 참여한 기존 패널과 2016년 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신규 패널, 해당 패널의 꿈드림센터 사례관리자를 면접하여 꿈드림센터 이용 동기,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신·구패널 간, 이행경로 간(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 서비스 이용 현황별(계속 이용자와 이용 완료자, 이용 중단자)에 인식 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꿈드림센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꿈드림센터 이용자로서 기존 패널 중 12명, 신규 패널 8명, 이들의 사례관리자 10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구성 시 고려 사항은 먼저, 기존 패널 청소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다음으로 신규 패널 및 사례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패널 선정시 성별, 센터 소재 지역 규모 및 이행경로(기존 패널만 해당)를 고려하였으며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자, 이용 중단자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다(<표 Ⅳ-1> 참조).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정 · 보완하였음.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는 2016년 6월에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 꿈드림센터 방문 전 상태는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구성된 청소년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Ⅳ-2> 와 같고 사례관리자는 <표 Ⅳ-3>과 같다. 이 중 기존 패널은 12명, 신규 패널은 8명을 구성하되,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수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표 Ⅳ-1 연구참여자의 분포

구 분	기존 패널				신규 패널	사례관리자
	합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12	2	7	3	8	10
대도시	4	1	2	1	3	3
중소도시	7	1	4	2	4	5
읍면지역	1	–	1	–	1	2

표 Ⅳ-2 연구 참여자(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NO	성별	생년	거주 지역 규모	센터 이용 현황	이행 경로 (2016년 기준)	최종학교 중단 시기	현재 주로 하는 일	사례 관리자
기1	여	99년	중소도시	이용 중단자	무업형	2013년 중2 여름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공부	사2
기2	여	96년	중소도시	계속 이용자	학업형	2013년 고2 봄	마트 계산대 캐셔로 근무	사3
기3	여	96년	대도시	계속 이용자	학업형	2013년 고1 가을(자퇴 후 재입학)	응답 없음	사8
기4	남	98년	대도시	계속 이용자	무업형	초등학교 졸업	특별히 하는 일 없음	–
기5	여	95년	읍면지역	계속 이용자	무업형	2011년 고1 가을	마트에서 보안원으로 근무	사4
기6	여	96년	대도시	이용 중단자	직업형	2013년 고1 가을 (첫 자퇴 2012 고1)	특별히 하는 일 없음	–
기7	남	96년	중소도시	이용 중단자	무업형	2012년 고1 여름	특별히 하는 일 없음	–
기8	여	96년	중소도시	이용 중단자	무업형	2013년 고2 여름	특별히 하는 일 없음	사5
기9	남	97년	대도시	이용 중단자	학업형	2013년 고1 여름(2014년 3월에 재입학 후 졸업	대학생	–

NO	성별	생년	거주 지역 규모	센터 이용 현황	이행 경로 (2016년 기준)	최종학교 중단 시기	현재 주로 하는 일	사례 관리자
기10	남	99년	중소도시	이용 중단자	직업형	2016년 고1 봄 (첫 자퇴 2012 중1)	자동 셔터 설치 회사에서 근무	–
기11	남	94년	대도시	이용 중단자	직업형	2012 고3 가을	여성회에서 근무	–
기12	여	96년	대도시	이용 중단자	직업형	2012년 고1 여름	특별히 하는 일 없음	사9
신1	남	99년	대도시	계속 이용자	학업형	2016년 고2 봄	고등학교 재학(복교)	–
신2	남	99년	중소도시	이용 완료자	학업형	2016년 고2 여름	입시준비(실용음악과)	사1
신3	여	99년	중소도시	이용 완료자	무업형	2013년 중2 여름 (2014년 중2 봄)	특별히 하는 일 없음	–
신4	남	97년	읍면지역	이용 완료자	직업형	2015년 고1 여름 (첫 자퇴 2014 고2)	제약회사에서 근무	사6
신5	여	98년	중소도시	이용 중단자	학업형	2015년 고2 가을	대학 1학년 재학	–
신6	여	99년	대도시	계속 이용자	학업형	2015년 고1 가을	대입 준비 중	사7
신7	남	99년	중소도시	계속 이용자	무업형	2015년 고1 여름	주 1회 알바 외 특별히 하는 일 없음	–
신8	여	99년	중소도시	계속 이용자	–	2016년 고2 봄	응답없음	–

표 Ⅳ-3 연구 참여자(사례관리자)의 인구학적 특성

NO	성별	생년	경력	거주 지역규모	사례관리 패널
사1	여성	29세	3년 9개월	중소도시	신2
사2	여성	25세	5개월	중소도시	기1
사3	여성	45세	1년 3개월	중소도시	기2
사4	여성	43세	2년 4개월	읍면지역	기5
사5	남성	43세	1년 3개월	중소도시	기8
사6	여성	42세	4년 6개월	읍면지역	신4
사7	여성	28세	2년 6개월	대도시	신6
사8	여성	25세	1년 2개월	대도시	기3
사9	남성	26세	6개월	대도시	신1
사10				중소도시	–

3) 면접조사지

면접지는 신・구패널 청소년용 1종, 사례관리자용 1종과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면접지 1종 등 총 3종이었다. 먼저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선정 면접지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패널용 면접지의 구성은 ① 꿈드림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②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해본 서비스 유형 및 내용, ③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 ④ 꿈드림센터의 도움 정도 및 이유, ⑤ 꿈드림센터에 바라는 점 및 희망사항 등이다.

사례관리자용 면접지 구성은 ① 꿈드림센터의 현황, ②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소속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장점 및 문제점, ④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의 특성, ⑤ 청소년 사례관리의 결과 및 이유, ⑥ 꿈드림센터의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면접지 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실시하였고 면접지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기존 및 신규 패널 청소년, 사례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면접지를 활용했는데, 그 내용은 2016년도 꿈드림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꿈드림센터에서 경험한 서비스의 수, 기간,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 중단의 이유, 2016년도 꿈드림센터 방문 시 상태, 당시 아르바이트의 이유 등이었다.

4) 면접조사과정

청소년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 과정은 조사 대상 패널(기존 패널)들의 체크리스트를 수합한 후 대상 패널에게 사전 연락하여 조사 약속을 한 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단순 참가자(사례비만 얻기 위해 상담한 후 방문을 종료한 경우), 서비스 경험 부족으로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최소 1개 이상 서비스 이용경험 & 1개월 이상 진행한 경우만 포함)를 제외하기 위해서였다.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패널에 대한 면접을 끝낸 후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협조 요청 및 약속을 하고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 패널들에 대한 사전접촉 및 리크루팅은 5월 29일 ~ 6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신규 패널은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존 패널은 6월 24일부터 실시하여 7월 17일, 사례관리자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주 제보자들의 사정에 따라 1~3회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녹취하는 것을 승낙 받아 녹음을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읽고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상되는 비유나 속담을 포함한 일차적인 해석들을 적고 검토한다.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하여 스트립트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핵심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웹(web)을 만든다(성윤숙, 손병덕, 2014).

자료의 범주화에서 주제영역 분류를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꿈드림센터 이용 서비스 현황, 사례관리자 등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꿈드림센터 이용청소년의 주변 환경 및 변화, 지역사회체계,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상·하위 범주들을 정하고 이를 부호화 범주로 전환한 뒤 스크립트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표기된 부호와 범주의 수대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범주별로 정리한 뒤 동일 범주의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한다. 연구자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위하여 자료 분석을 하는 동안 '좋은 눈'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성윤숙, 손병덕, 2014).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청소년 전문가 4인에게 의뢰하여 자료와 분석결과를 재검토한다. 즉 제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관점, 시간, 공간, 상황 등을 달리하여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Denzin, 1978; Goetz & LeCompte, 1984, 성윤숙, 박병식, 2009; 성윤숙, 손병덕, 2014 재인용).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결과

1) 꿈드림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1) 꿈드림센터 이용 전 인지 유무

꿈드림센터 방문 전 센터의 인지 유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20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을 하였다. 8명의 청소년은 안다고 답하였으며, 2명은 무응답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응답을 제외한 12명 중 7명은 안다고 응답했고, 4명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모른다고 응답하였던 청소년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6명의 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을 하였다. 1명의 청소년은 안다고 응답하였다.

① 모름

기존 패널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지원 센터는 알고 있었는데 꿈드림센터는 처음 들었어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밴드 연습도 했었거든요. 근데 꿈드림은 모르고 있었죠."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그때는 몰랐어요."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작년에 꿈드림센터 가기 전에 꿈드림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숙려제하기 전에 꿈드림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들어본 적은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② 앎

기존 패널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홍보물에서 본 적은 있죠.”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건물이랑 동아리 활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이 가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2) 꿈드림센터 인지 경로

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학교 선생님과 친구를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20명 중 5명의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명의 청소년이 친구를 통해, 2명의 청소년은 가족을 통해, 2명의 청소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2명의 청소년이 다른 기관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6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가족과 설문조사를 통해, 또는 다른 기관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라고 응답을 하였다. 2명의 청소년이 가족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2명의 청소년이 다른 기관을 통해, 2명이 선생님을 통해 꿈드림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었고,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의 비율 역시 각 경로별로 비슷한 정도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친구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라고 응답을 하였다. 3명의 청소년이 친구를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3명의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① 학교 선생님

기존 패널	“그때는 도와줘야 뭘 도와주겠냐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상담 받고 그 선생님이 있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시간 내서 가봤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하는데 연습실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상담하면서 연락처를 그쪽으로 줬을 거예요.”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그러면 이걸 처음 알려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학교 상담 선생님.”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여름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자퇴하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며칠 이따가 자퇴 숙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학교에서 거기를 연결시켜주더라고요.”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② 친구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예전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저보다 먼저 학교를 나왔고 저는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었는데 자기 동네에 검정고시 공부 무료로 해주는 곳 있다고.”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친구가 자기 특별 교육으로 거기 가서 센터에 가서 교육 받았다고.”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③ 가족

기존 패널	“(그러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8살 9월에 학교를 그만두기 전후로 어머니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다는 거죠?) 네.”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18살, 19살에 연락 끊겼던 엄마가 전화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너 이거라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④ 설문조사

기존 패널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알았어요.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설문 조사 매년 오잖아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설문조사 하면서 꿈드림센터 선별을 해서 갈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가볼 의향이 있냐고 저는 그런 거 가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⑤ 홍보

기존 패널	“네. 검정고시 때문에 갔었어요. 명함이 있었는데 작년부터였나..”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때 어디에서 보셨어요? 홍보물?) 보통 지하철에서 봤던 것 같아요. (광고로 보신 거죠?) 그거 말고도 길 가다가 볼 때도 있었죠.”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

⑥ 다른 기관

기존 패널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울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네, 원래 꿈드림센터는 알고 있었고 저희 ◯◯ 여성회에서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가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 상대로 캠프하고 교육하는데 위기 청소년들도 학교 밖 나오신 여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해서 원래는 알고 있었죠.”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2) 꿈드림센터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1) 꿈드림센터를 이용하기 전 기대 서비스

꿈드림센터 이용 전 기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검정고시와 취업지원이라고 답했다. 20명 중 취업지원 6명, 검정고시 6명, 상담 3명이었으나 나머지 3명의 청소년은 별 기대 없이 꿈드림센터를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2명은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했고, 3명의 청소년이 상담, 2명의 청소년이 경제적 지원을 꿈드림센터 방문 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센터의 기대 서비스로 취업지원을 언급한 청소년은 '무업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상담을 기대했던 청소년의 경우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했다.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직업형'의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규 패널의 경우, 6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라고 응답했으며 4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했다.

① 취업지원

기존 패널	"제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취업도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 (그러면 센터에서 취업 관련해서 받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세요?) 고용노동부 취업 그거. (성공패키지?) 네. 성공패키지로 연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러면 이용하기 전에 직업소개에 대한 게 제일 필요했었고 저희가 아마 처음 센터 방문해서 초기상담 했을 때 ○○씨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게 있을 그걸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 역시."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그 당시 ○○씨가 원했던 게 취업지원이랑)"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센터 담당 선생님이 해 주신 걸 보면 취업에 중요한 자격증 정보랑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직업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도,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원하셨다고?) 다 해주셨어요."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② 검정고시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었고 그거 말고 저는 학교를 나온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검정고시 준비하던 거 대입 진학 정보.”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③ 상담

기존 패널	“사실 진로 상담은 있어서 적은건데.”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대학 진학 정보, 이런 것들하고 심리상담도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중학교를 14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성폭행을 당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그 전에도 병원도 다니고 했었어요. 성폭력 센터 연계돼서 거기서 병원 연계 시켜줘서 약도 먹고 다 했었는데 그게 문득문득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병원은 제가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정신병원이니까 다 쳐다보고 혼자 스스로 위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꿈드림 센터 이런 데는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런 데랑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같이 지원을 해주면 눈치 안 보고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④ 기대 없음

기존 패널	“기대한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가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갔었거든요.”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아무 기대 없었어요. 장소가 똑같은.”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⑤ 경제적 지원

기존 패널	“저를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크게 나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좋은 대안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서 되게 좋게 그리고자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저 같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탈학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탈학교 하면서 탈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저는 되게 잘 된 케이스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규직으로 일도 했다가 어느 정도 최저 임금이랑 주휴수당은 챙겨 받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최저 임금도 못받고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솔직히 탈 학교를 하고 탈 가정을 하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본인 식대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 교통비로 돈이 나가는데 알바 해봤자 5, 60만원 밖에 못 버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아직까지도 저는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카드를 한 번 잘못 만들어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거죠. 저도 그렇고.”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지금은 부모님이랑 사는데 그 때 반 년 정도 나가 살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하라고 그래서 다 체크했었어요. 네, 일을 잠깐 쉰 상태니까 돈의 압박이 있어서.”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버스비 지원.”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네, 저희 센터가 한 달에 1번씩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2) 꿈드림센터에서 제공받은 실제 서비스

꿈드림센터에서 제공받은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이라고 답했다. 6명의 청소년이 학업지원이라고 응답했으나 5명의 청소년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4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 4명이 상담이라고 답했고, 1명의 청소년이 관계 개선이라고 응답하였다.

기존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 및 자격증 취득, 1명의 청소년이 관계 개선이라고 응답했으며 5명의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무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꿈드림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수준과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업지원과 관계 개선에 각각 1명씩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5명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무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업형 청소년들의 기존 기대영역이 주로 취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특히 취업지원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신규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학업지원이라고 응답했으며 4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 4명이 상담이라고 답했다.

① 학업지원

기존 패널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땄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손재주를 쓸 수 있는 공예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손재주와 관련된 내용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여쭤볼 게 받았던 서비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격을 딴 건 목공예3급이에요. 역시 자격증. 제과제빵이 가장 먼저였고요. (두번째는 요리?) 네."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검정고시 준비."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검정고시."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② 제공받지 못함

기존 패널	"아니오, 그런 쪽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기 보다는 늘 저 혼자 했죠. 서비스는 크게 없었어요. (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세계 이해, 이런 것도 혹시 상담 받은 적이 있으세요?) 상담 받기 보다는 백스코에서 직업이라고 뭐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꿈드림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갔다가 돌아다닐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한 직업 어쩌고 하는 그런 거라서 여러 가지를 보기는 했죠"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아니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심리 상담 정보 제공을 센터에서 6월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오,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만 했었는데 심리 상담보다는 진로 상담에 가까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식으로 대화만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딱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그러면 상담이랑 직업 관련한 교육이나 자격증,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었는데 센터에서 이용한 건 전혀 없었어요?) 직업은 안 해 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비스 받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없을걸요."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아니오. 제가 받은 건 없어서 제공을 안 해서 정보를 받은 것들이 없는데. (학원비 지원은 받은 게 있나요?) 아니요. (일자리 알선은?) 없습니다. 어쨌든 있었지만 대상이 안 되거나 추가 방문이 없어서 받지 못하신 것 같고 그쪽에서 학원비 지원, 일자리 알선은 특별히 주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희망하셨던 게 관계 문제 상담 이런 걸 희망하셨는데 받지 못하신 걸로 이 되고요.) 네."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③ 취업지원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돈보스코 학교."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이랑 취득."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④ 상담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심리상담."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관계상담, 직업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⑤ 관계개선

기존 패널	"(그리고 또 요청했던 게 관계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친구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냥 센터 애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3)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처

꿈드림센터 제공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꿈드림센터 자체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 연계로 나뉘었다. 20명 중 7명의 청소년이 자체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의 청소년이 외부 연계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했고, 무응답이 9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자체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청소년이 외부 연계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꿈드림센터 내 자체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은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부 연계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무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규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자체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의 청소년이 외부 연계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① 센터 자체 제공

기존 패널	"(그러면 검정고시 학원도 취업도 외부에서 받으셨는데 센터 내부에서 받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세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나 직업 찾기 프로그램 상담 같이."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이건 센터 내에서 선생님한테 받은 거죠?) 네."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거의 한 달에 1번씩 3, 40분 정도 가끔 받았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자주 받았어요."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봉사 동아리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만들어졌어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같은 거 만들고 개선할 때 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영 아닌 게 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생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입장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도출해내고 꿈드림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② 외부 연계 서비스

기존 패널	“학원에서 했어요. 저는 부분 합격한 게 있어서 학원으로 넘어가서 땄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협동조합은 센터에서 소개를 시켜준 곳인가요?) 네,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했거든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일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취업 직업 학교인가를 갔어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건강검진 하는게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하셔서 한다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죠?) 네.”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4) 외부 서비스 제공 이유

꿈드림센터에서 자체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외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명 중 2명이 응답하였으며, 18명은 무응답이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기존 패널이었으며, 장소와 기간 때문이라고 답했다. 1명의 청소년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장소의 협소함을 이유로 꼽았으며, 1명의 청소년은 참여기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① 장소 협소

기존 패널	“(쿠킹아트 지도사 자격증, 이것도 센터 안에서 진행이 되나요?) 센터는 아니고 따로 가게 같은 데서 빌려서.”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② 기간이 맞지 않음

기존 패널	“(7월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쭉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7월에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5) 지원 서비스 만족도

꿈드림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의 청소년이 불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1명이 무응답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의 청소년이 불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한 4명의 청소년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 "충분했어요.", "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업형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꿈드림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2명의 청소년의 경우, 센터의 선생님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외부 활동과 관련하여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그 중 '학업형', '무업형' 청소년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청소년이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① 만족

기존 패널	"(이건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재밌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혹시 이런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어요?) 네. 많이는 못 친해졌죠. 제가 아직은 사람을 잘 못 사귀겠어서.."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충분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진 못했는데 저는 충분했어요. (책값도 지원 받고 학원비도 지원 받았고 수강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셨고 특별히 불만스러운 건 없었나요?) 네, 그건 없어요. 학원 강의를 재밌게. 네, 불만은 따로 없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이게 도움이 됐어요?) 네. (혹시 목표가 대학 진학과 관련된 도움이었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학교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하셨는데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자기 소개서 적을 때도 아무래도 상담 같은 거 많이 받다 보면 제가 쓸 내용 같은 것도 보완이 되고요. (그러면 4, 5번 정도 받으셨겠네요. 이 서비스도 외부에서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거기랑 진행을 하셨고 상담 받은 건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나요?) 아무래도 힘든 점을 얘기 했을 때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죠. 아무래도 도와주시려고 감사하다고 느꼈죠."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네. 선생님들이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개인에 조금씩 맞춰서 얘기해 주시고."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실제로 저번주에도 선생님께 검정고시 원서 갖다 줘서 이것 좀 해달라고."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② 불만족

기존 패널	"(그러면 이용했던 서비스 중에 아쉬웠던 건?) 자기 개발 서비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짧게 진행됐나요?) 총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서 약간 목공 거기서 한옥 건설처럼 못 안 쓰고 짜맞추기로 하는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캐드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듣긴 들었죠. 딱 하루하고 체험만 하고 끝났어요. 직업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체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설 소개만 하고 끝났어요. 시설의 개요, 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시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대부분하고 건설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캐드, 이런 거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목공 하는데 잠깐 10분하고 집에 가자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거기 안내 해 주신 선생님도 미안해했고 불만스러웠고 저도 불만스러웠죠."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100% 중에 50%. 거기 가는 애들이 학교를 안다니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고 오는 거면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수업은 잘 이해를 시켜주고 어떤 선생님은 이해를 못해도 넘어가는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하기 싫어서.. 이해도 안 되니까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안 오시고, 무슨 일 있어서 안 오고, 가면 아무도 없고 그런 적도 있어서."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6) 희망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이유

꿈드림센터에서 청소년의 희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서비스 대상자의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명 중 9명의 청소년이 본인의 시간이 맞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3명의 청소년이 제공 서비스의 부족을 이야기했고, 무응답은 8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3명의 청소년이 제공 서비스의 부족했다고 답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응답한 5명의 청소년은 “얘기를 안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라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라고 답했고, 그 중 무업형,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공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3명의 청소년은 “뭐 딱히 해 주겠다. 못해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센터 쪽에서 이건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부족해서.” 라고 답을 하였으며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리하면, 무업형의 경우 취업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비율도 높았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무업형이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업형의 경우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프로그램과 센터 선생님에 대해서는 만족한 결과로 나타난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희망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에서도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취업이나 본인의 미래지향적 삶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나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센터의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반면 직업형의 경우 장소나 거리 등 개인적인 여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의 기대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공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직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적이며 더 적극적이고, 동시에 취업경험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기대치가 선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패널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활동을 비롯해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존 패널	“(혹시 서비스를 받은 건 아니죠?) 네. (이유가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서비스들이 시간이나 위치 때문에 왔다 갔다하기가 그리고 덕천이라고 집이랑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집에 가려고 하면 버스 타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안했던 것 같은데요.”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시간이 난 게 어떻게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 때는 거의 맞지 않아요. 어디 가지 못해서 친구들이 놀러 나오라고 그래도 못 나가기 때문에.”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없을 걸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고 오라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상담 받고 전화 와서 요리 어쩌고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알바 야간 알바라서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 오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안 나가서 끊긴 것 같아요. 주말이나 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했을 텐데.”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제가 꿈드림에 다시 재방문을 안 해서 지원은 되는데 (한 번만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때 못 가게 된 한 번 방문하고 안 가셨다고 하셨는데 안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는 안 급했나 보죠.”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아니오.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가죠. 시간도 안 맞고 일 안 하기 전에는 귀찮아서.”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무슨 공예 같은 건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② 제공 서비스 부족

기존 패널	“딱히 뭐 해 주겠다. 못해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검정고시 얘기만 하고 검정고시 보셨으면 저희 쪽에서 도와줄 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번호 알려주시고 심리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특별히 얘기는 없었고 지원 따로 해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야간 대학교 얘기했다고

	했는데 대학 관련해서 진학 정보를 따로 준 게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얘기만 들어주셨어요. 대학 다니고 싶다. 그러냐."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아예 그냥 그리고 3번 만났나 연락이 없었어요.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줄 수도 있고 외부 쪽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게, 라는 얘기가 따로 없었어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었고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고 알아봐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얘기가 없었어요."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아니오, 이것도 만약에 무슨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로 아동 급식 카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이건 조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수영장은 어떻게?)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밑에 수영장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들었어요. 이미 딴 거에 뒤로는 준비 중인 게 많았어요. 메이크업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원하는 쪽은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쪽이었어요. 네, 센터 쪽에서 이건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부족해서."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7) 본인 희망 서비스 이외에 권유 받은 서비스

꿈드림센터에서 본인이 희망했던 서비스 외에 권유받은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였다. 20명 중 5명의 청소년이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활동 프로그램을 이야기 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1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0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1명의 청소년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을 권유 받은 청소년들은 "글씨 같은 것도 괜찮고 일단 이런 거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찾아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전통차도 있고 바리스타가 있다고 그래서 전통차도 재밌고 바리스타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바리스타 배워볼래? 라고 해서 바리스타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1번 만드는

거예요. 그때 케익 만드는 것처럼 나오라고 했는데.” 라고 응답하였고 주로 ‘학업형’,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정고시를 권유 받은 청소년은 “그건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 졸업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검정고시 일단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라고 응답했고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행경로별로 볼 때 직업형의 경우 원하는 서비스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업형의 경우 아직 직장생활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무업형의 경우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업형의 경우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또는 검정고시 등 다양한 서비스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형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①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기존 패널

“그게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권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선생님께서?) 네. (거의 그 전에는 검정고시나 취업 관련된 것만 들었었는데 문화 예술 쪽으로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소개 해 주시면서 어떤 이유로 네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으세요?) 글씨 같은 것도 괜찮고 일단 이런 거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찾아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바리스타 학원은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나요? 처음에 권유를 선생님이 하셨나요?) 네. (어떤 게 본인한테 어떤 이유로 이래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권했다는 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오, 이거 해봤으면 재밌을 거라고 바리스타 커피집도 많은데 한 번쯤 해보면 재밌을 거라고 해서. 그거 말고는 놀러 가는 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놀러 갈 거니까 같이 갈래? 가면 재밌을 거야 가고 싶으면 네, 가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갈게요.”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처음에 목공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잘 소개를 시켜준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 입으로 목공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바리스타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본인이 바리스타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전통차도 있고 바리스타가 있다고 그래서 전통차도 재밌고 바리스타

	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바리스타 배워볼래? 라고 해서 바리스타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제가 선택하는 게 오래 걸려서 차라리 누가 너 이거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자격증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걸로 해볼래? 그러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② 활동 프로그램

기존 패널	-
	"속초인가, 센터 선생님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했는데."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신규 패널	"센터 안에 친구랑 해서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간단하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애기도 좀 해주고. 원래 다른 선생님들 대신 해주시다가 자리가 비어서. 그냥 제가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서 하게 됐고, 인턴이다 보니까 작게나마 제가 스스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어서."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③ 검정고시

기존 패널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 졸업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굳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선생님이 왜 추천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요청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거 말고 없었나요? 아예?) 검정고시 말고 없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권유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권유를 했죠."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④ 취업지원

기존 패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네. (취업과 관련해서?) 네, 자격증이랑 취업 관련해서 얘기해주시고. 거기서 취업을 할 때 성격 유형 조사인가 그거 테스트를 먼저 하고 저한테 맞는 직업들을 추천해 주시는데 쭉 제 얘기를 들어봐요. 어디로 관심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추천도 한 번씩 해 주고 그랬어요.”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8) 서비스를 권유한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본인이 희망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권유한 사람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주로 센터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20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7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명의 청소년이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9명의 청소년은 “네. 선생님이 금연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신청해서 갔어요.” 라고 답을 하였으며 희망 외 서비스는 주로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기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무업형의 경우는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신규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① 센터 선생님

기존 패널	“선생님께서?) 네. (거의 그 전에는 검정고시나 취업 관련된 것만 들었었는데 문화 예술 쪽으로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선생님들이 전통차도 있고 바리스타가 있다고 그래서 전통차도 재밌고 바리스타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바리스타 배워볼래? 라고 해서 바리스타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박○○ 선생님. 그냥 바리스타 같은 것도 배우고, 제과제빵도 하고 이것 저것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족들한테 말했더니 좋다고 빨리 가서 하라고 했어요..”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애들이 안간다고 하면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억지로 데리고 가려는 게 있었어요. 저는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데려가서. 센터 안에서도 1박 2일로 자고 저녁 해 먹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9) 권유 서비스의 제공처

꿈드림센터에서 권유를 통해 경험한 서비스의 제공처는 주로 꿈드림센터의 자체 제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기존 패널 청소년이 답하였고 20명 중 3명의 청소년은 권유 받은 활동이 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자체 서비스였다고 응답했다. 1명의 청소년은 외부 기관과 연계 된 서비스를 권유 받고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16명이었다. 권유 서비스를 센터에서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① 센터 자체 제공

기존 패널	“(이건 센터에서 직접 가는 거였나요?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서 직접.”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주로 캘리그라피 서비스도 센터 내에서 진행했어요?) 네. (그러면 전문 선생님이 오시나요?) 강사 분이 오세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신규 패널	-

② 외부 연계

기존 패널	“(바리스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수업이 있었어요. 다른 학원 연계해서 저희 꿈드림 센터에서 몇 명해서 2, 3달 정도. (바리스타 학원인가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를 배웠죠. 네, 아무 학원이나 가는 게 아니고 꿈드림 센터와 연계되는 학원이 따로 있대요.”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10)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중 7명의 청소년이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11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1명의 청소년이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청소년은 주로 "재미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느낌.", "굉장히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등의 응답을 하며 흥미와 관련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 '직업형', '무업형' 청소년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1명의 청소년이 권유 받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① 만족

기존 패널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이용해보니까?) 재밌었어요.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센터 애들을. (만나서?) 네. (센터에서 해주신 건강검진은 도움이 됐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심리적인 안정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취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느낌 그러니까 취업은 일은 일인데 제가 취미보다는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걸로 찾았고 일도 4년 하다가 캘리그라피를 계속하면서."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죠.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해보니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수업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목공예 서비스?) 네, 충분히 저는 재밌었어요. 남자애 1명은 재미 없었는지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는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재밌었고. 실전 위주로 배워서 되게 만족했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

	자, 무업형)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할까요. 대화하는 게 괜찮았고 이해를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괜찮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검정고시도 그렇고 일단 자꾸 연락이 오니까 저로서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좋았죠. 혼자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네, 혼자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가서 한 번에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편했었고 그런 게 좋았죠.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그러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웠어요?) 네. (검정고시 강의 듣는 것들은 만족하세요?) 네. (불만스럽거나?) 잘 되어 있어서. (강사의 질도 충분히 괜찮았다?) 네..”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② 불만족

기존 패널	“그런 건 없었어요. 딱히 바라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원하는 거 없이 자발적으로 간 거라 뭘 해 주겠다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없었어요. 기분 나쁜 것도 없었고.”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했던 거라서. 제가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성격이 좀 그랬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말다툼 한 적도 있는데, 처음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못한다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안그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건데 왜 그러냐고.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어떤 할머니 분들도 있어서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짝을 지어서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하고 짝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3)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1) 사례관리자와의 월 만남 횟수

꿈드림센터의 사례관리자와의 월 만남 횟수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월 3~4회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1회 미만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나거나 월 10회 이상 사례관리자를 만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명 중 5명의 청소년은 월 3~4회 정도 사례관리자를 만나고 있었으나 3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를 월 1회 미만으로 만난다고 답하였고 2명의 청소년이 주기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1명은 사례관리자를 월 10회 이상 만난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9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월 1회 미만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월 1회에서 4회 만났다고 응답했고 1명의 청소년은 월 10회 이상 사례관리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만났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만나진 않아요.", "한 달에 1번도 안 만났어요." 라고 응답했으며 '무업형'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한 달에 1번 이상 4회 미만 만났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 달에 1번." 이라고 답하였으며 '무업형'과 '학업형'의 청소년 비율이 비슷했다.

신규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월 3-4회 정도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주기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① 3-4회

기존 패널	"한 달에 1번 요즈음에는 이번 달은 선생님도 바쁘시고 저도 사고 터진 게 있어서 수습한다고 못 만났고요. 선생님 만난 거는 한 달에 1번 내지 계속 만나긴 해요. 일주일에2, 3번 정도, 선생님이 바쁘지만 않으면."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한 달에 주 1회 정도 만났다고 하셨고)."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한 달에 1번씩은 아니고 한 달에 3, 4번 정도."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자주 만날 대는 일주일에 1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② 1회 미만

기존 패널	“(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아예 안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네.”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한 달에 만나긴 하는 건가요?) 만나진 않아요.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그러면 그 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 뒤로 2번인가 갔었는데 그 뒤로 바빠져서.”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한 달에 1번도 안 만났어요. 두 달에 1번 만나도 많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주일에 1, 2, 3번 만나는데 프로그램이 딱히 없으면 한 달에 1번도 안 만나고 두 달 동안 프로그램 없으면 안 만나고.”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③ 주기적이지 않음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지정된 건 없고 그 세 분 중에 원◯◯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그거는 제가 센터는 자주 가지만 그런 거는 거의 한두 번이고 원래 선생님이 원하면 계속 상담을 다른 정기적인 상담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④ 10회 이상

기존 패널	“반은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반?) 그러니까 시간 나면 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카톡이나?) 네. (되게 자주하는 편이네요?) 네. (이틀에 1번 꼴로 한다는 거죠?) 2, 3일에 1번.”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신규 패널	-

(2) 사례관리자와의 1회 만남 시간

꿈드림센터의 사례관리자와의 1회 만남 시간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2시간 내외라고 답했다. 20명 중 5명이 청소년이 2시간 정도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응답했고, 4명의 청소년이 1시간 내외로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답했으며, 1명의 청소년이 1시간 미만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0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2시간 이상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응답했고 1명의 청소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명의 청소년이 1시간 미만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만난 청소년은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반면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난 청소년은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1시간 내외로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응답했다.

① 2시간 이상

기존 패널	"오래 있으면 2시간."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2시간 정도."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2, 3시간 했을 걸요."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2시간 정도."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② 1시간 내외

기존 패널	"1시간에서 2시간."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1시간 정도 짧으면 30분."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40분 아니면 1시간, 많을 때 1시간."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1시간 정도. (어떨 때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길어질 때도 있고?) 네."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③ 1시간 미만

기존 패널	“40분 정도.”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3) 사례관리자와의 주 활동

꿈드림센터에서 사례관리자와 만나면서 한 활동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 20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상담이라고 대답했고 3명의 청소년은 프로그램 관련 활동 때문에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이야기 했으며 무응답은 7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상담이라고 대답했고 1명의 청소년은 프로그램 관련 설명 및 신청 때문에 주로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했다. 사례관리자를 만나서 주로 상담을 한다고 응답한 4명의 청소년은 “주로 공부 얘기 했었어요.”, “무슨 일 있을 때 가요.” 라고 응답했고 주로 ‘무업형’, ‘학업형’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6명의 청소년이 상담이라고 대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 관련 활동 때문에 사례관리자를 만난다고 응답했다.

① 상담

기존 패널	“(그러면 센터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잘 안하시는 편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요..”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주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러 가는 편인가요?) 네.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동생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나 괜찮게 있는지 힘든 건 있는 지 물어보시고.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 여기 프로그램 참가해볼래? 여기 총 4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 해볼래요, 라고.”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종이 같은 걸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림 막 여러 가지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전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답하고 하루 일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얘기로 맞춰주신 것도 있고, 가족 불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걸로 건강검진 얘기도 하고.”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② 프로그램 관련

기존 패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거나. 네,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서 이런 거.”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그냥 안 봤던 사이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드 게임도 같이 하고.”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프로그램, 수업.”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4) 사례관리자로부터 받은 도움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에게 준 도움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정서적 지지라고 답했다. 20명 중 8명의 청소년이 정서적 지지가 사례관리자로부터 받은 도움이라고 이야기했고 3명의 청소년이 정보 제공이 사례관리자가 준 도움이라고 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가 준 도움으로 상담을 꼽았다. 무응답은 7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정서적 지지를, 1명의 청소년이 정보제공을 사례관리자로부터 받은 도움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가 준 도움으로 상담을 언급했다. 사례관리자에게 받은 가장 큰 도움을 정서적 지지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사람을 만났죠.” 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무업형’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제공을 사례관리자로부터 받은 도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찾아봐주시기도 하고.”, “검정고시 정도.” 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했다.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모든 유형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 바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정서적 지지가 사례관리자로부터 받은 도움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정보 제공이 사례관리자가 준 도움이라고 답했다.

① 정서적 지지

기존 패널	“센터에서 하는 거 있으면 잘 할 수 있다고”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찾아봐 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힘든 일 말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냥 원래 집에만 있었거든요. 사람을 만났죠. 그때.”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아무래도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되게 다 친절하셔서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너무 넘치는데 너무 좋으세요. 상담하시면서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좋지만 상담할 때 대화를 할 때 뭔가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배우고 상담할 때 제가 되게 당황스럽게 했을 만도 한데 그걸 대처하시는 것도 되게 그런 것도 배우고 진짜 어려운 거 있으면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② 정보 제공

기존 패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담 선생님한테?) 검정고시 정도.”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검정고시 프로그램이나 취업정도.”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보면 항상 상담 끝나고 다음 상담하기 전까지 선생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시는 게 좋았어요.”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③ 상담

	“(이런 프로그램 소개 시켜주는 거 말고 다른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지원 말고?) 상담.”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기존 패널	“다른 건 제가 필요한 게 적어서 딱히 없었는데 상담 자체를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건 이런 거고 필요하면 이것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담 외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담 멘토라고 할까 그런 위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다니면서 상담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5) 사례관리자의 태도

사례관리자의 청소년을 대할 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 했다. 16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으나 1명의 청소년은 사례관리자가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3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10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의 태도를 긍정적이었다고 답했으며 1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가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9명의 청소년이 사례관리자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친절함, 친근함으로 응답했고, “정말 친절하세요.”, “되게 친근했어요.”, “계속 감싸는 느낌이” 라고 답변했으며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패널의 경우, 6명이 청소년이 사례관리자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① 친밀하고 친절한 태도

	“재미있었어요.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딱 청소년 그쪽으로 주만 하신 선생님 같이 재밌게 하십니다.”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기존 패널	“저는 정말 친절하세요. 여기 리서치 연이면서 상담을 넘어올 때도 서○○ 선생님이 있고 경찰 분이 연결할 때도 서○○ 선생님이라서 저는 되게, 엄청 친절하세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네. 계속 뭔가 더 필요하면 이거 외에도 필요하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았어요. 엄마 같았어요. 아가씨지만 엄마 같았어요. 뭔가 되게 따뜻하다고 할까요. 계속 감싸는 느낌이.”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많이 편하게 대해주시는데 조금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내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는 누나처럼 대해주시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대해주시기도 하고.”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신규 패널	“굉장히 친절하셨고 말투도 되게 학생마다 담당이 다른데 잘 해주셨어요. 담당하고 있는 학생한테. (믿음이 있으세요?) 네. (어떤 믿음이 있는지?) 선생님 얘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은 잘 모르겠어요.”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② 사무적 태도

기존 패널	“네,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게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완전 할 말을 잃으신 것처럼. (도와줄 게 없다?) 네, 내가 해 줄게 없다고. (왜 도와줄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로 이런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로 상담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 확고하고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더 해 줄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저를 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되게 컸어요. 그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그때 선생님 행동 표정 말투 다 기억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할까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6)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또래친구와 다른 선생님이라고 답하였다. 20명 중 7명의 청소년이 또래 친구라고 응답하였고, 4명이 다른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명의 청소년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응답은 7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또래 친구라고 응답하였고 2명이 다른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1명의 청소년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으로 또래친구를 꼽은 청소년은 "친구나 언니, 오빠.", "친구들." 이라고 응답했으며 주로 '무업형' 청소년이었다. 다른 선생님을 꿈드림센터에서 만났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기본적으로서○○ 선생님.", "얼굴들은 다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이라고 응답했고 '무업형'과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5명의 청소년이 또래 친구라고 응답하였고, 2명이 다른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1명의 청소년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① 또래친구

기존 패널	"친구나 언니, 오빠, 네."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친구들이나?"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봉사활동 할 때 만났던 친구들."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검정고시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나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만난 또래들."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② 다른 선생님

기존 패널	"(선생님 중에서는 상담 선생님만 만나고?) 그러니까 얼굴들은 다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서○○선생님 말고 다른 분 만난 분은 있어요? 지원 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 선생님인데 지금은 창업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은 황○○ 선생님이라고. 지금 전주에 남아 있는 친구는 1명이고요. 연락은 되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다 예술이라서 미술과라서 서울 미술 쪽 관련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 ○○팀에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 프로그램 했던 것 중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었거든요. 1급, 그거 할 때 만났던 선생님하고도 종종 잘 지내냐, 이렇게 하시고."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검정고시 선생님."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③ 없음

기존 패널	"(그러면 지원 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스타 선생님도 있고 거기서 아마 친구들이 있는지 바리스타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만난 친구들이나 멘토가 있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락하시거나?) 수업 이후로 거의 연락 안 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해요."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없어요. 만난 적은 있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냥 거기 있는 애들이랑도 안 맞더라고요."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7)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과의 만남 계기

사례관리자 외의 사람을 만난 계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센터 내에서 만났다고 대답했다. 20명 중 7명의 청소년이 센터 내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자 외의 사람을 만났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13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센터 내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자 외의 사람을 만났다고 응답했다. 이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규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센터 내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자 외의 사람을 만났다고 응답했다.

① 센터 내 만남

기존 패널	“(친구, 언니, 오빠들 같이 센터 이용하는 분들 다 센터에 와서 새롭게 사귀신 거죠?) 그렇죠. 다 알진 못해요.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 센터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졸업식에서도 만나고 어디 갈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센터끼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스키 캠프 작년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왔었어요.”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그러면 캘리그라피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좀 친해진 친구들은 아까 캘리그라피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그 수업 들으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처음 만났는데 다 서로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말도 트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는 사이냐고.”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이 분도 같이 그쪽 분인데. 네, 지원 센터인데 ○○선생님는 직접 중학교나 다른 학교 가서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상담,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기억해요.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많은 아이들이5명 이상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좀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쪽에, 많이 알진 못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꿈드림을 이용했다고 하고. 우이랑 동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걸거나 그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서 친해지고.”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가기 전부터 알던 애들도 있고.”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8)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를 통해 만난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

사례관리자 외에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2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이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답했지만 2명의 청소년은 보통의 관계였다고 응답했고 2명의 청소년은 친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13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이 이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답했고 2명의 청소년이 보통의 관계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1명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학업형 청소년으로 “과자도 사서 나눠먹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친해지지 않았나.” 라고 응답한 반면 관계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라고 답변하였으며 주로 무업형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거리를 뒀어요.”라고 응답하며 관계에 대해 불만족으로 나타낸 청소년은 무업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이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답했지만 1명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① 좋음

기존 패널	“센터 밖에서도 시간 날 때 가끔씩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할 때도 한 번씩은 일주일에 1번씩은 꿈드림 밑에 문화의 집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서 노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주로 갔던 것 같아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신규 패널	“다 친하고 괜찮았어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남자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동갑 애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② 보통

기존 패널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몇 번 만나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안 만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③ 좋지 않음

기존 패널	“거리를 뒀어요.”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있는데 별로 나오는 애들이 없어서. 그리고 다 남자라서 친해지고 싶지 않고.”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4) 꿈드림센터 이용 결과

【계속 이용자】

(1)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 이유

꿈드림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드림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였다. 중복응답을 포함하였고 8명 중 4명의 청소년이 선생님과 센터 분위기 때문에, 3명의 청소년이 서비스 제공 때문에, 2명의 청소년이 자율성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말했다.

기존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상담선생님 때문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상담 선생님을 꿈드림센터 이용 이유로 꼽은 청소년은 “선생님이 친근하고 친구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제가 고민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상담선생님이 좋아서.”라고 응답했고 이들 중 ‘학업형’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프로그램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이용한다고 말한 청소년은 “재밌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좋은 것 같아서.” 라고 응답했고 이들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자율성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말했고 각각 1명의 청소년이 선생님 및 분위기, 서비스 제공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① 상담선생님

기존 패널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좋아서?) 네.”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선생님이 친근하고 친구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제가 고민 털어 놓을 수 있으니까.”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서비스는 3이고 사례 관리자쪽은 7정도 줄 수 있어요.”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선생님들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선생님들이 먼저 장난도 쳐주시고.”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② 프로그램

기존 패널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좋은 것 같아서.”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③ 자율성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자유가 있으니까 계속 가게 된 것 같아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요즘은 거의 인턴 업무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가족이랑 같이 써서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가족이 쓰고 있으면 꿈드림에 가서 인강 들으러 가기도 하고 저는 항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2) 꿈드림센터 이용 예정 기간

꿈드림센터를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주로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8명의 청소년 중 6명의 청소년이 계속해서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명의 청소년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렇게 대답한 청소년들은 꿈드림센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명의 청소년들은 “제한 나이까지”, “저는 제가 끝날 때 까지.” 라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계속해서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명의 청소년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① 계속 이용 예정

기존 패널	“아마 24살 되기 전까지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저는 제가 끝날 때 까지(거기서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네.”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별 일이 없으면 학교 졸업하고 성인 돼서도 서울에 계속 살면 간간히 가야죠.”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꿈드림센터를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학교 밖 청소년이어야 혹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될랑말랑하는 청소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학교 밖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닌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학교 다녔던 애들이 스승의 날에 모교 찾아가듯이 그렇게 종종 들리긴 할 것 같아요.”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② 모르겠음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검정고시 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3) 꿈드림센터 이용 후 희망하는 일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후에 희망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 8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진학을 희망한다고 답하였고 2명의 청소년이 모르겠다는 응답하였으며, 1명의 청소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꿈드림센터 이용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대학은 가야 되는데.” 라고 답했으며 ‘무업형’ 청소년이었다. 반면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아직 그 이상은.”, “딱히 계획하고 있진 않아요.” 라고 답했으며 무업형 과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각각 1명의 청소년이 취업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① 진학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대학 간호학과.”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② 모르겠음

기존 패널	“아직 그 이상은.”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딱히 계획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은.”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③ 취업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본 거는 아빠가 일하는 데서 저도 아빠를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4) 희망하는 일에 대한 꿈드림센터 도움 가능성

꿈드림센터가 본인이 희망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명의 청소년 중 4명의 청소년이 도움의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무응답은 4명이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명의 청소년은 학업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1명은 취업지원이, 1명은 정보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존 패널의 경우, 각각 1명의 청소년이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이라고 답했다. 학업지원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진로는 캘리그라피 쪽도 선생님들이 생각해주고 계시니까.” 라고 답했고,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반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직업체험이나 자격증.” 이라고 응답했으며 무업형 청소년이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은 학업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1명은 정보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① 학업지원

기존 패널	“(혹시 그러면 그 후에 다른 진로를 찾더라도 학업 쪽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진로를 찾는데 센터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진로는 캘리그라피 쪽도 선생님들이 생각해주고 계시니까.”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신규 패널	“근데 도움이라고 해도 공무원 같은 거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알려주고 그냥 검정고시처럼 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신1, 남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② 취업지원

기존 패널	“여러가지 직업 체험 활동이나 자격증.” (기5, 여성, 23, 계속이용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③ 정보제공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저는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면 그런 정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이용 완료자】

(1) 꿈드림센터 이용 이유

꿈드림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드림센터를 이용했던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규 패널이 주로 응답을 하였으며, 3명의 청소년 중 2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말했고, 각 1명의 청소년이 또래친구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이용했었다고 대답했다.

① 프로그램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그냥 계속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센터에서 검정고시만 하려고 했었는데 솔깃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게 됐고.”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학교를 안 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전문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중졸 먼저 해야 한다.”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② 또래친구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나중에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방문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자 저런 프로그램 하자고 얼떨결에 계속 붙어 있게 됐어요.”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2) 꿈드림센터 이용 후 목표 성취 여부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후 본인의 목표 성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규 패널이 주로 응답을 하였으며 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성취했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1명이었다. 목표로 했고 성취한 목표에 대해서는 2명의 청소년 모두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응답했다.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목표 한 거를 이루었나요?) 네. 검정고시 합격한 거.”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성취했어요?) 네. 검정고시 합격한 거.”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3) 목표에 대한 꿈드림센터 도움 여부

본인이 목표한 것에 대해 꿈드림센터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규 패널이 주로 응답을 하였으며 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고

무응답은 1명이었다. 응답한 2명 중 1명의 청소년은 적응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1명은 정보 제공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적응지원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자퇴하고 나서 따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센터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2, 남성, 19, 이용완료자, 학업형)

② 정보제공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많이 받았다고 느껴요. 15년도에 시험 풀어서 알려주시거나.”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이용 중단자】

(1)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전 이용 기간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드림센터를 얼마나 이용 후 중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9명 중 2명의 청소년이 센터에 1회 이하로 방문 후에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하였으며, 2명의 청소년이 6개월 미만으로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후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5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1회 이하 방문 후에 중단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1명의 청소년이 한 달 이상 이용 후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1회 이하 방문 후에 꿈드림센터를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위센터 이후로 원래 안 나갔는데 계속.”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이었다. 한 달 이상 이용 후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을 중단한 청소년은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인적 이유 때문에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① 방문 1회 미만 후

기존 패널	“(그러면 센터 이용을 하다가 이 질문이 되게 그렇긴 한데 학교 밖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얼마 후에 중단을 했나, 초기 상담을 하고 안 나가신 거잖아요?) 위센터 이후로 원래 안 나갔는데 계속.”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이용하고 얼마 만에 중단하셨는지 1번 가고 안 가셨죠?) 네.”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② 한 달 이상 6개월 미만 이용 후

기존 패널	“(그러면 어쨌든 짧긴 했지만 2, 3개월 동안은 거의 3개월 정도 꾸준히 다니셨는데)”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신규 패널	“2016년 4월부터 8월. 검정고시 합격 후 중단.”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2)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는 아르바이트와 센터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답했다. 9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이유로, 2명의 청소년이 센터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했다고 응답했으며 무응답은 6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센터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거기 꿈드림 센터 왜 연락 안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응답했고, 그들은 ‘직업형’과 ‘무업형’ 청소년이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이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① 센터의 소극적 태도 때문

기존 패널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괜히 가서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나한테 유익한 게 없을텐데 가서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아예 안가셨고?) 생각 자체를 안했어요..”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제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거기 꿈드림센터 왜 연락 안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 관련해서 이런 강의가 있는데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 이용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거기 가기가 좀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② 아르바이트 때문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알바 때문에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되서”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3) 추후 꿈드림센터 재이용 의사 여부

추후 꿈드림센터를 재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9명 중 3명의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추후에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1명의 청소년이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이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당연히 갔죠.”, “알바 안할 때 왔으면 나갈 수 있죠.”, “들어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 했으며, 주로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1명의 청소년이 자발적 의지보다는 강제성을 이유로 방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① 있음

기존 패널	“(이건 만약인데요. 센터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선생님마다 상황이 다른데 꿈드림 센터에서 ○○씨한테 예를 들어 목공을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공을 배우거나 뭘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와볼래? 라고 연락을 하셨으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갔죠.”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알바 안할 때 왔으면 나갈 수 있죠. (시간이 될 때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을 때 이용을 했을?) 네.”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들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다 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근처에도 없지 않아요? (혹시 본인이 자주는 못가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꼭 갈 생각이 있다는 게 있나요?) 있죠. 일단 학교를 그만 뒀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데 일단 수학여행이나 그런 여행 쪽, 소풍 같은 거 체험 학습에 대해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가고 싶죠.”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② 없음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아니오. 지금 제가 바빠서. 선생님들께서 다 바뀌셔서 별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신5, 여성, 20, 이용중단자, 학업형)

5) 꿈드림센터 개선 방향

(1) 꿈드림센터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꿈드림센터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명의 중 4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필요 요인이라고 답했고 3명의 청소년이 운영시간과 장소를 비롯한 꿈드림센터의 접근성이라고 응답했으며, 2명의 청소년이 대상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2명의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명의 청소년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필요 요인이라고 이야기 했다. 반면 3명의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하며 현재 꿈드림센터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무응답은 5명이었다.

기존 패널의 경우, 4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꿈드림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라고 답했고 3명의 청소년이 운영시간과 장소를 비롯한 꿈드림센터의 접근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각각 1명의 청소년이 서비스의 다양성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꿈드림센터 발전을 위한 요인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두면 검정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어요.", "확실한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라고 답했고 이들 중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접근성을 꿈드림센터 발전의 필요 요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주말이죠.", "제가 가는 지원 센터는 너무 높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고 주로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규 패널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이 대상자의 요구 사항을 꿈드림센터가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였고 1명의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① 프로그램의 전문성

기존 패널	"학교 그만 두면 검정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출신 대학생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강사.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바로 취업하는? (일자리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3,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나이쯤 되려면 18살쯤 될 거잖아요. 분명히 18살이면 자기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일 텐데 배운 것도 많이 없을 거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나 그런 걸 검사를 하고 적성 테스트를 하고 그런 쪽으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자격증이나 정보를 제공을 해 주거나 교육을 해 주거나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7, 남성, 21, 이용중단자, 무업형)
	"아무래도 만약에 수학이면 영어 같은 거 선생님들, 만약에 멘토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어요."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강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할 줄 알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것도 저것도 가르치는 식이라서 확실한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취업과 관련해서도 희망하는 게 많으면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기12,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② 센터 접근성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지원 센터는 너무 높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어려운?) 내려서 더 걸어야 되는데 엄청 산을.” (기4, 남성, 20, 계속이용자, 무업형)
기존 패널	“(앞으로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를 이용하려면 언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을까요?) 주말이죠. (시간대는 오후?) 네. (토, 일요일 다 괜찮으세요?) 일하는 게 때에 따라서 다른데 된다고 그러면 토요일도 상관없죠. 저녁 시간이면 거리가 있어도 제가 끌리면 가는 거죠.” (기10, 남성, 19,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③ 대상자 요구 사항 반영

기존 패널	-
	“프로그램 학생들 10명 정도 있으면 거기서 4명 정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1번이라도.” (신3, 여성, 19, 이용완료자, 무업형)
신규 패널	“저희 센터는 없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있는 센터마다 가끔씩 회의를 하는데 센터에 대해서,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끼리?) 네. 선생님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나요? 청소년들끼리?) 저희 센터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센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8, 여성, 19, 계속이용자)

④ 홍보 필요

기존 패널	“많이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고. (실제로 잘 모른다?)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 그만 두고 나서 그런 기관을 찾아보려고 할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그게 검색을 해보면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돈 내고 상담 받아야 하고 근데 저는 부담이 되니까. 그냥 광고네, 말아버리니까. (주로 검색을 해도 쉽지 않고 많이 알려져야 된다?) 네. (혹시 또 다른 게 있으세요?) 소식지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주면 읽어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걸로 가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같은 걸로 해서 올리면..” (기6, 여성, 22,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일단 홍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고.” (신6, 여성, 19, 계속이용자, 학업형)

⑤ 다양한 서비스

기존 패널	“수업 내용 체계적으로. 일단 취업에 관한 거 자격증 같은 것도 여러 분야로 했으면 좋겠고 취업성공패키지랑 비슷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일자리 소개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게 교육 같은 것도 또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이랑 연계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대입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대학교 가는 것도..” (기1, 여성, 19,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

⑥ 없음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제가 많이 나갔더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끔씩 나갔고 선생님들도 워낙 좋은 분들이고 잘 챙겨주셨고 학생들과는 친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어디가 개선되야 되는지 없는 것 같은데.”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이 거의 저희한테 맞춰주세요.” (신7, 남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2) 도움이 필요할 때 꿈드림센터 재방문 의사 여부

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꿈드림센터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주로 기존 패널 청소년이 응답했으며 2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4명의 청소년은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3명이었다. 꿈드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센터는 계속 나갈 예정이에요.”, “반년 남았는데 그동안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야 되지 않나.” 라고 대답하였으며 주로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해도 꿈드림센터를 방문하지는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혼자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답하였으며, 주로 ‘무업형’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있음

기존 패널	“센터는 계속 나갈 예정이예요.” (기2, 여성, 22, 계속이용자, 학업형) “(그러면 혹시 추후에 다시 어쨌든 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이쯤 되면 다시 취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생활적인 면이나 그럴 때 센터 아까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용 못한다.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다시 방문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기9, 남성, 21, 이용중단자, 학업형) “실 심리 상담은 저도 연락이 오고 나서 작년에 갔었지 생각이 나서 뭐 더라 그랬었는데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갈까 싶은 거죠. 올해 꿈드림도 나이 24세가 끝이잖아요. 반년 남았는데 그 동안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심리 상담은 평소에도 계속 자비로라도 상담 말고 정신과 병원에 가볼까 싶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 때문에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죠.” (기11, 남성, 24, 이용중단자, 직업형)
신규 패널	-

② 없음

기존 패널	“방문해도 딱히 24살 넘어가면. 그렇기 보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기1, 여성, 19, 계속이용자, 무업형) “어차피 저 혼자 하는 거나 거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혼자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기8, 여성, 22, 이용중단자, 무업형)
신규 패널	“부르면 가겠죠. 자발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신4, 남성, 21, 이용완료자, 직업형)

3. 담당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1) 꿈드림센터 현황

(1) 센터별 월 평균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수

월 평균 꿈드림센터에서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사례관리자 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소재의 시도센터에서 1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었고, 가장 적은 2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곳 역시 대도시 소재 구센터였다. 그렇지만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센터의 직영이나 특성에 따라 인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검정고시가 다가올 즈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방문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센터의 직영이나 특성에 따라 인원의 편차가 큰 것은 청소년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규모와 지원 가능한 청소년 수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의 센터별 적절한 배분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사례관리자 중 3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70명 이상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 1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청소년을, 1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50명 이상 70명 미만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① 대도시

"(최근 한 달 정도 기준) 지금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백 여명 되는 것 같은데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20명에서 25명 정도 계속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복교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시즌에 따라) 전반적인 수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는데 애들이 검정고시 기간이 되면 적극성을 보이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② 중소도시

"지금 관리하는 애들만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유선 관리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50명 넘죠. 계속 발생되는 대로 등록하고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아이가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근 지역도 저희가 관할을 해요. (… 중략 …)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보지는 않았는데 50명에서 100명은 안 되는데 조금 늘어서 6,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③ 읍면지역

"자주 방문하고 저희가 접촉을 자주하는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전화 관리도 하는 학생들까지.) 그 정도하면 거의 (매달) 평균적으로 35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2) 월 평균 사례관리 청소년 수

월 평균 사례관리자가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사례관리자 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한 달 평균 10명에서 최대 5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었고 각각의 센터 별로 편차가 큰 편이었으며, 같은 소재지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내에서도 관리하는 사례 수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사례관리자의 경우 역시 센터별로 관리하는 청소년 수에서 편차가 크다면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례관리자 한 명당 최대관리가능인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10명의 사례관리자 중 4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1명 이상 20명 미만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 1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40명 이상 60명 미만의 청소년을, 1명의 사례관리자가 한 달에 60명 이상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2명이었다.

① 대도시

"제가 담당하는 아이가 3, 40 정도 되지 않을까"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제가 케어하는 친구들은 15명 정도"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② 중소도시

"제가 사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54명."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한 달 반 정도 했을 때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전화도 해요. 방문 내방도 같이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애들이 각자 관리하는 애들이 35명 가까이 될 거예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읍면지역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3) 전담 인력 수 및 담당 업무

겸직, 계약직을 포함했을 때 꿈드림센터의 근무 인원은 최소 2명부터 최대 6명까지였다. 대부분의 경우 팀장/센터장은 겸직을 맡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인턴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 구분은 사업별로 나뉘고 있으며 크게는 '학업', '진로취업', '자기계발' 등으로 구분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명의 사례관리자 중 5명의 사례관리자가 꿈드림센터 전담 인력수가 3명 이상 4명 이하라고

답했다. 그 외에 1명의 사례관리자가 1명 이상 2명 이하, 5명 이상이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3명이었다.

① 대도시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이요. (6명이 전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함)"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4명이고요. 팀원 2명에 팀장, 소장은 겸직이고요. (저는 자립 파트를 담당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학업이랑 건강 지원, 그리고 저는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총괄을 해 주시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랑 (다른 사례관리자 선생님 1명 해서) 2명요.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계시는데 두 분은 수련관 겸직하고 계세요. 수련관 관장님께서 저희 센터장 해 주시고 수련관 부장님께서 저희 부센터장님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② 중소도시

"현재 센터장 님 한 분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직원이 정규직 3명, 계약직 1명이에요. 총 5명."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현재 3명이에요.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올해 한 사람이 늘어나서 3명입니다. (3명 모두) 학교 밖 청소년 업무만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서 크게 사업을 하나는 학업 복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하나는 사회 진입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아이들이 자기 계발 이런 걸 해서 하는 특성화 사업이에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회 진입을 주로 담당하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총 2명인데) 저는 학업지원 파트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바뀌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진로 관계된 집단 상담도 제가 관리하거든요. 지금 진로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 오신지 얼마 안 돼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읍면지역

"한 분은 소속이 OO여성 인턴이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에요. (… 중략 …)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겸직이고 여기 실무자들은 저 포함해서 3명인 거죠. (업무 구분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 별로 나눠지는데 크게 나누자면 교육 지원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취업지원 쪽 관련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 관련해서는 3명이 같이 공통 업무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4) 업무 유형별 경력

센터장 급의 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경력이 거의 없는 경우부터 10년 이하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센터별로 신입부터 중간경력자, 고경력자까지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 유형별로는 학업지원 담당자의 경력이 다른 업무 담당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학업지원 쪽의 사업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10명의 사례관리자 중 3명의 사례관리자가 1년 미만, 3명의 사례관리자가 3년 이상 5년 미만, 3명의 관리자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가진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① 대도시

"한 분은 1년 정도 이전 경력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가 첫 직장이고 나머지 한 분은 저보다 연차가 높으세요. 12년도에 입사하셔서 그 사이에 잠깐 그만 둔 시기도 있지만 저보다 연차가 높은 분이 계시고 팀장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센터가 되기 전에 상담복지센터 사업 있을 때 시범 운영했을 때부터 계셨어요. 7, 8년 전쯤부터. 저는 사례 관리를 한지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센터에는 3년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중소도시

"1명은 석사고 경력은 센터장님은 20년 이상 되셨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분 주임급 선생님께서 5, 6년 정도 되신 걸로 들었고요. 또 한 분 선생님은 1년 정도, 계약직 선생님은 풀 타임으로 거의 여기가 처음인 것 같고. (… 중략 …) 저는 2015년 1월부터. 2년하고 7개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저는 사회 진입 부분 담당이고 직업에 관계되는 것들 훈련 연계하는 것들은 제가 주로 담당을 하죠. 경력은 2년 3개월 정도. (… 중략 …) (학업 복귀 담당하시는 분은) 2년 4개월. 자기계발 담당하시는 분은 올해 처음 TO가 생겨서 7개월차 됐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저는 학업지원 파트예요. 여기는 2015년 3월 입사했고 (사례관리경력은) 3년 4개월 정도. 청소년 동반자 했었어요. (… 중략 …) (진로담당 선생님은) 작년 10월에."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읍면지역

"상담에서 전체 사업 총괄하는 거예요. (저는 사례관리 경력이) 10년 정도 됐어요. (… 중략 …) 꿈드림센터 여기서는 2015년 2월부터니까 2년하고 5개월.. 우리 선생님들은 2년, 여기 센터가 생기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 담당 선생님은 약간 전일제로 일을 하시진 않았지만 파트타임으로 하셔서 경력이 3년 정도 되시고 나머지 한 분(취업지원 담당) 선생님은 경력이 없고 여기가 첫 직장인 거예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2) 학교 밖 청소년 유입 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성

(1) 꿈드림센터 유입 경로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의 유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유입경로로는 교육청 리스트, 보호관찰소/경찰서/위센터 등의 연계, 지인 소개 등의 자발적인 방문, 검정고시장 등에서의 아웃리치 등이 있었다. 10명의 사례관리자 중 5명이 유입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징에 대해 응답했으며, 무응답은 5명이었다. 2명의 응답자가 교육청 리스트를 통해 청소년이 유입된다고 답했으며 2명의 응답자는 친구 등의 지인 소개로 오는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센터를 이용한 친구의 소개', '부모님의 소개',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추천/연계'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 이었으며 부모님의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부모 교육 등에서 센터 안내가 이루어졌던 것을 통해 홍보 효과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교육청 리스트

"거의 도 교육청에서 오는 비율이 7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15% 정도는 보호관찰 경찰서 정도, 거기가 20% 가까이 되겠네요. 합쳐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오거나 개별적으로 오거나."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교육청이 비중이 제일 높죠. 사실 겹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비행 쪽이라서 소년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그걸로 학교를 중단하면 보호관찰소에서 나중에 또 와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40% 정도는 교육청 쪽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서에서 20% 보호관찰소 10% 이 정도고 나머지들은 자잘한 것들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서 연결되는 문화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청도 있고 시청에서 연계해 주기도 해요. 그런 기관들에서 한두 명씩 연결되는 친구들이 꽤 있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② 지인 소개

"실제로 저희하고 자주 접촉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거나 홍보 전단이나 이런 걸 보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손 잡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접촉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말하긴 어렵고 비율로 보면 7대3 정도. 저희가 40명 관리하고 있다면 70% 정도는 그냥 그렇게 손 잡고 오는 거예요. "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교육청이랑 친구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친구, 가족, 교육청에서 발굴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오기도 하고요. 저희 센터는 친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③ 기타 (친구, 부모, 청소년 전화 1388)

"친구들끼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있어서 우리 센터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만뒀을 때 찾아오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 센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주변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신다든지 또 청소년전화 1388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전화해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그만 뒀는데 어떻게 하냐는 전화가 왔을 때 저희 각 지역 관할 구역에 연락을 취해서 그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찾아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2) 유입경로별 청소년 특성 인지 여부

10명 중 2명의 응답자가 유입경로별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명의 응답자의 경우 유입경로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환경 등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응답은 6명이었다.

① 차이 있음

"상당히 많이 보이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실제로 느끼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② 차이 없음

"(유입경로 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가정이 부모가 다 있거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이게 약간 뭐가 먼저 인지 모르겠는데요. 차이가 극단적으로 보면 있겠죠. 너무 눈에 보이는 차이지만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오면 비행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주민센터에서 보내주신 경우는 은둔이나 학교 밖 청소년도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아니면 쉼터에서 연계해 주시는 경우는 약간 의료비 지원을 원하면 성 문제가 있다든지 근데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쉼터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센터 오는 친구들보다 더 고득점으로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계되는 유입에 따라서 특정을 짓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반 관계형성 시에도) 저는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는...). 태도에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거나 애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어른들이 어쨌든 저희도 낯선 어른들이니까 어른들과 지내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하거나 자기들도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 비행으로 왔다고 말하기 어렵거나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개인이)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이들이니까 다르게 개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3) 유입경로별 청소년특성

① 교육청 리스트

유입경로별 청소년특성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6명의 사례관리자 '교육청 리스트'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육청 리스트를 통해 유입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통된 성향을 보이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과 자발성이 떨어지고 조용한 편이라는 응답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다양한 자퇴 사유가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청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자발적으로 혹은 친구 소개로 온 경우보다는 적극성이나 적응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 센터로 연계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특별한 차이 없음	"다른 센터나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아이들 차이는 못 느꼈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교육청에서 그렇게 구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학교에서 중단하는 경우에도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 친구들이 중단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자발성이 떨어지고 조용함	"외부 연계돼서 오는 아이들은 자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과도 좋지 않아요. (… 중략 …) (초반 관계 형성에서) 학교에서 연계된 친구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뻘쭘하게 앉아 있는 거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교육청 리스트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보통 계획을 가지고 나온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든 다른 목적이 있든 보통은 다 검정고시나 유학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학교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다들 조금 조용한 편이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기타 (해외출국, 건강문제 등)	“약간 교육청에서 명단이 온 친구들은 대부분 해외 출국이 많은 편이에요.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굳이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 중략 …) 저희가 그 외에도 건강검진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걸 한다든지 인터넷 강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저희가 다시 서비스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도 교육청에서 오는 경우도 요즈음은 건강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중략 …) 도 센터나 치료 교실도 미술 치료실도 있어서 개입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안내를 해 줄 때 주로 대구 쪽으로 안내를 해 주거든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② 보호관찰소/경찰서

유입경로별 청소년특성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사례관리자 ‘보호관찰소/경찰서’로 구분하였다. 보호관찰소나 경찰에서 연계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행 성향을 보이고 센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센터에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재판 등의 이유로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사례관리자들은 오히려 비행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참여하기도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행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센터에 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검정고시 수업을 받을 시, 보호관찰소에서 이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검정고시 수업을 듣는 반면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성향을 보이며, 적응을 어려워함	“보호관찰소 아이들은 거의 범죄 비행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과격해요. 그리고 표현도 부드럽지 않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일단 보호관찰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다 범죄나 그런 데서 온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말도 잘 안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루해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비행 때문에 온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여기 센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잘 적응을 못해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출석률 저조, 탈락률이 높음	“잘 안 나와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 선생님이) 처음에 보낼 때는 너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 처음에 확인 전화 정도 하지만 거기도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일일이 관리가 힘들겠죠. (… 중략 …) 하루, 이틀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크죠. 의무로 왔잖아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일단 본인의 생활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어서 여기가 보호 관찰 지역이라서 온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약간 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탈락률이 생길 때도 있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거의 보호 관찰, 반은 참여를 잘 하고요. 반은 참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재판 받으러 가면 소년원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상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형을 1년 넘게 하면 개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착실히 참여	“(비행성향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비행과 연관된 아이들이고 이미 연관이 돼서 그렇게 넘어와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착실하게 참여를 해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검정고시 지원을 이용함	“아이들 보호관찰소든 다 소년원, 법원, 다 딱 목적이 있는 거, 거의 검정고시로 와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 법원에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해서 처분 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보호관찰 애들은 거의 프로그램 하는 애들은 없고요. 어쩌다 학습지원 받는 애들은 있어요. (보호관찰 애들은 대부분 학습지원으로 검정고시를 하는데,)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플러스 점수가 있대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작년에는 보호관찰 쪽에서 연계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사실 보호관찰 강제성을 부여해서 보내거든요. 저희한테 검정고시 반에 참여하면 상담 횟수를 줄여주거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지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케이스는 너 검정고시 반에 참여해, 그러면 내가 뭔가 해 주겠다는 식. (… 중략 …) 대부분 중도 탈락이 많습니다."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기타 (긍정적 모습)	"사실은 친해지기 쉬운 건 오히려 보호관찰소에서 온 친구들이 쉬워요. 그 친구들은 에너지가 있고 시작할 때 왜 보호관찰 처분 받았어? 그러면 술술 얘기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③ 지인 소개

유입경로별 청소년특성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3명의 사례관리자 '지인 소개'로 구분하였다. 지인의 소개 등으로 찾아온 경우는 동기나 목표 의식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중 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친구와 함께 온 경우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초반 관계 형성에서도 좀 더 수월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소개로 오게 된 홈스쿨링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동기나 목표의식 있음	"보통 친구에 의해서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동기 부여가 조금 있어요. (… 중략 …)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서비스를 받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자발적으로 자기가 친구 따라 오거나 그러면 어쨌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더라도 그냥 저는 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사례관리자 이OO)
사회성이 낮음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입 경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중략 …)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은 뛰어난데 아무래도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에 약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학교가 아니라 부모님이랑 수업하고 제한적인 교육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4) 학업중단사유별 청소년들의 특성

학업중단사유별 특성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1명의 사례관리자가 '학업중단사유' 별로 구분하였고 학업중단사유를 '다른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적인 성향',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기 진로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지원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센터에 오는 비율이 낮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행적인 성향으로 보호관찰소 등을 통해 온 경우 센터 내 청소년들과 잘 섞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른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우선 자기가 뭔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가는 경향들은 있고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친구들 관계, 대인관계 문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나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은 여기에서 관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먼저 초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는데 학교를 그만뒀던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건 영향은 있어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③ 비행성향이 있어서

"'(비행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주로) 보호관찰소에서 의뢰된, 소년원, 법원에서 의뢰된 아이들. (… 중략 …) (이런 아이들은 센터 왔을 때) 잘 섞이지 못하죠. 보호관찰소든 소년원, 법원, 다 딱 목적이 있는 거, 거의 검정고시로 와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 법원에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해서 처분 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 아이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집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못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어렵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많이 배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5) 가정환경별 청소년들의 특성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10명 중 1명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가정환경에 대해서 양부모/편부모 등의 구성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3명의 응답자가 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편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①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편모 가정이나) 편부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모님 직업이 불안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한부모 아이들이 거의 많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엄마가 없는 아이들 아빠랑 자라는 애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빠들이 관리를 안 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한부모, 양부모 쪼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애매한데 가족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 일정을 챙겨주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집에 아무도 없는 아이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을 받기는 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자녀에게 관심을 가짐

"적절한 관심, 그게 양부모가 다 있거나 한 부모만 있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상관없이 적절하게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가 뭔가 방향을 잡아가요. (… 중략 …) 집에서도 저희도 해 주고 집에서도 해 주니까 아이들이 좀 빨리 변하고 안정을 찾아가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집이 굉장히 유복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계획적인 학업중단인 거죠.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 중략 …) (이런 케이스 중에서도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적절하게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3)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검정고시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외에 상담, 취업지원 등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복 응답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검정고시 지원은 10명 중 6명의 응답자가 답변하여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출석률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활성화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지원은 대부분 외부 인력으로 강사나 멘토를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일대일 멘토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검정고시 반은 시험 전 2-3개월 정도 운영되고, 그 외에는 기초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강사/멘토는 대학생 및 강의 능력이 있는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봉사 시간을 지급하거나 시급 1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강사를 정식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3만 5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응답자인 사례관리자들은 강사의 강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검정고시 지원을 받는 청소년의 만족도 역시 대부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일부 응답자의 경우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어려운 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검정고시 지원을 진행할 때의 어려운 점으로는 '아이들의 학습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언급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수업 또는 기초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① 검정고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스마트 교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1대1 멘토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검정고시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통으로 스마트 교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아이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멘토 선생님이랑 1대1로 과외처럼 공부하

는 거, 인터넷 강의를 전국 모든 센터가 그렇겠지만 구비를 해놓거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검정고시 목적으로 저희는 자발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센터도 검정고시 지원이 있지만) 저희가 제일 잘 돼요. 전국에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반이 꾸려지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20~30명이 아침에 와요.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10시부터 12시 1번, 사실 그 시간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5명만 모여도 뭔가 만드는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센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소규모고 저희는 이 지역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많기도 하고 저희는 계속 오전에 검정고시 반으로 하는 게 고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도. (진행은 1년 내내는 아니고) 시험 전에 10주 정도 진행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저희가 2015년까지는 멘토 선생님, 꼭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과목 1대1로 해 주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룹 멘토링 형태로 검정고시반이 맨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애매하고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 중략 …) 그래서 작년부터 2016년부터 강사로 저희가 뽑아서 올해도 그렇게. 파트 타임이죠. 파트 타임으로 아예 수업을 하실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자원 봉사는 아니고, 그때도 자원 봉사는 아니었어요. 멘토비가 시간당 2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반 정도는 멘토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강사를 뽑은 기준은) 자격증 내지 경력, 관련 학과, 전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강사의 자질 외에 따로 봤던게)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얼마나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줄 수 있는지 근데 5명 중에 3명이 멘토를 하시던 분이고 같이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멘토는 대략) 2, 3년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꾸준히)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봉사 정신도 있으시고 저희 아이들도 예뻐하시고. 이게 업이 될 수는 없어요. (순수하게 아이들에 대한 봉사)"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일단 참여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참여를 안 하면 모르죠. 참여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만족해요. 근데 간간이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스타일이 진도가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 날에 다른 아이가 오거든요. 일주일 이따 또 오니까 거의 여기 수업이 4, 5명이 있잖아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진도가 다 달라서 선생님들이 다 개인 지도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죠. 진도가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진도를 벌써 시작했으니까 너는 다음 학기에 와,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애매하죠. 개별 멘토를 붙여주기도 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② 상담

상담에 대해 언급한 응답자 10명 중 2명으로 진로 상담 후의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시도 소재 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원할 시, 대입 컨설팅 능력이 있는 멘토를 연계하고 취업을 원할 시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졸 학력이 필요해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공간을 쓰는 수련관에 꿈드림센터가 위치한 경우 해당 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외부 연계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내부 서비스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상담 시 다른 서비스 연계	"(진로 상담 시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는) 일단 진로 상담할 때 애들이 대학을 진학할 건지 취업할 건지 먼저 정하거든요. 대학 진학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멘토 선생님께서 대입 컨설팅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랑 저희가 1대1로 매칭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그 전에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찾는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취업인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고졸했을 때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취업까지 하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추천하는 데는 학력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용센터 쪽에서 원하시는 게 취업을 시키려면 검정고시는 고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러 온 애들 중에 중졸, 고졸이 안 돼서 역으로 저희한테 보내세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상담복지 센터로 심리 상담을 연계	"보통 상담복지센터에 있잖아요. 저희는 수련관에 있고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지도사예요. 상담사가 아니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상담이나 초기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심리 상담은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럴 때 진행해요. 모두 다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20명에서 25명 되는 아이들 중 보통) 5, 6명 정도 MIP부터 검사해서 상담실과 연계해서."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③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10명 중 1명의 응답자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로의 연계와 인턴십이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의 경우 연계 후의 사후 관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그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의 경우에는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2, 3개월 정도 연계한 사업체에서 시간을 보내고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턴십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사업체에서 주는 업무별로 편차가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연계하면) 그 다음은 고용센터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취업까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길로 쭉 가지는 않았어요. (… 중략 …)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착실했고 성공 사례였어요. 일단 연계는 몇 명 했는데 취업까지 연결된 아이들은 최근에는 없었어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인턴십	"인턴십은 아이들 알바를 구할 수도 있지만 알바를 구하기에 힘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소극적인 친구들은 힘들거든요. 그런 친구들 저희가 몇 군데 업체를 뚫어 놓고 거기 가서 2, 3달 정도 일하고 월급은 저희가 주는 형태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직업 훈련, 보통 2015년까지 3명씩 했고요. 작년에는 5, 6명 정도 했고 올해도 5,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알바비는) 최저 시급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주 3회 15시간 미만 기준이 다 있어요. 지침에. (… 중략 …) (아이들 만족도는) 업체마다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④ 자기계발프로그램

10명 중 1명의 응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언급하였으며, 집단 프로그램과 1대1 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대1 지원은 소득 등의 제한이 있어 소득 제한이 없는 그룹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은 '좋아서, 재밌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80% 이상의 출석률이 요구되지만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사정이 있는 청소년이 많아 이수율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사실 여건만 되면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 학원 보내주는 게 제일 좋지만, 소득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가 대부분 아이들의 수요를 수용해서 하나를 개설하는 거죠. (… 중략 …) (이수 완료하는 비율은) 사실은 어렵죠. 80% 이상이면 30시간 중에 27시간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워낙 들쑥날쑥한 아이들이 (많고) 잘 오는 친구라도 그게 되게 어려워요. (… 중략 …) (아이들 만족도는) 작년에는 1대1, 올해도 1대1은 지원이 생기면 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집단으로 할 수 없을 때, 작년에도 1대1도 하고 집단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는데 만족도는 1대1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계발 프로그램 자체가 뭘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2) 서비스 제공 방법

10명 중 5명의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무응답은 5명이었다. 중복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외부 연계 서비스의 비중에 있어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주로 학습 지원에서의 강사, 멘토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인력과 프로그램 모두 외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건강 지원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취업 관련하여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지만 그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인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부 자체 서비스는 집단 상담, 개인 상담 등 사례관리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외부 연계 서비스가 '비싸기 때문에', '외부 연계를 하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① 외부 연계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강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불러와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크죠. 그게 50%죠. (… 중략 …) 그리고 작년부터 자기 계발 쪽에서는 위탁 형식이 있죠. 위탁 교육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런 것도 작년, 올해 하는데 그건 자기 계발 쪽은 위탁 형식이 있죠. 자기 계발은 위탁, 나머지는 사업 저희가 주관하고 강사 분이 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저희 거의 다 건강지원 쪽이 외부 기관이랑 연계되는 거고요. (… 중략 …) 나머지는 학원이랑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검정고시도 학원연합회 선생님들이 다 오시거든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지금 취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연계 프로그램이 주로 다른 거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초빙 같은 경우도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이런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② 자체 제공

"저희는 외부 연계를 많이 하지는 않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거의 짜서 하는 편이라서. 자원이 좋으면 외부 연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안 했던 이유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너무 비쌌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자체적으로 하는 건) 집단 상담하고 개인 상담."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외부 연계가) 없는 건 아닌데 활발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중략 …) (시도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업무량이 정해져 있고 연계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배가 되니까 지금 있는 것부터 잘하자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잘 하고 역량이 되면 다음 걸 하자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자체적으로 하는 건) 상담 지원, 학습 클리닉, 두드림 정도."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3) 청소년에게 준 도움

10명 중 7명의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에게 준 도움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3명은 무응답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각각 3명의 사례관리자가 응답한 '관계 회복과 대인관계 역량 강화' 와 '소속감'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업지원이나 정보제공, 경제적 지원 등이 도움이 된다고 1명이 응답했다.

① 관계 회복과 대인관계 역량 강화

"어른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친구들이랑 말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하루 쌓이고 누적이 돼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단어로 표현하긴 어려운데 사회성보다는 큰 범위로 커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경험이 쌓이면 그게 자신감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이들 자꾸 데리고 여기 저기 나가고 이것 저것 해보게 하는 것 같고 그러길 바라면서 하고 있죠."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희가 제일 지향하고 에너지를 쓰는 건 사회성 역량 향상이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밖 친구들이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장 부족한 역량이 대인 관계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학교 선배를 대하는 걸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쉽고 당연한 것들이 그들한테는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전반적인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사실 꿈드림 사업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하려면 일단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 아기 주변 사람들과 화해가 돼야 돼요.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② 소속감

"그냥 그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고 나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항상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일단 아이들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자퇴를 하는 게 학교에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많이 자퇴를 해서 크지 않지만 인문계나 일반고에서 자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자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잘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안심하는 거, 걱정을 던다고 할까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일단 제일 기초는 학업적인 거고요. 사실 포기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 중략 …) 다녀봤자 시간 낭비도 공부 못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끄적거리면 검정고시 붙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먼저 자존감을 얻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자기들 소외된 계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 안에서 같이 그런 그룹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 형성에서 애들이 많이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경제적 지원, 진로 탐색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연계해서 장학금 지원 해 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데 진로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진로 쪽도 많이."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4) 사례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사례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10명 중 4명의 응답자가 주로 사례관리 시 청소년의 욕구, 적성, 진로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명이 학업지원, 2명이 생활 관리와 관계 형성 등에 중점을 둔다고 응답했으며 2명은 무응답이었다.

① 욕구, 적성, 진로 파악

"제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이의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가정은 기본 중에는 기본이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 친구가 뭔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는 더 기다리거든요. 빨리 나오라고 조르지 않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놓지는 않고."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제일 첫 번째는 청소년 욕구죠. 뭘 하고 싶은지 왜 학교 나오기 시작해서 뭐가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하죠. 그 친구가 어쨌든 저희가 학교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찾아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유동적으로 바꿀 때도 있고. (… 중략 …) 진짜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찾아오는 직업 같은 걸로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일단 그 친구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주려고 뭘 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해보자 그런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적성이나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 중략 …)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한 가지 적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든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든지 권하거든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② 학업 지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학업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자퇴를 해도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는 되게 높아요. 고졸은 돼야죠.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높은데 그 아이들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점점 센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아이들한테 그런 거 연결할 때는 검정고시를 먼저 합격하는 것을. 그게 규정은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친구들을 유도를 하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③ 생활 관리, 관계 형성

"그래도 아는 사람이 1명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와요. 그렇게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를 나오는 애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제가 안타까운 건 생활 관리 부분, 시간 관리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 중략 …) 학교가 힘들어서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회생활이고 여기서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규율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실제로 저희는 관계를 형성하는 걸 제일 중요한 목표로 둬요. (… 중략 …) 관계 형성하는 방법, 나와 스스로 타인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도 이런 것들에 학업 복귀하거나 무언가 자기가 자립했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아이들, 이게 된 아이들인 거예요. (… 중략 …)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 그러면 애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게 제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5)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① 상담자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상담자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상담자와 청소년 간의 라포 형성, 상담자의 전공 및 경력 등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인력 배치의 안정성과 상담자의 처우, 업무에 대한 부담과 관련한 답변 역시 많이 언급되었다. 인력 배치 안정성의 경우 '고용 안정성 문제', '인사 배치 이동',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직' 등으로 상담자가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상담자의 처우나 업무 부담이 상담자가 온전히 사례 관리 청소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자들은 피력했다.

상담자의 역량	"상담자 요인도 작용하고요. 상담자도 그 아이하고 어떤 라포를 형성을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프로그램 참여하기까지 아이들이 그냥 자발적인 아이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라포가 잘 형성돼야 되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그래도 저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라포 형성으로 인해 이뤄지는 인간적인 면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관계가 좋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달라지는 것 같고 자기 전공했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경력이 꽤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밖에 대한 이해. 실무자가 얼마나 학교 밖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인력 배치의 안정성	"저희는 상담자, 직원이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센터만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렇게 바꾸게 된 배경은 여기 아이들은 잠깐 1년 오고 안 오는 애들이 아니라 2, 3년 이용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건 엄마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 중략 …)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아무리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꿈드림은 여기 센터 성격상 아이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 선생님의 상담력 역량은 둘째 문제예요. (… 중략 …) 아이들마다 이용하는 건 다 다른데 쉽게 말해서 작년에 서비스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아이가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센터에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근데 자기랑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은 못 오는데 (… 중략 …) 그러다가도 저희가 계속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이 친구들은 편하게 올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은 안 오죠. (특히 드문드문 오는 친구들은 다시 관계 맺기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능력 이상으로 상담자가

	계속 업무에 계속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상담자의 직무 만족도 및 업무 부담	"직원들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 근무 환경이나 어떤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들한테 서비스 지원을 하겠어요. (… 중략 …)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시설이나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인력에 맞지 않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아이의 과거도 궁금하고 현재도 궁금하고 미래도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업 지원 아이들이 수요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아이의 현재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5명의 응답자가 기관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공간과 시설 측면에서의 개선/확충이 서비스 질의 향상과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밖에도 센터장의 사업 추진 방향성이 센터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사업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응답 역시 많았다.

공간/시설	"저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무실이 분리되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전과 지금은 차이가 다르죠. (… 중략 …) 예전에는 상담복지센터와 사무실 같이 썼어요. 물론 상담복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잘 해 주지만 아이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여기 이용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기관이 중요해요. 사실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 중략 …) 시설이 만약에 굉장히 좋다고 가정하면 꿈드림 센터에 가면 우리 작업장도 있고 즐길 수 있는 탁구도 하고 농구, 당구도 칠 수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 많이 오지 않을까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센터장의 사업 추진 방향성	“사실 같은 사업인데도 구마다 사원들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물론 환경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끌고 가는 건 실무자가 아니라 센터장이잖아요. 그래서 센터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전반적인 방향이나 사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③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5명의 응답자가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관련된 요인에 관련해 답했으며 지역사회에 인프라의 유무가 직업 체험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에 직결되는 중요 요인이라는 응답을 했다. 또한 강사진과 같은 인적 인프라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응답 또한 있었다. 대도시 소재 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결핍,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협의체가 잘 구축되어 있다’, ‘수요가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고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았다’. ‘인프라 보다는 인프라를 잘 이용하기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을 계획 가능	“아무래도 저희가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야 돼요. (… 중략 …)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있어야 해야 돼요. 이런 인프라가 없다면 저희가 뭔가 진행하고 싶어도 어려운 거죠. (… 중략 …) 프로그램은 사실은 지역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인프라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서비스 만족도	“일선에서 강의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하고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상당히 수업도 프리하게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섭외를 했는데 (아이들의) 강사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결핍을 느끼지 않음 (대도시 소재)	“저희는 잘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역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랑 학교 밖 관련 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 거 구축해서 16년에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MOU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인적 유지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한 상태예요. 저희는 그런 게 근간이 되어 있어서 수월한 편이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수요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를 선정해놓기 애매한 거죠. (… 중략 …)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때마다 하는 편이고 인프라를 구축해놓는 건 없고."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인프라가 많은 게 좋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인력도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인력 3명이 아무리 많은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프로그램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3명의 응답자가 프로그램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주로 청소년들의 수요나 욕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밖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문제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상담자의 관리 능력,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수요/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정말 좋은 건 1대1로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하게 하지만 아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뭔가 구성을 한다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프로그램 요인도 아이들이 욕구 파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만족도도 좀 더 높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그 외 예산, 상담자 관리	"예산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걸 해 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 중략 …)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긴 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6)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① 연계기관 발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8명의 응답자가 연계기관의 발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발굴과 인맥이 없을 경우에 응답자가 직접 전화로 접근, 1388 지원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발굴하는 노력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연계기관 발굴 노력을 하지만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는 성향을 보이는 탓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연계기관 발굴과 확장	“노력하죠. 기존에 연계된 기관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저희 학원연합회도 맨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여기 계시는 선생님 통해서 알게 돼서 연락해서 협약해서 선생님들도 구축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 학교, 이 지역에 있는 대안 학교랑 협약이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연계가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곳에서는 인맥이죠. 소도시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는 센터장님이 여기 지역 분이라서 제가 부탁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굴을 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편이세요. (… 중략 …) 그리고 연초에 멘토단 모집한 거 많이 활용하고 그 분들이 저희 자원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해요. 소개 시켜달라.”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아무래도 (연계기관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죠. 꿈꿈이라고 아예 꿈드림의 꿈을 이끌어주는 리더라고 이끌어주는 꿈꿈이, 사람이라고 멘토단을 구성을 작년에 하기도 했었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전화 연결, 1388 지원단 이용 등을 통한 연계기관 발굴	“저희가 필요하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합니다. (검색을 해서.) 아이들이 원치 않은데 미리 섭외할 수 없어요. 미리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없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전화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보통 직업체험 같은 걸 하면 다음 번에 어떤 걸 하고 싶고 관심이 있냐고 주관식에 적어 놓으면 아이들이 뭘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애들이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희는 정말 전화 많이 해요. 유관 기관 많이 알아보고 하고 있고요. 정말 편안하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고용센터예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연간 해봤을 때 어디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의뢰를 연계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저희가 산하 복지 센터에 1388 지원단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단이 있어요. 거기는 각 영역 별로 계셔서 거기 자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연계기관 발굴 (일자리, 직업훈련 기관 등)	“올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관에 연락해서 어떤 기관 성격이 있다고 하면 거기 직접 가서 방문하고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인지 알아보고 기관 홍보도 하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것과 거리가 있더라고요. (… 중략 …) 저희도 아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만 연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잘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저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② 연계기관 사후관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연계기관 사후관리라고 응답하였고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는 서비스를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인턴십,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 등의 연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진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한다고 응답자들은 주로 답했다. 일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락 외에 사례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 센터로 연계된 경우에는 종결 케이스가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계 후 한 달 정도 후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해보는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연계	“연계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그리고 아이들 자기계발 부분에 대해서 음악 학원에 연계하기도 하고요. 연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탐색에 들어가죠. (… 중략 …) 이 서비스도 연계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희는 연계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올해 취업사관학교 4월쯤 연계를 했어요. 이 친구들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선생님이 한 번 정도 아이들 방문하기도 하고 그쪽에 연계한 친구들 담당 선생님이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연계한 친구들은 끈을 놓지 못하죠. 계속 관리하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다른 센터로 연계	“지역의 어느 동으로 이사를 가는지 거주지를 파악하고 그 거주지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센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그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 센터의 연락처를 아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가 그런 서비스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그 친구가 이사를 가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고 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 중략 …) 파악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이 아이가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천안 꿈드림에 연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자주 사후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종결이에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다른 센터로 가는 경우는 완전히 이관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사후 관리를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 한 번 들릴게요. ”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연계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계속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너무 죄송한 게 멘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계속 연락은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연계한 기관들을 리스트업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의 사후관리를) 하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들어오죠. 그리고 저희도 연계할 프로그램, 같이 협력할 프로그램 있으면 연락하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③ 연계 지역 기관과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연계 지역 기관과 협업하려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라고 응답했고 협업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주로 청소년 발굴, 아웃리치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그 밖에 타 지역 꿈드림 센터와의 회의 및 정보 공유,

연계 기관과의 미팅을 통한 지원 가능 서비스 사전 파악, 서비스 연계 기관 내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 시도, 외부 교육의 수강생 최소 인원을 채우기 위한 시도 센터와의 협력 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 외에는 단순 연계 수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발굴과 아웃리치	"(센터 자체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이 어려워) 기관 연계로 가자고 구성한 게 지역 협의체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그러했어요. 또 하나는 위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숙려제도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숙려제를 진행하게 되고 바로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어서 서류로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숙려제도를 진행하는 게는 저희한테도 청소년한테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가끔 경찰서랑 연계해서 아웃리치 진행하기도 하고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1388 지원단과 협력하는 부분은) 합동 방문을 같이 하거나. (위기 청소년을 같이 발굴을 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같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서 올해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기타 협업	"(다른 꿈드림 센터와 교류는) 많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적다고 말하기도 뭐한데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시군구 센터를 다 같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사업 담당자 별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 담당자들이 같이 가서 이 센터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계 발굴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요청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 중략 …) 저희가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탐색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들리거나 아이들이 요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찾고 있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자격증 프로그램 연계한 기관과 협업은)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 중략 …) 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쓸데 없이 싸우고 왕따 시키고 저희 센터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애를 방에 가둬 놓고 때리고 또 어떤 아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 중략 …) 시도는 있죠. 늘 생각하죠. 협업을 OO 안에서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단순 연계	"(상담복지센터와의 협업은) 일단 저희 센터장님이 상담복지센터하고 꿈드림을 겸직하셔서 사실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거고요. (… 중략 …) (1388 지원단과는)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지원단 쪽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딱히.”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협력은) 올해는 특별히 없는데요. 작년에는 인력개발원이 있어서 그쪽이랑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했어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수준의 협업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기서 잘 안 되는 걸 취업 고용센터 있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갈 때는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상담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굳이 이 아이랑 방문해서 하진 않고요. 아이들 자기계발 1대1로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직접 가서 과정도 소개 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7) 업무상 어려움과 해결 노력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응답자들은 ‘출석 관리 및 중도탈락자 발생’, ‘업무 부담’, ‘조직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상담복지센터와 독립되지 못한 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그 밖에 사례 관리 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했다. 중복 응답이 포함되었으며 3명이 중도탈락자 발생의 경우, 그 원인으로 사례관리자가 고용불안 등의 요인으로 그만두게 되어 사례관리 청소년이 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와 경제적 사정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노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처럼 규칙적인 생활 및 오전 수업을 듣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오후 수업 위주로 구성한 경우가 있었다.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3명의 응답자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 ‘시도 센터로서의 역할과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 ‘서류/행정적 업무로 인한 부담’ 등이 응답되었고 이중 ‘시도 센터로서의 역할과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 해결 노력으로 꾸준히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상담복지센터와 독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공간/업무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3명이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 및 아웃리치 진행 노력을 하였고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성공률이 낮아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2명이 응답한 사례 관리 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전문 병원 및 기관으로의 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 밖에 발생하는 사례 관리의 어려움은 다른 사례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중도탈락자 발생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출석관리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무자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 거, 핸드폰 안 받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서비스 제공할 때 제일 힘든 건 아이들 출석이죠. 학교가 힘들어서 그만 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공부로,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게 자기가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게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학교처럼 정규 수업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오후 시간으로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거의 시간이 거의 다 오후예요. 늦잠을 자는 아이들은 거의 오후에는 되도록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고용불안으로 사례관리 단절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선생님 관리하던 아이인데 이 선생님이 없어졌어, 이 선생님이 애한테 연락하면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오죠. 그러면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
꾸준한 참여 어려움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을 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개인적인 사정이 그때그때 자주 변하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

② 업무 부담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고용 불안정으로 업무과중	“저희가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성과를 내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성과를 잘 못 내면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돼요. 고용의 불안정성이죠.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그만 두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
시도센터로서의 추가업무	“일단 일이 너무 많고 시군구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저희들끼리만 프로그램을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한청원에서 뭔가 공지를 내려주고 언제까지 취합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구 센터 걸 다 취합해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취합해서 공문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고 시도 센터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면서. 시도 센터로서 새로 생긴 업무 때문에도 힘들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
서류행정 업무상 어려움	“저희 수련관 시스템 자체가 결과 보고, 운영 계획 설정하는 편이라서 서류상의 업무가 실제로 많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가 많고 그리고 저희는 상담 복지 기준이 아니라 수련관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한 편인 것 같아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

③ 조직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담복지센터 등과 독립되지 못함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조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처우	“학생들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절대로 청소년들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진 않고 그냥 소진인 것 같아요. 맥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 하는 건가?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기관 안에서 상사나 팀원 선생님들이나 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그러면 쉬어야죠. 병가를 내고 쉬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요. 처우 개선이 중요한 게 소진이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안 그런 경우기도 한데 사실 꿈드림 센터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 중략 …) 외부적인 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질적으로 많이 보상을 받으면 내가 돈 많이 받으니까 참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내가 꼴랑 그거 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해야 돼? 주말에 맨날 나오라고 하는데 가야 돼? 이렇게 그만 두는 거죠. 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공간부	“같이 사무실을 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면 업무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전화기 다 들고 있고 사담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 건의를 했죠. 도에도 건의를 했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그러더라고요. 차라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족	우리 일이 다르잖아요. 집중해서 하기 좀 힘들고 상담실도 지금 상담실만 여기 여기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정식적으로 있는 건, 근데 있는 분은 7명이에요. 우리까지 거기에 학습지원 선생님까지 얘기하면 6명인데 3명은 다른 데 살고 3명은 여기서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10명 정도 이 3개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 무리예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리 분리하는 게 낫겠다. 업무적인 일도 다른데."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업무독립	"아이들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쪽에 별로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게 애로점이에요. (저쪽에서) 애들 모으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아이들만 (해서 모집해주고) 강요는 아니고,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우리 업무로만 고유적으로 하면 되는데 '신청서 몇 개만 아이들 부족하니까 써주면 안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연계가 관련이 있으면 우리도 스트레스예요. 우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

④ 청소년 발굴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학생 발굴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찾을 수가 없죠. 저희가 어디 밖에 나간다고 해서."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사례관리자 김OO) "아웃리치로 발굴도 (한번 나갔을 때) 많이 되면 1명이에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니면 센터 애를 만났는데 그 옆에 친구가 있어서, 사실 발굴은 아니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많은 경우는 1명이고요. (… 중략 …) 결국 센터에 안 왔어요. 그 당시에 야외에서 신청서를 적고 연락은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불편해서 안 오는지 물어보진 못했는데 센터까지 연계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담 인력 2명이랑 팀장님이랑 신규가 들어오면 월요일마다 사례를 어떻게 개입하고 이 아이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를 할 때 다른 안건도 말씀을 드리죠."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사례관리자 김OO) "그래서 (발굴을 위해) 첫 번째 했던 게 아웃리치였어요. 나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나갔거든요. 만난 애들이 다 학교 재학생들이고 거리에서 만나긴 어렵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⑤ 사례 관리의 어려움

	업무상 어려움	해결방안
정신 질환 문제 사례 관리	“약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예를 들면 정신질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폭력 피해자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 조금 다가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1388 지원단 안에 보면 저희가 정신 건강 관련된 병원이나 신경외과 이런 데 다 있어서 그쪽에 아이 부모님과 만나서 가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사례 관리	–	“아이들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딱히 회의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끼리 수시로 얘는 뭐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연계하는 건 어때?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그리고 각자 사업이 있으니까 내 사업에 어떤 거 하면 좋겠다. 연결짓기도 하고 공유를 해야 아이들한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4) 담당 청소년 사례관리 결과

(1) 담당 청소년의 특성

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10명 중 3명의 사례관리자가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명이 ‘초반 관계 형성의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각각 1명이 ‘비행형’, ‘심리적인 문제’, ‘깊은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2명이었다. 특히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편부모가정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행 및 특이사항 없음

"이 친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했고 뭔가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한 번 와보겠다고 돼서 그 이후부터 되게 열심히 참여했었고 제가 일주일에 1번씩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얘기를 많이 풀어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니까 좀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아이가 워낙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아마 어디를 가도 잘 했을 것 같아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처음 관계 맺을 때) 어색해했는데 같이 얘기할 때는 별로 크게 그런 거 없이 잘 얘기하고 갔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걸 잘 알고 목표를 잘 정했고 그걸 위해서 잘 해나가는 친구였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잘 지내요. 비행 성향은 없어요. (특이점도 없고, 평범한 학생이에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초반 관계 형성이 어려움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저하고도 처음에 어려워했었는데 그때는 OO이가 엄마랑 같이 왔었거든요. 제가 만날 때 엄마는 따로 떼놓고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떼놓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가면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OO이는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엄마가 조금 옆에 있어 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탐색하고 나서 어머니랑 따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아이랑 엄마랑 있을 때 얘기를 나누거나 다 살펴봤는데 저랑 있을 때 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처음에는 OO이가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저는 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못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OO이 말대로 못되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간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주제가 금방 바뀌는데 같이 못 따라 오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그 아이를 챙겨주는 멤버가 있다면 잘 따라 오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OO이나 서로 힘들어하더라고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처음에는 라포하는데 힘들었어요. 본인도 저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 하고 나서 아이가 조금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학업 복귀를 하고 나서 목공예 외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③ 비행형

"OO이 성격은 비교적 밝고 대인 관계가 수월한 친구였어요. (… 중략 …) 그래도 밝고 심성 자체는 착한 친구인데 비행도 있었죠. 또래 친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친구를 폭행한 일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을 통해서 잘못했구나 인지하고 그때 당사자한테 사과한 과정도 있었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④ 심리적 문제

"특성이 가족 간에도 많이 마찰이 심했고 가정 폭력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애기를 낳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전 선생님이 사례 관리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저랑 얘기할 때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편도 아직 어리고 군대 갔다 제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우울해요. (… 중략 …) 또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었고 아버지하고 마찰도 있었고 밖으로 나와서 자해도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운데 올 때마다 와서 자기 화가 나는 걸 막 풀어내요. (… 중략 …) 사실 OO이도 지금 봤을 때 치료가 필요한 아이예요. 제가 볼 때, 방법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 버는데 치중하느라고 치료 받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⑤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움

"굉장히 아이가 긍정적이고 쾌활한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집이 어려웠죠. 저희 센터에 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걸렸냐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나 그랬는데 할아버지인지 아무튼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진 거죠. (… 중략 …) 그런데 애가 또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니고 자립을 하려던 아이라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용돈 벌고 생활비 벌어서 생활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의 했을 때 흔쾌히 받지 않았어요.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이한테 경제적인 지급을 하기 어려웠어요. (… 중략 …)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의욕은 있는데 주변 환경에서 안 받쳐 주니까 자꾸 좌절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그 집이나 문제들도 저희가 사실 자세히 알아야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애가 자세히 오픈하지 않았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2) 담당 청소년의 사례관리 과정

담당 청소년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응답했으며 청소년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2명이었다. 응답한 4명의 답변을 살펴보면 초기 상담에서 아이의 욕구 및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참여 유도가 잘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명의 응답을 통해 초기 상담이나 기본적인 상담 이용에서 완료된 청소년들의 경우 센터의 서비스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런 청소년 중 일부는 취업 지원을 원했으나 센터 사정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부

있음

"일단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온 아이였어요. 사고를 친 이유는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물어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생님과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을지 많이 물어봤고 그 외에 개인적인 상담을 일주일에 1번씩 계속 만나면서 진행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 외적으로 필요한 것 말고 심리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저랑 상담 계속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OO이하고 제가 만났을 때 OO이가 취업을 해서 어딘가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서 그것보다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역량 강화 적성 흥미를 찾아서 그것에 맞게 취업을 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같이 이어나갔었던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맨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죠. 인턴십하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1월에 했거든요. 그 상반기 앞쪽에는 인턴십 프로그램하다가 그 후에 올해부터 검정고시하고 그래서 검정고시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적응했어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어른스럽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프로그램을 줬을 때 참여율도 거의 8, 90%였고 그래서 본인이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검정고시 학업 복귀 지원해서 검정고시 취득했고요. (… 중략 …)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본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없음	“(4개월 정도 전화 상담 주로 하다가 종결이 됐고. 초기 상담 후에 실제로 센터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꾸준히는 연락하고 있죠.) 거의 한두 달에 1번 꼴로 하죠.”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OO이는 (실제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대화만 하고). OO이는 거의 모든 걸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OO이는 초기 면접할 때 이미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검정고시 합격했고요. 그 전에 여기 센터 오기 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본인이 해서 프로그램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애가 그때 왔을 때 자기가 지금 현재 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저희가 뭔가 하기에는 작년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본인은 일하고 싶어 했고 하나 더 생각하면 진로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일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하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보통 (상담 내용은) 대부분 또래 관계였어요. (… 중략 …) 그것도 아무튼 그런 연애 상담, 관계 상담, 마지막에 복교하는 것에 대한 상담 정도로.”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② 센터 계속 이용 이유

담당 청소년이 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4명의 사례관리자 가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주로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명의 사례관리자가 ‘필요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유대관계 때문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
계속이용자	“'의존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독립적이라서 막 기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오래 오는 친구들은 믿음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서로 어느 정도 저희 시간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믿음이 있는 정도.”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긍정을 많이 해 주고 경청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격 되게 좋거든요. 언니 같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1, 2차보다 올해 좀 더 적극적인 게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주위 친구들도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작년까지 같이 놀았다면 작년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가 사회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놀자 놀자 항상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뭔가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자기가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지만 추후에 편하게 얘기하거나 OO이도 지금

	유대관계 때문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
	“첫 번째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안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보러 오기도 했던 것 같고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실무자와의 신뢰가 생겨서 그래도 담임 선생님 찾아오는 것처럼 센터에 와서 활동하고.”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사례관리자 장OO) “또래 친구는 없지만 동생들을 잘 다뤄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 여기 소속된 학교 밖 친구들이 언니, 언니 그러면서 잘 따르거든요. 처음에는 OO이뿐만 아니라 정말 학교 밖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하고 전화도 수십 번하고 문자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OO이가 원하지 않을 때 너 꼭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원할 때 하자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OO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이 많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자고 내담자지만 처음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로 어떤 상담이 끝나고 나면 가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는 상담 센터가 OO이한테 오픈 마인드로 OO이가 전에는 상담 센터를 안 들리고 바로 상담실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사무실로 들어와서 밝게 인사하고 저 왔어요. 그리고 밑으로 자기 자리로 내려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소속이 없고 계속 공부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딘가 누군가 기관에 도움을 받을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물어 보니까 꿈드림 센터, 시에서 하는 꿈드림 센터에 예전에 갔었더라고요. 가서 그때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해 준 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저희 센터에 왔을 때도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은 없었고 그렇게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요즈음 어떻게 지내고 뭐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언젠가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이용완료자	–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업 복귀를 했다고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서비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뭐 할래? 그러면 자격증 이거 딸래요. 그러면 그거 하기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이용중단	“일단 현재는 아는 친구가 1, 2명이라도 있다는 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더 교우 관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적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

	유대관계 때문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
자	소재, 20대, 여성)	

③ 센터 이용 중단 이유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2명의 사례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명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도탈락 한다고 답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초기상담 이용 후 중단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서비스가 기대와 달라서(분위기가 안 맞아서)', '사례관리자,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안돼서'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욕구가 없기 때문	"'초기 상담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가 탈락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왔는데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왔어요. 근데 본인 의지가 크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니까 왔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있다고 하고 이거 적자고 등록은 했지만 본인의 욕구가 없으니까. 등록은 돼 있지만 지금은 안 나왔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볼 무렵에 와서 그때부터 하거나. 중간에 참여하다가 끊기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자기 목적이 조금 너무 없거나 그러면 검정고시도 말로 한다고 그러고 사실 저희가 그런 아이들까지 전부 다 관리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웬만큼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개입 안 해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때문	"아르바이트로 센터 자체를 방문하기 힘들거나."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기타	"'OO이가 원하는 것과 그 당시 작년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맞지 않았죠.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거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 중략 …) 분위기가 저랑 안 맞아요. 그만 둔 애들도 있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④ 중도탈락 청소년을 줄일 방법

중도탈락 청소년을 줄일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2명의 응답자가 청소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서 4명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연락 등의 관리'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업무 부담 등으로 한계가 있고 잦은 인력 교체로 관계 형성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 고충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1명의 응답자가 금전적인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3명이었다.

청소년의 선택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음	"근데 저희도 어느 기관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개인적인 선택이잖아요. (… 중략 …) 그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캐치하긴 어렵고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 차원이나 사례 관리를 세심하게 못한 부분들이 지적된다면 그건 바꿀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이들의 그런 모든 걸 다 케어하긴 어렵지 않을까."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사실은 학교와 다른 점이 저희 센터는, 학교는 학생이 학교로 가는 게 의무잖아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의무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권리만 있죠. 여기를 이용하고 서비스 받을 권리만 있죠.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가 싫어지면 그걸 감수해야 하고. 보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오긴 하겠죠. 근데 보상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 중략 …) 저희 센터를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도 탈락한다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지속적인 연락과 관리 필요	"일단 아이들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다음 약속을) 잡는 거죠. (… 중략 …) 그렇게 계속 연락하다가 그게 한 달 안에 온다면 그 뒤로 계속 만나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그냥 잠시 쉬고 그리고 잊을 만할 때 문자나 전화로 확인하고, 분명히 그렇게 (초기상담을) 왔다는 건 애들이 중졸, 초졸, 학력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그러면 네가 놀고 싶은 만큼 놀고 나중에 조금 더 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겠다고 처음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 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일단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합격했어도 사실상 취업이나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목표가 생겨서 가는 친구들은 알아서 필요하면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은 다시 혼자가 되어서 다시 혼자만의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아이들한테 사후 관리로 한 달에 1번씩 연락을 취해서 센터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안내를 하지만..."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있는데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노력은 어떻게 하냐면 연계되어

	있으면 연계된 기관이랑 같이 접근을 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일단 애들이랑 1명이라도 친한 애가 있으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못 사귀면 선생님하고 여기 파티션에 매달려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거든요. (… 중략 …) 사례 관리 보다는 사업이 메인이 되고 시간이 날 때 사례 관리를 하는 그게 안타까워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그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랑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생기면 아이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끈을 놓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중도 탈락되는 아이는 이 끈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좀 오래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오래 이용하는 친구들은 2, 3년 이용하기도 하니까 업무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금전적인 지원 및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	“금전적인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네들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행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현금 지급이 가능한 아니면 동행 카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든지 동행 카드가 교육청에서 연계돼서 도 센터로 가는 거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애로 사항이 뭐냐면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나 안 되냐고 했을 때 애로 사항이에요. 애들이, 선생님 왜 쟤는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애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할 때 상담을 많이 오는 아이들 기준으로, 그래야 애들한테 명확하게 얘기가 되니까. 더 해 주고 싶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3) 담당 청소년 사례관리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어려운 점으로는 2명의 응답자가 ‘해당 청소년이 약속을 안 지키는 점’, 각각 1명의 응답자가 ‘접촉 자체가 어려운 점’, ‘대인 관계 역량이 부족했던 점’ 등이라고 답했고 무응답은 4명이었다.

① 지각/ 결석 등 약속을 어김

"똑같죠. 약속 안 지키는 거, 엄청 교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오게 되면 연락을 미리 해야 되고 널 위해서 준비하는데 안 오면 안 된다. 오기로 하면 와야 된다.."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아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 중략 …) 작년에는 OO이가 사는 동네가 버스가 다 지나다니는 그래서 버스 타기가 참 용이한 동네에요. 저희 센터 이용하는 게, 터미널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랬는데도 항상 늦은 경우가 많았어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② 접촉 자체의 어려움

"전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오후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가고 그래서 통화할 시간도 2, 30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약간 겉만 사실 깊이 있는 대화는 못 나누고요. 그냥 최근에 근황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좀 본인이 필요한 게 있다고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전화로 간단하게만 하고 있거든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③ 대인관계 능력 부족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과정을 힘들어하더라고요. (… 중략 …) 누군가를 만나는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OO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었고 안타까움이 있죠.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니까.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뭐 하자고 했을 때 잘 안 해서 어려웠지 다른 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1) 애로사항

○ 예산

예산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은 타 센터와 인건비 수준의 격차가 나는 등, 예산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관리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과중한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인력 대비 사업비가 많아 업무 부담이 커 높은 이직률,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공모 등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 기준이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응답했다. 10명 중 2명의 일부 응답자들은 예산에 관련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센터로 추정된다.

① 타 센터와의 인건비 격차 문제 및 예산 체계의 표준화

다른 시군구보다는 여기는 인건비가 적어요. 원래 인건비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 금액을 1500만 원을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다고 더 내려줬어요. 다른 도도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중략 …) 우리 선생님들 불만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구랑 인건비를 서로 비교하거든요. 지침이라는 것은 최소가 있고 그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데 최소만 있고 최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경력이나 하는 일, 내부 센터 운영 규정에 맞게 지급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다른 시군구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 중략 …) 쉽게 말해서 똑같이 3년이 됐는데 이쪽 시군구에 3년된 선생님이랑 이쪽 시군구 3년된 선생님의 월급에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좀 표준화된 뭔가 인력 체계든 구성이든 보수든 저희가 돈을 진짜 많이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예산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표준화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가 위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 데이터로만 보고 예산을 주고 이게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1,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과도한 사업비

"예산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예산이 많은 게 사실 저희가 매출을 인건비로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인력이 불안정하고 공사비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계획된 금액을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 사업비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갑자기 돈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이 사업의 특징이 되게 웃긴 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게는 인건비가 80% 정도가 돼야 돼요. 80% 이상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여성 상담복지센터 사업 이런 거랑 차이가 나요. 그 대신 적은 돈을 주면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죠. (… 중략 …)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구조로 가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압박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③ 기타 - 사업비 부족, 경제적 지원 대상이 제한됨

"그런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 캠프 공모 캠프 같은 거나 실제로 저희 애들 데리고 이번에 중앙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캠프에 가거든요. 학교 밖 대상 캠프, 캠프 내용이 스킨스쿠버 이런 거였어요. 저희 예산으로 스킨스쿠버나 수상 안전 체험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고 스키 캠프 같은 것도 자체 예산으로 어려우면 시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거 희망하는 애들 참여 시키고. 사실 예산 어려움 있어요. 실제로 어려워요. 아껴가면서 하고 있어요. 최대한, 하고 싶은 건 다 못하죠."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예산 운영하는데 힘든 점은 없고 직접 체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직접 지원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특별 지원이 안는 되는 경우는 내부에서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끊어주는 카드 결재를 해 주는 직접 지원비는 잡아놨는데 그게 소득을 특별 지원이랑 똑같이 보거든요. 필요한데 거기에 그런 단서는 달아놨어요. 아빠, 엄마 이혼했는데 소득이 많이 잡혀서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소득은 많이 없는데, 그러면 자체 판정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만 평가나 점검이나 이런 항목이 있을 때는 그런 걸로 어떻게 했는지 보더라고요(… 중략 …) 애매한 애들이 많거든요. 소득 기준은 걸리지 않으나 저소득이고 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에 이게 몇 퍼센트라고 딱 나와 있고 4인 가구에 얼마, 6인 가구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가 사실 어렵죠."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문제가 없음

"예산은 일단 저희는 워낙 수준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이거나 부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쓰면 좋지만 엄청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맞게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필요한 건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남는다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 외부연계 서비스 관련

외부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질문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연계하는 기관이 주요 도시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의 부족이나 청소년들의 욕구가 많은 취업 지원 쪽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외부 연계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연계해줄 수 없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언급되었다. 반면 외부 연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기관 중에는 '부족하더라도 더 발굴할 수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중소도시 소재 센터)과 '규모가 작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아서'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경우(읍면지역 소재 센터)가 있었다.

① 연계하는 기관이 대도시에 치중됨

"이 지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도시에는 한청원과 MOU 예를 들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아직도 연계가 안 되고 서울 경기 쪽에서만 이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물리적인 어려움도."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면 신청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일정이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거나 약간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나 실무자가 꼭 가야 될 것 같은 관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실무자가 아무도 없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한청원에서도 연계해 주시면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지역에서 연계할 공공기관과 직업훈련 기관 부족

"(외부 연계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연계해서 하려면 집 인근, 구 내에 거의 이렇게 연계를 하거든요. 같은 구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연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관도 부족한 것 같고 아이들이 딱히 이용할 만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생각보다 없어요. (… 중략 …) 가정에서 부담하기도 부담스럽고 저희 센터에서 내어주기에는 기준에 걸리고 그러니까 좀 민간기관 사실 연계할 때는 많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공공기관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민간기관이 많은데 사실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렵죠.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거는 어렵죠."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가장 큰 것은 직업훈련이나 취업하고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연계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욕구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 중략 …) 17, 18, 청소년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건 되게 큰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건데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③ 외부 연계 기관 프로그램의 낮은 만족도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 이런 데가 아이들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 애들이 안 가요. (… 중략 …)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자신 있게 여기 괜찮아, 여기 한 번 가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냈던 아이가 돌아와서 선생님 거기는 갈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는 보낼 수 없죠."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④ 연계 기관이 부족하지 않음

"(외부 연계 기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시나 군 크기에 따라서 이용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계 기관이 많고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옆에 OO군에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되게 적어서 그런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이 지역 안에서는 그냥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도시로 나가면 아이들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많은 게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는 부족함을 느끼진 않아요. 취업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생겼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거, 그 전에는 타 지역으로 다 갔어야 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 기관이 생기면 활용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 자체 또는 외부연계 서비스 발굴 노력

시도 센터의 역할로서의 연계 서비스 발굴 노력에 대해 응답자들은 성공률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발굴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읍면지역의 경우 장애인 취업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전혀 없어 지적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① 대기업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발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실 시도 센터 역할 중에 하나가 기관을 발굴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발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해온 센터, 기관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알아보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고 (… 중략 …) 웬만하면 검색을 해보고 저희한테 해 주실 법한 분들께 연락을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엄청 안 되진 않아요. 너무 안 될 것 같은 곳은 안 하려고 하고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으면 연락을 드려보고 보통 큰 기업은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없음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데 이 지역은 동네가 이상한 건지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장애인 작업장이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원활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수반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본인은 등록돼 있지만 할 게 없는 거죠. (… 중략 …)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적인 문제도 많고 여자나 남자나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불거지거든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 인력구성

인력구성으로 인해 서비스하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응답자들은 답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함은 느끼고 있으나, 인력이 추가될 경우 요구되는 실적/사업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욕구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특히 실무자 2명으로 구성된 경우 등)는 외근 나갈 수 있는 인력 부재 등의 문제로 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하는 사례 수에 대해서도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관리하는 사례 수가 과중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 내 거주 인구 수, 학교 밖 청소년 수를 고려하지 않은 실적이 요구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① 인력 충원에 비례해 요구되는 사업과 실적 부담

"(인력이 충원되면) 사업이 계속 내려와요. 한청원인지 여가부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매년 생겨요. 인력 충원이 되면 좋긴 하지만 충원되면 그만큼 사업이 더 내려올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임금 구조도 사업비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1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의 사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고."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인력이 늘어난 만큼 다른 사업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3명이었고 지금은 1명이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는 늘어서 저는 좀 더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절대적인 인력 부족 및 일반 행정 업무 부담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요. 왜 부족하냐면 프로그램을 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2명밖에 없어서) 어디 외부에 나가서 두드림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해도 숙려제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세 달 가까이 두드림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나가니까 수요일 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 일하다 보면 가야 돼요. 저희 업무가 사실 앉아서 사업만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무슨 서류 원하고 여기서도 원하고 내부 결재 뭐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둘이서 학교 밖 사업하는데 소진이 많이 돼요. 저희들이 행정이 없기 때문에 회계를 학교 밖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큰 센터는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안에서 둘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12달 일하는 것 같아요." (사4,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그리고 2명은 정말 열악해요. 긴급해서 사례 회의를 나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연차가 좀 되는 제가 나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많지 않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서로 정해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서류도

그렇고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지금은 부족해서 저희가 오늘 계약직 2명을 더 뽑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저희가 4명이 사업과 사례를 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저 같은 경우 1.5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도 보통 4개 정도 맡을 때 저는 6개 정도 그리고 저는 경기도와 여가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사례관리자 부족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학교 밖 사업이 한 친구, 한 친구에 대한 에너지가 큰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보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 처리나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있는데 오히려 더 아이가 친구가 오면 1, 2시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업무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인력 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일단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데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10가지 요구 중에서 각 한 사람당 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한계일 때가 많아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실제 거주 인구 및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맞지 않는 실적 요구

"수도권이랑 여기는 약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비교할 수 없어요. 인프라 이런 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청소년들 자체 수에서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인구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인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엔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대도시로 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터무니 없는 실적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그리고 강조하는 게 학교 밖 애들만 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56명 가지고 400명 실적을 어떻게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적이 됐다고 하지만 나와 있는 아이들은 얼마 안 돼요. 오는 아이들이, 여가부에서는 누적된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⑤ 기타 (고용 안정, 차별 대우, 직무 연수의 어려움 등)

"저희가 고용이 안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저번에 올려주셔서 인건비를 완전히 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저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희 호봉수 저분 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본급 못 올렸어요. 조건은 저쪽이 더 좋은데 사업비가 올라서 인건비 올려주라고 했을 때 연차가 저분이 2년 넘어서 350 되는데 우리 신참 선생님이 그것보다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했어요. (… 중략 …)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면서 저기서 벌써 차별하는 거죠. 우리 연봉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연봉제가 사실 기본급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저쪽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센터는 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학교 밖 사업이 가능한 중단되지 않는 걸로 해놨는데 무기직도 아니고 근데 다른 센터는 너무 들쑥날쑥해요. 전에는 정보 공유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 중략 …) 직무 연수도 (상담센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인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전문 인력 강화하는 두드림 집단 상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도 전문 인력 양성 그거 말고라도 직무 연수가 의무적으로 좀 자연적으로 채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필수가 되게. 청소년 동반자 들어갈 때는 다채로웠어요. 교육이, 필수로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 말도 못해요. (… 중략 …) 다른 활동, 상담팀은 자기들끼리 같은 그리고 자기 업무하고 맞는 것만 보세요. 안 맞다고 안 고를 때도 많거든요. 모든 교육이 정말 사실 별의별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운 거하고 경력도 그렇지만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알아서 하죠. 업무만으로도 힘든데. 학벌도 다 똑같아요. 자격증도 비슷하게 있으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연봉 호봉제 차별도 크고."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2) 개선사항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개선 필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도센터의 응답자는 시도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하는 것, 팀장이 상담복지센터/수련관 등과 겸직인 경우에 독립된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 밖에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① 시도센터의 정체성 확립 필요

저희가 매번 논의한다고 말씀 드렸다시피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바뀌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딱 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사업도 변화하고 사업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나 그것에 따른 여가부 정책이 변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시도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 센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아직도 시군구랑 조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독립된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

"저희 전담 인력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구성이 되면 우리만 보니까 좀 더 탄탄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련관이면 수련관 팀장님이 겸직으로 하고 있고. 전담실이 있는 곳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있는 곳도 있어요. 저렇게 된다면 사실 상담복지센터 팀장님도 여기(상담복지센터 쪽을) 전담할 수 있고 저희가 꿈드림 팀장님이 생기면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업무를 분담하면 실무자들도 그런 게 좀."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③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 및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워낙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거기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도 그렇고 제 개인도 그렇고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피드백, 욕구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선사항으로 '직무연수 필수와 직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 '호봉제' 및 '상담복지센터와의 차별 대우 개선'을 제시했다. 시도센터의 역할에 대해 시도센터에서는 '상위기관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언급하고 시도구센터에서는 '시도센터가 상위기관처럼 포지셔닝 되어 해당 시도구 센터의 의견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여가부로 직접적인 전달/소통이 어려워진 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 중 하나인 연계기관 공유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응답도 있었다.

① 직무연수를 필수화

"한청원에 바라는 건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참여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이 너무 멀거나 기간이 안 맞아서. (직무 교육도 필수는 아니고) 저희도 1년 15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계신데 업무랑 겹치다 보니까 교육가긴 힘든 상황이에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일단 연수 받는 것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문지 끝에 주관식에 어떤 경우 어떤 교육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교육을 넣어서 하든가 안 되면 상담, 활동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필수로 해서 보내주든지 그래야 직무 연수라도 채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 중략 …) 대상자 필수가 아니면 못 가게 해요.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해도 필수가 아니면 못 가게 해요. 필수 참석인 대상자만 가는 거예요. (… 중략 …) 그놈의 필수 때문에 우리가 도에 요청할 때 맨날 그래요. 필참(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래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② 꿈드림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인건비 차이 등의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 도 센터나 아니면 한청원,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분이 계약직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1년하고 그만 둬야 되고 본인 의지와 상관 없어요. 본인은 이 일이 좋아서 더 하고 싶은데 그만 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중략 …)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상담 쪽에서 되게 많은 보수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화가 되면 선생님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해소될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청원이나 상담복지센터나 그쪽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겠죠. 제가 볼 때는 신분만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불만이 다 없어질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올해까지 사업하고 내가 내년에 계속 이 자리에 있을까? 상담 일을 하던 선생님들이 다른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저희가 처우가 해마다 말하고 1년에 몇 번을 말하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는 상담복지 직원들과 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 중략 …) 무조건 연봉제로 가고 연봉도 적고 그런데 일단 호봉, 정규직 직원으로 호봉 인정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 중략 …)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방어해줘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③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포지셔닝 문제

"시도 센터가 시군구 센터를 총괄하고 때로는 선생님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고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 중략 …) 업무 자체가 자꾸 취합하고 틀린 걸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율 시키고 컨설팅 때도 사업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노하우 알려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이 아니라서 애매한 것 같거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저희가 시도한테 전달하고 시도가 개발원한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도와 시군구는 상, 하 관계가 아니거든요. 동일한 건데 너무 이렇게 체계를 하위 기관으로 나누니까 시군구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시도한테 보고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시도는 개발원한테 보고 하지? 밑에 있는 시군구 입장을 다 듣고 개발원 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체계를 완전 바꾸셔서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시도에선 저희를 지원해 주는 역할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되게 상위 기관처럼 이렇게 조직이 뭔가 탁탁 나눠지니까 시군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왜 이걸 시도한테 보고 하고... 당황스러웠던 게 시도 팀장님들 다 모아서 개발원 직원 오고 여가부 와서 그들만의 회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안건이 나오면 끝인 거예요. 시군구가 아무리 얘기를 전달하려고 해도 거기서 끝이니까 막히는 거예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④ 연계기관 발굴 및 공유

"그런 건 분명히 때때로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찾을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진로나 적성, 흥미를 탐색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개발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중략 …) 약간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근교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약간 그거는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도 잘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2, 중소도시 소재, 20대, 여성)

○ 중앙정부

중앙정부(여성가족부)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 없이 사업을 하달하고 질적인 실적보다 양적인 실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점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시설 지원 등 고용 안정성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현장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에 대한 예로 건강검진 분야에 과하게 할당된 예산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검진 관련 사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 한 읍면지역 소재 센터에서는 '교육청 리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①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실적 요구 개선

"(여가부가) 일단 현장의 실태를 알고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 중략 …)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센터에 많이 오는지 검정고시 때 많이 오는지 상주해 있는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 인원만 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1번씩 보고를 드렸거든요. 몇 명 신청했다.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사실 학교에 있는 애들은 학교 오는 날에 다 받으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상주해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받고 그렇게 되려면 애들을 계속 닦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도 힘든 거죠. 애들한테 좋게 권유하는 거지 강요나 강제가 아닌데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과 사업을 만드시는, 사업의 어떤 계획을 하는 부분이 괴리가 심한 것 같다."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여가부에서 갑작스러운 사업 하달이 많습니다. 그런 건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없나요? 건강검진 사업, 직업 훈련 연계. 실적을 많이 올려서 예산 차등 지급하고.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해서 우리도 각 기관마다 줄 세우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을 낮춰야 인력 소진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을 낮추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아이들 좀 더 케어 할 수 있잖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정규직 전환, 시설 지원 등)

"고용 안정이겠죠. 사실 저 개인의 복지나 그런 욕심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 특성상 저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중략 …) 저랑 같이 왔던 선생님들 반 이상이 퇴사하셨고 사실 그게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가부는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한테 돈을 많이 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고용 형태가 계약직이고 여기 오래 있어서 비전이 없다고 할까요. 오래 근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중략 …) 모든 직원이 다 계약직이에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긴 꿈드림에서 국비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다 계약직이에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예산을 확보해서 처우 개선을 해줘야죠. 그리고 시설이나 준비를 해줘야죠. 개인사업체도 아닌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전혀 안 주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줘요. 그러고 말고 다 돈이 문제예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③ 건의사항 반영 미흡과 연계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다) 연계되어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부족하고 수량으로 그냥 수치로 해서 우리한테 하달하는 것 같아요. 개발원 쪽의 의견들을 내고 여가부에서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애로점이 있죠. (협력기관이라기 보다는 깨기 어려운) 상하 관계.”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교육부랑 여가부가 연계하고 이렇게 각 부처랑 해서 무언가 체계가 생겼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건 사실 없거든요. 법무부랑 연계가 됐고 교육부랑 연계돼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 (여가부에서 연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이 답하였다. 특히 ‘접근성 좋은 장소 제공’, ‘시설 확충’ 및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간 제공’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한 ‘조례 제정 등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일부 센터의 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 사업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냈다.

① 공간/시설 지원

“지자체는 제 생각에는 장소, 환경, (… 중략 …) 실제로 다른 구에 가보면 일단 상담복지센터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작은 강의실 하나,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가 아닌가, 꿈드림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9, 대도시 소재, 20대, 남성)

"센터를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기 어려움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보면 타 지역 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역전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치가 너무 멀어서 애들이 과연 올까. 재밌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셔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다 멀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거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긴 했지만 추후에는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센터는 수련관 안에 있어요. 대게 수련관은 좀 떨어진 곳이잖아요.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 시선으로는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은 분명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안 온데요. (… 중략 …)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접근성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죠. 지자체에서 접근성 좋은 곳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② 조례 제정 등 꿈드림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제화고 그 다음에 법제화는 우선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 올 때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 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때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지침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주무관님이나 윗분들을 볼 때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 단체 이런 조례 이런 게 있나봐요.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런 걸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맞게 하세요. (… 중략 …) 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로 넣기도 하거든요. (… 중략 …) 근데 그게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지역에서 지역의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화, 지원에 있어서 낫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5, 중소도시 소재, 40대, 남성)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만 집중을 못하잖아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개선점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예산 지원(사업비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꿈드림으로 별도로 예산을 주셔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좋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중략 …) 어떤 지자체는 그 지자체 예산으로 다 정규직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꿈드림 직원들을, 정규직이 되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못하고 있는 건데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매워 주겠다고 하셔서 다 정규직하고 다 그렇게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7,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 연계기관

연계기관에 바라는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청소년들이 센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계기관에서도 사후관리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답했으며 보호관찰, 경찰서에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원칙' 및 '학교 밖 청소년 명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 원칙'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읍면지역 소재의 한 센터에서는 상담복지센터와의 관계 때문에 '학교와의 연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① 연계기관의 청소년정보 이관 필요

"저희한테 특히 연계를 해 주시는 기관에서 그냥 대상자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센터에 잘 올 수 있도록 거기서도 아이들한테 푸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연계합니다. 서류만 주고. 사실 연계한 기관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심이 좀 더 높게 보이고 저희 쪽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 선생님들도 다 바쁘시니까 그것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보호관찰 같은 경우도 거의 떠넘기기 식이 많아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어요. 상담한 내용을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통보서라는 걸 주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저희가 적어줬던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 중략 …) 애들 명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디서 우리도 어디 협력하겠다고 한다든지. 학교 밖 애들을 경찰서에서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요. 관리하는 애들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학교도 사실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약간 그런 게 안 돼요. 다른 지역은 학교랑 연계가 많이 돼서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것도 상담복지센터와 연관이 있어요. (… 중략 …)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따로 있다는 걸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구나,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은 거기로 연계해야 된다는 인식은 해요. (… 중략 …) 우리는 독자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학교들은 상담복지센터와 뭘 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뜬금없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쪽에서 배려를 해서 이런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희 센터는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들이 있어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 기타

그 밖에 개선 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센터 인지도 상승 노력', '정책토론 시, 팀장급만 참석하고 실무자들이 배제되는 점', '여가부와 지자체의 사업 중복 문제 및 사례관리 시스템 일원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재학생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상에 대한 파악과 조치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센터 인지도제고 필요

"지자체나 중앙 기관이나 꿈드림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여가부에서 PC방에 이런 거 하면 꿈드림 홍보했다고 하지만 그걸 보고 발굴된 아이는 1명도 없거든요. 인지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나 중앙이나 센터 홍보에 대한 부분." (사8, 대도시 소재, 20대, 여성)

② 정책토론회에 실무자 참석 필요

"정책 토론도 팀장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들을 안 부르고 팀장을 부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이 부르든가 꼭 팀장, 교육도 팀장, 우리가 아니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사3,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③ 여가부와 지자체의 사업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일단 예산을 (지자체와 여가부) 두 군데서 받고 있고 지자체의 필수 사업과 여가부의 필수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여가부는 교육지원, 건강검진, 문화 예술지원, 두드림이나 그런 집단 상담, 학습 클리닝, 나는 내 인생이 매력적이야,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교육 연계, 그리고 숙려 상담이 여가부 사업이고요. 지자체 쪽은 멘토링, 복지 지원, 인턴십, 해외 탐방, 상담 지원 50 사례에 대해서 개인

상담 2번 이상 지원하는 것도 경기도 사업이고 저 같은 경우도 재능 개발이라고 아이들 요리, 컴퓨터 프로그램 개설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엄청 많고 색깔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 중략 …) 두 가지 예산을 받아서 사례 관리를 양쪽에서 시스템이 달라요. 이건 꿈드림이고 이건 또 따로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중복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을 2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사업 내용이 사실 겹치거든요. (… 중략 …) 합쳐서 한 가지로 진행하면 좋은데 양쪽에서 쪼개져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게 비슷한 일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느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요." (사10, 중소도시 소재, 40대, 여성)

④ 위기 학생 대상 집단프로그램은 운영실적에서 제외

"한청원에서도 학교에서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근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이 학업중단숙려제로 의뢰된 청소년들이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잠재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데리고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런 실적 수치 때문에 전국에서 모든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6, 읍면지역 소재, 40대, 여성)

4. 청소년과 사례담당자 인식 비교

1) 제공된 서비스

청소년 패널 중 7명은 관계개선, 상담, 취업지원, 검정고시, 인턴십, 봉사활동/소풍 및 영화관람/행사/청소년단 등의 활동, 건강검진, 보조교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했고, 2명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1명은 헬스를 원했는데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다른 1명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한 명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기회를 가진 것, 학습에 대한 조언을 얻은 것 등이 좋았다고 응답했으나 다른 1명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무응답을 하였다.

사례관리자들은 제공한 서비스로 학업지원, 검정고시, 상담을 주로 꼽았으며 검정고시 지원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어 청소년 패널이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는 검정고시가 조직된 프로그램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다른 활동은 부수적인 것으로 비조직적인 상태로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이 인상적이었기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사례관리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무응답을 하고 있어 담당자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례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공 서비스			
기존 패널1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요청했던 게 관계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친구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냥 센터 애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이용하신 거잖아요. 센터, 센터에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한 것들 중에 못 받은 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이런 거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여쭤봤거나 받고 싶다고 했는데 못 받은 건?) 못 받은 건 없어요.”	사례 담당자 2	【학업지원】 “학업지원이요.”
기존 패널2	【상담】 (보통 학생들 처음에 가면 많이 요청을 안하는	사례 담당자	【학업지원】 “저희 센터 자체에서? (많이 학생들한테 제

제공 서비스			
	편인데 받고 싶다고 얘기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담 관련해서 요청하셨는데 영주시 센터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신 거죠?) "그렇죠."	3	공하고 있는 서비스?) 도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다 포함해서 연계하는 것도 포함하고 학생들이 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학습지원도 많이 이용하고요." 【기타】 "동행 카드, 건강검진, 자기개발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도 저희가 하거든요. "
기존 패널3	【제공받지 못함】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원했던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보는 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신체 단련이거든요. 신체 단련하고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은 게 있나요?) "아니요. (원하셨던 건 어떤 걸 원하셨나요) 헬스나."	사례 담당자 8	–
기존 패널5	【검정고시】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땄어요." 【자격증】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손재주를 쓸 수 있는 공예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손재주와 관련된 내용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여쭤볼게 받았던 서비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격을 딴 건 목공예3급이에요. 역시 자격증. 제과제빵이 가장 먼저였고요. (두번째는 요리?) 네."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따로 받은 적이 있으세요?) 네, 받았어요."	사례 담당자 4	【검정고시】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완주 청소년들한테 학교 밖 지원 센터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검정고시 학원 연계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셨고요.) "거의 프로그램들은 보통 거의 비슷해요. 커리큘럼이."
기존 패널8	【제공받지 못함】 (그러면 상담이랑 직업 관련한 교육이나 자격증,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었는데 센터에서 이용한 건 전혀 없었어요?) "직업은 안 해 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비스 받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없을걸요."	사례 담당자 5	【검정고시】 "검정고시 수업이죠."

제공 서비스			
기존 패널 12	【건강검진】 “네, 종합 건강검진. 【제공받지 못함】 (그러면 차분하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받으셨나요? 취업 관련 정보, 건강검진 이런 경제적 관련된 정보는 상담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따로 알아보고 이런 거 있다고 알아봐주신 게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상담만 하셨나요?) 네.”	사례 담당자 9	【정서적 지원】 “가장 베이스는 상담이랑 교육 지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실 본인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상담이랑.” 【검정고시】 “어쨌든 친구들 실질적으로 사회 진출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검정고시니까 검정고시 교육 지원, 두 가지.”
신규 패널2	【취업지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취업 지원이랑).” 【검정고시】 “이 센터를 방문하고 선생님이 검정고시 수업이 무료로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1월부터 4월까지.”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요청했다고 하시던데 기억나세요?) “네.” 【활동】 “인턴십이 아마 (제가 센터 안에서 했던) 봉사 활동이랑 연관된 걸 거예요. 센터에서 다락지기라고 8,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턴처럼 프로그램 짜고 진행하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 봉사 비슷한 거였는데 살짝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걸 센터 학생들한테 진행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센터에서 다른 권유 받은 게 있나요?) “건강검진.” 【보조교사 활동】 “센터 안에 친구랑 해서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간단하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얘기도 좀 해주고, 원래 다른 선생님들 대신 해 주시다가 자리가 비어서. 그냥 제가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서 하게 됐고, 인턴이다 보니까 작게나마 제가 스스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어서.”	사례 담당자 1	【검정고시】 “희 소식지 드릴까요? 이쪽이 다 저희 프로그램하는 거고요. 이건 검정고시, 이건 상, 하반기로 교육하는 거 있고요. 숙려제 상담하고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두드림이나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이해는 있으세요? (그래서 좀 초기에 종결된 학생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원주시 꿈드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희는 검정고시요. 아이들 가장 많이 와요.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거의 검정고시를 하면서 출석이 매주 오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오다보니까 와서 공부하면서 그걸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씩하면서 이렇게 되는거죠.”
신규 패널4	【취업지원】 (센터 담당 선생님이 해 주신 걸 보면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랑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사례 담당자 6	–

제공 서비스			
	직업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취업 상담,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원하셨다고?) “다 해 주셨어요. (… 중략 …) 취업 정보 지원, 일자리 알선.” 【검정고시】 “검정고시 준비.” 【상담】 “심리상담.”		
신규 패널6	【취업지원】 “직업탐색.”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었고 그거 말고 저는 학교를 나온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담】 “진로상담.” 【활동】 소풍 및 영화관람, 스포치맨십큼패, 드림날다(행사), 봉사활동, 학교 밖 대체 청소년단.“	사례 담당자 7	【검정고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스마트 교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1대1 멘토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검정고시 관련된 지원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부르는데.”

2)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에 대해서 두 명의 무응답자를 빼고 나머지 7명의 청소년 패널은 만족을 표시했다. 자격증 훈련, 건강검진, 자기계발 서비스, 학업에 대한 조언, 책값/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 상담과 다독거림, 선생님/친구들이랑 함께 가서 받는 건강검진, 검정고시 정보 및 지원 등에 만족해 했다. 만족을 표시한 7명 청소년의 담당 사례관리자 중 무응답자는 4명이나 되었다. 반면, 무응답 청소년 패널의 사례관리담당자 2명은 만족을 표시했다. 무응답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과 사례관리자의 어긋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이 만족을 표시함에도 사례관리자가 무응답을 한 것은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을 잘모르거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해 무응답을 표시한 청소년의 사례관리자가 만족을 표시한 경우 역시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족도			
기존 패널1	【만족】 “재밌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혹시 이런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어요?) 네. 많이는 못 친해졌죠. 제가 아직은 사람을 잘 못 사귀겠어서.”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이용해보니까?) 재밌었어요.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없었어요?) 다양한 거.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 센터 애들을. (만나서?) 네. (센터에서 해주신 건강검진은 도움이 됐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괜찮았어요?) 네. 종합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사례 담당자 2	【만족】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검정고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학습도 같이 수업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개념적으로 잘 모르는 걸 왜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기존 패널2	【만족】 “자기 계발 서비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짧게 진행됐나요?) 총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취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느낌 그러니까 취업은 일은 일인데 제가 취미보다는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걸로 찾았고 일도 4년 하다가 캘리그라피를 계속하면서.”	사례 담당자 3	【만족】 (그렇게 잠깐 참여하는 학생들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스스럼 없이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강사 선생님이 있긴 한데 실무자도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해 주고 때로 고민도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강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얘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특성에 맞게 워낙 베테랑이라서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들도 잘 데리고 다독여서 하시더라고요.”
기존 패널3	【만족】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도움이 됐나요?) 그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저는 주위에 그런 경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영어 문법이 어렵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영어 공부 지원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사례 담당자 8	–
기존 패널5	【만족】 “충분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진 못했는데 저는 충분했어요. (책값도 지원 받고 학원비도 지원 받았고 수강료까지는	사례 담당자 4	–

만족도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셨고 특별히 불만스러운 건 없었나요?) 네, 그건 없어요. 학원 강의를 재밌게. 네, 불만은 따로 없어요.”		
기존 패널8	–	사례 담당자 5	【만족】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검정고시 반은 참여하는 친구들 제일 만족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건 결과가 확실하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합격증을 받으면 그것이 뭔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분명하게 뭔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죠.”
기존 패널 12	【만족】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맞는 것 같았어요?) 네. (혹시 불만스러웠던 건 있었나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센터에서는 상담을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 주고 다독인다고 할까요. 그냥 취업성공패키지는 자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는 거라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이건 애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감싼다 할까요. 나쁜 애들이 아니라 착하고 사실은 이런 애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도 있고 저것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도 있다는 식이니까 알고 하는 거라서 다독인다고 할까 포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례 담당자 9	【보통】 (보통 아이들이 이 상담이 끝나거나 상담하는 중에 만족도라고 하긴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오나요?) “보통 물어보죠. 끝나고 어땠어? 물어보고 다 종결되고 한 번 더 피드백 듣고. (그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실 받을 때는 되게 싫어하는데 끝나고 나면 괜찮았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권하기도 하고 사실 상담 받아보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하거든요. 보통,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가 했는데 괜찮았다. 할 때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준 적이 있어요.”
신규 패널2	【만족】 “네. 혼자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가서 한 번에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편했었고 그런 게 좋았죠.”	사례 담당자 1	–
신규	【만족】	사례	–

만족도			
패널4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실제로 저번주에도 선생님께 검정고시 원서 갖다 줘서 이것 좀 해달라고.”	담당자 6	
신규 패널6	–	사례 담당자 7	【만족】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만족도가 높다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도 당일에 안 오거나 멘토 선생님은 멀리서 오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와요. 일단 공부하려고 오는 것도 있고.”

3) 개선사항

청소년 패널과 담당 사례관리자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더 진로 설계와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더 많은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담당 사례관리자는 업무과다,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청소년 패널 1명은 꿈드림센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사항			
기존 패널1	【다양한 서비스】 “수업 내용 체계적으로. 일단 취업에 관한 거 자격증 같은 것도 여러 분야로 했으면 좋겠고 취업성공패키지랑 비슷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일자리 소개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게 교육 같은 것도 또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이랑 연계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대입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대학교 가는 것도.”	사례 담당자 2	【업무과다】 “일단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데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10가지 요구 중에서 각 한 사람당 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한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분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 패널2	【없음】 “저는 만족해서.”	사례 담당자 3	【인력부족】 (제가 질문 드릴 마지막 파트는 일단 꿈드림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인데 ○○시이긴 하지

개선사항			
			만 시 센터에 속하지만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서비스할 때 예산이나 연계 기관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요. 왜 부족하냐면 프로그램을 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기존 패널3	【프로그램 전문성】 "학교 그만 두면 검정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출신 대학생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강사.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바로 취업하는? (일자리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일자리 연결은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례 담당자 8	–
기존 패널5	【잘 모르겠음】 "아니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례 담당자 4	【업무과다】 "위에서 너무 실적을 압박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몇 명 발굴해라 이런 거?) 발굴과 성과,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검정고시든 사회진입이든 취업사관학교든 취성패든 아니면 자기개발이든 실적."
기존 패널8	【잘 모르겠음】 "아니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학원은 제가 알아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견 미용이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학원이 여기 없어서 도움주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례 담당자 5	–
기존 패널 12	【프로그램 전문성】 "제가 가봤던 곳은 한 군데라서 거기는 따로 공간이 확실하지 않아요. 따로 건물 옆에 작은 건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한 층에 어떤 강의실을 애들 강의실로 만들면 오히려 시간 조율도 편할 거고 저녁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저녁에라도 올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동아리 애들이 쓰거나 그러면 못 쓰는 경우도 많아서 따로 공간을 만들고 그때 선생님들도 강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할 줄 알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사례 담당자 9	–

개선사항			
	이것도 저것도 가르치는 식이라서 확실한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취업과 관련해서도 희망하는 게 많으면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신규 패널2	【대상 맞춤형 지원】 “미래의 꿈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그 꿈에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사례 담당자 1	【기타】 “개선해야 될 거 많죠. 근데 되겠어요.”
신규 패널4	【없음】 “제가 많이 나갔더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끔씩 나갔고 선생님들도 워낙 좋은 분들이고 잘 챙겨주셨고 학생들과는 친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어디가 개선돼야 되는지 없는 것 같은데	사례 담당자 6	–
신규 패널6	【홍보 부족】 “일단 홍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고.”	사례 담당자 7	【업무과다】 “어떤 상황에서? 일단 일이 너무 많고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군구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저희들끼리만 프로그램을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한청원에서 뭔가 공지를 내려주고 언제까지 취합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구 센터 걸 다 취합해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취합해서 공문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고 시도 센터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시도 센터로써 새로 생긴 업무 때문에도 힘들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군구가 하는 직접 지원이랑 시도서만 할 수 있는 연합 사업이나 꼭 1년에 1번씩 연합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 사업이나 그 외에 다른 시도만 해야 된다고 내려주는 업무 2개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 꿈드림센터 이용 청소년 면접조사결과

① 기존·신규 패널 간의 비교

면접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 서비스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비교하였다. 이용 전 기대서비스를 보면 신규는 검정고시와 취업지원인 반면 기존은 주로 취업지원과 상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었다. 센터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신규 패널은 주로 수용의 경험과 정보제공, 기존 패널은 정서적 경험과 정보제공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제공받은 서비스의 만족도,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만족도와 센터의 지속적 이용에 대해서도 양자 모두 긍정적이었다. 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유로는 두 패널 모두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두 패널의 분명한 차이는 본인이 희망했던 서비스 외에 권유받은 서비스에서 나타났다. 기존 패널이 주로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검정고시를 권유받은 데 비해 신규 패널은 주로 건강검진이었다. 또한 사례관리자와의 월 만남 횟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 패널이 주로 월 3~4회인 반면 기존 패널은 월 1회 정도로 거의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규 패널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인적 이유를 제시한 반면 기존 패널은 소수가 답했지만, 센터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삼고 있었다. 신규 패널 중에서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데 본인은 낯을 가려서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가 센터의 발전을 위한 건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기존 패널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꿈드림센터의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기간이 길수록 본인의 욕구나 바램이 분명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이행경로 간 비교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센터가 자신이 희망하는 학업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정고시 중심의 프로그램 전문성을 희망하고 있었고 필요한 도움을 다 받을 때까지 이용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센터 내 자체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은 직업형, 무업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업형과 함께 불만이 높았다. 반면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무업형과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형은 주로 상담 선생님때문이었다.

직업형의 경우 무업형이나 학업형과 달리 센터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선호했다. 또한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의 기대치가 무업형이나 학업형보다 높았다. 나아가 무업형과 함께 희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장소나 거리 접근성 문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센터의 개선방향으로 접근성을 언급한 것을 통해 드러나며, 동일한 맥락에서 센터의 지속적 이용이나 이용예정 기간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직업형, 학업형처럼 목표지향적인 경우와 달리 무업형의 경우 다른 두 이행경로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과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꿈드림센터 이용 전 인지 유무와 관련하여 무업형이 모른다는 응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무업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 온 계기는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와 학업지원이었으나 무업형의 경우 '기대 없이 방문'의 비율이 높았다. 주의할 것은 무업형이 곧 '기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대 있는 방문'을 하는 무업형의 경우 기대서비스가 주로 취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사이에 간극이 확인되었다. 응답자 중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청소년 중 무업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특이하게도 무업형 청소년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다수였다. 이는 무업형의 경우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프로그램과 센터 선생님에 대해서는 만족한 결과로 나타난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무업형의 경우 더 나아가 희망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취업이나 본인의 미래지향적 삶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며, 꿈드림센터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무업형 청소년들을 위한 심도 있는 취업프로그램과 함께 개인의 참여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즉 타율적으로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특히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자에게 받은 가장 큰 도움을 정서적 지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주로 '무업형' 청소년이었다. 또한 무업형 청소년은 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유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며 본인이 이용 가능한 기간까지 이용하겠다고 센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도 무업형이 다수였으며, 센터의 재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무업형의 경우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꿈드림센터에 대해 학업형이나 직업형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이행경로 중 꿈드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 꿈드림센터는 특히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수요자중심으로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③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자와 이용 완료자, 이용 중단자 간 비교

그 외에 추가로 꿈드림센터의 계속 이용자와 이용 중단자 그리고 이용완료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패널이나 신규패널의 구분 없이 센터 이용의 '계속'이나 '완료' 그리고 '중단'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꿈드림센터 방문목적, 그리고 꿈드림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검정고시지원 서비스처럼 목표가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서비스일 경우, 방문동기가 소멸에 따라 센터방문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꿈드림센터 방문동기가 센터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상담자와의 관계,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분위기 등일 경우, 해당 서비스의 만족은 '계속 이용'으로 불만족은 '이용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담자 교체로 인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어려움 등이 '이용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꿈드림센터 외적인 요인, 즉 아르바이트로 인한 자유시간의 결핍 등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센터의 계속적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이용 중단'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면 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나 인간관계,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방문목적이 '계속 이용'과 '이용 중단' 그리고 '이용 완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2) 담당 사례관리자 면접조사결과

① 꿈드림센터 현황

다음 사례관리자의 꿈드림센터의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월 평균 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는 20~100명 정도로 다양하고 특히 검정고시 즈음에 방문 수가 증가하며, 사례관리자의 경우 월 평균 10~50명 정도이고 센터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은 센터별 2~6명 정도의 근무자이고 대부분 팀장/센터장은 겸직이며 주 업무는 크게 '학업', '진로취업', '자기개발'이었다. 이중 학업지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성

청소년들의 유입 경로별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교육청 리스트를 통한 경우 적극성이나 적응력 등이 낮다는 응답이 있으며 보호관찰소나 경찰 연계의 경우 비행성향과 부적응을 주로 지목했고, 소개나 자발적 방문의 경우 동기나 목표의식이 보이나 부모가 소개한 경우는 사회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학업 중단 사유별 차이에선 자기 진로가 확실한 경우 가정의 지원이 확실하므로 센터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③ 꿈드림센터 주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검정고시 지원에서 강사의 자질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보았다. 상담의 경우는 대입멘토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취업성공률이 낮다고 응답했다. 그 외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동아리 등의 센터별 특화서비스를 언급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 주로 '대인관계 역량강화'와 '소속감'으로 보았고, 사례관리 시 청소년의 욕구, 적성, 진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④ 꿈드림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영향 요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0명 중 7명이 상담자의 역량을, 5명이 기관과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3명만이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기관 발굴과 사후관리 그리고 연계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할 때 애로사항으로 '출석 관리 및 중도탈락자 발생', '업무 부담',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점'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사례관리자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그만두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청소년의 중도탈락에 있음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해당 사례 청소년 경우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부모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특성이 있으며 센터에서의 초기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센터의 계속적 이용에는 사례관리자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를 핵심으로 보았다. 대부분 청소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중단자의 경우 욕구부족이나 아르바이트 등 시간부족으로 보았고, 중도탈락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으로 봄으로 문제발생의 원인이 사례관리자 개인보다는 청소년 개인이나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⑤ 업무 상 애로사항 및 개선 노력

센터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센터 간 인건비 격차, 인력 대비 과중한 사업비 내지 비효율적 인력구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경제적 지원대상 기준의 비합리적 설정, 외부연계서비스 기관의 도시집중화, 센터 내 적절한 업무분담의 필요성, 직원들의 처우개선, 각 지역 센터와 여성가족부 등 상위 기관들간의 유기적 업무 및 의사소통 체계정립,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및 시설 지원, 연계기관의 실질적 관심과 함께 실무자들도 참석하는 현장 중심적 정책토론 등을 지적하였다.

⑥ 담당사례 청소년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에서 사례관리자와 청소년사이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정고시가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상담과 취업지원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검정고시 지원의 경우 사례관리자의 관점에서 강사의 강의능력이나 자질을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만족도 역시 대부분 높은 편이라고 자평한 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의 평가는 달랐다. 꿈드림센터의 발전을 위한 건의에서 검정고시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업형 청소년들 다수가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사례관리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의 연계와 인턴쉽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청소년의 응답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와 인턴쉽에 대한 유의미한 응답은

없었다. 그 외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자는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언급하였으나 청소년의 응답에서 자기계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센터별 특화서비스에 속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적인 실질적 체험은 전혀 없이 형식적인 시설설명만 듣고 왔다는 청소년의 불평이 있었다. 이는 사례관리자의 개인적 역량을 넘어서는 한계로 볼 수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고지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꿈드림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연계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성가족부에 이르는 공급자의 한 축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수요자의 두 축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가능하다. 일단 꿈드림센터의 취지와 청소년들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지원센터의 존재가 2015년 이래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개선되어야 할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꿈드림센터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가정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상담자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분류를 대략 다섯 가지 형태, 즉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초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비행형',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의 유입에 가정・경제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것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조언, 진로지도, 취업이나 학업복귀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할 상담자와 청소년 간의 인간적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다수 청소년들이 상담자로부터 받은 도움 가운데 정서적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과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센터에서의 근무를 개인의 취업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애정, 소명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센터의 근무가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중간근무처 정도로 이해하게 되고 돌봄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 면담한 한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들도 잘 안 오시고, 무슨 일 있어서 안 오고, 가면 아무도 없고 그런 적도 있어서'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적 의식의 문제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릴 경우 꿈드림센터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설사 근무조건이나 센터의 제반시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상담의 질 향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센터 상담자의 직업의식이나 적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기준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또 상담자들 역시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적,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이다.

① 적절성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센터서비스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 이면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상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시간부족'이었다. 이 중 욕구상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서비스의 결여와 기대에 어긋난 서비스의 제공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계형성이 안 되는 경우 중도탈락은 필연적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청소년 개인의 성향이나 유입경로 등, 외적·내적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자극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청소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욕구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의미의 소위 '삼미'가 요구되므로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면담을 통해서 센터별로 '자기계발 동아리'나 '자치활동/청소년단 활동' 등 생산적인 서비스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화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성의 확립은 긍정적 방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② 외부 연계 서비스의 실효성문제이다. 내부활동과 외부활동을 비교할 때 불만족은 외부활동에 치우쳐 있었다. 일단 만족을 표시한 내부활동의 경우 일례로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하면서도 '좀 더 길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진학관련 상담시 자기소개서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에 부응해 청소년들의 현실적

욕구에 좀 더 집중한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불만족이 많았던 외부활동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외부 연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업무과중을 피하기 위해 센터에서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외부 연계 서비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과 관리자의 교육의지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외부연계서비스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도시집중화문제로 나타난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등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더라도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 직업체험의 경우에는 실질적 직업체험 없이 시설소개만 하루 하고 마치는 형식적 직업체험으로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부활동의 경우 무엇보다 실질적 내용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센터와 민간, 법인 등 다양한 지역 기관들간의 민관지역협의체 구축이 필수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꿈드림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과 분리하여 독립된 센터를 개설하였다면 적어도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꿈드림센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인 바 직접 청소년을 맡아 도움을 주는 팀장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꿈드림센터 시설이 열악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에 따라 꿈드림센터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을 향한 흡입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공간이나 상담공간, 나아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③ 대다수 꿈드림센터 직원의 비정규직화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관심과 이해를 주어야 할 상담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전담인력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생산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일이 요구된다. 개인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의 직원과 꿈드림센터의 직원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두 센터의 채용기준이나 고용조건이 동등하지 않음으로 한 지붕안의 두 센터가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⑤ 업무분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국에 분포한 꿈드림센터 내 상담자가 담당하는 내담자의 수급상황에 있어 격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새로운 센터를 개설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근 센터와 통합 등을 통해 전체 센터의 개별 상담자가 맡게 되는 내담자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⑥ 상담자 근무기간의 불안정성으로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상담자의 근무기간을 최소 2~3년 정도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많은 센터에서 매년 근무자가 여러번 교체되어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고 이는 센터의 신뢰 및 서비스 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청소년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근무기간 지속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① 예산체계의 비표준화로 인해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재정부족, 둘째 재정과다이다. 첫째의 경우 일례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매뉴얼 2015년 예산현황을 보면 시・군・구센터의 예산의 경우 2014년 65,000천원에서 2,000천원 증가한 67,000천원이었다(12p). 이중 사업비가 27%이상(13p)이므로 약 18,090천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년교통비, 검정고시 학원비, 각종 직업관련비용, 인터넷 강의, 멘토링지원, 교재구입비, 동아리활동비 나아가 식비 및 간식 그리고 특강 전문 강사비 등 많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 실제 팀장과 두 명의 전문인력을 전임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재정과다의 문제는 과다한 사업비지원과 인력부족이 맞물린 업무과중을 의미한다. 사업비지원과 사업요구의 비례적 증가는 적정한 인력증원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질적 성과보다는 형식적 집행에 치우치기 쉬우며 결국 피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밖 에 없다. 나아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강검진 사업처럼 불필요한 예산배당의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재정지원의 효율성은 지원대상의 명확성, 실질적 업무수행 가능성에 따른 재정의 적절한 분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연결체계의 미흡이다. 일차로 여성가족부의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양적인 결과보다 질적 성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토론 시 팀장급만 참석하고 실무자들이 배제되는 등의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있고, 사례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개별 센터와 시도센터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개별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여성가족부와의 의사사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된다.

꿈드림센터의 바람직한 정립을 위해서는 첫째, 구조의 정립이 요구된다. 재정의 규모와 필요성, 사용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정립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시·도센터 및 개별센터간의 유기적 연결망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내용의 정립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체계와 모니터링 그리고 시의적절한 보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요구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과 욕구분석 그리고 그들의 이행경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꿈드림센터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꿈드림센터가 단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되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으로 체계화 구조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직업형이나 학업형과 달리 무업형의 청소년과 관련하여 센터의 효과가 확인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대, 강화 및 심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제 V 장

학교 밖 청소년 규모파악과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3. 무업청소년(NEET) 규모
4.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5. 국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제 Ⅴ 장

학교 밖 청소년 규모파악과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학업중단율 변화추이

<표 Ⅴ-1>은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198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생 인구 수의 감소에 따라 학업중단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05년도 이후 학업중단율이 0.5~0.6%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2년도까지 0.8% 수준을 유지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0.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9년 1.8%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2%까지 떨어졌고, 2015년에도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Ⅴ-1】은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Ⅴ-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5년도)[86]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1980	5,658,002	3,856	0.1	2,471,997	30,628	1.2	1,696,792	43,088	2.5
1985	4,856,752	1,636	0.0	2,782,173	29,410	1.1	2,152,802	63,841	3.0

* 이 장의 1~3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5절은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음.

86) 윤철경 외(2015) p.14 <표 Ⅱ-1>에서 2014, 201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1990	4,868,520	1,299	0.0	2,275,751	22,348	1.0	2,283,806	42.542	1.9
1995	3,905,163	1,219	0.0	2,481,848	24,567	1.0	2,157,880	53,743	2.5
2000	4,019,991	14,734	0.4	1,860,539	19,097	1.0	2,071,468	52,136	2.5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6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7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8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9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10	3,299,094	18,836 (10,404) →10,181 (사망자제외)	0.6 (0.3)	1,974,798	18,866 (16,509) →16,320 (사망자제외)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1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2	2,951,995	16,828 (9,192)	0.6 (0.3)	1,849,094	16,426 (14,231)	0.9 (0.8)	1,920,087	34,934 (30,558)	1.8 (1.6)
2013	2,784,000	15,908 (7,900)	0.6 (0.3)	1,804,189	14,278 (12,055)	0.8 (0.7)	1,893,303	30,382 (26,459)	1.6 (1.4)
2014	2,728,509	14,886 (7,112)	0.5 (0.3)	1,717,911	11,702 (9,594)	0.7 (0.6)	1,839,372	25,318 (21,379)	1.4 (1.2)
2015	2,714,610	14,555 (7,381)	0.5 (0.3)	1,585,951	9,961 (8,133)	0.6 (0.5)	1,788,266	22,554 (21,873)	1.3 (1.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p.55. 표Ⅴ-6-1.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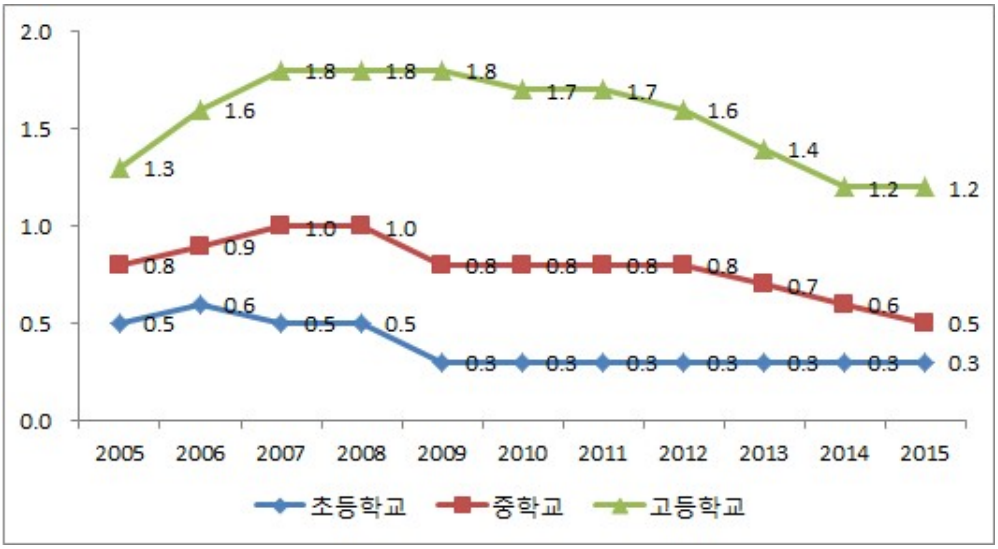
2)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2015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2015.3.1.~2016.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5.4.1.기준)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2015년 기준).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0~2015년의 ( )는 2009년 이전 기준(유학이민/파견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그림 Ⅴ-1】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변화(2005~2015) (단위: %)[87]

주: 2009년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2010년 이후의 학업중단율을 산출한 값을 비교함.

2)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 현황

(1) 초등학교

교육통계연보에서는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사유를 표기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 변화는 <표 Ⅴ-2>와 【그림 Ⅴ-2】에 제시되어 있다.

2015년 학업중단 사유로 가장 높은 것은 해외출국(53.5%)이었고, 그 다음으로 미인정유학(26.7%), 유예 기타(15.4%) 순이었다. 또한 4개년간 추이를 보면 해외출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인정유학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7) 윤철경 외(2015) p.15 【그림 Ⅱ-1】에서 2014, 201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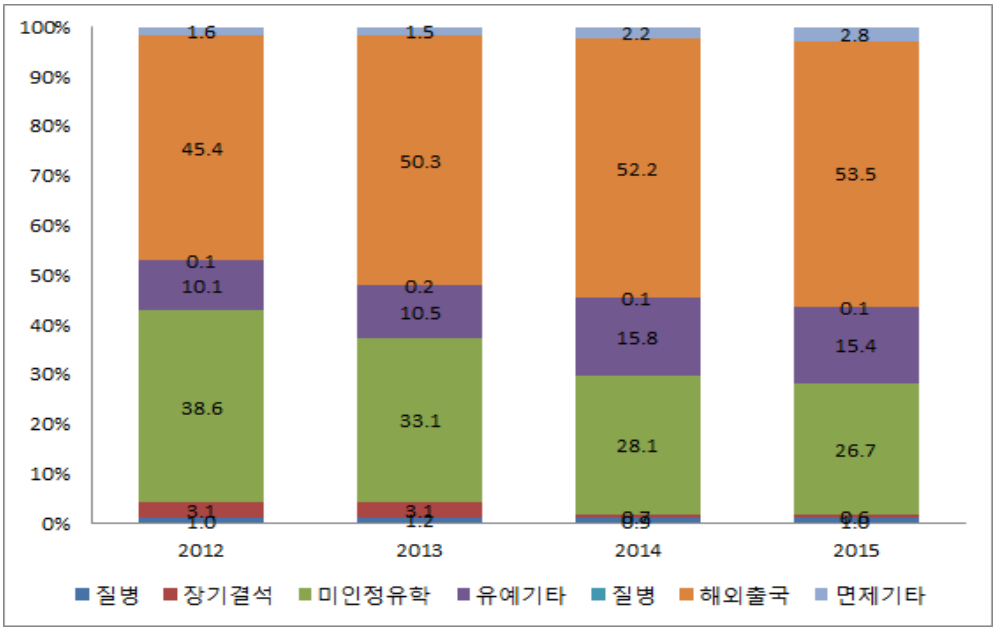
표 V-2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2~2015학년도) [단위: 명(%)]

구분	학업중단자 수	유예					면제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12	16,828 (100.0)	174 (1.0)	53 (0.3)	530 (3.1)	6,502 (38.6)	1,657 (9.8)	10 (0.1)	7,636 (45.4)	266 (1.6)
2013	15,908 (100.0)	195 (1.2)	–	486 (3.1)	5,271 (33.1)	1,675 (10.5)	28 (0.2)	8,008 (50.3)	245 (1.5)
2014	14,886 (100.0)	141 (0.9)	–	106 (0.7)	4,181 (28.1)	2,347 (15.8)	13 (0.1)	7,774 (52.2)	324 (2.2)
2015	14,555 (100.0)	146 (1.0)	–	87 (0.6)	3,882 (26.7)	2,242 (15.4)	10 (0.1)	7,784 (53.5)	404 (2.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학생 현황)

주: 1)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

2) 유예의 '발육부진'사유는 2012년도에만 제시되었음



[그림 V-2]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변화(2012~2015) (단위: %)

주: 2012년 '발육부진'사유는 기타에 포함시켜 비율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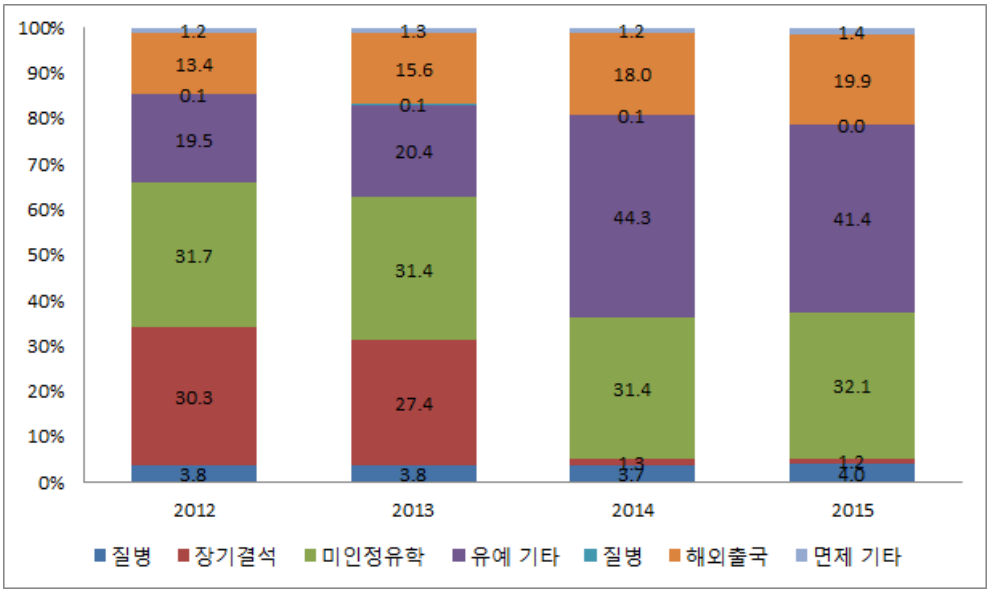
(2) 중학교

<표 Ⅴ-3>과 【그림 Ⅴ-3】은 2012년~2015년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2015학년도 기준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유예 기타(41.4%), 미인정유학(32.1%), 해외출국(19.9%)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해외출국보다는 미인정 유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년간 추이를 보면 먼저 장기결석이 2013년을 기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비해 유예 기타가 20%p 상승한 것으로 보아 장기결석이 기타에 많이 포함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출국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Ⅴ-3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2~2015학년도) **[단위: 명(%)]**

구분	학업중단자 수	유예					면제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12	16,426 (100.0)	623 (3.8)	5 (0.0)	4,985 (30.3)	5,206 (31.7)	3,196 (19.5)	15 (0.1)	2,195 (13.4)	201 (1.2)
2013	14,278 (100.0)	549 (3.8)	–	3,913 (27.4)	4,482 (31.4)	2,912 (20.4)	17 (0.1)	2,223 (15.6)	182 (1.3)
2014	11,702 (100.0)	438 (3.7)	–	152 (1.3)	3,672 (31.4)	5,188 (44.3)	8 (0.1)	2,108 (18.0)	136 (1.2)
2015	9,961 (100.0)	398 (4.0)	–	116 (1.2)	3,201 (32.1)	4,125 (41.4)	3 (0.0)	1,983 (19.9)	135 (1.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학생 현황)
주: 1)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
2) 유예의 '발육부진'사유는 2012년도에만 제시되었음



【그림 Ⅴ-3】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변화(2012~2015) (단위: %)

주: 2012년 '발육부진'사유는 기타에 포함시켜 비율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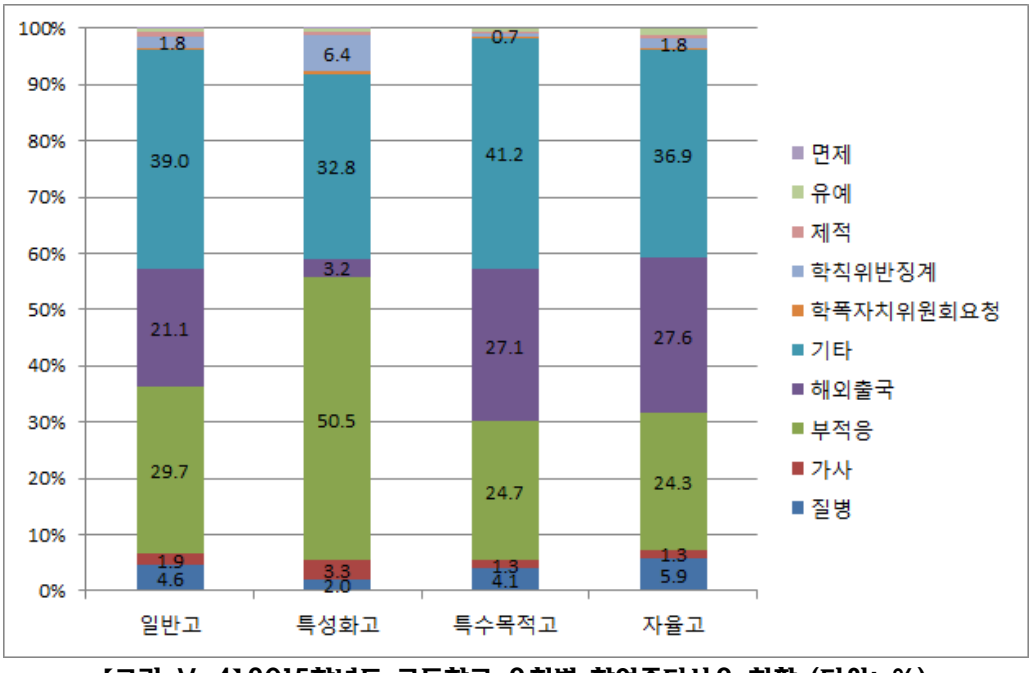
(3)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는 <표 Ⅴ-4>와 【그림 Ⅴ-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고에서는 기타(39.0%)와 부적응(29.7%)이, 특성화고에서는 부적응(50.5%)과 기타(32.8%), 특수목적고는 기타(41.2%)와 해외출국(27.1%), 자율고는 기타와(36.9%) 해외출국(27.6%)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성화고는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적응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비율이 약 20%p 높은 반면 해외출국 사유는 20%p 가량 낮았다. 2015학년도부터 퇴학 사유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요청했는지와 징계를 받았는지로 구분되었다. 다른 유형에 비해 특성화고에서는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고등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6.4%로 높았다.

표 V-4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단위: 명, %)

구분	학업 중단자 수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품행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			
일반고	13,946 (100.0)	647 (4.6)	259 (1.9)	4,140 (29.7)	2,940 (21.1)	5,433 (39.0)	52 (0.4)	251 (1.8)	153 (1.1)	63 (0.5)	8 (0.1)
특성화고	6,519 (100.0)	133 (2.0)	215 (3.3)	3,289 (50.5)	207 (3.2)	2,137 (32.8)	38 (0.6)	414 (6.4)	48 (0.7)	35 (0.5)	3 (0.0)
특수 목적고	765 (100.0)	31 (4.1)	10 (1.3)	189 (24.7)	207 (27.1)	315 (41.2)	1 (0.1)	5 (0.7)	3 (0.4)	4 (0.5)	0 –
자율고	1,191 (100.0)	70 (5.9)	16 (1.3)	290 (24.3)	329 (27.6)	439 (36.9)	5 (0.4)	22 (1.8)	4 (0.3)	16 (1.3)	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2016(학업중단학생현황).
주: 1)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 해당사유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2) 2015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5.3.1.~2016.2.29. 기준.
3) 학업중단자 중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V-4]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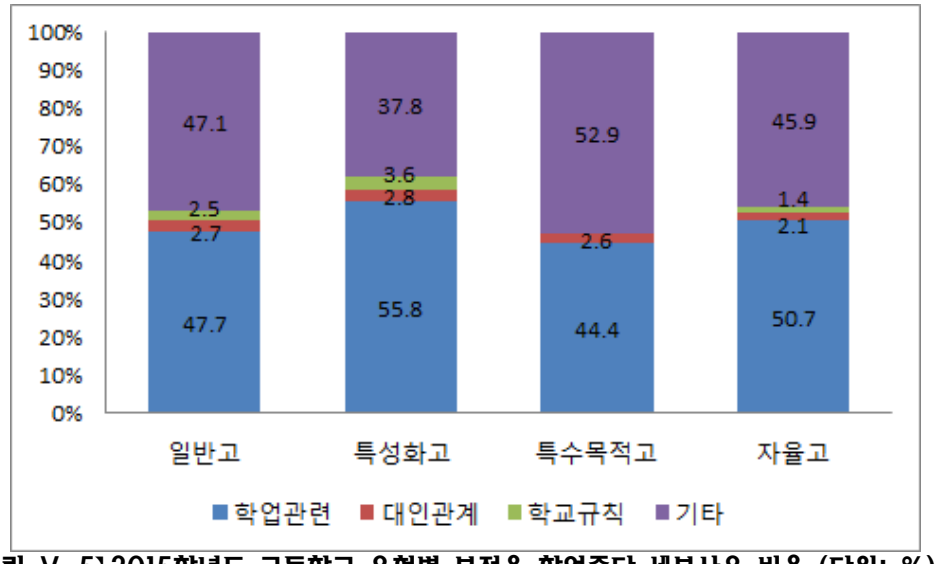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2016(학업중단학생현황).

교육통계연보에서는 부적응의 세부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부적응 세부사유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가 <표 Ⅴ-5>, 【그림 Ⅴ-5】에 제시되어 있다.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유는 학업관련 사유였다. 특수목적고에서는 기타 사유가 52.9%로 가장 높았다. 학업관련 부적응 비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는 특성화고(55.8%)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특수목적고(44.4%)였다. 학교규칙으로 인한 부적응은 특성화고(3.6%)에서 가장 높았고, 특수목적고는 없었다.

표 Ⅴ-5 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단위: 명(%)]

구분	부적응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일반고	4,140 (100.0)	1,973 (47.7)	113 (2.7)	104 (2.5)	1,950 (47.1)
특성화고	3,289 (100.0)	1,835 (55.8)	93 (2.8)	117 (3.6)	1,244 (37.8)
특수목적고	189 (100.0)	84 (44.4)	5 (2.6)	0 (0.0)	100 (52.9)
자율고	290 (100.0)	147 (50.7)	6 (2.1)	4 1.4)	133 (45.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2016(학업중단학생현황).
주: 1)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 해당사유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2) 2015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5.3.1.~2016.2.29. 기준.



【그림 Ⅴ-5】2015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2016(학업중단학생현황).

3) 거주지 규모별 학업중단율

거주지 규모별로 학업중단율을 알아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대도시 0.7%, 중소도시 0.5%, 읍면지역 0.2% 순이었다. 중학교 학업중단율은 대도시 0.7%, 중소도시 0.6%, 읍면지역 0.4%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대도시, 중소도시는 1.4%였으나 읍면지역은 1.7%였다. 초·중학교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학업중단율이 낮으나 고등학교 때의 학업중단율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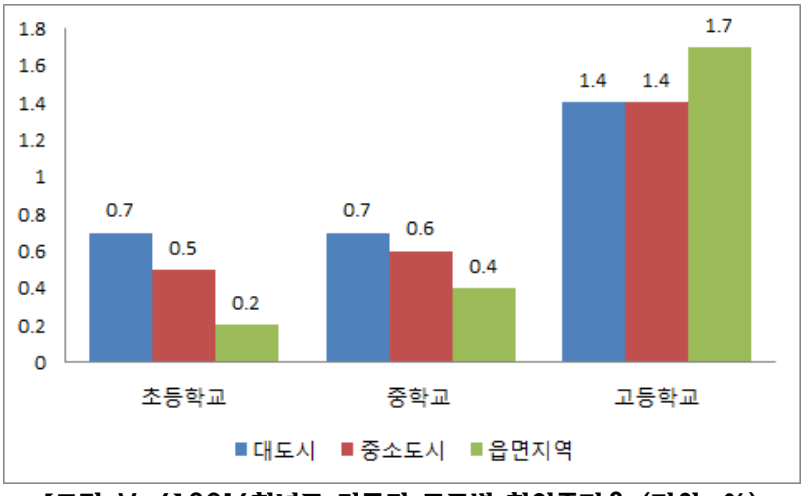
표 V-6 2016학년도 거주지 규모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거주지 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대도시	1,119,583	7,579	0.7	589,833	4,234	0.7	723,804	10,120	1.4
중소도시	1,405,805	7,047	0.5	713,526	4,341	0.6	845,671	11,963	1.4
읍면지역	148,839	372	0.2	77,975	349	0.4	100,224	1,658	1.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2017(학업중단학생현황). 내부자료.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2016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6.3.1.~2017.2.28. 기준 / 재적학생 수: 2017.4.1. 기준



[그림 V-6] 2016학년도 거주지 규모별 학업중단율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2017(학업중단학생현황: 거주지 규모별). 내부자료.

2.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국제이동,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윤철경 외(2015: 25~2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5.12.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 학령인구 수(97~08년생)와 교육통계연보 상의 학생 인구 수를 산출하고 학령인구에서 학생 인구 수를 제하였다. 그 결과,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총 6,433,576명이었으며, 학령 인구 수는 6,061,849명으로 격차는 371,727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V-7 1997~2008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단위: 명)

출생 년도	주민등록상 인구 수	학생 인구 수						격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방계학제	합계	
08	468,193	439,592				405	439,997	28,196
07	495,348	479,577				843	480,420	14,928
06	449,186	435,817				765	436,582	12,604
05	435,768	421,488				807	422,295	13,473
04	473,556	456,324				931	457,255	16,301
03	493,078	461,497	15,084			1,788	478,369	14,709
02	494,339	17,774	383,403			2,708	403,885	90,454
01	558,824	690	522,562			3,577	526,829	31,995
00	638,404	481	598,094	2,981		4,096	605,652	32,752
99	618,830		65,392	526,529		3,057	594,978	23,852
98	638,429		996	591,269		3,078	595,343	43,086
97	669,621		142	609,024	7,866	3,212	620,244	49,377
합계	**6,433,576**	**2,713,240**	**1,585,673**	**1,729,803**	**7,866**	**25,267**	**6,061,849**	**371,727**

출처: 안전행정부(2015.12.31.).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교육통계연보.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주 : 1) 2015. 12. 31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현황
2) 2015. 04. 01 기준 재적 학생 수
3) 출생신고 기준 학령인구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한 총 6,445,590명이며 해외체류, 사망신고 등을 주요 사유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 총 12,014명을 제외한 수치임
4) 격차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에서 학생 인구수의 합계를 뺀 수임
5) 방계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함.

또한 윤철경 외(2015)에서는 이 격차에 학령기에 있는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2004~2015년 간 누적된 학령인구의 순입국자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자녀 중 학령 인구는 19,266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교육통계연보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의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윤철경 외(2015)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학업중단자 수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9개월 간 학업중단과 복교과 매월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9개월 간 순 학업중단자 수를 구한 후 이를 감하였다. 그 결과 2015년 9개월 간의 순학업중단자 수는 약 19,523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V-8 2015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추정, 2015.4.1~12.31) (단위: 명)

구분		2015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A)	2015학년도 복귀자 수 (B)	2015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A–B)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
기간학제	초등학교	14,555	11,281	3,274	2,456
	중학교	9,961	5,751	4,210	3,158
	고등학교	22,554	4,349	18,205	13,654
방계학제	특수학교	–	–	–	–
	공민학교	–	–	–	–
	고등공민학교	–	–	–	–
	고등기술학교	77	–	77	58
	각종학교(초 · 중 · 고)	263	–	263	197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	–	–	–
	산업체 특별학급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	–	–	–
총계		47,410	21,381	26,029	19,5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학생변동 상황).
주: 1)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는 2015.3.1~2016.2.28 기준임.
2) 2015학년도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의 월별 데이터가 없어 매월 동일한 비율로 학업중단과 복귀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여 2015학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x 9/12로 하여 추정함. 학업중단이 월별로 분산되는 반면 복귀는 3월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치는 최소 수치라고 할 수 있음.
3) 방계학제인 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산업체부설 고등학교/산업체 특별학급/방송통신고등학교의 복귀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마지막으로 연령으로는 학령기이지만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학생 수에 반영하였다. 2015년 기준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추정치는 4,667명이었다.

그 결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405,849명으로 산출되었다. 4개년 간의 추이를 볼 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인구와 순 학업중단자 수의 감소가 눈에 띄다.

표 V-9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5.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구 수				비 고
		2012.12.31 기준	2013.12.31 기준	2014.12.31 기준	2015.12.31 기준	
학령인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 (A)	7,126,098	6,862,319	6,650,243	6,433,576	· 2015.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 자녀 중 학령인구 (B)	13,372	14,780	23,158	19,266	· 2004~2015년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4~2015) 원 자료 활용.
학생수	교육통계상 학생 인구 (C)	6,715,622	6,460,545	6,262,541	6,061,849	· 2015.4.1. 기준 재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순 학업중단자수 (D)	29,895	26,044	21,413	19,523	· 2015.4~2015.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고등학교 조기졸업자수 (E)	–	–	3,610	4,667	· 2013년 만 14세 이하, 2014년 만 15세 이하, 2015년 만 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 수 (추정치) · 〈표 V-14〉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수 (F)		453,743	442,598	428,663	405,849	· F=(A+B)-(C-D+E)

(2)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국제이동

윤철경 외(2015: 27-30)는 국가통계를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상황을 파악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개년간 내국인 순 출국자수는 55,383명, 외국인 순입국자수는 19,266명으로 나타났다.

표 V-10 2015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 (단위: 명)

년도	내국인 순 출국자	외국인 순 입국자
2004	1,374	−24
2005	3,213	53
2006	7,726	11
2007	9,115	343
2008	7,197	463
2009	−926	547
2010	4,296	926
2011	4,113	1,887
2012	4,343	1,176
2013	4,556	2,031
2014	4,144	3,883
2015	6,232	7,970
합계	**55,383**	**19,26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4~2015). 국제인구이동통계.

주: 1) 국제인구이동통계 원자료(각세별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학령인구의 국제이동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종단적으로 파악한 것임.

2) 국제인구이동이란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이동을 의미함. 내국인 순출국자(출국자-입국자), 외국인 순입국자(입국자-출국자)를 산출하였음.

또한 학령인구의 순출국학생 수를 추정하고자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출국자에서 귀국자를 감하였다. 이 때, 2004년에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11개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 격차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년별 현황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학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윤철경 외, 2015: 28).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12개년의 누적 순출국 학생 수는 82,719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V-11 2015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단위: 명)

구분	출국			귀국			출입국 격차	가중치	순출국 학생수
	유학	해외 출국	출국학 생합계 (A)	유학	파견 동행/ 이민	귀국 학생 합계(B)	A-B	n=1 ~12	
2004	–	–	–	–	–	–	15,789	1/12	1,316
2005	22,330	14,994	37,324	6,204	7,382	13,586	23,738	2/12	3,956
2006	31,910	16,296	48,206	9,683	8,679	18,362	29,844	3/12	7,461
2007	30,981	16,148	47,129	11,126	9,151	20,277	26,852	4/12	8,951
2008	31,019	14,024	45,043	11,248	11,015	22,263	22,780	5/12	9,492
2009	20,883	11,953	32,836	12,150	11,548	23,698	9,138	6/12	4,569
2010	20,982	11,921	32,903	10,306	9,679	19,985	12,918	7/12	7,536
2011	19,747	11,928	31,675	8,696	10,502	19,198	12,477	8/12	8,318
2012	17,030	10,967	27,997	8,082	9,676	17,758	10,239	9/12	7,679
2013	13,892	11,606	25,498	6,619	9,268	15,887	9,611	10/12	8,009
2014	12,371	10,539	22,910	6,619	8,453	15,072	7,838	11/12	7,185
2015	9,925	9,683	19,608	4,493	6,868	11,361	8,247	12/12	8,247
11개년 합계	231,070	140,059	371,129	95,226	102,221	197,447	173,682		
연평균							15,789		
2004~2015년 순출국학생수(12개년 추정치)									82,71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6~2016). 각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현황, 귀국현황).

주: 1) 12개년간 출국 후 미복귀 학생 추정치는 2015학년도 재학생 기준으로 2004년도에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없어 10개년 간 평균값을 대입하여 추정함. [추정식: Σ(A-B) × n /12, (n=1~12)]

2) 구분 연도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당해 연도로 수정함. 즉 2005년도는 2005.3.1~2006.2.28 기준임.

3) 유학(미인정 유학, 인정유학, 자비유학, 미취학자 미인정 유학 포함), 해외출국(해외이주, 파견동행, 미취학자 해외출국 포함)

이상과 같은 산출과정을 종합하면 <표 V-12>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05,849명이며, 순출국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50,466명이다. 또한 내국인 순출국 학생수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수는 318,298명이다. 4개년 간의 수치를 살펴보면, 내국인 순출국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구 분			인구				산출근거
			2012.12.31 기준*	2013.12.31 기준*	2014.12.31 기준	2015.12.31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A)			453,743	442,598	428,663	405,849	· 〈표 V-9〉 참조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B)			368,661	370,302	352,876	350,466	· B= A-E
국제이동을 뺀 학교 밖 청소년 수(C)			336,760	336,550	324,719	318,298	· C= A-D-I
국제이동	내국인	순출국 학생수 (D,추정)	110,375	100,988	91,075	82,719	· 한국교육개발원 (2005~2015)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 및 귀국현황) 가공 · 추정
		순출국자 수 (E,추정)	85,082	72,296	75,787	55,383	· 2004~2015 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출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4~2015) 원 자료 활용.
		귀국 후 미복교자 (F,추정)	25,293	28,692	15,288	27,336	· F= D-E
	외국인	외국인 순입국자(G)	13,372	14,780	23,158	19,266	· 2004~2015 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2~2014) 원 자료 활용.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H)	6,764	9,720	10,302	14,434	· 2015. 4. 1.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다문화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수 (I, 추정)	6,608	5,060	12,869	4,832	· I= G-H

주 1) 2012.12.31., 2013.12.31.의 산출근거는 윤철경 외 (2015), p. 30-31 참조.

(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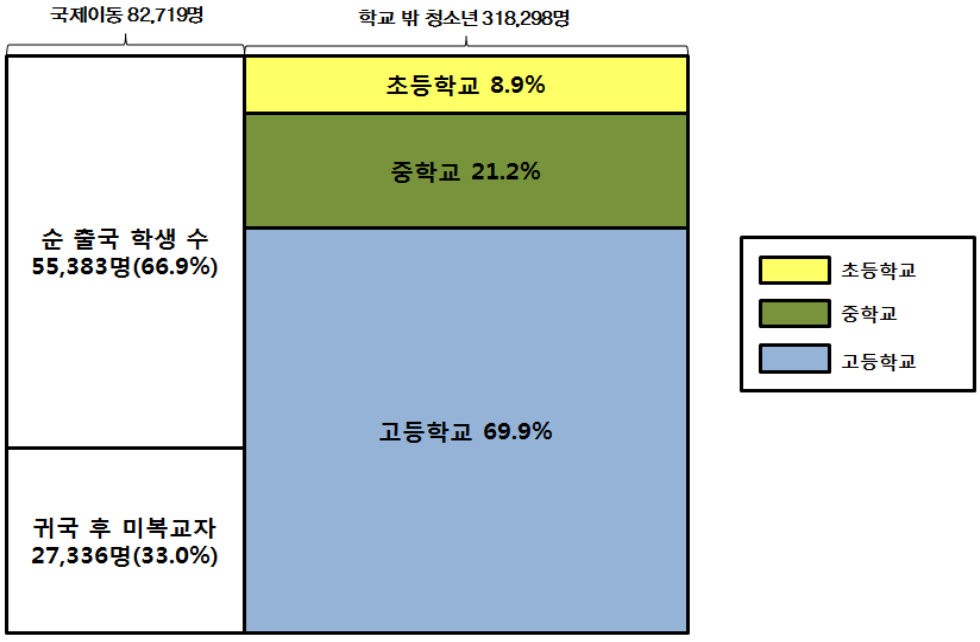
윤철경 외(2015: 33~36)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산출한 후 성별 분포와 교급별 분포를 파악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이 방식을 따라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교 연령이 10% 미만인 8.9%, 중학교 연령이 21.2%, 고등학교 연령이 69.9%로 대체로 고등학교 연령대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연령은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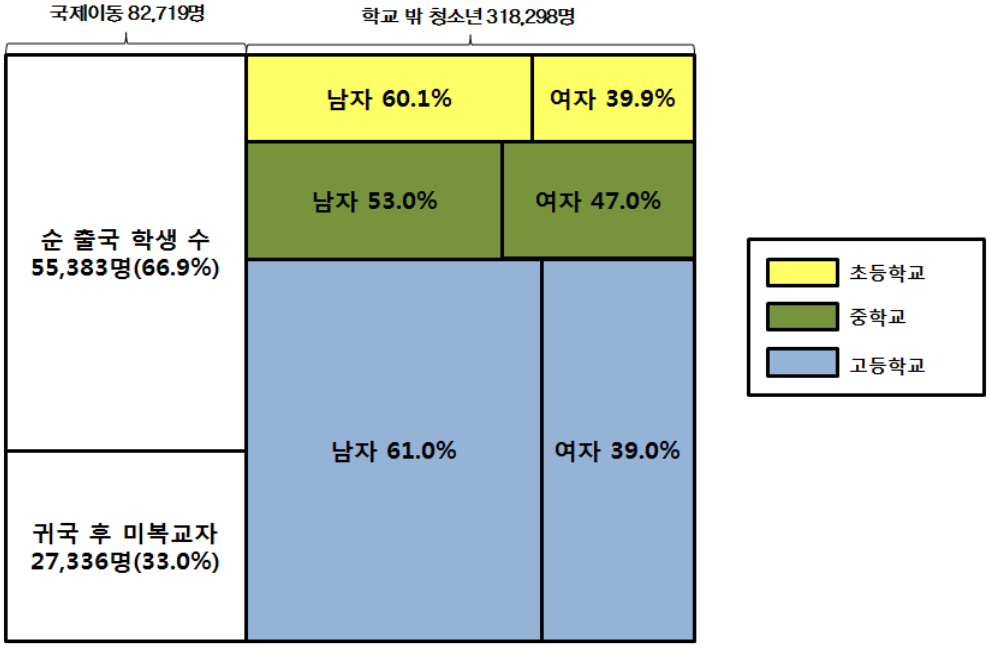
교급과 성별로 보면 전체에서 약 40% 정도가 여자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13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구성비	인구(%)	산출근거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전체	100.0	405,849	〈표 V-12〉 참조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	86.4	350,466	〈표 V-12〉 참조	
	국제이동 제외 학교 밖 청소년	78.4	318,298	〈표 V-12〉 참조	교육통계와 패널조사의 기준집단
연령별	초등학교 연령	8.9	28,329	318,298 x 0.089	2004~2015 각년도 학교급별 순학업중단자수(학업중단자수-복귀자 수)와 구성비를 산출
	중학교 연령	21.2	67,479	318,298 x 0.212	
	고등학교 연령	69.9	222,490	318,298 x 0.699	
교급별 · 성별	초등학교 연령 여자	8.7[1]	11,298 (39.9)[2]	39.9 = 11,298÷28,329 x 100	1) 2004~2015 각년도 교급별 여자 순학업중단자 수 및 구성비 산출 후 성별구성비 산출 2) ( )은 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를 100으로 본 여자청소년 비율임
	중학교 연령 여자	24.4	31,687 (47.0)	47.0 = 31,687÷67,479 x 100	
	고등학교 연령 여자	66.9	86,880 (39.0)	39.0 = 86,880÷222,490 x 100	
	전체	100.0	129,866 (40.8)	129,866 = 318,298 x 0.408	



【그림 V-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그림 V-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2)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015.12.31.기준)

이제까지 만 7~18세의 학령인구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였다. 지금부터는 만 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백혜정 외(2015)가 사용한 방식을 윤철경 외(2016)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방법대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등록상 인구수에서 초중고과정에 있는 학생 수를 감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24세의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4,226,599명이었으며, 학생인구 수는 64,488명으로 나타났다.

표 V-14 1991~1996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초·중·고과정 학생 수 (단위: 명)

출생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	초 · 중 · 고과정 학생 수			
		중학교	고등학교	방계학제	합계
1996	683,310	54	56,498	2,294	58,846
1995	705,384	224	1,447	1,347	3,018
1994	710,858		185	466	651
1993	706,885		333	1,640	1,973
1992	721,508				
1991	698,654				
합계	**4,226,599**	**278**	**58,463**	**5,747**	**64,488**

출처: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교육통계연보.

주 : 1) 2015. 12. 31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현황, 2015.4.1.기준 재적학생 수
2) 출생신고 기준 만 19~24세 인구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한 총 4,243,052명이며 해외체류, 사망신고 등을 주요 사유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 총 16,453명을 제외한 수치임
3) 방계학제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함.

또한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학생을 제외하기 위하여 만 19~24세의 졸업자 수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교육통계연보 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연령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 졸업률을 산출하고, 19~24세의 청소년의 졸업률이 이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졸업자 수를 산출하였다. 2015.12.31.기준 만 19~24세의 청소년이 주로 고3학생이 되는 연도는 2009~2014년이나, 조기졸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06년~08년을 포함시켜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기간학제의 졸업자 수는 3,764,728명(추정치)이었다.

표 V-15 2006~2014 연도별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추정) (단위: 명)

연도	고 3 학생 수	이듬 해 졸업자 수	졸업률 (%)	고 3 학생 중 2015.12.31.기준 만 19세~24세 청소년 수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 (추정)
				당해년도 연령범위 (2015.4.1. 기준)	연령범위의 청소년 수	
2006	573,008	571,357	99.71	만 9세~14세	9	9
2007	583,325	581,921	99.76	만 10세~15세	138	138
2008	577,167	576,298	99.85	만 11세~16세	14,542	14,520
2009	634,336	633,539	99.87	만 12세~17세	594,146	593,374
2010	649,515	648,468	99.84	만 13세~18세	648,301	647,264
2011	637,536	636,724	99.87	만 14세~19세	637,302	636,474
2012	631,835	631,197	99.90	만 15세~20세	631,638(38)	631,006(38)
2013	633,676	632,938	99.89	만 16세~21세	632,621(134)	631,925(134)
2014	615,715	615,462	99.96	만 17세~22세	610,262(4,497)	610,018(4,495)
합계	4,920,398	4,912,442	–	–	3,768,959 (4,669)	3,764,728 (4,66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학년 및 연령 별 학생 수, 졸업 후 상황(매년 4월 1일 기준).

주 1) 졸업률(%)=(고3 학생 수/이듬 해 졸업자 수) X 100

2) 24세 이하 졸업자 수= 고3 학생 중 2015년 기준 만 19~24세 청소년 수 X 해당 연도 졸업률

3) 교육통계연보에서는 만 14세 이하와 만 21세 이상 연령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6~2011년은 만 14세 이하 연령까지 포함된 수치이며, 2013~2014년은 만 21세 이상 연령까지 포함된 수치임.

4) 2012~2014년과 합계의 괄호 안 수치는 각 연도별로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6세 이하 고 3학생 수와 이들의 졸업률이 당해연도의 졸업률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졸업자 수임. 이 수치는 연령범위의 청소년 수와 기간학제의 졸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등의 방계학제는 연령별 고 3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없다. 백혜정 외(2015: 25)는 6년간의 졸업생 수를 합한 후 임의로 선정한 졸업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졸업생 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백혜정 외가 제시한 특수학교의 졸업률은 9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는 80%였다. 이 졸업률을 그대로 반영하면 2015년 기준 특수학교 14,199명, 고등기술학교 2,078명, 각종 학교는 10,200명으로 총 졸업자 수는 26,477명이었다.

표 V-16 2010~2015년 방계학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수 (단위: 명)

구 분	연 도						계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추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수학교	2,301	2,428	2,537	2,536	2,669	2,475	14,946	14,199
고등기술학교	438	437	431	435	421	436	2,598	2,078
각종 학교	2,119	2,255	2,210	824	2,498	2,844	12,750	10,200
합계	**4,858**	**5,120**	**5,178**	**3,795**	**5,588**	**5,755**	**30,294**	**26,47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졸업 후 상황(매년 4월 1일 기준).
주 1) 특수학교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 = 특수학교 졸업자 수 합계 X 0.95
2)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 = 고등학교, 각종학교 졸업자 수 합계 X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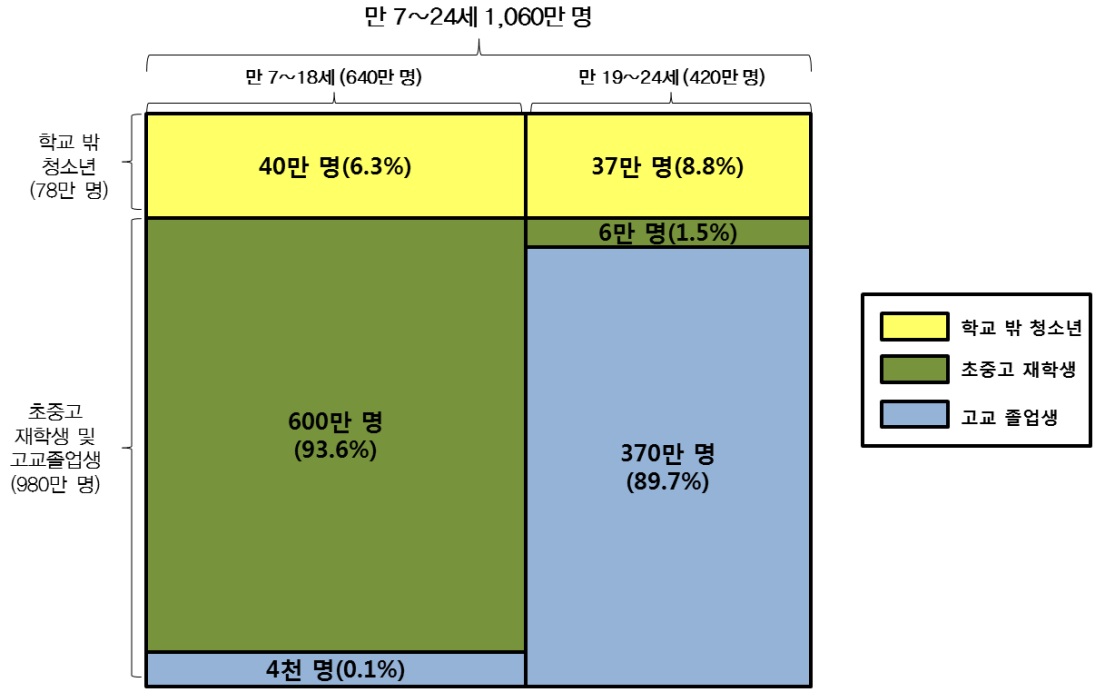
이제까지 산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V-17>과 같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4,226,599명이며, 초중고과정에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3,855,693명이다. 즉, 만 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은 370,906명으로 추정된다.

표 V-17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단위: 명)

구 분		2014.12.31. 기준	2015.12.31. 기준	비 고
주민등록상 만 19~24세 인구 (A)		4,181,483	4,226,599	· 2015.12.31.기준. ·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학생수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 (B)	60,200[1]	64,488	· 2015.4.1. 기준 재학생 수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기간학제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수(추정치) (C)	3,716,899	3,764,728	· 2015년 기준 만 19~24세 고3 졸업생 수(추정치) ·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매년 4월 1일 기준)
	방계학제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수(추정치) (D)	25,857	26,477	
	소계 (B+C+D)	3,802,956	3,855,693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수[2] (E)		378,527	370,906	· E = A–(B+C+D)

주 1) 윤철경 외(2016) p. 234 <표 V-11>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윤철경 외(2016) p.232 <표 V-8>에서 '방계학제 초중고과정 학생 수'가 원래는 5,444명이나 127,696명으로 잘못 산출되어 2014.12.31. 기준 '초중고과정 재학생 수'가 182,452명으로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 이를 수정 · 계산하면 2014.12.31.기준 초중고과정 재학생 수는 60,200명임.
2) 이 숫자에는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된 만 19~24세 청소년은 포함될 수 있음

만 7~18세와 만 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기 인구의 6.3%, 19~24세 인구의 8.8%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Ⅴ-9】 만 7~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3. 무업청소년(NEET) 규모

1) 무업청소년의 정의

무업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무업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 통일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정의 중 최근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정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V-18 무업청소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명	활용조사명 및 정의
OECD (2017b)	– 취업자가 아니며,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15~29세 청소년 – 휴학자를 무업청소년으로 포함
남재량 (2012: 40)	–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니고, 취업자가 아니며, 지난 1주간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사 · 육아를 주로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15~34세의 개인
남재량, 김세움 (2013: 15) 김종욱 (2017: 98)	–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니고, 취업자가 아니며, 지난 1주간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 · 육아를 주로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15~29세의 개인
박진희 외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15~29세의 개인
김기헌 (2016: 4)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 활용 – 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니고, 취업자가 아니며, 입시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고시학원 등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한 15~29세의 개인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청소년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시 및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또한 제외시키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는 유배우자를 무업청소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여전히 이견이 있다.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유배우자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김종욱(2017: 98)은 혼인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무업청소년'은 ① 만 15~29세이며, ②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취업상태가 아니면서, ③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에서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경험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전체'는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을 의미하며, '고졸 미만'은 초졸과 중졸 청소년을 의미한다.

기혼자 및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는 청소년들을 무업청소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청소년의 발달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결혼하여 불가피하게 가사 및 육아를 주로 하게 된 청소년을 무업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졸 미만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업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활용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88]이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무업청소년 규모

(1) 연령구간별 청소년의 현황

무업청소년 규모 파악에 앞서 연령구간별로 파악한 청소년의 전체규모와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고, 연구자별 무업청소년의 정의에 따라 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 결과는 <표 Ⅴ-19>와 같다.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대체로 학생임을 알 수 있다(전체 88.8%, 고졸 미만 96.8%). 20~24세를 보면 전체와 고졸 미만이 사뭇 다르다. 전체의 과반은 학생(52.8%)이며 31.8%는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쉰 청소년이 12만 2천 명(4.0%)이며, 육아 및 가사(1.9%),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1.7%). 입시학원 통학(0.3%) 순이다. 고졸 미만은 학생이 천 명으로 전체의 1.7%만을 차지하고 있다. 고졸 미만은 대부분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8.3%). 그 다음으로는 육아 및 가사(26.7%), 쉬었음(11.7%), 그 외(8.3%),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3.3%) 순이었다. 즉 전체 20~24세는 대체로 학생이거나 취업을 한 반면 고졸 미만 20~24세는 취업을 했거나 육아 및 가사 혹은 다른 사유들로 인해 쉬었음을 알 수 있다.

25~29세를 보면, 전체의 64.3%는 취업자, 12.9%는 학생이며 6.1%는 육아 및 가사, 3.5%는

88)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월별 조사를 제공하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조사구 중 318,540개 구를 표본추출틀로 구성한 후, 특광역시와 도의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여 전국 1,647개 조사구에서 약 33,000가구를 선정하였다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에서 2017년 8월 1일 인출).

쉬었음, 1.9%는 취업을 위해 학원 및 기관을 다니고 있다. 고졸 미만은 취업자가 51.8%로 과반을 넘었고, 육아 및 가사가 19.6%, 쉬었음 12.5%, 학생 8.9%이며, 학교를 다니거나 입시 및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은 전무하였다. 전체와 고졸 미만 모두 취업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전체 청소년은 학생이 많은 반면, 고졸 미만 청소년은 육아 및 가사를 하고 있거나 쉬었던 비율이 더 많았다.

무업청소년 정의에 따른 규모를 파악해보면 연구자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무업청소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와 김기헌(2016: 4)은 15~19세 4.1%p, 20~24세 2%p, 25~29세 1.8%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종욱(2017: 98)의 전체 무업청소년 비율을 김기헌과 비교해 보면 15~19세 0.1%p, 20~24세 1.1%p, 25~29세 6.9%p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는 유배우자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V-19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청소년의 규모 [단위: 천 명(%)]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15~19세		20~24세		25~29세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학 생 (휴학생 포함)			2,670 (88.8)	2,187 (96.8)	1,625 (52.8)	1 (1.7)	430 (12.9)	5 (8.9)
비학생	취 업 자		96 (3.2)	10 (0.4)	977 (31.8)	29 (48.3)	2,151 (64.3)	29 (51.8)
	실업자 및 비경제 활동 인구	정규교육기관 통학 (1)	65 (2.2)	38 (1.7)	1 (0.0)	– (0.0)	0.1 (0.0)	– (0.0)
		입시학원 통학 (2)	46 (1.5)	1 (0.0)	10 (0.3)	– (0.0)	– (0.0)	– (0.0)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3)	12 (0.4)	1 (0.0)	52 (1.7)	2 (3.3)	63 (1.9)	– (0.0)
		육아 및 가사 (4)	3 (0.1)	0.3 (0.0)	60 (1.9)	16 (26.7)	205 (6.1)	11 (19.6)
		쉬었음,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5)	36 (1.2)	7 (0.3)	122 (4.0)	7 (11.7)	118 (3.5)	7 (12.5)
		그 외 (6)	78 (2.6)	16 (0.7)	230 (7.5)	5 (8.3)	378 (11.3)	5 (8.9)
연령구간별 인구 수			3,006 (100.0)	2,260 (100.0)	3,077 (100.0)	60 (100.0)	3,345 (100.0)	56 (100.0)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15~19세		20~24세		25~29세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무업청소년	OECD 기준 (1+2+3+4+5+6)	240 (8.0)	63 (2.8)	475 (15.4)	30 (50.0)	764 (22.8)	23 (41.1)
	김기헌(2016: 4)의 기준 (4+5+6)	117 (3.9)	23 (1.0)	412 (13.4)	28 (46.6)	701 (21.0)	23 (41.1)
	김종욱(2017: 98)의 기준 (5+6 중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	114 (3.8)	23 (1.0)	347 (11.3)	12 (20.0)	472 (14.1)	10 (17.9)

출처: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주 1)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가사 및 육아경험은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함

2) 그 외의 경험으로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기타 등의 사유가 있음

3) 본 표의 'OECD 기준'과 실제 OECD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실제 OECD 기준에는 휴학생을 무업청소년에 포함하고 있어 휴학생을 학생에 포함시킨 본 연구의 숫자보다 늘어남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현역병, 모집병, 수감자 등 조사불가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고자 연령별 징집병과 모집형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무업청소년 비율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김기헌(2016: 4)와 비교했을 때 15~19세는 0.1%p, 20~24세는 1.3%p, 25~29세는 0.1%p 정도 비율이 낮아졌다. 즉, 모집병과 현역병이 제외됨으로써 이 차이만큼 무업청소년 비율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V-20 모집병·현역병을 포함한 무업청소년 규모 (단위: 천 명, %)

연 령	15~19세	20~24세	25~29세
연령구간별 인구 수 (A)	3,006	3,077	3,345
모집병 (2016) (B)	35	105[1)]	–
현역병 (2015+2016) (C)	0.3	228	4[2)]
합계 (A+B+C)	3,041	3,410	3,349
모집병 · 현역병을 포함한 무업청소년 비율	3.8	12.1	20.9

출처: 병무청(2017). 2016년 병무통계연보(I). p. 184, 197.

주 1) 이 수치에는 23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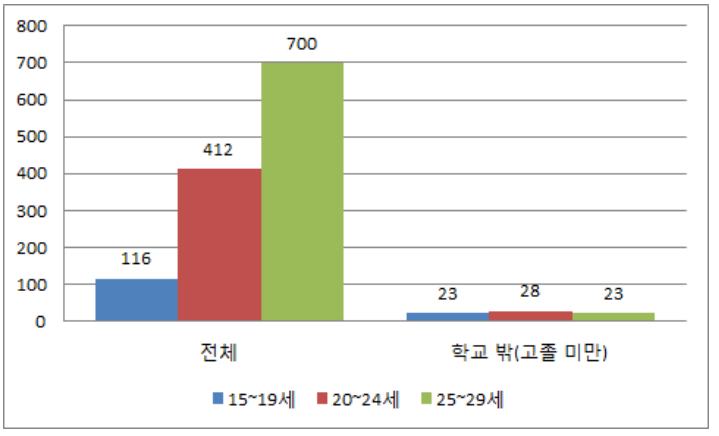
2) 이 수치에는 25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3) 모집병 · 현역병을 포함한 무업청소년 비율 = 연령구간별 무업청소년 수(김기헌, 2016)/(A+B+C) X 100

(2)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규모 변화와 특성

① 연도별·연령구간별 무업청소년 규모 변화

<표 Ⅴ-21>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규모를 파악한 것이며 【그림 Ⅴ-10】은 2016년 기준 전체와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무업청소년 15~19세는 11만 6천 명, 20~24세는 41만 2천명, 25~29세는 70만 명이었고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은 15~19세 2만 3천명, 20~24세 2만 8천명, 25~29세 2만 3천명으로 전체 무업청소년은 25~29세가 가장 많은 반면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은 20~24세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Ⅴ-10】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 수(단위: 천 명)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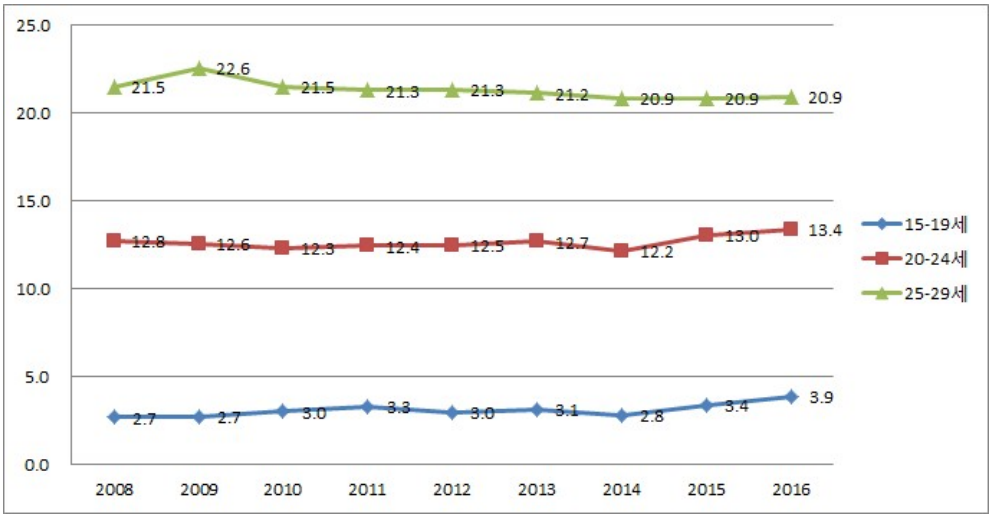
표 Ⅴ-21 연도별·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전체	구직	비구직		전체	구직	비구직		전체	구직	비구직
		고졸미만				고졸미만				고졸미만		
08	3,238	87	8	79	2,681	342	88	254	3,903	839	152	687
	2,502	26	2	24	63	32	4	28	87	30	6	24
09	3,284	90	8	81	2,650	333	84	249	3,846	868	185	683
	2,548	28	1	27	61	28	2	26	81	32	5	27
10	3,337	101	9	92	2,644	326	81	245	3,725	802	175	627
	2,553	26	1	25	51	28	3	25	78	32	6	26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전체 고졸미만	구직	비구직		전체 고졸미만	구직	비구직		전체 고졸미만	구직	비구직
11	3,348	111	9	102	2,667	332	77	255	3,573	761	161	600
	2,528	24	2	22	52	30	1	29	67	27	3	24
12	3,298	99	10	89	2,806	350	88	262	3,413	728	152	576
	2,499	23	2	21	52	27	2	25	66	23	2	21
13	3,262	102	12	90	2,957	375	93	282	3,328	704	160	544
	2,452	21	2	19	55	26	2	24	61	22	2	20
14	3,187	89	9	80	3,035	369	100	269	3,280	684	181	503
	2,370	22	1	21	47	27	1	26	59	22	1	21
15	3,112	106	13	93	3,081	402	114	288	3,293	687	178	509
	2,334	27	1	26	55	28	2	26	54	30	5	25
16	3,006	116	17	99	3,077	412	118	294	3,345	700	214	486
	2,260	23	2	21	60	28	3	25	56	23	4	19

출처: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7월 25일 인출.

각 연령구간별 전체 무업청소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Ⅴ-11】과 같다. 15~19세, 20~24세, 25~29세 순으로 무업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19세를 보면 큰 변동없이 2014년까지 3%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5년 3.4%, 2016년 3.9%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4세 역시 유사한데 2014년까지 12%대를 유지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3.0%, 13.4%로 상승하고 있다. 25~29세는 2009년에 22.6%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강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9%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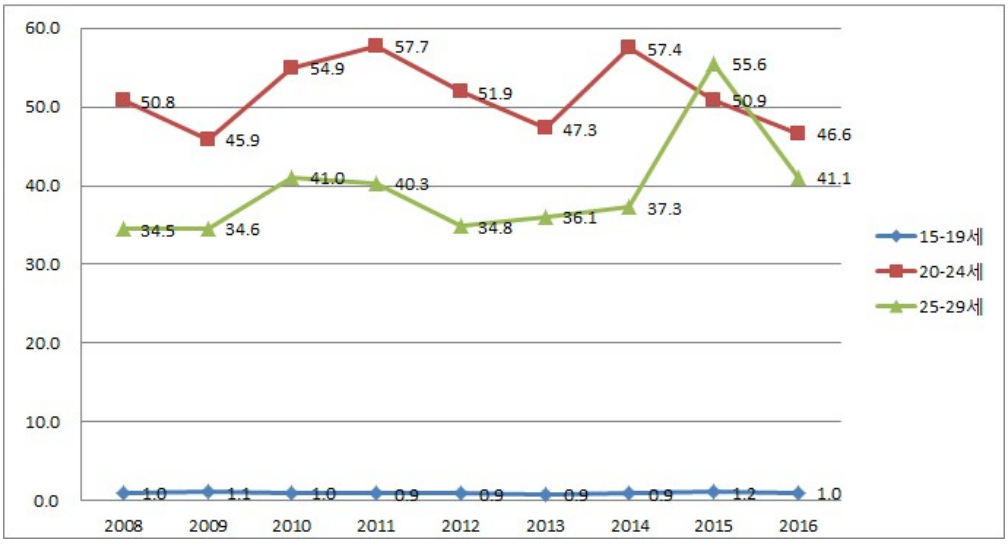
【그림 Ⅴ-11】 연도별·연령구간별 전체 무업청소년 비율(단위: %)

주) 비율: 연령구간별 무업청소년 인구수 / 연령구간별 인구수 X 100

연도별・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Ⅴ-12】와 같다. 전체 무업청소년 분포와는 달리 고졸 미만은 20~24세 청소년의 비율이 50~60%로 가장 높고, 25~29세 30~40%, 15~19세 1% 순이다. 15~19세는 학령기이기 때문에 무업청소년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20대 초반에 들어서면 무업청소년 비율이 급증하고 25세 이후에는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한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고졸 미만 청소년들은 20대 후반 군 제대 이후 사회진입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15~19세는 일정하게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큰 변동은 없다. 가장 높은 20~24세를 보면 변동폭이 일정치 않은데, 약 45%에서 57% 사이로 변동을 하고 있으며 큰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13년까지 40%대로 감소하다가 2014년 57.4%로 급상승, 그 후 다시 40%대로 들어왔다. 25~29세도 변동이 심한데, 2015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4%~41%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55.6%로 매우 높게 상승했으나 2016년 41.1%로 급락하였다.

고졸 무업청소년 비율의 변동이 심한 이유로는 고졸 미만 인구 수가 20대에 들어서서 급감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19세의 경우 고졸 미만자의 수가 200만 여명인 것에 비해 20~24세는 5~6만, 25~29세는 6~7만 정도이기 때문에 모수가 작아짐에 따라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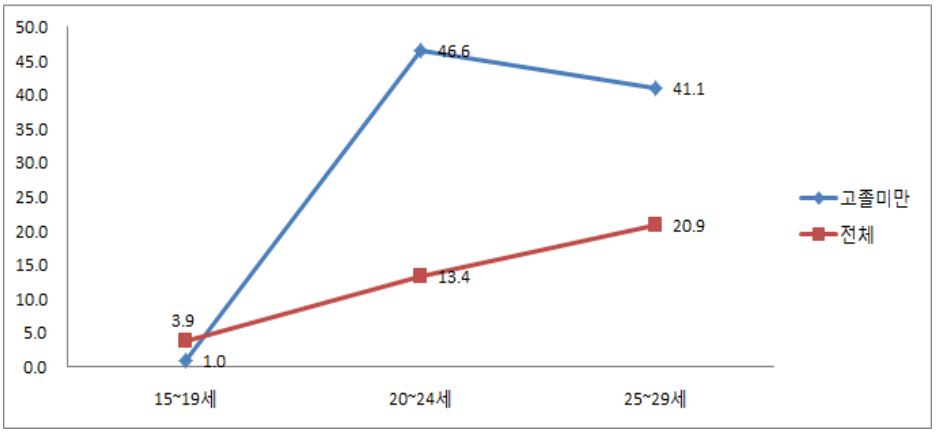


【그림 V-12】 연도별·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단위: %)

주) 비율: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수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인구수 X 100

전체와 고졸 미만의 연령구간별 무업청소년 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가 【그림 Ⅴ-13】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무업청소년 비율은 15~19세에는 3.9%였으나 20~24세에는 13.4%, 25~29세에는 20,9%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4세에는 고졸 무업청소년, 25~29세에는 대졸 무업청소년이 포함됨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졸 미만을 보면 20대의 약 50% 정도가 무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와는 달리 20~24세의 비율이 46.6%로 가장 높고, 25~29세는 41.1%, 15~19세는 1.0%이다. 20~24세 고졸 미만의 약 50%가, 25~29세 고졸 미만의 약 40%가 무업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20대에 무업청소년이 되기 쉽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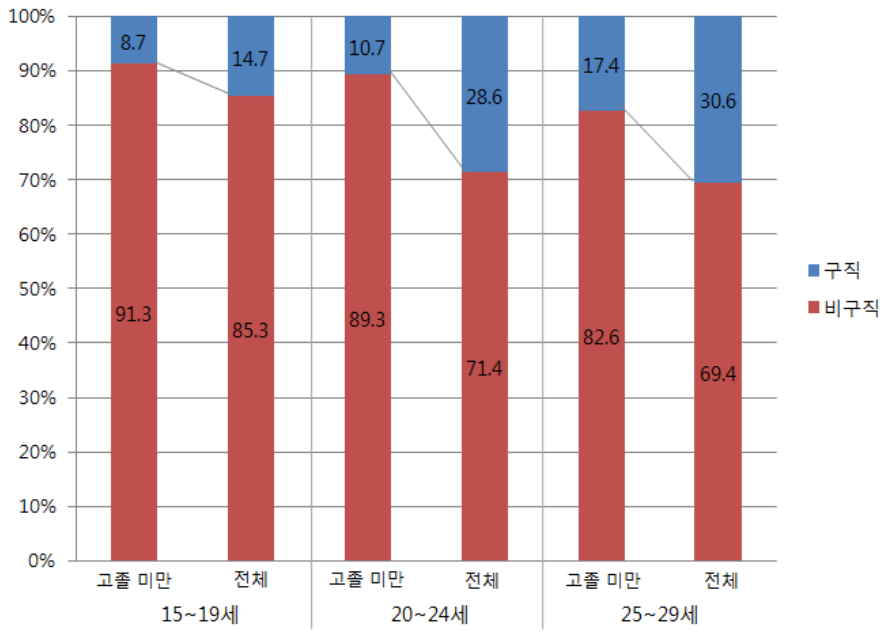
【그림 Ⅴ-13】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의 연령계층별 변화(단위: %)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비율: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수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전체 인구수 X 100

②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구직·비구직 구성비(2016년)

무업청소년 규모파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구직과 비구직 구성비이다. 구직 무업청소년이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해 본 청소년이며, 비구직은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과 전체 무업청소년의 구직·비구직 구성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Ⅴ-14】 참조). 2016년을 기준으로 15~19세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91.3%, 20~24세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89.3%, 25~29세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82.6%가 비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무업청소년 구성비에 비교해 보았을 때 고졸미만 무업청소년 15~19세는 6%p 높고, 20~24세는 17.9%p, 25~29세는 13.2%p 높다. 즉 전체 무업청소년보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비구직 비율이 높으며 이 차는 20~24세 때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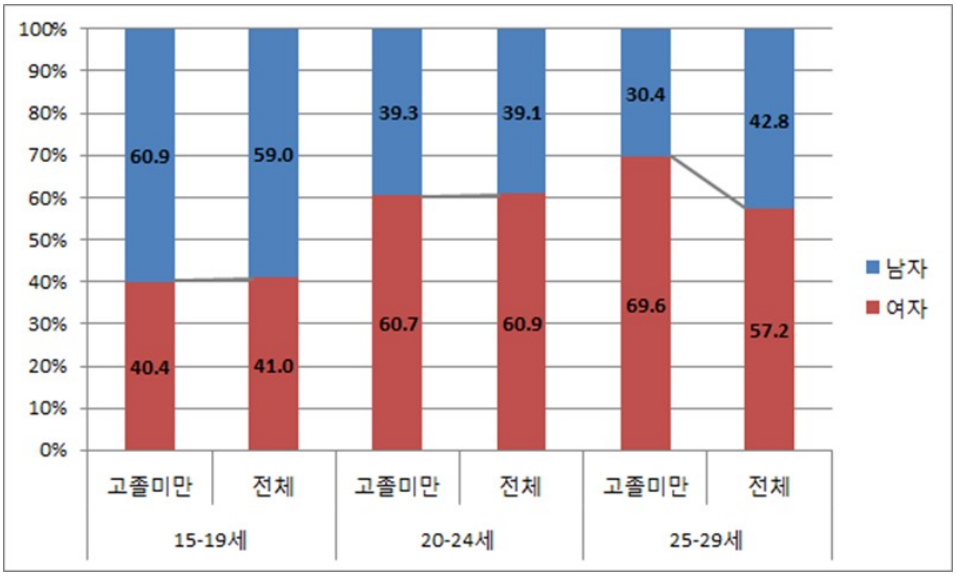
【그림 Ⅴ-14】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구직·비구직 구성비 비율(단위: %)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구직 및 비구직 비율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구직 · 비구직 인구수 /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수 X 100

③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성별 구성비(2016년)

2016년 기준으로 무업청소년의 성별 구성비를 고졸 미만과 전체 무업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결과가 【그림 Ⅴ-15】에 나타나 있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중 여성의 비율은 15~19세 40.4%, 20~24세 60.7%, 25~29세는 69.6%이며 전체 무업청소년 중 여성의 비율은 15~19세 41.0%, 20~24세 60.9%, 25~29세는 57.2%이다. 10대에는 남성이 많지만 20대에 들어서면 여성이 과반을 넘고 있다. 이는 육아와 가사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졸 미만과 전체 무업청소년의 성차는 25~29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고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이 보다 더 육아와 가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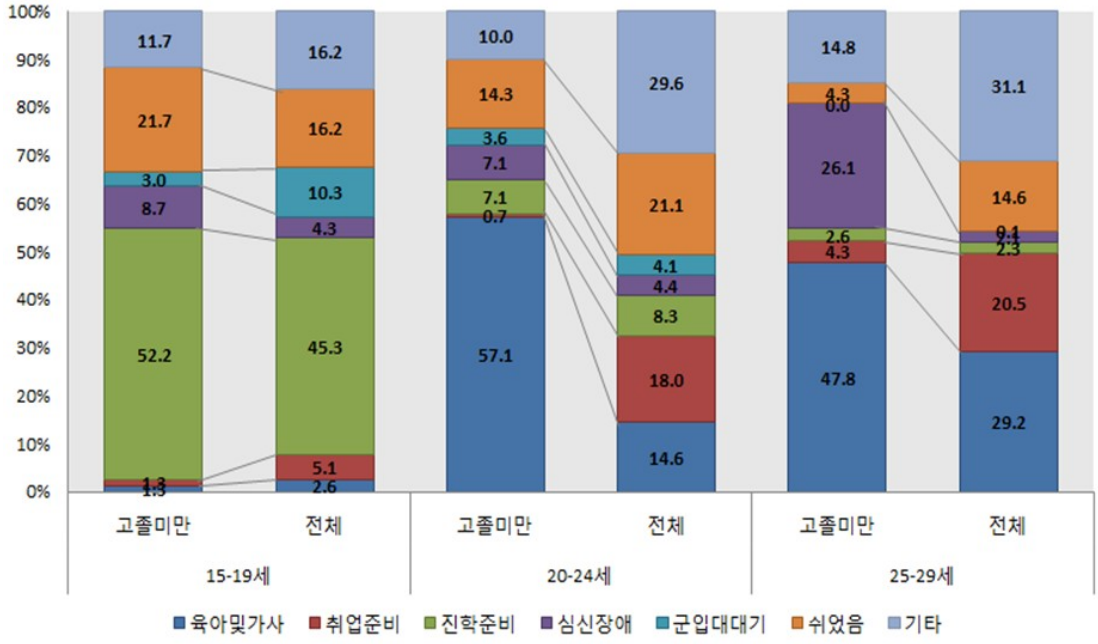


【그림 Ⅴ-15】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성별 비율(단위: %)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구직 및 비구직 비율 = 연령구간별(고졸 미만) 구직·비구직 인구수/ 연령구간별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인구수 x 100

④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주된 활동 상태(2016년)

무업청소년이 주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주간의 경험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그림 Ⅴ-16】 참조). 고졸 미만 15~19세는 전체 무업청소년에 비해 진학준비, 쉬었음의 비율이 높았다. 고졸 미만 20~24세는 육아 및 가사가 57.1%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무업청소년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고졸미만 25~29세는 전체 무업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육아 및 가사의 비율이 18%p 높았고 심신장애의 비율은 20%p 정도 높았다.



【그림 Ⅴ-16】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주된 활동상태(단위: %)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3) OECD 자료를 활용한 한국 무업청소년 비율의 국제비교

OECD의 무업청소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무업청소년의 국제적인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22>~<표 Ⅴ-24>와 같다. 2013년 기준 15~19세를 보면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7.7%로, OECD 평균(7.1%)에 비해 높다.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면 전체 36개국 중 24위이다. 20~24세는 30위(22.2%), 25~29세는 28위(24.5%)로 OECD 평균 비율보다 높다. 연도별로 보면 15~19세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하락하였고, 20~24세와 25~29세는 각각 2010년, 200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15~19세는 약 7~8%, 20~24세는 22~23%, 25~29세는 24~25%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무업청소년 비율을 보면, 독일과 스웨덴,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독일은 10대 무업청소년 비율이 약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프랑스, 미국, 영국과 이스라엘은 대체로 OECD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 15~19세를 보면 모두 OECD 평균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무업청소년 비율이 높지만, 20~24세에서는 모두 2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5~29세의 무업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영국과 이스라엘은 20~24세가 가장 높다.

연도별로 주요 국가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무업청소년 비율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징집병을 무업청소년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9.25.: 189). 한국은 2008년에 비교했을 때 2013년에 15~19세 0.7%p 증가, 20~24세 변화 없음, 25~29세는 1%p 감소했다. OECD 평균을 보면 2013년 15~19세는 2008년보다 0.5%p 감소, 20~24세는 2.7%p 증가, 25~29세는 3.2%p 증가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13년 무업청소년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과 일본이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은 전 연령대에서 무업청소년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와 영국은 15~19세의 무업청소년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V-22 OECD 15~19세 무업청소년 비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독일***	**3.7**	**3.8**	**3.7**	**3.5**	**3.0**	**2.8**	**2.9**	**2.5**
2	체코	2.7	3.5	3.8	3.7	4.0	3.2	3.2	3.0
2	라트비아	6.0	6.8	6.4	7.3	7.2	3.2	3.8	3.1
4	폴란드	2.4	3.6	3.6	3.9	3.9	3.5	4.0	5.2
4	룩셈부르크	2.1	2.7	6.3	2.3	2.9	3.5	2.4	2.6
4	슬로베니아	4.4	2.5	3.2	3.4	3.8	3.5	4.6	5.0
7	**노르웨이***	**4.0**	**4.2**	**3.5**	**3.2**	**3.0**	**3.6**	**3.5**	**2.8**
8	**스웨덴***	**4.4**	**5.5**	**5.3**	**4.1**	**4.1**	**4.1**	**4.3**	**3.5**
8	네덜란드	2.1	3.6	3.1	3.4	2.4	4.1	3.6	3.6
8	**일본***	**4.1**	**4.9**	**4.6**	**4.8**	**3.8**	**4.1**	**3.7**	**–**
11	덴마크	4.0	5.0	5.5	5.3	5.7	4.6	3.5	3.7
11	에스토니아	4.9	8.0	6.1	6.4	6.8	4.6	7.0	5.5
13	**핀란드***	**5.1**	**5.1**	**5.1**	**5.1**	**4.7**	**4.8**	**5.5**	**5.2**
14	**스위스***	**9.4**	**8.1**	**4.8**	**4.9**	**4.7**	**5.0**	**4.7**	**3.9**
15	오스트리아	5.7	6.6	5.7	5.8	4.8	5.1	7.2	5.7
16	슬로바키아	5.7	4.5	4.6	5.3	5.6	5.4	5.7	6.3
17	헝가리	5.7	5.6	4.6	4.8	4.8	6.0	6.8	6.1
17	아이슬랜드	4.5	7.3	6.2	6.8	7.1	6.0	5.5	3.5
19	캐나다	7.1	8.1	8.2	7.7	7.3	6.7	7.1	6.7
19	벨기에	5.5	5.7	5.9	6.1	8.3	6.7	5.4	4.3
21	포르투갈	7.1	6.9	7.4	8.0	7.9	6.9	6.1	5.5
22	**OECD평균**	**7.6**	**8.4**	**7.9**	**8.0**	**6.9**	**7.1**	**6.8**	**6.3**
23	호주	6.3	8.3	8.1	7.8	7.2	7.3	7.2	6.0
24	뉴질랜드	7.0	9.4	8.6	8.6	8.7	7.7	7.1	7.1
24	**한국**	**7.0**	**7.0**	**8.5**	**8.7**	**8.5**	**7.7**	**–**	**–**
26	프랑스	5.8	6.8	7.9	7.1	6.9	7.8	7.9	7.4
27	미국	7.6	8.8	7.6	7.1	7.7	8.4	7.6	7.0
28	**영국***	**9.8**	**9.6**	**10.0**	**9.5**	**9.6**	**9.1**	**8.4**	**8.7**
28	**이스라엘***	**22.2**	**24.7**	**23.6**	**24.2**	**10.7**	**9.1**	**7.8**	**8.8**
30	그리스	8.2	7.9	7.5	8.3	10.7	9.3	10.5	8.4
31	아일랜드	8.5	11.0	10.1	9.4	9.6	10.6	9.1	8.0
32	이탈리아	9.6	11.2	12.5	11.4	12.0	11.0	11.2	11.4
33	스페인	11.2	14.2	13.5	12.5	11.8	11.2	9.7	9.1
34	칠레	–	17.0	–	16.1	–	12.7	–	–
35	멕시코	17.8	18.4	17.6	18.1	17.0	15.5	15.3	14.5
36	터키	37.1	28.7	25.6	24.8	–	22.2	21.0	18.7

출처: OECD (2017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7 July 2017)

주: 순위는 OECD 36개국 중 순위(2013년 기준)이며,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제시됨

표 V-23 OECD 20~24세 무업청소년 규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룩셈부르크	9.8	8.7	7.5	8.5	10.3	8.2	9.0	9.3
2	아이슬랜드	5.2	11.5	12.2	11.0	10.0	8.7	9.4	6.6
3	네덜란드	5.6	7.9	7.4	6.9	7.1	9.5	10.4	8.8
4	스위스	9.1	10.9	11.1	10.6	12.1	10.2	12.4	12.2
5	**독일***	**14.0**	**13.7**	**13.7**	**12.6**	**11.2**	**10.3**	**10.1**	**9.3**
6	노르웨이	7.0	9.4	9.0	10.4	10.7	10.9	10.7	10.2
7	**일본***	**11.1**	**12.6**	**12.4**	**12.1**	**12.4**	**11.0**	**10.1**	**–**
8	오스트리아	12.0	12.0	13.4	10.9	11.7	12.1	12.0	11.7
9	**스웨덴***	**12.9**	**16.5**	**14.2**	**12.9**	**13.5**	**12.9**	**12.0**	**11.8**
10	덴마크	8.2	10.1	12.1	11.9	14.5	13.4	12.7	12.4
11	슬로베니아	10.3	11.4	9.3	11.3	11.4	13.7	13.4	17.2
12	캐나다	13.3	15.5	15.6	14.9	15.1	13.9	14.8	14.4
12	호주	10.7	11.6	11.2	11.7	12.2	13.9	13.2	13.1
14	체코	10.6	13.1	13.6	12.8	13.4	14.2	12.3	11.6
15	핀란드	12.0	15.1	15.8	14.3	15.2	15.5	15.6	18.3
16	뉴질랜드	14.1	17.6	17.8	16.5	16.9	15.6	14.5	14.9
17	에스토니아	10.7	19.8	22.4	15.8	17.1	16.8	16.1	15.0
18	라트비아	14.0	27.3	30.4	21.6	20.3	17.5	16.6	13.3
19	**이스라엘***	**37.5**	**37.5**	**37.4**	**37.4**	**18.7**	**18.1**	**18.5**	**18.6**
20	**OECD평균**	**15.5**	**18.3**	**18.7**	**18.3**	**17.6**	**18.2**	**17.4**	**16.9**
21	벨기에	14.1	16.1	18.0	17.1	17.5	18.6	18.9	15.8
22	미국	17.2	20.1	19.4	18.5	17.7	18.8	17.5	15.8
23	영국	18.3	19.1	19.3	19.1	20.2	19.1	17.0	15.6
24	프랑스	16.6	20.0	20.6	20.3	20.1	19.4	18.4	20.9
25	폴란드	15.6	16.4	17.6	18.6	18.9	20.2	19.2	18.5
26	슬로바키아	16.6	17.1	22.1	21.4	20.2	21.0	18.6	18.8
27	칠레	–	27.5	–	24.6	–	21.1	–	–
28	아일랜드	14.6	20.8	26.1	26.1	25.7	22.0	21.2	19.8
28	포르투갈	13.5	15.7	16.4	18.7	22.7	22.0	23.9	20.9
30	**한국**	**22.2**	**23.0**	**23.5**	**23.3**	**22.5**	**22.2**	**–**	**–**
31	멕시코	26.5	27.6	26.1	26.2	25.0	25.2	24.9	25.3
32	헝가리	18.4	20.9	21.5	22.4	22.5	26.1	20.6	18.4
33	스페인	19.0	25.9	27.0	28.9	30.6	32.4	29.0	27.2
34	그리스	16.7	17.8	21.1	24.1	30.4	33.1	31.3	28.1
35	이탈리아	22.0	24.8	27.1	28.4	31.5	33.7	35.0	33.9
36	터키	46.1	46.1	43.7	39.6	–	35.9	36.3	33.2

출처: OECD (2017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7 July 2017)

주: 순위는 OECD 36개국 중 순위(2013년 기준)이며,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제시됨

표 V-24 OECD 25~29세 무업청소년 규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룩셈부르크	13.0	11.9	7.6	10.5	10.9	6.5	12.6	12.4
2	아이슬랜드	6.7	14.0	14.9	11.0	11.1	9.1	11.0	7.8
3	스웨덴	9.5	11.5	11.6	10.2	11.1	10.3	11.1	10.8
4	스위스	10.1	12.8	12.8	10.9	11.3	11.3	11.8	8.4
5	노르웨이	9.2	10.6	13.0	11.8	11.4	12.6	13.3	14.0
6	네덜란드	7.8	9.6	9.9	10.3	10.6	12.9	13.4	12.1
7	오스트리아	13.8	15.2	15.5	13.5	13.7	14.1	14.7	13.0
8	**독일***	**17.0**	**16.9**	**17.8**	**15.7**	**14.6**	**14.7**	**13.4**	**12.8**
9	핀란드	12.4	15.5	16.8	15.6	15.4	16.0	17.0	18.2
10	캐나다	15.0	16.4	16.8	17.2	17.4	16.1	17.6	17.6
11	호주	14.1	16.8	15.9	14.6	15.1	16.9	16.7	15.5
12	**일본***	**18.2**	**18.5**	**18.5**	**17.9**	**18.0**	**17.3**	**15.8**	**–**
13	덴마크	8.6	12.3	14.3	16.2	16.2	17.7	16.1	15.2
14	영국	15.8	18.0	18.1	17.3	18.3	17.9	17.0	16.2
14	**이스라엘***	**22.9**	**24.2**	**22.4**	**21.5**	**17.7**	**17.9**	**15.4**	**15.1**
16	뉴질랜드	16.0	17.9	20.1	17.9	18.9	19.0	17.5	17.9
17	체코	17.7	20.1	20.4	19.5	20.4	19.4	18.9	18.9
18	에스토니아	18.5	28.2	26.1	20.8	21.0	19.6	18.1	15.6
19	슬로베니아	9.9	11.6	12.4	15.6	15.7	19.8	20.3	19.4
20	**OECD평균**	**17.3**	**19.9**	**20.3**	**20.2**	**19.7**	**20.5**	**20.2**	**19.3**
21	미국	19.5	21.8	21.2	21.7	20.2	20.6	19.8	20.0
22	프랑스	19.7	19.9	21.0	21.5	22.4	21.6	22.5	23.4
22	포르투갈	15.1	14.8	15.7	18.1	18.3	21.6	22.7	19.5
24	라트비아	16.1	25.6	29.3	27.6	26.7	22.5	19.3	18.7
25	칠레	–	27.3	–	24.9	–	22.6	–	–
26	폴란드	21.5	20.8	21.9	21.6	22.4	24.1	21.6	20.9
27	아일랜드	14.3	22.0	24.2	28.1	26.5	24.3	23.6	21.2
28	**한국**	**25.5**	**26.5**	**25.9**	**24.9**	**24.7**	**24.5**	**–**	**–**
29	헝가리	23.1	25.1	28.6	26.6	27.3	27.0	23.7	21.5
30	슬로바키아	24.7	24.9	27.5	27.8	27.5	27.5	28.2	23.5
31	멕시코	29.5	30.4	29.3	29.2	28.2	27.8	28.4	27.5
32	이탈리아	24.5	26.4	28.2	28.4	29.0	31.8	35.4	35.3
33	스페인	18.3	25.7	27.8	28.9	31.6	34.7	31.8	30.4
34	터키	43.5	44.9	41.8	40.2	–	36.7	38.1	35.4
35	그리스	21.3	22.1	23.8	30.0	37.1	41.1	41.2	39.9
–	벨기에	16.5	16.3	18.3	18.0	18.5	–	19.8	20.2

출처: OECD (2017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7 July 2017)

주: 순위는 OECD 36개국 중 순위(2013년 기준)이며,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제시됨

4.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진로 · 직업 정보 및 상담 정책 현황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상담[89]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정보 및 상담에 대한 접근성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다.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진로상담,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대상에 따른 진로교육 자료 제공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리검사의 경우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진로상담과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소식지인 드림레터, 진로정보인 진로레시피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진로에 관심 있는 자녀와 학부모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은 직업심리검사, 직업 및 학과 정보, 진로상담 등 커리어넷과 유사한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직업심리검사는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와 성인 대상 심리검사로 구분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에는 직업흥미검사, 적성검사(중・고등학생용), 직업가치관검사, 인성검사, 대학 전공 흥미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시스템은 세분화된 직업분류 제시를 통해 업무내용, 필요한 교육 및 자격 수준,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필요적성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서 사이버진로교육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구직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형태(집합, 온라인)로 받을 수 있다.

(2) 상담시설[90]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진로・직업 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89) 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발췌.(검색일 2017.10.26.)
90) 지역 꿈드림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발췌(검색일 2017.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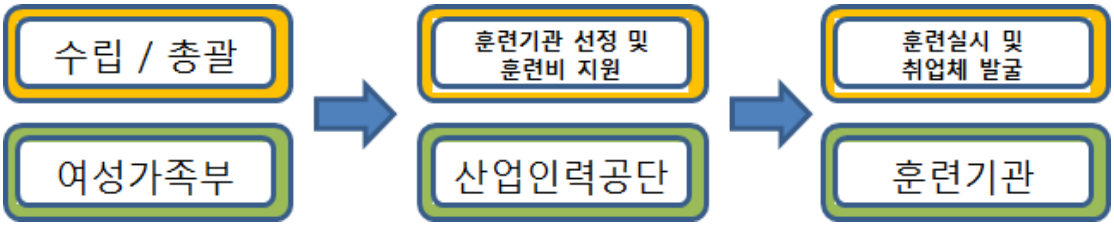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꿈드림센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담에 관한 주제는 심리, 가족관계, 진로 등 다양하다. 진로와 관련되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초기술훈련(4주), 직장체험(3개월),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센터가 아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의 광역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진로 관련 상담과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로 분야가 특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인상담의 주제 안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에 따라 진로상담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제공되는 기관도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직업 및 진로상담은 물론이고 직장체험,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2) 직업훈련 정책 현황

①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여성가족부(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는 학업중단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7: 176). 2010년 수립된 청소년고용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6개월 총 700시간 이상 훈련에 참가하며 기관에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176~177). 훈련과정은 등록 이후 예비학교를 거쳐 직업훈련과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은 후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데, 예비학교에서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 등의 적응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 176). 직업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특화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예체능활동,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7: 176). 훈련생에 대한 지원은 훈련과정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이 80%의 출석일수를 충족하였을 때 제공되며 수료 후 1년간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서비스가 제공된다(여성가족부, 2017: 176). 본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V-17】 내일이룸학교 추진체계

출처: 여성가족부(2017).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2017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가 더욱 고려되어 훈련과정이 다양화되고 미혼모, 이주배경청소년 등 대상자 특화형 훈련과정이 신설되었으며 여성부 산하 기관인 꿈드림센터와의 연계협력이 구축되었다(여성가족부, 2017: 177). 그에 따라 훈련기관 인근에 위치한 꿈드림센터에 훈련생을 위한 전담인력이 1인 배치된다(여성가족부, 2017: 177). 2017년 기준 내일이룸학교 개설 현황과 연도별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V-25 2017년 내일이룸학교 개설현황 (단위: 명)

연번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모집인원
1	서울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 가공조립	50명
2		애란원	간호조무사	15명
3	대구	한국디지털 직업전문학교	컴퓨터 응용, 기계설계제작	20명
4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헤어, 네일아트	15명
5	아산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제과제빵	20명
6	천안	동천안 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	20명
7	익산	원광 보건대학교	헤어미용	20명
8	광양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30명
9	창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헤어, 피부, 네일아트	20명

출처: 여성가족부(2017).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표 V-26 연도별 내일이룸학교 참여자 수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정원 수	100	130	150	150	150	210	890
참여자 수	111	127	152	148	155	212	905

출처: 여성가족부(2017).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주: 윤철경 외(2016) p.245 〈표 Ⅳ-17〉에서 2016년 자료를 업데이트 한 것임.

②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91]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급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 종합 관리 시스템이다. 계좌는 현재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구직자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상담을 통해 훈련목적, 필요성, 적격여부 등을 판단해 계좌발급이 최종 결정된다. 자격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비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농・어업 외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가족, 1개월 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전역 예정자, 결혼이민자 및 이주청소년과 난민인정자이다(고용노동부, 2017a: 3). 지원내용은 일반실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구분되는데 일반실업자의 경우 훈련비의 20~95%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2유형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50~95%, 1유형은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전액 또는 90%가 지원된다. 참가자는 계좌발급 후 6개월 이내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할 경우 계좌 사용이 중지되며 불가피한 이유로 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한 경우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데, 1개월마다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월 최대 11만 6천원이 지급된다. 2015~2016년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실시현황은 <표 Ⅴ-27>과 같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참여자 수가 약 2만 명 증가되었고 10대의 참여율은 0.9%p, 고졸 미만의 참여율은 0.7%p 상승하였다.

91)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HRD-Net 홈페이지의 내일배움카드 상세안내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검색일2017.10.26.)

표 V-27 2015~2016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실시현황 (단위: 명, %)

유형		2015		2016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남성	52,457	26.5	58,273	27.3
	여성	145,183	73.5	155,136	72.7
연령	19세 이하	8,805	4.4	11,287	5.3
	20~29세	63,071	31.9	69,907	32.8
	30세 이상	125,764	63.6	132,215	62.0
학력	고졸 미만	9,613	4.9	11,944	5.6
	고졸	75,057	38.0	97,322	45.6
	대졸 이상	91,301	46.2	103,846	48.7
	기타	21,669	11.0	297	0.1
전 체		197,640	100.0	213,409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실업자훈련 훈련생 특성별 훈련실시 현황. p. 47.
주 1) 윤철경 외(2016) p.247 〈표 Ⅳ-18〉에서 2016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임
2) 기준은 각년도 12월말 기준.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9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기계・금속・전기・동력 등 국내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과 직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기술・기능인력의 양성 및 공급, 기업 구인난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미취업 상태 구직자,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비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및 대학졸업 예정자,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가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국방부장관 또는 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 예정 군인,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및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예정자이며 이들 중 15세 이상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한다.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훈련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훈련생을 훈련하는 기관에 훈련비 전액이 직접 지급되며 별도로 훈련생에게는 월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만 6천원~4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과 소득여부에 따라 장려금이 조정되며 지원 절차는 【그림 Ⅴ-18】과 같다.

92) 고용노동부(2017a)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용을 요약정리함.



【그림 Ⅴ-1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추진체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페이지에서 발췌(검색일 2017.10.26.)

2015~2016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실시현황은 <표 Ⅴ-28>과 같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전체 인원이 3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10대의 참여율은 약 2.6%p, 고졸 미만의 참여율은 6.5%p 증가하였다.

표 Ⅴ-28 2015~2016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실시현황 (단위: 명, %)

유형		2015		2016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남성	48,829	65.8	41,236	70.0
	여성	25,378	34.2	17,711	30.0
연령	19세 이하	7,055	9.5	7,120	12.1
	20~29세	42,627	57.4	35,513	60.2
	30세 이상	24,525	33.0	16,314	27.7
학력	고졸 미만	1,848	2.5	5,323	9.0
	고졸	23,264	31.4	22,588	38.3
	대졸 이상	38,612	52.0	31,017	52.6
	기타	10,483	14.1	19	0.0
전 체		88,249	100.0	58,947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실업자훈련 훈련생 특성별 훈련실시 현황. p. 47.

주 1) 윤철경 외(2016) p.247 〈표 Ⅳ-20〉에서 2016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임

2) 기준은 각년도 12월말 기준.

④ 일학습병행제[93]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줄여 결국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 등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대상은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이며 직무 내용은 6개월 이상(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이어야 하고 현장에서 훈련을 담당할 고숙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업에게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를 지원하며 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학습근로자 지원금(월 4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며 외부기관에 의해 2차 평가를 실시하는데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는 교육받은 기관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29일 기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현황은 <표 Ⅴ-29>와 같다.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연령에 비해 10대의 참여율은 23.1%로 가장 낮다.

표 Ⅴ-29 2016.12.29.기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비율
성	남성	27,937	79.1
	여성	7,387	20.9
연령	10대	8,153	23.1
	20대	17,425	49.3
	30대 이상	9,746	27.6
전 체		35,324	100.0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일학습병행제 현황(사업실시 이후 2016.12.29.까지 누적인원임) (내부자료)

93)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일학습병행제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사용함(검색일, 2017.10.26.)

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도제제도가 가장 잘 발전한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모델을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습과 함께 효과적인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다. 2017년에는 참여학생 수를 2016년 2,600명 규모에서 7,000여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1.16.).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이론 및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심화실습을 연계하여 진행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숙련근로자가 현장교사로 지정되어 학생을 가르친다. 전체적인 학습과 실습 과정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도제학교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기업과 학교가 함께 키우며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기업의 채용과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며 기술력을 갖추고 CED의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가 높은 기업이어야 한다.

9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용 온라인 리플렛의 내용을 정리 하였음(검색일 2017.10.26.)



【그림 Ⅴ-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체계

출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용 온라인 리플렛에서 발췌함.(검색일 2017.10.26.)

3) 취업지원 정책 현황

① 취업성공패키지[95]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특성에 따른 진단을 근거로 최장 1년 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의 큰 틀은 진단 및 경로설정 →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 집중적인 취업알선의 경로를 가진다. 지원대상자에 따라 프로그램은 크게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Ⅱ(중장년・청년)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표 Ⅴ-30>에 ,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현황은 <표 Ⅴ-31>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고, 10대의 참여율은 모든 유형에서 10%p 미만이었다.

95)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검색일 2017.10.26.)

표 V-30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대상 및 활동내용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패키지II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II : 중장년
대상	○ 연령: 만 18~69세 (위기청소년은 15~24세) ○ 위기청소년, 무업청소년(NEET), 생계급여수급자 등	○ 연령: 만 18~34세 ○ 소득무관	○ 연령: 만 18~69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단계별 활동내용 및 참여수당	**1단계(진단 및 경로설정)** – 활동내용: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참여수당: 25만 원(I 유형). 20만 원(II유형)		
	2단계(의욕 및 능력증진) – 활동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 – 참여수당: 일정요건 충족 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지급(최대 284,000원) 훈련비 지원(I 유형 300만 원, II유형 200만 원)		
	3단계(집중 취업알선) – 활동내용: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 알선 – 참여수당: 구직활동계획 이행관련 상호의무협약수립 시 월 30만 원/3개월 지급 (만 34세 이하만)		

표 V-31 2016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현황 [단위: 명(%)]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패키지II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II : 중장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남성	53,451	36.9	83,945	43.8	8,611	30.9
	여성	91,591	63.1	107,824	56.2	19,298	69.1
연령	19세 이하	9,275	6.4	18,984	9.9	–	–
	20~29세	39,690	27.4	148,208	77.3	–	–
	30세 이상	96,077	66.2	24,577	12.8	27,909	100.0
전 체		145,042	100.0	191,769	100.0	27,909	10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2016.12). 취업성공패키지 연령별 신규참여건수(년누적). http://statistics.keis.or.kr에서 2017년 10월 27일 인출.

주: 2016년 12월 기준.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소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근속

을 위한 방안으로 2년 간 청소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공제금(1,600만원 + 이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을 막고 근무자의 숙련도를 높임과 동시에 신규 근로자의 훈련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경력 축적과 함께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 등의 정부취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이다. 적립방식을 살펴보면 2년 간 정부 지원금 900만 원, 기업 기여금 400만 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 원을 분할 납입한 뒤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2년 만기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하게 되면 3-5년 간 납입을 이어나가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현황이 <표 Ⅴ-32>에 제시되어 있다. 17년 3월까지 참여인원은 총 13,838명이었고 이 중 10대의 참여율은 9.1%, 고졸 이하 학력자의 참여율은 25.8%였다.

표 Ⅴ-3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현황('16.7~'17.3) **[단위: 명(%)]**

유형		사례수	비율
연령	19세 이하	1,264	9.1
	20~29세	11,101	80.2
	30세 이상	1,473	10.6
학력	고졸이하	3,570	25.8
	대졸이상	10,268	74.2
전 체		**13,838**	**100.0**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4.13.). '17.3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13,838명. 2017년 10월 27일 인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을 정리한 결과가 <표 Ⅴ-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3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

지원 분류	정책과제		시작 년도	정책대상	정책내용		청소년이 받는 혜택		2016년 수혜인원			2017 예산 (단위:백만원)	1인당 예산 (단위:백만원)
					훈련기간 및 내용	훈련분야	경제적	비경제적	전체	청소년 수 (20세미만)	청소년 수혜율[3]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2011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6개월 700시간 이상 직업훈련	기계, 미용 등 9개 프로그램	자립장려금 월 30만원	-	212	212	100.0	2,930	13.8
	전직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2011	만 15세 이상 실업자(비진학 고3졸업예정자포함)	최대 1년 (일반직종) 직업훈련	경영, 미용, 보건 · 의료 등 23개 분야	직업훈련비 20~95% 지원 (최대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	-	213,409	11,287	5.3	546,079	2.0
		국가기간 · 전략산업 직종훈련	2010		3~12개월, 350시간이상 (국가기간 · 전략산업) 직업훈련	기계, 건설, 전기전자 등 114개 직종	훈련장려금 월 21만6천원 ~ 41만 6천원	-	58,947	7,120	12.1		
	일학습병행제		2014	제한 없음	6개월~4년 직업훈련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 등 3,685개 기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4대 보험 등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당기업취업 + 자격취득 (자격형), 또는 학점취득 (자격/학위형)	35,324	8,153	21.3	469,100	13.3
취업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016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 등의 정부취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을 지급		성과보상금 1,600만원 (자기부담금 300만원 포함)	-	13,838	1,264	9.1	47,592	3.4

지원 분류	정책과제	시작 년도	정책대상	정책내용		청소년이 받는 혜택		2016년 수혜인원			2017 예산 (단위: 백만원)	1인당 예산[3] (단위: 백만원)
				훈련기간 및 내용	훈련분야	경제적	비경제적	전체	청소년 수 (20세미만)	청소년 수혜율[2]		
취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011	I유형: 저소득층 만 18~69세 (위기청소년은 만 15세부터 가능)	2~10주 초기상담, 약 12개월 취업지원 (전체 4단계) ※ 고용센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가능성 판단을 위한 2주의 사전단계를 거침		1단계 25만원 + 2단계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과 훈련비 300만원 (자부담 10%)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 3단계 월30만원 (최대 3개월, 만34세 이하)	–	145,042	9,275	6.4	97,955	0.68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장년층 (만 35~69세)	3~4주 초기상담, 12개월 취업지원 (전체 4단계)		1단계 20만원 + 2단계 월 40만원 (최대 6개월)과 훈련비 200만원 (자부담 5~50%) + 3단계 월30만원 (최대 3개월, 만34세 이하)		27,909	–	0.0	42,052	1.51
			II유형: 청소년 (만 18~34세, 소득무관)	자가진단, 4주 초기상담, 18개월 취업지원 (전체 5단계)				191,769	18,984	9.9	187,288	0.98

주 1)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대상과 재직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실업자 대상 사업만을 제시함.
2) 청소년수혜율 = 20세 미만 청소년 수 / 2016년 수혜인원 수
3) 1인당 예산 = 전체 수혜인원 / 2017년 예산
4) 내일이룸학교 수혜인원은 만 15세~24세임.
5) 청년내일체움공제의 2016년 수혜인원수는 '16.7~'17.3월까지 누적인원수임
6) 일학습병행제의 2016년 수혜인원수는 사업시작일부터 '16.12.29까지의 누적인원수임
7) 윤철경 외(2016) p.245-255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임
8) 예산출처: 고용노동부(2017c).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4)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정책 현황

(1) 2020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

201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10개월 뒤 청년기본조례의 후속조치이자 청소년을 위한 장기전략으로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발표되었다. 서울시 청년보장은 졸업유예, 무업청소년(NEET), 불안정 근로자 등 제도 밖으로 밀려난 약 50만 명의 사회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자리(활동지원),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살자리(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희망두배통장), 놀자리(청년활력공간)와 같은 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2015: 18, 21).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 Ⅴ-34>와 같다.

표 Ⅴ-34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

<table>
<tr><th>영역</th><th>설자리</th><th>일자리</th><th>살자리</th><th>놀자리</th></tr>
<tr><td>목적</td><td>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td><td>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td><td>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td><td>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td></tr>
<tr><td>핵심 전략</td><td>청년활동지원</td><td>청년 뉴딜일자리 확대</td><td>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희망두배 청년통장</td><td>청년 활력공간 조성 · 지원</td></tr>
<tr><td rowspan="8">일반 사업</td><td>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td><td>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td><td>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td><td>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td></tr>
<tr><td>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td><td>챌린지 1000 프로젝트(창업)</td><td>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td><td>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td></tr>
<tr><td>저소득 장학생 지원</td><td>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td><td rowspan="6">–</td><td rowspan="6">–</td></tr>
<tr><td rowspan="5">–</td><td>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td></tr>
<tr><td>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td></tr>
<tr><td>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td></tr>
<tr><td>신진 유명 예술가 지원</td></tr>
<tr><td>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td></tr>
</table>

출처: 서울시(2015) 2020 서울형청년보장 계획서에서 발췌.

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년뉴딜일자리는 일터기반 학습 프로그램으로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졸업예정 및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시, 2015: 31). 현장 직무훈련과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된 일터기반 학습 프로그램과 후속연계를 내용으로 2015년 519명에서 16년 1,5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15,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 2015: 26, 31). 무업청소년의 예방 및 재편입과 연관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은비진학 또는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2,650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서울시, 2015: 40).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 초기부터 이행단계별 지원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2020년까지 1,250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능력 함양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서울시, 2015: 40).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는 상담, 교육, 훈련, 취업 등 구직과 관련된 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스매치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8년까지 24,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은 청년 및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의 지원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서울시, 2015: 40).

(2) 지방자치단체 구직관련 청년수당 정책

2017년에 새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중 구직과 관련된 정책을 정리한 표는 <표 Ⅴ-35>이다.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경기도, 대전시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에게 20~50만 원 정도의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단순한 청년수당 지원이 아닌 지역 내의 공공기관이나 강소기업에서의 근무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표 V-35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정책

주체	정책명	시행 시기	대상	내용
인천시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17.2~12	인천시 거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 청소년(만 18~34세) 약 7,000여명	– 취업지원금 20만원/3개월 지급 – 취업 후 3개월 간 직장근속 시 취업성공 수당 20만원(현금지원)
광주시	광주 청년드림(dream) 사업	'17.5	광주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청소년 280여명	– 지역 내 공공기관, 강소기업 등에서 근무 기회 제공 – 근무 시 100여만 원의 급여와 10만 원의 추가적인 구직 수당 지급
강원도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17.6	강원도 거주 만 15~34세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청소년, 대학생 구직자, 특성화고교 고등학생구직자, 창업기업폐 · 전직청소년 근로자, 소상공인청년종사자, 취 · 창업교육이수 청소년 등	– 관내에서 구직활동 시 30만 원/3개월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지원 – 약 4,618명 대상
경기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7.7	경기도 거주 청소년 (만 18세~34세, 중위소득 80% 이하)	– 50만 원/6개월간 구직활동비용 지원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17.7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 6000명 (중위소득 150%이하, 대학생 불가능)	– 최대 30만 원/6개월 – 면접비,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출처: 인천시 – 인천 청년지원프로그램 http://field.incheon.go.kr/board/3229/1959143?category= (2017.7.19.인출)
광주시 – 광주 청년드림사업 https://gj3dreams.modoo.at/(2017.7.19.인출)
강원도 –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http://environ.araon.co.kr/bbs/board.php?bo_table=sub06_1&wr_id=257 (2017.7.19.인출)
경기도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upport.gjf.or.kr/job/intro.do(2017.7.19.인출)
대전시 - 청년취업희망카드 설명문 http://www.daedeok.go.kr/dpt/dpt04/DPT040101_cmmBoardView.do?boardId=DPT_000011&ntatcSeq=1024570820 (2017.7.19.인출)

5. 국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무업청소년(NEET)의 유형 및 특성

무업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무업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며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원인과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업청소년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무업청소년을 연구해온 유럽의 경우 유로파운드(2016)에서 EU노동력조사를 이용해 제시한 무업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7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52, 53). 먼저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무업청소년에서 곧 벗어날 "재진입 무업청소년", 실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단기 실업 무업청소년", 12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 무업청소년”,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 일할 여력이 없는 무업청소년”, ”장애로 일할 여력이 없는 무업청소년”,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무업청소년”, 무업청소년이 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타 무업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52, 53). 이러한 분류에 사용된 기준은 지난 4주간 취업을 시도 했는가?(SeekWork),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SeekReas), 2주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Avaible),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Avaireas), 실업상태가 지속되었는가?(SeekDur) 다섯 가지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54). 이를 통해 15~24세 유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업청소년을 구분한 결과 단기실업 무업청소년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실업 무업청소년 20.0%, 가족부양 무업청소년 14.4%, 재진입 무업청소년 9.4%,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무업청소년 8.0%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55).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무업청소년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통적 실업자, 구직 불가능자, 사회적 단절자, 기회 탐색자, 자발적 무업청소년으로 나뉘며 전통적 실업자는 단기 및 장기 실업자, 구직 불가능자는 젊은 간병인 또는 장애를 가진 무업청소년으로 구분된다(김종진, 2017: 64). 또한 사회적 단절자는 적극적 구직을 하지 않거나,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분하며 기회 탐색자는 적극적 구직 훈련기회를 찾는자, 자발적 무업청소년은 여행, 예술, 음악 등 기타활동을 하는 무업청소년을 이른다(김종진, 2017: 64).

한편 2012년 15~34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 총무성은 조사결과, 일본 무업청소년의 규모를 전체 인구 대비 18%로 추정하면서 무업청소년의 유형을 구직자, 비구직자, 미혼가정종사자, 가정주부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46) 전체 인구에 따른 비중을 살펴보면 구직자 6.2%, 비구직자 3.0%, 미혼가정종사자 1.0%, 가정주부 7.2%이며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46).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경우 비구직자만을 무업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런 경우 일본의 무업청소년 전체인구대비 3.0%를 차지하며 총무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18%에 비해 약 1/6의 수준이 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46). 일본의 무업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분류로서 구직 무업청소년과 비구직 무업청소년의 구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집단을 구직 무업청소년으로 구분하며 구직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집단과 구직에 대한 의사조차 없는 집단은 비구직 무업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50). 한편 요코하마에서는 무업청소년을 집에 머물러 있는 “은둔형”, 소통은 하지만 교육 및 구직의욕이 없는 “무기력형”, 구직활동은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실업자형”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장지은, 2010: 152). 그 외에도 20세~59세를 대상으로 구직과 더불어 외부와 소통하는 정도에 따라 고립무업자(Solitary non-employed persons, SNEPs)[96]의 구분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및 청・중년 은둔형외톨이(Hikikomori)역시 무업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52, 153).

2) 무업청소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향

각 국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업청소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교육수준, 이주배경 이외에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건강요인을 무업청소년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건강의 경우 무업청소년이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3단계 이상의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보다 무업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16a: 19, 20). 청소년의 교육수준은 스웨덴에서 무업청소년의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주배경 또한 스웨덴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청소년의 경우 무업청소년이 될 확률은 21.3%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6a: 20).

일본의 경우 무업청소년의 발생원인을 (특히) 여성에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학력, 은둔형외톨이의 세 가지로 꼽고 있다(OECD, 2017a: 60, 64, 66). 무업청소년이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초반에는 프리터와 은둔형외톨이를 주된 문제로 보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김미숙, 2009: 181). 그러나 현재는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평가하는 입장이 우세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문제시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43%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비구직 무업청소년의 2/3가 여성이며 이는 여성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대신 육아에 전념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OECD, 2017a: 17, 18, 62). 일본의 경우 학력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무업청소년과의 연관성이 낮은 편인데 일본 무업청소년의 1/3이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OECD, 2017a: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낮은 교육수준에 따른 무업청소년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에서 학력보다

96) 고립무업자 : 20~59세 연령대의 미혼자 중, 학업중이 아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또는 가족과 보내고 외부와는 소통하지 않는 무직자이며 가족형, 개인형, 비고립형 고립무업자로 구성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무업청소년의 위험성을 높이는 발생 원인은 은둔형외톨이이다. 2105년 15~29세 청소년 중 약 32만명이 은둔형외톨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3은 남성이었으며, 비구직 NEET의 대부분이 은둔형외톨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7a: 67).

호주의 경우는 낮은 교육수준, 성별, 인종(호주 원주민), 비 영어권 이민자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OECD, 2016b: 24). 호주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무업청소년이 될 확률(37%)은 고등교육을 받은 청소년(11%)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자청소년이 무업청소년이 될 확률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51% 높게 보고한다(OECD, 2016b: 24). 또한 호주 전체 청소년의 3%를 차지하는 호주 원주민 청소년은 전체 무업청소년의 10%를 차지하며 만약 호주 원주민 청소년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OECD, 2016b: 24). 마찬가지로 비영어권 국가로부터 이민 온 청소년의 경우 호주 청소년에 비해 무업청소년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전체 무업청소년 중 18%를 이민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다(OECD, 2016b: 24).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무업청소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력의 경우 낮은 학력 수준은 무업청소년으로의 가능성을 6~10배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연관 요인으로 잦은 결석과 정학 횟수를 들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6). 성별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10대에 하는 임신 경험이 무업청소년과 관련이 깊었으며 가정과 관련하여 주거 상태, 가족구성(한부모), 부모들의 직업상태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 무업청소년이 많을수록 무업청소년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6).

한편, 유대인, 아랍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경우 무업청소년의 발생 원인을 인종, 성별, 경제수준, 인적 자본, 낮은 학력 수준, 장애 등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아랍인 청소년의 경우 낮은 경제수준과 학력, 높은 결석률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비해 무업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91~192). 또한 여성의 경우 결혼 또는 동거로 인해 자녀가 있는 여성 역시 무업청소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 무업청소년의 38%가 자녀가 있으며 이들 중 58%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공부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93).

다양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업청소년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에는 대부분 경제위기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청소년의 낮은 경제적 요인과 학력 수준, 성(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들에서 제시하는 무업청소년의 발생원인은 대동소이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업청소년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부담감 역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무업청소년은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데, 장기 무업청소년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며,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 경향, 향후 발생할 취업 기회 포착의 어려움 등 위기상황의 장기화 및 심각화를 야기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7). 따라서 이러한 주요 요인들과 청소년 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예방 및 감소 대응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벽을 낮추는 방안에서부터 미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학교 시스템 안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연계하여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사이의 공백과 이탈을 최소화하여 무업청소년으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 무업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1) 청소년보장(Youth Guarantee)

청소년보장은 증가하는 무업청소년들 집중 개입을 통해 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으로 재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2. 재인용).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2012년 12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청소년보장의 주요 내용은 무업청소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실업 및 학업중단 후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와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견습(도제)의 기회를 제공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2 재인용). 현재 가장 최근 청소년보장제도를 전면 시작한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 많은 국가들이 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자격기준, 보장 기간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김종진, 2017: 40).

표 V-36 국가별 청소년보장 현황

실행국가	대상연령	자격	보장기간
덴마크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3개월
핀란드	25세 미만 30세 미만 최근 대학 졸업자	NEET	3개월
프랑스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4개월
독일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3개월
아일랜드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4개월
이탈리아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4개월
네덜란드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4개월
폴란드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4개월
스페인	25세 미만 30세 미만 장애자	NEET	4개월
스웨덴	25세 미만	실업상태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등록	3개월

출처: 김종진(2017: 40)에서 발췌하여 수정 후 사용.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장제도는 고용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 유럽 사회기금 청소년이니셔티브, 교육담당부서, 청소년노동단체,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청소년단체, 사회적 파트너, 지방정부,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교육 및 훈련, 보충 교육, 취업중개 서비스, 직접적인 고용창출, 채용 및 창업 유인책 등의 6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김종진, 2017: 44). 청소년보장 제도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보제공 및 상담, 아웃리치 프로그램, 학교-취업 전환 지원, 훈련 및 취업알선, VET 및 견습(도제), 청소년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4). 김문희(2015)는 이러한 청소년보장제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실업에 대한 조기 개입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조, 국가별 상황과 원인에 따른 다양한 집행 방식의 존재,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소외 또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김문희, 2015: 104~106).

유럽 많은 국가들에서 청소년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3년여가 경과한 현재 그 시행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일단 유럽 전체 무업청소년의 비중은 2013년 평균 13%에서 2016년 11.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월 이후 총 1천 4백만 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중 64.3%에 달하는 총 9백만 명의 청소년이 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고용, 교육, 훈련, 견습 등의 고용 기회를 획득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3). 제도 시행 및 경과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2007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고용보장(Job Guarantee for Youth)을 통해 무업청소년을 지원한다(OECD, 2016a: 167) 청소년 고용보장은 PES에 등록된 16~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교육과정, 훈련, 직업경험,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OECD, 2016a: 171). 프로그램 참여 후 90일은 주로 직업탐색 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90일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탐색 활동과 함께 직업경험과 훈련을 진행한다(OECD, 2016a: 171). 2015년 청소년보장의 가입률을 높이고 무업청소년의 학업성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 중 하나는 교육 협약(Education Contract)으로 중등교육 학위가 없는 20~24세 청소년이 전업 학생으로 공부하거나 중등교육과 파트타임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ECD, 2016a: 169).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훈련자 일자리(Trainee Jobs)로 중등학위를 소지한 20~24세 학생들이 시간제 보조금을 받는 직업과 추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ECD, 2016a: 169).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보장제도의 사례를 보면, 스코틀랜드 내 다른 도시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윤철경, 2017: 14). 본 제도를 통해 견습과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멘토링, 강의, 인턴십 등의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딘버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약 1만 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윤철경, 2017: 15).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인 JET프로그램이 있으며 직장기반 프로그램으로 Inspiring Young People이 있는데, JET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되며 학생과 일터의 연결을 통해 학교 생활과 동시에 직장 경험이 가능하며 급여는 없지만 고용 기회가 다양해지며 고용주의 추천서가 발행된다(윤철경, 2017: 15). 직장기반 프로그램인 Inspiring Young people의 경우 기본적인 soft skill을 배우는 단계, 직장에 출근하여 일경험을 받을 수 있는 단계, 회사에 배치되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외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하여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다(윤철경, 2017: 16). 또한 16+ 학습선택권(16+ Learning Choices), 16+ DATA HUB,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All) 등의 정책을 통해 무업청소년의 예방과 재편입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보장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4, 99).

199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보장제도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는 2013년 사회보장 제도를 EU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보장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와 교육보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김문희, 2015: 106). 청소년 관련 단일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핀란드는 25세 이하(최근 졸업자의 경우 30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보장, 기술 프로그램, 고용 및 경제적 개발 서비스, 지역 의료 및 재활서비스, 워크숍 활동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청소년고용을 증진하고 있다(김문희, 2015: 106). 핀란드 청소년보장의 특징으로는 청소년고용 관련 네트워크 강화가 있는데, 이를 위해 Private, Public, People, Partnership를 이용한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5개 정부부서와 교육위원회, 지방정부연합회, 노동자조합, 경영자협회 등의 조직들이 참여하여 국가수준의 청소년보장 실무 담당부서가 설립되었다(김문희, 2015: 107). 이 부처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이 평가되고 청소년보장을 위한 제언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제부가 전체적인 청소년보장의 실행을 담당하며 교육문화부가 교육 및 스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기반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80%가 이러한 방식의 네트워크가 구축하였다(김문희, 2015: 107).

프랑스의 경우 2017년 청소년보장이 법제화되어 전면시행에 이르는데 2016년 말 청소년보장제도의 참여자는 약 7만여 명까지 확대되었다(김종진, 2017: 55, 57). 청소년 정책을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경우 실업상태에 있으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한 2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월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고용담당부서와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관리 권한과 조율의 역할이 주어진다(김종진, 2017: 40, 41). 제도 시행에 있어 주요 협력 기관이자 이해관계자로서 유럽사회기금 청소년이니셔티브와 교육담당부서, 청소년 노동단체, 공공취업지원 서비스기관, 지역 청소년단체가 설정되어 있는데 훈련과 교육, 중개 등을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고용창출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김종진, 2017, 41). 구체적인 보장제도 참여 조건을 보면 16세~25세 이하 청소년 중 무업청소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월 수입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470.95유로 미만이어야 한다(김종진, 2017: 54). 특이점은 미씨옹 로칼 집중 동반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가능한데, 미씨옹 로칼은 프랑스 청소년보장제도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지역센터)으로 1990년대부터 전국 약 450개 기관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김종진, 2017: 49).

(2) 수당 및 급여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무업청소년의 교육, 훈련, 취업, 생활유지 등을 위해 수당 및 급여를 무업청소년과 가족 또는 관련 기관에게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직업보장제도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데, 16세~24세 청소년 중 최근 4개월 내 9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공공취업서비스에 구직자로 등록된 월 소득 524.68유로 미만의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김종진, 2017: 72). 지원내용으로는 교육 및 취업상담, 멘토링, 실습, 직업훈련 및 교육, 견습 계약과 월 785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견습 계약의 경우 고용주에게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김종진, 2017: 72).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현금지원과 동시에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일본의 실업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자격이 없고(기여금이 없거나 짧은 경우) 구직이 필요한 청소년은 구직자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 for Jobseekers, SSJ)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OECD, 2017a: 90) 이는 경제위기 당시 개발 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후속 제도로 Hello Work를 통해 구직지원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데 참가자는 교육 기간 동안 매월 최대 10만엔의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고 2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OECDa, 2017a: 90).

실업보험이 없는 호주의 경우 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산조사와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계획 수립,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제도가 요구하는 상호 의무 활동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OECD, 2016b: 103). 호주의 무업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크게 구직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청소년 보조금(Youth Allowance)제도와 교육견습지원금(Austudy)으로 청소년 보조금의 대상은 16~21세 청소년 중 구직을 준비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 훈련 과정에 등록된 청소년, 전업 학생이거나 주 30시간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이며 소득, 결혼여부, 자녀,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마다 20~48만원이 지급된다(OECD, 2016b: 171; 김종진, 2017: 72). 교육견습지원금의 대상은 26세(2016년 7월 이전 22세) 이상 국가가 인증하는 대학에서 전업 학생으로 교육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 결혼 여부, 자녀,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마다 35~48만 원이 지급된다(김종진, 2017: 72).

영국의 경우는 대상 무업청소년에게 직접 제공되는 수당이 아닌 고용주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16세~24세 청소년 견습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김종진, 2017: 72). 이는 청소년 견습생 보조금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해당 청소년을 견습생으로 채용하게 되면 약 250만 원가량의 한도 내에서 최대 5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고용된 견습생이 13주의 견습 기간을 충족하였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김종진, 2017: 72).

표 V-37 국가별 청소년 수당 및 급여

국가	호주		스웨덴	일본
제도	청소년보조금	교육견습지원금	청소년 직업보장제도	고용보험
연령	16세~21세	26세 이상	16~24세	–
자격 기준	– 구직 중 –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 훈련 과정 등록된 청소년 – 주 30시간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	– 국가 인증 대학의 전업생 – 직업 훈련 중인 청소년	– 최근 4개월 내 9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 중 PES에 등록된 월 소득 약 70만원 미만의 무업청소년	– Hello Work에 등록되어 구직지원과 훈련을 받는 무업청소년
수당	2주마다 20~48만원	2주마다 35~48만원	월 약 89만원	월 최대 100만원

출처 : 김종진(2017) 및 OECD(2017a: 72, 90), OECD(2016b: 103, 171) 내용을 정리하여 사용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업청소년의 고용과 관련한 수당 및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교육 및 훈련 참여, 취업계획, 견습 등과 같은 상호 의무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상자가 아닌 견습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의 경우 중요한 것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만큼의 참가자가 취업이 되고 취업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취업상담

스웨덴의 경우는 16세 이상의 고등학생과 학업중단자의 경우 Youth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3개월 간(연장 가능) 매주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의 목표는 지역 고용인과 시립 성인교육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과 고용에 참여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청소년고용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된다(OECD: 2016a, 173).

일본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은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Regional Youth Support Station, RYSS)과 잡카페(job cafe)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은 2006년 지자체의 주도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 후생노동성에서 배치된 직업 컨설턴트와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어 있다(김미숙, 2009: 188). 본 기관의 주요 사업은 상담지원, 직업의식 개발, 코디네이트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상담지원사업은 아직 취업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무업청소년이 구직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은 물론 심리, 의사소통 방법 등 대상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상담을 지원한다(김미숙, 2009: 189, 117). 상담 방법은 일대일 상담, 그룹상담 그리고 취약청소년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취업 경험의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OECD, 2017a). 이와 더불어 직업의식계발 사업을 통해 사회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인성교육,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장지은, 2010: 149). 또한 일본의 공공 고용서비스인 Hello Work(헬로워크)는 무업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및 상담, 고용 보조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헬로워크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Job Cafe에서는 졸업생을 포함한 청소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에 있어 직업 소개와 상담을 제공한다(OECD, 2017a: 156).

(4) 직업훈련(교육)

스웨덴의 직업훈련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스웨덴은 1990년 개혁과 함께 도입된 VET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학문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높은 중퇴율의 주 원인으로 비판받았다(Lundahl & Olofsson, 2014: 26). 따라서 2011년 또 한 번의 개혁을 통해 VET 프로그램에서 일반 과목을 줄이고 견습과정을 추가함으로서 VET의 실용적인 내용을 추구함과 동시에 고용주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2015년 의무교육을 이탈한 전체 청소년의 98%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입학하였다(OECD, 2016a: 117).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6개의 일반과목 프로그램과 12개의 VET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자격이 미달될 경우 입문 프로그램을 수강) 12개의 VET 프로그램은 과정의 50%를 기업체에서 진행되는 견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손혜경, 2014: 71). 견습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넓어진 취업 기회를 통해 구직도 가능하지만 고등과정 또는 성인교육 시스템 수료를 통해 대학 입학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손혜경, 2014: 71; OECD, 2016a:

118). 2015년의 경우 입학생 중 52%는 고등교육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26%는 VET프로그램에 등록 하였고 나머지 22%는 입문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OECD, 2016a: 118).

한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성인교육센터(Komvux)에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고용 이니셔티브 유럽연합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OECD, 2016a: 173). 이 센터는 지역별로 관리되며 20세 이후의 청소년들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용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Lundahl & Olofsson, 2014: 27). 이러한 스웨덴의 성인교육 시스템은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정규 학교를 원하지 않는 중퇴자를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수료가 가능하다(OECD, 2016a: 180). 또 다른 두 번째 기회 교육프로그램으로 민속고등학교(Folk high school)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의무 또는 중등 교과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일반과정과 드라마, 음악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그 외 전문직 취업 과정을 제공하여 미국의 Jobs Corp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OECD, 2016a: 182).

일본의 경우 직업교육(VET)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업청소년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이미 무업청소년이 된 청소년들의 재편입을 위해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직업훈련은 학교와 졸업생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데, 기업 및 교육과정의 선정은 공공 고용서비스인 Hello Work의 엄격한 규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OECD, 2017a: 14). 기업은 매학년 말 노동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졸업자 중 소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선발된 학생은 실제 직무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획득하고 이론 교육은 상급자와 숙련된 동료에 의해 내부에서 제공되거나 외부 강좌를 통해 제공된다(OECD, 2017a: 14). 본 과정을 통해 2015~2016년 동안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한 학생의 약 98%가 교육을 제공한 고용주의 기관에 배치되었다(OECD, 2017a: 14).

학교 밖에서 무업청소년을 대상을 제공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등록된 구직자와 직업이 없는 최근 졸업생,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PVT)을 제공하는데, 기술훈련을 위주로 제공하며 1년차에는 일반과정, 2년 차에 실용적 기술 습득 과정, 3년차에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공립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 공공 인력개발 시설에서 운영된다(OECD, 2017a: 132). 이러한 공공 훈련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취업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2014년 기준으로 95% 이상 높게 나타났다(OECD, 2017a: 133).

외부에서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훈련 서비스는 고령・장애인 고용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es and Jopseekers, JEED)가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학교와 지방정부와 연계된 민간 업체로부터

제공된다(OECD, 2017a: 157). 훈련 프로그램 중 공공 영역에서는 건설, 제조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민간 영역에서는 사무, 장기 요양보호, IT등의 교육이 제공되며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는 구직자 지원 시스템(Support System for Jobseekers)을 통해 훈련수당이 지급된다(OECD, 2017a: 157).

(5) 견습제도

스웨덴[97]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8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6개는 대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나머지 12개는 실업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실업계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업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일반 프로그램과 기업체에서의 견습에 중점을 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체 견습 위주의 프로그램은 전체 교육의 50%가 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견습은 고등학교 전 학년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최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에도 견습이 가능) 2014년 1월부터 월 1,000크로나(한화 약 14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기업체 견습에서 눈여겨 볼 점은 학교와 기업체가 긴밀한 협력체계 안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인데 견습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가능하며 불가능할 경우 거주지역과 계약을 맺은 지역의 기업체에서 견습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견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인맥 형성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업계 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 영어, 수학 등 최소 5개의 과목을 통과해야 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학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실업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숙련)기술부족을 생산성과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기술(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습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정민아, 2015: 68). 이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풀타임 학생이 아닌 16세 이상의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 수준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임금을 받으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정민아, 2015: 68). 영국정부는 직업정보 사이트 구축, 견습생 최저임금 인상, 견습생 고용 기업의 국민보험 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견습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정민아, 2015: 68, 69).

97) 손혜경(2014) 스웨덴 실업계고의 기업체 견습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SDS)에서 주관하는 Modern apprenticeship, Foundation apprenticeship,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 과정이 있는데, Modern apprenticeship의 경우 매년 2만5천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을 통해 인턴십을 수행하며 자격을 취득한다(윤철경, 2017: 17). Foundation apprenticeship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기반 학습기회로 2년 동안 토목, 소프트웨어, 금융 등의 과목이 제공되는데 모든 대학이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은 스코틀랜드 내 9개 대학에서 진행하는 19개의 직무관련 코스를 이용한 견습제도이다(윤철경, 2017: 17, 18).

프랑스[98] 정부의 견습생 제도 전략은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강제의 틀에서 이루어졌는데, 25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정원의 4%(2015년부터 5%)를 견습생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여금, 세금공제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제공된 혜택은 6조원에 달하는 지원이었다. 프랑스 견습생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견습생을 위한 별도의 계약 형태가 존재했지만 2014년부터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3년간의 견습기간이 완료되면 일반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된다.

(6) 특정 무업청소년을 위한 정책

일본에는 전국 67개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의료제공자에게 청소년과 부모를 연계하기도 한다(OECD, 2017a: 156). 또한 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립된 청소년과 연락을 취하며 일부는 고립 된 청소년들의 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조직한다(OECD, 2017a: 162). 그리고 지방정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업무에 대한 인적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hikikomori suppoeters)를 발족하여 파견하였으며 2016년 3월 서포터의 수는 1,178명이었다(OECD, 2017a: 166).

98) 김상배(2014) 프랑스 견습생 제도 활성화 대책과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정부지원 이외에도 K2 인터내셔널, 소다테아게넷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합숙을 통한 기본 생활습관 개선, 적성검사, 취업 컨설팅, 봉사활동, 직장체험, 세미나,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6: 275, 276).

호주에서는 원거리, 농어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업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 상 원거리 외진 지역의 청소년들은 매우 취약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경험, 기술 등을 쌓기에 어려움이 있다(OECD, 2016b: 71). 따라서 호주의 60개 원거리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개발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CDP)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을 통해 선정된 39개의 제공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및 취업유지, 고용능력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OECD, 2016b: 212, 241). 취업훈련을 받지 않는 무업청소년의 경우 소득지원 유지를 위해 주당 25시간 Work for the Dole(WfD)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 약물 및 알코올 재활, 운전면허, 언어 및 문맹퇴치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OECD, 2016b: 242).

4) 무업청소년 발굴 및 연계 정책

(1) 발굴

무업청소년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교육, 훈련, 고용의 영역에 재편입되는 것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업청소년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고 접촉하는 무업청소년 감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스웨덴의 경우 2013년 당시 무업청소년 실태파악에서 16세~25세 무업청소년 중 32%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집단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들은 1년간 정부 어느 기관과도 접촉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수당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에도 등록되지 않았다(OECD, 2016a: 162).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은 완수했지만 20세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하여 다시 교육현장으로 재편입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OECD, 2016a: 164). 공공고용서비스는 그러한 미등록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학교, 길거리에서 비공식적인 캠페인을 조직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함께 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특히, 외진 지역에 있는)을 파악해야 한다(OECD, 2016a: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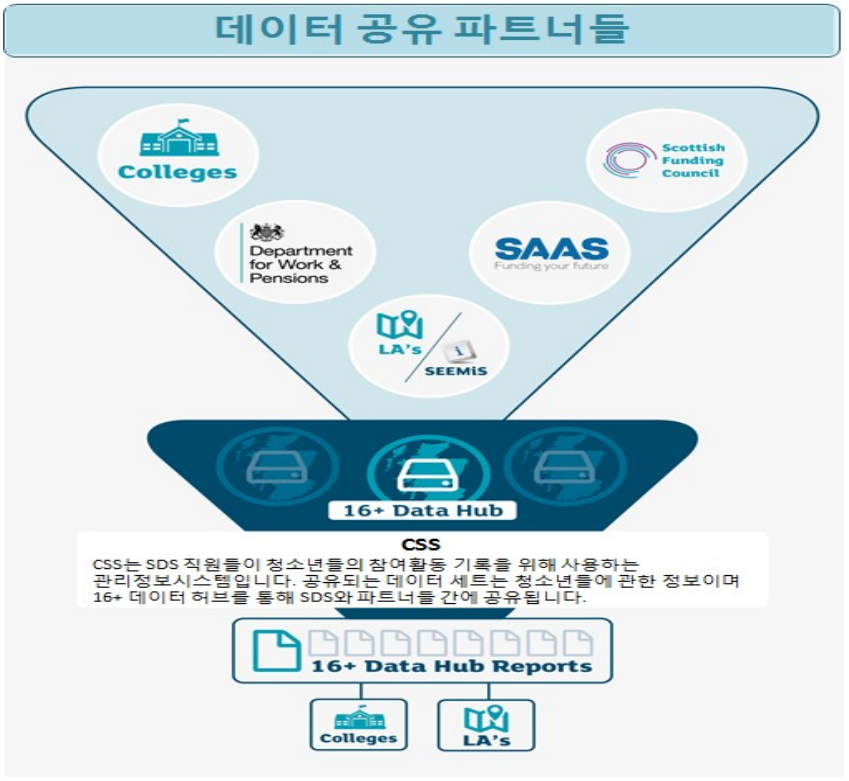
한편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하게 될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되는데, 전체 무업청소년의 절반 이하가 사회보장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되었다(OECD, 2016a: 164). 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20세 이하의 무업청소년이나 20세 이상의 무업청소년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원-스톱-샵과 발굴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무업청소년을 위한 국가전략을 도입하였다(OECD, 2016a: 164).

발굴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인 PES-run Youth In 프로젝트는 활동하지 않는 무업청소년을 찾아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범죄 경력, 물질 남용, 학습 장애, 정신 건강문제 등이 있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OECD, 2016a: 164). 이를 위해 공원, 번화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무업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미등록 청소년들이 PES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마케팅 담당자를 고용하였다(OECD, 2016a: 165). 850명의 대상자 모집 후 참가자의 45% 이상을 직장이나 교육에 재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프로젝트는 그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종결되었으며 이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인 UngKOMP를 통해 15개 도시에서 실시되었다(OECD, 2016a: 165).

일본의 경우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무업청소년 발굴 활동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에서 발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OECD, 2017a: 162). 2010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중퇴자 등에 대한 아웃리치 사업은 학교와 연계를 통해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최근 1년의 고등학교 중도퇴학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하여 조기 자립과 진로결정을 지원한다(백혜정・송미경, 2015: 117). 그리고 몇몇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교, 의료기관 및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취업 상담과 복지, 교육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OECD, 2017a: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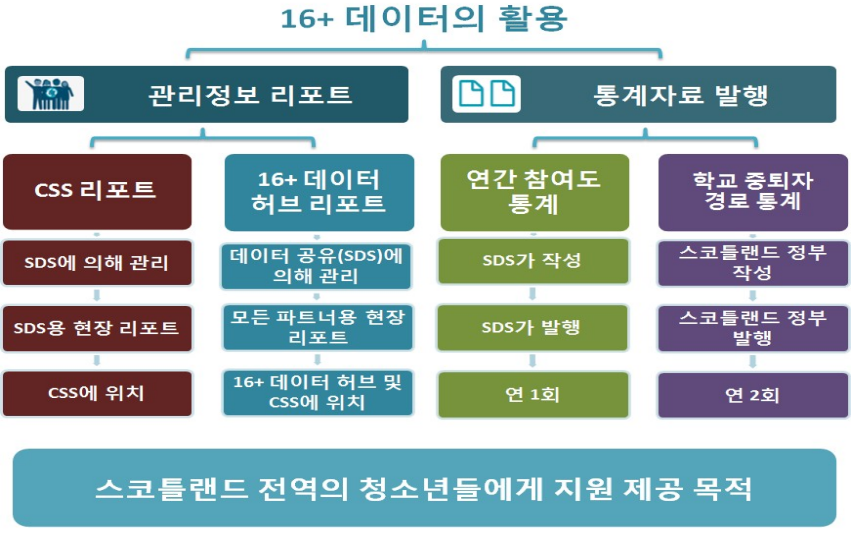
한편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과 학교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파악을 위해 학교는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 학업중단의 위기 징후가 발견된 학생의 정보를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으로 전달하도록 개선되었다(OECD, 2017a: 163, 164). 또한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은 학업중단 과정에 있는 학생, 직업선택을 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 및 졸업생의 학교와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OECD, 2017a: 164).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무업청소년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과 그에 따른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무업청소년의 규모 축소를 위해 “기회 격차 축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2006년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 도입하여 무업청소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일관된 접근법에 주력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1, 92). 이후 2010년 16+ 학습선택권 도입을 통해 16세 이후 청소년 전체가 전환기 이전에 적절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데이터를 관리 및 추적하여 개입의 강화를 추구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2). 2012년에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16~19세 모든 청소년이 교육, 훈련,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며 16+ 데이터 허브를 도입하여 무업청소년 예방 및 재편입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청소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2).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교 밖 무업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한 “모두를 위한 기회”의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이는 16+ DATA HUB를 통해 가능했다. 16+ DATA HUB는 의무교육 연령인 16세 이전인 15.5세에 학교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SDS에 전송하여 20세까지 SDS에 의해 업데이트 되며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정부(중앙, 지방), 대학, 컬리지, 훈련 프로그램 등과 공유된다(윤철경, 2017: 19). 이 시스템에 22만 명의 청소년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에 있는 무업청소년의 규모와 정보가 공유되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 현장에 재편입되는 과정을 거친다. 16+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은 다음과 같다. 16+ DATA HUB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 및 추적하여 관리한 결과, 91.1%의 학생들의 정보가 입력되었으며 17~19세의 교육, 훈련, 고용에 대한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미확인 무업청소년의 규모는 2016년에 비해 0.3%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01).



[그림 V-20] 16+ DATA HUB 데이터 공유 파트너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스코틀랜드의 무업청소년, p.99.



[그림 V-21] 16+ DATA HUB 데이터 활용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스코틀랜드의 무업청소년, p.100.

(2) 분류

스웨덴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에 대상자가 등록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웹 기반 프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장기 실업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출생지, 학업성취도, 실업 기간, 이전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한다(OECD, 2016a: 169). 본 평가에 따른 대상자들은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배치되는데, 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사람 ③ 직업을 찾는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④ 일자리를 찾는데 지원이 필요하며 조기개입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OECD, 2016a: 169).

공공고용서비스에서는 1~3 집단에 속하는 무업청소년을 고용현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교육, 직장 경험, 고용 수당 및 인센티브 외에도 두 가지 우산 프로그램인 청소년 직업 보장과(JOB Guarantee for Youth, JGY) 직업 및 개발 프로그램(The Job and Development Programme, JDP)을 통해 지원한다(OECD, 2016a: 170).

청소년 직업보장의 경우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성인교육과정, 훈련, 직장경험 및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간은 주로 구직 지원을 위한 탐색 및 평가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90일 이후 2단계에서는 구직활동을 위한 훈련이나 직장경험 등의 활동이 제공된다(OECD, 2016a: 171). 직업 및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지원 및 코칭, 직장경험,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참여도 제공하는데, 장기실업자, 범죄 경력 청소년, 이민자 등 주로 노동시장에서 크게 벗어난 구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OECD, 2016a: 171).

호주는 복지부와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Centrelink를 통해 구직자가 등록되는데, Centrelink는 구직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리며 구직자들은 등록과 동시에 본인의 프로파일링과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능력이 평가되고 이를 기초로 직업알선 업체로 연결된다(이승렬, 2013; OECD, 2016b: 277).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는 구직자 분류도구(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를 통해 구직능력을 검사하게 되는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최근 근무경험 등 총 1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승렬, 2013). 결과에 따라 구직자는 Stream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Stream A는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구직자, Stream B는 취업장벽이 있는 구직자, Stream C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구직자로 분류된다(OECD, 2016b: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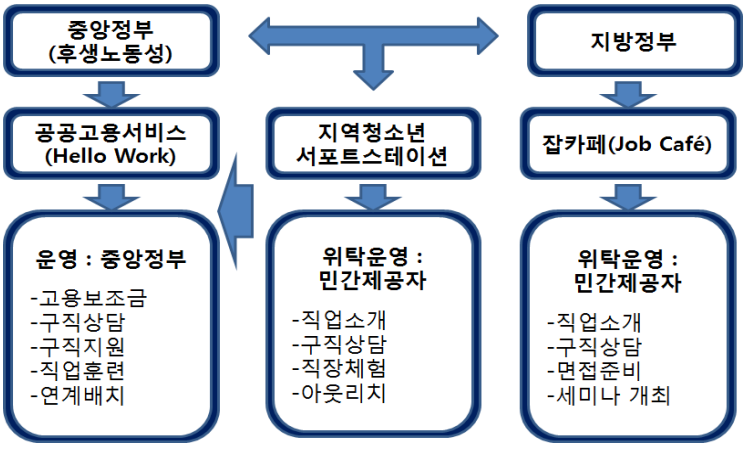
학업중단청소년이나 무업청소년의 경우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Stream B(30%)에

편입됨과 동시에 집중적인 고용지원을 받는데, 각 구직능력 집단에 따라 1년간 직업알선 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제공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구직자들의 경우 업무경험단계(Work Experience Phase, WEPh)로의 이행을 통해 소득지원을 유지하게 된다(OECD, 2016b: 277). 이 단계에서 일주일에 최대 15시간 동안 Work for the Dole(WfD)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으로 정규 또는 파트타임 업무에 포함되거나 교육 또는 기타 승인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OECD, 2016b: 277).

5) 무업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일본

Job Cafe는 지방(도도부현)에 의해 운영되며 구직상담 및 구직지원, 면접준비 등을 제공한다(OECD, 2017a: 155). Hello Work는 구직 서비스의 주요 거점으로 전국 544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용보조금, 구직상담, 취업알선(연계) 등 광범위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한다(OECD, 2017a: 155).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과 지방당국은 무업청소년에게 진로상담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160개의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RYSS)을 공동으로 운영한다(OECD, 2017a: 155, 156).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가능한 구직자로 판단되면 Hello Work를 통해 구직지원과 취업알선을 연계한다(OECD, 2017a: 161). Job Cafe와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위탁운영하는 민간 제공기관은 경쟁을 통해 매 해 입찰 절차를 거친다(OECD, 2017a: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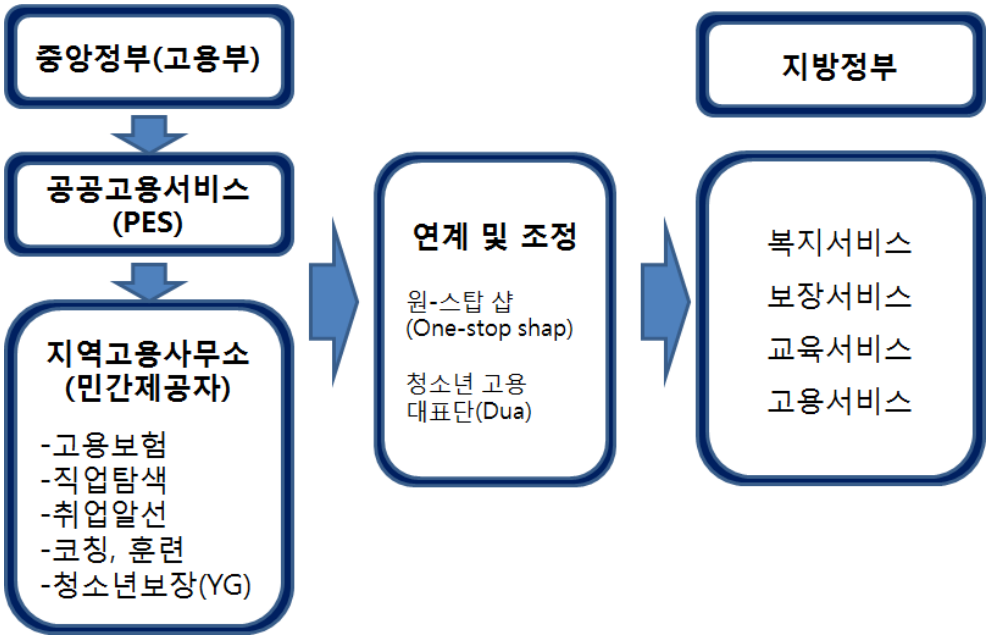


[그림 V-22] 일본 무업청소년 전달체계

출처 : OECD(2017a) Investment in Youth Japan 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② 스웨덴

스웨덴의 무업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는 고용부가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를 통해 시작된다. 공공고용서비스는 중앙정부인 고용부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며 스웨덴 전역에 320개의 지역고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OECD, 2016a: 155). 지역고용사무소는 고용보험, 직업탐색, 취업알선, 코칭, 훈련 등의 공공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센터는 민간제공업체를 통해 위탁운영된다(OECD, 2016a: 156). 지방정부의 경우 보건, 복지, 사회,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별도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직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 받는다(OECD, 2016a: 156). 따라서 중앙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해주는 거점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원스탑샵(One-stop shap)과 청소년 고용 대표단(Delegationen för unga till arbete, Dua)에서 담당한다(OECD, 2016a: 129).



[그림 V-23] 스웨덴 무업청소년 전달체계

출처 : OECD(2016a) Investment in Youth Sweden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제 Ⅵ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제 Ⅵ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규모별 특성 및 연도별 차이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이동과 거주지 규모별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58%는 대도시에, 31.1%는 중소도시에, 11.6%는 읍면지역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지난 5년 동안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집단은 20% 미만이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 20% 미만이 종전 거주지를 떠나 있었다. 거주지 이동은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 청소년의 거주지 유지율이 69.0%로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77.2%)와 대도시(86.4%)는 이보다 높았다.

거주지 규모별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의 연령이 더 높았으며 학업중단 시기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중단하는 경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은 대도시보다 초·중학교 때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① 거주지 규모별 학업적 특성

중단 후 5년차가 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중 45.6%만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였고 나머지는 학업중단 상태가 아니었다. 42%는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고 3.5%는 대학중퇴, 6%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상태였다.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대도시 청소년 중에는 중단 후 대학진학 및 졸업 비율이 48.9%, 중퇴(2.2%)를 포함하면 50%를 넘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일수록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읍면지역 청소년의 경우 62.2%가 중단상태로 있었다.

대학진학자 중 60%는 재학 중이고 7.7%는 졸업을 했다. '휴학(28.5%)'과 '중퇴(3.1%)'는 합쳐서 31.6%인데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 제일 많은 휴학 사유는 '군입대(51.4%)'이다. 그 다음은 '편입학/재수 준비'(10.8%), '생활비를 벌기위해(8.1%)', '취업준비(8.1%)' 등인데 이러한 사유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다.

대학진학 주요 이유는 '원래 대학 진학 계획이 있어서'(29.2%), '대학에서만 직업능력이 가능해서'(25.4%).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서'(20.0%)인데, 대도시 청소년은 대학진학계획을 갖고 그만 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대학에서만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0%는 '4년제 대학'에, 35%는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었고 '학점은행제' 이용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도시지역 청소년들은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등 다른 수단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읍면지역 청소년들 중에는 없었다. 85% 정도가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청소년이 좀 더 국공립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읍면지역(65.2%)이 대도시(58.9%), 중소도시(59.2%)보다 높다. 대학진학자들 중 약 80%가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 읍면지역 청소년은 검정고시 후 고졸자격을 취득하는 학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70%의 학교 밖 청소년은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응시했다. 또 응시한 청소년 중 70%는 전과목 합격, 30%는 부분 합격을 하였다.

② 거주지 규모별 직업훈련 및 근로 경험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아르바이트, 취업 등의 근로 경험이다. 지난 1년간 응답자의 58.5%가 근로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조사 시점에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56.9%였다. 중단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약 40% 수준이며 약 절반(48.2%)은 지난 1년 간 한 번 정도 그만두었던 경험이 있고 나머지 12%는 2번 이상 중단했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중단 경험이 없는 청소년 비율이 감소했다. 주요 중단 사유는 '공부, 또는 개학 때문에', '놀고 싶어서', '군 입대' 등이었는데, '놀고 싶어서' 라는 응답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음식점 서빙이나 카운터, 배달', '카페 및 주점 서빙' 등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 노동에 종사한다. 전년도와 다르다면 '음식점 서빙'은 확연히 줄고 '카페 서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음식점 서빙은 24.4%에서 12.4%, 카페서빙은 16.4%에서 21.2%). 카페 서빙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았다. 이는 청소년의 선호도와 지역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서 카페 서빙 다음으로 많은 것은 건설현장 및 공장노동, 상점 점원이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음식점 서빙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식당 및 출장 뷔페 등의 업종이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26.3%인데 대도시 청소년들은 29.4%, 중소도시 23.7%, 읍면지역 14.3%로 도시 청소년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이 장기간 일하는 비율이 적었다. 청소년들의 구직 기간은 보통 1주에서 4주 걸린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1주 이하, 중소도시는 5주~8주 걸린다는 응답이 많아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구직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주된 취업 경로는 '인터넷'과 '친구, 선후배'를 통해서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친구나 선후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언론매체를 통한 취업이 많았고 인터넷은 적었다. 중소도시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한 취업이 적었다.

근로시간을 볼 때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의 주당 근로일수와 일일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시급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4대 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인데 중소도시는 55% 수준으로 가입률이 더 높았다. 향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28%에 불과하며 중소도시는 이보다 더 낮아 18%였고 읍면지역은 50% 수준이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비율은 해당 지역 정규직 채용 비율과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정규직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중소도시 지역의 청소년 근무조건이 더 나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난 1년 간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6.3%에 불과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0.1%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훈련은 주로 공공기관(35.0%)이나 정부 지원 민간 사설학원(30.0%)에서 받았는데 읍면지역 청소년의 경우, 공공 훈련기관이 부족한 탓인지 지역사회 기관과 정부지원 사설학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일일 훈련시간은 평균 5.6시간, 주당 4.45일, 훈련기간은 22.8주로 총 568시간, 1일 8시간 기준 총 71일 정도(월 20일 기준, 3.5개월) 훈련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차이는 없었다.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60%였다. 훈련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9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였다.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이 매우 소수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참여한 만큼 만족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22.3%에 불과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군입대 등 다른 할 일이 있다'(40.1%)를 빼고는 '시간이 없거나 안맞아서(21.1%), '돈을 벌어야 해서(14.2%)'인데, 도시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거나 안맞아서'라는 응답이 '돈을 벌어야 해서'보다 많은데 반해 읍면지역 청소년은 두 이유가 동일한 수준이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청소년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필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과표를 가진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며, 당장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소득 대체가 가능한 훈련수당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 참여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취업가능성(33.8%), 흥미・적성 부합여부(31.0%), 자격증 취득여부(25.4%)인데, 대도시 청소년은 '흥미・적성 부합여부(36.8%)'를 가장 중시한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은 훈련 후 취업 가능성을 가장 중시했다. 자격증 취득여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중시했다. 적절한 훈련기간은 4.38개월, 적정 수당은 44.5만원으로 지역 간 차이는 없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기술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63.4%)이었고 '기술훈련과 멘토링과 문화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22.5%)도 비교적 많았으며 지역 간 차이는 없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취업성공패키지'(36.2%), '내일배움카드제'(29.9%), '취업사관학교'(19.2%) 순이었고 참여의사 또한 이와 유사했는데 일학습병행제(17.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5.1%)는 인지도에 비해 참여의사가 높은 편이었다.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의향이 더 낮았다.

③ 거주지 규모별 무업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노는 이유로 주요 이유는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2.4%)', '일하다가 휴식하기 위해(19.6%), '노는 것이 좋아서'16.8%), '하고 싶은 게 없어서(15.0%)' 등이다. 대도시 청소년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28.0%)'가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하고 싶은 게 없다(25.0%)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읍면지역 청소년은 '개인이나 집안 사정 상(29.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점이 특징적이다. 일자리가 비교적 풍부한 대도시 청소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기대와 훈련 정도, 일자리와의 매칭 문제 등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게 없다거나 노는 게 좋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읍면지역 청소년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복지적 접근이 요청된다.

④ 거주지 규모별 진로관련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은 부모님(또는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75.5%), 인터넷 검색(68.6%), 직업종사자와의 만남과 대화(47.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상담은 16.0%에 불과했다. 중소도시 청소년이 부모님과의 대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진로탐색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읍면지역 청소년은 이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관심 있는 직업종사자와의 만남은 대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에게 더 많았다.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서는 미결정자가 25.5%로 전년도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했다.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미결정 비율이 높아 읍면지역 청소년은 32.4%가 학업중단 5년이 된 후에도 진로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대도시 청소년은 진학/학업으로 진로를 계획했다는 응답이 32.9%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취업으로 진로를 계획한 청소년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1%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지역적 차이는 없었다. 향후 원하는 교육기대 수준은 대졸(30.8%), 초대졸(21.7%)로 절반이상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고 32.1%만이 고졸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도시 청소년은 4년제 대졸이 많았고 읍면지역 청소년은 고졸 기대수준이 높았다. 중소도시 지역은 대졸과 읍면지역 중간에 있었다. 장래 희망을 분석하면 높은 학력성취가 없어도 비교적 성취가 가능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형' 청소년이 58.2%로, 전년도에 비해 약 4%p 준 반면. 학력성취가 필요한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제시한 '비현실형'이 28%로 전년에 비해 6%p 늘었다. 체념형이 7.9%로 전년도에 비해 2%p 줄었다면 '미정, 또는 모른다'는 방황형이 여전히 6%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장래 희망은 1년이 지난 후에도 현실적 기대와 목표로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비현실적 장래희망 경향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강했고 현실적 경향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강했다. 대도시에는 체념형이 많았다면 읍면지역에는 방황형이 더 많았다.

군 복무계획을 살펴보면 아직 군 입대 전인 청소년이 67.7%, 복무 중인 청소년이 18.1%였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이 읍면지역 청소년에 비해 군에 입대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⑤ 거주지 규모별 개인적・환경적 특성

거주지 규모별로 심리・정서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문항은 많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2.66), 자아 존중감(2.97), 자아탄력성(2.77), 생활만족도(2.59),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2.86), 학력주의(2.82)에서 4점 만점에 중간 이상(2.5)의 점수를 보였고 사회적 낙인감(1.94), 충동성(1.78), 게임중독(1.30), SNS 피해(1.15), SNS 가해(1.06), 스마트폰 중독(1.68)에서 모두 2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울감에서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2.17), 대도시(2.05), 읍면지역(1.96)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했다. 문제행동 경험에서 있어 술(81.1%), 담배(55.0%)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음란물 보기(17.0%)와 돈 내기 도박 경험(인터넷 포함)(5.3%)이었는데 돈 내기 도박경험은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 청소년(13.5%)이 도시 청소년보다 도박 경험이 많았다.

거주지 규모별 환경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방임과 학대,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 수는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많았는데 중소도시 청소년은 친한 친구 수는 가장 적었지만 중단 후 사귄 친구, 학업중단한 친구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대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를 유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무질서에 대해서는 거주지 규모별 인식 차가 없었다.

⑥ 거주지 규모별 일상생활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일 평균 7.45시간, 휴일 평균 8.65 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다. 경험률을 비교했을 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30.8%, 아르바이트 및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44.7%로 '공부나 훈련'보다는 하루 일과 중 '일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여가시간에는 개인공부를 하는 청소년은 41.2%, '취미, 운동, 종교생활' 시간이 있는 청소년은 50.9%,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는 청소년은 75.8%, '휴대폰이나 컴퓨터, TV로 소일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는 청소년은 93.1%였다. 이외의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25.2%가 응답했다.

지역별로 생활시간 경험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혼자 지내는 시간'과 '기타 여가시간'이었다. 중소도시 청소년이 대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에 더 많이 응답했다. '기타 여가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이 중소도시보다 더 많았다.

평일과 휴일 생활시간을 비교했을 때도 '혼자 지내는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짧았다. 기타 여가시간 역시 대도시 청소년이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짧았다.

평일 취침시각은 대도시 청소년(26.4%)은 새벽 1시~2시 사이에, 중소도시(20.0%)와 읍면지역(25.0%) 청소년은 24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휴일에는 대도시(22.4%), 중소도시 (25.3%) 청소년은 새벽 2시대에, 읍면지역(16.7%) 청소년은 1시대에 가장 많이 잠을 잤다. 평일에 비해 휴일 저녁은 2시간 가량 늦게 잠을 잤으며 도시 청소년이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취침시각이 더 늦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 5회 이상 결식률은 아침 45.3%, 점심 30.8%, 저녁 29.6%로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결식률이 높았다.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는 청소년도 32.4%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이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점심과 저녁 결식률이 높았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의 식생활이 더 불규칙함을 알 수 있었다.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부모님 집(71.1%)이 가장 많았고 월세 자취(17.3%), 아는 사람 집(4.4%) 순이었다. 대도시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자취비율(19.8%)과 아는 사람 집(4.9%)가 많아 주거 생활이 더 불안정했다. 중소도시 청소년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지만 월세자취(15.2%) 비율이 낮고 전세자취(6.1%)나 기숙사(4.0%) 비율이 높아 대도시에 비해 주거가 안정적이었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타 지역에 비해 부모님 집 동거(75.7%) 비율이 높고 월세 자취(10.8%) 비율은 낮았다.

⑦ 제도적으로 도움 받은 경험

학업중단 후 지난 5년간 지역사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50%수준이었는데 주요 기관은 청소년시설(17.1%), 학원(16.7%), 상담기관(16.0%), 직업훈련기관(8.8%) 순으로 유사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읍면지역(56.8%)과 대도시(53.3%)에서 많았다. 중소도시에서는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이 60% 정도로 비교적 많았는데 주로 학원(22.2%), 청소년시설(22.2%), 상담기관(21.2%) 등에서 만났다는 응답이 많았다.

4차년도 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중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청소년은 59명(전체 사례수의 18.5%)이었다.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청소년들은 진로상담(62.7%), 심리상담(37.3%), 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35.3%), 취업지원(21.6%), 자기계발기회제공(19.6%), 학업지원(17.6%) 서비스를 주로 경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 청소년은 진로상담과 학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읍면지역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율이 더 취약했다.

지난 1년 간 사례관리자와의 평균 접촉빈도는 2.19회에 불과했으며 대도시(2.44회), 중소도시(2.00회), 읍면지역(1.38회) 순이었으나 통계적 수준에서 의미 차이는 없었다.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 청소년은 90% 이상이 만족을 표현 했으며 9.8%가 불만족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부담스러움 등이었다. 사례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96%가 만족을 표시해 서비스 만족도 보다 4%p 높았다. 대도시 청소년 중에 사례관리자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상담 같지 않았다'거나 '부담스러워서' 였다.

5차 조사 시점까지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11.8% (51명중 6명)에 불과했는데, 6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사례관리자가 바뀌는 경험을 했다.

꿈드림센터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은 이유로는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37.8%)', '시간이 없어서(31.1%)',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어서(8.9%)'를 꼽았다. 대도시 청소년은 '시간이 없다'거나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 읍면지역 청소년은 '센터가 너무 멀어서', 중소도시 청소년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81.8%)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편리한 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18~24시(57.2%), 휴일 12~18시(46.2%), 18~24시(30.8%)로 집중되었다. 청소년들의 센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센터 개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⑧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경제적 지원(23.6%)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15.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진로상담(12.9%), 심리상담(12.6%), 취업지원(11.0%)이었다. 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데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은 심리상담, 취업지원을 더 많이 원했다. 중소도시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진로상담을 원했으며 대도시 청소년들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원했다.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도시 청소년에 비해 진로상담 욕구도 적고 필요한 도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의욕이 떨어져 있지 않는 청소년이 많지 않은가 의심된다.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중 상위 12개 (48개 항목 중 3.0% 초과) 에 속한 것은 직업상담, 일자리제공, 진학상담, 기초생활비 지원, 정서문제 상담,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용돈, 주거비, 진학정보 제공, 관계문제 상담, 기본생활습관 개선상담, 대학교 학비 등이었다.

상담이 5개, 경제적 지원이 4개, 정보제공이 2개, 취업지원이 1개 항목이었다. 진학, 직업, 정서, 관계, 기본생활습관 문제 등 다양한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 청소년은 다른 지역 청소년보다 일자리 제공, 기초생활비, 정서문제 상담, 주거비, 진학정보제공, 관계문제 상담, 기본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의 도움을 원했으며 중소도시 청소년은 대학교 학비 지원을 더 원했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다른 지역보다 원하는 도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필요했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9.5%였다. 검정고시준비방법 정보제공, 진학정보제공, 청소년상담이나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 정서문제 상담, 진학상담은 50%이상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해 서비스 충족률이 높았다. 그러나 무료숙소정보제공,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무료 대학입시준비 프로그램, 대안학교 학비,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25% 이하로 서비스 충족률이 낮았다.

(2) 연도별 차이 분석

① 전체문항에 대한 연도별 차이 분석 결과

4차년도와 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305명의 응답결과를 연도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던 것만 다루면, 제일 먼저 복학, 검정고시 공부, 대입공부 등 학업관련 경험이 줄고 아르바이트/취업, 군 복무 경험이 늘었다는 점이다. 보호관찰 경험,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활동 참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이 모두 줄었다.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는데 만난 기관에는 차이가 있었다. 학원과 치료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이 상승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는 일 중단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단 횟수가 1.09회에서 0.85회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근로 경험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있어서는 SNS 가해경험이 줄었고 부모의 학대가 줄었고 친구관계에서도 학업 중단한 친구 수, 친구의 비행성향이 감소했다. 지역사회 환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성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등의 비행경험도 줄어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 특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었고 식생활은 점심, 저녁 결식률이 모두 감소하여 개선되어가고 있었다. 평일 여가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1시간 가량 늘어났다. 학업, 공부 시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② 성별・연도별 차이 분석

성별・연도별 차이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4차년도에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5차년도에 성별 차이가 생긴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4대보험 가입률, 공공기관 상담과 직업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탐색 등 활동이 더 많아졌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공공기관 상담,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이 줄어 들었다. 남자청소년들의 충동성은 높아진 반면 또래애착은 줄어들었고, 종교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도 줄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노는 경험이 줄었고 평일 '여가시간'과 휴일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둘째, 4차년도 조사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 5차년도 성별 차이가 없어진 것들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험이 늘어 났고, 남자 청소년들의 진로장애 중 미래 불안과 우울이 늘었으며 남자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보다 휴일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했고 평일 수면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준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평일 수면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늘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자와 여자 공히 줄었지만 남자 청소년이 더 줄어 성차가 없어졌다.

③ 이행경로의 변화 및 이행경로별・연도별 차이 분석

4차년도 이행경로를 5차년도에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학업형(76.7%), 직업형(74.2%) , 무업형(49.1%)로 무업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업형은 5차년도에 직업형(34.8%)과 학업형(17.0%)으로의 전환이 많았던 반면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의 전환(18.0%), 학업형에서 직업형(17.2%)으로의 전환도 동시에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학업형은 46%, 직업형은 36.7%, 무업형은 17.2%이었다. 주목할 것은 직업형과 무업형 간의 상호 전환이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4차년도 조사결과와 이행경로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먼저, 4차년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5차년도에 새롭게 이행경로별 차이가 나타난 것이 있다. 직업형 청소년은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가 늘어난 반면 무업형 청소년은 전년도에 비해 이 비율이 현격히 줄었다.

모든 유형의 청소년이 군 복무 경험이 늘었으나 무업형 청소년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직업형과 무업형에서 급격했다. 직업형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업형은 종교기관과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이 늘었다. 학업형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줄어들었다. 무업형은 휴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현격히 늘어났고 학업형도 약간 늘었지만 직업형은 줄어들었다. 돈 내기 도박해보기 경험은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은 줄었지만 무업형 청소년은 늘어났다.

둘째, 4차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5차년도에 차이가 없어진 것은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학업형과 직업형에서 급감했다. 직업형의 자아존중감은 감소하였으며 학업형의 우울은 증가하였다. 게임중독은 학업형 청소년은 늘고 다른 유형은 줄었다. 스마트폰 중독 금단현상은 모든 유형이 줄어들었다. 부모의 방임은 학업형은 늘고 다른 유형은 줄었다. 친구의 비행성향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했다. 평일 수면시간은 학업형은 늘고 직업형과 무업형은 줄었다. 평일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시간은 학업형, 직업형은 줄고 무업형은 늘었다. 평일 취미 및 운동시간은 무업형만 줄었고, 술 마시기는 학업형만 늘었다. 필요한 도움에 있어서는 무업형은 정보제공, 기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늘고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 및 필요한 도움이 없다는 응답이 줄어 좀 더 적극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학업형은 심리상담욕구가 늘고 진로상담과 경제적 지원 욕구가 줄었으며 직업형 역시 진로상담 욕구가 줄었다.

셋째, 전년도와 조사결과가 달라진 것은 대학에 다닌 경험,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 일 경험이다. 대학경험은 학업형과 직업형은 증가한 반면 무업형은 줄어서, 4차년도에는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순으로 많았으나 5차년도에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순이었다.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직업형은 늘었으나 학업형과 무업형은 감소하였다. 4차년도에는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순이었고 5차년도에는 직업형, 학업형, 무업형 순으로 결과가 달라졌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은 무업형만 줄었다. 4차년도에는 직업형, 무업형, 학업형 순이었으나 5차년도에는 직업형, 학업형, 무업형 순으로 많았다. 무업형 청소년의 대학 경험, 직업기술 훈련 경험, 일 경험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심층분석 결과: 꿈드림센터 참여효과 분석

(1) 꿈드림센터 이용집단의 특성

기존 패널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남자일수록, 저연령일수록, 부모가 안 계신 가정보다는 양부모・한부모 가정 청소년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이 '하'라고 인식할수록,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읍면지역일수록 많았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충동성, 부모학대는 더 높다고 인식했다.

(2)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변수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확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유익환경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높았고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들일수록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효과

기존 패널의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은 직업형 이행 경로를 가질 확률을 높이고 학업형이 될 확률을 낮췄다. 4차년도 조사 시 학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이 될 확률이 높았고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았다. 무업형 청소년 역시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무업형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고 직업형으로 될 확률은 낮았다.

(4) 꿈드림 센터 서비스 이탈 및 계속 이용 관련 변수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탈과 계속 이용에 관련된 변수를 탐색한 결과 배경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문제행동, 부모관계, 지역사회특성, 가치관, 센터관련 변수 중에서 유의미하게 드러난 것은 충동성이 유일했다. 이탈 청소년은 계속 이용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서비스 이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센터 이용실태

(1) 사례관리자 응답을 통해 본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기존 패널 75명(연계율 18.0%)과 신규 패널 193명, 총 268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 가운데,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심리 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대입 등 진학정보,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 교육, 진로계획 상담 등 8개 서비스는 사례관리자가 제공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 중 사례관리자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이다. 청소년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된 것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정보 제공, 직업탐색 및 체험 서비스였다.

신・구패널별로 볼 때 신규 패널 청소년들이 기존 패널 청소년보다 거의 모든 서비스를 더 많이 요청하고 있었고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단, 취업상담 서비스는 기존 패널 청소년이 더 요청하며 받고 있었다. 이는 기존 패널이 연령이 더 높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자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지 규모별로 볼 때 읍면지역 청소년은 다른 지역 청소년보다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였고 직업훈련 관련 정보, 검정고시 준비방법, 정서문제 관련 상담,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읍면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꿈드림센터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반면 대도시 등과 같이 지역 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 자원의 분포,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구축하고, 그 밖의 서비스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방법과 연계기관 실태

서비스 제공방법을 살펴보면 54개 서비스(제공인원이 1명 이하인 서비스 제외) 중 직접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90% 이상 직접지원 서비스가 3개, 80~89% 3개, 70~79% 13개, 60~69% 8개로, 50~59% 9개, 40~49% 5개, 30~39% 1개, 20~29% 4개, 10~19% 2개, 10% 이하가 5개였다. 50% 이상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가 54개 중 36개였다. 한편 50% 이상 외부 연계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건강검진, 건강교육, 무료치료병원 알선, 중독문제 상담, 예방접종, 긴급한 치료비 지원 등 건강관련 서비스와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법률자문 관련정보 제공, 주거비 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었다. 10회 이상 연계된 외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병원 및 약국, 취업성공패키지, 회사나 민간사업장, 특별지원(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민간 학원, 대학교 등으로 10개 미만이었다. 서비스 제공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상당 수 있어 사례관리가 충실하지 못한 측면도 나타났다. 센터 당 2~3명 정도의 취약한 인력으로 청소년의 수요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례관리자들은 제공된 서비스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이 20%를 넘는 것은 중독문제 상담, 과학정보 자기계발 활동, 청소년활동 정보, 대안교육기관 정보, 자격증 정보, 직업훈련 관련 정보, 취업관련 학원비 정보 등이다. 직업훈련관련 정보, 자격증 정보 등은 청소년들의 요청이 많은 서비스이며 청소년활동정보 역시 청소년 수요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 지 향후 분석이 필요하다.

(3)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진로 계획 상담, 신체 단련 자기계발 기회 제공, 취업상담, 대입 등 진학 정보 제공, 수능준비반 등과 같은 대학입시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상위 3개가 모두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이며 고등학교 학령을 지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으로의 복귀보다는 취업과 관련한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꿈드림센터

에서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거나 최소한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지원, 즉 대학입시와 관련한 지원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이다. 이 비율은 직업탐색 및 체험, 취업상담, 직업훈련 관련 정보, 자기이해 상담, 신체 단련 등 순으로 많았는데 센터에서 제공하는 50%를 넘는 자체 서비스에서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 제공시간을 청소년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중 '기타'의 이유로 많았던 것은 연락 두절 등 청소년이 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4)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① 신·구 패널 간 비교

신규 패널은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었고 검정고시, 취업,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센터에 온 반면 기존 패널 청소년은 선생님 외에 가족, 홍보, 다른 기관 및 본 연구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되었고 검정고시에 대한 기대보다는 취업, 경제적 지원 욕구와 더불어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이 받은 서비스는 학업지원, 취업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 외에 관계개선 서비스 등이 있었고 아무 서비스도 못 받았다는 직업형과 무업형 청소년이 있었다.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으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부실, 검정고시 강사의 잦은 결근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청소년도 있었다. 본인이 희망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신·구 패널 모두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기존 패널 중에는 센터에 서비스가 없었고 센터에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연락이 없어서라는 반응도 있었다.

센터에서 권유받은 서비스에서 신·구 패널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 패널 청소년은 자기 계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검정고시, 놀러가는 활동 등 다양한 권유를 받은데 비해 신규 패널 청소년은 건강검진이나 인턴활동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사례관리자와의 만남 횟수는 신규 패널이 월 3~4회 만나는 것에 비해 기존 패널은 1회 정도 만났다. 신·구 패널 모두 사례관리 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패널 청소년은 사례관리자 외에도 다른 선생님, 또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주로 학업형, 무업형 청소년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센터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신·구 패널 모두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며 기존 패널 청소년 중에는 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청소년도 있었으나 나이 제한에 걸릴 때 까지 계속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규 패널 중에는 검정고시 때까지만 이용할 것이며 향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신규 패널은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기존 패널 중에는 센터가 소극적으로 대해서이며, 향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연락해오거나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다. 신규 패널 센터 이용 중단자 중에는 센터에 다시 참여할 의사는 없으며 자신은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선생님이 바뀌어서 싫다는 의견을 냈다. 센터에 대한 개선사항은 신규 패널 중에는 없었으나 기존 패널 중에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센터의 접근성,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② 이행경로 간 비교

기존 패널 청소년 중 이행경로별 차이가 무엇인 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형 청소년은 센터가 학업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희망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센터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센터 자체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이 직업형이나 무업형에 비해 높았다. 외부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업형과 더불어 불만을 피력했지만 사례관리자와의 만족도에서는 무업형과 같이 만족을 표현했다. 학업형은 센터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그 이유는 상담선생님이 좋아서였다.

직업형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원했으며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지만 희망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고 센터까지의 거리가 멀어서였기 때문이다. 직업형 청소년은 개선사항으로 센터의 접근성 문제를

제시했으며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직업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현재의 센터 운영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무업형 청소년은 이용 전에 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기대 없이' 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무업형 청소년의 '기대 없음'은 정말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업형 청소년의 기대는 주로 '취업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한 무업형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서비스 만족도는 높았다. 이는 무업형이 센터 외부활동보다는 내부 프로그램과 선생님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업형 청소년은 본인의 희망 외에 센터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고 만족한 경우도 많았다. 비록 의지 부족으로 희망하는 만큼 활동하지는 못한다 해도 센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만족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꿈드림센터가 무업형 청소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자와 이용 완료자, 이용 중단자 간 비교

세 집단 간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목적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검정고시 서비스처럼 특정 시점에 종료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치른 후 센터 서비스를 종료했다. 반면 센터 시설과 설비의 자유로운 이용, 상담자와의 관계, 센터의 분위기가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유 시간이 많지 않거나 중간에 상담자가 교체 되는 등의 요인이 센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중단 요인을 제거하고 청소년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① 꿈드림센터 현황

센터에서 관리하는 월 평균 청소년 수는 대도시 센터 중에 한 곳은 100명, 한 곳은 20명, 하였으며 중소도시 센터는 70명, 읍면지역 센터는 30~40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수는 검정고시 무렵에 증가하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는 월 평균 10~50명 정도이다. 전담 인력은 센터별 2~6명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학업', '진로취업', '자기개발'이었다. 이 중 학업지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성

청소년들의 유입 경로별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교육청 리스트를 통한 경우 적극성이나 적응력 등이 낮다는 응답이 있으며 보호관찰소나 경찰 연계의 경우 비행성향과 부적응을 주로 지목했고, 소개나 자발적 방문의 경우 동기나 목표의식이 보이나 부모가 소개한 경우는 사회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학업중단사유별 차이에선 자기 진로가 확실한 경우 가정의 지원이 확실하므로 센터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③ 꿈드림센터 주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검정고시, 상담, 취업지원, 자기계발을 꼽았는데 이 중 검정고시 지원에서는 강사의 자질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보았다. 상담의 경우는 대입 멘토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취업성공률이 낮다고 응답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 주로 '대인관계 역량강화'와 '소속감'으로 보았고, 사례관리 시 청소년의 욕구, 적성, 진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④ 꿈드림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영향 요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상담자 요인이며 상담자의 역량, 상담자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공간과 센터장의 사업 추진방향 등 기관 요인, 프로그램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강사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기관 발굴과 사후관리 그리고 연계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업무상 애로사항 및 개선노력

'출석 관리 및 중도탈락자 발생', '업무 부담',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점'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의 출석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오후시간으로 짰다는 청소년발굴을 위해 아웃리치를 시도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⑥ 담당사례 청소년에 대한 평가

'비행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부모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특성이 있으며 센터에서의 초기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사례관리자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센터에서 도움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용중단자의 경우 욕구 부족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이 이용 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용중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락과 관리,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경제적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례관리 애로사항으로는 지각/결석 등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연락과 접촉이 어려운 것,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한 것 등을 지적했다.

⑦ 개선 요구사항

센터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센터 간 인건비 격차, 인력 대비 과중한 사업비 등 예산문제를 지적했고 외부연계기관의 도시집중화와 연계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센터 내 적절한 업무분담의 필요성, 직원들의 처우개선, 각 지역 센터와 여성가족부 등 상위 기관들 간의 유기적 업무 및 의사소통 체계정립,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및 시설 지원, 연계기관의 실질적 관심과 함께 실무자들도 참석하는 현장 중심적 정책토론 등을 지적하였다.

⑧ 사례관리자와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 비교

주요 서비스가 검정고시이며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의견은 일치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사례관리자는 강사의 강의 능력과 자질을 높게 평가하고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검정고시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업형 청소년 중에서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의 연계, 인턴십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 중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인턴십을 의미 있게 표현한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해 사례관리자는 80%의 출석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어 이수율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는 센터 사례관리자의 의견과 달리 담당 청소년은 이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가 없었다. 센터별 특화서비스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례관리자의 의견과 달리, 해당 청소년은 실질적 체험 없이 시설 설명만 듣고 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의 질에 대해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평가에 비해 청소년은 불만을 표출했다.

5)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국내외 정책현황 비교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과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특징

2013년부터 최근 3개년 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부터 만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2015년 12월 말 기준)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만 7~18세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약 40만 명(해당 연령의 6.3%), 이 중 유학 등 국제이동을 제외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만 19~24세 청소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은 최소 37만 명(해당 연령의 8.8%)으로 추정되었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에 비해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교급별・성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연령이 9%, 중학교 연령이 21%, 고등학교 연령이 70% 수준이었다.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연령대에서는 약 20%p, 중학교 연령대에서 6%p 더 많았다. 남자 학교 밖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 연령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거주지별 학업중단율은 초・중학교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높아 읍면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특징

2016년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무업 학교 밖 청소년(고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총 5만 1천명(15~19세 : 2만3천명, 20~24세: 2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무업청소년은 2014년 이후 최근 3년 간 비교적 급격히 상승해 왔다(15~19세 2.8%에서 3.9%, 20~24세 12.2%에서 13.4%). 이 중 고졸 미만 청소년 중 무업청소년 비율은 15~19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0.9%에서 1.0%), 20~24세의 경우 2014년에 57.4%까지 급격히 상승했다가 그 이후 2016년까지 46.6%로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 연령대 전체 청소년의 무업화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고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20대 연령 전반에 걸쳐 약 절반 정도가 무업상태가 됨을 보여준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구직 무업청소년이 많다는 것이다. 15~19세 연령에서 91%, 20~24세 연령에서 89%가 비구직 무업청소년으로 동일 연령대 청소년보다 각각 6%p,

18%p 높았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중 여성의 비율은 15~19세 연령에서는 40% 수준이었다가 20~24세에서 급격히 60%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는 학교 밖 여성청소년이 취업기회의 제약, 혹은 임신이나 혼인 등으로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의 활동상태는 15~19세는 진학준비와 쉬었음, 20~24세는 군입대 대기와 쉬었음의 비율이 높다. 15~19세 동일 연령대 무업청소년과는 활동상태가 유사하나 그 비율이 더 높고 20~24세 동일 연령대 무업청소년은 쉬었음,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순으로 활동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고졸 미만 청소년은 군 입대를 더 빨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무업청소년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15~19세에서 24위(7.7%), 20~24세에서 30위(22.2%), 25~29세에서 28위(24.5%)이다. OECD 평균(각각 27.1%, 20.5%, 18.2%)보다 무업 청소년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업청소년 비율의 변화를 보면 한국은 15~19세 연령에서 늘고 20~24세에서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25~29세에서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15~19세에서 줄고 20~24세와 25~29세에서 증가했다. 15~19세 연령의 무업청소년 비율의 감소는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무업청소년 비율이 낮은 선진국은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와 일본이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독일과 일본, 이스라엘은 전 연령대에서 무업청소년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영국은 15~19세 연령에서 무업청소년 비율을 감소시켰다. 무업청소년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첫째, 무업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은 10년 전부터 무업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청소년의 무업화는 사회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복지비 및 교정비용의 증가 등을 수반하고 부모와 개인의 행복을 잠식하는 일이다. 청소년의 무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으로 고립화될수록 사회의 재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낮은 학력과 성별(여성의 임신, 무급 간병), 가정배경(한부모 가정 등), 지역사회 무업청소년의 비율 등이 무업화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96).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업화 요인에 낮은 학력 뿐 아니라 고학력 무업의 이슈도 있어 유럽국가의 양상과 차이가 있지만 고졸미만 청소년의 무업화 비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가 고용센터 등 공공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무업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에 재편입시키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스스로 찾아가 등록하는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고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으로 이수율이 낮고 취업률이라는 성과주의에 고착될 밖에 없는 고용센터 여건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무업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정책이 새로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던, 학교를 떠나던 만 18세까지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보장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보장은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중단한 지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견습의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2).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및 교육환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개입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과 공공고용기회,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3).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나기 직전 15.5세에 진로계획을 상세히 조사한다. 16+ 학습선택권과 더불어 만 16~19세의 모두에게 교육이나 직업훈련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대학입학준비를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이후에도 19세까지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6세 이후 무업 청소년을 사회로 재편입시키고 있었다.

셋째,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청소년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무업화 예방을 위해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생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여 데이터 허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16+ 데이터 허브는 의무교육연령이 끝나기 전인 15.5세에 학교에서 학생 정보 및 진로계획을 조사하여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이하 SDS)에 전송하며 이 이후 20세가 될 때까지 SDS에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DS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직업훈련기관, 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이동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허브를 통해 무업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함을 물론, 이들에 대한 접촉과 상담을 통해 사회로 재편입 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소재 기업, 대학, 학교 등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고용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여부가 무업 청소년의 사회 재편입의 성패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무업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가 살던 지역에 머물고 있다. 학교를 나와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머무는 시간은 짧을수록 유익하다. 청소년보장은 지역당국과 민간기업 및 단체, 대학, 학교 등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구축과 활성화가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구축되면 잘 작동된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청은 청소년보장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금융, 보험사 등 금융기업, 대학, 자선단체들을 연계하여 무업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청은 청소년을 교육・훈련・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 등 민간기업, 제3섹터, 국가기관 들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업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훈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고용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주급을 받게 되며 견습제도에 들어가면 계약 후 취업이 된다.

시청에서는 'Inspiring young people'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견습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일대일로 직업 찾기, 이력서 쓰기, 특정 스킬에 대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감을 쌓도록 돕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한다. 시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파트너십을 구축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시청의 개입이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의 무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기반정책과 이미 학교를 나온 무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기반정책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SDS는 스코틀랜드 청소년 직업훈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SDS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와 직장을 연결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견습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동시에 직장을 기반으로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학교를 떠나기 전·후, 학교를 떠나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각 단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원거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원거리의 외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하며 취업관련 경험과 기술을 쌓기가 어렵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지역개발프로그램에 무업청소년을 참여시키면서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주당 25시간 WfD 교육, 즉 약물치료 및 재활, 운전면허, 문맹퇴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수행한다. 지역개발프로그램 제공업체는 호주 60개 지역에 1,000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째,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업 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하다.

무업 청소년은 일을 할 능력은 있으나 ① 일자리가 없는 장단기 실업자, ② 장애 등으로 구직 불가능자, ③ 가사업무 등으로 일할 여력이 없는 자, ④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 낙담한 자 등 다양하다. 일할 능력이 있고 노동시장이나 가정 환경이 개선되어 일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달리 낙담하여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무업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무업 청소년 문제의 핵심은 구직자보다는 비구직자에 있으며 여성, 고졸미만 학력 등은 무업자가 될 확률은 더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무업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무업 청소년의 상태를 설정하고 유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유인해내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정책제언

표 Ⅵ-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 과제	담당 부처	정책 유형	2016[99] 정책제언
무업 청소년 지원 대책 강화	1. 청소년 사회보장제 도입	여가부	신규	
	2. 무업청소년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신규	
	3. 무업청소년의 분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신규	
	4. 무업청소년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여가부	신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강화	5. 고졸 이하 청소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여가부	신규	○
	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여가부	신규	○
	7. 일 학습병행제 TYPE Ⅱ 개발	고용부	신규	○
	8. 취약 ·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고용부	개선	○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9.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여가부	신규	○
	10.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여가부	신규	○
	11.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여가부	신규	○
	12. 가정방문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여가부	기존 개선	○
	13.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여가부	신규	○
지역정책 강화	14. 청소년 데이터 허브 시범 운영	지자체	신규	
	15. 지자체가 중심이 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지자체	개선	
	16. 읍면지역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투자 필요	지자체	신규	
	17. 지역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 강화	지자체	신규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강화	18. 꿈드림센터의 통합 또는 분리 · 독립 추진	지자체	개선	
	19. 꿈드림센터의 업무 설계		개선	○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여가부	개선	○
	21.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시범 운영	여가부	신규	○
	22. 꿈드림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여가부	개선	○

99) ○표가 표시되어 있는 제언은 2016년 제언임. 본 연구가 2016년도과 연계되어 있고 해당 정책제언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영역 1 무업청소년지원 대책 강화

과제 1. 청소년사회보장제 도입

학령기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던, 학교를 떠나던 만 18세까지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사회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보장정책은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중단한 지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견습의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62).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의무교육이후에도 19세까지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자유로이 수당을 받으면서 자신의 교육이던 훈련이던 학습권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무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학교를 나온 순간 교육비 수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어디에 있던 학령기 청소년이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과제 2. 무업청소년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없는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단위 직업교육정책,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정책으로 양분되어 있다. 교육부(직업능력개발원)는 일・학습병행제, 산학협력형 도제학교를 시도하면서 재학생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신청자 위주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고용부의 직업훈련정책에 유인되지 않고 서비스 밖에 머무는 청소년들의 존재이다. 학교에 남아 있다 해도 교육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학교를 중단한 후에도 자발적으로 고용센터 등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는 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와 지역사회 고용센터에 포섭되지

단계이므로 지속적으로 제언하였음.

못하고 남아 있는 무업화 또는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데이터허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혁신적 발명품이다. SD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의 정보가 입력되어 업데이트 되면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를 통해 상담과 개입, 권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사각지대 없는 직업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좋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제 3. 무업청소년의 분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업 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류와 평가가 필요하다. 무업 청소년은 일을 할 능력은 있으나 ① 일자리가 없는 장단기 실업자, ② 장애 등으로 구직 불가능자, ③ 가사업무 등으로 일할 여력이 없는 자, ④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 낙담한 자 등 다양하다. 또한 취업능력에 따라 ① 바로 일에 투입 가능한지, ② 취업장벽이 있는지, ③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지 등을 분류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핵심은 구직자보다는 비구직자에 있다. 문제가 심각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업청소년을 분류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제 4.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동기부여와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무업형과 직업형은 서로 호환되는 경험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 무업형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었다. 학업중단한 지 5년차가 되도록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무업청소년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아졌다. 무업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준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동기부여는 되지만 이것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센터의 기능이 검정고시 학원과 같을 수는 없다. 꿈드림센터의 주요 기능이 다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무 기대 없이 갔지만 센터의 관계에 만족하며 꿈드림센터에 남아 있는 무업청소년을 볼 때 꿈드림센터가 이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검정고시만 치르고 떠나는 청소년들을 주요 고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능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진로를 찾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일을 꿈드림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영역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과제 5. 고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100]

고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취업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떠나 저임금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생계비에 묶여 직업능력은 개발하지 못한 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청소년 집단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청소년들, 중증 무업청소년 같은 경우는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이 프로그램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101].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직업탐색, 직업 및 직장견학, 직업체험, 직무연수와 인턴십, 이후 세미창업/취업실전능력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학업, 복지적 지원 등을 통합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유연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편적 학습은 교육부가,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취약・위기 청소년의 학습과 일, 생활기술과 복지지원을 담는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100) 윤철경 외 (2016), p.306.
101) 사회적 기업가 인터뷰 내용

과제 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102]

청소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진로직업 상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 있지만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 꿈드림센터의 서비스는 현재 학업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진로·직업상담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키운다. 또한 향후 인력 충원 시 진로직업전문가, 사례관리자 등을 충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즉시적으로는 직업 상담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고용센터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조사 결과 285건의 지역자원연계건수 중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본 보고서, p.1 89, 표 Ⅲ-10 참조). 전국 88개에 불과한 고용센터와 청소년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서비스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과제 7. 일 학습병행제 TYPE Ⅱ 개발[103]

15세 이상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일학습병행제는 수입을 얻으면서 학력 취득, 또는 취업 기회도 갖는 참여자 인센티브가 매우 큰 사업이지만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재직자 참여비율을 늘리는 등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여 사업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 위기 청소년 입장에서는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된 사업이다.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학력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Ⅱ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공, 도예, 염색, 디자인, 인테리어, 자동차수리, 지역전통문화기관 등 지역사회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업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발·운영한다. 작업장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제훈련을 받으며 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102) 윤철경 외 (2016), p.305.
103) 윤철경 외 (2016), p.306

한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작업장에서는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과정을 거쳐 도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운영 작업장에 대한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본부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는 학교밖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 8.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104]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I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고용센터 실무자들은 성과를 내기 쉬운 성인, 또는 경쟁력 있는 청소년 위주로 사업 대상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실적 평가지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무자들이 성인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청소년의 선발을 기피하고 있다.

일본이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청년헬로워크 등 청년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년층에 초점을 둔 홍보를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러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하다. 고용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훈련되어 있지도 않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동의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고 성과지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꿈드림센터 등 청소년기관이 참여 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 기관들이 고용노동부 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양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실적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참여 실적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차별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 대상 취약·위기 청소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꿈드림센터 상담사의 공동 워크숍과 같은 교류와 연수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직업상담사를 훈련 ·배치하여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104) 윤철경 외 (2016), p.307.

영역 3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과제 9.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105)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내각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를 통해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숫자를 추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은둔 무업형 청소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 사회에도 청소년층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과제 10.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구축106)

은둔형 청소년은 발굴하여 집 밖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큰 과제이다. 추진될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교육부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업은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의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담기관, 교육청과 학교, 경찰과 꿈드림센터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에 은둔해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 꿈드림센터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담당한다.

과제 11.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107)

은둔형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상태가 좋을 수 있다.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집에 남아 있는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꿈드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둔 부모와의 상담, 부모 세미나 등을 통해 부모들을 치료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상담과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고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서서히 시간을

105) 윤철경 외 (2016), p.309.
106) 윤철경 외 (2016), p.309.
107) 윤철경 외 (2016), p.309.

두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12. 가정방문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108)]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꿈드림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의 방문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정방문상담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정방문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가정방문 전담 상담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인력 확보 전에는 가정방문이 가능한 인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사회복지 허브화 사업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과정 및 가정방문 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면 이에 대한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꿈드림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또는 방문상담자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밖으로 유인하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캠프 등으로 유도해 내야 한다.

과제 13.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109)]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은둔 계기는 교육실패, 취업실패, 정신적 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무업 기간이 얼마나 경과 했는지에 따라 초기 무업자가 있고 중증 무업자가 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무업자, 가족공동체・사회관계가 해체된 무업자 등 유형이 다양하므로 이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임상경험의 축적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이 꾸준히 쌓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공동생활 기숙사,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개선,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 컨설팅, 봉사활동, 직장체험 등을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관 설치가 필요하다.

108) 윤철경 외 (2016), p.310.
109) 윤철경 외 (2016), p.310.

영역 4 지역정책 강화

과제 14. 교육청과 연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소년데이터 허브 구축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의 발굴은 무업청소년대책의 핵심적 고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스코틀랜드의 데이터허브이다. 청소년사회보장정책과 연계해 학교, 기업, 연금공단, 훈련기관 등을 연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으로 사회체계에서 이탈한 무업청소년의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체계에서 발굴되지 않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인권의식이 발달한 영국에서 이것이 무리없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은 개인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업청소년의 발굴문제를 고민하고 청소년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수립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해당 지지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과제 15. 지자체가 중심이 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데이터허브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웃리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책임은 대체로 지자체가 맡고 있다.

학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지역에 남아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담당해야 한다. 읍면동 사회복지사, 지역의 동장, 이장 등 지역 NGO 등 지역에 터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활동가들의 아웃리치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아웃리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발굴은 지역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다. 아웃리치라는 가장 어려운 사업은 결국 민간NGO들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지역 아웃리치 전문단체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차선이 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아웃리치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16.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투자 필요

읍면지역 청소년은 서비스 이용률이 취약하고 동기와 프로그램 참여의지도 낮으며 근로중단 경험도 높고 장기적으로 일하는 비율도 낮다. 학업중단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지역인프라가 부족하고 동기화 수준이 낮은 읍면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호주의 원거리 지역 무업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보면, 수당 지급과 더불어 지역사회개발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고 있다. 즉, 읍면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어촌 청소년의 동기를 개발하는 지역단위 사업과 청소년 수당을 연계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과제 17. 지역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정책 강화

공부하기 싫어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도시 지역의 청소년은 분주하고 바쁜 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싶어서 무업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한가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필요하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대도시에 비해 학교를 일찍 중단하고 위축된 상태로 지역에 머물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을 더 많이 떠난다. 고졸 미만 학력으로 많이 남아 있으며 검정고시를 해도 고졸 학력으로 끝난다.

지역에 따라 자원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도시청소년에게는 시간을 쪼개어 참여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읍면지역 청소년에게는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던 결국 청소년의 진로 문제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동기를 잃게 될 것이기에 청소년프로그램에는 미래를 탐색하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접근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역 5 전달체계: 꿈드림센터 강화

과제 18. 꿈드림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통합, 또는 분리・독립 필요

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이 조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한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조직갈등의 해결 방향은 임금체계의 통합과 더불어 조직의 완전한 통합, 또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독립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갖고 조직 통합이나 분리독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 꿈드림센터 , 송파 꿈드림센터 등 지역기반을 갖고 활동해 오던 단체가 독립적으로 꿈드림센터를 위탁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꿈드림센터의 모든 조직을 일원화하여 상담복지센터와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나 수요가 다르고 접근방식은 다양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지역에 머무르는 지역청소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투자하여야 하며 지역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학교밖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제 19. 꿈드림센터의 업무 설계[110]

2016년 현재 꿈드림센터의 직원은 시도센터 5명 이상, 시군구 센터 2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가 다양한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업무설계를 하여 효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꿈드림센터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사례관리이다. 교육청과 보호관찰소 등 지역기관들로부터 의뢰되는 사례 뿐 아니라 숨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기관 실무자들과의 협조, 부모의 의뢰에 따른 찾아가는 상담 등이 주요 업무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뢰된 청소년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110) 윤철경 외 (2016), p.311.

발굴 업무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진로직업상담, 취업지원 등 청소년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지역사회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고 끊임없이 발로 뛰어야 한다. 필요한 지역자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동으로 요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다. 학교 밖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외에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진로와 학습, 자기계발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꿈드림센터마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꿈드림센터의 존재가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두 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하게 되면 프로그램 위주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놓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확충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과제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111]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인력, 위기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동반자인력, 꿈드림센터 인력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 왔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호소되고 있다. 또한 꿈드림센터 상담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가장 낮아 조직 내 사기가 떨어져 실무자 교체와 이동이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꿈드림센터 상담사의 업무 능력 축적을 방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전신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중앙), '청소년 상담실(지자체)' 설치 당시와는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청소년의 상담수요도 변화하였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생길 때마다 동일 전달체계에 다양한 업무와 신규 인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직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책환경과 상담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전체적인 직무개선 조치는 없었다. 상담복지센터 등의 사업추진 방향과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직무 분석과 더불어 센터의 업무를 정책 환경 변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하고 직무조정, 임금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111) 윤철경 외 (2016), p.311.

과제 21.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운영[112]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이 가장 어려운 요인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일과시간과 센터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의 평일 야간 및 휴일 개방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몇 개 시범 센터를 선정하고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 야간근무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과제 22. 꿈드림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113]

꿈드림센터에 대한 본 조사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 진로직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었으나 꿈드림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꿈드림센터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집중연수가 필요하다.

지자체 내 고용센터와 꿈드림센터 실무자 공동 워크숍 등 실무자간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MOU를 통해 꿈드림센터 상담사 대상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수를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꿈드림센터 상담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에 대한 연수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112) 윤철경 외 (2016), p.312.
113) 윤철경 외 (2016), p.313.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7a).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안내**.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c).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1.16.).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올해 198개 고교, 7천여명 규모로 확대운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7.4.13.). '17.3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13,838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김기헌 (2016).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 니트를 중심으로. **제3차 청년정책 포럼,** 1-23.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소년보장(Youth Grarantee)제도 사례 연구. **직업과 인력개발, 18**(1), 98-114.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김상배 (2014). 프랑스의 견습생 제도 활성화 대책과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0월호,** 67-78.

김성식, 남궁지영 (2008).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Ⅳ)** (연구보고 PR 2008-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4**, 97-110.

김종진 (2017). **해외 청소년보장제도와 한국의 청소년수당: 서울형 청소년보장제도 개선 방향 해법 모색**. 서울시 청소년보장 정책 토론회 자료집.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이광호, 김종성, 정윤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기성, 이성재, 오하준 (2013).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13-12).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남재량 (2012). 고졸NEET와 대졸NEET. **월간노동리뷰**, 39-54.

남재량, 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박진희, 김두순, 이재성 (2015). **최근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과제**.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29-43.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병무청 (2017). **2016년 병무통계연보(I)**. 대전: 병무청.

서울시 (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yesan.seoul.go.kr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성윤숙, 손병덕 (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14-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손혜경 (2014). 스웨덴 실업계고의 기업체 견습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3월호**, 70-78.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전행정부 (2015.12.31.).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에서 2017년 5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 연구**.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윤철경 (2017). 국외출장보고서: 스코틀랜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 (연구보고 16-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연구보고 15-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Ⅲ**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Ⅱ: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Ⅲ: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유성렬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Ⅳ: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연구보고 07-R0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승렬 (2013). 2012년 OECD 보고서에서 읽는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10월호**. 30-43.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20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Ⅳ: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8).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연구보고 12-R05).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지은 (2010).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네트워크: 일본의 니트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6**(1), 133-161.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민아 (2015). 영국의 기술부족 문제와 견습제도의 확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월호**, 65-71.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4-2015). 국제인구이동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2/5/index.board에서 2017년 5월 12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https://meta.narastat.kr/에서 2017년 7월 20일 인출,

하정화, 박금식, 허두진 (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 사회적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5).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kess.kedi.re.kr에서 2017년 5월 22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http://kess.kedi.re.kr/에서 2017년 5월 22일 인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일학습병행제 현황(내부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 국제심포지엄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세미나 자료집**(자료집 17-S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Grasmick, H. G., Tittle, R. C., Bursik, R. J.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Lundahl, L., & Olofsson, J. (2014). Guarded transitions? Youth trajectories and school-to-work transition policies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9*(S1), 19-37.
OECD (2016a). *Investing in Youth: Sweden*.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b). *Investing in Youth: Austrailia*.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a). *Investing in Youth: Japan*.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에서 2017년 7월 27일 인출.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http://environ.araon.co.kr/bbs/board.php?bo_table=sub06_1&wr_id=257 (2017.7.19.인출)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upport.gjf.or.kr/job/intro.do(2017.7.19.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2017.10.26. 인출)
광주 청년드림사업 https://gj3dreams.modoo.at/ (2017.7.19. 인출)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2017.10.26. 인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용 온라인 리플렛 http://www.hrdkorea.or.kr/main/index.jsp (2017.10.26. 인출)
워크넷 http://www.work.go.kr/ (2017.10.26. 인출)

인천 청년지원프로그램 http://field.incheon.go.kr/board/3229/1959143?category= (2017.7.19. 인출)

청년취업희망카드 설명문 http://www.daedeok.go.kr/dpt/dpt04/DPT040101_cmmBoardView.do?boardId=DPT_000011&ntatcSeq=1024570820 (2017.7.19. 인출)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2017.10.26. 인출)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2017.8.1.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홈페이지 http://statistics.keis.or.kr (2017.10.27.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keis.or.kr (2017.10.26. 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main/index.jsp (2017.10.26. 인출)

부 록

1. 부록 1 (설문지: 기존패널용 5차 설문지)
2. 부록 2 (체크리스트: 신규패널용 및 간이설문지)
3. 부록 3 (면접조사지: 청소년용 및 사례관리자용)
4. 부록 4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류)

부 록

1. 설문지: 기존패널용 5차 설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7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Research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윤숙 연구위원(044-415-2218)	황 인 창 부장(02-3014-0086) 박 종 경 과장(02-3014-0988)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Ⅰ. 학업중단 및 복학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2016년 5월)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여기에서 학교란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고교 미진학/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 ➡ 「문 1-1」로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2」로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검정고시 합격 제외) ➡ 「문 2」로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1-2」로
⑤ 대학을 졸업한 상태 ➡ 「문 1-2」로
⑥ 대학 중퇴 ➡ 「문 1-2」로
⑦ 기타(_____)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는?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문 1-2. 문 1에서 ④,⑤,⑥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① 정규 학교 졸업
② 검정고시로 취득

문 2.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고등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문 3.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Ⅱ.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임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을 선택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5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7년 6월에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2016년 9월~2016년 12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2017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7년 5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의 보기 ⑩ 2017년 3월 ~ ⑫ 2017년 5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④ 2016년 9월 ~ ⑨ 2017년 2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의 보기 ① 2016년 6월 ~ ③ 2016년 8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6년							20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2016년							20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 대안학교에 다님 (인가/미인가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3)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4)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6)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⑦	⑦	⑧	⑨	⑩	⑪	⑫
7) 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0)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2)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3) 군 복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 4-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닌 적이 있는(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 있는 곳(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이름: _____학교

학교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문 4-1-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에 다니셨습니까(또는 다닙니까)?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③ 위탁교육기관(종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④ 잘 모르겠음

문 4-2. **「문 4」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4-3」로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⑥ 기타(_____)

문 4-2-1. **작년 8월 또는 올해 4월**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셨습니까?**

① 응시한 적 있다 ➡ **「문 4-2-2」로**
② 없다 ➡ **「문 4-3」으로**

문 4-2-2. (응시한 적이 있다면) 합격하셨습니까?

① 전과목 합격 ② 부분 합격 ③ 불합격

문 4-3. **「문 4」에서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에 응답한 경우,**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래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둠
② 학교를 그만둔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③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서
④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권유해서
⑤ 대학에 가야만 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어서
⑥ 기타(　　)

문 4-4. **「문 4」에서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진학한 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4-4-1. 학교소재지 및 학교명	1. 학교 소재지: _____ 시/군 2. 학교명(정확한 학교명을 기록해 주세요): _____대학/대학교			
문 4-4-2. 학과명	(_____)			
문 4-4-3. 학 제	① 전문대학(2, 3년제)	② 4년제 대학교	③ 기능대학(폴리텍대)	④ 사이버대학
	⑤ 방송통신대학	⑥ 산업대학	⑦ 전공대학	⑧ 학점은행제
	⑨ 기타(내용 : _____)			
문 4-4-4.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문 4-4-5. 전공계열	① 언어문학 (외국어, 문예창작, 교양어 등)	②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등)	③ 경영·경제 (관광, 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등)	④ 법률
	⑤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행정 등)	⑥ 교육일반 (교육학)	⑦ 유아교육	⑧ 특수교육
	⑨ 초등교육	⑩ 중등교육 (언어,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 예체능교육 등)	⑪ 건축 (건축·설비, 건축, 조경 등)	⑫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등)
	⑬ 교통·운송 (지상교통, 항공, 해양공학 등)	⑭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등)	⑮ 전기·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등)	⑯ 정밀·에너지 (광학에너지 등)
	⑰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신소재,재료 등)	⑱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⑲ 산업 (산업공학)	⑳ 화공 (화학공학 등)
	㉑ 공학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㉒ 농림·수산 (농업, 수산, 산림원예 등)	㉓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 동물·수의학, 자원, 화학, 환경학 등)	㉔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교양생활과학 등)
	㉕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통계, 물리과학, 천문기상, 지구지리, 교양자연과학)	㉖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㉗ 간호 (간호학)	㉘ 약학 (약학)
	㉙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공학 등)	㉚ 디자인 (산업, 시각, 패션 등)	㉛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등)	㉜ 무용·체육 (무용, 체육)
	㉝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㉞ 연극·영화 (연극 영화)	㉟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서악, 작곡, 기타음악 등)	㊱ 기타 (내용 : _____)
문 4-4-6.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문 4-4-7. 재학상태	① 재학 중	② 휴학 중 ➡ **「문 4-4-8」로**	③ 대학 중퇴 ➡ **「문 4-4-9」로**	
	④ 졸업유예 중		⑤ 졸업	

문 4-4-8. **「문 4-4-7」에서 "② 휴학 중"에 응답한 경우,** 휴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등록금이 없어서
② 어학연수/해외 여행
③ 편입학(또는 재수) 준비
④ 취업준비(자격증, 고시준비)
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⑥ 군입대
⑦ 대학원이나 유학 준비
⑧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 수행을 위해서
⑨ 건강상의 이유로
⑩ 기타(내용 : _____)

문 4-4-9. **「문 4-4-7」에서 "③ 대학 중퇴"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이유로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었습니까? 주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③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④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⑤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
⑥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⑦ 기타(내용 : _____)

문 4-5. **「문 4」에서 "6) 직업기술을 배움"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주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습니까(또는 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고용정보센터, 공립 직업전문학교 등)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청소년기관 등)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⑤ 기타 (내용 : _____)

문 4-5-1. 거기에서 **배운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또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_____)

문 4-5-2. 직업훈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훈련을 받은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으로 기록해 주세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 ☞	하루 평균 _____ 시간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은 몇 주 정도입니까? ☞	_____ 주

문 4-5-3. 귀하가 받은 (또는 받고 계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한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① 예 ➡ (자격증명: _____)
② 아니오

문 4-5-4. 귀하가 배우셨던 (또는 현재 배우고 계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강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 「문 4-5-5」로
② 불만족 ➡ 「문 4-5-5」로
③ 만족 ➡ 「문 4-5-6」으로
④ 매우 만족 ➡ 「문 4-5-6」으로

문 4-5-5. 「문 4-5-4」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_____)

문 4-5-6. 귀하가 받은 또는 받고 계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업 또는 창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문 4-6」으로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문 4-6」으로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 「문 4-5-7」로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문 4-5-7」로

문 4-5-7. 「문 4-5-6」에서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에 응답한 경우, 해당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_____)

문 4-6. 「문 4」에서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지난 조사(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또는 취업)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 둔 경험은 모두 몇 번 입니까?

(총 _____번) ➡ 0번인 경우 문 4-7로

문 4-6-1. **「문 4」에서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그 일을 그만 두었다면, 그 일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를 여러 번 그만두었다면,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보수가 적어서
③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④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⑤ 개인 또는 집안 사정으로
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또는 개학해서)
⑦ 계약기간이 끝나서
⑧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⑨ 놀고 싶어서(휴식하고 싶어서)
⑩ 폐업, 해고 등 회사사정으로
⑪ 군입대
⑫ 이직하려고
⑬ 기타(내용 : _____)

문 4-7. **「문 4」에서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몰아다니며 놂"에 응답한 경우**,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③ 만사가 귀찮거나 하고 싶은 게 없어서
④ 노는 것이 좋아서
⑤ 개인이나 집안 사정 상(질병, 사고, 가사 등)
⑥ 군입대, 복학, 대학입학 등을 기다리느라
⑦ 일하다가 휴식하기 위해
⑧ 기타(내용 : _____)

문 5.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⓪ 해당 없음"에 표시

	2016년						2017						해당 없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⓪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⓪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⓪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⓪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⓪

문 6.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 6-1」로

② 아니오 ➡ 「문 7」로

문 6-1.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응답	
문 6-1-1. 직종 (한 가지만 선택)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④ 일반상점 판매원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⑫ 주유소 주유원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⑭ 건설현장 노동
	⑮ 공장노동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⑰ 아기, 노인 돌보기	⑱ 퀵서비스 배달
	⑲ 택배기사	⑳ 태권도 · 수영 · 헬스 등 운동 코치 · 사범
	㉑ 키즈카페 · 수영장 등 안전요원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㉔ 마트 등 주차 · 안내요원
	㉕ 이 · 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㉗ 패션, 광고 모델	㉘ 배우
	㉙ 가수	㉚ 콜센터 안내직원
	㉛ 일반 사무직	㉜ 기타(내용 : _____)
문 6-1-2. 근무기간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201____년 _____월부터	
문 6-1-3. 구직기간	이 일을 찾기 위해 구직활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_____개월 _____주 동안	
문 6-1-4. 가장 주된 취업경로	① 학원 선생님(직업 전문학교 포함)을 통해서	
	② 학교 선생님, 교수님 등을 통해서	
	③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④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⑦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⑧ 기타(내용 : _____)	

문항	응답
문 6-1-5.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이 무기계약인 경우 ② **상용근로자(계약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단위 계약인 경우 ③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④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거나,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사업하는 사람 ⑥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 혹은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직장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문 6-1-6.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체 직원 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명~299명 ⑦ 300명~499명 ⑧ 500명~999명 ⑨ 1,000명 이상 ⑩ 기타(내용 : _____)
문 6-1-7. 주당 근무시간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주일에 약** (_____)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있습니까? **1일에 약** (_____) **시간**
문 6-1-8. 소득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 시간당 약** (_____)**원**
문 6-1-9. 4대보험 가입유무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4대 보험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서 한가지라도 가입했다면 ① 가입 에 응답하세요. (가정에서 따로 가입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 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가입 ② 비가입
문 6-1-10. 향후 전망	귀하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할 생각이다. ② 1년 이내에 그만 둘 것이다. ③ 2-3년 이내에 그만 둘 것이다.

문 7. 귀하께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 「문 7-1」로
② 없음 ➡ 「문 7-5」로

문 7-1.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자격증 취득 여부
② 훈련 후 취업 가능성
③ 흥미, 적성에 맞는지 여부
④ 총 훈련 기간
⑤ 훈련 시 받는 수당
⑥ 주간 참여 일수 및 1일 훈련 시간

문 7-2. 만일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적당한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훈련기간 ☞	_____ 개월

문 7-3.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은 후 수당으로 지원되는 돈이 한달에 최소한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참여하시겠나요?

한달에 받는 적정한 수당 ☞	_____ 만원

문 7-4. 귀하가 가장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 + 고교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②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 + 대입 준비
③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과 확실한 취업 연계
④ 멘토링, 문화활동 등을 병행한 특정직업 기술 훈련
⑤ 기타 (내용 : _____)

➡ 응답 후 「문 7-6」으로

문 7-5.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돈(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② 훈련을 받아도 취업이나 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③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시간이 없어서(또는 시간이 안맞아서)
⑥ 군입대 · 취업 · 대학진학 등 다른 할 일이 있어서
⑦ 기타 (내용 : _____)

문 7-6. 귀하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프로그램 및 혜택	7-6-1.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7-6-2.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취업사관학교 (자립장려금 월 30만원 제공)	①	②	①	②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비 연최대 200만원 제공)	①	②	①	②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월 31만6천원 제공)	①	②	①	②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최대 665만원 제공)	①	②	①	②
일학습병행제 (급여 및 4대보험 제공)	①	②	①	②

문 8.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오" 에 기재
※ 지난 조사 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참여한 경우는 "① 예" 에 기재

① 예 ➡ 「문 8-1」로
② 아니오 ➡ 「문 9」로

문 8-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재미를 위해
② 자아계발
③ 평소의 흥미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⑦ 취미생활 공유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⑪ 복학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⑯ 학과 공부에 도움
⑰ 특별한 이유 없음
⑱ 기타(내용 : _____)

문 8-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동아리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⑩ 대입학원 동아리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⑭ 대학교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⑯ 인터넷 홈페이지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⑲ 기타(내용 : _____)

문 8-3. 귀하가 참여하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을 써 주십시오.

※ 예: 힙합, 야구, 댄스, 기타 동아리 등

➡ (_____)

문 9.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3」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 (대학 진학 제외)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⑥ 대학 진학 ⑦ 편입 및 재입학(재수) 준비	
취업	⑧ 진학하지 않고 취업(또는 창업)할 예정임 ⑨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 「문 12」로
⑩ 취업과 진학 병행		
⑪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⑫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2.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문 14. 귀하는 언제부터 군복무를 할 예정이십니까? 군입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입대 일정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미 군에 입대하신 경우는 입대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① 여성임 (해당사항 없음)
② 남성이지만 군 면제 대상임
③ 남성이며,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 ➡ 아래에 '군복무 예정일' 기록
④ 남성이며, 현재 군에서 복무중임 ➡ 아래에 '군입대일' 기록

군복무 예정일 또는 군입대일 ☞	201□년 □□월부터

문 15. **(지난 조사(2016년 5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에만 응답)**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만 「문 16」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16.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⑤ 보호관찰소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⑧ 학원
⑨ 병원 등 치료시설
⑩ 대안교육기관
⑪ 직장
⑫ 기타(내용 : _____)
⑬ 없음

문 17.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문 17-1**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하세요. 문17-1에서 선택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체크한 후, **가족 또는 선배나 친구 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17-1 (최대 3개)	1순위		2순위		3순위	

문 17-1. 어떤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문 17-2. 구체적으로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문 17-3. **가족 또는 선배나 친구 외에**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①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관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대입 등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일자리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⑥ 청소년 상담이나 활동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⑦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⑧ 청소년 쉼터 등 무료 숙소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⑨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② 심리상담	①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②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계 문제(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④ 기본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⑤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③ 진로상담	① 정규 학교, 대학 등 진학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②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④ 경제적 지원	① 월세 등 주거비	① 예	② 아니오
	② 식비, 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비	① 예	② 아니오
	③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 · 미용비등 용돈	① 예	② 아니오
	④ 치료비 등 보건 · 의료비	① 예	② 아니오
	⑤ 중 · 고등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⑥ 대안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⑦ 대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⑧ 검정고시 학원비	① 예	② 아니오
	⑨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① 예	② 아니오
	⑩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⑤ 취업지원	① 무급, 혹은 유급 직업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일자리(아르바이트포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급, 혹은 유급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무급, 혹은 유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⑥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⑥ 학업지원	①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부족한 교과목 지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료 중고등학교 복학 적응지원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무료 대학 입시준비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⑦ 건강지원	① 무료 건강검진	① 예	② 아니오
	② 무료 예방접종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료 치료지원(무료 치료 병원 알선 등)	① 예	② 아니오
	④ 기타 ( )	① 예	② 아니오
⑧ 문화 · 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① 예	② 아니오
⑨ 삶을 이끌어 줄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필요		① 예	② 아니오
⑩ 기타(_____)		① 예	② 아니오
⑪ 없음			

Ⅲ.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8.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9.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20-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20-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 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0-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Ⅳ.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1.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2.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3.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 수 ☞	(_____) 명

문 23-1. 「문 23」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새롭게 사귄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문 23」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3」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귄 친구 수 ☞	(_____) 명

문 23-2. 「문 23」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학교를 그만 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문 23」에서 말한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3」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 수 ☞	(_____) 명

문 24.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5.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26.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 )시간이다.	(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합계			평일 합계 ( )시간	휴일 합계 ( )시간

문 26-1. 귀하는 **보통 몇 시에 잡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새벽 / 오전 / 오후 / (밤)) (10) 시 (30) 분,
새벽 1시 30분 → ((새벽) / 오전 / 오후 / 밤)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새벽 / 오전 / 오후 / 밤) ( )시 ( ) 분	(새벽 / 오전 / 오후 / 밤) ( )시 ( )분

문 27.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예	아니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8. 귀하의 현재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부모님 집에서 동거
② 월세 자취
③ 전세 자취
④ 고시원
⑤ 학교 기숙사
⑥ 회사 기숙사
⑦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⑧ 기타( )

문 29.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31」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31.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Ⅵ.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문 32.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3.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삥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Ⅶ. 배경요인

문 34.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⓪ 혼자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형제, 자매
⑧ 친척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⑩ 동성 친구, 선후배
⑪ 이성 친구, 선후배
⑫ 남편, 아내
⑬ 자녀
⑭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35. 귀하는 **지난번 조사(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	(_____) 번

문 36.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7.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38. 귀하가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직업☞	(_____)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패널 정보 기록지 및 상품권 수령증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참여해 주신 조사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자 하오며, 이 정보는 본 조사 연구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귀하께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동의 내용</td><td colspan="6">위 사항을 모두 읽었고,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td></tr>
<tr><td>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6"></td></tr>
<tr><td>이메일 주소</td><td colspan="6">@</td></tr>
<tr><td>카카오톡 ID</td><td colspan="6"></td></tr>
<tr><td>현재 사는 곳</td><td colspan="6">*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시/도 (　　)시/군/구 (　　)구 (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td></tr>
<tr><td>부모님과 함께 거주 여부</td><td colspan="6">* 부모님 집에서 잠깐씩 나와서 살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③으로 표시하세요.
① 부모님과 함께 거주
②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거주
③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td></tr>
<tr><td>집 전화번호</td><td colspan="6">*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기록</td></tr>
<tr><td rowspan="2">가족 또는 친척</td><td>성명</td><td></td><td>해당란에 O 표시
아버지·어머니·
남형제·여형제·친척</td><td rowspan="2">친한 친구</td><td>성명</td><td></td></tr>
<tr><td>휴대 전화 번호</td><td colspan="2"></td><td>휴대 전화 번호</td><td></td></tr>
</table>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원께서는 정성조사에 대해 설명하신 후 아래 사항을 묻고 기록해 주세요.

추가 0. 귀하는 향후 실시 예정인 정성조사(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성조사는 본인의 전반적인 생활경험에 대해 묻는 인터뷰 형식의 조사입니다(약 1시간 소요)

① 참여할 의향이 있음
② 참여할 의향이 없음

※ 아래는 꿈드림센터에 참여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추가 1. 꿈드림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서비스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심리상담
③ 진로상담
④ 경제적 지원
⑤ 취업지원
⑥ 학업지원
⑦ 주거지원
⑧ 건강지원
⑨ 문화 · 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추가 2. 꿈드림센터 선생님과 한 달에 몇 번 정도 연락(접촉)을 했나요?
(카카오톡, 전화, 상담 등 모두 포함)

연락한 횟수 ☞	한 달에 ( )번

추가 3. 귀하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 「추가 3-1」로
② 불만족 ➡ 「추가 3-1」로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추가 3-1. **추가 3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러웠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추가 4. 꿈드림센터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 「추가 4-1」로
② 불만족 ➡ 「추가 4-1」로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추가 4-1. **추가 4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러웠다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추가 5.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귀하는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추가 5-1」로

② 아니오 ➡ 「추가 5-2」로

추가 5-1. 꿈드림센터에 방문한 이후, 여러분이 만나는 담당 선생님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추가 5-1-1」로

② 없음

추가 5-1-1. 문 5-1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지금 선생님과는 언제부터 만나왔나요?

처음 만난 시기 ☞	201□년 □□월부터

추가 5-2. 꿈드림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 「추가 5-2-1」로

②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④ 센터가 너무 멀어서

⑤ 내 생활을 간섭해서

⑥ 도움 받는 다른 곳(센터)이 있어서

⑦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

⑧ 기타(_____)

추가 5-2-1. 귀하가 서비스를 받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주세요.

1) 평일	2) 휴일
① 0시 ~ 6시	① 0시 ~ 6시
② 6시 ~ 9시	② 6시 ~ 9시
③ 9시 ~ 12시	③ 9시 ~ 12시
④ 12시 ~ 18시	④ 12시 ~ 18시
⑤ 18시 ~ 24시	⑤ 18시 ~ 24시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

2. 체크리스트: 신규패널용 및 간이설문지

2.1. 체크리스트: 신규패널용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 사례관리자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Research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윤 철 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 윤 숙 연구위원(044-415-2218)	황 인 창 부장(02-3014-0086) 박 종 경 대리(02-3014-0988)

● 센터 및 사례관리자 정보

성명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세
센터명		유관기관 근무경력	□□년 □□개월		

부록

사정기록지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련 안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께서 작성 부탁드리며, 아래 신청서 내용 작성에 대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진행시에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1. 기본정보

1-1) 성명		1-2) 성별	① 남 ② 여
1-3) 출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1-4) 소속기관	
1-5) 주소	(우편번호:)		
1-6) 연락처	휴대폰: ( )	긴급연락처: ( )	집: ( )

2. 가족력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2-1) 가족 사항					
2-2) 가족 형태	① 친부모 ② 편부 ③ 편모 ④ 친부+계모 ⑤ 계부+친모 ⑥ 조부/조모 ⑦ 친척 ⑧ 형제 ⑨ 위탁부모 ⑩ 보호시설 ⑪ 기타(_____)				
2-3) 보장 구분	① 일반수급 ② 조건부수급 ③ 자활특례 ④ 차상위 ⑤ 일반(상 / 중 / 하)				
2-4) 거주 사항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하숙 ⑤ 자취 ⑥ 시설 거주(쉼터 등) ⑦ 기타(_____)				

3. 꿈드림센터 의뢰경로

의뢰 경로	□ 본인	① 인터넷	② 홍보물(매체)	③ 전화(1388 등)
		④ 친구 소개	⑤ 부모 권유	⑥ 기타(_____)
	□ 기관	① 청소년 쉼터	② 아동복지시설	③ 대안학교
		④ 미혼모시설	⑤ 소년원	⑥ 보호관찰소
		⑦ 직업훈련기관	⑧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학교 및 교육청
		⑩ 경찰서	⑪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⑫ 기타(_____)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 성폭력가정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별 목표 유형(문4-1)을 **한 개만** 선택한 후, 선택한 유형 내에서 구체적인 목표(문4-2)를 **한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미결정형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개인별 목표유형	① 학업복귀형: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공부, 대학 입시를 하고자 하는 유형			
	② 사회진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			
	③ 미결정형: 무엇을 해야 할지 개인별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대상			
4-2) 구체적 목표	학업복귀형	① 복학	② 검정고시	③ 중·고등학교 진학
		④ 대학교 진학	⑤ 대안학교 진학	⑥ 기타(_____)
	사회진입형	① 취업(전일제)	② 직업훈련	③ 자격증 취득
		④ 기타 (_____)		

5.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순서대로 1, 2, 3순위**로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기재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타에 서비스 명을 기재한 후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서비스 목록	① 정보 제공	② 심리상담	③ 진로상담
	④ 경제적 지원	⑤ 취업지원	⑥ 학업지원
	⑦ 자기계발	⑧ 건강지원	⑨ 주거지원
	⑩ 기타(_____)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 체크리스트는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4~5p),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11~25p), **Ⅳ.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 **Ⅴ.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28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 내용의 작성은 **동그라미(O)** 표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지우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X 표시로 지우고 다른 곳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4~5p)는 체크리스트 작성 전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맨 처음으로 작성하되, 사례관리 중에 추가로 요청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모두 동그라미(O)로 표시**합니다.
-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는 **사례관리 중 제공한 서비스를 모두 동그라미(O)표시**하며, **청소년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한 서비스도 모두 포함해서 표시**를 합니다.
-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에 표시한 **서비스 각각에 대해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11~25p)에서 **각각 1장씩** 작성해 주세요.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의 기입 용지는 총 15장이며, 부족할 경우에는 복사해서 작성해 주세요.)
- **Ⅳ.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는 청소년이 요청했으나,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Q&A 1) 사례관리를 하던 중간에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Ⅳ.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를 작성합니다.*

Q&A 2) 사례관리를 하던 중간에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제공하게 된 경우는?
☞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1장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Q&A 3) 사례관리를 하던 중 센터내 (또는 외부 기관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서 **(청소년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권유한 후 제공**하게 된 경우는?
☞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1장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1년간 사례관리를 마친 이후에 **Ⅴ.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을 기록해 주세요. 단, 해당 청소년이 서비스에서 탈락한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탈락사례(**2~3개월이 지나도** 미복귀)는 조사기관에 즉시 알려주십시오. 2017년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에서 패널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아래 항목(① ~ ⑭) 중에서 청소년이 최초 상담 또는 이후 상담 중에 요청했던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가 1번부터 53번까지의 항목 중에 없을 때에는 '⑭ 기타 서비스'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작성 방법〉

– 각 항목 중에서 **청소년이 최초 또는 이후 상담 중에 요청했던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시해 주세요.

가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가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나 심리상담

⑮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⑯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⑰ 관계 문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⑱ 생활태도 개선(시간관리 등)

다 진로상담

⑲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⑳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㉑ 진로계획상담	㉒ 진학상담	㉓ 취업상담

라 경제적 지원

㉔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㉕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㉖ 검정고시비 지원	㉗ 청소년활동비지원	㉘ 긴급한 치료비 지원
㉙ 월세 등 주거비	㉚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㉛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 · 미용비 등 용돈	㉜ 대안학교 학비	㉝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마 취업지원

㉞ 직업탐색 및 체험	㉟ 인턴십 프로그램	㊱ 일자리 알선	㊲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㊳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바 학업지원

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㊵ 기초학력 지원	㊶ 복학 지원	㊷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㊸ 학습지원 (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㊹ 문화 · 예술 (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㊺ 신체단련 (수영, 태권도, 농구 등)	㊻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등)	㊼ 환경보존 (숲 · 갯벌체험, 생태 · 환경탐사,환경 · 시설보존 등)	㊽ 과학정보 (컴퓨터 · IT, 모형 · 로봇, 우주 · 천체탐구 등)

아 건강 및 주거 지원

㊾ 건강검진	㊿ 예방접종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52) 건강교육(성교육 등)	(53) 주거지원

자 기타서비스 (위에서 해당되는 서비스가 없을 때 기록하세요)

(54) 기타 서비스 내용을 적어주세요(_____)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아래 항목(① ~ ㉔) 중에서 제공하신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청소년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공한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작성 방법〉

– 각 항목 중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시해 주세요.

– 사례관리 중간에 **추가로 제공한 서비스**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가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가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나 심리상담

⑮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⑯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⑰ 관계 문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⑱ 생활태도 개선(시간관리 등)

다 진로상담

⑲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⑳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㉑ 진로계획상담	㉒ 진학상담	㉓ 취업상담

라 경제적 지원

㉔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㉕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㉖ 검정고시비 지원	㉗ 청소년활동비지원	㉘ 긴급한 치료비 지원
㉙ 월세 등 주거비	㉚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㉛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 · 미용비 등 용돈	㉜ 대안학교 학비	㉝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마 취업지원

㉞ 직업탐색 및 체험	㉟ 인턴십 프로그램	㊱ 일자리 알선	㊲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㊳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바 학업지원

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㊵ 기초학력 지원	㊶ 복학 지원	㊷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㊸ 학습지원 (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㊹ 문화 · 예술 (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㊺ 신체단련 (수영, 태권도, 농구 등)	㊻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등)	㊼ 환경보존 (숲 · 갯벌체험, 생태 · 환경탐사,환경 · 시설보존 등)	㊽ 과학정보 (컴퓨터 · IT, 모형 · 로봇, 우주 · 천체탐구 등)

아 건강 및 주거 지원

㊾ 건강검진	㊿ 예방접종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52) 건강교육(성교육 등)	(53) 주거지원

자 기타서비스 (위에서 해당되는 서비스가 없을 때 기록하세요)

(54) 기타 서비스 내용을 적어주세요(_____)

Ⅲ.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작성 방법〉

제 1단계: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의 서비스 번호 기록 → 서비스명 기록 → '제공 방법' 선택 → 연계기관 번호 기록

1) 앞의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기록한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표시된 '서비스 번호'를 기록합니다.

2) 오른쪽 '서비스 이름' 칸에 '실제 서비스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 '제공 방법'에서 '**Ⓐ 센터 직접 지원**' 과 '**Ⓑ 외부기관 연계**'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O)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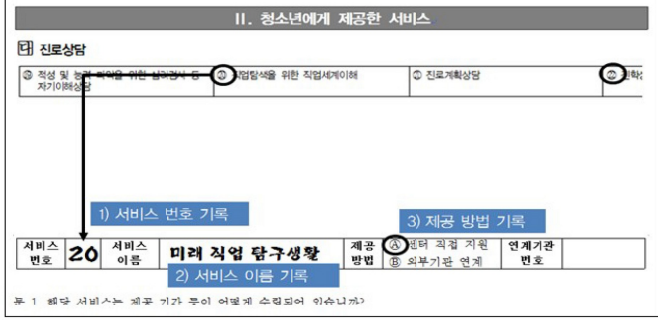
※ **Ⓐ 센터 직접 지원** 은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지원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은 모두 **Ⓐ 센터 직접 지원** 임)
Ⓑ 외부기관 연계 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 제공 방법이 'Ⓐ 센터 직접 지원' 과 'Ⓑ 외부기관 연계' 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페이지에는 'Ⓐ 센터 직접 지원' 에 표시한 후 센터 직접 지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추가 1 페이지를 'Ⓑ 외부기관 연계' 로 표시한 후 외부기관 연계 관련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4) 제공 방법이 **Ⓑ 외부기관 연계**인 경우는,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목록(10p)' 에서 '기관 번호' 를 찾아서 '연계기관 번호' 칸에 모두 기록합니다.

서비스 번호, 이름, 제공방법 기록

※ 1개 페이지에는 1개 서비스만 기록합니다.



(외부기관 연계 시) 연계기관 번호 기록



제 2단계: 문1 ~ 문2까지 작성

1) 문1번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해 응답

2) 문1에서 ②번 선택 시 문1-1로 이동하여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빈도를 기입
※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은, 서비스가 제공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6개월 짜리 코스, 2년짜리 코스 등).
1년 이상일 경우는 1년=12개월로 환산하여 기록합니다.
※ 서비스 제공 빈도는 얼마나 자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기입 예시〉

1) 총 1년간 주 1회 프로그램일 경우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__12__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1주일 / 1개월 / 1년) 당 __1__ 회
2) 총 2년간 반기별로 지원하는 경우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__24__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1주일 / 1개월 / 1년) 당 __2__ 회

제 3단계: 2017년 5월까지 매달 문3을 작성

1) 매월 초에 전월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매달 1회, 또는 1일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3)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해당 월만 표시합니다.

〈기입 예시〉

(예: 2016년 8월 말에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진행된 경우, 8월과 9월 모두 표시)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을 표기해주세요. 해당 월에 ㅍ

201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시행하는 경우는 6, 9, 12월만 표시)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을 표기해주세요. 해당 월에 ㅍ

201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제 4단계: 서비스 종료 시, 청소년이 중도탈락 시 또는 사례관리를 1년동안 마친 경우 문4 이하 응답

1) 문4 ~ 문5-1번까지에 대해 서비스 종료 시, 청소년이 중도탈락 시 또는 사례관리를 1년동안 마친 경우 응답합니다.

※ 청소년이 2 ~ 3개월 이상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연락이 단절된 경우는 청소년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보고 문 4번 이하를 응답합니다.

2) **문 6**은 서비스 번호가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①~⑭), ㉯. 심리상담(⑮~⑱), ㉰. 진로상담 (⑲~㉓)이고, 제공 방법이 Ⓐ 센터 직접 지원 경우만 응답**합니다.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목록

가. 심리상담 (⑮ ~ ⑱)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⑤ 성문화센터 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⑬ 병원 ⑯ 기타(_____)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⑥ 성폭력상담소 ⑩ 국립청소년디딤센터 ⑭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③ 원스탑지원센터 ⑦ 금연지원센터 ⑪ 스마트쉼센터 ⑮ 민간상담센터 등 타 상담기관	④ 해바라기센터 ⑧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⑫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센터)
다. 진로상담 (⑲ ~ ㉓)	㉑ 진로진학정보센터 ㉕ 고용센터 ㉘ 기타(_____)	㉒ 커리어넷 ㉖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㉓ 워크넷 ㉗ 민간상담센터 등 타 상담기관	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청소년지원단 등)
라. 경제적 지원 (㉙ ~ ㉝)	㉛ 특별지원(주민자치센터 및 시군구청) ㉟ 공공재단	㉜ 긴급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㊳ 독지가(개인 기부자)	㉝ 사회복지단체 ㊲ 기타(_____)	㉞ 민간 재단
마. 취업지원 (㉞ ~ ㊽)	㊶ 취업성공패키지 ㊸ 취업사관학교 ㊺ 지역자활센터(저소득층 자활지원) ㊼ 회사,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체 및 사업장 ㊿ 기타(_____)	㊷ 고용디딤돌(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㊹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고용디딤돌, 취업사관학교 제외) ㊻ 직업전문학교 또는 학원 ㊽ 한국잡월드	㊾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바. 학업지원 (㊸ ~ ㊷)	㊶ 대안학교 ㊺ 대학교(대학생 멘토, 학교탐방 등)	㊷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㊻ 기타(_____)	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㊹ 검정고시 등 학원
사. 자기계발 기회제공 (㊹ ~ ㊽)	㊶ 국민체육진흥공단 ㊺ 청소년문화의집 ㊽ 기타(_____)	㊷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㊻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㊸ 청소년수련관 ㊼ 민간 학원	㊹ 청소년수련원
아. 건강지원 (㊾ ~ ㊿)	㊶ 국민건강보험공단 ㊺ 성폭력상담소 ㊽ 기타(_____)	㊷ 보건소 ㊻ 청소년성문화센터	㊸ 병원 및 약국 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㊹ 129(보건복지콜센터)
자. 주거지원(㊸)	㊶ 청소년쉼터(일시/단기/중장기) ㊺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	㊷ 그룹홈 ㊻ 청소년회복센터	㊸ 청소년자립생활관 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㊹ 아동보호전문기관 ㊽ 기타(_____)
차. 기타 서비스(㊹)	㊶ 기타(_____)			

※ 부록 2.1.의 12~25쪽은 아래와 동일한 페이지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서비스 번호		서비스 이름		제공 방법	Ⓐ 센터 직접 지원 Ⓑ 외부기관 연계	연계기관 번호	

문 1.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간 등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① 특별한 제공 기간이나 빈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 「문 2」로 이동
② 제공 기간과 빈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문 1-1」로 이동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_____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1주일 / 1개월 / 1년) 당 _____ 회

문 2. 해당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청소년이 요청해서 ② 해당 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③ 부모가 원해서
④ 우리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어서 ⑤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⑥ 기타 (_____)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주세요. 해당 월에 단 한번이라도 제공했다면 모두 표시하세요.

2016년							20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아래 문4 ~ 문6은 서비스 종결 시(청소년 중도탈락 혹은 사례관리를 1년 동안 모두 마친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 4. 해당 서비스는 최초에 계획한 대로 제공되었습니까?
① 예 ➡ 「문 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4-1」로 이동

문 4-1. (해당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이 더 이상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서
② 청소년이 필요 없다고 해서
③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서
④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서
⑤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⑥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청소년이 연계 기관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⑦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서비스 수준이 청소년의 기대에 못 미쳐서
⑧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지역기관의 특성이나 성격이 청소년과 맞지 않아서
⑨ 기타(_____)

문 5.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도움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5-1. 문5에서 '도움이 되었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문 6. (위의 **서비스 번호**가 **1번부터 23번까지**이면서, **제공 방법**이 Ⓐ 센터 직접 지원 인 경우만 응답)
위 서비스 제공 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을 서비스 영역에 맞게 **하나만** 선택하여 동그라미(O)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영역	제공 방법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전화 안내 ④ 아웃리치	② 문자 안내(카카오톡 등) ⑤ 기타(_____)	③ 내방(기관 방문)
㉯. 심리상담	① 대면상담 ④ 또래상담	② 전화상담 ⑤ 사이버상담(카톡상담, 인터넷채팅상담 등)	③ 집단상담 ⑥ 기타(_____)
㉰. 진로상담	① 대면상담 ④ 사이버상담(카톡상담, 인터넷채팅상담 등)	② 전화상담	③ 집단상담 ⑤ 기타(_____)

부록

Ⅳ.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제 1단계: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 번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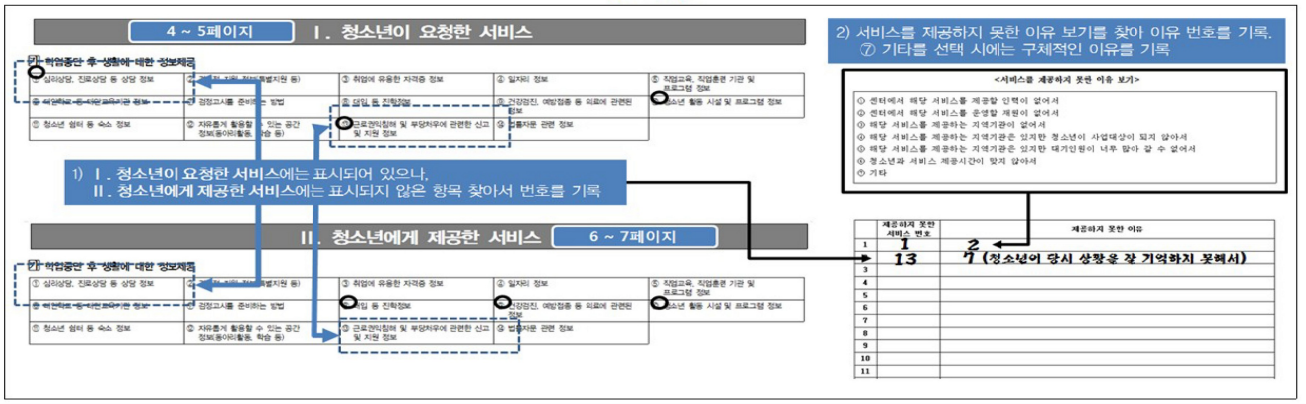
1) 체크리스트의 4 ~ 5페이지에 있는 '**Ⅰ.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나,
6 ~ 7페이지의 '**Ⅱ.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찾습니다.

2) 아래 '**제공 못한 서비스 번호**' 에 해당 번호를 **모두** 기록합니다.

제 2단계: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를 참조해서 해당 번호를 기록

1) 각 서비스별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 를 참조해서 해당 번호를 기록합니다.

〈기입 예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

①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②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③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이 없어서
④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서
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어서
⑥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⑦ 기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번호	제공하지 못한 이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Ⅴ.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청소년의 특징, 특이사항, 특별히 성과가 있었거나 없었던 서비스, 느낀 점, 문제점 등)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해당 청소년이 중도탈락한 경우(2~3개월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2.2. 간이설문지

2017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추가문항

[사례관리자용 간이설문지]

사례관리자 성명 ☞	
청소년 성명 ☞	

추가 문 1. 해당 청소년이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서비스 시작 시기 ☞	201□년 □□월부터

추가 문 2. 해당 청소년이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추가 문 2-1, 로

추가 문 2-1. 현재 해당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부터 안 나왔나요?

이용하지 않게 된 시기 ☞	201□년 □□월부터

추가 문 2-2. 안 나오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② 청소년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해서
③ 청소년이 더 이상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서
④ 청소년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⑤ 센터 사정 상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⑥ 기타(_____)

추가 문 3. 귀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인가요?

담당 인력 수 ☞	_____명

3. 면접조사지

3.1. 청소년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질문지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질문 Guideline

Part 1. Introduction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이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조사에 더해,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1)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모두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2)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밀에 대한 준수는 저희 한국 리서치에서 책임을 지고 준수해 드립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인터뷰 진행은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윤숙 연구위원(044-415-2218)

Introduction

> 먼저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 하겠습니다.

성 / 연령	① 남성 ② 여성 _____ 세
거주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최종 학교를 그만둔 시기	_____ 년 (____ 학교 ____학년때)

1. (기존 패널) 귀하께서는 작년 2016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나요? 해당하는 목적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① 방문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방문했음
② 내 나름대로 방문하면서 목적이 있어서 방문했음
② 기타
→ 1번만 선택한 경우는 선정질문 탈락

2. (기존/신규 패널) 귀하께서는 작년 6월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받아본 서비스가 총 몇가지인가요? (신규패널은 이전부터 받았던 서비스 모두 포함하여 확인)

① 전혀 없음 → 선정질문 탈락
② 1가지 이상 → 문 3으로 이동

3. (기존/신규 패널) 귀하께서 받아보신 서비스 중 가장 기간이 긴 것은 얼마 동안인가요?

① 1개월 미만 › 문4 1로 이동
② 계속 받고 있다 → 계속 이용자로 분류 후 문5로 이동

4. (기존/신규 패널) 귀하께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를 계속 받고 계신가요?

① 현재는 그만두었다 → 문4-1로 이동
② 계속 받고 있다 → 계속 이용자로 분류 후 문 5로 이동

5. (기존 패널) 귀하께서는 작년 2016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실 때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① 학생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 포함) → 학업형
② 검정고시 준비 중 → 학업형
③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 문5-1로
④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 → 문5-1로
⑤ 특별히 하는 일 없었음 (군입대 대기 포함) → 무업형
⑥ 기타

5-1. (기존 패널) 귀하께서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① 용돈을 벌기 위해서 / 별로 할 일이 없어서 → 무업형

②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취업형

③ 무엇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 취업형

3.2. 꿈드림센터 이용 청소년용 면접조사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뎁스인터뷰 Guideline

Part 1. Introduction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이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조사에 더해,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1)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모두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2)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밀에 대한 준수는 저희 한국 리서치에서 책임을 지고 준수해 드립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인터뷰 진행은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윤숙 연구위원(044-415-2218)

Introduction

> 먼저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 하겠습니다

성 / 연령	① 남성 ② 여성 _____ 세
거주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최종 학교를 그만둔 시기	_____ 년 (____ 학교 ____학년때)
2016년에 지원센터 방문 시 한 일(유형 -선문 5, 5-1)	
현재 이용 여부 (선문 4, 4-1)	① 계속이용자 ② 이용 완료자 ③ 이용 중단자
현재 하는 일	

부록

Part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목적 및 서비스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1-1.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곳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1-2.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1-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기대, 받고싶었던 서비스 등 확인)

2.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2-2.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으셨나요?

2-2-1.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체 서비스 / 외부 서비스 연계 여부) → 체크리스트와 대조하면서 진행

2-2-2. (외부에서 제공되었다면) 왜 그 서비스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으셨나요?

2-2-3. 제공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3.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4.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2-4-1.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누가 어떤 이유로 추천한 것인가요?

2-4-2.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체 서비스 / 외부 서비스 연계 여부) → 체크리스트와 대조하면서 진행

2-4-3. 권유받아서 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불만족스러웠다면),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

3-1.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3-1-1. 1회 만날 때, 얼마 정도 만났나요? (시간)

3-1-2. 사례관리자와 만나서 주로 무엇을 했나요?

3-1-3. 사례관리자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3-1-4. 사례관리자는 본인을 어떻게 대했나요?

㉮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 말투/ 제스처/ 기타

3-1-5.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3-1-6.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3-2.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친구/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3-2-1.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3-2-2.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3-2-3.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Part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결과별 질문]

1. 계속 이용자

1-1.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 서비스/ 사례관리자/ 가족/ 친구/ 기타

1-2. 언제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예정인가요?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1-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어떤 도움일까요? 그 이유는?

1-3-2.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면, 그 이유는?

2. 이용 완료자

2-1. 어떤 부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했었나요?

㈜ 서비스/ 사례관리자/ 가족/ 친구/ 기타

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의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나요?

2-2-1.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2-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목표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3. 이용 중단자

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얼마 후에 중단하였나요?

3-2. 어떤 부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중단하게 되었나요?

㈜ 개인적 이유(건강이상, 이사 등)/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기타

3-3.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Part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선 방향

1-1.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기 위한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1-2. 도움 받기를 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나요?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친구에게 추천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1-3-1. 추천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3.3. 꿈드림센터 사례관리자용 면접조사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자 뎁스인터뷰 Guideline

Part 1. Introduction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이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1)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모두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2)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밀에 대한 준수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준수해 드립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인터뷰 진행은 약 30분 ~ 1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윤숙 연구위원(044-415-2218)

Introduction

> 먼저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 하겠습니다.

센터명	
사례관리자 성명	
성 / 연령	① 남성 ② 여성 _____ 세
최종 학력	
사례관리 근무 경력	년 개월
현 센터 근무경력	년 개월

부록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1-1. 한달 평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2. 한달 평균 본인이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 인력수는?

1-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근무자의 업무 유형별 경력은?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2-1. 청소년의 유형 (연령대, 이용 계기 등으로 유형화)

* 청소년의 유형은 사례관리자가 직접 유형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왜 적용했는지(왜 나이별로 나눈건지? 또는 왜 가족 유형별로 나눈건지 등을 질문)를 추가질문

2-2. (청소년 유형별로 질문) 성격적 특성

2-3. (청소년 유형별로 질문) 초반 관계 형성 반응

2-4. (청소년 유형별로 질문) 비행의 유형

2-5. (청소년 유형별로 질문) 그 외

㉮ 기족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등)/ 경제적 수준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3-2.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질문)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 자체 개발한 서비스 / 외부 연계 서비스
- 이용자 수 및 유형
-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 및 만족도 평가

3-3.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외부 연계 서비스가 없을 경우만 질문) 외부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외부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3-4. 현재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특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3-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6. 사례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3-7-1. 기관 요인

3-7-2. 상담자 요인

3-7-3. 프로그램 요인

3-7-4.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3-8.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3-8-1. 연계기관 발굴

3-8-2.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

3-8-3.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3-9. 본인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를 하시나요?

㈜ 개인적 노력, 주변에 도움 요청, 상담/연수 참여,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등

4.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4-1. 해당사례 청소년의 특성은?

㈜ 성격적 특성, 초반 관계 형성 반응, 비행의 유형

4-2. 해당 청소년의 사례관리 과정 설명 요청

㈜ 왜 왔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애로점 등

4-3. (계속 이용자) 해당사례 청소년이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비스, 상담자, 가족, 친구, 기타

4-3-1. 해당사례 청소년을 관리하면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실무자 개인의 능력 부족, 업무 과정, 청소년과 라포형성의 어려움, 연계기관 부족, 기타

4-4. (이용 완료자)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비스, 상담자, 가족, 친구, 기타

4-5. (이용 중단자) 중도탈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상담자 사정,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청소년의 서비스 거부, 가출, 다른 기관으로 의뢰, 연락두절, 기타

4-5-1.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중도탈락 청소년을 줄일 수 있을까요?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5-1.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5-1-1. 예산 문제

5-1-2. 외부연계 서비스 기관의 부족

5-1-3. 자체 또는 외부연계 서비스 발굴 노력

5-1-4. 인력 구성 등

5-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2-1.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5-2-2. 한국상담복지개발원

5-2-3. 중앙정부

5-2-4. 지방자치단체

5-2-5. 연계기관

4.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류

4.1. 기존패널 심층면접 조사 내용 분류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곳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 모름

기1.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기2. 응답없음
기6. 그때는 몰랐어요.
기7. 아니오.

□ 앎

기3.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아마 처음에 갔을 때 상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여기를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요?

기4. 지원 센터는 알고 있었는데 꿈드림 센터는 처음 들었어요.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밴드 연습도 했었거든요. 근데 꿈드림은 모르고 있었죠.

기5.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8. (그리고 저희 꿈드림은 저희 쪽 설문 조사 참여하기 전까지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신설됐다고 하던데.

기9. 홍보물에서 본적은 있죠.

기10. 청소년 센터라고 들었고.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을 위한 뭔가 지원 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따로들은 건 없었고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관심은 없었어요.

기11. (작년에 저희 선생님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미 알고 계셨죠?) 네.

기12. 건물이랑 동아리 활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 설문조사를 통해

기1.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알았어요.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설문 조사 매년 오잖아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기6. 설문조사 하면서 꿈드림 센터 선별을 해서 갈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가볼 의향이 있냐고 저는 그런 거 가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했는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 홍보를 통해

기2. (꿈드림 센터를 처음 알게 된 건 검정고시 시험보고?) 네. 제가 시험을 본 게 16년도부터인지 15년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서.(몇 번 정도 봤는지 기억나세요?) 2,3번 본 건 기억이 나는데 건너 건너서 봐서. (그럼 2015년이 맞겠네요. 작년에 2번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처음 센터 전화 받고 갔을 때 검정고시 때문에 가셨나요?) 네. 검정고시 때문에 갔었어요. 명함이 있었는데 작년부터였나.

기9. (그때 어디에서 보셨어요? 홍보물?) 보통 지하철에서 봤던 것 같아요. (광고로 보신 거죠?) 그거 말고도 길다가 볼 때도 있었죠.

□ 가족을 통해

기3. (그러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8살 9월에 학교를 그만 두기 전후로 어머니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다는 거죠?) 네.

기4. (연락을 따로 받는 건 없었어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연락을 받았던 것 같기도 일단 센터에서는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딘지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언제 오는 게 편하겠냐고 언제 가는 게 편하다고 갔죠. 가서 몇 번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기5. 18살, 19살에 연락 끊겼던 엄마가 전화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너 이거라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ㅁ 다른 기관을 통해

기7.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울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기8. (지금도 청소년 문화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꿈드림도 따로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꿈드림이라는 건 작년 저희 조사 때 처음 들어봤고 그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알고 계셨나요?) 네.

기11. (원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작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네, 원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알고 있었고 저희 OO 여성회에서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가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 상대로 캠프하고 교육하는데 위기 청소년들도 학교 밖 나오신 여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해서 원래는 알고 있었죠.

ㅁ 선생님을 통해

기10. 그때는 도와줘야 뭘 도와주겠냐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상담 받고 그 선생님이 있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시간 내서 가봤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기12.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하는데 연습실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그러면 작년에 선생님이 여기 한 번 가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가보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전화가 왔나요?) 처음에는 상담하면서 연락처를 그쪽으로 줬을 거예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1. (그러면 2016년 저희 매년 조사 하시잖아요. 조사하자마자 가신 거예요?) 그거 끝나고 1, 2주 뒤에 갔었어요. (그러면 거의 6월이 맞네요? 바로 가셨으면?) 네.

기2. (그러면 처음 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좀 오래 됐는데 작년부터긴 한데 작년, 재작년? 4월이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연락이 왔던 게. (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게?) 네. 4월에 검정고시 1차가 있잖아요. 1차를 보고 나서였는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기3. (네. 여기서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원 센터가 저는 자퇴를 하고 계속 다녔는데.

기4. (그러면 꿈드림센터는 처음 알게 됐다고 하셨고 그때 작년에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하셨던 건가요?) 네.

기5. 18살, 19살에 연락 끊겼던 엄마가 전화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너 이거라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설문조사 할 때 연결해 주긴 했지만 그때 저는 이름을 개명했다고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설문조사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와서 사고를 쳤어요. 선생님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선생님들 죽이겠다고 학교에서 문제 차원에서 경찰서 경위님도 오시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저희집 사정을 알게 돼서 경위님이 그러면 검정고시 딸 수 있게 연결을 해 준 게 그쪽이거든요. 서 선생님한테 연결을 해 주셨어요.

기6. (6, 7월쯤 했고 그러면 방문은 하셨어요?) 네.

기7. 2014년도인가 보호관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재판을 받았었는데 수강 명령을 받았었어요. 그걸 받았었는데 OO에 꿈드림센터에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8. (그러면 전화를 받고 안내 받고 나서 날짜를 정하고 바로 가셨어요? 센터로?) 센터로 집 1분 거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갔어요. 다른 얘기도 하고 직업 연결해 주냐고 고용센터? 거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그건 아직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기9. (그러면 저희 작년에 소개를 6월에 받았을 텐데 언제 처음 방문했는지 기억나세요? OO 꿈드림센터? 작년 6월에 센터에 가셨고 2016년 6월에 가셨고 이때 소개를 받을 때 어떻게 소개를 받았던 것 같으세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10.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연락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OO시 청소년 지원 센터 여기서 연락을 드린 거죠?) 네. (최○○ 선생님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셨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11. (지금 처음 방문은 언제쯤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처음 그때 꿈드림센터 방문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기 때문에 갔었는데 아마 작년 이맘때보다 더 늦었나 되게 더울 때 갔던 기억은 있거든요. 7, 8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기12. (그러면 처음에 전화를 해서 청소년 지원센터 사례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방문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기대, 받고 싶었던 서비스 등 확인)

□ 취업 지원

기1. 교육 받은 거 있잖아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나 취업 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걸 받고 싶었어요?) 네.

□ 작년활동 연장

기2.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설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작년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하고 싶다고 했던 거를 다시 또 거기서 한 걸 그냥 다시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했던 거를 또 적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심리 검사 그런 거랑 직업 특기 있었고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센터 방문했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하셨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은 학생이 처음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 요청했다고 체크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상담 있고) 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취업 일자리 정보 요청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준비랑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진로 계획,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상담, 검정고시, 취업, 문화 예술 크게 4가지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라서.

기3.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갈 때부터 내가 이미 이전에 이용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간만에 가셨으니까 갈 때 그래도 오랜만에 가니까 변한 것도 있었을 거고 이런 건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작년으로 돌아가서 작년에 하셨을 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받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그게 다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 재미 추구

기4.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혹시 뭘 해서?) 그거는 안 알아보고 가서 잘 모르겠는데 뭘 하든 재밌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18살, 19살에 연락 끊겼던 엄마가 전화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너 이거라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 검정고시

기5. 직업 체험 활동, 자격증이나 학원 떼주는 거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일단 검정고시로만 해서 직업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만.

기9.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제가 정보도 필요했었고 심리적으로 고3이다 보니까 그냥.

기10. 제가 아마 검정고시가 이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치고 싶다고.

□ 취업

기6.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데라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자리 소개를 시켜줄 거다?) 일자리 관련된 정보나 진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기대, 받고 싶었던 서비스 등 확인)

ㅁ 기대 없음

기7. 기대한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가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갔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약간 달리해서 그래도 가보겠다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특별히. (가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가면 저 말고도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제가 OO에 친구가 없거든요. OO에 있었을 때도 친구가 없었었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날 수 있으려나 싶은 마음에 갔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8. 아무 기대 없었어요. 장소가 똑같은. (.그래도 그때 필요했던 서비스나 전혀 없었어요?) 직업 소개.

기11. 저는 딱히 아직은 없어서.

ㅁ 경제적 지원

기12. 솔깃했던 게 2, 3가지 있었는데 지원하는 건데 용돈 주는 거랑 생활비 그런 거랑 용돈 같은 거였을 거예요. 필요한 거 챙겨주는 거랑 아까 말했던 건강검진.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ㅁ 취업 지원

기1. (센터에서 선생님이 아마 처음에 OO씨가 센터에 가서 이런 서비스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상담이랑 자격증 정보랑 그 다음에 관계 문제, 그리고 취업 상담을 하셨다고, 혹시 이거 말고 센터에 받고 싶다고 요청했던 서비스 있으세요? 금전적인 지원?) 네. (이런 것도 직접 요청하셨어요?) 아니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제가 일단 처음에 받고 싶었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자세히, 상담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센터에서 이용을 하셨죠?) 네.

기2. (이 4가지가요?) 네, 심리 검사는 제 스스로도 지금 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검정고시는 제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취업도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 문화 예술은 제가 검정고시 청년 학교를 소개 시켜주실 때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하나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캘리그라피였고. (그러면 센터에서 취업 관련해서 받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세요?) 고용노동부 취업 그거. (성공패키지?) 네. 성공패키지로 연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거 들어서 제가 거기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 말고 다른 취업 서비스는 받아보신 게 있나요?) 바로 됐기 때문에.

기8. (그러면 이용하기 전에 직업 소개에 대한 게 제일 필요했었고 저희가 아마 처음 센터 방문해서 초기 상담 했을 때 OO씨가 이런 서비스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게 있을 그걸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심리상담? (상담이랑 자격증 정보) 취업 역시.

ㅁ 정보 제공

기3. (지금 그 쪽에 선생님이 기록하신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원하는 서비스가 심리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두 번째는 자기계발,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 제공은 경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언제 한 거예요? (작년에 처음 방문하셨잖아요. 한 번, 그때 상담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설문조사를 해서. (작년에 거기 방문했을 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요청하신 서비스가 크게 상담과 관련해서 중독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네? (중독 문제라고) 네. (상담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진로 상담이고 신체 단련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가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대략 맞는 것 같으세요?) 네. (경제적인 도움도 그때 당시에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따로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했었어요.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 진로상담

기4.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자기계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 계발인 걸로 이걸 가장 원하셨고 진로 상담을 원하시는 게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진로 상담은 있어서 적은 건데.

□ 검정고시

기5. (일단 ○○씨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첫 번째 학업지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계발, 세 번째 경제적 지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맞나요?) 네. (처음에 학업지원을 얘기하셨는데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혹시 검정고시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검정고시 무조건 따고 싶어서. (두 번째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로 문화 예술 그리고 과학정보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걸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처음에?) 일단 문화 예술이니까 그림 그리는 것 외에도 손재주 형식으로 그쪽으로. (과학정보는 어떻게?) 일단 제가 컴퓨터 잘하지도 못하고 중간 정도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계속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린지 걔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1명이라도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니까. (동생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로 얘기하셨던 건 경제적 지원입니다. 크게 심리상담 및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외식비나 교통비 지원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지원을 요청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검정고시 비용은 따로 지원 받고 싶었던 항목이 있었나요?) 일단 검정고시를 보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시험비는 1만원도 안 되는데 학원에서 수업 받는 게 좀 세서 저희 집이 힘들어서. (교통비 표시를 해 주셨는데 교통비는?) 제가 면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스만 타고 다니는데요. 버스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거 외에 얘길 하신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심리상담 정보 이건 본인을 위한 건가요? 기억 안 나세요?) 심리상담 진로 상담 쪽일 거예요. 심리가 아니라.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자리 정보는 혹시 특별히 원하셨던 정보가 있었나요?) 일단 동생들 학업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올 수 있는지 4, 5시쯤 집에 와요. 근데 집에 오면 밥을 먼저 찾아요. 12시에 먹고 밥을 먼저 찾는데 동생들이 많이 먹어요. 저처럼 살이 찌진 않지만 많이 먹는데 만약에 누나 없고 밥 해 줄 사람 없으면 자기들끼리 라면만 먹어서 4, 5시쯤 집에 와서 밥을 차려줄 수 있을 정도의 알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싶었던 거고, 하나씩 얘기를 검정고시 준비하는 방법은 검정고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직업 교육도 생각 있었어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네, 봤죠. 직업 훈련 교육 받는 걸 좋아하니까. 역시 이것도 예술 쪽으로 혼자 손재주 쪽으로. (상담이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상담의 형태가 있다면?) 역시 가족 관계겠죠. (자격증은 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격증이 있었나요?) 주로 컴퓨터 쪽이나 목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이 가장 컸어요.

□ 심리상담

기6. (야간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네. (그때 요청하신 게 일자리 알선 요청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학 진학 정보, 이런 것들하고 심리상담도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중학교를 14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성폭력을 당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그 전에도 병원도 다니고 했었어요. 성폭력 센터 연계돼서 거기서 병원 연계 시켜줘서 약도 먹고 다 했었는데 그게 문득문득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병원은 제가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정신 병원이니까 다 쳐다보고 혼자 스스로 위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꿈드림센터 이런 데는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런 데랑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같이 지원을 해 주면 눈치 안 보고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 자기개발

기7. (자기계발, 두 번째는 심리 상담,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요청을 하셨어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요. 1, 2, 3순위로 이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기 사진 촬영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고 이거 있었고. 수업을 그런 분야의 수업이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제가 아예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상담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따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게 있나요?) 아니오, 없어요. 무슨 심리 상담이 받고 싶냐는 말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약간 항상 혼자다 보니까 1년 넘게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혼자이다 보니까 외로움을 탔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심리 상담이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요청하신 게 있나요? 이런 거 하고 싶다. 받았으면 좋겠다?) 경제적 지원이라면. 제가 또 법 공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관심이 이상한 거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 분야에 제가 그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굳이 학교 공부 있잖아요. 국영수보다는 되게 법이나 컴퓨터 다양한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법은 이제 약간 무리가 있겠다. 혼자서는 못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배우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ㅁ 경제적 지원

기11. (그러면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특히 이런 게 받고 싶었던 건 있었나요?) 저를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크게 나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좋은 대안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서 되게 좋게 그리고자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저같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탈 학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탈 학교 하면서 탈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저는 되게 잘 된 케이스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규직으로 일도 했다가 어느 정도 최저 임금이랑 주유수당은 챙겨 받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솔직히 탈 학교를 하고 탈 가정을 하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본인 식대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 교통비로 돈이 나가는데 알바 해봤자 5, 6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아직까지도 저는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카드를 한 번 잘못 만들어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거죠. 저도 그렇고. (일자리 정보는 혹시 생각하시던 분야가 있나요? 그때 당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약직이라서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자리 정보는 있으면 좋겠죠. (이것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받아보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네, 심리 상담은 욕구가 있죠.

기12.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건강검진 그리고 취업지원 순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하는 서비스를 얘기할 때 심리상담, 검사, 상담 및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주거비 지원, 그리고 집에서 식비, 외식비 비용 지원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각각에 대해서 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부모님이랑 사는데 그때 반 년 정도 나가 살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하라고 그래서 다 체크했었어요. 네, 심리상담은 나가서 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리상담 받으면서 괜찮은지 단순히 살면서 잠깐 받는 스트레스인지 큰 스트레스인지 그런 게 필요해서. 네, 딱 나가서 그림 그려서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걸 해보고 싶어서. (여기는 지원 고용 문제를 1순위로 얘기를 하셨길래 심리 상담은 외부에 나가서 그림 심리 치료든 이런 걸 치료를 받을 테니 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하겠고 주거비도?) 네, 일을 잠깐 쉰 상태니까 돈의 압박이 있어서. (주거비, 식비 이런 기초생활비랑 이미용비 다 포함해서 그때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심리상담이 아니고 건강검진, 예방 접송, 무료 치료 병원 알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은 종합?) 네, 종합 건강검진인데 학교를 그만 두고 나니까 이걸 해 주는 곳이 아무도 없어서 많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이 필요했었어요. 학교 다니면 하라고 이때 이걸 해야 된다고 다 같이 학생들은 맞는데 빨리 그만 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랑 예방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걸 치료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이건 만약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심각하거나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걸 해 주는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취업 지원인데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정보 제공 쪽에 경제적인 거, 건강검진, 취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그때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취업성공패키지가 1년 단위로 있는데 끝나고 난 시점부터 1년 뒤에 가능한데 그때는 1년이 안 지난 상태라서 혹시 안 지나도 되는지. 중독 문제는 제가 흡연을 하고 있어서 이걸 고치면 의사 선생님이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서 치료를 체계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끊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끊었어요. 그 센터가 수영장을 운영했는데 수영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일만 하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도 잘 없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아서.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ㅁ 견학

기1. (그리고 또 요청했던 게 관계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친구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냥 센터 애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이용하신 거잖아요. 센터, 센터에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한 것들 중에 못 받은 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이런 거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여쭤봤거나 받고 싶다고 했는데 못받은 건?) 못 받은 건 없어요.

ㅁ 상담

기2. (보통 학생들 처음에 가면 많이 요청을 안하는 편인데 받고 싶다고 얘기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담 관련해서 요청하셨는데 ○○시 센터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신 거죠?) 그렇죠.

ㅁ 제공받지 못함

기3.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원했던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보는 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신체 단련이거든요. 신체 단련하고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은 게 있나요?) 아니요. (원하셨던 건 어떤 걸 원하셨나요) 헬스나.

기4. 아니오, 그런 쪽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기 보다는 늘 저 혼자 했죠. 서비스는 크게 없었어요. (봉사활동을 갔던 적은 있었나요?)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직업 체험이라고 건설업계 직업 체험을 하러 갔어요. (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세계 이해 혹시 따로 서비스 받은 게 심리 검사는 하셨어요?) 첫날에 했었어요. (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세계 이해, 이런 것도 혹시 상담 받은 적이 있으세요?) 상담받기 보다는 ○○에서 직업이라고 뭐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꿈드림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갔다가 돌아다닐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한 직업 어쩌고 하는 그런 거라서 여러 가지를 보기는 했죠.

기7. 아니요. (심리상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심리상담 정보제공을 센터에서 6월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오,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만 했었는데 심리상담보다는 진로상담에 가까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식으로 대화만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딱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6월 첫 달에만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에서 받았었거든요. 이걸 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끊겠다는 식으로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국 제가 받다가 말아서 아마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 듣고 거기서 끝났던 것 같아요.

기8. (그러면 상담이랑 직업 관련한 교육이나 자격증,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었는데 센터에서 이용한 건 전혀 없었어요?) 직업은 안 해 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비스 받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없을걸요.

기11. 아니오. 제가 받은 건 없어서 제공을 안 해서 정보를 받은 것들이 없는데. (학원비 지원은 받은 게 있나요?) 아니요. (일자리 알선은?) 없습니다. 어쨌든 있었지만 대상이 안 되거나 추가 방문이 없어서 받지 못하신 것 같고 그쪽에서 학원비 지원, 일자리 알선은 특별히 주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희망하셨던 게 관계 문제 상담 이런 걸 희망하셨는데 받지 못하신 걸로 이 되고요.) 네.

□ 검정고시

기5.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땄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손재주를 쓸 수 있는 공예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손재주와 관련된 내용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여쭤볼 게 받았던 서비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격을 딴 건 목공예3급이에요. 역시 자격증. 제과제빵이 가장 먼저였고요. (두번째는 요리?) 네. (건강검진은 따로 받은 적이 이으세요?) 네, 받았어요.

기6. 응답없음

□ 정보제공

기9. (일단 대학 진학부터 여쭤볼게요. 대학 진학 관련한 정보를 서비스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꿈드림센터에 가서 관련된 서비스를 실제로 받았나요?) 대학 진학에 대한 건 아니고 그건 그냥 거의 이야기 형식으로 했었고요. (상담으로만?) 네, 그냥 성격검사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직업 훈련이나 취업 관련된 건 좀 더 잘 아셨는데 대학 관련한 정보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원래 받고 싶었던 서비스 중에 심리 상담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받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이 상담도 진행이 됐었나요?) 네.

기10. 응답없음

□ 건강검진

기12. 네, 종합 건강검진. (그러면 차분하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받으셨나요? 취업 관련 정보, 건강검진 이런 경제적 관련된 정보는 상담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따로 알아보고 이런 거 있다고 알아봐주신 게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상담만 하셨나요?) 네.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체서비스/ 외부 서비스 연계 여부)
→ 체크리스트와 대조하면서 진행

□ 자체 서비스

기2. (그러면 검정고시 학원도 취업도 외부에서 받으셨는데 센터 내부에서 받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세요?) 자기 계발 프로그램이나 직업 찾기 프로그램 상담 같이.

기9. (이건 센터 내에서 선생님한테 받은 거죠?) 네. (이게 혹시 얼마 정도 받은 것 같으세요? 그 센터에서?) 거의 한 달 가량 했던 것 같아요.

기3. 응답없음

□ 외부 서비스 연계

기5. 학원에서 했어요. 저는 부분 합격한 게 있어서 학원으로 넘어가서 땄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협동조합은 센터에서 소개를 시켜준 곳인가요?) 네,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했거든요.

기1.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외부에서 제공되었다면) 왜 그 서비스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으셨나요?

ㅁ 장소 협소

기1. (쿠킹아트 지도사 자격증, 이것도 센터 안에서 진행이 되나요?) 센터는 아니고 따로 가게 같은 데서 빌려서.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ㅁ 기간이 맞지 않음

기4. (7월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쭉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7월에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제공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ㅁ 만족

기1. (이건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재밌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잘 해주셔서. (혹시 이런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어요?) 네. 많이는 못 친해졌죠. 제가 아직은 사람을 잘 못 사귀겠어서.

기2. (그러면 이용했던 서비스 중에 아쉬웠던 건?) 자기계발 서비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짧게 진행됐나요?) 총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기3.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가 안 된 거네요?) 네. (받으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전문적이다?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도움이 됐나요?) 그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저는 주위에 그런 경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영어 문법이 어렵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영어 공부 지원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기5. 충분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진 못했는데 저는 충분했어요. (책값도 지원받고 학원비도 지원 받았고 수강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셨고 특별히 불만스러운 건 없었나요?) 네, 그건 없어요. 학원 강의를 재밌게. 네,

불만은 따로 없어요.

기9. (이게 도움이 됐어요?) 네. (혹시 목표가 대학 진학과 관련된 도움이었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학교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하셨는데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아무래도 상담 같은 거 많이 받다 보면 제가 쓸 내용 같은 것도 보완이 되고요. (조금 관련해서 받을 때 아쉬웠던 부분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대학 정보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대학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 5번 정도 받으셨겠네요. 이 서비스도 외부에서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거기랑 진행을 하셨고 상담 받은 건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나요?) 아무래도 힘든 점을 얘기 했을 때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죠. 아무래도 도와주시려고 감사하다고 느꼈죠.

□ 불만족

기4. 그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서 약간 목공 거기서 한옥 건설처럼 못 안 쓰고 짜맞추기로 하는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캐드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듣긴 들었죠. 딱 하루하고 체험만 하고 끝났어요. 직업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체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설 소개만 하고 끝났어요. 시설의 개요, 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시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대부분하고 건설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캐드, 이런 거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목공하는데 잠깐 10분하고 집에 가자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거기 안내 해 주신 선생님도 미안해 했고 불만스러웠고 저도 불만스러웠죠. (생각해보니까 만족스러웠어요? 아니면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아쉽다?) 저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쪽입니다.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부록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

기3. (혹시 서비스를 받은 건 아니죠?) 네. (이유가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서비스들이 시간이나 위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그리고 ○○이라고 집이랑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집에 가려고 하면 버스 타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안했던 것 같은데요.

기5.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시간이 난 게 어떻게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 때는 거의 맞지 않아요. 어디 가지 못해서 친구들이 놀러 나오라고 그래도 못 나가기 때문에.

기8. 없을 걸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고 오라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상담 받고 전화 와서 요리 어쩌고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알바야간 알바라서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 오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안 나가서 끊긴 것 같아요. 주말이나 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했을 텐데.

기10. 제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못 가신 이유는?) 취업사관학교.

기11. 제가 꿈드림에 다시 재방문을 안 해서 지원은 되는데 (한 번만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때 못 가게 된 한 번 방문하고 안 가셨다고 하셨는데 안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는 안 급했나 보죠. 일단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고 심리상담은 한 번 받아볼까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 외에 취업상담이나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이런 것도 상담할 때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같이 상담을 해 주셨나요? 특히 주거비 지원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걸요. 돈 받고 싶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잘 살아서 기초수급은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고 있었고 안 될 거라고 설명을 받았을 걸요.

□ 참여 인원 부족

기4. (거기서 안 해 준 이유가 있었나요?) 하려는

사람이 몇 명은 모여야 그쪽 학원에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몰려야?) 적어도 2, 3명은 모여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없다고 했었어요. (이건 받은 게 있으세요?) 있었는데 제가 차버렸죠. (왜 그걸 차버리셨는지?) 그 시간대가 제가 밴드 연습하는 시간대와 겹쳐서.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죽공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 돼서. 검정고시 볼 필요가 없어서요. 일단 저는 최종 학력이 중졸이기 때문에 고졸까지 필요가 없어서.

ㅁ 제공 서비스 부족

기6. 딱히 뭐 해 주겠다. 못해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검정고시 얘기만 하고 검정고시 보셨으면 저희 쪽에서 도와줄 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번호 알려주시고 심리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특별히 얘기는 없었고 지원 따로 해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야간대학교 얘기했다고 했는데 대학 관련해서 진학 정보를 따로 준 게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얘기만 들어주셨어요. 대학 다니고 싶다. 그러냐.

기7. 아예 그냥 그리고 3번 만났나 연락이 없었어요.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줄 수도 있고 외부 쪽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게, 라는 얘기가 따로 없었어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었고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고 알아봐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얘기가 없었어요. 거기서 뭘 해 주겠다는 건 건강검진 얘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작년에 해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못 갔었는데 못 가서 올해 초에 못 갔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건강검진이나 의료 관련해서는 혹시?) 네, 이것도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받았었어요. 작년에.

기12. 아니오, 이것도 만약에 무슨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로 아동 급식 카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이건 조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수영장은 어떻게?)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밑에 수영장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들었어요. 이미 딴 거에 뒤로는 준비 중인 게 많았어요. 메이크업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원하는 쪽은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쪽이었어요. 네, 센터 쪽에서 이건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부족해서. (네, 센터 쪽에서 이건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부족해서)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쪽으로 했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었나요? 있긴 있는데 정원이 차서?) 그 때는 준비 중.

기1. 응답없음
기2.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누가 어떤 이유로 추천한 것인가요?

ㅁ 여행 및 견학

기1.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서비스를 권유해서 받아보신 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해보는 건 어때?)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디 가는 데 있으면 연락을 주셔서. (주로 체험?) 체험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 갔다 온 거랑. (어떤 거 했어요?) 취업 박람회 같은 거 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신청해서 갔어요. (어떤 이유로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보라고?) 네.

ㅁ 자기개발 및 문화예술

기2. 그게 자기계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권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선생님께서?) 네. (거의 그 전에는 검정고시나 취업 관련된 것만 들었었는데 문화 예술 쪽으로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소개 해 주시면서 어떤 이유로 네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 주

부록

신 게 있으세요?) 글씨 같은 것도 괜찮고 일단 이런 거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찾아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기3. 네. 선생님이 금연 문제도 있었어요. 금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면 원했던 4가지 말고 혹시 다른 서비스 권유 받아서 받은 게 따로 있나요? 요구는 안 했는데 선생님이 하자고 해서 받은 건 있어요?) 저는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안받았어요.

기4. (바리스타 학원은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나요? 처음에 권유를 선생님이 하셨나요?) 네. (어떤 게 본인한테 어떤 이유로 이래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권했다는 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오, 이거 해봤으면 재밌을 거라고 바리스타 커피집도 많은데 한 번쯤 해보면 재밌을 거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들 말고 간단한 건강검진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선택을 제가 처음에 안 했었어요. 근데 거기 할 때 이거 할 때 당시에 선생님이 건강검진 하면 무료로 시켜준다. 이건 무조건해라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라 그래서 했죠. 권유한 건 있었어요. 제가 다 내팽겨 쳤지만. 네, 청소년 지원 센터다 보니까 아직 중졸, 고졸, 학교 밖 애들이 있으면 센터에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꿈드림이 아니고 지원 센터에서. 그래서 이거 해보라고 권유를 여러 번 하셨죠. 그거 말고는 놀러 가는 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놀러 갈 거니까 같이 갈래? 가면 재밌을 거야 가고 싶으면 네, 가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갈게요.

기5. (처음에 목공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잘 소개를 시켜준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 입으로 목공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바리스타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본인이 바리스타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전통차도 있고 바리스타가 있다고 그래서 전통차도 재밌고 바리스타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바리스타 배워볼래? 라고 해서 바리스타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제가 선택하는 게 오래 걸려서 차라리 누가 너 이거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자격증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걸로 해볼래? 그러면 선택하는 것 같아요.

ㅁ 검정고시

기7.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 졸업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굳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선생님이 왜 추천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할 시간도 없고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동생도 나이가 어려서 돌봐야 되는데 제가 공부에 매진하면 우리 엄마랑 동생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공부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해서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되거나 그러면.

기8. (그러면 요리 프로그램 말고 따로 권유 받은 서비스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요리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1번 만드는 거예요. 그때 케익 만드는 것처럼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 번 하는 거였으면 그때 아니라도 한다고 했겠죠.

기9. 응답없음

기10.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요청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거 말고 없었나요? 아예?) 검정고시 말고 없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권유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권유를 했죠. 보통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거 해볼래? 권유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검정고시 관련해서 따로 권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못 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멘토 선생님을 붙여주겠다. (또 있나요?) 검정고시 일단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ㅁ 취업지원

기1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다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못 받는다. 다른 건 혹시 어떤가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해봐라 이런 건 없었나요?)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네. (취업과 관련해서?) 네, 자격증이랑 취업 관련해서 얘기해주시고. 거기서 취업을 할 때 성격 유형 조사인가 그거 테스트를 먼저 하고 저한테 맞는 직업들을 추천해 주시는데 쭉 제 얘기를 들어봐요. 어디로 관심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추천도 한 번씩 해 주고 그랬어요.

기6.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체 서비스/ 외부 서비스 연계 여부)
→ 체크리스트와 대조하면서 진행

□ 자체 서비스

기1. (이건 센터에서 직접 가는 거였나요?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서 직접.

기2. (주로 캘리그라피 서비스도 센터 내에서 진행했어요?) 네. (그러면 전문 선생님이 오시나요?) 강사 분이 오세요. 비즈도 그렇고 바리스타도 그렇고 다 강사 분들이 오셔서 가르쳤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기3. (자체적으로? 외부에?) 자체적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 참여할래? 이랬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었고.

□ 외부기관 연계

기4. (바리스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수업이 있었어요. 다른 학원 연계해서 저희 꿈드림 센터에서 몇 명해서 2, 3달 정도. (바리스타 학원인가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를 배웠죠. (그 학원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네, 아무 학원이나 가는 게 아니고 꿈드림 센터와 연계되는 학원이 따로 있대요.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부록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권유받아서 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 만족

기1.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이용해보니까?) 재밌었어요.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없었어요?) 다양한 거.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 센터 애들을. (만나서?) 네. (센터에서 해주신 건강검진은 도움이 됐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괜찮았어요?) 네. 종합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기2. 심리적인 안정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취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느낌 그러니까 취업은 일은 일인데 제가 취미보다는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걸로 찾았고 일도 4년 하다가 캘리그라피를 계속하면서.

기3. 응답없음

기4.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죠.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해보니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프린터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거 있다고 해볼래? 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5. (그러면 목공예까지 얘기를 했었죠. 정신을 좀 차리고 목공예를 3급 자격증을 딴 게 도움이 됐어요?) 네. 협동조합 만드는데 사회적 육성 사업 기업이라고 거기서 하는 거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걸 해서 학업중단한 아이들 직업체험 활동으로 바리스타 해보자고 하게 됐어요. 가끔 한 달에 1번씩 대표들이나 모여서 어디 가서 이거 이거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해요. 다른 분들 선임 1, 2기 분들로 해서 PPT 자료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목공예 나오는데 목공예 체험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업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목공예 서비스?) 네, 충분히 저는 재밌었어요. 남자애 1명은 재미없었는지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는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재밌었고. 실전 위주로 배워서 되게 만족했어요.

기10. (그러면 상담 하나 받으신 건데 어떠세요? 상담 내용이 만족스러웠어요? 본인의 궁금증이나.)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할까요. 대화하는 게 괜찮았고 이해를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괜찮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검정고시도 그렇고 일단 자꾸 연락이 오니까 저로서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좋았죠. 혼자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자주 연락을 해주고?) 그게 좋았어요.

기11. 응답없음

기12.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맞는 것 같았어요?) 네. (혹시 불만스러웠던 건 있었나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센터에서는 상담을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 주고 다독인다고 할까요. 그냥 취업성공패키지는 자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는 거라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이건 애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감싼다 할까요. 나쁜 애들이 아니라 착하고 사실은 이런 애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도 있고 저것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도 있다는 식이니까 알고 하는 거라서 다독인다고 할까 포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ㅁ 보통

기7. 그런 건 없었어요. 딱히 바라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원하는 거 없이 자발적으로 간 거라 뭘 해 주겠다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없었어요. 기분 나쁜 것도 없었고.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불만족스러웠다면)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ㅁ 체계성

기12. 그때는 체계적인 게 없어서 센터 자체가 수영장 같은 경우도 따로 강사들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상태였고 동아리 활동이 많으니까 동아리 활동 위주로만 더 돌아가고 취업성공 이런 거는 옆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걸로 느껴졌어요. (학생들 아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직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좀 덜한 것 같다?) 자퇴나 이런 애들을 위한 공간이 여기저기서 허락을 해줘야 쓸 수 있는 쪽이라서 조금 미미하다고 할까요.

기1. 응답없음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1회 시간/ 주 활동/ 도움/ 태도/ 관계만족도)

ㅁ 만난 적 없음

기1.(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아예 안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네.

기3.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때요? 한 달에 만나긴 하는 건가요?) 만나진 않아요.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그러면 그 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 뒤로 2번인가 갔었는데 그 뒤로 바빠져서.

기4. 한 달에 1번도 안 만났어요. 두 달에 1번 만나도 많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주일에 1, 2, 3번 만나는데 프로그램이 딱히 없으면 한 달에 1번도 안 만나고 두 달 동안 프로그램 없으면 안 만나고.

ㅁ 1회 이상 4회 이하

기5. 한 달에 1번 요즈음에는 이번 달은 선생님도 바쁘시고 저도 사고 터진 게 있어서 수습한다고 못 만났고요. 선생님 만난 거는 한 달에 1번 내지 계속 만나긴 해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 선생님이 바쁘지만 않으면.

기9. (한 달에 주 1회 정도 만났다고 하셨고)

ㅁ 10회 이상

기2. 반은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반?) 그러니까 시간 나면 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카톡이나?) 네. (되게 자주하는 편이네요?) 네. (이틀에 1번 꼴로 한다는 거죠?) 2, 3일에 1번.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1회 만날 때, 얼마 정도 만났나요? (시간)

ㅁ 1시간 미만

기5. 40분 정도.

ㅁ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기9. 1시간에서 2시간.
기12. 1시간정도 짧으면 30분.

ㅁ 2시간 이상

기1. 응답없음

기2. 오래 있으면 2시간.
기3. 2시간 정도.
기4. (정기적인 상담은 없나요?) 네,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기8. 2, 3시간 했을 걸요.
기10. 2시간 정도.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와 만나서 주로 무엇을 했나요?

ㅁ 상담

기1. (그러면 센터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요.

기2. (상담을 하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센터에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바쁘시면 동아리실이나 그런 곳에서 저 혼자 캘리그라피 할 때도 있고. (주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러 가는 편인가요?) 네.
기3. 주로 공부 얘기 했었어요. 영어가 힘듦다고.

기5. 동생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나 괜찮게 있는지 힘든 건 있는지 물어보시고. (주로 안부 힘든 얘기하고 아까 말한 바리스타는 언제?)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 여기 프로그램 참가해볼래? 여기 총4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 해볼래요. 라고,

ㅁ 프로그램 설명 및 신청

기4.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거나. 네,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서 이런 거.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ㅁ 정서적지지

기1. 센터에서 하는 거 있으면 잘 할 수 있다고.
기8, 그냥 원래 집에만 있었거든요. 사람을 만났죠. 그때.
기9. 아무래도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ㅁ 정보 제공

기2.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찾아봐 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 주시고 힘든 일 말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네요?) 연락하면.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5. (이런 프로그램 소개 시켜주는 거 말고 다른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지원 말고?) 상담. 저와 관련된 상담이 아니라 친구가 인터넷을 하면서 만난 애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딱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6년 동안 왕따 당하고 남자, 여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손목 긋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죽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는 부모님이라서 도망치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혹시 상담 가능하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셨거든요.
기10.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담 선생님한테?) 검정고시 정도.

ㅁ 상담

기12. 다른 건 제가 필요한 게 적어서 딱히 없었는데 상담 자체를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건 이런 거고 필요하면 이것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담 외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담 멘토라고 할까 그런 위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다니면서 상담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는 본인을 어떻게 대했나요? (예 태도/ 말투/ 제스처/ 기타)

ㅁ 친절함

기1. 잘 대해주셨어요. (친절하게?) 네.
기2.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장난도 애들이랑 잘 치고 다 받아주시고.
기3. 엄청 좋음 (엄청 친절했다?) 네.

기5. 저는 정말 친절하세요. 여기 리서치연이면서 상담을 넘어올 때도 서○○ 선생님이 있고 경찰 분이 연결할 때도 서○○ 선생님이라서 저는 되게, 엄청 친절하세요.

기8. 친절하시던데. 웃으면서 말하니까.

기9. 친절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투도요.

기10. (이 분은 사례관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이 ○○씨를 대하는 태도가 친절했나요?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딱딱하고?) 되게 친근했어요.

기12.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계속 뭔가 더 필요하면 이거 외에도 필요하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았어요. 엄마 같았어요. 아가씨지만 엄마 같았어요. 뭔가 되게 따뜻했다고 할까요. 계속 감싸는 느낌이.

ㅁ 친근함

기4. 재밌었어요.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딱 청소년 그쪽으로 주만 하신 선생님 같이 재밌게 하십니다.

ㅁ 기타

기7. 네,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게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완전 할 말을 잃으신 것처럼. (도와줄 게 없다?) 네, 내가 해 줄게 없다고. (왜 도와줄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로 이런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로 상담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 확고하고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더 해 줄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저를 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되게 컸어요. 그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그때 선생님 행동 표정 말투 다 기억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할까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기6.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부록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ㅁ 좋음

기1. 좋은 것 같아요.

기2.. (그러면 처음부터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되게 친근감이 있거든요.

기3. 응답없음

ㅁ 보통

기4.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굳이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할 것만 주고받은 관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친밀하지만 내가 고민 상담을 하기까지 좀 더 모자란 관계, 세 번째는 고민 상담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크게 3개로 나눠보면 어디에 좀 더?) 2, 3번 경계가 애매한데 일단 1번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2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9.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특별히 친하게 지낸 선생님은 없으세요?) 친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는 것에서 좀 더 친한.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 만족

기1.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나누고? 아직 선생님이랑 편한 관계는 아닌 거예요?) 아니요. (편하세요?) 네. 엄청.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예요?) 네.

기2. (선생님과 관계는 많이 만족스러운 편인 거죠?) 네, 상담 종료하자고 그랬을 때도 왜요? 싫은데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센터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갈등이 있는 건 없는 편인가요?) 네.

기3. 응답없음

기4. (알겠습니다.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만족스러우세요?) 네.

기12. 그렇죠. 일단 자퇴한 애들이 확실한 목표가 있는 애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홧김에 아니면 왕따를 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퇴를 하겠지만 상처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일을 해도 대인기피증이 생긴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할 수 있게 마음을 연다고 할까요. 그런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친절하셔서.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 없음

기8. (전혀 아쉽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어요?) 네.

기9. 없어요.

기1. 응답없음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센터이용자

기1. 친구나 언니, 오빠. 네. 다른 지역 센터 선생님들도 만났고.

기8. 친구들이나?

□ 다른 선생님

기2. (혹시 그러면 아까 잠깐 친구들도 얘기했는데 상담선생님 말고 센터에서 만나는 분은 누구 누구 있

부록

어요?) 저는 상담선생님 밖에. (선생님 중에서는 상담선생님만 만나고?) 그러니까 얼굴들은 다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기5. (서○○선생님 말고 다른 분 만난 분은 있어요? 지원 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 선생님인데 지금은 창업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은 황○○ 선생님이라고. 지금 ○○에 남아 있는 친구는1명이고요. 연락은 되는데 대부분 ○○에 있어요. 다 예술이라서 미술과라서 ○○ 미술 쪽 관련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관리를 하면서 또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오, 저는 없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진 않아서.

ㅁ 없음

기4. (그러면 지원 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스타 선생님도 있고 거기서 아마 친구들이 있는지 바리스타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만난 친구들이나 멘토가 있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락하시거나?) 수업 이후로 거의 연락 안 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해요.

기3.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ㅁ 센터 내 만남

기1. (친구, 언니, 오빠들 같이 센터 이용하는 분들 다 센터에 와서 새롭게 사귀신 거죠?) 그렇죠. 다 알진 못해요.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 센터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졸업식에서도 만나고 어디 갈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센터끼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스키 캠프 작년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왔었어요.

기2. (그러면 캘리그라피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좀 친해진 친구들은 아까 캘리그라피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그 수업 들으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처음 만났는데 다 서로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말도 트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는 사이냐고.

기5. 이 분도 같이 그쪽 분인데. 네, 지원 센터인데 ○○선생님은 직접 중학교나 다른 학교 가서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상담,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기억해요.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많은 아이들이 5명 이상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좀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쪽에, 많이 알진 못해요.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ㅁ 좋음 기2. (그러면 지금도 주로 연락하신다고 하셨고 센터 밖에서도 만나세요?) 센터 밖에서도 시간 날 때 가끔씩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할 때도 한 번씩은 일주일에 1번씩은 꿈드림 밑에 문화의 집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노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애들이 친화력이 좋아서 서로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서로 다 착했고 말 걸면 원래 대부분 무시를 했었을 텐데. (그래요?) 제가 낯선 사람을 보면 대답을 잘 안하거든요. 제가 그런 타입이어서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봤던 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뭔가 밝은 표정을 하고 대화를 했던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제가 맏이라서 잘 챙겨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과자도 사서 나눠먹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친해지지 않았나 제가 사가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좋아하셨고. ㅁ 보통	기1. (그러면 그 친구, 언니, 오빠들이랑 관계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아직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기4. 몇 번 만나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안 만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ㅁ 좋지 않음 기8. 거리를 뒀어요. (왜요?) 나이 차이가. 기3. 응답없음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ㅁ 도움 제공 기5. 얘기를 하죠. 같은 창업인데 저는 창업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로 도와주셔서. (도와주신 건 만족스러우세요?) 네. (1점부터 5점까지 준다면? 4점, 너무 닦달하셔서. 빨리 빨리 하라고. 기1. 응답없음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ㅁ 연령 차이

기8. 거기 애들이 어려요. 어린 애들이 많이 놀아요. 고등학교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동갑인데 친해질 일이 없었고.

기1. 응답없음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예) 서비스/ 사례관리자/ 가족/ 친구/ 기타)

ㅁ 프로그램

기1.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 이유가 제일 크네요. 체험 할 수 있는 게?) 집에만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ㅁ 상담 선생님

기2.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좋아서?) 네.
기3. 선생님이 친근하고 친구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제가 고민 털어 놓을 수 있으니까.
기4. 재밌으니까.
기5. 자격증, 직업 체험 활동. 일단 선생님들과의 대화, 지원 받는 그러니까 돈을 지원 받는 건 아니고 상담 할 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자격증. (본인이 필요하고 마음에 들어요?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네. (그 둘만 놓고 봤을 때 ○○씨를 ○○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 하나는 사례 관리자 선생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중요해요? 몇 대 몇 정도로?) 서비스는 3이고 사례 관리자 쪽은 7 정도 줄 수 있어요. 가장 원하는 쪽은 일단 얘기할 공간, 상담.

기6. 해당사항 없음
기7. 해당사항 없음
기8. 해당사항 없음
기9. 해당사항 없음
기10. 해당사항 없음
기11. 해당사항 없음
기12. 해당사항 없음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언제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예정인가요?

ㅁ 계속 이용

기1. 제한 나이까지.
기2. 아마 24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나이 제한이죠?) 네.
기5. 저는 제가 끝날 때 까지 (거기서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네.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해당사항 없음
기7. 해당사항 없음
기8. 해당사항 없음
기9. 해당사항 없음
기10. 해당사항 없음
기11. 해당사항 없음
기12. 해당사항 없음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ㅁ 대학진학

기1.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 후에는 취업을 해야 겠죠.

ㅁ 모르겠음

기2. 아직 그 이상은.
기5. 딱히 계획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은.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해당사항 없음
기7. 해당사항 없음
기8. 해당사항 없음
기9. 해당사항 없음
기10. 해당사항 없음
기11. 해당사항 없음
기12. 해당사항 없음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어떤 도움일까요? 그 이유는?

ㅁ 학습지원

기2. (혹시 그러면 그 후에 다른 진로를 찾더라도 학업 쪽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진로를 찾는데 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진로는 캘리그라피 쪽도 선생님들이 생각해주고 계시니까.

ㅁ 취업지원

기5. 여러 가지 직업 체험 활동이나 자격증.

기1.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6. 해당사항 없음
기7. 해당사항 없음
기8. 해당사항 없음
기9. 해당사항 없음
기10. 해당사항 없음
기11. 해당사항 없음
기12.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얼마 후에 중단하였나요?

ㅁ 1회 이하 방문 후 중단

기8. (그러면 센터 이용을 하다가 이 질문이 되게 그렇긴 한데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얼마 후에 중단을 했나, 초기 상담을 하고 안 나가신 거잖아요?) 위 센터 이후로 원래 안 나갔는데 계속.
기11. (이용하고 얼마 만에 중단하셨는지 1번 가고 안 가셨죠?) 네.

ㅁ 한 달 이상

기9. (그러면 어쨌든 짧긴 했지만 2, 3개월 동안은 거의 3개월 정도 꾸준히 다니셨는데)

기1. 해당사항 없음
기2. 해당사항 없음
기3. 해당사항 없음
기4. 해당사항 없음
기5. 해당사항 없음
기6~7, 10, 12. 응답없음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어떤 부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중단하게 되었나요? (예) 개인적 이유(건강이상, 이사 등)/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기타)

ㅁ 센터의 소극적 태도

기6.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괜히 가서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나한테 유익한 게 없을 텐데 가서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아예 안 가셨고?) 생각 자체를 안했어요. 제 기억에 거기는 검정고시만 하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기8. 제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거기 꿈드림 센터 왜 연락 안 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 관련해서 이런 강의가 있는데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 이용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거기 가기가 좀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지나면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나서 싫어요. 앞에 공익 같은 애들이 앉아 있어요. 카운터에, 제가 피해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가겠어요. 평소에 갈 때도 그랬거든요. 다 쳐다보는 느낌, 나이든 애가 왜 오지? 그런 느낌, 거기서 옛날에 위스쿨에서도 무슨 ○○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때 게임 프로그래밍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강의 해줬거든요.

기1. 해당사항 없음
기2. 해당사항 없음
기3. 해당사항 없음
기4. 해당사항 없음
기5. 해당사항 없음
기7.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ㅁ 있음

기7. (이건 만약인데요. 센터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선생님마다 상황이 다른데 꿈드림센터에서 ○○씨한테 예를 들어 목공을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공을 배우거나 뭘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 것 있는지 와볼래? 라고 연락을 하셨으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갔죠.

기8. 알바 안할 때 왔으면 나갈 수 있죠. (시간이 될 때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을 때 이용을 했을?) 네.

기10. 들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다 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근처에도 없지 않아요? (혹시 본인이 자주는 못 가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꼭 갈 생각이 있다는 게 있나요?) 있죠. 일단 학교를 만 뒀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데 일단 수학여행이나 그런 여행 쪽 소풍 같은 거 체험 학습에 대해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가고 싶죠. 바로 가겠죠.

기1. 해당사항 없음
기2. 해당사항 없음
기3. 해당사항 없음
기4. 해당사항 없음
기5. 해당사항 없음
기6. 응답없음
기9.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기 위한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ㅁ 다양한 서비스

기1. 수업 내용 체계적으로. 일단 취업에 관한 거 자격증 같은 것도 여러 분야로 했으면 좋겠고 취업성 공패키지랑 비슷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일자리 소개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게 교육 같은 것도 또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이랑 연계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대입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대학교 가는 것도.

ㅁ 프로그램의 전문성

기3. 학교 그만 두면 검정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출신 대학생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강사.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바로 취업하는? (일자리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일자리 연결은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기9. 아무래도 만약에 수학이면 영어 같은 거 선생님들 만약에 멘토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어요.

기7. (이건 아마 그런 것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행사가 걸려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센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 꿈드림센터에서 특별히 받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꿈드림 센터가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에서도 꿈드림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반 강제적으로 보호관찰 때문에 받았어요. □□ 있기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 있다가 ●●에 있다가 다시 ○○으로 가서 ●●에 갔었거든요. ○○에 있다가 □□로 왔는데 ○○에 있다가 ●●으로 왔을 때 그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자퇴하고 그때 보호관찰 받으면서 보호관찰소에서 꿈드림으로 ●● ●●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옆에 청소년 센터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받았을 때 선생님이랑 만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적성 검사 이런 것도 했었고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에 있었을 때 조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물론 강제적으로 했지만 본인이 ●●에서 받았던 서비스 중에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던 거,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때 아마 제가 자퇴하고 바로 ●●으로 내려가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나이쯤 되려면 18살쯤 될 거잖아요. 분명히 18살이면 자기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일 텐데 배운 것도 많이 없을 거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나 그런 걸 검사를 하고 적성 테스트를 하고 그런 쪽으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자격증이나 정보를 제공을 해 주거나 교육을 해 주거나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12. 제가 가봤던 곳은 한 군데라서 거기는 따로 공간이 확실하지 않아요. 따로 건물 옆에 작은 건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한 층에 어떤 강의실을 애들 강의실로 만들면 오히려 시간 조율도 편할 거고 저녁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저녁에라도 올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동아리 애들이 쓰거나 그러면 못 쓰는 경우도 많아서 따로 공간을 만들고 그때 선생님들도 강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할 줄 알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것도 저것도 가르치는 식이라서 확실한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취업과 관련해서도 희망하는 게 많으면 강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ㅁ 다양한 홍보

기6. (어떤 고민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고민을 잘 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잘 들어주면. (어떤 걸 좀 더 잘 들어주면 될까요? 좀 더 편안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진짜 친구처럼 얘기하면 웃기도 하면서 들어주고. (앞으로 여기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한테 특히 취업을 했거나 구직을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걸 좀 더 해 주면 구직을 하려는 취업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이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고. (실제로 잘 모른다?)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두고 나서 그런 기관을 찾아보려고 할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그게 검색을 해보면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돈 내고 상담 받아야 하고 근데 저는 부담이 되니까. 그냥 광고네, 말아버리니까. (주로 검색을 해도 쉽지 않고 많이 알려져야 된다?) 네. (혹시 또 다른 게 있으세요?) 소식지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주면 읽어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걸로 가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같은 걸로 해서 올리면.

ㅁ 위치

기4.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지원 센터는 너무 높이 있습니다. 아니오, 위치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더 가까운?)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어려운?) 내려서 더 걸어야 되는데 엄청 산을.

ㅁ 없음

기2. 저는 만족해서.

ㅁ 잘 모르겠음

기5. 아니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8. 아니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학원은 제가 알아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견 미용이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학원이 여기 없어서 도움주기 어렵지 않을까요?

ㅁ 운영 시간

기10. (앞으로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를 이용하려면 언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을까요?) 주말이죠. (시간대는 오후?) 네. (토, 일요일 다 괜찮으세요?) 일하는 게 때에 따라서 다른데 된다고 그러면 토요일도 상관 없죠. (저녁 시간대에 이런 게 있다. 물론 거리 문제도 있겠지만.) 저녁 시간이면 거리가 있어도 제가 끌리면 가는 거죠.

기11.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때도 그렇고 저도 그 분밖에 못 봐서 인력 확충이 제일 필요한 거고 꿈드림센터가 각 구 별로 생기고 있고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이 쪼개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탈학교 청소년들은 계속 생기고 있고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외근을 나가셨는지 아직 정비 중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분밖에 안 계셨고 그 분도 어쨌든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제가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인지가 서로 잘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삐그덕해서 대기 시간이 길었었는데. 사실 학교 나와서 있으면 되게 재미 없고 지루하거든요. 저는 학교 나오면서 바로 집을 나와서 일을 해야 돼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노는 것도 지치고 노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옆에 친구들은 내 눈에는 별 거 없지만 뭔가 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도 불안해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제일 불안한 건 본인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청소년이 꿈드림에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이 딱히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고 집에서도 잘 지내고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 없으면 학교 밖 센터에서 굴리는 밴드나 문화 모임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것도 막 돌려 가면서 시켜가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뭐가 마음에 들어? 그런 걸 계속 해봐라, 이런 건 좋은 것 같거든요. 바로 취업 연계해서 이런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진짜 탈 가정도 같이 한 상황이고 월세도 부담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교육 받을 때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당이 나오잖아요.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없게 교육 수당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있으면서 사실 돈은 눈을 반짝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나. (얼마 정도면 될까요?) 주거비를 제외하고 저는 적어도 3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숙사를 제외하고 3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월세가 실질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걸 지원해 주고 생활비로 따로 30만 원을 주거나 저는 적어도 이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60만 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껴서 써도 그것보다 적게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교육 수당을 주고 취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건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만큼 많이 주는 거죠. 이건 네가 이걸 만약에 딱 몇 개월, 교육 과정도 커리큘럼이 짜여 있을 거니까 바리스타 교육이라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네가 2개월 동안 하면 교육 수당을 얼마큼 받을 수 있고 2개월 끝나고 적어도 1개월 안에 카페나 이런 데 취직은 된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상담과 선생님이랑 만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 훈련원에 같이 가고 중간에 갔을 때 교육 훈련 받는 건 어떠니 상담이나 수료할 때도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꽃다발 하나 주고 수고했다.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취직이 될 거니까 네가 뭐가 필요한지 같이 알아보고 취직을 하면 취직 했다고 바리스타라면 앞치마 하나 선물해 주던지 아니면 커피콩 같은 거 선물을 해 주든지 일을 하

는데 필요한 걸 선물을 해 주던지 그런 상담자랑 지속적인 만남이 신뢰를 쌓는 거고 그러면서 안정을 찾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기7. 응답없음

질문 : 도움 받기를 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나요?

□ 있음 기2. 센터는 계속 나갈 예정이에요. 기9. (그러면 혹시 추후에 다시 어쨌든 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이쯤 되면 다시 취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생활적인 면이나 그럴 때 센터 아까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용 못한다.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다시 방문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기11. 사실 심리 상담은 저도 연락이 오고 나서 작년에 갔었지 생각이 나서 뭐 더라 그랬었는데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갈까 싶은 거죠. 올해 꿈드림도 연 나이 24세가 끝이잖아요. 반년 남았는데 그 동안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심리상담은 평소에도 계속 자비로라도 상담 말고 정신과 병원에 가볼까 싶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 때문에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죠. **□ 없음** 기1. 방문해도 딱히 24살 넘어가면. 그렇기 보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기3. 이 공부를 안 했으면 하겠죠. 근데 이 공부는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인강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합격하고 나서 그때도 이용할 생각이 있어요?) 경찰되고 나면 안할 거 같은데요. 기8. ○○이요? ○○ 혼자 다니고 싶어도 귀찮아서. 어차피 똑같은 ○○이면. ●●에 학원 있는 건 도와주지 않을까요? 사람 미용학원은 있으니까 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줄 텐데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교통비, 교통비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비 지원으로 하면 어차피 저 혼자 하는 거나 거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혼자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기4. 응답없음 기5.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친구에게 추천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 있음 기1. 네,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자퇴를 했다면 소개를 했을 거예요. 크게 불만이 없어서. 기4. 있습니다.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기5. (있으면 추천할까요?) 네. **□ 잘 모르겠음** 기9. 학교를 그만 둔 친구한테요?	기2. 응답없음 기3. 응답없음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응답없음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부록

질문 : 추천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기1. 친구가 많이 없어서. 기2.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라서. 기3. 응답없음 기4. 응답없음 기5. 학교를 그만 둔 아이는 없어서 그다지. 기6. 응답없음 기7. 응답없음 기8. 좋은 거 하면. 직업. 취업 연계 시켜주는 거.	기8. 친구가 아무도 자퇴를 안했어요. 기9.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은 제가 말해도 안 듣는 친구들밖에 없어서요. 없었던 것 같아요. 기10. 응답없음 기11. 응답없음 기12. 응답없음

4.2. 신규패널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곳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 모름

신1. (작년에 꿈드림센터 가기 전에 꿈드림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신2. (숙려제하기 전에 꿈드림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들어본 적은 있었나요?) 아니오, 처음 알았어요.

신3. (꿈드림센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학교에서 소개를 했을 때네요?) 네.

신5. (여기 전화 받기 전에 혹시 꿈드림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신6. 아니오, 아예 몰랐는데.

신7. 그건 친구 소개로. 친구가 얘기해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 전에는 센터에 대해서 전혀 몰랐나요?)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특별 교육하는 데라고.

□ 앎

신8.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이 가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 친구를 통해

신1.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저보다 먼저 학교를 나왔고 저는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었는데 자기 동네에 검정고시 공부 무료로 해 주는 곳 있다고,

신7. 친구가 자기 특별 교육으로 거기 가서 센터에 가서 교육 받았다고.

신8. (친구들을 통해서 가셨고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학교 밖 지원 센터, 꿈드림 센터가 있는 걸 그 때 아신 거죠?) 네.

□ 학교 선생님을 통해

신2. (그러면 이걸 처음 알려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학교 상담 선생님.

신3.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

신5. 여름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자퇴하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며칠 이따가 자퇴 숙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학교에서 거기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 센터 선생님을 통해

신4. 자퇴하고 직장을 잡고 한 달 뒤인 2015년 8월 쯤에 센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5.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간에 꿈드림 센터에서 연락 와서.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 학업 중단 직후 – 6개월

신1. 학교를 그만 두고 거의 바로

신5. 작년 1월인가 2월 겨울에.

신6. 9월 첫 주였던 것 같아요.
신8. 자퇴하고 바로 3월부터.

ㅁ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신2. 학업 중단 전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ㅁ 유급 기간 중

신3. 유급 기간 중

ㅁ 학업 중단 6개월 - 1년 후

신4. 2015년도 7월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 갔을 거예요. 2016년 3월에 일을 관뒀으니까.
신7. 2016년 2월.
신8. 자퇴하고 바로 3월부터.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동기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기대, 받고싶었던 서비스 등 확인)

ㅁ 취업

신1. 저는 취업만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ㅁ 기대 없음

신2. 딱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상담하니까

ㅁ 학력

신3. 상담 받으면서 그때 가장 기억 남는 말이 학교를 네가 안 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전문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신4. 검정고시를 봐야 할 것 같아서. 고졸이라는 학력이 필요하니까.
신7. 그리고 거기는 학원 무료니까. (검정고시 공부가 무료니까?) 자격증 딸 때도 무료고 선생님들이 다 알아봐주신다고 하고.

ㅁ 상담

신5. 일단 상담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신6. 자퇴 숙려 상담 받으러 가라고 그랬을 때 꿈드림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그냥 상담 받으러 가나 보다.
신8. 심리상담도 있었고요. 특별지원, 일자리, 검정고시, 대학진학정보, 건강검진, 심리상담도 있는데요. 관계 문제도 있었고.)

ㅁ 경제적 지원

신7.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거요. 제 친구의 친구가 거기를 다녔는데 잘 나가면 버스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준다고.
신8. (정보제공을 희망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 세 번째는 진로 상담) 제가 썼는데 기억이 안나요.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나요?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

ㅁ 취업 지원

신1. (그 당시 ○○씨가 원했던 게 취업지원이랑)
신2.(처음 방문하셨을 때 취업 지원이랑)
신4. (센터 담당 선생님이 해 주신 걸 보면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랑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직업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취업 상담,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원하셨다고?) 다 해 주셨어요.
신5. (○○ 씨가 요청을 했던 게 방금 말씀해 주신 상담이랑 검정고시랑 대입 진학 정보, 관계 관련한 상담도 기억하세요? 이거랑 직업 탐색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크게 검정고시랑 진로 진학 그 다음에 관계, 여기 진로 진학에 직업이 포함되네요.)

ㅁ 건강 지원

신1. (건강지원이랑)
신3. (건강검진, 세 가지인데)

ㅁ 경제적 지원

신1. (경제적 지원 정도로 쓰여 있었는데)
신7. 버스비 지원
신8. (그러면 불만은 특별히 없었고 혹시 본인은 원했는데 제공이 어려웠던 서비스는 없었어요? 체크리스트에 워낙 많은 게 적혀 있어서, 혹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받은 서비스가 있었나요?) 네, 저희 센터가 한달에 1번씩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ㅁ 인턴십 프로그램

신2. (인턴십 프로그램 요청했다고 하시던데 기억 나세요?) 네.

ㅁ 검정고시

신3. (검정고시 요청하셨고)
신4. 검정고시 준비
신5. 검정고시 준비
신6.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었고 그거 말고 저는 학교를 나온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충족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7. 검정고시 준비
신8. 검정고시 준비하던 거 대입 진학 정보.

ㅁ 자격증

신7.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

ㅁ 쉼터 정보

신3.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숙소 정보랑)

ㅁ 상담

신5. 관계 상담
신8. (진로 상담이나 이런 적성 파악도 있는데 진학 상담도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건.. (그냥 취업 상담?) 네.

ㅁ 강의

신8. (문화, 예술, 악기, 그림 그리기는 본인이 희망하셨나요? 받은 적 있으세요?) 네, 미술 수업도 있고.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체서비스/ 외부 서비스 연계 여부)
→ 체크리스트와 대조하면서 진행

ㅁ 자체 서비스

신4. (상담은 주기적으로 받으셨어요?) 아니오, 거의 한 달에 1번씩 3, 40분 정도 가끔 받았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자주 받았어요.
신5. (상담은 주기적으로 받으셨나요?} 제가 받고 싶다고 할 때 그러면 다 해 주셨어요.
신6. 봉사 동아리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만들어졌어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같은 거 만들고 개선할 때 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영 아닌 게 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생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입장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도출해내고 꿈드림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신7. 센터에 있으면 이제 곧 접수 기간이니까 준비하라고. 준비는 뭐하고 뭘 챙겨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신8. (이건 어떻게?) 그냥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 미술이 있어서 가서. (그냥 있어서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니오, 가서 듣고.

ㅁ 외부 서비스 연계

신1.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취업 직업 학교인가를 갔어요.
신3. (건강검진은 먼저 요청을 하셨나요?) 건강검

진하는 게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하셔서 한다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죠?) 네. 신6. 2015년 12월에 드림 날다. 라고 처음으로	○○시 안에 있는 모든 꿈드림 센터가 연합해서 공연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 같이 준비하고 참여하고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제공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만족 신3. 네. 선생님들이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개인에 조금씩 맞춰서 얘기해 주시고 신4.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실제로 저번주에도 선생님께 검정고시 원서 갖다 줘서 이것 좀 해달라고 **□ 보통** 신1. 100% 중에 50%	**□ (이유)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성 고려 부족** 신1. 거기 가는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고 오는 거면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수업은 잘 이해를 시켜주고 어떤 선생님은 이해를 못해도 넘어가는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하기 싫어서... 이해도 안 되니까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안 오시고, 무슨 일 있어서 안 오고, 가면 아무도 없고 그런 적도 있어서.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 신1.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신4. 아니오,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가죠. 시간도 안 맞고 일 안 하기 전에는 귀찮아서. 신5. 무슨 공예 같은 건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6. 취업 준비는 그때 입장으로는 제가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취업 준비는 필요한 애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프로그램 참여시켜주면서 하거든요. 근데 면접은 많이 그 면접의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 정보 제공 부족** 신1.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개인사정** 신3.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생활할 수 있는지. 처음에 집에서 엄마가 술을 자꾸 드시니까 그걸로 싸우다가 아빠한테 조금만 참고 성인 되면 혼자 나가서 살라고 약속 받아서, 조금만 참으면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 잘 모르겠음** 신2. 기억이 잘. 신6. 잘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기대를 워낙 많이 해서.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받고 싶었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았나요?

□ 취업지원

신1. 검정고시 준비. 돈보스코 학교
신4. 취업 정보 지원, 일자리 알선
신6. 직업탐색
신7.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취득

□ 학업지원

신3. 검정고시 준비
신4. 검정고시 준비
신5. 검정고시 준비
신6. 검정고시 준비
신7. 검정고시 준비

□ 건강지원

신3. 건강검진

□ 상담

신4. 심리상담
신5. 관계상담, 직업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신6. 진로상담
신8. 진로상담

□ 활동

신2. 인턴십이 아마 (제가 센터 안에서 했던) 봉사활동이랑 연관된 걸 거예요. 센터에서 다락지기라고 8,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턴처럼 프로그램 짜고 진행하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 봉사 비슷한 거였는데 살짝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걸 센터 학생들한테 진행하는 거예요.
신6. 소풍 및 영화관람, 스포츠맨십캠프, 드림날다(행사), 봉사활동, 학교 밖 대체 청소년단

□ 경제적 지원

신7. 버스비 지원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ㅁ 여행

신1. ○○인가, 센터 선생님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했는데

ㅁ 공간

신1. 수업하는 방이 있고 상담실도 있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방이 좀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ㅁ 검정고시

신2. 이 센터를 방문하고 선생님이 검정고시 수업이 무료로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1월부터 4월까지.

ㅁ 보조 교사 활동

신2. 센터 안에 친구랑 해서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간단하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얘기도 좀 해주고, 원래 다른 선생님들 대신 해 주시다가 자리가 비어서. 그냥 제가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서 하게 됐고, 인턴이다 보니까 작게나마 제가 스스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어서.

ㅁ 건강검진

신2. (센터에서 다른 권유 받은 게 있나요?) 건강검진.
신8. (건강 이런 것도 들은 적 있어요?) 네, 센터에서 선생님.

ㅁ 해밀

신3. (선생님이 권하신 다른 게 있어요?) 해밀.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제공되었다면) 그 서비스는 누가 어떤 이유로 추천한 것인가요?

ㅁ 센터 선생님

신2. 클라이밍, 원예 수업 등 되게 "이렇게 해봐라"는 식으로 제안 받은 건 많은데
신3. 박○○ 선생님. 그냥 바리스타 같은 것도 배우고, 제과제빵도 하고 이것 저것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족들한테 말했더니 좋다고 빨리 가서 하라고 했어요.
신8. (알겠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러우셨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한 건?) 인턴십. (어떤 인턴십?) 저희 센터에서 누굴 저희 알바식으로 할 수 있게 자리를.

ㅁ 강제성(억지로 참여)

신1. ○○인가, 센터 선생님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했는데 (애들이) 안 간다고 하면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억지로 데리고 가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데려가서 (참여하긴 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센터 안에서도 1박 2일로 자고 저녁해 먹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권유받아서 받으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ㅁ 만족

신2. 네, 혼자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가서 한 번에 이것 저것 다 하는 것도 편했었고 그런 게 좋았죠.

신8. (그러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웠어요?) 네. (검정고시 강의 듣는 것들은 만족하세요?) 네. (불만스럽거나?) 잘 되어 있어서. (강사의 질도 충분히 괜찮았다?) 네.

ㅁ 불만족

신1.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했던 거라서. 제가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성격이 좀 그랬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말다툼 한 적도 있는데, 처음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못한다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건데 왜 그러냐고.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어떤 할머니 분들도 있어서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짝을 지어서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하고 짝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질문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받았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질문)
– 다른 서비스를 권유 받아서 받으신 서비스가 있나요?
– (불만족스러웠다면)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ㅁ 프로그램의 어려움

신3. 클라이밍, 좀 많이 어려워서 제대로 하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1회 시간/ 주 활동/ 도움/ 태도/ 관계만족도)

ㅁ 매일

신3. 센터에 나가면 거의 매일 계셨어요.

ㅁ 한 달에 3–4회

신1. 한 달에 1번씩은 아니고 한 달에 3, 4번 정도

신2. 자주 만날 때는 일주일에 1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신8. 일주일에 1번. (매일 가세요?) 시간이 있으면 계속 갔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ㅁ 한 달에 5회 이상

신7. 최근에는 한 달에 5번, 제가 잘 안 나가서

ㅁ 주기적이지 않음

신4. 지정된 건 없고 그 세 분 중에 원○○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신6. 그거는 제가 센터는 자주 가지만 그런 거는 거의 한두 번이고 원래 선생님이 원하면 계속 상담을 다른 정기적인 상담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1회 만날 때, 얼마 정도 만났나요? (시간)

□ 30분 내외

신3. 30분 정도 주제 바뀌면 계속 말하고
신4. 3, 40분 만나요. 제가 급하면 10분 있다 갈 때도 있고

□ 1시간 내외

신1. 40분 아니면 1시간, 많을 때 1시간
신5. 1시간 이내
신8. 1시간 정도. (어떨 때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길어질 때도 있고?) 네.

□ 1시간 이상

신6. 1,2시간

□ 잘 모르겠음

신7. 잘 모르겠어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와 만나서 주로 무엇을 했나요?

□ 상담

신1. 종이 같은 걸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림 막 여러 가지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답하고 하루 일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신3.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얘기로 맞춰주신 것도 있고, 가족 불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걸로 건강검진 얘기도 하고
신4. 뭐하고 지내니, 그냥 사적인 얘기
신5. 요즈음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좀 길게 앞으로 몇 월쯤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청소년단 활동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요즈음은 뭐 하는지 힘든 건 없는지 뭐 그런 등등.
신6. 그냥 요즈음에는 무슨 일 있냐고 그런 식으로.
신8. 저는 보통 진로 상담, 대학 그런.

□ 활동

신2. 그냥 안 봤던 사이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드 게임도 같이 하고
신6. 프로그램, 수업

□ 정보 제공

프로그램 있으면 말해주고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생각의 전환

신1. 저는 그 상담을 하고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어서 할 때는 싫었는데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심리 상담을 2번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그 친구에게) 미안해져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너는 상담 안 했으면 미안한 마음 안 들었을 거라고, (결과적으로) 상담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 적응

신2. 여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러 다니는 것도, 어디 시험 끝나고 가자는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셨고, 친해질 수 있게

□ 수용 받음

신3. 그냥 대화하는 거 자체
신5. 되게 다 친절하셔서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신6. 너무 넘치는데 너무 좋으세요. 상담하시면서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좋지만 상담할 때 대화를 할 때 뭔가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배우고 상담할 때 제가 되게 당황스럽게 했을 만도 한데 그걸 대처하시는 것도 되게 그런 것도 배우고 진짜 어려운 거 있으면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신7. 사고 안 치게 선생님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ㅁ 정보 제공

신4.검정고시 프로그램이나 취업정보
신8.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보면 항상 상담 끝나고 다음 상담하기 전까지 선생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시는 게 좋았어요.

ㅁ 기억 안남

신8. (만나며 주로 상담하시고 본인한테 상담 외에 특별히 도움 주는 건 있나요? 선생님이 다로 주는 건 없고요? 처음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원이나 처음에 받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기억이 안나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는 본인을 어떻게 대했나요? (예 태도/ 말투/ 제스처/ 기타)

ㅁ 공감적이고 수용적

신1. 되게 잘 해 주셨고,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ㅁ 편하게(언니/ 누나/ 친구처럼)

신2. 많이 편하게 대해주시는데 조금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내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는 누나처럼 대해주시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대해주시기도 하고.
신3.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신5. 친구처럼 편하게 해 주셨어요.

ㅁ 다정

신6. 마인드가 다른 건지 학교는 엇나가는 애가 있으면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이면 여기는 일단 좀 들으세요. 많이 듣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랬겠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좀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신7. 타이르듯이.
신8. 굉장히 친절하셨고 말투도 되게 학생마다 담당이 다른데 잘 해주셨어요. 담당하고 있는 학생한테. (믿음이 있으세요?) 네. (어떤 믿음이 있는지?) 선생님 얘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은 잘 모르겠어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ㅁ 좋음

신1. (그러면 관계도 나쁘지 않았겠네요?) 네.
신3. (선생님이랑 관계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신4.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신6. (그러면 선생님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신7. 선생님들이랑 대부분 다 친해요. 장난도 치면 받아주시고.
신8.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ㅁ 보통

신2. 나쁘진 않아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나요?
–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ㅁ 편안한 분위기

신2. 자퇴한 학생들 많이 오고 하니까 딱딱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대해주는 거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맞아주실 때 생각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ㅁ 또래친구

신1. 또래 남자 친구, 다른 애들(못 어울리는 친구들)
신2.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봉사활동 할 때 만났던 친구들
신3. 또래 친구들
신5. 검정고시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나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만난 또래들
신6. 또래 친구들
신7. 친구들

ㅁ 다른 선생님

신5. 검정고시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신6. 네,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소통팀에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 프로그램했던 것 중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었거든요. 1급, 그거 할 때 만났던 선생님하고도 종종 잘 지내냐, 이렇게 하시고.
신7. 검정고시 선생님

ㅁ 없음

신4. 없어요. 만난 적은 있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냥 거기 있는 애들이랑도 안 맞더라고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ㅁ 센터 내 만남

신1.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꿈드림을 이용했다고 하고, 우리랑 동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걸거나 그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서 친해지고.
신2. 검정고시
신6. 자기도 꿈드림에서 친구가 없대요. 저는 그런 애들 보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저는 모르는 애들한테도 가서 말 걸고 안녕, 반가워. 이런 스타일이라서 첫날부터 끝까지 계속 챙겨줬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에 우리가 조를 짜서 활동을 하는데 ○○에서 혼자 온 친구가 우리 조랑도 정이 많이 들고 친해진 상태였어요. 낯도 가리는 애라서 근데 갑자기 조를 다시 나눈다는 거예요.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다른 센터에서 여러 명이서 온 애들이 선생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애들이랑 짝이 안 됐다고 불만을 말해서

걔네들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아니까 화가 나죠. 자기는 혼자 와서 겨우 친해졌는데 이걸 다 갈라 놓는다고 하니까 애가 밤새 막 울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달래주고 저도 옆에 계속 있어서 그때 3일 내내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신7. 가기 전부터 알던 애들도 있고..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만난 사람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 그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ㅁ 좋음

신1. 다 친하고 괜찮았어요.
신3. 남자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동갑 애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ㅁ 활동

신2. 마음이 잘 맞았던 게 컸던 것 같고, 검정고시 끝나고 글램핑이라고 1박2일로 놀러 갔던 게 있었는데 그때 같은 방 쓰고 그러면서.

ㅁ 정보 제공

신5. 제가 원하면 해 주셨어요. 언니처럼 고민 다 들어주시고. (수업 시간 외에도?) 네, 따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 사례관리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친구 / 연계 기관 교사/ 멘토/ 기타)
–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ㅁ 친하지 않음

신5. 있는데 별로 나오는 애들이 없어서. 그리고 다 남자라서 친해지고 싶지 않고.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예 서비스/ 사례관리자/ 가족/ 친구/ 기타)

ㅁ 자율성

신1. 자유가 있으니까 계속 가게 된 것 같아요.

신6. 요즈음은 거의 인턴 업무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가족이랑 같이 써서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가족이 쓰고 있으면 꿈드림에 가서 인강 들으러 가기도 하고 저는 항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ㅁ 선생님 및 분위기

신7. 선생님들도 되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선생님들이 먼저 장난도 쳐주시고.

신8. 선생님 관계도 있고.

ㅁ 서비스 제공

신8.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언제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예정인가요?

ㅁ 계속 이용

신1. 별 일이 없으면 학교 졸업하고 성인 돼서도 서울에 계속 살면 간간이 가야죠.

신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학교 밖 청소년이어야 혹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될랑말랑하는 청소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학교 밖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닌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학교 다녔던 애들이 스승의 날에 모교 찾아가듯이 그렇게 종종 들르긴 할 것 같아요.

신8. 대학 다니고 나서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오고.

ㅁ 모르겠음

신7. 검정고시 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ㅁ 취업

신1.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본 거는 아빠가 일하는 데서 저도 아빠를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7. 대학 간호학과

ㅁ 잘 모르겠음

신8. (대학 가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직은 잘.

질문 : (계속 이용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어떤 도움일까요? 그 이유는?

ㅁ 학습지원

신1. 근데 도움이라고 해도 공무원 같은 거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알려주고 그냥 검정고시처럼 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ㅁ **정보제공** 신7. 네. 저는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면 그런 정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질문 : (이용 완료자 대상) 어떤 부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했었나요? (예 서비스/ 사례관리자/ 가족/ 친구/ 기타)

ㅁ **친구** 신2. 나중에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하자 저런 프로그램하자고 얼떨결에 계속 붙어 있게 됐어요. ㅁ **검정고시(프로그램)**	신2. 그냥 계속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센터에서 검정고시만 하려고 했었는데 솔깃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하게 됐고. 신3. 학교를 안 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전문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중졸먼저 해야 된다 신4. 학과 때문에

질문 : (이용 완료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의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나요?

ㅁ **성취** 신2. (목표 한 거를 이루었나요?) 네. 신3. (성취했어요?) 네.	

질문 : (이용 완료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의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나요?
–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ㅁ **검정고시 합격** 신2. 검정고시 합격한 거 신3. 검정고시 합격한 거	

질문 : (이용 완료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후에 본인의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나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목표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ㅁ **적응 지원**	신2. 자퇴하고 나서 따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센터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친구들도 사

귈 수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ㅁ 정보 제공	신3. 많이 받았다고 느껴요. 15년도에 시험 풀어서 알려주시거나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얼마 후에 중단하였나요?

ㅁ 6개월 이하 신5. 2016년 4월부터 8월, 검정고시 합격 후 중단.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어떤 부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중단하게 되었나요? (예 개인적 이유(건강이상, 이사 등)/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기타)

ㅁ 개인적 이유 신5. 알바 때문에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돼서	

질문 : (이용 중단자 대상)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ㅁ 이용의향 없음 신5. 아니오, 지금 제가 바빠서. 선생님들께서 다 바뀌셔서 별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질문 :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기 위한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ㅁ 이용자 증가 신1. 저는 별로 없는데, 다른 데 비하면 애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ㅁ 대상 맞춤형 지원 신2. 미래의 꿈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그 꿈에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ㅁ 대상자 요구 사항 반영 신3. 프로그램 학생들 10명 정도 있으면 거기서 4명 정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1번이라도. 신8. 저희 센터는 없는 것 같은데 ○○에 있는 센터마다 가끔씩 회의를 하는데 센터에 대해서,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끼리?) 네, 선생님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나요? 청소년들끼리?) 저희 센터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센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불만 사항이.)

ㅁ 없음

신4. 제가 많이 나갔더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끔씩 나갔고 선생님들도 워낙 좋은 분들이고 잘 챙겨주셨고 학생들과는 친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어디가 개선돼야 되는지 없는 것 같은데

신5.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센터가 바뀌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신7.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더 좋아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이 거의 저희한테 맞춰주세요.

ㅁ 홍보 부족

신6. 일단 홍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고.

질문 :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나요?

ㅁ 강제성

신4. 부르면 가겠죠. 자발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친구에게 추천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ㅁ 있음

신2. 교회에서도 작게 대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대안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셔서 검정고시 수업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말씀

신3. 신청하려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같이 운동했었던 친구인데 이번에 그만두고 학교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말하길래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신6. 네. 일단 제가 자퇴했다는 걸 제가 다녔던 전 교생이 알아요. 저랑 알고 있는 애들의 친구의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정○○이라는 자퇴생을. 어쨌든 자퇴를 하거나 자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일단 네가 자퇴를 생각하고 있으면 자퇴숙려상담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보고 자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꿈드림이 있으니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상담해보길 바래,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정말 자퇴했는데 나중에 연락한 애들은 만나자고 그러고 직접 꿈드림에 데리고 가죠..

신7, 네, 옆 동네에 사는 애인데 이번에 걔도 자퇴했어요. 작년에 자퇴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선생님들도 잘 해 주시고 이것 저것 프로그램도 할 의향 있냐고 물어주시고 좋아서.

신8. (혹시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센터를 추천하시겠어요?) 네. (이유가 있다면?) 검정고시 보는데 도움도 되고 상담 받고 싶을 때마다 받을 수 있고 지원도 해주시고.

ㅁ 없음

질문 : 추천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ㅁ 대상자 없음

신1. 대상이 없었어요.

4.3. 사례관리자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 한 달 평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 10명 이상–30명 미만

사9. 20명에서 25명 정도 계속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복교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두절 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수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는데 애들이 검정고시 기간이 되면 적극성을 보이죠. 어쨌든 자기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검정고시 합격이니까 그때가 되면 선생님, 교재 받을 수 있어요? 수업 들을 수 있어요? 더 자주 오긴 하는데 발굴 자체가 어느 때 많이 되고 적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30명 이상–50명 미만

사2. 한 달 평균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학업 지원 부분에서 검정고시 관련된 게 주로 많은데 일단 1주 기준으로 현재 센터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35명 정도 되고. (한 주에 방문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35명?) 네, 나머지 부분은 전체 한 달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변동이 있어요. 제가 집단 프로그램이나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달라지고요.

사1. 그러면 40명 정도.

사6.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될까요? 어쨌든 자주 방문하고 저희가 접촉을 자주하는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전화 관리도 하는 학생들까지) 그 정도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35,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50명 이상–70명 미만

사8. 한 달 평균이요? 그러면 실적에 등록하는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기존 데이터에 등록돼 있는 토탈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실제로 관리하시는, 센터 내에서) 30명에서 40명. (이 학생들이 실제로 센터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죠?) 네. (그러면 전화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런 학생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정도.

□ 70명 이상

사3. 지금 관리하는 애들만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5. 저희는 종결하기 전까지 계속 1년 내내 관리하거든요. 물론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는 정해져 있어요.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화나 유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하면 많이 늘어나죠. (센터에 실제로 방문하는 학생은 10명?) 10명에서 15명 정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렇죠. 검정고시 반이나 아니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오거나 상담하는 친구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유선 관리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담당하는 친구 말고도 많은데 50명 넘죠. 계속 발생되는 대로 등록하고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아이가 ○○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 저희가 관할을 해요. □□에 꿈드림 센터가 없기 때문에 ○○는 특별하게 □□ 쪽도 관리하는데 □□ 아이들이 여기로 직접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해요. 교재를 지원하거나 일회성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때는 그 친구들까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지역치고 인원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보지는 않았는데 50명에서 100명은 안 되는데 조금 늘어서 6,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7.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백여명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연계된 아이들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 센터에 비해서 적긴 해요. 발굴된 애들은 이제 구 센터로 보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내려 보내는?) 그렇죠. 예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생기기 전엔 ○○은 2014년도 ○○구라는 센터 하나가 더 추가됐고 그 이 후에 15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구에 생겨서 ○○에 9개 있는데 그 전에는 모든 지역을 하다가 각 구로 만약에 아이가 ●●구에 살면 그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작년도 있어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내기 전에는 몇 명 정도 되셨어요?) 되게 많

다고 들었는데 저도 꺾일 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4,500명 정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10. 작년 기준으로 560명이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친구들은 270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280명 그 사람들은 작년부터 건강검진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그 사람들 등록한 인원도 그만큼 돼요.

사4.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 한 달 평균 본인이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 0명 이상–20명 미만

사6.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9. 저희가 딱 잘라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제가 케어하는 친구들은 15명 정도.

□ 20명 이상–40명 미만

사3. 그렇죠. 이 중에 학습 지원 받는 애들도 있었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했을 때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전화도 해요. 방문 내방도 같이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애들이 각자 관리하는 애들이 35명 가까이 될 거예요.

사5. 제가 주로 관리하는 친구는 30명 정도 되는 거죠. 나눠서.

사7. 제가 담당하는 아이가 3,40 정도 되지 않을까

사8. 거기서 절반이요.

□ 40명 이상–60명 미만

사10. 지금 제가 사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54명.

□ 60명 이상

사1. 저희가 연 사례가 280명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못해도 3명이면 70명 정도는 못해도 한 사람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연간 90명?) 네.

사2.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 인력 수는?

□ 1명 이상–2명 이하

사9. 저랑 2명요.

□ 3명 이상–4명 이하

사2. 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 있고요. 팀장님이 따로 한 분 계셔요. (그러면 다섯 분 계시는 건가요?) 네.

사5. 현재 3명이에요.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올해 한 사람이 늘어나서 3명입니다.

사6.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네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다 꿈드림센터 지원하는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한 분은 소속이 ○○여성 인턴이라고 ○○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복무관리도 저희가 안하고 지자체에서 바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자체는 꿈드림직원은 3명이고 센터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고?) 계시는데 겸직이세요.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겸직이고 여기 실무자들은 저 포함해서 3명인 거죠.

사8. 예산을 받고 근무하는? 아니면 겸직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겸직 포함해서 몇 명인가요?) 4명이고요. 팀원 2명에 팀장, 소장은 겸직이고요.

사10. 지금 현재 센터장 님 한 분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직원이 정규직 3명, 계약직 1명이에요.

□ 5명 이상 사7. 팀장님께서 포함해서 6명이요.	사1.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근무자의 업무 유형별 경력은?

□ 1년 미만

사5. 학업 복귀하신 분은 저랑 똑같아요. (2년 4개월 정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자기계발하시는 분은 올해 처음 TO가 생겨서 7개월 차 됐죠.

사7. 지금 이번에 새로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1년 정도 이전 경력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가 첫 직장이고 나머지 한 분은 저보다 연차가 높으세요.

사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전담 인력 선생님은 4명 계신데 그 중에서 두 분은 겸직을 하고 두 분께서 팀원으로 계신다고 하셨고 선생님 말고 따로 학업 건강지원 하고 계신 선생님은 이 업무를 하신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경력이 없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희가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저 말고 학업 파트를 맡은 선생님이 올해 1월 1일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이전에 2016년 12월 31일로 한 분이 퇴사하시고 2017년 1월 1일에 다시 뽑아서 근무하시는데 그 전에 청소년 관련 경력은 6개월 정도해야 사례관리는 아니었고요.

□ 1년 이상–3년 미만

사2. 횟수로 따지면 2년인데 정확한 기간으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실무자 4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1명의 선생님은 20대 후반이고 나머지 분들은 40대 초반이거든요. 경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 3년 이상–5년 미만

사1. (여기가 혹시 직장 처음인가요?)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이직한 건데 그 전에는 청소년 분야 쪽이 아니라서 상담 쪽을 안 했어요. 상담 쪽에서 일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입사가 2013년 10월 입사거든요. (4년 조금 안 되신 거네요?) 네. 학업 지원 지금 이건 대표적인 업무만 말씀을 드렸고요. 학업 지원하시는 선생님은... 인터뷰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으면 준비를 했었을 텐데 2015년.. 월도 알려드려야 되나요? (혹시 자기계발 선생님은?) 작년 11월에 들어오셨어요. (2016년 11월이요?) 네.

사3. 지금 3월이니까 학교 밖 사업만 지금 7월이니까 2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청소년 동반자 했었어요. 그것도 2년 넘게 했거든요. 이 센터에서 2년 넘게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금 진로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 오신지 얼마 안 돼요. 작년 10월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처음이고 전공도 그 선생님 사회복지고 되게 젊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모르셔서 일단 주로 했었던 것에 이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걸 다시 제가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사6. 우리 선생님들은 2년, 여기 센터가 생기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약간 전일제로 일을 하시진 않았지만 파트 타임으로 하셔서 경력이 3년 정도 되시고 나머지 한 분은 경력이 없고 여기가 첫 직장인 거예요.

□ 5년 이상

사7. 12년도에 입사하셔서 그 사이에 잠깐 그만둔 시기도 있지만 저보다 연차가 높은 분이 계시고 팀장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센터가 되기 전에 상담복지센터 사업 있을 때 시범 운영했을 때부터 계셨어요.

사9.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계시는데 두 분은 수련관 겸직하고 계세요. 수련관 관장님께서 저희 센터장해 주시고 수련관 부장님께서 저희 부센터장님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부장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인가요? 총? (총 경력으로 말씀해주시면?) 2,30년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말고 다른 관리 선생님은?) 저희 센터에 오신지 1년 4개월 정도 되셨고 총 경력은 5년.

사10. 1명은 석사고 경력은 센터장님은 20년 이상 되셨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분 주임급 선생님께서 5,6년 정도 되신 걸로 들었고요. 또 한 분 선생님은 1년 정도, 계약직 선생님은 풀 타임으로 거의 여기가 처음인 것 같고 그 전에 다른 관련 업무 하셨다가.	사4.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 청소년 유형(연령대, 이용 계기 등으로 유형화)
*** 청소년 유형은 사례관리자가 직접 유형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왜 적용했는지(왜 나이별로 나눈 건지? 왜 가족 유형별로 나눈 건지 등을 질문)를 추가 질문**

사1. 굉장히 많아서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 왕따 문제, 친구들 관련된 친구 문제, 그리고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학교랑 집 거리 문제, 거리가 멀어서 ○○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집이 멀어서 집이랑 학교가, 바로 코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를 멀리 보내는. 제가 초기 상담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제가 접수 상담을 다 받아요. 그래서 초기 사전 기록지를 받으면서 아이들 학교를 왜 그만뒀는지 학업중단원인을 제가 거의 다 파악해서 그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거든요. 사례 담당을 나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제가 상담을 하니까 거의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둔다고 생각이 드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2. 일단 도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명단을 넘겨주면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해서 센터 내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보호 관찰소라든지 경찰서 아니면 저희가 위센터하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센터는 학업중단숙려제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쉼터나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검정고시 원서 접수하는 곳에 가서 저희 센터 홍보 활동도 하거든요. 거기서 발굴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면 도 교육청 리스트나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나 위센터도 학교에서 자퇴를 하겠다고 한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건데 혹시 이런 학생들 중에 ○○시 센터에 많이 오는 학생들 중에 비율이 제일 많은 유형은 어떤 건가요?)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를 그만 둔 친구가 있어서 우리 센터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만 뒀을 때 찾아오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 센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주변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신다든지 또 청소년 전화 1388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전화해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그만 뒀는데 어떻게 하냐는 전화가 왔을 때 저희 각 지역 관할 구역에 연락을 취해서 그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찾아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3. 초창기에는 센터에서 관리를 했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관리했었던 애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4, 5명 왔고 그리고 주로 넘어온 게 도 교육청 연계해서 내려온 거.

사4. (그 전에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발굴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이런 터미널 아웃리치나 드림스타트나 원서 접수장, 친구의 친구로 소개 시켜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이들하고 처음에 관계를 맺는 차이가 있나요? 터미널은 이렇고 드림 스타트를 통해서 오는 애들은 이렇고?)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왔지만 그 아이들의 특성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애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친구에 의해서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동기 부여가 조금 있어요. 친구가 서비스를 받아보고 예를 들어 저희도 시장에 가보고 물건이 좋으면 주위에 소개를 시켜주듯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서비스를 받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경찰서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연계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관리를 해 주고 저희는 저희 목적 사업에 맞게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검정고시 원서 접수장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보통

검정고시를 보려고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연결되는 케이스가 오히려 좀 더 떨어져요. 서비스 연결 자체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동의 하에 워낙 강화돼서 거기서 동의 하에 다 적고 그러는데 거기서 적으라고 그래서 적었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 번호를 정확히 안 적고 숫자 한두개 틀린 걸로 적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디서 오는 아이들이든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징이 있나요?) 발굴 경로로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그런 차이? (네.)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팀 자체가 취약한 가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정말 취약해요.

사5.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아이들을 취합해서 보내요. 정확한 경로는 학교에서 시군구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을 다 모아서 어디로 보내냐면 도 센터로 보내요. ○○으로 보내면 거기서 선별을 하죠. 지역 별로 선별해서 각 시군구로 보내줘요. 지금은 이 인원이 가장 정확한 인원이고 저희가 컨택했을 때 성공률도 제일 높아요. 인적 사항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교육청이 비중이 제일 높죠. 사실 겹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비행 쪽이라서 소년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그걸로 학교를 중단하면 보호관찰소에서 나중에 또 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긴 어려운데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40% 정도는 교육청 쪽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서에서 20% 보호관찰소 10% 이 정도고 나머지들은 자잘한 것들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서 연결되는 문화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청도 있고 시청에서 연계해 주기도 해요. 그런 인지 하는 기관들에서 한두 명씩 연결되는 친구들이 꽤 있죠.

사6. 유형을 나누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딱 생각나는 유형이었는데 저희가 좀 그래서 변경한 게 센터로 유입 경로라고 하나요. 학생들이 오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군으로 오는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저희가 실제로 꿈드림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 관리 입력하는 데인데 거기 입력하는 인원으로 보면 아까 제가 관리하는 인원이 35에서 40명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누계로 따지면 훨씬 많죠. 300명 가까이 누적돼 있는 인원, 근데 다 실인원이에요. 300명 아이들이 입력돼 있지만 다 접촉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일단 안 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는 아이들로 따지자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손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어요. 어떻게 오게 됐고 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경우가 저희가 만나고 있는 여기 오는 아이들의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꿈드림 전산망에 입력돼 있는 인원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연계되는 인원도 많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호한 거죠.

사7.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일단 보호관찰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다 범죄나 그런 데서 온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말도 잘 안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루해해요. 여기 센터 프로그램들을, 걔네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더 활동적이고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다 그런 편이고 학교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다들 조금 조용한 편이죠.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센터에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입 경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이를 어디서 봤다. 접수장에서 봤다. 여기로 와서 만나보면 그 친구들은 홈스쿨링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은 뛰어난데 아무래도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에 약한 부분이 있고.

사10. 학교에서 숙려 상담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데리고 왔지만 그때 등록할 때만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은둔형 친구들은 초반 상담할 때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게 있었나요?) 그냥 스스로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 호소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자기가 이런 중독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은둔형이 될 수밖에 없고 게임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딱히 할 게 없고 가야 될 곳이 없어서 집에 있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둔형은 학교를 통해서 오는 경우,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보호관찰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저희 쪽으로 보내세요. 보호관찰 왔는데 학교도 그만 두고 검정고시도 안 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세요. 어렸을 때 보호관찰한 친구들이 강제성을 띠고 왔는데 특징이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보낼 때는 너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 처음에 확인 전화 정도 하지만 거기도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일일이 관리가 힘들겠죠. 저희도 여기가 의무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왔다 내일 안 오는 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의 관리는 힘들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학폭 피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어떤 루트로 학교에서 주로 오게 되나요?) 학교에서 온다기 보다는 그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정신 쪽 문제가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은둔 기간이 있었다가 부모님들이 답답하니까 여기라도 다녀라 수소문해서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많고 또 한 친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는 상황에서 제가 숙려 상담을 하면서 이쪽으로 안내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 둔 건 아니고 이미 그만 둘 걸 결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상담도 진행하고 여기서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은둔형이나 학폭 피해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 (청소년 유형 별로 질문) 성격적 특성

ㅁ 교육청 연계

사2. (이게 센터마다 다른 게 어떤 센터는 주로 보호처분 받은 학생들이 많다고 하시고 어떤 곳은 교육청리스트로 발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 경로에 따라서 성격적으로 특성이 다른 게 보이세요?) 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세요?) 약간 교육청에서 명단이 온 친구들은 대부분 해외출국이 많은 편이에요.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굳이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지역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호관찰소 친구들은 와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반반 섞여 있어서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오더라고요.

사6. (그러면 크게 교육청을 통해서 기관 연계해서 오는 학생이랑 개인적으로 지인 소개로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학생들 유형을 이용하는 유형을 나눴을 때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관 연계돼서 오는 학생들이랑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용하게 되는 학생들이랑 성격적인 특성 차이가 보이나요?) 있죠. 외부 연계돼서 오는 아이들은 자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과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외부 연계되면 어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할래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숨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비율적으로 보면 숨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요.

ㅁ 보호관찰소 및 경찰서

사2. 보호관찰소 친구들은 확실히. 약간 에너지 수준인 것 같아요. 약간 언제가 있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오는 걸 별로 꺼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밖에 별로 안 나오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아이들은 잘 안 나오려고 해서 저희도 센터 오는 애들 중에서 사실 에너지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움직이기 싫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센터에 나올 때 만약에 더운 날이면 조금 시원한 오전 시간에 센터 오는 게 어때?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3. 어떤 부분이요? 청소년 성격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중단 아이들 특성? (학업중단 학생들이 도 교육청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랑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 학교를 직접 연계 받아서 오는 학생들 차이가 보이는지?) 상당히 많이 보이죠. 보호관찰소 아이들은 거의 범죄 비행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과격해요. 그리고 표현도 부드럽지 않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리고 거의 분노에 많이 차 있는 애들이 많아요.

사5. (질문을 드릴게요. 유입경로별로 나눠보자면 학생들이 와서 만나보시면 성격적인 특성이 차이가 있나요?) 유입 경로에 따라서? (네.) 교육청에서 그렇게 구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학교에서 중단하는 경우에도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 친구들이 중단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거든요. 본인의 진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은 조금 어렵고요.

사5. 근데 보호관찰소나 경찰소에서 연계되는 친구들은 특징적인 게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게 특히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년들이잖아요. 비행 때문에 온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여기 센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 센터에서 자숙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연계가 돼도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오히려 경찰서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경찰서에서 파악한 나름대로 본인들이 발품을 찾아서 아이들을 찾는데 다 비행은 아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어서 그 분이 보내준 명단을 보면 비행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친구가 아니고 아닌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보호관찰소 친구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죠. 물론 다 그렇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몇 명은 잘 적응을 해서 하는데 좀 다른 유입 경로로 본다면 이 친구들이 가장 저희도 이르는 케이스죠. 센터에 그리고 작년에는 보호관찰 쪽에서 연계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사실 보호관찰 강제성을 부여해서 보내거든요. 저희한테 검정고시 반에 참여하면 상담 횟수를 줄여주거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지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강제성 있게 와도?) 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죠. 오히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해서 왔는데 별로 자기는 검정고시 필요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나아요. 그래도 내가 학교를 그만뒀지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 학력은 취득을 해야겠다. 그걸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도 취득은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차라리 나은데 보호관찰소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가장 대부분 케이스는 너 검정고시 반에 참여해, 그러면 내가 뭔가 해 주겠다는 식, 그런데 걔들은 사실 자기는 검정고시 필요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와서 참여하라고 해도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랑 이질적인 부분도 있죠. 서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주위 깊게 관찰했는데 몇 명 연결된 적은 있어요. 대부분 중도 탈락이 많습니다.

□ 자발적

사6.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친구 따라 오거나 그러면 어쨌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더라도 그냥 저는 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뭘 할지 몰라도 여기 와볼래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구슬리고 협박하고 타이르고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성격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숨는 아이들은 성격적으로도 만약에 내향성이 강한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든 아이들이죠. 여기를 찾아오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고 뭔가 할 수 있고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올 힘도 없는 아이들은 정말 위험한 아이들인 거예요.

□ 상담복지센터

사8. 일단 상담복지센터와는 차이가 있고요. 다른 센터나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아이들 채는 못 느꼈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로 상담을 계속 받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저희 센터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 은둔형

사10. (은둔형도 사실 관심이 사회에서도 많고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끌어주기를 바래요. 굉장히, 근데 너무나 집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은둔형 친구들을 보면 외모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나는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깨끗해, 하나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거의 장발로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남자 아이들이 외모 관리가 안 되죠. 여자 아이들도 살 많이 찌고 이런 경우도 있고.

□ 기타

사1. 우선 자기가 뭔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가는 경향들은 있고요. 만약에 친구들 관계, 대인관계 문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서적으로 나머지 아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은 여기에서 관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프로그램 먼저 초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는데 학교를 그만뒀던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건 영향은 있어요.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 (청소년 유형 별로 질문) 초반 관계 형성 반응

□ 어려움 없음 (적극적임)

사7. (그러면 초반에 상담하고 관계 형성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집단은 없나요?) 저는 특별히.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하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오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오면 상담하고 관계 맺고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게 수월한데 예를 들어 보호관찰했던 아이들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껄끄러워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지?) 태도에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거나 애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어른들이 어쨌든 저희도 낯선 어른들이니까 어른들과 지내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하거나 자기들도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 비행으로 왔다고 말하지 어렵거나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9. 있죠. 사실은 친해지기 쉬운 건 오히려 보호관찰소에서 온 친구들이 쉬워요. 그 친구들은 에너지가 있고 시작할 때 왜 보호관찰 처분 받았어? 그러면 술술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조금 편하게 대하는 게 있어요.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려운 게 오히려 더 소심한 친구들, 조용한 친구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어렵죠.

사3.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센터 방문을 했을 때 인테이크도 하는데 있어서 반응의 차이가 있는 편이죠?) 어떤 식으로 차이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센터에 처음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거 해볼래?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로 자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상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ㅁ 어려움

사1. (주로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센터에 온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동일하게 센터 내에서도 대인 관계를 어려워하고?) 네. (그러면 이 학생들 주로 센터에 왔을 때 다른 학생들이랑 관계가 어떤 편인가요?) 잘 섞이지 못하죠.

사2. 사교적인 친구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으로 센터에 오는 게 힘들다고 하면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진행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은 다 다룰 수 없어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바로 연계를 해서 아이가 받을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ㅁ 계획 및 목표 유무에 비례

5. (방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런 학생들이 처음 오면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들과도 관계를 쌓고 학생들과도 관계를 쌓아가는데 좀 더 잘 적응을 하거나 안 되는 유형이 있나요?) 아이들이 센터에. (처음 와서 센터에.) 성격적인 것들 특성이 있죠. 처음에 초기면담을 하잖아요. 조금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진로 계획이나 목표가 높거나 아주 뚜렷한 주관을 가진 친구는 저희 센터를 굳이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학교를 그만 뒀지만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은 본인의 뚜렷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 센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검정고시 반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지원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이 조금 되게 대인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대인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힘들었지만 초반에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이용하거든요. 검정고시 참여하는데도 본인이 되게 힘들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적응하고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센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 분명한 친구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죠.

ㅁ 친구 통해

사6. (그렇죠. 그러면 방금 살짝 얘기는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초반에 어색해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라포를 쌓아가야 되고 여기 있는 학생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 유형을 서로 봤을 때 초반에 와서 관계 형성하는 것에 반응도 다른 편이죠?) 연계된 유형에 따라서? (네.) 그렇죠. 자기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은 있지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친구 따라 오는 거예요. 아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는 애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학교에서 연계된 친구들은 와서 뻘쭘하게 앉아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그런데 자기는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왔다. 이러면 정말로 적응이 어렵죠.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딱 유형화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사8. (그러면 이 학생들이 처음 이 센터 쪽으로 연계되거나 아예 처음 오는 학생들이 초반에 선생님이랑 관계를 학생하고 여기 친구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세 유형 별로 차이가 있나요?) 친구를 통해서 오거나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센터에서 확실히

연계가 잘 되는 편이고요. 지속사례, 지속적으로 관리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요.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오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발굴, 교육청에 넘겨주는 학생들 발굴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자기가 동의는 했지만 자기 번호가 오픈 됐는지 잘 몰라요. 전화를 안 받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면 다른 그룹은 센터 친구도 있는데 자기는 혼자 왔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애들은 소개 받고 상담복지센터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와서 그나마 적응하는 분위기인데 교육청에서 발굴된 친구들은 낯설어한다. 낯설고 지속 사례로 관리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탈락률이 높다는 거죠?) 네.

사4.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 (청소년 유형 별로 질문) 비행의 유형

ㅁ 보호관찰소

사2.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강제성은 없나요?) 보호관찰소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센터는 일단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어요. 아이 의사 상관 없이, 그래서 저희한테 보호관찰소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이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그 아이가 센터 내방해서 저희가 4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센터에 다닐 생각이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본인의 생활이 애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 있어서 여기가 보호관찰지역이라서 온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약간 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탈락률이 생길 때도 있어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경찰서에서 오는 친구들은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센터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뜻이 없어서.

사4. (혹시 ○○경찰서에서 오는 친구들이나 어디 특정 아웃리치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은 비행적이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비행과 연관된 아이들이고 이미 연관이 돼서 그렇게 넘어와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착실하게 참여를 해요.

사5.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어느 정도 비행을 보인 청소년들도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보이는 행동, 비행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로 봤을 때? (네.) 사실 조금 심한 아이들은 보호관찰 이런 친구들은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임시로 여기 와서 센터를 이용하다가 본인의 문제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죠. 중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거나 근데 쭉 지속하다가 그런 게 하나 발생하면 다시 와서 적응하기 어렵기도 해요. 다른 경험들이 청소년기라서 그런지 다른 경험들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보호관찰에서 연계가 돼서 와서 잘 적응하다가도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그 뒤로는 아이들이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 건지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사6. (그러면 혹시 비행 행동을 보이는 건 학생들이 많은 편인가요?) 있죠. 간혹 비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 보호관찰소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계속 경찰을 만나기도 하고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봐도 저희가 알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8, 9명은 그런 아이들인 거죠.

ㅁ 가정붕괴

사3. 가정이 완전 붕괴된 아이들인데 1명이 사실 큰 문젯거리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유예가 돼서 학교에서 먼저 의뢰가 왔거든요. 애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애들 집에 못 가게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범죄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감금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애들을 계속 못 들어가게.

ㅁ 법원

사1. (혹시 그러면 센터에 오는 학생들 중에 비행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인가요?) 보호관찰소에서 의뢰된, 소년원, 법원에서 의뢰된 아이들.

ㅁ 친구

사8. (그러면 이 세 유형의 학생들을 볼 때 비행 행동을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친구랑 같이 온 애들이 비행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들이 보이세요?) 흡연, 음주는 기본이고 생활 패턴도 엉망이고 집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애들이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보통 데리고 온 친구들이 주로 퀵서비스 쪽에 속해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생활 패턴이 일단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염려스럽고 흡연이랑 음주는 기본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친구들이랑 센터에 다른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거는?)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ㅁ 기타

사7. (그러면 ○○시 꿈드림센터에서 담당하는 아이들 유입 경로가 사실 궁금한 게 유입경로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은 판단을 하시는지?) 이게 약간 뭐가 먼저 인지 모르겠는데요. 차이가 극단적으로 보면 있겠죠. 너무 눈에 보이는 차이지만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오면 비행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주민센터에서 보내주신 경우는 은둔이나 학교 밖 청소년도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아니면 쉼터에서 연계해 주시는 경우는 약간 의료비 지원을 원하면 성 문제가 있다든지 근데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쉼터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센터 오는 친구들보다 더 고득점으로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계되는 유입에 따라서 특정을 짓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 – (청소년 유형 별로 질문) 그 외 (예 가족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등)/ 경제적 수준)

ㅁ 한부모

사3. 있어요. 부모님이 있다고 애가 괜찮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있어도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아이들이 거의 많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엄마가 없는 아이들 아빠랑 자라는 애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빠들이 관리를 안 해요.

사7. (그러면 가족 유형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한부모, 양부모, 조손 가정 이런?) 한부모, 양부모 쪼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애매한데 가족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누군가 나의 일상 생활을 챙겨주고 예를 들어 빨래 단순한 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고 일정을 챙겨주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집에 아무도 없는 아이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을 받기는 해요.

ㅁ 차이없음

사8. (그러면 가족 유형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적인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여쭤볼 건데 가족 유형은 저희가 양부모 이런 학생들이나 한부모 아니면 조손 부모랑 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는 저희는 조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부모가 조금 있고 양부모, 한부모와 양부모. (크게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경제적인 부분은 이 지역이 ○○에서 낙후 지역이라 다른 데보다 경제적 수준은 낮아요. 저희 지역.

ㅁ 경제적 어려움

사1. (아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새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측면에서 어려워서 학교를 많이 그만두는지) 최근에 우선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그 아이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집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농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못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많이 배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도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사실 의무 교육이라도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라도 아이들 교통비든 생활비든 그런 것들이 다 지원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담을 드리기가 자기가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가족들이 이 아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양육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사4. 한부모도 있을 수 있고 조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신체적으로 편찮으신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알코올이나 중독인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장애인인 사람도 있고 대부분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친구들 자체가 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사9. (그러면 청소년들의 가족 유형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보통은 편부모나 한부모 이쪽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일반 청소년들 비율보다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편부모, 이혼 가정 많이 만나봤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느낀 게 보통 대인관계나 어떤 교육이나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관계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모의 구성보다는?) 네, 구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구성이 변하거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불화가 있는 쪽이 구성보다는 훨씬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ㅁ 기타

사5. (보호관찰로 처음 왔던 학생들이 중간에 어디 갔다 오는 경우에도 재적응을?)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호관찰 쪽에서 저희 쪽에서 연계가 돼서 작년에는 그래도 검정고시 반에 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꾸준히 참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올해 4월 시험을 못 받거든요. 4월 시험을 못 보고 중간에 이 친구가 작년에 문제가 올해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지금은 8월 검정고시 시험에 접수는 했는데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게 뭔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6.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센터로 연계는 되지만 어쨌든 가족적으로 지원이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센터를 계속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충분히 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학생이 외부에 자원 학원이나 이런 걸 더 원하는 학생들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가족 유형이나 한부모, 편부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보이는 특성이 있나요?) 네, 그게 맞는 말이죠. 집이 굉장히 유복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계획적인 학업중단인 거죠.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대안 학교나 그 외에 내가 알아서 홈스쿨링을 하겠다. 그래서 자퇴하는 경우는 절대로 안 오죠. 올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서비스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혀 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유학가기 위해서 자퇴한 경우, 그리고 전화하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부모님도 실제로 계세요. 정말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되게 고학력자들인 분들이 간혹 있고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런 집은 당연히 안 오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적절하게 있잖아요. 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적절한 관심이 있는?) 그렇죠. 적절한 관심, 그게 양부모가 다 있거나 한 부모만 있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상관 없이 적절하게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가 뭔가 방향을 잡아가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퇴하고 사실은 자퇴가 아니라 잘리는 거죠.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저희가 보통 고등학생 연령부터 대학교 1, 2학년 연령까지 있어요. 17세부터 22세정도, 군대 가기 전 단계까지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보면 부모가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세요.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 올 때마다 하나씩 얻어가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해야 될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정보를 계속 받아가시잖아요.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가능성도 계속 심어주게 되니까 집에서도 저희도 해 주고 집에서도 해 주니까 아이들이 좀 빨리 변하고 안정을 찾아가요. 근데 확실히 되게 중요한 건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만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사10. (그런 분들, 가족은 크게 문제는 없나요? 가족이 안 계시거나 가족적인 문제나 특징은 따로 없나요?) 딱히 편부모 가정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다 계셔서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가는 게 싫었고 그걸 계속 하다 포기하신 상태, 어차피 말해도 안 되니까 자퇴를 선택할 때도 이미 포기하고 아이를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보호관찰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편모 가정이나?) 편부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모님 직업이 불안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2.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학업지원(교육지원)

사2. 학업지원이요.

사3. 저희 센터 자체에서? (많이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도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다 포함해서 연계하는 것도 포함하고 학생들이 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학습지원도 많이 이용하고요.

□ 검정고시

사1.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 꿈드림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소식지 드릴까요? 이쪽이 다 저희 프로그램하는 거고요. 이건 검정고시, 이건 상, 하반기로 교육하는 거 있고요. 숙려제 상담하고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두드림이나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이해는 있으세요? (그래서 좀 초기에 종결된 학생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시 꿈드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희는 검정고시요. 아이들 가장 많이 와요.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거의 검정고시를 하면서 출석이 매주 오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오다보니까 와서 공부하면서 그걸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씩하면서 이렇게 되는거죠.

사4.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청소년들한테 학교 밖 지원 센터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검정고시 학원 연계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셨고요.) 거의 프로그램들은 보통 거의 비슷해요. 커리큘럼이. (본인도 의지가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가족 유형이나 한부모 양부모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할 때 유형 별로 눈에 띄는 특성이 뭐가 있어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친구들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중상층 되면 가정에서 이 아이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줘요. 저희 올해 검정고시를 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본인의 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 본인들이 공부를 했어요. 센터에 나오진 않고 제가 전화 상담으로 아이들을 관리했는데 이번에 4월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오히려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학원을 보내주거나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요. 주로 그런 친구들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형제, 자매만 살거나 아니면 조부 조모랑 따로 살거나 아니면 다문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종교적인 이유로 진학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안 받고 검정고시를 이용하는 친구, 드러내진 않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 조금 더 폐쇄적이면 아예 보내진 않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사실 ○○에도 종교 시설이 몇 군데 있어서 아예 폐쇄적인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예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 센터를 알고 와서 공부를 이용하도록 해도 안 보내요. 근데 조금 열려 있는 곳은 그래도 여기 와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를 받고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보통 이용하는 청소년들 특성이 뭐고 그게 만약에 유입경로별로 보면 그 유형별로 차이는 없나요?)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가정이 부모가 다 있거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사5. 검정고시 수업이죠.

사7. (너무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오기 전에도 처음 방문 드렸지만 시 센터가 잘 돼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문해본 센터 중에는 아마 퀄리티라고 할까 공간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넓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시 센터에서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겠지만 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스마트 교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1대1 멘토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검정고시 관련된 지원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부르는데.

사9. 어쨌든 친구들 실질적으로 사회 진출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검정고시니까 검정고시 교육 지원, 두 가지.

□ 정서적 지원

사9. 가장 베이스는 상담이랑 교육 지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실 본인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상담이랑..

사10. 멘토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탐방 9월에 가는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있고. (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건?)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5명 이상 모아서 선생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을 만들고 필요하면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재료비도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만화 동아리, 댄스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저희 신규 사업이면서 중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자체 회의를 하긴 했었는데 애들이 오는 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모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해 멤버들이 성실한 애들이 많아서 회의 한 달에 1번씩 하고 노인 복지 봉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ㅁ 기타

사3. 동행 카드, 건강검진, 자기개발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도 저희가 하거든요.

사6.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질문)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자체개발한 서비스 혹은 외부 연계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유형/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 및 만족도 평가)
- 자체개발한 서비스 혹은 외부 연계 서비스

ㅁ 자체 개발한 서비스

사1. (센터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복합 교육 여기 상담 지원, 학습 클리닉, 두드림 정도.

사2. 외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담이랑 복지적인 걸 같이 저쪽에서 진행하고 저희도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이 친구한테 상담도 진행하고 복지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외부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은 다르겠죠.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재학생들도 다 같이 이용하는 곳이고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지금은 내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굳이 저희가 외부로 안 해서 알아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연계하려고 유관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내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굳이 저희가 외부로 안 해서 알아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연계하려고 유관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사3.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외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쪽에서 비중 글쎄요. 거의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외부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 관리는 저희가 해요.

사4. (비슷하다는 게?) 전국이 다 비슷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나온 프로그램은 한청원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맞게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서 만드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지역에는 목공예가 있으면 목공예를 특성화로 만들어서 3급 자격증을 따면 보조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망치질을 못하니까 항상 보조강사가 붙거든요. 그런 보조강사 역할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조강사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공예 프로그램 여기서 만든 거하고 외부 연계하는 것도 있을 텐데) 보통 저희들이 군이다 보니까 지역 자원이 약해요. 시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연계 프로그램이 많아요.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외부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학업복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보통 고등학교가 7과목이니까 예를 들어 4월에 5과목 붙고 나면 8월에 2과목도 보면 되니까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진입을 같이 해요. 4월에 시험 볼 때는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회 진입이 동반되는 게 힘든데 8월은 한두 과목만 보면 되고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사회 진입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취성패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5. (이 서비스는 센터 내에 자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대학교가 있잖아요. 사범 대

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멘토로 저희가 2015년부터 연계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이용하고 과목 별로 수업하죠.

사6. 특성상 저희가 검정고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교실이라고 있어요. 다 모든 지역에 있는데 ○○군 안에 검정고시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원도 없고 야학도 없고 다른 지역에는 검정고시 학원도 있고 이렇게 무슨 ●● 같은 경우도 열린 학교라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처음 ○○군에 있는 학업중단하는 아이들은 대게 센터를 처음에는 검정고시 학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해 주고 아이들이 고졸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걸 많이 처음에 해오다 보니까 13년도부터 학원 개념인 거예요.

사6. (먼저 검정고시가 그러면 외부 학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주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요. 멘토, 학습 멘토, 정서 멘토, 직업체험 멘토로 연초에 늘 멘토단을 꾸려요. 꾸려서 그 분들 본인 역량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나눠서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그 분들한테 약간의 활동비를 드려요. 교통비 정도로, 멘토가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정말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멘토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걸 하세요. 아이가 2, 3명이 있거나 상관 없이 수업을 진행하세요.

사7. (그러면 스마트교실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인가요?) 꿈드림 서비스예요. (기본으로 있던?)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도 외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어떤? (멘토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멘토링 선생님이 외부에서 강사나 대학교 봉사활동 이렇게 오시거나?) 네, 그렇게 오세요. 저희는 외부 연계를 많이 하지는 않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거의 짜서 하는 편이라서. 자원이 좋으면 외부 연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안 했던 이유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너무 비쌌어요. 프로그램 모든 항목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훨씬 웃돌거나

사8. (그러면 검정고시는 여기서 해요? 외부 연계해서 해요?) 멘토단 모집해서 대학생 선생님이나 성인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분들은 자원 봉사?) 전부 다 자원 봉사고 저희가 자원 봉사 실적만 드려요.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센터 내부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기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직접?) 직접.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집단 같은 두드림 특성은 학습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그런 집단은 저희가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고요. 직업 체험 이런 거는 강사를 초빙하고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매뉴얼 안에 있는 프로그램, 실물 경제 체험도 저희가 다 하고.

사9. 보통 상담복지센터에 있잖아요. 저희는 수련관에 있고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지도사예요. 상담사가 아니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상담이나 초기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심리 상담,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럴 때 진행해요. 모두 다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5, 6명 정도 MIP부터 검사해서 상담실이 수련관에 있어서 연계해서. (그러면 이거는 센터에서는 외부랑 연계된 서비스라고 판단하시나요? 자체 서비스라고 보시는지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상담실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서 형태는 외부 서비스이긴 한데 실제로 내부 서비스로 소통하고 있어요. 정보 공개나 아이들 상태 같은 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굳이 형식적으로 따지면 외부 서비스긴 한데 외부적으로 보면 외부 서비스로 더. (그러면 이건 자체 개발하셨다기 보다는 꿈드림센터 기본으로 있는 상담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번으로 말씀해 주신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가르치는 분들은 멘토 선생님 모집해요. 근처 사범대학교나 교대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꿈드림 홈페이지에 올려서 멘토를 모집하고 수업 교육 가르쳐 주고 멘토가 부재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제가 학습 지도 정도 같이 풀어보고 매겨보고 문제 풀이 같이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를 모집하시는 건 보통 자원봉사 형식으로?) 네.

사10. (그러면 검정고시는 자체적으로 운영은 어쨌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멘토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멘토링은 지금 아이들이 아니면 사례 담당자나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의사 표현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친구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 활동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 탐방을 미끼로 그 동안을 아이들한테 참여 독려를 많이 했어요. 일본 가려면 프로그램 열심히 하라는 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건 내부적으로 기획

하고 다 진행하시고 예산도 다 내부적으로?) 네. (외부에서 혹시 연계 받아서 하는 지원은? 기관이든)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ㅁ 외부 연계 서비스

사1. 네, 저희 거의 다 건강지원 쪽이 외부 기관이랑 연계되는 거고요. 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잠복결핵 이건 보건소, 그리고 체력 측정은 국민체육진흥생태, 금연지원은 금연지원센터, 건강교육은 성문화센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걸 교육해 주시는 분들, 상반기에는 성문화센터랑 성교육 했거든요. 나머지는 학원이랑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원이랑?) 네, 저희는 검정고시도 학원연합회 선생님들이 다 오시거든요. 지역에 대학교, 학교, 지역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질문)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자체개발한 서비스 혹은 외부 연계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유형/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 및 만족도 평가)
– 이용자 수 및 유형

ㅁ 5명 이상–10명 미만

사5. 매일 다른데 주로 5명에서 10명 사이예요. 그러다가 검정고시 접수하면 10명으로 늘었다가 시험 끝나면 쭉 줄어들죠. 그래서 3, 4명으로 5명으로 유지되다가 검정고시 접수하면 조금 늘고 그러다가 줄고 그런 걸 보이죠. (검정고시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연령으로 보면 초기에는 아닌데 지금은 17세에서 19세가 제일 많아요. 고등학교 때 중단하고 사실은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명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서 1년 내내 거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간에 1, 2주 정도 방학하는 기간 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때도 만들어주는 거죠. 수업은 안 받더라도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 있어라, 그런 의미로 조금 저희는 1년으로 길게 운영을 해요.

사7. 7, 8명 되는 것 같아요. 멘토링도 각자 선생님이랑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7, 8명 오는 것 같아요.

ㅁ 10명 이상

사10. (몇 명이 가요?) 12명 가요.

사1. 응답없음
사2.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6.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외부 연계 서비스가 없을 경우만 질문) 외부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외부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ㅁ 자체개발 서비스의 어려움

사5.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받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비중은 사실 적어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강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불러와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크죠.

사7. (그러면 구 센터에서는 자체 개발 서비스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역량이나 업무 로드나?)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고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걸 나눠서 가져가셨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 보다 더 많이 하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어려울 거고 기본적인 거 하기에도 너무 바쁠 거예요.

ㅁ 타기관의 협조

사2. 저희가 산하 복지센터에 1388 지원단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단이 있어요. 거기는 각 영역별로 계셔서 거기 자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복싱이나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가 거기 지원단 분한테 물어보고 아이와 함께 얘기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늘리거나 이럴 때 어떤 의견을 제출할 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위 쪽에 요청을 해서.

사3.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서비스 연계 기관 이런 것도 발굴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연간 해봤을 때 어디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를?)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의뢰를 연계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죠. 업무 협약이나. (전혀 연결 고리가 원래 없었는데 그냥 전화를 해서?) 네.

사4. (학원에서 만약에 특정 학원이나 ○○센터에서 특정 학원이나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 연계가 되거나 MOU를 맺든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되는 편인가요?) 우호적이에요. 아무래도 저 서○○인데요. 누구 누구 친구가 아니라 여기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군 청소년지원센터인데요.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해 주고 못하는 상황이면 조금 이따 시간이 지나고라도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게 협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경우는?) 그런 경우들은 교육지원청.

사6. 그것도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아마 대학생들이, 근데 여기는 없어요. 시군에 인근에 대학이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오는 대학생들의 대게는 집이 ●●이에요. ○○대학교가 ●●에 있는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하루 종일 버스로 태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워요. ●●, □□ 권이랑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로 자원 활동할 사람이 없어요. 뜻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저희가 해마다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1명도 지원 안 해요. 다 일반인들이고 30대 이상의 직장인들, 3, 4, 50대 이 분들이 주로 그게 아마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젊은 감성이나 이런 걸로 소통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도 굉장히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처음에 지원하시고 2013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할 때부터 하셨던 분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제가 2013년도부터 여기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셨던 분이 아직도 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4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변함 없고. 한 학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은 그렇지 않고 지역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행복교육지구라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1대1로 매칭 포인트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 학교 만들고 이런 사업하거든요. ○○에 그런 자원이 많아요. 되게 시골인데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 멘토 오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굉장히 탁월하세요. 학벌도 그렇고 실력도 실제로 수학 학원을 하시던 분이 수학 멘토를 하세요. 수학 학원 하시던 분은 학원에서 돈 벌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시고.

사1.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현재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특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 학업지원(교육지원)

사1. 저희 센터에서 특화된 서비스요? 다른 것보다 저희는 학업지원 쪽인 것 같아요. 검정고시나 1대1 멘토링, 기초학습 쪽으로 좀 더 다른 것보다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5. 올해 작년까지는 그렇게 특화된 사업을 많이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은 사무실이랑 교육실 휴게실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상담복지센터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작년에 시설을 확충하고 전개를 한 후에는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수능반도 없었던 거 새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에 한옥 마을이라고 저쪽에 있거든요.

사6. 특화된 서비스가 저는 교육지원이 제일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센터에서 다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직업 체험 시

켜주고 아이들이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3개월 정도 훈련 과정을 통해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낮과 밤이 바뀐 애들이고 대인 관계 불편하고 손님 응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과 훈련하는 기관과 우리들의 긴밀한 협조가 아니면 아이가 중간에 탈락해 버려요. 못하겠다. 사장님이 뭐라고 해서 손님이 뭐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안 하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에요. 한 달하면 못해요. 한 달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갈등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인턴 사업 같은 거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들도 저희 센터에서는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8. 다른 센터를 모르겠지만. (아니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검정고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안에 있는 실물 경제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해마다, 이것도 3개월 정도 하거든요. 이건 소수로 5명 정도하긴 하는데 참석률은 되게 좋고 아이들도 마지막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건 어떻게 하세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창업 그런 거니까 이런 교육을 먼저 하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아이들이 이걸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에 시장 조사도 자기들이 직접 나가고 물건 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제작 과정을 거치고 제작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만들어질 건 포장, 홍보도 자기들이 마케팅도 다 하고 그래서 판매처를 정하고요. 판매처에 나가서 자기들이 직접 판매 활동을 하고요. 판매 활동이 끝나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수익금 활용 방안이 나오면 수익금은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ㅁ 검정고시

사2. 일단 검정고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요구도 많고 그런 수업할 수 있게 인력도 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검정고시 부분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ㅁ 자립 프로젝트

사4. 눈으로 보여지는 정량적인 거라면 외부 공모 사업 받아서 1층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 (다른 데선 잘 안 하는?) 도 센터에서는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저희가. (자립 지원?) 네.

ㅁ 기타

사3. 자기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5. 한옥 마을에서 가족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데 8월부터 준비해서 9월에 이런 걸 진행할 거고 겨울에는 시군구라서 힘들긴 한데 스키 캠프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욕심을 올해 많이 부렸습니다.

사9.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른 친구라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한 달에 1번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말고 대학생, 형, 오빠, 활동가들, 20대 분들 모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토크 콘서트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3, 40대 강사보다는 20대를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20대가 했던 어른 친구들이 했던 방황들, 자기 어려웠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아이들이 공감하고 공감대 형성도 쉽고 아이들한테 더 다가가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른 친구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친구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외부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랑 연계해서 강사 분이 재능 기부를 오셔서 MOU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ㅁ 잘 모르겠음

사7. 근데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서적 지원

사1. 질문이 정말 광범위한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센터의 색깔이라기 보다는 업무 담당자의 특성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사2. 그냥 그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고 나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사5. 그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랑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생기면 아이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끈을 놓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중도 탈락되는 아이는 이 끈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끈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오래 갑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우리 센터 아직도 이용하는 친구인데 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고 중3 올라가기 전에 학교를 그만 뒀어요. 작년에 19살, 그러면 4년 동안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연계가 돼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원했던 게 공부를 좀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걸 원했어요. 근데 멘토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선생님이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했죠. 말도 잘 안 하고 되게 인사도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8월에 험을 합격했어요. 공부는 저랑 2, 3개월 같이 공부를 했죠. 중졸 준비를 하고 합격했어요. 그 후에 고졸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랑 좀 친해진 이후로는 아이가 되게 은둔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했거든요. 지금 저희 센터 선생님이나 보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쳐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게 형성이 쉽진 않죠. 근데 형성되기 전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근데 형성되고 난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아이와 지속됩니다.

□ 경제적 지원

사3.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연계해서 장학금 지원 해 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고 자기계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데 진로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진로 쪽도 많이.

□ 관계 개선

사6. 일단 저는 제일 큰 도움은 이거 같아요. 사실 꿈드림사업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학업중단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하려면 일단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과 화해가 돼야 돼요. 관계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9. 일단 어른이랑 대화를 많이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기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표현해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담 선생님께서 스킬이나 그런 걸 사명하셨겠지만 일단 사실 상담을 다 믿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제일 지향하고 에너지를 쓰는 건 사회성 역량 향상이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밖 친구들이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장 부족한 역량이 대인관계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학교 선배를 대하는 걸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쉽고 당연한 것들이 그들한테는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전반적인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사10. 거기에서 먼저 자존감을 얻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자기들 소외된 계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 안에서 같이 그런 그룹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 형성에서 애들이 많이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 학업지원(교육지원)

사7.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달라서 다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냥 이런 스마트 교실이나 자격증처럼 목표가 뚜렷한 프로그램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될 거고 자격증

취득반은 자격증을 따는 목표가 달성되겠지만 문화 활동이나 그 외에 센터에 와서 모르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 그 아이를 키우는 느낌으로 사실 프로그램에 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공부만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벗어나 있잖아요. 어른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친구들이랑 말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하루 쌓이고 누적이 돼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단어로 표현하긴 어려운데 사회성보다는 큰 범위로 커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경험이 쌓이면 그게 자신감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이들 자꾸 데리고 여기 저기 나가고 이것 저것 해보게 하는 것 같고 그러길 바라면서 하고 있죠.

사8. 일단 아이들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자퇴를 하는 게 학교에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많이 자퇴를 해서 자퇴에 대한 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인문계나 일반고에서 자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자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잘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안심하는 거, 걱정을 던다고 할까요.

사10. 일단 제일 기초는 학업적인 거고요. 사실 포기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내가 과연 검정고시를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그만 둔 친구들도 있어요. 다녀봤자 시간 낭비도 공부 못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끄적거리면 검정고시 붙기도 하니까

ㅁ 기타

사4.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군 형태 이 정도 군 단위 형태의 혹은 지역 자원 자체가 많이 없는 곳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사례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ㅁ 진로 준비 지원

사1. 사례 관리 그 동안 하면서 진로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2. 중점은 가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의미가 비슷하게 들어가자면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 아이에게 필요한 성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업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고 그 다음으로.

ㅁ 학업지원(교육지원)

사3. (그러면 여기 ○○시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세요? 학업 좀 더 중점을 둔다든지 취업에 좀 더 중점을 둔다든지?) 이왕이면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사5. 기본적으로 중점을 둔다, 사실은 한 군데 포커스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평가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업 제공 인원은 몇 명 이상 해라, 그 다음에 성과는 제공한 거 말고 성과는 몇 명,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하고 또 하나 취업 쪽에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몇 명 이상, 취업사관학교 몇 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공부 쪽으로 더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취직도 하고 싶고 알바도 하고 싶고 뭔가 싶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결하고 취업사관학교도 연결하는 거지 이걸 역점으로 두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가 특성화 사업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조금 잘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자기개발 쪽 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2016년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태권도와 캘리그라피 2개 반을 운영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크게 부담은 없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사업비도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 사업에 학업복귀 쪽은 당연히 중요해요.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은 다 중요하지만 올해는 자기계발에 조금 자기계발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3명이서 거기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사8.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학업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자퇴를 해도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는 되게 높아요. 검정고시는 해야죠. 고졸은 돼야죠.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높은데 그 아이들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점점 센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업이나 이런 건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나이대도 보통 17에서 20세 사이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나이대가 많아서 학업 쪽으로 더 하고자 해요.

ㅁ 욕구 반영

사1. 저희가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학업지원이랑 자기계발을 같이 중점적으로?) 네.

사6. (학생들한테 관계 회복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고 학생들이 센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례관리를 하실 때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다?) 맞아요. 그리고 사회복귀 할 수 있고 학업복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센터 차원에서는 여러 사업 중에 중점을 두는 파트가 있나요? 사례 관리 진행하실 때 학업에 중점을 둔다든지 취업에 더 중점 둔다든지?) 저희가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그건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거지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고 아이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본인은 검정고시 관심 없고 자격증 따서 취업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7.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아요. 대부분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부모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사례관리를 할 때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 측면이 있을까요? 애들에 대해서?) 어떤 걸?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항상 먼저 살피고 들어간다든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항상 먼저 살피고 들어간다든지?

사9. 제일 첫 번째는 청소년 욕구죠. 뭘 하고 싶은지 왜 학교 나오기 시작해서 뭐가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하죠. 그 친구가 어쨌든 저희가 학교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찾아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유동적으로 바꿀 때도 있고.

사10. 되게 어렵네요. 틈나는 대로 연락이 계속 돼야지 선생님이 사실 계속 바뀌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1명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와요. 그렇게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를 나오는 애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제가 안타까운 건 생활 관리 부분, 시간 관리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게 그게 초반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드림 자체가 딱히 규율이 있지는 않아요. 학교가 힘들어서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회 생활이고 여기서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규율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흡연 문제가 여기 애들 흡연 많이 하거든요.

사4.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기관요인/ 상담자 요인/ 프로그램 요인/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 기관 요인

ㅁ 시설

사5. 저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무실이 분리되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전과 지금은 차이가 다르죠.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 교육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교육실을 맨날 빌려서 써야 돼요.

사6. 기관이 중요해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곳인데 사실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무턱대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자비로 하거나 외부에서 공모 사업해서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리모델링비 지원 받아서 특별 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더군다나 청소년 지원을 안 해요. 노인이나 아동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특별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만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가 완전 폐허 같은 곳이었어

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그렇게 시설이 만약에 굉장히 좋다고 가정하면 꿈드림센터에 가면 우리 작업장도 있고 즐길 수 있는 탁구도 하고 농구, 당구도 칠 수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 많이 오지 않을까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와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떤 국가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설이나 기관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직원들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 근무 환경이나 어떤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들한테 서비스 지원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는 그런 걸 바탕으로 상담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면 되겠죠. 사실은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대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하고 아파도 하고 병이 들어도 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변하잖아요. 처우 개선도 안 변하고 시설 개선도 생각을 안 해요. 청소년한테는 절대로 안 하죠. 돈을 쓸 필요가 없는 대상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한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무슨 노인회, 이런 데 1년 예산이 30억이 넘어가요. ○○○군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노인들한테 서비스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청소년한테도 해야죠.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환경이 좋고 처우가 좋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결국 관계 형성의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내적인 성장을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학업 복귀하고 사회 진출해요. 근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항상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시설이나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사8. 기관에서요? (네, 기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저희 위치는 애들이 되게 잘 찾아오고 저희 위치 그런 건 없고요. 시설은 저희가 아무래도 상담복지센터라서 수련관 다는 한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적인 부분, 아이들이 센터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서 수련관은 공간도 되게 넓고 활동실도 크고 뭔가 기구들을 다 들여 놓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그런 거는, 그래서 주로 그런 걸 하고자 할 때 외부로 나가서. (외부 체육 시설 이런 거?) 네, 그런 체험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죠.

사9. 첫 번째는 센터. 저는 센터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같은 사업인데도 구마다 사원들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물론 환경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끌고 가는 건 실무자가 아니라 센터장이잖아요. 그래서 센터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전반적인 방향이나 사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센터장도 센터에 포함되는 건가요?

ㅁ 없음

사2.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ㅁ 기타

사7. 매일 회의를 진짜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할 때 마다 고민을 많이 하죠.

사1.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기관요인/ 상담자 요인/ 프로그램 요인/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 상담자 요인

ㅁ 라포 형성

사3. 일단 상담자 요인도 작용하고요. 상담자도 그 아이하고 어떤 라포를 형성을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프로그램 참여하기까지 아이들이 그냥 자발적인 아이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라포가 잘 형성돼야 되고 프로그램 요인도 아이들이 욕구 파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만족도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강사진들도 저희가 이력서를 다 받아요. 그리고 어디 강의 들어가시면 아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 분들 통해서 이 분들 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처음 아이들을 접하는 선생님들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하고 차이도 있고요. 일선에서 강의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하고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상당히 수업도 프리하게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섭외를 했는데 강사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사4.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에 퀄리티가 있을 텐데요. ○○군 센터만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세요? 기관도 있었고 상담 사례관리자 선생님도 있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군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건 외부 연계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기관? 상담자?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인프라?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도 저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라포 형성으로 인해 이뤄지는 인간적인 면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일 것 같아요.(그런 게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관계가 좋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라기 보다는 관계가 좋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관계가 좋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아이가 효율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1, 2차 목표를 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저희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거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런 모습들이 아마 아이들한테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센터가

ㅁ 인력 확충

사2. 그러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인력에 맞지 않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인 것 같일단 연계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통해서 사후 경과를 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1명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과거도 궁금하고 현재도 궁금하고 미래도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업지원 아이들이 수요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아이의 현재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과거랑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더 할애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많이 있다는 게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5. 성격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3년차 일을 해보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했던 선생님이 3년차 계속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 선생님의 상담력 역량은 둘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데 물론 어떤 친구는 짧게 2, 3개월만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1년 가까이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이용하는 건 다 다른데 쉽게 말해서 작년에 서비스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아이가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센터에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근데 자기랑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은 못 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랑 선생님이 같이 있으니까 초창기에 저희 센터를 이용했어요. 지금은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가끔 전화 통화하고 이 정도만 하는데 그러다가도 저희가 계속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이 친구들은 편하게 올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은 안 오죠. 싫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능력 이상으로 상담자가 계속 업무에 계속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10. 저희는 상담자, 직원이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센터만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렇게 바꾸게 된 배경은 여기 아이들은 잠깐 1년 오고 안 오는 애

부록

들이 아니라 2, 3년 이용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건 엄마가 바뀌는 거랑 똑 같은 거라고 예전 센터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서. 네, 예전에 센터장님 계실 때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정규직화 시켰는데 문제는 정규직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만두고 일이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리고 정규직들은 재단 안에서 부서이동이 있거든요. 인사이동에서 저희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ㅁ 기타

사1. (업무 담당자의 특성이나 아니면 학생들과의 관계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해마다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사8. (그러면 상담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요인들에선 어떤 부분들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성향이요. (선생님의 성향?) 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달라지는 것 같고 자기 전공했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전공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주로 추구하는 서비스?) 네,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전 선생님은 청소년 체육학과 쪽을 나오셔서 외부에서 하는 활동, 신체 어린 쪽으로 자기가 더 이전까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해보려고 했던 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상담에 좀 더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꿈드림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싶다. 근데 이걸 해 줄 수 센터도 있고 안 해 주는 센터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다르더라고요.

사9. 두 번째는 상담자. 경력일 수도 있겠고 사실 꿈드림센터에 한정된 얘기지만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립 학교 인력이 그 선생님의 경력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관계, 아이들 사실 신규가 얼마나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경력이 꽤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밖에 대한 이해 실무자가 얼마나 학교 밖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사6.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부록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기관요인/ 상담자 요인/ 프로그램 요인/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 프로그램 요인

ㅁ 강사

사5. 아무래도 저희가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야 돼요. 지역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올해 볼링을 운영했는데 다행히 ○○에 볼링장이 있어서 했는데 하나 있어요. 거기에 더 다행인 것은 이 강사 분이 프로 볼러예요. 프로 볼러가 ○○에 유일하게 1명 있는데 이 분한테 저희가 어렵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아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운영했지 아니면 프로 볼러 강사 분이 없으면 저희가 볼링장이 있어도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있어야 해야 돼요. 이런 인프라가 없다면 저희가 뭔가 진행하고 싶어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다양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학원? 더군다나 아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했어요. 어디로 수업을 들으러 가냐면 ㅁㅁ으로 가야 돼요. 되게 아이들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 의지를 가지고 물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미용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결국 미용실에 스탭으로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봐도 의지가 뚜렷했고 본인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지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침에 가서 4, 5시간씩 학원에 있다가 오고 그러면 다른 생활은 거의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2,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간호 전문 학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디자인 쪽 하나 있고 음식 요리 학원 세 군데가 있는데 요리 학원도 한식은 되는데 일식, 중식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관리하는 친구 중에서 요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ㅁㅁ으로 학원 다녀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하죠. 검정고시 반 나오라고

해도 학원 다녀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역에 많이 있으면 어렵다는 느낌도 느끼고 프로그램은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은 사실은 지역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인프라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희 센터 옆에 수제 빵집이 있어요. 2016년에 생겼거든요. 2015년에는 저희가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작년에 생겼어요. 저희가 알아 보고 여기서 아이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줍니까? 했더니 해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올해는 진행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ㅁ 프로그램 구성

사8. (그러면 프로그램 요인들 중에서 프로그램 길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구성하면 학생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건 1대1로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하게 하지만 아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뭔가 구성을 한다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기관요인/ 상담자 요인/ 프로그램 요인/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 지역사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

ㅁ 잘 되어 있지 않음

사6. 인프라가 많은 게 좋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인력도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인력 3명이 아무리 많은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인력이 제한적이니까 저희도 사실은 3명이 하루 종일 되게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뭔가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한이 있으니까?) 인력의 제한 때문에 만약에 인프라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좋겠죠. 훨씬, 만약에 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직업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의 스케일에 따라서 만약에 되게 큰 기관이나 아이들을 인턴으로 보내는 것과 소규모로 보내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8.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센터에서도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관련된 기관을 찾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라고 찾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는 편이라고 느끼세요?) 아니요. (○○ 센터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요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를 선정해놓기 애매한 거죠. 여기서 해봤다가 애들이 발생되면 여기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발생이 될지 안 될지 그 기관을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지금 뭔가 이렇게 요리는 여기, 어디는 여기, 이렇게 구성된 건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때마다 하는 편이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건 없고.

사9. 네, 저희는 잘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역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1. 응답없음
사2.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연계기관 발굴/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 연계기관 발굴

ㅁ 다른 기관에 이관

사2.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분하고 만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없더라도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친구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곳에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우리가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서류나 복지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게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3.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 왔지만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도 센터든 연계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학생들은 완전히 이관되는 건가요?) 네.

사9. (누가 그걸 구축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랑 학교 밖 관련 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 거 구축해서 16년에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MOU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인적 유지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한 상태예요. 저희는 그런 게 근간이 되어 있어서 수월한 편이고, 구청에서 사실 진행 시키는 건 저희 역량이고 어쨌든 모을 수 있는 건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거죠. 그 분들을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ㅁ 아웃리치

사6. (그러면 센터에서 많이 연계해서 다시 외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 기관 같은 거 계속 발굴을 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계세요?) 발굴은 저희가 아웃리치를 해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군 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부스 차려 놓고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요. 당연히 요즈음은 스마트 세대라서 잘 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DM 발송을 해요. 검정고시 접수 기간이 되기 전에 보내고 그러면 아이가 보든 부모가 보든 누가 보고 전달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자기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애들도 있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건 예산이 너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고. (학생들 발굴하고 말고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사업체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곳에서는 인맥이죠. 소도시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는 센터장님이 여기 ○○ 분이라서 제가 부탁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굴을 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편이세요. 저희는 ○○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뜬금 없이 사실 좀 되게 폐쇄적인 동네이기도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반응도 없고, 그래서 미리 센터장님한테 다리를 놔달라.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고.

ㅁ 기타

사5. (사실 검정고시가 센터마다 지원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제일 필요한 게 자격증이잖아요. 잘 아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직접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은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그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능 반을 운영하거든요. (이어지는 게?) 이어지는 게 근데 사실 쉽게 말하면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는다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취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첫해는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하고 본인이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에 간 친구는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뭔가 도와줄 수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반에 하고 수능을 본 친구가 있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 친구한테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큰 도움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게 2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검정고시 합격한 걸로 거기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굳이 저는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상관 없지만 혹시 그 후에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큰 도움은 아니지만 멘토를 운영해서 아이한테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수능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2명만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11월까지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를 초기 면접을 통해서 제가 걸러내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2명 운영하고 있고 1개월,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4월에 하고 5월에 결과 나오고 6월에 준비해서 운영을 시작했고 이 친구들은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잘 되든 안 되든 올해

결과를 본 후에 내년에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유선으로 관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본인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서 학원비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수능관을 1대1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1.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연계기관 발굴/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

□ 진행됨

사2. 저희가 그 친구가 이사를 가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고 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라면 현재 생활 상황은 어떤지 파악해요.

사8. (외부 연계하면 학생 사례 연계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연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탐색에 들어가죠. 잘 하고 있는지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센터에 와서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계속 전화로 문자로 얘기를 한다든지.

사9.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연계하신 기관들은 보통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편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센터 측에서 연계했던 기관들을 사후에도 관리를 하시는지? 예를 들면 연계한 기관들을 리스트업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들어오죠. 그리고 저희도 연계할 프로그램, 같이 협력할 프로그램 있으면 연락하고.

사10. 저희 사례 중에 개인 상담을 다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너무 위기 사례인 경우 동반자 연계, 사실 그게 의무적으로 5% 정도 하라고 한청원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 동반자 연계해서 하고. 동반자 연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동반자 연계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동반자 분들도 자기 사례 중에서 학교 밖이면서 복지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

사3.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나요?) 사후 관리를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 한 번 들릴게요. 근데 자꾸 상담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안부를 묻고 싶다. 아니오, 편하게 카톡하는 사이면 좋겠고 솔직히 자기도 폴리텍 가는 아이예요. ○○ 폴리텍에 과가 없어서 □□ 쪽으로 가는데 이 아이도 보호관찰받던 아이거든요. 되게 긍정적인데 앉아 있으면 별로 편안하지 않대요.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대화만 해요. 사후관리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대학 가는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다 계획 세워서 갔기 때문에 종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가도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없어요.

사6. (일단 연계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통해서 사후 경과를?)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으로 이사를 가서 ○○ 꿈드림에 연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자주 사후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종결이에요.

사7. 계속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너무 죄송한 게 멘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계속 연락은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걸리죠? 3시에 상담이 있어서.

사1, 4, 5.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연계기관 발굴/ 기관 연계 후 사후관리/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 연계한 지역 기관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협업하는 다른 노력이나 시도

□ 연계기관 확장

사1. 기존에 연계된 기관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저희 학원연합회도 맨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여기 계시는 선생님 통해서 알게 돼서 연락해서 협약해서 선생님들도 구축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 학교, 저희 대안 학교 ○○에 있는 대안 학교랑 협약이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연계가 되고.

사2. 다른 센터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조금 다른 ●●도 지역, ○○이랑 □□가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계 자원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필요한 요구에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9.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전체 서비스를 통틀어 봤을 때 외부랑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평가가 되나요? 아니면 외부랑 연계하기 열악하거나 연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편인지?) 없는 건 아닌데 활발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 연계는 강사 이런 분 말고 실제 기관을 연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진행 자체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외부 연계가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잘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수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공문을 보냈을 때 호의적이셨고 실제로 한 곳에서 응답하셔서 저희가 출강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연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연계하는 기관들은 센터 쪽 입장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주로 하시나요?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육성하시나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긴 하고 사실 대부분 연계는 일방적인 거죠. 거기 있는 친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저희 지원 센터 친구가 그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형태죠.

□ 연계기관 협업

사5.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학생은 어쨌든 연계돼서 가면 그 기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 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할 텐데 연계한 기관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협업이라는 건 같이? (네, 연계를 했지만 그 학생한테 더 좋은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협업 연계한 기관과 같이 협업?) 올해는 특별히 없는데요. 작년에는 인력개발원이 있어서 그쪽이랑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저희 꿈드림센터가 있고 거기 아이들은 물론 여러 군데 센터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온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었죠. 실제로 작년에는 검정고시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검정고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10. (같이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재단에서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어요.

□ 없음

사8. (그러면 혹시 연계한 기관들이랑 학생 사례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협업하거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세요? 같이 그 학생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시도를 하거나?)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갈 때는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상담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굳이 이 아이랑 방문해서 하진 않고요. 아이들 자기계발 1대1로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직접 가서 과정도 소개 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 기타

사6. (그러면 ○○시 꿈드림센터와 협업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취업사관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 그쪽 기관이랑 협업하는 게 있나요?)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연락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연락하면 된다고 그래서.) 초창기에 말씀 드렸듯이 건강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5명이 가겠다고 갔는데 헤어하고 미용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모인 아이들이 대개 걔네들이랑 똑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대인관계 안 되고 성실하지 않고 아무 계획 없고 그리고 분노 조절 안 되고 학교 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였던 아이들이잖아요.

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쓸데 없이 싸우고 왕따 시키고 저희 센터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애를 방에 가둬 놓고 때리고 또 어떤 아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랑 한 번 붙어 볼까? 이런 식의 시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얘네들을 다른 아이들이랑 섞지 말고 5명끼리 어쨌든 얘네 5명이 같이 똘똘 뭉쳐서 저희는 걔네들이랑 관계 형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너희들끼리 잘 동료애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집단 상담을 의뢰하려고 했었어요. 그쪽에, 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협업에 대한 시도가 있긴 하네요?) 시도는 있죠. 늘 생각하죠. 협업을 ○○ 안에서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 체험이나 외부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안 돼요. 시군구에서 모아봤자 5, 6명이에요. 인권 교육 받으러 가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5명이 있다 근데 그쪽에서 20명을 요구해요. 저희만 하면 안 되니까 협업해서 거기 가서 우리 같이 가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려고.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 본인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예개인적 노력/ 주변에 도움 요청/ 상담 및 연수 참여/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음 등)

ㅁ 개인적 노력

사6. 학생들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절대로, 학생들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청소년들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진 않고 그냥 소진인 것 같아요. 맥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 하는 건가?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기관 안에서 상사나 팀원 선생님들이나 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쉬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쉬어야죠. 병가를 내고 쉬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요. 처우 개선이 중요한 게 소진이 되게 빨리 와요. 처우 개선이 안 되면, 금방 빨리 그래서 우리 센터는 안 그런 경우기도 한데 사실 꿈드림센터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안 있고 그냥 가요. 그게 상담하는 분들 모르겠어요.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죠.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하는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고 중간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나 사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걸 잘 견디게 하려면 외부적인 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질적으로 많이 보상을 받으면 내가 돈 많이 받으니까 참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내가 꼴랑 그거 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해야 돼? 주말에 맨날 나오라고 하는데 가야 돼? 이렇게 그만 두는 거죠.

ㅁ 센터 내 커뮤니케이션

사10. 아이들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사례회의를 통해서요?) 딱히 회의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끼리 수시로 애는 뭐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거 연계하는 건 어때?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네, 그리고 각자 사업이 있으니까 내 사업에 어떤 거 하면 좋겠다. 연결짓기도 하고 공유를 해야 아이들한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ㅁ 어려움 없음

사4. 저희들도 한 지역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들도 외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도 우호적으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무자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학교 밖 대상자들 청소년과 저와의 관계에 예를 들면 공부방에 중간 매체는 멘토 선생님이에요. 바로 다이렉트가 아니라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 거, 핸드폰 안 받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특히 실무자들이나 모든 학교 밖 선생님들이 다 부담할 거예요. 내일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나타나진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예산은 다 준

비했는데 참여하지 않고. (그런 부분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신가요?) 그게 실무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ㅁ 낮은 참여도

사1. (혹시 그러면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서비스 제공할 때 제일 힘든 건 아이들 출석이죠. (출석을 채우는 거?) 채우기 보다는 제일 힘든 게 학교 밖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학교가 힘들어서 그만 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공부로,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게 검정고시로 자기가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게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만 그렇게 힘들다가 아이들하고 어쨌든 구성원만 잘 만들어지고 학교처럼 정규 수업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오후 시간으로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거의 시간이 거의 다 오후예요.

ㅁ 시설 미흡

사2. 약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예를 들면 정신질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폭력 피해자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 조금 다가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왜 못해?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는 그게 정말 힘들고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하면서 센터에 나올 때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강압적인 마음 반반을 가지고 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자 친구들은 더 큰 다른 신체적인 증상으로 더 힘들어하니까 어느 하나라도 뭔가 빨리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개입해야 되는데 사실 센터에서는 학업 지원이나 취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건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적인 도움도 필요한 건데 혹시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88 지원단 안에 보면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된 병원이나 신경외과 이런 데 다 있어서 그쪽에 아이 부모님과 만나서 가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는 원스톱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진행하고 있어요. 같이 사무실을 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면 업무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전화기 다 들고 있고 상담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이 다르잖아요. 집중해서 하기 좀 힘들고 상담실도 지금 상담실만 여기 여기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정식적으로 있는 건, 근데 있는 분은 7명이에요. 우리까지 거기에 학습지원 선생님까지 얘기하면 6명인데 3명은 다른 데 살고 3명은 여기서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10명 정도 이 3개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 무리예요. 건의는 했는데 크게 이슈가 없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선생님들도 미안해요. 지원단 선생님이 상담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못하는 거잖아요.1층까지 쫓아갈 때가 있어요. 카페에 가서 우리도 저도 그래요. 상담실이 모자라서 밑에 내려가서 상담할 때도 있고 회의실 큰 곳 있거든요. 밑에, 거기 가서 앉아서, 근데 거기서 앉아서 할 때는 에어컨을 틀기도 미안해요. 우리 건물도 아니고 밑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상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애로 사항이 크죠. (아까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건의하셨나요?) 시에 건의를 했죠. 도에도 건의를 했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겠다. 업무적인 일도 다른데 그리고 아이들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쪽에 별로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게 애로점이에요. 우리는 별로 아쉬운 게 없는데 우리 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애들 모으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ㅁ 업무 과다

사5.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요?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학생들이랑 하는 것에 어렵거나?) 솔직히 아이들 관계에서 어려움은 못 느끼겠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출석 자체를 안 해서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 센터 내에서 어쨌든 꿈드림 센터 위치가 애매하고 그 선생님이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사무실도 쓰고 업무적으로 제약도 많은 상태였거든요. 또 다른 선생님은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그게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보다는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곳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테고 저희보다 한가한 사람을 보면 저희 업무가 과다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3명이라서 그런지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느낌은 없어요. 올해 오히려 첫해에 사업을 많이 안 할 때 힘들다고 느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잘 협업이 되면서 그런 건지 일을 잘 분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다만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성과를 내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성과를 잘 못 내면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하면 상관 없겠죠. 근데 그건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돼요. 고용의 불안정성이죠.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그만 두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약직 2년 딱 채우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사7. 어떤 상황에서? 일단 일이 너무 많고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군구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저희들끼리만 프로그램을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한청원에서 뭔가 공지를 내려주고 언제까지 취합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구 센터 걸 다 취합해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취합해서 공문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고 시도 센터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시도 센터로써 새로 생긴 업무 때문에도 힘들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군구가 하는 직접 지원이랑 시도 서만 할 수 있는 연합 사업이나 꼭 1년에 1번씩 연합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 사업이나 그 외에 다른 시도만 해야 된다고 내려주는 업무 2개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ㅁ 청소년 발굴

사8. (그러면 선생님이 업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발굴이요. (학생 발굴?) 네.

사9. 사실 다들 그렇겠지만 어려움이 많죠. 좋은 것보다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일단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청소년 인구가 적고 학교 밖 청소년 인구도 적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발굴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는 거의 사실 인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가 기준은 동일하니까 애들을 어렵게 발굴해도 잘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애들을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인구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개인이나 센터 차원에서 무언가 노력 같은 걸 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아웃리치였어요. 나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나갔거든요. 만난 애들이 다 학교 재학생들이고 거리에서 만나긴 어렵다. 투자한 시에 비해서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 연계로 가자고 구성한 게 지역협의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손으로 건드릴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그러했어요.

사3. 응답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은 (예 성격적 특성/ 초반 관계 형성 반응/ 비행의 유형 등)

ㅁ 적극적 참여(적응 잘함)

사1. (○○학생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들었는데 센터에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어떤 편이에요?) 잘 지내요.

사8. 자기가 해야 될 걸 잘 알고 목표를 잘 정했고 그걸 위해서 잘 해나가는 친구였고요. 물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잘 없는, 1%의 아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면 처음 센터에 왔을 때 어색해하거나 선생님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색해했는데 같이 얘기할 때는 별로 크게 그런 거 없이 잘 얘기하고 갔어요.

사9. ○○이 성격은 비교적 밝고 대인 관계가 수월한 친구였어요. 아마 어려웠던 게 인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거나 공지한 것을 까먹는 경우가 잦았어요. 그래도 밝고 심성 자체는 착한 친구인데 비행도 있었죠. 또래 친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친구를 폭행한 일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지 하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을 통해서 잘못했구나 인지 하고 그때 당사자한테 사과한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거하신 상태였는데 ○○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 밝고 에너지도 있고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복교했는데 찾아오고.

ㅁ 소극적 참여(보통)

사2.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저하고도 처음에 어려워했었는데 그때는 ○○이가 엄마랑 같이 왔었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 제가 만날 때 엄마는 따로 떼놓고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떼놓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가면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이는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엄마가 조금 옆에 있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탐색하고 나서 어머니랑 따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아이랑 엄마랑 있을 때 얘기를 나누거나 다 살펴봤는데 저랑 있을 때 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사6. 그러면서 여자 친구 사귀다가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찾아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풀이 죽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자 친구랑 헤어졌고 그런 여자친구는 헤어진 게 잘한 거라고 해 주다 보면 또 가서 자기 일 하다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찾아오고 그랬어요. 전화를 하면 어디 간다고 그러고 뜬금없이. (주로 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용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지는 않고?) 네, ○○이는 많지 않아요. 제가 2명을 했는데 한 친구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아이였고 여자 아이는, 취업사관학교에 가 있는 아이거든요. ○○이는 거의 모든 걸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대조적이었어요.

ㅁ 적응 힘들어함

사4.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지금은 동생들이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돌봄이 덜할 정도로 컸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가 거의 돌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외부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집안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사3.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해당 청소년의 사례관리 과정 설명 요청(예 왜 왔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애로점 등)

ㅁ 프로그램 경험 후

사1. (초기 상담할 때는 조용한 편이었고 그러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턴십하고 끝나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 참석하고 인턴십하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1월에 했거든요. 그 상반기 앞쪽에는 인턴십 프로그램하다가 그 후에 올해부터 검정고시하고 그래서 검정고시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사2. 처음에는 취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하고 제가 만났을 때 ○○이가 취업을 해서 어딘가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서 그것보다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역량 강화 적성 흥미를 찾아서 그것에 맞게 취업을 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같이 이어나갔었던 것 같아요.

ㅁ 타 기관 의뢰

사4. ○○이 같은 경우에는 ○○이도 ○○ 경찰서에서 의뢰가 됐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가 우리가 만 24세까지인데 정말 밀집되어 있는 그 연령대보다는 아이가 언니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순수한 학교 밖 아이들보다 좀 더 성숙됐어요. 어른스럽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프로그램을 줬을 때 참여율도 거의 8, 90%였고 그래서 본인이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검정고시 학업 복귀 지원해서 검정고시 취득했고요. 목공예 자격증도 ○○이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자격증을 프로그램을 안내를 한 게 제가 관리를 하면서 ○○이가 ○○ 관내

를 타 지역에서 진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 관내에서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 협동조합이 ○○ 관내에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가 약간 예술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런 찰나에 마침 저희 외부 공모 사업을 받았어요. 1층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전통 찻집과 커피 지금 사업자가 28일에 나와요. 밑에 세팅은 다 됐어요. 그리고 ○○이를 올 봄에 사업자 대표로 앉히려고 교육 바리스타 과정을 올 봄에 다 배워서 지금 이수했고 사업자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애로점이 있던가요? 관리하는데?) 그거는 애로점은 제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20%에 대한 출석률이 좀 저조했었을 때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결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 약속이 안 됐었던 안 지켜졌고 통보식으로 할 때도 있었고. (연계가 안 되는?) 안 되죠. 지속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조금 수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랑 다른 선생님 2명이 처음부터 사업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일련의 사업의 흐름이나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서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교차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사회진입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한 선생님이 학업 복귀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한 선생님이 지역 특성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제가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검정고시 방 운영도 제가 알거든요. 전에 제가 진행했고 관여를 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속성이 가능하면 업무의 분담이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한 선생님이 그만 두거나 교체돼서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은 일을 가르쳐야 되지 일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몇 개월 정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다른 센터 선생님들한테 듣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많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힘들 거예요.

사5. 왜 그러냐면 현지는 초기 면접할 때 이미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검정고시 합격했고요. 그 전에 여기 센터 오기 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본인이 해서 프로그램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애가 그때 왔을 때 자기가 지금 현재 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저희가 뭔가 하기에는 작년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본인은 일하고 싶어 했고 하나 더 생각하면 진로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일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하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7. 일단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하고 자퇴가 결정이 돼서 이후에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 곳이 있는데 상담 받는 곳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곳인데 프로그램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일단 아이가 설명을 들으러 오겠다고 오게 됐고 제 담당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너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 일단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온 아이였어요. 사고를 친 이유는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물어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생님과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을지 많이 물어봤고 그 외에 개인적인 상담을 일주일에 1번씩 계속 만나면서 진행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 외적으로 필요한 것 말고 심리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저랑 상담 계속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 부모님 권유

사9.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보시고 오셨어요. 처음에 어머니랑 같이.

□ 소극적 태도

사6. ○○이는 제가 초기 면담을 하지 않았어요. 상담도 제가 꾸준히 진행한 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이가 긍정적이고 쾌활한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집이 어려웠죠. 저희 센터에 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걸렸냐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나 그랬는데 할아버지인지 아무튼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진 거죠. 살 곳이 없어졌는데 그 집에서 살 수도 있는데 고모인가 누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 문제로 그런데 애가 또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니고 자립을 하려던 아이라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용돈 벌고 생활비 벌어서 생활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의 했을 때 흔쾌히 받지 않았어요.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희가 아이한테 경제적인 지급을 하기 어려웠어요. 수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의가 일단 많이 해 줄 수 있거든요. 자립 관련해서 뭘 해 줄 수도 있는데 애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주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진로 같은 거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의욕은 있는데 주변 환경에서 안 받쳐 주니까 자꾸 좌절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그 집이나 문제들도 저희가 사실 자세히 알아야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애가 자세히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얘기만 표면적으로 들은 거죠. 지금 소송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잘 곳이 없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사3.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계속 이용자) 해당 사례 청소년이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서비스/ 상담자/ 가족/ 친구/ 기타)

ㅁ 유대관계

사1. 뭘까요. (아까 얘기할 때는 만족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하고도 우선 유대 관계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어요.

사3. (다음으로 저희 ○○ 학생 사례가 1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 학생한테도 뭐를 봤어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본 거랑 다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옆에서 봤을 때 학생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 학생의 특성을 먼저 여쭤볼 건데 개인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학생이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관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응은 어떤 편이셨어요?) 사실 ○○이가 전에 있었던 선생님 사례자거든요. 그만 두신 분 사례자였는데 애가 일단 제가 봤을 때 저하고도 상담을 그 선생님 그만 두고 저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특성이 가족간에도 많이 마찰이 심했고 가정폭력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애기를 낳았거든요. 애기가 있어요.

사4. 또래 친구는 없지만 동생들을 잘 다뤄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 여기 소속된 학교 밖 친구들이 언니, 언니 그러면서 잘 따르거든요. 1, 2차보다 올해 좀 더 적극적인 게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주위 친구들도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작년까지 같이 놀았다면 작년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가 사회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놀자 놀자 항상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ㅁ 또래친구

사2. 일단 현재는 아는 친구가 1, 2명이라도 있다는 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친해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더 교우 관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적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사9. 첫 번째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안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보러 오기도 했던 것 같고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실무자와의 신뢰가 생겨서 그래도 담임 선생님 찾아오는 것처럼 센터에 와서 활동하고.

ㅁ 프로그램 및 상담

사7. 사실 오기 전에도 일도 큰 일이 아니라 상담 후에 여기는 오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상담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했던 아이였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 설명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했고 뭔가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한 번 와보겠다고 돼서 그 이후부터 되게 열심히 참여했었고 제가 일주일에 1번씩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얘기를 많이 풀어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니까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아이가 워낙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아마 어디를 가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 상담하는 선생님이 좋아서?

아니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이런?) 사실 프로그램은 다른 꿈드림에서 똑같이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꿈드림과 차이점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 작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학교에 복학한 친구들도 있고 직업을 구해서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건 친구 때문인지 자신이 없고 상담사 때문인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기 어렵고 그게 저라서. 사5. 해당사항 없음 사6. 해당사항 없음 사8. 응답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계속 이용자) 해당 사례 청소년을 관리하면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예 실무자 개인의 능력 부족/ 업무 과정/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의 어려움/ 연계기관 부족/ 기타)

□ 소극적 참여

사4. 아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를 오려면 멀게는 버스를 2번을 경유하고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를 못 타면 정말 시간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사9. 똑같죠. 약속 안 지키는 거, 엄청 교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오게 되면 연락을 미리 해야 되고 널 위해서 준비하는데 안 오면 안 된다. 오기로 하면 와야 된다. 사실 친구들이랑 학교 밖 친구들이랑 만날 때 얘기하는 부분이 약속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어려웠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대인 관계 스킬이 부족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친구랑도 헤어질 때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끊었어요. 일방적으로 ○○이가, 그건 저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르고 본인도 명확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감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렇다고 애가 반사회적인 애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죠.

□ 없음

사1.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근데 이렇게까지 잘 나올 지 몰랐어요.

사2. 딱히 ○○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해볼래? 권유를 했을 때 거절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좋아요. 할래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과정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가 저한테 이런 거 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게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때 왜 선생님이 안 하고 그 선생님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3. 응답없음
사5. 해당사항 없음
사6. 해당사항 없음
사7.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이용 완료자)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서비스/ 상담자/ 가족/ 친구/ 기타)

□ 잘 모르겠음

사6. 글쎄요.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항상 쟤가 왜 오는 걸까, 와서 하자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왔어? 어떻게 했어? 뭐 마시자 그러면 어떻게 왔어? 그러면 그냥 가는 길에 들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알 수 없지만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에 매이는 걸 싫어해서 수업도 스마트 교실을 하면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요. 아침마다 전화하고 깨워주려고 깨워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거든요. 오늘 수업 몇 시니까 언제 있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해서 몇 시에 오라고 전화하고 10시 반이 넘어도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하루 종일 문자 보내고 집착의 끝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는 그런 걸 싫어해요. 어디에 매여서 규칙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몇 개월 있어야 되는 게 싫은 거죠. 애는 ○○에서도 생활하는 걸 보면 어디 한군데에 붙박이로 일을 하는 건 없어요. 애가 성격도 좋고 웃음도 많고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애도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딱 붙기는 싫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저기 나타나고.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특별히 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건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좋아서.) 왔다 갔다 애가 이상해 보이면 너 뭐니? 이리 와서 잠깐 얘기 좀 해,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1. 해당사항 없음
사2. 해당사항 없음
사3. 해당사항 없음
사4. 해당사항 없음
사5. 해당사항 없음
사7. 해당사항 없음
사8. 해당사항 없음
사9. 해당사항 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사례관리자 대상) 해당 사례 청소년의 특성
– (이용 중단자)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중도탈락 청소년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어쩔 수 없음

사5. 사실은 학교와 다른 점이 저희 센터는, 학교는 학생이 학교로 가는 게 의무잖아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의무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권리만 있죠. 여기를 이용하고 서비스 받을 권리만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가 싫어지면 그걸 감수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고 보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오긴 하겠죠. 근데 보상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머리 크기 때문에 작은 보상으로는 안 되죠.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만의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저희가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지하고 후원하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센터를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도 탈락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중도 탈락한다고 그걸 내공이 쌓였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1. 해당사항 없음
사2. 해당사항 없음
사3. 해당사항 없음
사4. 해당사항 없음
사6. 해당사항 없음
사7. 해당사항 없음
사8. 해당사항 없음
사9. 해당사항 없음
사10. 해당사항 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예산문제/ 외부연계 서비스 기관의 부족/ 자체 또는 외부연계 서비스 발굴 노력/ 인력 구성 등)

□ 업무 과다

사2. 일단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데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10가지 요구 중에서 각 한 사람당 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한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분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4. 위에서 너무 실적을 압박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몇 명 발굴해라 이런 거?) 발굴과 성과,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검정고시든 사회 진입이든 취업사관학교든 취성패든 아니면 자기개발이든 실적.

사7. 어떤 상황에서? 일단 일이 너무 많고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군구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저희들끼리만 프로그램을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한청원에서 뭔가 공지를 내려주고 언제까지 취합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구센터 걸 다 취합해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취합해서 공문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고 시도 센터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시도센터로써 새로 생긴 업무 때문에도 힘들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군구가 하는 직접 지원이랑 시도에서만 할 수 있는 연합 사업이나 꼭 1년에 1번씩 연합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 사업이나 그 외에 다른 시도만 해야 된다고 내려주는 업무 2개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 인력 부족

사3. (제가 질문 드릴 마지막 파트는 일단 꿈드림 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인데 ○○시이긴 하지만 시 센터에 속하지만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서비스할 때 예산이나 연계 기관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요. 왜 부족하냐면 프로그램을 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 기타

사1. 개선해야 될 거 많죠. 근데 되겠어요.
사5. 응답없음
사6.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예산 문제

□ 인건비 차등

사2. (혹시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예산도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사5. (혹시 예산은?) 어떤 부분 예산? 예산도 사업비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 구조는 정확히 모르고 어쨌든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배분되기도 하고 ○○시 한해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사실 아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검정고시 반 운영하는 부분이 1년 사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전화 상담 온 것 같은데. 지침이라는 것은 최소가 있고 그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데 최소만 있고 최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경력이나 하는 일 내부 센터 운영 규정에 맞게 지급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다른 시군구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 명절수당 얼마 줬어?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는 50% 줬어, 저쪽은 60% 줬대, 그러면 나랑 저기랑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왜 저기는 많이 줘? 그게 사기적인 부분이나 원래 여기 상담 쪽이 인건비 부분이 많은 곳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죠.

□ 인건비 부족

사4. (뭔가를 해야 된다. 성과가 제일 크고 예산은 중요한 것 같으세요?) 같은 센터지만 인건비가 너무 우리가 저조해요. (만약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제가 사명감이 조금 더 지금도 사명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사명감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힘들도 소진돼도 그게 저한테 보상이 될 것 같고.

사6. 예산이 이 사업의 특징이 되게 웃긴 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죠. 대게는 인건비가 80% 정도가 돼야 돼요. 80% 이상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여성 상담복지센터 사업 이런 거랑 차이가 나요. 그 대신 적은 돈을 주면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죠. 물론 사업비가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죠.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로 넣어야 되는데 여가부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정을 안 하는 거죠. 한청원 쪽에서도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구조로 가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압박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 예산 부족

사7. 이게 아이들을 떼놓고 프로그램만 본다면 예산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걸 해 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상담자가 사소하게 어떻게 챙겼느냐, 아니면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긴 해요. 정말 많이 챙겨줘도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면 그건 그 아이가 봤을 때 절대로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랑 연관 지어서 보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신뢰나 믿음이 중요할 것 같고 프로그램만 보면 사실 저희는 예산이. 예산은 일단 저희는 워낙 수준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이거나 부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쓰면 좋지만 엄청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사9. (그러면 예산 때문에 특별히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있는 만큼 예산의 어려움은 실제로 있는데 제안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있는 것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 연계를 해요. 그런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이 부족할 때 외부 연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 캠프 공모 캠프 같은 거나 실제로 저희 애들 데리고 이번에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캠프에 가거든요. 학교 밖 대상 캠프, 캠프 내용이 스킨스쿠버 이런 거였어요. 저희 예산으로 스킨스쿠버나 수상 안전 체험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고 스키 캠프 같은 것도 자체 예산으로 어려우면 시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거 희망하는 애들 참여 시키고.

□ 예산 과다

사10. 예산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예산이 많은 게 사실 저희가 매출을 인건비로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인력이 불안정하고 공사비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계획된 금액을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 사업비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갑자기 돈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사1.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외부연계 서비스 기관의 부족

□ 연계기관 부족

사2. (혹시 그러면 외부 연계 서비스 지금 연계해서 하는 기관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시가 연계센터가 많은 편에 속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시나 군 크기에 따라서 이용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계 기관이 많고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옆에 ●●군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되게 적어서 그런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더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4. (혹시 외부 서비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세요? 외부 연계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도시에는 한청원과 MOU 예를 들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아직도 연계가 안는 되고 ●● 쪽에서만 이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물리적인 어려움도.

□ 물리적 접근성

사7.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청원에서도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공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캠프를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짜주셔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면 신청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일정이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길거나 약간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나 실무자가 꼭 가야 될 것 같은 관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실무자가 아무도 없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한청원에서도 연계해 주시면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 없음

사6. (그러면 외부 연계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기관이 많이 부족한 점에서도 많이 힘드세요?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글쎄요. ○○ 안에서는 그냥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도시로 나가면 아이들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많은 게 더 필요한데 ○○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는 부족함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주로 아이들을 연계하는 해야 되는 곳은 이런 거거든요. 취업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에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생겼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거, 그 전에는 ●●로 다 갔어야 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기관이 생기면 활용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1.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자체 또는 외부연계 서비스 발굴 노력

□ 연계기관의 적합성

사7. 사실 시도 센터 역할 중에 하나가 기관을 발굴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발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해온 센터, 기관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알아보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만 해도 구센터까지 다 같이 하는 업무 협약 3건 정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연계할 예정이고 지금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력에 비해서 잘 찾아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찾고는 있는데 협조가 어려운 느낌을 더 받으세요?)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업무, 발굴 기관 발굴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담당 선생님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강사나 멘토가 없으면 그때 발굴을 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직업 체험 때문에 갔을 때 연계가 잘 되는 편이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 웬만하면 검색을 해보고 저희한테 해 주실 법한 분들께 연락을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엄청 안 되진 않아요. 사6. (혹시 서비스 발굴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학생이 원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거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데 ○○은 동네가 이상한 건지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장애인 작업장이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원활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수반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사1. 응답없음 사2. 응답없음 사3.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지역 특성 또는 규모 때문에) 서비스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인력 구성 등

□ 인건비 표준화

사1.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할거예요. 표준화된 뭔가 인력 체계든 구성이든 보수든 저희가 돈을 진짜 많이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예산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평준화해야 표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가 위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 데이터로만 보고 예산을 주고 이게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 인력 부족

사3. (2명 밖에 없어서?) 그렇죠. 어디 외부에 나가서 두드림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해도 숙려제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세 달 가까이 두드림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나가니까 수요일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 일하다 보면 가야 돼요. 저희 업무가 사실 앉아서 사업만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무슨 서류 원하고 여기서도 원하고 내부결재 뭐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력이 더 있으면 애들 두드림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선생님들은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2명은 정말 열악해요. 긴급해서 사례 회의를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연차가 좀 되는 제가 나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고.

□ 고용의 안정성

사3. 저희가 고용이 안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저번에 올려주셔서 인건비를 완전히 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저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희 호봉수 저분 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본급 못 올렸어요. 조건은 저쪽이 더 좋은데 사업비가 올라서 인건비 올려주라고 했을 때 연차가 저분이 2년 넘어서 350 되는데 우리 신참 선생님이 그것보다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했어요. 시간 외로 더 뺐죠. 인건비 기본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건의는 저걸로 하라고 그러면서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면서 저기서 벌써 차별하는 거죠. 우리 연봉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연봉제가 사실 기본급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저쪽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센터는 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학교 밖 사업이 가능한 중단되지 않는 걸로 해놨는데 무기직도 아니고 근데 다른 센터는 너무 들쑥날쑥해요. 전에는 정보 공유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듣는 분들이 많고. (새로 다 오시니까?) 그렇죠. 실적이나 성과 부분들도 새로 온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선생님들은 솔직히 바빠요.

ㅁ 업무 과다

사9. 네,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학교 밖 사업이 한 친구, 한 친구에 대한 에너지가 큰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보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 처리나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있는데 오히려 더 아이가 친구가 오면 1, 2시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업무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인력 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ㅁ 없음

사5. (그러면 센터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이나 지금은 3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3명이 부족하다든지?) 저희는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사6.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군에서 만약에 인력이 1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 자체가 엄청 이렇게 말하기 되게 겁나는 게 뭐냐면 인력 1명 더 주고 411명하라고 할 거라는 거죠. 정부는 그러니까 1명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잡무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제가 말씀 드린 이런 사업만 하면 하나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서류가 이만큼 맨날 쌓여 있어야 되고 온갖 다양한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은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맨날 해야 되니까 사실 인력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 인턴을 파견 받은 거예요. 저 분이 해 주시는 역할,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작년에는 3명이면 파트 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실적은 점점 많아 지고 중앙에서 인력을 주는 만큼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더 오게 되고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사7.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시도 센터로써 일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꿈드림도 해야 돼서 업무 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력만 충분하면 해결되는 일일까요?) 아니오, 사업이 계속 내려와요. 한청원인지 여가부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매년 생겨요. (그러면 충원에 대한 필요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충원이 되면 좋긴 하지만 충원되면 그만큼 사업이 더 내려올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4. (인력을 그러면 상담 선생님만 두 분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건 학교 밖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1명을 더 해 주면 좋지만 그건 국가적인 예산 부분이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급여가 다 달라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학교 밖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앙과 지자체와의 그런.

사2. 응답없음
사8.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부록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ㅁ 시설 확충

사6. 시설 확충, 아이들이 어쨌든 여기는 위치적으로 괜찮아요. 역에서 가깝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접근성은 좋은데 건물 자체가 개별적으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 건물 주인이에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죠.

ㅁ 고용의 안정성

사3. 일단 사람이 당당할 수 있게 정규직으로 해 주시든지 이 분들하고 차별 없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도 어쨌든 상담복지센터처럼 상담사들인데 상담사 자격을 계속 갖출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니까 일단 자신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거와 그냥 일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발이잖아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앞서 나간 분들의 안 좋은 것들도 다 해야 되니까 출장비도 1만 원씩 돼 있지만 우리는 저 쪽팀 때문에 5,000원씩 나가요.

ㅁ 정체성 확립

사7. 저희가 매번 논의한다고 말씀 드렸다시피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바뀌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딱 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 변화하는 사업도 변화하고 사업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나 그것에 따른 여가부 정책이 변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시도 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 센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아직도 시군구랑 조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근데 그건 제 성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딱 떨어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빨리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구 센터에게 더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8. 저희 전담 인력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구성이 되면 우리만 보니까 좀 더 탄탄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ㅁ 기타

사1. 이건 제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포함될까요?) 네.

사2.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오래 근무를 했으면 답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근무를 오래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업무밖에 없고 제가 사실 하는 업무에서는 그렇게 딱히 그런 느낌이 없어서.

사4.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 한국상담복지개발원

ㅁ 지원 부족

사2. 그런 건 분명히 때때로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찾을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진로나 적성, 흥미를 탐색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개발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ㅁ 고용의 안정성

사5. (한청원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하고?) 그쪽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겠죠.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번에 1번 전화를 하더라고요. 모니터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대답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다고 했어요. 한 번 통화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분만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불만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것만 되면 수당 이런 거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올해까지 사업하고 내가 내년에 계속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면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상담 일을 하던 선생님들이 다른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6. (그러면 혹시 상담복지 개발원에서는 어떤 점을 개선 노력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처우가 해마다 말하고 1년에 몇 번을 말하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는 상담복지직원들과 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처우가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기만큼만 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호봉도 인정해 주고 호봉도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무조건 연봉제로 가고 연봉도 적고 그런데 일단 호봉, 정규직 직원으로 호봉 인정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상담복지센터는 일단 그건 되고 있어요. 전국의 상담복지센터가 다 같지는 않고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은 그건 돼요. 근데 학교 밖 꿈드림에 대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얼마나 많이 뭔가 제안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 사람들도 독립된 기관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방어해줘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ㅁ 연수 지원

사3. 일단 연수 받는 것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문지 끝에 주관식에 어떤 경우 어떤 교육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교육을 넣어서 하든가 안 되면 상담, 활동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필수로 해서 보내주든지 그래야 직무연수라도 채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출장비도 사업비에서 쓰는 거지만 저쪽 팀은 다른 사업에서 지자체에서 받아서 쓸 때도 있는데 굳이 저쪽에 얘기해서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닌데 근데 우리도 대상자 필수가 아니면 못 가게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은 강화돼서.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해도 필수가 아니면 못 가게 해요. 필수 참석인 대상자만 가는 거예요. 전에도 진흥원에서 하는 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거기에 전국에 센터 수가 400개면 200여명만 오게 돼 있더라고요. 잘 보래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냐고 왜 거길 가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표가 바뀌었잖아요. 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때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상담복지개발원, 그러니까 저기도 제대로 우리 일이 편하게 해 주셔야지 취급이 좀 다르고 일단 조건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학교 밖을 나가고 싶어 해요. 활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진은 소진대로 되는데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요.

사10. 한청원에 바라는 건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참여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이 너무 멀거나 기간이 안 맞아서. 저희도 1년 15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계신데 업무랑 겹치다 보니까 교육가긴 힘든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많이 이수한 상태는 아니에요.

ㅁ 기타

사7.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중간에 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처럼 저희도 구 센터랑 그 사이에 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지 않나, 시도 센터가 시군구 센터를 총괄하고 때로는 선생님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고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희가 차라리 시도 센터가 상위 기관이라고 못을 박아두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하는 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시도 센터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8. 개발원에서는 올해부터 시군구는 시도한테 얘기하고 시도를 개발원이 관리하고 예전에는 시군구를 전부 다 했었는데 개발원도 업무 마비가 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시도한테 전달하고 시도가 개발원한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군구 뭔가 시도와 시군구는 상, 하 관계가 아니거든요. 동일한 건데 너무 이렇게 체계를 하위 기관으로 나누니까 시군구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시도한테 보고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시도는 개발원한테 보고 하지? 밑에 있는 시군구 입장을 다 듣고 개발원 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체계를 완전 바꾸셔서.

ㅁ 잘 모르겠음

사9. 저희는 크게 부딪힌 적이 없어서 저는 수련관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1.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 중앙정부

ㅁ 업무의 명확성

사1. 필요한 건 교육부랑 어느 정도 경계라고 해야 되나 구분선이라고 해야 되나 연계에서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학교 밖 사업인지 학교 밖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 저희 딱 학교 밖 지원 사업이 어디에 소속인지 어느 영역까지 이게 대상이, 그게 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다른 데도 계속 만나다 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저희가 딱 학교 밖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들, 저희 하다 못해 노동부에서도 받아서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도 전담해서 했었거든요.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하는 거랑 뭔가 좀 사업에 모호성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사3. (여가부는 어떤 것 같아요?) 여가부는 별다르게. (여가부든 교육부 다 연계돼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량으로 그냥 수치로 해서 우리한테 하달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리스트 학생들 받을 때 연계는 잘 되는 편인가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사4. (OO 쪽에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있는데 MOU가 체결이 안 돼서?) 그건 아마 한 청원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ㅁ 업무 지원

사2.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약간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원들이 있는데 OO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OO 근교에 OO이나 OO이나 이런 데서도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약간 그거는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도 잘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중앙에서?) 네, 해줬으면.

사6. 어쨌든 예산을 거머쥔 쪽은 여가부니까. (여가부나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꿈드림 센터 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해 줄 수 있을까요?) 예산을 확보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죠. 그리고 시설이나 준비를 해줘야죠. 개인사업체도 아닌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 시설도 아니고 개인 복지 시설도 아니고.

사7. 일단 현장의 실태를 알고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여성가족부가 힘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을 받아오셔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건강검진을 3년에 1번씩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나 봐요. 예산은 그 전에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산을 받아놨으니까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센터에 많이 오는지 검정고시 때 많이 오는지 상주해 있는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원만 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1번씩 보고를 드렸거든요. 몇 명 신청했다.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사실 학교에 있는 애들은 학교 오는 날에 다 받으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상주해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받고 그렇게 되려면 애들을 계속 닦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도 힘든 거죠. 애들한테 좋게 권유하는 거지 강요나 강제가 아닌데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과 예산을 받아주신 건 되게 감사한데 사업을 만드시는 사업의 어떤 계획을 하는 부분과 괴리가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건강에 관련된 건데 한 달에 1번씩 추가됐어요. 건강검진 초반에 이거 할래?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될 때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제가 부모님이라도 여기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힘들지만 애들도 힘들고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되고 건강검진 때문에 꿈드림 다른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5.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센터 자체도 있고 상담복지개발원도 있고 중앙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나 여러 개 연계돼 있고 그리고 ○○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취업사관학교나 지역 여러 연계 기관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들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희

는 어쨌든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파트에서 이런 것들 무엇보다도 방금 얘기해 주신 계약직이라는 고용 상태랑 그 다음에 뭔가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의견들이 사실 수집이 돼야 나중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때도 근거가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혹시 관련해서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혹시 이런 쪽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여가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취업사관학교 운영에 관해서 실무자들 의견을 들으려고 불렀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실무 ○○에 각 지역에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꿈드림센터 선생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쪽 여가부 과장님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피부와 와 닿지 않아요. 여가부는 너무 멀리 있어요. 저희랑, 저희랑 접촉하는데도 가장 하는 데는 시청이죠. 시청 직원, 그 다음에 도 센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 꿈드림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위탁되고 있어요

사8. 예를 들면 교육부랑 연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계까지 거기는 끝인 것 같아요. 뭐 잘 해보자, 그러면 이걸 해 줄게. 그게 끝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왜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교육부, 여가부가 연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업중단명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계해 주는 학교의 동의를 해 주는 실무자 선생님들은 왜 이걸 잘 모르고 있는지 연계가 돼서 받는 건 감사한데 왜 그걸 다시 물었을 때 실무자들 교육부에 속해 있는 실무자들은 직접적인 자기들은 사실 자기들 업무도 있고 이거 연계해 주는 게 귀찮겠죠. 그것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저희도.

ㅁ 고용의 안정성

사9. 고용 안정이겠죠. 사실 저 개인의 복지나 그런 욕심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 특성상 저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꿈드림센터의 평균 근속 기간이 8개월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실제로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들어 온지 1년 7개월 됐는데 저랑 같이 왔던 선생님들 반 이상이 퇴사하셨고 사실 그게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가부든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한테 돈을 많이 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10.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ㅁ 개선점 지원

사3.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만 집중을 못하잖아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애로사항만 생각하지 개선점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어요.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고 보호관찰 같은 경우도 거의 떠넘기기 식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력이 안 되는?) 크게 잘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어요. 상담한 내용을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경과 통보서라는 걸 주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저희가 적어줬던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길 했거든요. 상담하는 내용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했거든요. 후임 선생님이 관리하는 아이가 발끈한 거거든요. 내가 선생님한테밖에 얘기를 안했는데 왜 그 사람이 검정고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냐고 황당한 거예요. 비밀보장 원칙이 깨지니까 애들이 저희를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담 기관이 뭔지 모르고 의뢰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ㅁ 업무 지원

사4.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센터가 지자체마다 있는데 소방관 선생님들처럼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해 주더라도 얼마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급여도 다르고? 그런 건 통일을 어느 정도 시키거나?) 근데 그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도움을 더 받는 경우에는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도움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다 직영이 아니고 위탁 받은 것도 많으니까 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즈음 거의 다 위탁. (혹시 그러면 어떤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계세요?) 네.

사5. (○○에서는?) 다른 지역은 저는 잘 모르고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군구에 모든 시군구에 꿈드림 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표였어요. 옛날 여가부 장관님의 그래서 전국에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실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내 마음대로 갑자기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있는 걸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 운영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군구에 이미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꿈드림의 입김이 제일 센 곳은 상담복지센터죠.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꿈드림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제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 단체, 저희는 위탁이거든요.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지만 위탁은 위탁 단체 단체장의 어떤 이런 것들 것 많이 마인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제화고 그 다음에 법제화는 우선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 올 때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 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때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지침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주무관님이나 윗분들을 볼 때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 단체 이런 조례 이런 게 있나봐요.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런 걸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맞게 하세요. 지침관을 상충, 크게 상충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숙지할 수 없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로 넣기도 하거든요. 시군구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지역에서 지역의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화, 지원에 있어서 낫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조례가 있는 곳은 그래도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꿈드림 센터에 대해서 인지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조례가 없다는 뜻은 관심이 별로 없다.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ㅁ 홍보

사8. 지자체나 중앙 기관이나 꿈드림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여가부에서 PC방에 이런 거 하면 꿈드림 홍보했다고 하지만 그걸 보고 발굴된 아이는 1명도 없거든요.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나 중앙이나 센터 홍보에 대한 부분.

ㅁ 시설 지원

사6. (지자체에서는 좀 더 그런 센터의 시설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10. 저는 일단 팀장급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컨설팅을 하시거든요. 도 센터에서, 그 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여기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형태였고 저희 최근에 감사할 때도 오시고 그래서 도 센터랑 소통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드백이 잘 안 이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컨설팅을 분기별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최근 저희 선생님께서 다녀오신 적은 있었거든요. 네, 회의 다녀오셔서 각 센터마다 잘하고 있는 거, 힘든 거 공유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센터를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기 어려움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보면 ○○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역전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치가 너무 멀어서 애들이 과연 올까 재밌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셔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다 멀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거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긴 했지만 추후에는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ㅁ 고용의 안정성

사7.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꿈드림으로 별도로 예산을 주셔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좋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방의 다른 꿈드림은 구 센터가 다 같이 애들 좋은 거 해 주고 좋은 데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그 지자체 예산으로 다 정규직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꿈드림 직원들을, 정규직이 되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못하고 있는 건데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매워 주겠다고 하셔서 다 정규직하고 다 그렇게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은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지자체가 그 정도의 권한까지 갖고 있나 봐요?)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을 일부를 주시거든요.

ㅁ 없음

사9. 지자체는 제 생각에는 장소, 환경, 저희 센터, 다른 데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

사1. 응답없음
사2. 응답없음

질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및 개선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 연계기관

ㅁ 협력 부족

사3. (보호관찰소나 이런 기관에서?)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에도 강력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들 피해자들 개인정보 상당히 철두철미하잖아요. 그건 강조하면서 우리한테는 학교 밖 아이들 다 똑같은 건데 위에서 어떻게 조율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맨날 그래요. 윗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천날만날 얘기해도 소용 없다고 선생님들 사건 발생하면 우리한테 얘기 못해 주잖아요. 그랬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비밀 보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적인 얘기 못한다. 윗선에서 아무 얘기 없이 밑에 사람들한테 학교 밖 애들 발굴하라고 하니까 명단 좀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쉽게.

사6. 그런 게 별로 없고 사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잖아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너무 심하게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서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면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 초등학교 그리고 그 근처 ○○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도 가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집처럼 하니까 ○○ 초등학교에 가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아이들과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섞이면서 생기는 문제, 공동 생활 가정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생활 가정에서 아이들 4, 5명 같이,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서 ○○초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많이 그리고 여기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면 저희 센터로 연계가 됐어요. 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방문하거나 방문해달라 제가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글쎄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계되는 기관들은 사실 우리의 입장이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되게 많이 배려해 주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그런 편이고 연계를 할 때도 대게 다 호의적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별로 없어요. 몇몇 폐쇄적인 곳 빼고 학교나 이런 데도 학교도 사실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 약간 그런 게 안 돼요. 다른 지역은 학교랑 연계가 많이 돼서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는 잘 안 돼요. (아직 인식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상담복지센터와 연관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사업을 해오면서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따로 있다는 걸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구나,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은 거기로 연계해야 된다는 인식은 해요. 근데 저희가 뭔가 집단이나 예를 들어 두드림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들어가요. 상담복지센터로 의뢰가 학교에서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학교 밖이랑 같이 가요. 학교 밖 선생님 1명 여기 선생님 같이 가서 실적을 공동으로 잡아요. 그래서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저희랑 같이 진행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가고 여기 실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

관 없이,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학교들은 상담복지센터와 뭘 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뜬금없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쪽에서 배려를 해서 이런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8. 저희한테 특히 연계를 해 주시는 기관에서 그냥 대상자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센터에 잘 올 수 있도록 거기서도 아이들한테 푸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연계합니다. 서류만 주고 저희가 이걸 그쪽 사실 연계한 기관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심이 좀	더 높아하고 저희 쪽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 선생님들도 다 바쁘시니까 그것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1. 응답없음 사2. 응답없음 사4. 응답없음 사5. 응답없음 사7. 응답없음 사9. 응답없음 사10. 응답없음

Abstract

The study searches targeting strategies for out-of-school youth by analyzing the types of changes across the trajectory they have experienced after dropout, transitory pathways and sizes of residential area. Additionally, we aim to analyze the service referral status, usage, and participation effect of K-dream center for dropout youth. To do this, we conduct in-depth interviews to case managers and youth panels, in addition to youth panel survey. With the panel survey, we analyz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youth transitory pathways and their demands in association with sizes of a residential area and service effects of K-dream center. We analyzed the usage status of K-dream center based on the case management of youth panels referred to K-dream center over the last year. With interviews, we analyze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and new panels, as well as between case managers and youth, in terms of a motivation of visiting K-dream center, service usage and satisfaction. We research policy trends in advanced societies by organiz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 overseas field trip.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80% of out-of-school youth maintain living in one's residential area, presenting little mobility. Second, urban youths are likely to go to college after taking the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whereas rural youths tend to stay inactive. They are less motivated and undetermined in career planning than urban youths. Urban youths need career guidance as they tend to be unrealistic by overrating one's capacity and they don't work as suitable opportunities are unavailable or simply they are unmotivated. Rural youths tend to be socially withdrawn and less motivated. Urban youths appeal their needs, yet rural youths rarely do. Third, classified by transitory pathways, youths in unemployment tend to make a transition to education or employment, whereas youths in employment to unemployment. Fourth, younger youths in education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K-dream center.

Youths with high levels of impulsiveness tend to drop out from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lients' response, K-dream center most commonly provides academic programs (e. g.,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preparation). Although we find high demand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e service proportion is low. Referral to vocational training service represents a low proportion in the external organization referral. Service hour mismatch with youth is the major cause of not providing the requested service. Fifth, the size of youth out-of-school is estimated as 40 millions of 7- to 18-year-old individuals and 37 millions of 19- to 24- year-old ones. The approximate size of unemployed youth out-of-school is 51,000 aged from 15 to 19. Sixth, compared to the overseas, we find a lack of domestic policy support for unemployed youths. Policy support for this group must be strengthened in future.

Based on the study outcomes, we suggest five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with 22 projects. The five areas are a. policy support for NEET youth, b.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measures, c. support measures for socially withdrawn unemployed youth, d. strengthening community policy, and e. service delivery system, strengthening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Keyword: Youth out-of-school, youth out-of-school transitory pathway, targeted support policy by different types of transitory pathways.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김기헌 · 이윤주 · 유설희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헌 · 이윤주 · 유설희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억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정책제언 – / 양계민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 김경준 · 정은주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 · 홍영란 · 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 · Ainley, J · Losito, B · 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7-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 · 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 · 유민상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 · 김영한 · 윤옥경

수 시 과 제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 · 이윤주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 · 중 · 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 · 김기헌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 · 김기헌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 · 진은설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헌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헌 · 한지형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헌 · 하형석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 · 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7.27)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 세미나 (9.9, 9.16)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 · 중 · 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I

인 쇄 2017년 12월 31일
발 행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8-4 93330

연구보고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3330
9 791156 541684
ISBN 979-11-5654-168-4